정답과 해설

채움

현대시

Ⅰ. 단독 4

Ⅱ. 복합 ❶ 25

Ⅲ. 복합 ❷ 149

빠른 정답 찾기

Ⅰ 단독

본문 18~37쪽

01	001 ② 002 (1) × (2) × (3) ○ 003 ④ 004 ④ 005 ㄱ, ㄴ, ㄷ 006 ⑤
02	007 ② 008 (1) × (2) × (3) ○ 009 ④ 010 ④ 011 ④
03	012 ④ 013 (1) ○ (2) × (3) ○ 014 ③ 015 ② 016 (1) 청춘기, 성숙 (2) 긍정적 (3) 이별
04	017 ② 018 ㄱ, ㄴ, ㄷ 019 ③ 020 ① 021 (1) ○ (2) × (3) ○
05	022 ④ 023 (1) × (2) ○ (3) ○ 024 ③ 025 ④ 026 (1) 외로움, 그리움 (2) 수용 027 ③
06	028 ③ 029 ③ 030 ③ 031 ④ 032 (1) 너 (2) 산업화 (3) 낯익은 얼굴들
07	033 ② 034 (1) 기 (2) 수미상관 (3) 시각적 035 ⑤ 036 ⑤ 037 ③
08	038 ④ 039 (1) ○ (2) × (3) × 040 ① 041 ③ 042 ②
09	043 ② 044 (1) × (2) × (3) ○ 045 ② 046 ① 047 ③
10	048 ④ 049 (1) ○ (2) × (3) ○ 050 ④ 051 ② 052 ③

Ⅱ 복합 ❶

본문 40~163쪽

11	053 ④ 054 (1) × (2) ○ (3) ○ 055 ② 056 ⑤ 057 (1) 육지, 섬 (2) 플라스틱 물건, 호미 058 ① 059 ② 060 ③ 061 ②
12	062 ⑤ 063 (1) ○ (2) ○ (3) × 064 ③ 065 ② 066 ② 067 ② 068 ④ 069 ㄴ 070 ②
13	071 ⑤ 072 ① 073 ③ 074 ② 075 (1) ○ (2) ○ (3) × 076 ⑤ 077 ① 078 (1) 활자 (2) 붙박힌 말들 (3) 숨죽이고 079 ②
14	080 ④ 081 (1) ○ (2) ○ (3) × 082 ① 083 ② 084 ④ 085 ④ 086 ③ 087 ④
15	088 ② 089 (1) ○ (2) ○ (3) × 090 ⑤ 091 ③ 092 ㄴ 093 ⑤ 094 ④ 095 ① 096 ④
16	097 ① 098 (1) × (2) ○ (3) ○ 099 ① 100 ④ 101 ㄱ, ㄷ 102 ④ 103 ③ 104 (1) 생명감 (2) 색채 (3) 토속적 105 ③
17	106 ① 107 (1) ○ (2) × (3) ○ 108 ② 109 ④ 110 ② 111 ③ 112 ③ 113 (1) 먼 길, 하늘 (2) 너, 우리 (3) 마당 114 ⑤
18	115 ⑤ 116 (1) ○ (2) ○ (3) × 117 ⑤ 118 ③ 119 ㄱ, ㄴ 120 ③ 121 ④ 122 (1) 낳는다 (2) 걷히는 (3) 경이로움 123 ④ 124 ②
19	125 ① 126 (1) ○ (2) × 127 ④ 128 ⑤ 129 ① 130 ② 131 ③ 132 (1) 낯선 (2) 사랑 (3) 잰나비 우는 133 ②
20	134 ② 135 (1) (가), (나) (2) (가) (3) (나) 136 ⑤ 137 ① 138 (1) ○ (2) × 139 ④ 140 ③ 141 (1) 아름다움 (2) 봄 (3) 대상의 묘사 142 ④
21	143 ③ 144 ③ 145 ⑤ 146 ② 147 (1) ㉤ (2) ㉣ (3) ㉠, ㉡, ㉢ 148 ③ 149 ② 150 (1) 모더니즘, 현대 문명, 토속적 (2) 지성 (3) 조화 151 ① 152 ②
22	153 ④ 154 ② 155 ④ 156 ③ 157 (1) ○ (2) × (3) ○ 158 ③ 159 ③ 160 (1) 피폐한 (2) 자조적 (3) 저항 161 ③ 162 ④
23	163 ② 164 ② 165 ① 166 ③ 167 (1) × (2) ○ (3) × 168 ④ 169 ⑤ 170 ① 171 ⑤
24	172 ① 173 (1) (가), (나) (2) (가) (3) (가) 174 ⑤ 175 ② 176 ② 177 ④ 178 ④ 179 (1) ○ (2) × (3) ○ 180 ⑤
25	181 ② 182 (1) (가) (2) (가), (나) (3) (나) 183 ④ 184 ③ 185 (1) ○ (2) × 186 ⑤ 187 ③ 188 ② 189 ③ 190 ④ 191 (1) 안 (2) 바다
26	192 ② 193 ㄴ, ㄷ 194 ② 195 ① 196 (1) ○ (2) × (3) ○ 197 ① 198 ② 199 (1) 청자로 설정 (2) 대비되는 (3) 대비, 동일시 200 ①
27	201 ④ 202 ① 203 ⑤ 204 ④ 205 (1) × (2) ○ 206 ② 207 ② 208 (1) 유랑민 (2) 향수 (3) 유년 209 ③
28	210 ⑤ 211 (1) ○ (2) × (3) ○ 212 ⑤ 213 ② 214 (1) 신중하게 (2) 구속 (3) 속박 215 ③ 216 ② 217 ② 218 ⑤ 219 (1) ○ (2) ×
29	220 ① 221 ㄴ, ㄹ 222 ① 223 ② 224 (1) 하얀 식물 (2) 확장 225 ④ 226 ④ 227 (1) ○ (2) × (3) × 228 ⑤
30	229 ③ 230 (1) (나) (2) (가), (나) (3) (가) 231 ① 232 ⑤ 233 (1) ○ (2) × (3) × 234 ① 235 ③ 236 (1) 고립 (2) 탈속적 (3) 포용 (4) 늙은 237 ⑤
31	238 ④ 239 ㄷ 240 ③ 241 ⑤ 242 (1) × (2) ○ (3) × 243 ② 244 ③ 245 (1) 부인 (2) 지연 (3) 수를 놓는 (4) 주체적 246 ④
32	247 ③ 248 (1) ○ (2) × (3) ○ 249 ③ 250 ④ 251 (1) 북간도 (2) 슬픔에 공감 (3) 각박한 252 ⑤ 253 ⑤ 254 (1) ○ (2) ○ (3) × (4) ○ 255 ③ 256 ①
33	257 ③ 258 ㄱ, ㄷ 259 ② 260 ④ 261 (1) × (2) × 262 ⑤ 263 ① 264 (1) 외적인 힘 (2) 내 고향 (3) 대비되는 265 ③

34	**266** ① **267** ㄱ, ㄴ **268** ⑤ **269** ③ **270** (1) ○ (2) × (3) ○ **271** ① **272** ② **273** (1) 느티나무 (2) 상처 투성이인 **274** ⑤
35	**275** ④ **276** ② **277** ⑤ **278** ⑤ **279** (1) 현실의, 마음속 (2) 불일치 (3) 상실감 **280** ④ **281** ① **282** (1) ○ (2) ○ (3) × **283** ⑤
36	**284** ② **285** (1) (가), (나) (2) (나) (3) (가) **286** ② **287** ④ **288** (1) × (2) ○ **289** ② **290** ⑤ **291** (1) ○ (2) ○ (3) ○ (4) × **292** ④
37	**293** ① **294** (1) (나) (2) (가), (나) (3) (가), (나) **295** ③ **296** ④ **297** (1) ○ (2) × **298** ② **299** ③ **300** (1) 눈꽃을 피우기 (2) 순간적인, 인내와 헌신 (3) 눈꽃 **301** ⑤
38	**302** ③ **303** (1) (가) (2) (가), (나) (3) (가), (나) (4) (나) **304** ③ **305** ③ **306** (1) ○ (2) × (3) ○ **307** ② **308** (1) 대상의 이미지 (2) 황량한 **309** ② **310** ③
39	**311** ③ **312** ㄱ, ㄷ **313** ⑤ **314** ⑤ **315** ③ **316** ① **317** ④ **318** (1) ○ (2) × (3) ○ (4) ○ **319** ⑤ **320** ⑤
40	**321** ③ **322** (1) × (2) ○ (3) ○ **323** ⑤ **324** ③ **325** (1) 청각, 촉각 (2) 시원함 (3) 서글픈, 애정 **326** ⑤ **327** ④ **328** (1) 이상적 (2) 좌절 (3) 교감 (4) 속물적인 현실 **329** ④
41	**330** ② **331** ㄴ, ㄹ **332** ④ **333** ① **334** ④ **335** ③ **336** (1) × (2) ○ (3) ○ **337** ④

Ⅲ 복합 ❷

본문 166~229쪽

42	**338** ③ **339** (1) (가), (나), (다) (2) (가) (3) (다) **340** ③ **341** ⑤ **342** (1) 백골 (2) 또 다른 고향 (3) 먼 지평선, 까마귀 **343** ② **344** ② **345** ③ **346** ④ **347** ⑤
43	**348** ⑤ **349** ㄴ, ㄷ **350** ⑤ **351** ④ **352** ④ **353** ⑤ **354** (1) × (2) × (3) × **355** ④ **356** ④ **357** (1) 그릇 (2) 노래 (3) 살아 있는, 뇌수 **358** ②
44	**359** ④ **360** (1) (가), (나), (다) (2) (다) (3) (나) **361** ③ **362** ③ **363** (1) × (2) ○ (3) ○ (4) ○ **364** ③ **365** ④ **366** ㄱ, ㄹ **367** ⑤ **368** ④
45	**369** ⑤ **370** (1) ○ (2) × (3) ○ **371** ④ **372** ⑤ **373** (1) 밤 (2) 안타까움 **374** ④ **375** ⑤ **376** ⑤ **377** (1) 잔나비떼 (2) 눈보라 (3) 산짐승들 **378** ②
46	**379** ③ **380** (1) ○ (2) × (3) ○ (4) ○ **381** ④ **382** ⑤ **383** (1) (가), (나), (다) (2) (나) (3) (가), (나), (다) **384** ② **385** ③ **386** ㄱ, ㄷ **387** ③ **388** ② **389** ① **390** ①
47	**391** ④ **392** (1) ○ (2) ○ (3) × **393** ① **394** ③ **395** ㄱ, ㄴ, ㄹ **396** ⑤ **397** (1) 사랑 (2) 밧줄 (3) 불가항력적 **398** ③ **399** ④ **400** ③
48	**401** ③ **402** ③ **403** ① **404** ⑤ **405** ㄱ, ㄴ, ㄷ **406** ③ **407** ③ **408** (1) × (2) ○ (3) ○ **409** ③ **410** ⑤ **411** (1) 묘지 (2) 흰나비 (3) 가지 **412** ②
49	**413** ① **414** ② **415** ② **416** ④ **417** (1) ○ (2) × (3) ○ **418** ③ **419** ② **420** (1) 침묵 (2) 노래 (3) 소통 **421** ④ **422** ②
50	**423** ② **424** (1) ○ (2) × (3) ○ (4) ○ **425** ④ **426** ① **427** (1) 하늘 (2) 저쪽 (3) 미타찰 **428** ② **429** ⑤ **430** ㄱ, ㄴ **431** ② **432** ① **433** ③
51	**434** ④ **435** (1) × (2) × (3) ○ **436** ② **437** ③ **438** (1) ㉢ (2) ㉡ (3) ㉣ **439** ③ **440** ③ **441** (1) 벗 (2) 독 (3) 일제 강점기의 현실 **442** ③ **443** ③
52	**444** ① **445** (1) 휴전선 (2) 우포늪 (3) 오심암 **446** ③ **447** ② **448** (1) ○ (2) × **449** ① **450** ⑤ **451** ④ **452** ④ **453** (1) ○ (2) ×
53	**454** ⑤ **455** (1) × (2) ○ (3) ○ (4) ○ **456** ① **457** ③ **458** (1) 서른여섯 해 (2) 보리 **459** ⑤ **460** ② **461** (1) 결실 (2) 관심 (3) 지키지 못한 **462** ④ **463** ④
54	**464** ③ **465** (1) × (2) × **466** ① **467** ② **468** ③ **469** ④ **470** ③ **471** ② **472** ④ **473** (1) 성에 (2) 장거리 (3) 요황과 위자, 범상한 화초
55	**474** ③ **475** (1) × (2) ○ (3) ○ **476** ① **477** ⑤ **478** ① **479** ④ **480** ③ **481** ⑤ **482** ④
56	**483** ① **484** (1) ○ (2) ○ (3) × **485** ④ **486** ② **487** (1) 현재 (2) 통합 **488** ④ **489** ⑤ **490** ㄱ, ㄴ, ㄹ **491** ④ **492** ④ **493** ①
57	**494** ④ **495** (1) ○ (2) × (3) × **496** ② **497** ⑤ **498** ⑤ **499** ② **500** (1) 중첩 (2) 시간 **501** ④ **502** ②

I 단독

01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작품 분석 본문 18~19쪽

작가 황지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
특징 ① 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를 드러냄.
② 시구의 반복과 점층적 전개를 통해 의미를 강조함.
③ 상승적·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자립성과 생명력을 지닌 (**나무**)
❷ 냉혹한 현실 속에 (**서**) 있는 나무
❸ 나무의 저항과 극복 (**의지**)
❹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노력하여, 고난을 극복한 나무가 이루어 낸 결과

00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근경**: 가까이 보이는 경치. 또는 가까운 데서 보는 경치.
- **원경**: 멀리 보이는 경치. 또는 먼 데서 보는 경치.
- **포착**: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 **토속어**: 어떤 지방의 고유의 정취가 느껴지는 말.

정·정·이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나무의 변화하는 모습을 연결 어미 '-면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 터지면서' 등에서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나무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시에는 청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는 토속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부재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00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이 시에는 반어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재 청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적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001번-①의 해설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영상으로', '막 밀고 올라간다' 등에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나무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0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상반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나무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 시에서는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노력하여 고난을 극복한 나무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벌 받는', '이게 아닌데' 등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대상을 주체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무를 겨울을 이겨 내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의인화하고 있다.

③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불타면서', '부르터지면서',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푸

르른 사월 하늘' 등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견디며 봄을 맞아 푸른 잎과 꽃을 피우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접속 부사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여 부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대상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를 전후로 시상이 전환되면서 영하의 날씨로 고통을 받던 나무가 자기 부정을 한 후 내적 노력과 의지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0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A]에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B]에서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그 싹이 푸른 잎이 되어 하늘을 들이받는 모습은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A]의 '온몸을 뿌리 박고'에서 하강적 이미지가, [B]의 '내밀고', '하늘 들이받으면서'에서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② 헛짚기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A]의 '뿌리 박고'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굳건함을 나타내므로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B]의 '부르터지면서' 역시 영하에서부터 영상 13도까지 지상으로 막 밀고 올라가 싹을 틔우는 나무의 생명력을 보여 주므로 좌절감과 관계없다.

③ 헛짚기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의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정을 드러낸다.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의 혹한을 꿋꿋이 이겨 내는 모습을, [B]의 '들이받으면서'는 하늘 높이 잎을 틔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싹'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A]의 '벌'은 나무가 헐벗은 몸으로 추위를 맞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겨울-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그러나 [B]의 '싹'은 그 시련을 견디고 틔운 결과물이므로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05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면적**: 일정한 범위 전체에 걸치는 것.

정·정·이

ㄱ. [A]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A]에서는 영하의 추위에서 헐벗은 채 서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ㄴ. [B]는 고난 극복을 위한 나무의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B]에서는 온몸이 으스러지고 부르터지면서도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을 피우는 나무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ㄷ. [A]와 [B]는 현재 시제를 통해 나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A]의 '뿌리 박고', '쳐들고' 등에서, [B]의 '내밀고', '들이받으면서' 등에서 현재 시제를 통해 나무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ㄹ. 화자 오류 [A]에서 [B]로 갈수록 화자는 나무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영하의 날씨에 헐벗은 채 서 있던 '겨울-나무'가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봄-나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고 있을 뿐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00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배치**: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둠.
- **지연**: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 또는 시간이 늦추어짐.
- **비약**: 지위나 수준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됨.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은 나무가 겨울을 이겨 내고 싹을 내밀어 푸른 잎이 되기까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며, ㉡은 나무가 자신의 온몸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

온 표현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나무의 외적 변화와 내면을 동시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과 ㉡은 쉼표로 인해 끊어 읽게 됨으로써 시상의 진행이 잠시 속도를 늦추게 된다(①). 그리고 이렇게 호흡이 느려짐으로써 독자는 나무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좀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②).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싹'이 '잎'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천천히', '서서히'는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이 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림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는 '자기의 온몸으로'에서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의 비약적 상승에 대한 화자의 감탄과 감동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 윗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의 시구에 담긴 의미와 그 기능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예요. ㉠과 ㉡의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뒤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또 ㉠과 ㉡에서 쉼표와 유의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해요.

02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작품 분석 본문 20~21쪽

작가 나희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

특징 ① 의인법과 도치법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바를 강조함.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③ 지시어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초점을 모음.
④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구체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나')**)의 편견(선입견)과 이해의 과정

❷ 화자의 (**복숭아나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감

0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와 같이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중심 소재인 '복숭아나무'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시는 높임의 종결 어미 '-습니다', '-ㅂ니다'를 사용하여 고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할 뿐,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헛짚기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2연의 마지막 행에서 서술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어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고,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시상의 마무리는 상황의 긴박성과 관련이 없다.

④ 헛짚기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복숭아나무'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흰꽃', '분홍꽃' 등에서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정·오 지름길

①~⑤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 즉 '경어체를 사용', '지시어를 반복', '도치된 문장', '의인법', '색채어'는 이 시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표현상의 특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주목해야 해요. 표현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의 경우 표현 방식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적절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00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미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

이 시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을 뿐, 미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부재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이 시에는 상징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환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도 않다.

(3)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조금은 심심한 얼굴' 등에서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0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어체**: 상대에 대하여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문체.
- **시적 여운**: 시를 읽고 난 후에 마음에 남아 있는 운치(고상하고 우아한 멋).

정·정·이

④ 부재 대상이 지닌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야겠군.

이 시에서는 복숭아나무가 지닌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수천의 빛깔'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고백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어체를 사용해야겠군.

②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해 유사한 종결 어미와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해야겠군.

이 시에서는 높임의 종결 어미 '-습니다', '-ㅂ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고백적 분위기를 조성하고(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②).

③ 작품을 읽은 후에도 시적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문장을 도치시켜 표현해야겠군.

'가만히 ~ 오는 소리를'에서는 말의 차례를 바꾸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겠군.

'흰꽃과 분홍꽃', '수천의 빛깔', '복숭아나무 그늘'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1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촉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피우고 싶은 꽃빛'이 많아서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는 화자가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에서 복숭아나무에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1연 3행에 드러난 복숭아나무에 거리를 두는 화자의 마음이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멀리로 멀리로만'은 복숭아나무를 피하는 화자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복숭아나무에 거리를 두던 화자의 인식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보고 바뀌게 된다. 이때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E]는 화자가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은 후의 상황이다. 화자는 그 수천의 빛깔이 '흩어진 꽃잎들'이 되어 먼 데로 날아간 후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가까이에서 본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01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에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타인의 모습을 인식하게 됨.~~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에서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수많은 '꽃빛'을 피우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이기에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에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타인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에서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나타남.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에는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관찰한 화자의 선입견이 나타나 있다.

② '멀리로 멀리로만'에서 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남.

'멀리로 멀리로만'에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생겨난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나 있다.

③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에서 타인의 본모습을 발견함.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에서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본질, 즉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는 이 시구를 통해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알지 못했던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발견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에서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함.

'복숭아나무 그늘'은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만히 들었습니다'를 통해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낙화

작품 분석 본문 22~23쪽

작가 이형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특징 ① 자연 현상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냄.
③ 추상적 대상을 자연물로 구체화하여 표현함.
④ 의인법, 영탄법, 은유법, 직유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낙화)의 아름다움 –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의 아름다움
❷ 꽃이 짐. – (사랑)이 끝남.
❸ 낙화를 순리로 받아들임. – (이별(결별))을 순리로 받아들임.
❹ (열매)를 맺기 위한 낙화 – 성숙을 위한 이별
❺ 아름다운 낙화의 모습 –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
❻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짐.

01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충만**: 한껏 차서 가득함.
- **직면**: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감내**: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냄.
- **번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 **회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정·정·이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봄에 꽃이 짐으로써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화자는 ㉣에서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별의 경험도 내적 충만과 성숙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을~~ 드러내고 있다.

㉠은 화자가 이별해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내적인 방황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화자 오류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격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이란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서 화자는 꽃이 지듯 젊은 때의 사랑이 끝났음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이별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화자 오류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 '무성한 녹음'은 봄에 꽃이 떨어진 후 여름이 되면 맞이할 모습으로 이별 후 찾아올 모습이기도 하다. 이는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므로 화자가 삶의 목표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은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짐을 '샘터에 물 고이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1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에서 화자는 낙화의 모습을 통해 성숙한 이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다. (○, ×)

㉠에서 화자는 꽃이 떨어지는 자연 현상을 보고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다.

(2) 부재 ㉢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별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3) ㉣의 '열매'는 '성숙하는 / 내 영혼'과 의미가 연결된다. (○, ×)

㉣의 '열매'는 '성숙하는 / 내 영혼'과 의미가 연결되어,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1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4연의 '무성한 녹음과 ~ 맺는 / 가을'로 보아 가난에서 오는 절망을 극복한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

'무성한 녹음과 ~ 맺는 / 가을'은 낙화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 시에서는 꽃이 떨어져야 무성한 녹음을 이루고 열매가 맺히는 자연 현상에 대응시켜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구를 가난에서 오는 절망을 극복한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2연의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로 보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거기에서 오는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보여.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에서는 '나'의 사랑과 꽃을 동일시하여 꽃이 떨어짐을 통해 사랑이 끝났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별로 인한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3연의 '분분한 낙화'로 보아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와 그것에 순응하는 태도로 읽을 수 있어.

3연에서는 '분분한 낙화', 즉 어수선하게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5연의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로 보아 인생의 청춘기와 성년기의 경계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의 노래로 볼 수 있어.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는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청춘이 끝났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청춘기와 성년기의 경계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7연의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으로 보아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은 이별의 아픔을 통해 '나'의 영혼이 성숙해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미성숙에서 성숙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1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2연의 '봄 한철'과 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 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봄 한철'은 뒤에 이어지는 행을 볼 때 격정의 시간이고, 〈보기〉에 따르면 청춘기의 시간과 청춘기의 열정적인 사랑을 비유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꽃답게 죽는다'는 '낙화', 즉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청춘과 청춘기의 사랑이 끝남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봄 한철'과 '꽃답게 죽는다'라는 표현이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 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오·오·이

① 1연과 3연의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군.

'가야 할 때'는 이별해야 할 때로,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이다. 이 이별은 내적 성숙으로 이어지므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③ 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결별'을 '축복'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별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④ 6연의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꽃을 의인화하여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세계와의 관계가 변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내 영혼의 슬픈 눈'은 앞 행의 '성숙하는'과 연결되어 이별의 아픔을 통해 성숙해 가는 화자의 자아상을 보여 주고 있다.

016 답 (1) 청춘기, 성숙 (2) 긍정적 (3) 이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봄 한철'은 (청춘기, 노년기)를, '가을'은 (고난, 성숙)의 계절을 의미한다.

'봄 한철'은 젊은 시절, 즉 청춘기를 의미하고, '가을'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 즉 성숙의 계절을 의미한다.

(2) 상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화자가 역설적 인식을 통해 이별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화자는 결별을 축복으로 여기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상반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아름다운 낙화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 이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꽃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의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4 접동새

작품 분석 본문 24~25쪽

작가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비극적 삶을 초월하려는 애절한 혈육의 정
특징 ① 「접동새 설화」를 차용함.
②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나타남.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접동새)의 울음소리
❷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우는 누나(접동새)
❸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은 누나
❹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
❺ (동생들(오랩동생))을 못 잊어 슬피 우는 누나(접동새)

01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애상적**: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 **완급**: 느림과 빠름.
- **유기적**: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것.

정·정·이

② 부재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명령형 문장을 찾을 수 없다. '누나라고 불러 보랴'에서 '-랴'는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명령형 문장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누이가 죽은 비극적 상황을 애상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진두강 가람가', '진두강 앞마을' 등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한 연 안에서도 행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행과 짧은 행을 교차하여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연과 3연에서 각각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이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운다는 내용의 2연과 그 이유가 제시된 3연을 결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018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차용**: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

정·정·이

ㄱ.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계승하여 표현하고 있다.

'진두강∨가람가에∨살던 누나는' 등에서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사용되었다.

ㄴ. 유사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5연의 마지막 시행에서 종결 어미 '-ㅂ니다', '-습니다'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ㄷ. 설화를 차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접동새 설화」를 차용하여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한과 남겨진 아홉 동생을 향한 누나의 애절한 혈육의 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ㄹ.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01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음성 상징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음성 상징어인 '접동'을 반복·변주하여 한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부재 ~~전명한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색채 이미지의 대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부재 ~~처음과 끝부분을 구조적으로 대응시켜서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처음과 끝부분을 구조적으로 대응시켜 시적 안정감을 주는 수미상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진두강 가람가', '진두강 앞마을' 등 구체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

02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미련**: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 **자책**: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정·정·이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 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누나'가 죽어서도 동생들을 '차마' 못 잊고 걱정하며 밤마다 슬피 우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남겨 둔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3연의 '시샘'이 4연에서 '시새움'으로 변주된 것은 시의 음악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③ 헛짚기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누나가 '이 산 저 산' 떠도는 것은 의붓어미의 눈을 피해 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④ 헛짚기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누나가 '야삼경'에 우는 것은 '야삼경'이 의붓어미를 포함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이기에 의붓어미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헛짚기 '오랍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누나는 의붓어미의 시샘 때문에 죽은 것이므로 누나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책한다는 것은 이 시의 상황과 맞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 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보기〉에서는 김소월의 시에서 한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나'의 한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누나가 '차마' 못 잊는다고 한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02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는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을 드러내고 있다. (○, ×)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는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헛짚기 '차마 못 잊어'에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붓어미에 대한 누나의 원망~~이 담겨 있다. (○, ×)

'차마 못 잊어'는 죽은 누나가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낼 뿐, 의붓어미에 대한 누나의 원망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3) '이 산 저 산'으로 떠도는 접동새는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

접동새가 '이 산 저 산' 옮아가며 슬피 우는 것은, 죽어서도 동생들을 못 잊어 의붓어미의 눈을 피해 다니며 우는 누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05 흰 바람벽이 있어

작품 분석 본문 26~27쪽

작가 백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의지
특징 ① '흰 바람벽'을 매개체로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의 정서를 형상화하여 표현함.
② 화자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흰 바람벽)에 비친 쓸쓸하고 애처로운 삶의 단면
❷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
❸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인식 ① – 운명의 (수용)
❹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인식 ② –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현실 극복 (의지)

02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반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시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오·오·이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흰 바람벽', '가난한 늙은 어머니', '글자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한다.

현재형 어미 '–ㄴ다', '–는다'를 통해 흰 바람벽을 보며 상념에 젖어 있는 화자의 시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③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

화자는 좁다란 방에서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 말하며 쓸쓸하고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독백의 어조를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도치의 구문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초생달과 ~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라는 시구가 도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운명을 수용하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02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나를 위로하는 듯이 ~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등에서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화자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

화자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고결한 삶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3)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

'희미한 십오 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시각), '달디단 따끈한 감주'(미각, 촉각),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공감각),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촉각) 등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02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미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는 있으나, ㉢은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나타낸 것일 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에서는 전등을 의인화하여 지쳐 있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② ㉡: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에서는 때에 절고 낡은 무명 셔츠를 통해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에서는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인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신과 같이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인물로 '프랑시스 잠,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를 나열하고 있다.

0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B]에서는 타인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되고, [D]에서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B]에서 화자는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떠올리며 그리움과 애틋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B]와 [D]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B], [D] 모두 화자가 방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B]와 [D]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B]의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만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 있다.

③ 범위 오류 [B]와 [D] 모두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전환한다.

[D]에서 화자가 자신을 높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B]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B]에서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D]에서는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난다.

[B]에서 화자는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D]에서 화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6 답 (1) 외로움, 그리움 (2) 수용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화자는 [A]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B]와 [C]에서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A]의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에서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B]에서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C]에서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 상반 [D]와 [E]에서 화자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수용, 거부)하고 있다.

[D]와 [E]에서 화자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02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응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
- **침잠**: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함.

정·정·이

③ 화자 오류 [B], [C]에 나타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D]에서 자기 연민으로 전환되고 있다.

화자는 [B]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을, [C]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아닌 곁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D]에서 화자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 자기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에서는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던 화자의 시선이 내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A]에서 화자는 '십오 촉 전등', '무명 셔츠' 등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다가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즉 내면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② [B], [C]에서는 [A]의 '흰 바람벽'을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화자는 [A]에서와 같이 [B], [C]에서도 '흰 바람벽'을 보고 있으며, [B]에서는 어머니를, [C]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

④ [D]에서 지나가는 글자들에 내재된 자기 긍정의 정서가 [E]에서 강화되고 있다.

[D]에서 화자는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높고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기 긍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E]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을 귀해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D]보다 더 강화된 자기 긍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D]에 나타난 애상적 정서에 침잠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E]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을 귀해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애상적 정서에 침잠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6 상행

작품 분석 본문 28~29쪽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왜곡된 근대화와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함.
② 근대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③ '~ 다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현실에 순응하여 비판 의식 없이 사는 소시민적 모습에 대한 (**비판**)
❷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❸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02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수미상응**: 시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비슷하거나 같게 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 수미상관, 수미쌍관.
- **투영**: 화자의 정서나 생각 등을 다른 대상에 반영하여 나타내는 표현.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정·정·이

③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생각지 말아 다오', '고개를 끄덕여 다오',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얼마나 경쾌하냐',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침묵해 다오' 등에서 시의 내용을 화자의 실제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를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회상의 방식을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회상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수미상응의 구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비슷하거나 같게 하는 수미상응의 구조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화자의 정서를 특정 사물에 투영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를 특정 사물에 투영하고 있지 않으며,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도 않다.

02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은 ~~역설적 표현~~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외형적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로 표상된 외형적 경제 발전이 부정적 요소를 가리고 있다는 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어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주간지'로 표상된 부정적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근대화된 사회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은 '풀벌레의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근대화로 인한 환경 파괴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03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C]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다.

[C]에는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와 같이 의식하지 않으면 듣기 힘든 소리와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와 같이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대비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전환되지는 않는다.

오·오·이

① [A]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시상을 시작하고 있다.

[A]에는 '가을',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상행 열차'의 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② [B]에서는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B]에는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 낯익은 얼굴들',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 등과 같이 당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제시되어 있다.

④ [D]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놀라울 때',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이 어색할 때' 등 상황을 가정하여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지 못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너'에서 '너'와 '나'로 대상을 확장하여 시적 상황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자인 '너'에게만 말하다가 [E]에서는 '너'와 '나'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임을 밝힘으로써 시적 상황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03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직면**: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개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 **이면**: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 **외면**: 어떤 사상이나 이론, 현실, 사실, 진리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함.

정·정·이

④ 헛짚기 A는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적 화자(A)가 인식 변화를 요청하는 존재는 낯선 얼굴(B)이 아니라 낯익은 얼굴들(C)이다. 시적 화자는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낯익은 얼굴들이 문제의식을 가진 낯선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오·이

① A는 개인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너'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시적 화자(A)는 '너'에게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등과 같이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너'에게 지금과 같은 개인주의적 태도를 버리라고 일깨워 준다고 볼 수 있다.

② B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낯선 얼굴(B)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존재, 급속하게 산업화된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존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C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낯익은 얼굴들(C)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존재, 부정적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A는 '너'가, C로 대표되는 삶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냉철한 인식을 지니도록 요청하고 있다.

시적 화자(A)는 '그것(낯선 얼굴)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등을 통해 '너'로 하여금 낯익은 얼굴들(C)에서 벗어나 낯선 얼굴(B)이 되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 〈보기〉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중심으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낯선 작품이나 어려운 작품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작품에 대해 설명한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을 읽으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032 답 (1) 너 (2) 산업화 (3) 낯익은 얼굴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이 시의 화자는 '(너, 낯선 얼굴)'에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시적 청자이자 대상인 '너'에게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2) 교체 이 시는 (세대 갈등, 산업화)(으)로 인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3) 상반 현실에 순응하며 비판 의식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낯선 얼굴, 낯익은 얼굴들)'로 표현하고 있다.

'낯익은 얼굴들'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 없이 순응하는 무비판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반면 '낯선 얼굴'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존재를 나타낸다.

07 정념의 기(旗)

작품 분석 본문 30~31쪽

작가 김남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열망과 기원
특징 ①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기원을 경건한 어조로 표현함.
② 구체적인 사물을 매개로 화자의 내면을 표현함.
③ 은유법, 반복법 등 다양한 수사법과 수미상관의 구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고독)과 번뇌를 느낌.
❷ (눈길)을 보며 혼란과 번민을 가라앉히고 평온과 안정을 찾음.
❸ (뉘우침(후회)) 없는 순수한 삶과 초월적 존재에 대해 기원함.
❹ 번민하고 갈등하면서도 (기도) 드리며 경건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03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냉소적**: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 **구도적**: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②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 사물인 '기'에 빗대어 번민하는 화자의 내면과, 번민과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어적 표현과 냉소적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부재 예찬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경건한 어조를 통해 화자의 열망과 기원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 예찬적 어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부재 대화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화체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구도적 자세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기도 드린다' 등에 구도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34 답 (1) 기 (2) 수미상관 (3) 시각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화자의 번민하는 마음을 '(기, 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연의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에서 '기'에 빗대어 번민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 교체 (선경후정,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연의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 보는 이 없는 시공에'와 유사한 시구를 6연과 7연에서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시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체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눈길 위에 /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03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이: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정·정·이

⑤ 시의 앞부분과 끝부분을 비슷하게 하여 시적 안정감과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034번-(2)의 해설을 참고할 때, 이 시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상 전개는 시적 안정감과 완결성을 확보해 준다.

오·오·이

① 부재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눈길 위에 /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을 뿐,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명령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명령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음성 상징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시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다양한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눈 오는 네거리', '눈길' 등의 공간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화자의 다양한 정서 변화도 드러나지 않는다.

03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내적: 정신이나 마음의 작용에 관한.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정·정·이

⑤ 화자 오류 7연: '시공'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드리는 것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내적 성숙을 ~~이루어 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는~~ 행위로 볼 수 있군.
화자가 '시공'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드리는 것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번민하면서도 내면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1연: '보는 이 없는'과 '없는 것 모양'을 관련지어 볼 때, 고독의 시간이 무관심과 외로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화자의 마음이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독의 시간이 무관심과 외로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연: '혼란과 열기'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바라본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혼란과 열기'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들여다본 화자의 내적 갈등과 번민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3연: '눈길 위'에서 '편안한 그늘'을 맞이하는 것은 번민의 시간이 성숙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눈길 위'에서 '편안한 그늘'을 맞이하는 것은 혼란과 번민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 내적인 성숙에 다가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5연: '무거운 비애'를 넘어선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고독의 시간을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한 대상으로 볼 수 있군.
'무거운 비애'를 넘어선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내면 속 번민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내적 성숙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내면 속 번민을 수용해야 하는 화자의 제념~~이 드러나 있다.
㉢에는 내면 속 번민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그늘'과 같은

평온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번민을 수용해야 하는 화자의 체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고독의 시간이 지속되어 왔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은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있던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과거의 모습이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 고독의 시간을 견디기 힘든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에는 고독의 시간과 내면 속 번민을 견디기 힘들어 '눈 오는 네거리'로 나서게 되는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④ ㉣: 내면의 성숙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에는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내면의 성숙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⑤ ㉤: 내면의 성숙에 다가선 대상과 마주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에는 내면의 성숙에 다가선 대상인 '벗'과 마주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08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작품 분석 본문 32~33쪽

작가 정희성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특징 ① 미래의 가정적 상황 설정과 변주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② '슬픔'과 '그리움'을 의인화하여 구체화함.
③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줌.
④ 구체적 사물을 통해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함.
⑤ 각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
❷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
❸ (기다림) 끝에 당신과 만나기를 소망함.

0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지향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정한 점.
- **연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정·정·이

④ 헛짚기 ㉢에서 표현된 행위가 ㉤에 나타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어.
㉢의 '손을 주고'는 '당신'과 화자가 서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의 '외롭고 긴 기다림'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의 행위는 ㉤의 상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오·이

① ㉠은 화자의 긍정적 지향점을,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은 '당신'과 화자의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은 화자가 그리움의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과 ㉤은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의 내용을 보여 주고 있어.
㉡과 ㉤은 모두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한 화자가 견디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③ ㉢과 ㉣은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과 ㉣은 '당신'과 화자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와 '당신'이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표현된 행위는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인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03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날과 씨'는 '당신'과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다. (○, ×)

화자는 '당신'과 자신을 '날과 씨'에 비유하여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 헛짚기 '하나의 꿈'과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화자의 사랑의 ~~슬픔~~ 결실을 의미한다. (○, ×)

'하나의 꿈'과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화자가 만나 함께하는 꿈, 즉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 헛짚기 '어느 겨울'은 화자가 ~~소망하는 미래의 상황~~을 나타낸다. (○, ×)

'어느 겨울'은 화자가 소망하는 미래가 아니라, '당신'과 화자의 사랑을 힘들게 하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04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에서는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② ⓐ, ⓔ의 '-다면', ⓒ의 '~ 끝에'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시에서는 '-다면'과 '~ 끝에'를 시행의 끝에서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 ⓔ에서는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1~3행(ⓐ)과 14~15행(ⓔ)이 변주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④ ⓑ, ⓓ에서는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와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기다리리(ⓑ)'를 통해 당신과 만나기 위해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고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 '춥게 하리(ⓓ)'를 통해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들의 사랑'은 견고할 것이라는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⑤ ⓔ에서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에서는 '~ 있다면'과 같이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를 종결함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04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피**: 도망하여 몸을 피함.

정·정·이

③ '그리움'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되기 쉽다.

〈보기〉의 (가)는 개인적 맥락에 따른 해석이고, (나)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른 해석이다. (가)의 맥락에서 보면 이 시는 연인의 사랑에 대해 노래한 작품으로, (나)의 맥락에서 보면 분단된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움'은 (가)의 맥락에서 보면 맺어지지 못하는 연인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의 맥락에서 보면 분단된 남과 북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움'은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꿈'의 경우 (가)와 (나) 모두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발견하기 쉽다.~~

(가)와 (나)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더라도 '꿈'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찾기는 어렵다.

② 교체 '슬픔'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민족적 한의 정서에 연결되기 쉽다.

'슬픔'을 민족의 한의 정서로 해석하는 것은 (나)의 맥락과 연결될 수 있다.

④ 헛짚기 '겨울'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억압적 현실을 발견하기 쉽다.~~

'겨울'은 연인 혹은 남과 북을 갈라놓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므로 (가)와 (나) 중 어느 쪽의 해석에서 더 억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⑤ 교체 '사랑'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개인적 욕망에 연결되기 쉽다.

'사랑'을 개인적 욕망으로 연결하기 쉬운 것은,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해석한 (나)보다는 개인적 맥락에 따라 해석한 (가)이다.

04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현실이 힘들더라도 임과의 만남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해요.

이 시의 화자는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당신과 만나 하나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당신과 만날 날을 기다리며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보기〉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②가 적절하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임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아픔을 잊어야 해요.~~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고 당신을 만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①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③ 화자 오류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 당신은 지금보다 성숙해질 수 있어요.~~

이 시의 화자가 이별의 아픔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임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④와 같이 말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화자 오류 ~~당신의 슬픔과 임의 슬픔이 함께할 때 당신의 사랑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의 화자가 임과 슬픔을 함께해야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9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분석 본문 34~35쪽

작가 김수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기반성
특징 ①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함.
② 일상적 경험의 나열과 일화의 삽입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반복적 표현과 자조적 독백을 통해 반성적 태도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
❷ 중요한 일은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소시민적 모습
❸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나'의 (**옹졸한**) 삶
❹ 힘없고 무기력한 (**'나'(자신)**)의 존재 인식
❺ 정면에서 대결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
❻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옹졸함
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자조적인 자기반성

0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정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의 '이런 일'은 전통이라고 할 만큼 오래된 화자의 옹졸함을 보여 주는 일화(포로수용소에서의 일)를 가리킨다. 이는 화자의 유약함과 옹졸함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것임을 보여 주므로 정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은 붙잡혀 간 소설가나 월남 파병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보다, 갈비에 기름 덩어리만 나온 일과 야경꾼이 돈을 받으러 여러 번 찾아오는 일과 같은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스스로를 비웃는 표현으로 자기반성의 의미를 강조한다.

③ ㉢: 의도적 행갈이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은 시행이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와 같이 '않고'가 앞 행에 붙어서 이어져야 호흡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않고'를 행갈이 하여 시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④ ㉣: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에서 '땅 주인'은 강자를, '이발쟁이'는 약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옹졸한 모습을 부각한다.

⑤ ㉤: 동일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얼마큼 작으냐'를 반복·변주함으로써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자기반성을 강조한다.

04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설렁탕집'은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의 공간을 상징한다.
'왕궁'
(○, ×)

'설렁탕집'은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일 뿐이다.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의 공간을 상징하는 것은 '왕궁'이다.

(2) 상반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의미한다.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 ×)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이나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일 등을 가리킨다.

(3) 화자는 '얼마큼 작으냐'를 반복함으로써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

7연에서 화자는 '얼마큼 작으냐'를 반복함으로써 모래, 바람, 먼지, 풀처럼 작고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비속어**: 격이 낮고 속된 말.
- **일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
- **삽입**: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음.
- **사회적 맥락**: 작품 창작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적 환경.

정·정·이

② 부재 비속어와 방언을 활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돼지 같은 주인 년' 등에서 비속어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방언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대조적인 시어와 시구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붙잡혀 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 등과 같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시구와 기름 덩어리만 나온 '갈비', '야경꾼',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 등과 같이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시구를 대조하여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조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말하고 질문하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자조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일상적 경험의 나열을 통해 화자의 고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름 덩어리만 나온 갈비, 이십 원을 받으러 여러 번 찾아오는 야경꾼에 분개하고, 힘 있는 땅 주인이나 구청(동회) 직원이 아닌 힘없는 이발쟁이나 야경꾼에게 반항하는 일 등과 같은 일상적 경험을 나열하여 소시민적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고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구체적인 일화를 삽입하여 시적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부산 포로수용소의 야전 병원에서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다가 정보원에게 놀림을 받았던 일화를 삽입함으로써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이 전후 한국 사회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04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속물적**: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 **근성**: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
- **맹렬한**: 기세가 몹시 사납고 세찬.
- **소시민성**: 한 사회에서 소시민(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 계급에 속하는 소상인, 수공업자, 하급 봉급생활자, 하급 공무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동적이며 중립적인 성질.
- **자각**: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처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정·정·이

① 헛짚기 '돼지 같은 주인 년'이라는 표현은 설렁탕집 주인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겠군.
자신

1연에서 화자는 '왕궁'으로 상징되는 독재 권력을 비판하는 대신 설렁탕집 주인을 욕한다. 〈보기〉에서 비속어의 사용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봄으로써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돼지 같은 주인 년'은 '왕궁'을 비판하지 못하는 화자가 자신의 속물성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③ '전통은 유구'하다는 인식은 과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정확한 응시에 근거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김수영 시의 특징이 정직함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화자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응시의 결과로 스스로의 소시민성을 자각했음을 나타낸다(②). 그리고 3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옹졸함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임을 인식한 것 역시 과거 자신의 처신을 정확하게 응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③).

④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라 하겠어.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인,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기〉에서 김수영 시에 담긴 비판 정신은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힘이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의 반성은 자기비판을 넘어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겠군.

옆으로 조금쯤 비켜서 있는 것이 비겁한 것임을 알고 있는 화자는 자기비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김수영 시에 담긴 비판 정신은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4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접는 것

ⓑ: ~~개 울음소리와 어린 애놈의 투정에 지는 것~~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접는 것은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의 울음소리와 어린 애놈의 투정에 지는 것은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낼 뿐,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 기름 덩어리 갈비에 대한 분개

ⓑ: 왕국의 음탕에 대한 분개

② ⓐ: 야경꾼의 잦은 방문에 대한 증오

ⓑ: 언론의 자유 요구와 월남 파병 반대

기름 덩어리 갈비와 야경꾼의 잦은 방문에 분개하는 것은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분개하는 것이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왕국의 음탕에 대해 분노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며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④ ⓐ: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것

ⓑ: 절정 위에 서 있는 것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것은 불의한 권력과의 대결을 피해 서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하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⑤ ⓐ: 이발쟁이에 대한 반항

ⓑ: 땅 주인과 구청 직원에 대한 반항

이발쟁이에게 반항하는 것은 약자에게 반항하는 것이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땅 주인과 구청 직원에게 반항하는 것은 강자에게 반항하는 것이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

ⓑ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

046번 〈보기〉의 ⓐ와 ⓑ에서는 대조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시가 대조적인 시구(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대조적인 시구(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는 작품의 경우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시를 읽을 때 같은 성격을 지니는 시구(시어)끼리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 두면 실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10 껍데기는 가라

작품 분석 본문 36~37쪽

작가 신동엽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순수하고 진정한 민족의 삶 추구
특징 ① 대조적 시어와 대유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명령형 어미의 반복적 사용으로 강한 의지를 표현함.
③ 직설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 추구
❷ (동학) 농민 운동의 숭고한 정신 추구
❸ 우리의 민족정신 회복과 (화합)에 대한 소망
❹ 부정한 대상에 대한 (거부)와 순수한 민족정신의 추구

04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에서 공간적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각각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두 산으로 '한반도'라는 공간을 환기할 뿐, 공간적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전환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에는 화자의 단호한 어조가 나타나 있다.
명령형의 종결 표현 '가라(㉠)'에서는 화자의 단호함이 나타난다.

② ㉡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아우성(㉡)'은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담긴 민중의 열정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③ ㉢은 화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라는 의미로 '껍데기는 가라.'를 수식하여 화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은 시적 허용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모오든(㉤)'은 의도적으로 맞춤법을 무시하고 쓴 시적 허용의 표현으로 '쇠붙이는 가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4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껍데기'는 '알맹이'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
'껍데기'는 허위, 가식, 불의 등 부정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고, '알맹이'는 본질, 순수, 정의 등 긍정적인 존재들을 의미한다.

(2) 헛짚기 '부끄럼'은 ~~민족의 화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하고 있다. (○, ×)
'부끄럼'은 순수한 정신, 아름다움 등을 상징하므로 민족의 화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라에서 백두까지'에서는 대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
'한라에서 백두까지'에서는 각각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산으로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을 사용하여 분단의 극복과 민족 화합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5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C]: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C]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A]에서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A]: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알맹이'만 남아 있고 '껍데기'는 가라는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B]: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동학년'이라는 시어를 통해 반봉건·반외세 민족 운동이었던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동학 농민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⑤ [D]: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향그러운 흙 가슴'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본질, 정의, 민족정신, 순수하고 깨끗한 민족애 등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05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당면**: 바로 눈앞에 당함.
-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 **외세**: 외국의 세력.
- **추종**: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자신이 동의하는 학설 따위를 별 판단 없이 믿고 따름.

정·정·이

② 헛짚기 '중립의 초례청'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모순과 부조리가 담겨 있는 현실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보기〉에서 시인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고 했고, '중립의 초례청'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아사달 아사녀'가 맞절하는 곳이므로, 이곳은 민족이 화해를 모색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껍데기'는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껍데기'는 순수, 진실, 정의 등을 의미하는 '알맹이'와 대립되는 시어로, 허위, 가식, 불의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시인은 외세의 개입과 이념 대립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으므로, '껍데기'가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맞절할지니'는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화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

〈보기〉에서 시인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고 했으므로 '맞절할지니'에 민족 화합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흙 가슴'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흙 가슴'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보기〉에서 시인은 대지를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로 인식했다고 하였으므로 '흙 가슴'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쇠붙이'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부정적인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

'쇠붙이'는 '껍데기'와 마찬가지로 허위, 가식, 불의 등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이다. 따라서 시인이 외세의 개입과 이념 대립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다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쇠붙이'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부정적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5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아사달 아사녀'는 같은 공간에서 ~~대립하고 있는 ⓐ의 본질을 형상화한 것~~이군.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는 허위와 가식 없이 순수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므로 남북 분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명령형 문장 구조를 통해 ⓐ의 해결을 바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명령형 문장 구조를 통해 남북 분단의 극복과 민족의 화합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알맹이', '아우성'이 ⓐ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군.

화자가 4월의 '알맹이만 남고' 동학년의 '아우성만 살'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외세의 개입과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19 혁명과 동학 혁명의 순수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로 고통받는 공간이자 ⓐ의 해결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군.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므로, 남북 분단으로 고통받는 공간이자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쇠붙이'는 '껍데기'와 같이 ⓐ를 더욱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군.

'쇠붙이'는 '껍데기'와 같이 부정적 존재를 상징하므로 외세의 개입과 남북 분단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Ⅱ

복합 ❶

11 가 연륜 나 대장간의 유혹

작품 분석 본문 40~43쪽

가 연륜

작가 김기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특징 ①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함.
②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함.
③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덧없이 흘러간 지난 30여 년의 (삶)
❷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지난 삶
❸ 이상적 공간인 (섬)에 대한 지향
❹ 이상적 공간인 (섬)의 아름다운 모습
❺ 초라한 지난 삶에서 벗어나 열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다짐))

나 대장간의 유혹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과 가치 있고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특징 ①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② 대조되는 시어·시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③ 대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의 의미를 드러냄.
④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⑤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감을 구현함.

한 줄 의미

❶ 몰개성적이고 무가치한 존재(삶)에 대한 (거부)
❷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삶)로 살고 싶은 소망
❸ 과거의 (삶(인생))에 대한 반성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05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1연에서는 '무너지는',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등과 같이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22~23행의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 똥덩이'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고 쓸모없었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나)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 숫돌에 갈아'에서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교체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나려 앉은 섬으로 가자'에서는 '갈매기'에 빗대어 '섬'으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교체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비췻빛 하늘', '눈빛 파도' 등에서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1연의 '서른 나문 해야'는 화자가 '서른 나문 해'를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며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05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는 (나)와 ~~달리~~ 모두 시적 공간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 ⊗)
(가)에서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대장간'에서 단련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무쇠 낫'과 '호미'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 (가)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서른 나문 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발 아래 깔리는 무너지는 꽃 이파리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3) (나)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에서는 '홍은동 사거리', '털보네 대장간'과 같이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05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한성**: 수, 양, 공간, 시간 따위에 일정한 한도나 한계가 있는 성질.
- **직시**: ①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봄. ② 사물의 진실을 바로 봄.
- **예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 **도시화**: 도시의 문화 형태가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발전·확대됨. 또는 그렇게 만듦.
- **산업화**: 산업(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의 형태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②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는 '육지'로 상징되는 현실(초라한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섬'으로 가서 열렬히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즉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 공간인 '섬'을 설정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현대 아파트'로 표현되는 현실(도시화·산업화된 공간)과 대비하여, '대장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장간'은 도시화·산업화로 사라진 공간이면서,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공간이자 참된 삶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연과 인간을 대조함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고 있지 않고, 삶의 유한성을 재인식하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할 뿐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 (가)에서는 화자가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희망적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가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대장간'이라는 공간을 통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이와 관련이 없다.

05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질성**: 사람이나 사물의 바탕이 같은 성질이나 특성.
- **표방**: 어떤 명목을 붙여 주의나 주장 또는 처지를 앞에 내세움.
- **고유성**: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그 사물 특유의 속성.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 동질성을 부각한다.

(가)의 화자는 '또한'을 통해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또한'은 긍정적 존재인 '불꽃'과 화자의 동질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자신이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고 하였으므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인 '플라스틱 물건'과 화자 간의 동질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가)에서 화자는 '열렬히'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나)에서는 '한꺼번에' 생산되고 소비되는 '플라스틱 물건'과 '하나씩' 정성을 다해 만드는 '꼬부랑 호미'를 대조하여 개별적 존재인 '꼬부랑 호미'의 고유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나)에서 화자는 '온통'을 통해 지금까지의 인생 전부를 부끄럽게 여기는 성찰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가)에서 화자는 '날이 갈수록'이라는 의미를 지닌 '날로'를 통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굳어' 가는 부정적 상황이 지

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에서 화자는 '당장'을 통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바로 벗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57 답 (1) 육지, 섬 (2) 플라스틱 물건, 호미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가)의 '(섬, 육지)'은/는 화자의 지나온 삶의 공간을, '(섬, 육지)'은/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을 상징한다.

(가)에서 '육지'는 화자가 지나온 초라한 삶의 공간을 상징하고, '섬'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2) 상반 (나)의 '(플라스틱 물건, 호미)'은/는 무가치한 존재를, '(플라스틱 물건, 호미)'은/는 가치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나)에서 대량 생산되어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은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씩 만드는 '호미'는 가치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05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거듭나고**: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 **순응**: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

정·정·이

① (가)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고 싶다고 한 것을 통해,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초라한 경력'은 '서른 나문 해', 즉 초라한 과거의 삶을 의미하므로, 이를 육지에 막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온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에서 화자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으므로, 이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가)의 '무너지는 꽃 이파리'는 ~~지나간 과거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 심정~~을, (나)는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무너지는 꽃 이파리'는 덧없이 흘러간 화자의 초라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여기에 지나간 과거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진 자리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를 보고,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 오류 (가)는 '구름같이 피려던 뜻'을 통해, (나)는 '똥덩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화자가 품었던 이상과 꿈 등을 의미하는데, 그 '뜻'이 '날로 굳'어졌다고 했으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나)의 '똥덩이'는 무가치한 존재를 의미하므로 화자가 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가)는 '섬'을 통해, (나)는 '직지사 해우소'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 '섬'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이므로 이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직지사 해우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이처럼 느끼며 자신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가)는 '연륜'을 끊는 행동을 통해, (나)는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 '연륜'을 끊는 것은 초라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현실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므로 현실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

05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가)에서 '주름 잡히는 연륜'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나이만 먹은 화자의 지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불꽃'과 같은 열렬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인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변변치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나)에서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하다고 느낀 화자는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결핍된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나)에서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똥덩이'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대장간 벽에 걸린 '꼬부랑 호미'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가)에서 화자는 '육지'를 자신의 초라한 경력을 막아 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버스'를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질 때 뛰어내림으로써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육지'와 '버스'는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06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무가치한 삶에 굴복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나)에서 화자가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은 무가치한 삶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을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의 '서른 나문 해'를 무너지는 꽃 이파리에 비유하여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가)의 화자는 '서른 나문 해'를 무너지는 꽃 이파리에 비유하여 자신의 지난 삶이 그만큼 무가치하고 초라하며 보잘것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불꽃'에 비유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가)의 화자는 초라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열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불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06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안주**: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함.
- **소모적**: 소모(써서 없앰.)되는 성질이 많은 것.

정·정·이

② 헛짚기 (가)에서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은 ~~그동안 쌓아 온 경험들로 인해 성숙해진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겠군.~~

〈보기〉를 통해 (가)의 화자가 현실에 안주하며 활력을 잃고 숙련도만 늘어나는 삶을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해하면, '연륜'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은 성숙해진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나이만 먹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무너지는 꽃 이파리'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지나온 삶이 보잘것없었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060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는 현실에 안주하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겠군.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는 이전의 현실에 안주하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불꽃'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플라스틱 물건'은 주체성과 개성을 잃고 소모적이고 무가치하게 살아온 화자의 지난 삶을 상징하는 것이겠군.

(나)의 화자는 자신이 대량 생산되어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플라스틱 물건'은 주체성과 개성이 없고, 소모적이며, 무가치하게 살아온 화자의 지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나를 달구고 / 모루 위에서 벼리고 / 숫돌에 갈아'는 힘들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주체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나)에서 화자는 대장간에 찾아가 자신을 이글거리는 불 속에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과 대조된다. 이를 통해 볼 때 화자는 대장간에서 무쇠 낫을 만드는 과정처럼 힘들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주체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가)에서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은 그동안 쌓아 온 경험들로 인해 성숙해진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겠군.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해당 시어나 시구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를 살펴보아야 해요. '연륜'은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라는 뜻을 포함하는 말로 본래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하지만 5연의 '초라한 경력'이라든가,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 버리고'라는 표현을 통해, 이 시에서만큼은 '연륜'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시인이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시어에 부여한 새로운 의미나 상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전체를 살펴보면서 단서를 찾아야 해요.

12 가 그리움 / 나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작품 분석 본문 44~47쪽

가 그리움

작가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추운 겨울밤에 느끼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눈'을 매개체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형상화함.
② 수미상관의 구조와 의문형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함.
④ 시구의 반복과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북쪽)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❷ (눈) 내리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림.
❸ 추운 겨울밤에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❹ 북쪽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작가 이시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마음에서 잊히지 않는 유년 시절 고향의 추억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고향과 이웃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함.
② 고향에 대해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회상적·독백적 어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시됨.

한 줄 의미

❶ 잊히지 않는 (고향)
❷ (중학생) 시절의 고향에 대한 추억
❸ 그리운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06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연에서 화자는 밤에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 잠을 깨어'라며 자책하는 듯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너를 남기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1연과 5연에서, 1행의 '오는가'는 2행에서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되고 있다. 화자는 눈을 매개로 북쪽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헛짚기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2연에서 '돌아간'은 철길의 휘어진 모양을, '달리는'은 그 철길 위의 화물차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화물차는 느릿느릿 달리고 있으므로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통해 두 대상 간에 긴장감이 조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상반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통적인

2연에서는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이 이동된다. 그러나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휘어진 철길 위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묘사의 초점 이동이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헛짚기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4연에서는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고향을 떠나와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6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1연의 시구를 5연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

1연과 5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 '내리는가'라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내리는가'라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3) 화자 오류 '차마'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

(가)에서 '차마'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차마'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사용되는 부사인데, 이를 부정어가 아닌 형용사 '그립다'와 호응하게 하는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
- **순환적**: 어떤 현상이나 과정이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③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사래', '콩밭', '수수알', '깨꽃', '소고삐', '호미' 등과 같은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농촌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토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의문의 형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등에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는 과거 상황에 대해 추측하며 회상하고 있을 뿐이다.

② 화자 오류 특정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회한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헛짚기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삶의 보편적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삶의 보편적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부각하고 있다.

화자가 회상하는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또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06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년**: 어린 나이나 때. 또는 어린 나이의 아이.
- **결실**: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묾. 또는 그런 열매.

정·정·이

② 화자 오류 ㉡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도굴가 지진

~~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솨르르 솨르르(㉡)'는 유년의 화자가 언덕 아래 냇가에서 들은 어떤 소리와 관련된 표현인데, 화자는 그 소리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물살을 헤짓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을 활용하여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군.

'꽝꽝(㉠)'은 '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를 통해 수수알(곡식)이 여무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군.

'청청히(㉢)'는 '맑고 푸르게'라는 뜻으로 '푸르던'을 수식하고 있다. '아'라는 감탄사와 '푸르던' 사이에 '청청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년의 화자가 감동을 느낀 하늘의 푸른 색채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을 활용하여 무섬증에 언덕을 달려 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군.

'까르르까르르(㉣)'는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자꾸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무섬증을 느껴 냇가에서 언덕으로 올라온 유년의 화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까르르까르르' 들리는 이웃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 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또랑또랑(㉤)'은 '조금도 흐리지 않고 아주 밝고 똑똑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가을 들'이 익어 가는 냄새를 '또랑또랑'을 활용해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을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06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 ㉣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 ㉢, ㉣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뿐, 청자와의 친밀감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독백하듯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청자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을 통해 가을의 계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을 통해서는 수수알이 여무는 가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을 통해서는 들이 익는 가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을 통해 고향 마을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의 부사를 통해 고향 마을의 평화롭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 추억들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06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화물차(ⓑ)'를 고향을 향해 달리는 기차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떠올린 모습 중 하나일 뿐 실제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 (가)에서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낼 뿐,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는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며 '북쪽'과 '작은 마을'로 상징되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눈'은 화자가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는 자연물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복된(ⓒ)'은 '눈'이라는 자연물에 '복되다'라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④ ⓓ는 유년 시절 화자의 추억 속 고향을 의미한다.

'그곳(ⓓ)'은 뒤에 이어지는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볼 때, 유년 시절 화자의 추억 속 고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는 즐겁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청량한 웃음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즐겁고 평화로운 고향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6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궁벽함**: 매우 후미지고 으슥함.
- **근원적**: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이 되는.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하며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관련하여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무엇'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관련하여, 화자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애정 어린 목소리로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가)는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준다.

(가)에서 고향은 눈 내리는 북쪽의 작은 마을로,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여름날 '햇빛'을 받은 '깨꽃'의 이미지는 〈보기〉에서 언급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에 해당한다.

②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나)는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 준다.

(가)의 고향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철길로 갈 수 있는 곳이며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나)에서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은 〈보기〉에서 언급한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③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작은 마을' 즉 고향에서 기다리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리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고향에서 함께했던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인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다.

⑤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나)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

(가)에서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인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069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가)의 고향은 궁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 (나)의 고향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보기〉에서 (가)의 고향은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였고, (나)의 고향은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가), (나)의 창작의 원천이 되는 소재는 '고향'과 '가족'이다.

(가)에서 화자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고향'과 '가족'은 (가)의 창작의 원천이 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마음에서 잊히지 않는 유년 시절의 '고향'을 추억하고 있을 뿐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가족'은 (나)의 창작의 원천이 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ㄷ. 범위 오류 (가)의 화자는 고향을 ~~부정하는~~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나)의 화자는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고향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07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B]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과 '눈'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부각~~하였군.

'화물차의 검은 지붕'(검은색)은 '눈'(흰색)과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지만, 이는 '복된 눈'이 내리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일 뿐,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

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A]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북쪽'을 '함박눈'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눈이 오는 '북쪽' 고향과 포근하고 아늑한 '함박눈'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B]에서 '너'가 있는 '작은 마을'의 '복된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군.

'너'가 있는 '작은 마을'에 내리는 '눈'을 복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C]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곳에서 '잠'을 깬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하겠군.

화자는 '잉크병'이 얼어들 만큼 춥고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D]에서 '함박눈'이 '내리는가'를 다시 반복하여 고향과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군.

5연에서 1연의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를 다시 반복함으로써 고향과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애틋한 정서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3 가 사령(死靈)
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작품 분석 본문 48~51쪽

가 사령(死靈)

작가 김수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삶에 대한 반성
특징 ① 자조적인 어조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
② 대조를 통해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③ 수미상관의 구조로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활자**)로만 존재하는 자유와 죽어 있는 '나'의 영혼
❷ 침묵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
❸ (**고요한**) 현실에 대한 비판
❹ 자유와 (**정의**)가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
❺ 죽어 있는 '나'의 (**영혼**)에 대한 반성

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작가 김혜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① 현실 상황을 강이 얼어 움직이지 못하는 배에 비유하여 형상화함.
② 음성 상징어, 대구법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부정적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여 드러냄.
③ 반복법, 행간 걸침, 도치법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강물 위의 (**배들**)을 보며 비웃음.
❷ 배들을 비웃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을 떠올림.
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웃음**)과 변함없이 견고한 현실

07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원근**: 멀고 가까움.
- **지시어**: 문맥 내에서 주로 어떤 말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

정·정·이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1연의 내용을 5연에서 반복하고(수미상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구도 반복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지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부정적인 상황이 과거부터 계속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② 화자 오류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지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활자를 '벗'에서 '그대'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지만, 화자는 활자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 황혼', '저 돌벽 아래 잡초', '저 고요함', '이 고요함' 등에서 멀고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인 '이', '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④ 헛짚기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지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물음의 형식으로 시를 종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강조하여 드러낼 뿐,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07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초월적**: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 **교감**: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는 느낌.

정·정·이

① 도치법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3연에서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먼저 말하고 그 대상을 나중에 나열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초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가 현실에 대해 초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③ 화자 오류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대상과 교감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벗이여' 등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화자가 대상과 교감하고 있지는 않다.

07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조적**: 자기를 비웃는 듯한.

정·정·이

③ 부재 [C]에서는 전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C]에서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먼저 말하고 그 대상을 나중에 나열하는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을 뿐, 선경후정의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자유와 정의에 대해 침묵하는 고요함을 비판하고 있을 뿐, 삶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A]에서는 '활자'와 '나의 영'을 대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 '활자'와 자유와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사령과 같은 '나의 영'을 대조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② [B]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통해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표현하고 있다.

[B]의 '마음에 들지 않아라'에서 화자는 감탄형 어미 '-아라'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탄식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D]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1연을 반복·변주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E]에서는 1연을 반복·변주하고 있으며, 1연에 없던 '우스워라'를 추가하여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③ [C]에서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선경후정'이란 앞부분에서 자연 경관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내면의 정서를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해요. [C]에서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시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선경후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선경후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방식이나 시상 전개 방식은 미리 알아 두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07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인**: ①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 ②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둠.
- **견고하다는**: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는.

정·정·이

② 상반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외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의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로 보아 배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강물이 언 상황, 즉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따라서 배의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배가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나)는 언 강물에 의해 붙들린 배들을 화자가 구경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의 '붙들린 배'가 시상 전개의 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의 '비웃느라'로 보아 '시시덕거렸다'에 '우리'의 냉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에서 한강물이 '흐르지 못'한 이유는 강이 얼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의 '꽝꽝꽝'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꽝꽝'이 '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임을 고려할 때, '꽝꽝꽝'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07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은 '강물에 붙들린 배들'이다. (○,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은 화자의 관찰 대상으로, 언 강물에 의해 붙들린 배들을 화자가 구경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 '훈련받나 봐'와 '일렬로 늘어선'에는 사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

'훈련받나 봐'와 '일렬로 늘어선'은 획일적인 군사 문화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경직된 사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화자 오류 '비웃느라', '나뒹굴며'에는 부정적 현실에 ~~긍정적~~ 냉소적, 비판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 ×)

'비웃느라', '나뒹굴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대응 태도가 아니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대응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07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는 화자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대상으로, 화자가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화자는 강물에 붙들린 일렬로 늘어선 '배들(ⓐ)'로부터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연상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는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이다.

(나)에서 화자는 울분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는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고~~ 있다.

화자는 관심을 가지고 ⓐ를 관찰하면서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게 되므로 ⓐ는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냉소적 태도로 ⓐ로 비유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헛짚기 ⓑ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소재~~이다.

(나)에서 화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에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는 ~~화자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화자는 ⓑ를 보며 비웃고 있으므로 ⓑ가 화자의 연민을 불

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07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
- **모색**: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경직**: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됨.

정·정·이

① 화자 오류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가)에서 화자가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의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직된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에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화자의 성찰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보기〉에서 (나)는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라고 하였으므로, 비웃는 모습이나 뒹구는 장면을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보기〉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가)의 '고요함'이 있는 '하늘 아래'와 (나)의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맞붙은 사이'는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보기〉의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를 통해 (가)에서 '자유'에 대한 표현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보기〉의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를 통해 (나)에서 '날아가지 못하는 말'은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 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보기〉의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했다는 내용을 통해,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붙박힌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고 하였으므로 (나)에서 '언 강물'로 인해 배가 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78 답 (1) 활자 (2) 붙박힌 말들 (3) 숨죽이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는 언어가 '(활자 영)'의 상태로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나)에서 '(웃음, 붙박힌 말들)'은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의 '붙박힌 말들'은 자유로운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가)의 '고요함'과 (나)의 '(나뒹굴며, 숨죽이고)' 있는 것은 자유가 억압된 경직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

(가)의 '고요함'은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상황을, (나)의 '숨죽이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의 자유가 억압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이들은 자유가 억압된 경직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7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모습과 연관된다. 즉, (가)의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은 자유와 정의라는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가)의 화자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가)에서는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고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과 연관된다.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가)의 화자는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욕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서강에서의 안정된 생활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 애쓰는 시인의 성찰과 연관된다.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가)의 화자는 자유가 부재하는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스워라'라고 자조하며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의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도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 비애와 연관된다.

14 가 바람이 불어 나 새

작품 분석 본문 52~55쪽

가 바람이 불어

작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특징 ① 자문의 형식을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냄.
② 대조적·상징적 의미의 시어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③ 시어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바람)이 불어 괴로움을 인식함.
❷ (괴로움)의 이유를 탐색함.
❸ (반석)과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함.

나 새

작가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문명의 편안함에 안주하여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비판

특징 ① 우의적 기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현재 시제와 단정적 어조를 통해 새의 모습을 생생히 나타내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줌.
③ 반어적 상황과 반복법, 직유법 등을 통해 새가 사는 모습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새장)에 갇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새
❷ 새장 속의 삶에 익숙해져 (본성)을 잃게 된 새
❸ (자유)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새

08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단정**: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병치**: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함.

정·정·이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등에서 '없다'의 반복을 통해 자신이 괴로운 이유에 대해 생각하며 자아 성찰을 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

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화자 오류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은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헛짚기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은 화자가 자신이 괴로운 이유에 대해 생각하며 떠올린 것으로,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화자 오류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8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바람'은 화자가 괴로움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

화자는 부는 '바람'을 계기로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찾아보게 된다.

(2) 자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에서 화자는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3) 교체 '바람'과 '강물'의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석', '언덕'

(○, ×)

(가)에서는 움직이는 대상인 '바람(5연)'과 '강물', 정체되어 있는 대상인 '반석'과 '언덕'의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8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상반 '적당한 간격'을 통해, 새가 날지 못하는 원인이 새의 내부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외부

'적당한 간격'은 새장의 창살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가 날지 못하는 이유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몸뚱어리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한 간격'은 새가 날지 못하는 이유가 '새장', 즉 새의 외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슬프다'를 통해, 새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슬프다'를 반복하여 '새'가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③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를 통해, 날개의 기능을 잊어버린 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 것은 날개의 기능을 잊어버리고 걷기만 하는 새의 모습, 즉 본성을 상실한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④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를 통해,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 익숙해진 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새가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는 것은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 익숙해져 더 이상 자유를 추구하지 않게 된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⑤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고 음미하는 데에만 그치는 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은 새가 공기를 음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모습으로,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음미하는 데에만 그치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08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서 '바람'은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서 자꾸 부는 '바람'은 화자에게 영향을 주는 힘으로,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선 '내 발'은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하여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오·오·이

① ㉠: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이 화자에게 영향을 주어 화자의 내면을 흔들고 '괴로움'을 일깨우고 있다.

③ ㉢: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에서는 새장 밖의 자유로운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장에 갇혀 울음만을 '공기'에 실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새'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에서는 새가 '날개'를 사용하여 비상할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에서는 '아직도 벽이 아니고 /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창살 사이의 바람을 쪼는 새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8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에 ~~부정적 현실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군.

〈보기〉를 참고하면, (가)에서 '바람', '강물'은 시대의 흐름과 움직임을 상징하며, '반석', '언덕'은 '바람', '강물'로부터 동떨어져 멈춰 서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반석', '언덕' 위에 선 것은 소명 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에 동참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반석' 위에 선 것을 부정적 현실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는 괴로움의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찾고자 한 것이군.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는 괴로움의 원인을 사랑이라는 개인적 감정, 즉 개인의 차원에서 찾고자 시도하였으나 화자에게 그런 일은 없었으므로, 원인을 찾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② ⓑ는 괴로움의 원인을 공동체 차원에서 찾고자 한 것이군.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는 괴로움의 원인을 시대라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찾고자 시도했으나, 화자는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기에 시대는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괴로움의 원인을 찾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③ ⓒ는 시대의 흐름과 움직임을 비유한 것이군.

'바람'이 자꾸 부는 것과 '강물'이 자꾸 흐르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움직임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군.

〈보기〉에서 화자가 괴로운 이유는 사회 문제에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자는 멈춰 서 있는 '언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8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본질**: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 **안온**: 조용하고 편안함.
- **양가성**: 동일 대상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성질.
- **잠재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힘.
- **아이러니**: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정·정·이

④ 헛짚기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 일상(새장 안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달리는 새의 행동은 새장 안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 본질을 잃고 자유를 상실하게 된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인다는 것은 그제야 새장 안에 갇혀 있음을 새가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보기〉에서 '새'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새의 인식은 어느 날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보기〉를 통해 (나)가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새장 안은 날지 않아도 바깥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지만, 창살 때문에 갇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적 일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간다고 하였다. 새가 부지런히 걸을수록 날지 않게 되므로, 새장 안에서의 성실한 생활이 비상할 수 있는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나)에서 새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기를 그저 음미만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8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매몰**: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음.

정·정·이

③ 새가 공기를 '음미하려는' 모습은 현실에 매몰되어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새가 자신의 잠재된 힘과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공기를 그저 음미하는 것은, 현실에 매몰되어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다.

오·오·이

① 헛짚기 '적당한 간격'은 ~~새가 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함~~을 드러낸다.

'적당한 간격'은 하늘과 산이 보이고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새가 새장 밖으로 못 나가는 물리적인 이유이므로 새가 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② 상반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 것은 새의 본질에 ~~가까운~~ 먼 모습이다.

새가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 것은 새의 본성을 상실한 모습이다.

08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범위 오류 ~~(나)와~~ 〈보기〉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새'가 실현하고 있다.

〈보기〉의 '새(흰 새 떼들)'는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 메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부정적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실현한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존재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 존재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나)에서는 〈보기〉와 달리 '새'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새'가 자기들끼리 끼룩거리고 낄낄대면서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새'가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나)와 달리 '새'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새'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을 뿐이므로, '새'와 화자의 처지가 대조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보기〉의 화자는 이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와 달리 날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있으므로, '새'와 화자의 처지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와 〈보기〉 모두 '새'가 나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와 〈보기〉 모두 '새'가 나는 행위에 '자유'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⑤ (나)와 〈보기〉 모두 '새'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새'에 비유하여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외면하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고, 〈보기〉는 '새'의 자유로운 삶과 대조되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5 가 청명 나 초록 바람의 전언

작품 분석 본문 56~59쪽

가 청명

작가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마음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을 아침의 느낌을 표현함.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③ 대구법, 어미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인상적으로 제시함.
⑤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청명)을 온몸으로 가을 아침의 (청명)을 느낌.
❷ (자연)과의 교감과 유대감 형성
❸ (청명)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마음
❹ (햇발(햇살))이 쏟아지는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
❺ (청명)에 포근히 젖어 듦.

나 초록 바람의 전언

작가 고재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봄을 맞은 자연의 생동감
특징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③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봄날의 생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④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⑤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함.

한 줄 의미

❶ (솔나무)의 속삭임을 전하는 바람
❷ 잎새에 맺혀 있던 빗방울을 쏟아 내는 (미루나무)
❸ 보리밭에서 김매는 (여인)과 봄의 정경
❹ 푸른 봄날 바람결에 들리는 (소쩍새)의 울음

0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정**: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 **사색**: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정·정·이

②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종결 어미 '-다', '-노라'를, (나)에서는 종결 어미 '-자'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에서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달려갔다 하자', '쏟아 냈다 하자', '보냈다 하자' 등에서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가)에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의인화된 '초록 바람'이 '뒷동산', '강변', '앞들 보리밭',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나)는 봄바람이 부는 자연의 모습과 보리밭에서 김을 매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8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가을 아침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수풀', '벌레', '동백 한 알' 등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가을 아침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
(가)에서는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토록' 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나)에서는 '짤랑짤랑', '끄덕끄덕' 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 부재 (가)와 (나)는 지향의 전개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가)와 (나) 모두 시상의 전개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가)는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마음을, (나)는 봄을 맞은 자연의 생동감을 그려 내고 있다.

09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어순**: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
- **여운**: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운치.

정·정·이

⑤ (나)는 (가)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나)의 '아무려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싣는 날에.'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나'로 4연의 '오!'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② 헛짚기 (가)는 (나)~~와 달리~~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가을', (나)는 '오월'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범위 오류 (가)는 (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는 '수풀의 정', '벌레의 예지',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등에서 '수풀', '벌레', '청명'을 의인화하여, (나)는 '바람', '솔나무', '미루나무' 등을 의인화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색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9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역동적**: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 **집약적**: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것.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낯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청명한 가을날의 정취에 젖어 든 마음을 낯익은 고향을 찾은 것에 비유한 것은 맞지만,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호르르'는 '작은 새 따위가 날개를 가볍게 치며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따라서 ㉠은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청명'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봄날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은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해 '아무려면 어떤가'라는 반응을 보이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092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나)의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한 초록으로 짙어 가는' 등에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오·오·이

ㄱ. 부재 (가)에는 ~~후각적~~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에서는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호르르', '호르르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각적 심상을 두드러지게 활용하고 있을 뿐, 후각적 심상을 두드러지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ㄷ. 부재 (나)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는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자'가 활용되었을 뿐, 명령형 종결 어미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화자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09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노동하는 여인을 통해 ~~자연과 대비되는 고된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여인'이 허리를 펴는 것은 자신에게 전해진 '바람'의 전언을 '정자나무'에게로 보내기 위한 것이므로, 허리를 펴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대비되는 고된 삶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청명을 느끼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자연과 화자가 하나 됨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청명'이라는 형체가 없는 대상이 머릿속과 가슴 속에 젖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간다는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 화자가 온몸으로 자연과 교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온 살결과 터럭이 감각 기관인 '눈'과 '입'이라는 것은, 온몸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교감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③ ⓒ: 대상의 움직임과 유사한 다른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에서 화자는 '동백 한 알'이 빠지는 모습과의 유사성 때문에 '별살'의 흐름을 떠올리고 있다.

④ ⓓ: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자연과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는 '빗질'이라는 행위에 빗대어 '청솔잎'과 '바람'이 교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9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군.~~

(가)의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은 떨어지는 모습의 유사성 때문이고, (나)의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잎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구슬알'의 유사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나)에서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하는 것은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내는군.

(가)의 화자는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아는 등 자연과 교감하고 있고, (나)의 '바람'은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하며 서로 교감하고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가 '무어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가)의 화자가 '수풀의 정',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의 '솔나무'와 '미루나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은 모두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군.

(가)의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청명'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나)에서 '오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를 형상화하는군.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 소리'와 '온 빛깔'이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 즉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에서 '오월'에 자연의 공간인 '산'과 인간의 공간인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생태 공동체임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9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가을 아침의 정취에 젖어 든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는 수풀과 벌레의 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쏟아지는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순환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계절감은 드러나 있으나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순환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들어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봄을 맞은 세상 만물의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9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나)에서 미루나무가 '강물 위'에 '구슬알'을 쏟아 냈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그리는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군.

미루나무가 '강물 위'에 '구슬알'을 쏟아 냈다는 표현은 미루나무가 잎새에 맺혀 있던 빗방울을 강물에 쏟아 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그리는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봄을 맞은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 자연을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화자가 '가장 고웁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가장 고웁지 못한 노래꾼'은 가을 아침의 청명을 느끼는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는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청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이며,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한 것은 자연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군.

(가)에서는 청명을 '온 소리의 앞 소리'이며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연의 소리가 어떤 소리보다 앞서 존재하며, 온 빛깔이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은 자연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은 자연이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군.

(나)에서는 봄날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전하기 위해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자연이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초록으로 짙어 가는 오월'과 '소쩍새'의 '목청'을 함께 제시한 것은 화자가 바라보는 봄을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그려 낸 것이군.

(나)에서는 '초록으로 짙어 가는 오월'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바람결에 실리는 '소쩍새'의 '목청'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바라보는 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6 가 출생기 / 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작품 분석 본문 60~63쪽

가 출생기

작가 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나'의 출생 내력과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암울함
특징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함.
② 감각적 이미지와 색채 대비, 비유적 표현과 대구법 등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냄.
③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함.

한 줄 의미

❶ (**일제**)의 강점을 앞둔 암울한 시대 상황
❷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과 '(**나**)'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
❸ '나'의 (**욕된**) 출생
❹ '나'의 (**이름**)이 지어진 유래

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작가 김춘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
특징 ① 의미의 전달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내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③ 이질적 소재의 병치와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봄의 생명감을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눈이 내리는 (**샤갈**)의 그림 속 세계
❷ 눈을 맞는 (**사나이**)의 모습에 나타난 봄의 생명감
❸ 샤갈의 마을을 덮는 (**눈**)
❹ 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봄**)의 생명들
❺ (**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새봄의 아름다움

0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표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이국적**: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특징적인 것.

정·정·이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융희 2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일제의 강점을 앞둔 1908년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에서는 '삼월', '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가)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는 '지니셨고', '읽으셨다', '떨어졌나니', '지었다오' 등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화자의 출생의 내력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온다', '떤다', '덮는다', '지핀다' 등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③ 부재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울어',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 등에서, (나)는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등에서 시적 상황에 대해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하고 있다.

④ 범위 오류 (가)는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울어',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 '곡성'과 같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인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새로 돋은 정맥', '올리브빛',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여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⑤ 범위 오류 (나)는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나)는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등에서 눈을 살아 있는 대상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09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는 ~~반어법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반어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나)는 이질적 소재를 병치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나)에서는 삼월의 '눈', 사나이의 '정맥', '겨울 열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아낙'과 같이 이질적 느낌의 대상들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 (가)와 (나)는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

(가)의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에서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를 통해 붉게 핀 석류꽃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눈'(흰색)과 '정맥'(파란색), '올리브빛'(초록색), '불'(붉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09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나)와 달리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일제의 강점을 앞둔 암울한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② 헛짚기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저릉저릉', (나)에서는 '바르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와 (나) 모두 이를 통해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는 (다)와 달리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의문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나)는 (가)와 달리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등에서, (나)는 '새로 돋은 정맥',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등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교체 (나)는 (가)와 달리 한자어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암울한 분위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가)는 (나)와 달리 '번문욕례', '태반', '곡성' 등의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암울한 분위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10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욕됨)을 드러내고 있다.

[D]에는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이어서 제시되는 시구에서 화자가 자신을 '욕된 후예'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 청각(까마귀 울음소리)의 시각화(검정 포대기)가 나타나며, 이는 화자가 출생했던 시대의 암울하고 음산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지붕에 박 넌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 등 다채로운 계절의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암울하고 음산한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 다듬어 지니셨고'와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 글 읽으셨다'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출생과 관련된 '고고'와, 죽음과 관련된 '곡성'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시어를 연결하여 화자의 울음소리를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명이 길었으면 하는 할머니의 바람을 담아 화자의 이름을 '돌메'라고 지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101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A], [B], [E]에서는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A]의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B]의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 [E]의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에서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ㄷ. [D], [E]에서는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D]의 '왕고못댁 제삿날 밤'은 화자가 태어난 날을, [E]의 '고고의 곡성을 지른'은 갓 태어난 화자의 울음소리를 나타낸 말로,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ㄴ. 범위 오류 [A], [D]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A]의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D]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10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은 외부의 풍경을 시적 화자의 내면과 연관 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에서는 눈이 '지붕과 굴뚝을 덮는' 외부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화자의 내면과 연결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은 현재형 어미를 통해 공간이 지닌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는 현재형 어미 '-ㄴ다'를 통해 삼월에 눈이 오는 '샤갈의 마을'의 환상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② ㉡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바르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눈을 맞는 사나이의 모습에 나타난 봄의 생명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은 대상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눈이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활유법)을 통해 눈송이가 휘날리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이 가진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메마른 겨울 열매들이 소생하는 모습을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10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변용**: 용모가 바뀜. 또는 그렇게 바뀐 용모.
- **투사**: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 투영.
-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 **표상한**: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낸.

정·정·이

③ 헛짚기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지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눈이 내리는 '하늘', 눈 덮인 '지붕과 굴뚝'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보기〉의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샤갈의 「나와 마을」에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 같은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가 (나)에서는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되어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샤갈의 「나와 마을」에서 사나이 얼굴의 '올리브빛'을, (나)에서는 봄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든다고 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아낙', '아궁이'와 같은 토속적인 이미지를 통해, 샤갈의 「나와 마을」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시인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키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이 문제의 경우 〈보기〉와 선지에 '상호 텍스트성', '병치', '투사' 등과 같이 낯선 용어가 제시되어서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보기〉를 참고하는 문제의 경우도 결국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보기〉나 선지에 어려운 용어가 있다고 겁먹지 말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차근차근 선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104 답 (1) 생명감 (2) 색채 (3) 토속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감각적 언어로 나열하면서 봄의 (쇠락함, 생명감)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한 작품으로,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감각적인 언어로 나열하면서 소생하는 봄의 아름다움과 봄의 생명감을 표현하고 있다.

(2) 교체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색채, 동적) 이미지들은 '눈', '정맥', '올리브빛', '불'과 같은 시어에 반영되었다.

샤갈의 그림의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은 (나)에서 삼월의 '눈'(흰색), 사나이의 '정맥'(파란색),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 겨울 열매(초록색), 아낙들이 아궁이에 지피는 '불'(붉은색)에 반영되어 있다.

(3) 교체 '아낙', '아궁이'와 같은 (이질적, 토속적) 시어를 통해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아낙', '아궁이'와 같은 토속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샤갈의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시인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킴으로써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10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를 통해 시인이 자신의 ~~가문과 가정~~ 출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군.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는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고 있던 시기에 출생하게 된 자신을 욕되다고 표현한 것일 뿐, 자신의 가문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 글 읽으셨다'를 통해 시인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을 통해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군.

시인은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고 있던 당대의 암울한 분위기를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라는 시어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② '융희 2년'과 '남쪽 먼 포구'를 통해 시에 제시된 상황이 시인의 출생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군.

일제 강점을 2년 앞둔 '융희 2년(1908년)'은 시인이 태어난 시기를, '남쪽 먼 포구'는 시인이 태어난 곳(경상남도 통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인이 출생할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통해 시인이 출생할 당시에 우리 민족이 슬픈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시인은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통해 자신이 출생할 당시의 상황, 즉 일제의 강점을 앞둔 초승달같이 슬픈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⑤ '명이나 길라 하여'를 통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심정을 알 수 있군.

할머니가 손주의 이름을 '돌메'라고 지은 것은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래라도 살길 바라서이다. 따라서 '명이나 길라 하여'에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7 가 플라타너스 나 달

작품 분석 본문 64~67쪽

가 플라타너스

작가 김현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독한 인생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특징 ① 자연물을 인격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②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③ 시적 허용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꿈과 이상을 가진 (**플라타너스**)
❷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플라타너스
❸ 고독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준 플라타너스
❹ 플라타너스와 (**영혼**)의 교감을 하고 싶은 소망
❺ (**플라타너스**)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소망

나 달

작가 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달빛에 비친 조화로운 풍경에 대한 감흥
특징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경을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유리창에 밀려오는 (**달빛**)
❷ 달빛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감.
❸ 달빛이 비치는 (**마당**)의 풍경
❹ 달빛을 받아 더 고운 (**흰 돌**)
❺ 달빛에 비친 (**녹음**)과 고요한 밤
❻ 비둘기가 울고 오동나무 꽃향기가 풍기며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의 감흥

10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호명**: 이름을 부름.
- **이중성**: 하나의 사물에 겹쳐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
- **고풍스러운**: 보기에 예스러운 데가 있는.

정·정·이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가)에서는 매 연마다 시적 대상인 '플라타너스'를 반복적으로 호명함으로써 작품의 초점을 '플라타너스'라는 시적 대상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파아란', '검은' 등의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각각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라는 것, 플라타너스가 묻힐 곳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 고풍스러운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④ 헛짚기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젖어 있다', '늘인다' 등에 현재형 진술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의 역동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헛짚기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하늘', '별'은 상승적 이미지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에서는 시적 허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가)의 '파아란', '수고론'에서는 시적 허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부재 (나)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나)에서 '녹음', '오동나무 꽃' 등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나)에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3)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플라타너스'를 의인화하여 꿈을 지닌 존재로 예찬하며 그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흰 돌도 /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에서는 흰 돌을 의인화하여 달빛에 비친 흰 돌을 더욱 곱게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플라타너스'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너'라고 지칭하며 '플라타너스'를 반복하여 부르고 질문하는 등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 변화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부재 (가)에서는 비판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찬적

(가)에서는 꿈을 지니고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플라타너스'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나)에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나)의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에 화자의 감흥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10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적막: 고요하고 쓸쓸함.
- 관조적: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정·정·이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홀로 되어 외로울 제'라고 표현하며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한밤중에 홀로 달빛이 가득한 마당에 나가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고요하고 정감 어린 정취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은 (가)의 화자가 인식한 외로움과 관련된 표현이므로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달밤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범위 오류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외로움을 느낀 (가)의 화자가 자신과 같이 길을 걸어 준 플라타너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혼자서 달밤의 풍경을 즐기는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현재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 오류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교감하고 그와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등에서 화자가 감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화자 오류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가)의 화자가 느낀 고독감이 회의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부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의 화자가 느낀 감흥이 앞날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이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부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오 지름길

㉠ 홀로 되어
㉡ 홀로 보는

(가)와 (나)의 유사한 시구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과 ㉡이 시구는 유사하지만 (가)와 (나)의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보이는 정서와 태도는 다르므로, ㉠, ㉡의 앞뒤에 제시된 시어와 시구를 바탕으로 ㉠과 ㉡에 담겨 있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추측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 '홀로'라는 시어가 지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작품 안에서의 의미에 주목해야 해요.

11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플라타너스가 가진 심리적 상처를 의미한다.

플라타너스가 만들어 주는 시원한 '그늘(㉯)'은 플라타너스가 베푸는 넉넉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오·오·이

① ㉮: 플라타너스가 지닌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

파란 '하늘(㉮)'은 플라타너스가 지향하는 세계로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 방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화자는 '영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으로 인해 마당으로 나가게 되므로 '영창'은 방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1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는 화자가 체험한 것을, ⓑ는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다.

ⓐ는 화자가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의 길이다. 따라서 화자가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는 미래의 어느 날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다.

오·오·이

① 교체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는 현재의 삶을 나타낸다.

ⓐ는 화자의 현재의 삶을,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나타낸다.

② 교체 ⓐ는 화자가 상상한 공간을, ⓑ는 현실의 공간을 나타낸다.

ⓐ는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이고, ⓑ는 화자가 소망하는 관념 속의 공간이다.

④ 범위 오류 ⓐ와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는 화자가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의 길을 나타내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는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공간이다.

⑤ 범위 오류 ~~ⓐ와 ⓑ 모두~~ 화자가 동반자를 만나 함께 정착하는 삶을 나타낸다.

ⓑ는 미래의 어느 날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곳이므로 화자가 동반자를 만나 함께 정착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는 홀로 되어 외로웠던 화자의 고단한 인생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다.

11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가)의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영창'은 방 안과 바깥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오·이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을 통해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준다. (나)의 화자는 달빛에 비친 '흰 돌'을 '이마'가 '유달리' 곱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외로운 '그 길'을 '같이 걸었'으며,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까지 함께하고 싶어 하므로,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은 삶의 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영창으로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접하고 한밤중에 마당으로 나가 달빛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가)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그곳'은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이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나)의 화자는 '마당'에 달빛이 가득한 모습을 '호수'에 비유함으로써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가)의 화자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다며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함으로써 〈보기〉에서 제시한 구도의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오동나무 꽃'을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113 답 (1) 먼 길, 하늘 (2) 너, 우리 (3) 마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먼 길) 검은 흙)'은 화자가 걸어온 인생의 과정을 의미하고, '(하늘) 그늘)'은 화자의 꿈과 이상을 의미한다.

(가)에서 '먼 길'은 화자가 걸어온 고달픈 인생의 과정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은 흙'은 생명이 다하는 날에 묻힐 곳, 즉 영혼의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늘'은 플라타너스와 화자가 지향하는 꿈과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늘'은 플라타너스의 넉넉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체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에 대한 호칭을 '(너, 우리)'에서 '(너, 우리)'로 바꿈으로써, 플라타너스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를 '너'에서 '우리'라고 부름으로써 플라타너스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교체 (나)의 화자는 '(영창, 마당)'에서 달밤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나)의 화자는 영창으로 밀려오는 달빛을 보고 마당으로 나와서 달빛에 비친 고요하고 조화로운 풍경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11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5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5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화자가 플라타너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1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군.

1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의 머리가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② 2연에서 화자는 타인을 배려하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나타내고 있군.

2연에서 화자는 그늘을 늘이는 플라타너스의 모습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3연에서 화자는 고독할 때 자신에게 위안이 되었던 '플라타너스'를 떠올리고 있군.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타너스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외로움을 위로해 주었다고 하였다.

④ 4연에서 화자는 자신과 '플라타너스'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군.

4연의 마지막 행을 통해 화자가 자신과 플라타너스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가 아침 이미지 1 / 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 분석 본문 68~71쪽

가 아침 이미지 1

작가 박남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생동감 넘치는 아침의 이미지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활유법과 의인법,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③ '어둠'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물상)의 생성
❷ 아침이 되어 소멸하는 (어둠)
❸ 아침이 되어 만물이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
❹ 눈부신 아침의 (태양(햇살))
❺ 아침이면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

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가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연을 잊고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 문명의 이기에 대한 비판 및 자연과 인간의 공생
특징 ① 텔레비전을 끄기 전과 끈 후의 상황을 대조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의인법을 통해 시적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를 보여 줌.
③ 청각적·시각적·공감각적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함.

한 줄 의미

❶ 방 안에 들려온 (풀벌레) 소리
❷ 풀벌레 소리를 들은 화자의 (성찰(반성))
❸ 화자의 내면을 채워 주는 자연의 (소리)

11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포용력**: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는 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 '어둠'이 새와 돌, 꽃을 '낳는다'는 것에서 생산력을 지녔음을, 아침이면 스스로 '굴복한다'는 것에서 밝음 앞에 어둠이 순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인 동시에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게 하는 배경으로,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가)의 4행을 통해, '어둠'을 온갖 물상을 돌려주는 주체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나)의 4~5행에서 어둠 속에서 들으니 그 소리가 환하고 더 낭랑하게 들린다고 한 것으로부터 어둠이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아침이 밝아 오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만, (나)에서는 텔레비전을 끈 뒤에 찾아온 어둠 속에 화자가 머물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여러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의 변화를, (나)에서는 '어둠'과 함께 들어온 방 안의 벌레 소리들로 인한 분위기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11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어둠'은 만물을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이고 있다. (○, ×)

(가)에서 '어둠'은 '새', '돌', '꽃' 등의 물상을 낳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만물을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 (나)의 '어둠'은 성찰의 계기가 되는 배경이다. (○, ×)

(나)의 '어둠'은 화자로 하여금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게 하여 그동안 자연을 잊고 살아온 것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따라서 '어둠'은 성찰의 계기가 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3) 교체 (가)와 달리 (나)에는 시간적 배경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 ×)

115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나)와 달리 (가)에서 시간적 배경의 변화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11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가)의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시각의 청각화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아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는 각각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촉각화를 통해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는 (나)와 달리 의인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어둠은 온갖 물상을 ~ 땅 위에 굴복한다.'와 '물상들은 몸을 ~ 즐기고 있다.'에서 '어둠'과 '물상'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에서는 '풀벌레'를 여린 마음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는 등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풀벌레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②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절제된 어조로 '어둠'과 '아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고백적 어조를 통해 자연과의 소통을 잊고 살았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나)이다.

③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풀벌레 소리가 '환하다', '낭랑하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나 상승적 이미지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가)의 '즐거운 지상의 잔치', '즐거운 울림' 등에서 생동감 있는 아침 풍경이 드러나고 있지만 상승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반성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아침이면 ~ 한다.'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아침 이미지를 강조할 뿐,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반성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한편 (나)는 '생각한다'를 반복하여 그동안 자연을 잊고 살았던 스스로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1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지각**: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 **간과**: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정·정·이

③ 화자 오류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C]에서 화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풀벌레 소리와 풀벌레들의 여린 마음을 생각하며, 그동안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화자 때문에 풀벌레들끼리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을 미안해한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들이 들려온다고 하였으므로,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소리를 텔레비전을 끈 후에 지각했다고 볼 수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B]에서 화자는 어둠 속에서 환해진 풀벌레 소리 중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D]에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때문에 풀벌레 소리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그 소리를 간과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E]에서 화자는 밤공기와 함께 풀벌레 소리가 자신의 허파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119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텔레비전'은 현대 문명을 대표한다.

ㄴ.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때문에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어둠과 함께 풀벌레 소리가 방 안에 가득 들어오자,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눈과 귀를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이 수없이 자신에게 왔다가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ㄴ) 자연에 무심했던 것을 성찰하고 있다. 이로 보아 '텔레비전'은 풀벌레 소리와 대립되는 시어로,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ㄱ).

오·오·이

ㄷ. 화자 오류 화자가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는 것은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화자가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는 것은 그동안 무심했던 자연을 느끼며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12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는 평소에 '풀벌레 소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는 '되돌아간 소리'를 생각하던 화자가 풀벌레 소리에 무심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한 말로, 화자가 애써 풀벌레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화자는 '텔레비전'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었군.

'텔레비전'을 끄면서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텔레비전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② '귀뚜라미나 여치'의 울음소리를 들은 화자는 그보다 작은 풀벌레들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군.

118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의 인식 범위가 '귀뚜라미나 여치'의 큰 울음소리에서 그보다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하루살이들'은 화자에게 닿지 못하고 되돌아갔던 소리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화자는 브라운관의 현란한 빛이 자신의 눈과 귀를 채우는 동안 풀벌레의 울음소리들이 수없이 왔다가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루살이들이 전등에 부딪쳤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다.

⑤ '밤공기를 들이쉬'는 모습은 자연을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군.

화자가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이는 마음으로 자연과 소통함으로써 자연을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12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생기**: 싱싱하고 힘찬 기운.

정·정·이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밝아 오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태양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여러 물상들이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와 어울려 분위기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날이 밝으며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물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② 헛짚기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생기 넘치는 아침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아침이 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온갖 물상들의 모습을 즐거운 잔치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활기차고 밝은 아침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지,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⑤ 헛짚기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세상은 개벽을 한다'에는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어 활기차게 움직이는 아침 풍경을,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건처럼 느끼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거나 그로 인해 겪는 혼란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122 답 (1) 낳는다 (2) 걷히는 (3) 경이로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낳는다, 굴복한다)'는 '어둠'을 생성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어둠'이 '새', '돌', '꽃' 등의 물상을 낳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낳는다'는 '어둠'을 생산력을 가진 모체의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체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어둠이 (걷히는, 찾아오는) 시간을 의미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 오는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3) 교체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시상이 집약된 부분으로, 아침 풍경에 대한 (비애감, 경이로움)이 드러난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의미로, 생동감이 넘치는 아침 풍경에 대한 경이로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2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계**: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정·정·이

④ '몸을 움직이'는 '물상'들의 모습은 아침을 맞은 사물들의 생동감을 강조한다.

화자는 아침이면 물상들이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고 하며 이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물상'들의 모습은 아침을 맞은 사물들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꽃'은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가)에서 '어둠'은 온갖 물상을 태어나게 하는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때 '꽃'은 '어둠'이 낳는 물상 중 하나일 뿐,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② 헛짚기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은 ~~어둠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물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어둠'이 '물상을 돌려주'는 것은 아침이 밝아 옴에 따라 어둠이 물러가면서 만물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어둠은 물상을 태어나게 하는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으므로 물상들이 어둠으로부터 구속되었다가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헛짚기 '땅 위에 굴복'하는 어둠의 모습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위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땅 위에 굴복'하는 어둠의 모습은 아침이 밝아 오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뿐, 하늘과 땅의 위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⑤ 헛짚기 '금으로 타는 태양'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대가가 필요함을 드러낸다.

'금으로 타는 태양'은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를 밝아오는 햇살의 눈부신 이미지로 나타낸 것일 뿐,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대가가 필요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12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은 온갖 물상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시간이다.

123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아침(㉡)'은 온갖 물상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이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에게 굴복당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어둠(㉠)'이 '아침(㉡)'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상을 돌려주고 땅 위에 굴복하는 것이므로, 수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은 화자가 ㉡을 맞이하기 위해 갖추고자 하는 대상이다.

'노동(㉢)'은 만물이 움직임을 시작하는 활기찬 아침 풍경을 나타내는 시어일 뿐, 화자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갖추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헛짚기 ㉣은 ㉡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잔치(㉣)'는 아침에 만물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와 '태양의 즐거운 울림'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은 실제로 돌이 생성되는 아침 풍경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나타낸다.

121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의 감탄은 활기찬 아침 풍경을 개벽하는 것같이 인식하면서 느낀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어둠이 돌을 낳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던 온갖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로 돌이 생성된다는 뜻이 아니다.

19 가 낡은 집 나 고향 앞에서

작품 분석 본문 72~75쪽

가 낡은 집

작가 최두석
갈래 산문시, 서정시
주제 가난한 고향 집의 풍경과 가족들의 따뜻한 애정
특징 ① 고향 집에 돌아온 '나'의 정서 변화의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됨.
② 고향 집과 가족의 모습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담담한 어조로 묘사함.
③ 향토적 소재를 감각적으로 사용함.
④ 익살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 가난한 고향 (**집**)의 풍경
- (**가족들**)의 따뜻한 애정

나 고향 앞에서

작가 오장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향수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함.
② 쓸쓸하고 애상적인 어조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얼었던 (**강**)이 풀리는 이른 (**봄**)의 정경
❷ (**나룻가**)를 서성거리며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❸ 주막에서 화자와 함께 회한에 젖은 (**주인집 늙은이**)
❹ 쓸쓸한 (**고향**)의 모습
❺ 평화로웠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12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락**: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무상**: 모든 것이 덧없음.

정·정·이

① (가)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고 있고, (나)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귀향'이라는 말을 어설퍼하며 자신의 부모와 동생을 각각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라고 지칭하고, 아무도 없는 방바닥에서 냉기를 느끼고 있다. 이처럼 고향 집을 전반적으로 익숙함과는 거리가 멀게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익숙했던 공간인 고향 집에서 낯선 느낌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2연에서 화자가 낯선 행인의 손을 쥐고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친근감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가)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나)의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는 화자의 뿌리이자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고향을 표현한 말일 뿐이다. 따라서 (나)의 고향이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자가 고향을 벗어나고자 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어전함에 좌절하고 있다.

(가)에서는 세상의 변화나 변하는 인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나)의 화자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인집 늙은이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각박한 인심에 좌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나)의 화자는 고향을 잃어버린 신세이다. 그러나 (가), (나)의 화자 모두 삶에 무상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가)의 화자는 농부인 아버지가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며 '차비 정도를 버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 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의 6연은 화자의 마음 속 고향의 모습이자 화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고향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화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6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담담한 어조와 익살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나타내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궁핍하게 사는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며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리를 저는 오리의 허둥대는 모습과 박치기하는 메주 등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가난으로 인한 비애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2) 헛짚기 (나)의 화자는 떠도는 장꾼들에게서 자신이 기대했던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된다. (○, ×)

(나)의 5~6연을 통해 화자가 여기저기 떠도는 장꾼들에게서 그리운 고향의 소식을 듣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그들에게서 기대했던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12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나)에는 화자의 소망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애상감이 나타나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근처 나룻가를 서성이다 주막에 들러 주인집 늙은이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고향은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가 나는 평화로운 곳이지만, 현재의 화자가 찾아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나)의 화자는 자신이 그리던 고향에 가고 싶은 소망과 달리 고향에 가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빈곤한 삶에 대한 개탄을 표출하고 있다.

126번-(1)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의 화자는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으므로 빈곤한 삶에 대한 개탄을 표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가)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가)는 화자가 고향 집에 도착한 겨울 해어름부터 아버지가 귀가하신 늦은 밤을 배경으로, 가족을 만나기 전에는 귀향한 자신을 어설프게 느끼다가 가족을 만나 후 애정과 따뜻함을 느끼는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 오류 (나)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담겨 있다.

(나)의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할 뿐 지나온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이 지금은 찾아갈 수 없는, 평화로웠던 과거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떠나간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떠나간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12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객관화**: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일.

정·정·이

⑤ 헛짚기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은 장꾼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실상 고향을 잃은 화자의 설움을 나타낸 것으로,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의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은 화자의 부모와 여동생을 의미한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가족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객관화하여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에서 묘사된 아무도 없는 집 안과 선뜩한 냉기가 도는 방바닥에서, 가난한 형편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간접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③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은 봄이 되어 강의 얼음이 녹아 강물에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의 '지난날의 꿈'은 고향에서 지냈던 행복한 추억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함께 나누며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의문형 어미를 통해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가)에서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하는 것은 ~~고된 삶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다.

(가)에서 집 안에 메주가 매달려 있는 풍경을 '서로 박치기'한다고 표현한 것은 궁핍한 고향 집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려 웃음을 자아낸 것으로, 힘든 삶에서 오는 비애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좌절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② (나)의 '산짐승의 우는' 소리는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의 '산짐승의 우는'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나)의 '주막'은 화자가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공간이다.

(나)의 '주막'은 화자의 고향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주인집 늙은이와 이야기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장꾼들에게 고향 소식을 듣고자 하므로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3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나)의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지우는 것은 화자의 슬픔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화자와 '주인집 늙은이'의 처지가 비슷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행인', '장꾼들'은 고향 근처에 머물던 화자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로,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고향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강바람'은 산짐승이 우는 소리를 불러오고 '설레는 바람'은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이는 고향 근처에 있다는 설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쓸쓸함 등을 담아내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④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

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은 '눈물지운다', '잠자고', '보셨나이까'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이를 통해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 행의 '흙이 풀리는 내음새'와 마지막 행의 '누룩이 뜨는 내음새'는 모두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3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울창하고**: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푸르고.

정·정·이

③ 헛짚기 (나)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130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화자가 공감한 것이 아니라,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슬픔에 공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도 공감과 조화를 통해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귀향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가)에서 화자는 가난한 농촌 현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화자가 돌아온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가)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고향을 떠난 이가 복귀하려는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가)의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동생이 화자를 반가워하며 아버지가 오리를 잡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의 따뜻함과 가족애를 느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복귀하려는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나)의 6연에서 화자가 고향을 전나무 우거져 있고,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묘사하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나)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보기〉에 따르면 고향은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의 화자는 고향 집에서 궁핍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비애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상적 공간으로의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에서 화자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의 주막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 귀향 역시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32 답 (1) 낯선 (2) 사랑 (3) 잰나비 우는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가)의 '선뜩한 냉돌'은 화자가 느끼는 (낯선 익숙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25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선뜩한 냉돌'은 고향 집의 썰렁한 분위기와 빈곤한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으로, 고향 집에서 느낀 화자의 낯선 감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상반 (가)에서 아버지가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 것은 화자에 대한 (원망, 사랑)의 마음을 보여 준다.

아버지가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 것은 고향에 돌아온 화자를 반겨 음식을 차려 주기 위한 것으로, 화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준다.

(3) 교체 (나)의 '(잰나비 우는, 누룩을 디디는)' 소리는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의 '잰나비 우는'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13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B]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는 이른 봄에 얼음장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음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겨울에서 언 땅이 녹는 봄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C]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처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잰나비 우는'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처량하고 쓸쓸한 고향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청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근원적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의 청각적 심상과 '누룩이 뜨는 내음새'의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그리워하는 풍요롭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0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고고(孤高)

작품 분석 본문 76~79쪽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가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모란(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
특징 ① 순환적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③ 수미상관의 구성과 도치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④ 음성 상징어 및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❷ 모란이 진 후의 (**슬픔**)과 절망감
❸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림.

나 고고(孤高)

작가 김종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현실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시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③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절을 반복·변주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겨울이 되어야 드러나는 (**북한산**)의 높이
❷ 높은 봉우리에 눈이 (**가볍게**) 덮여야 드러나는 고고한 높이
❸ 다른 계절에는 드러나지 않고 (**변질**)되기 쉬운 고고한 높이

13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치**: 문장 안에서 정상적인 어순 따위를 뒤바꿈. 흔히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려는 말을 문장의 앞쪽에 내세우는 것을 이르며, '어머니 보고 싶어요.'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되는 것 따위이다.
- **긴박감**: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

정·정·이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1~2행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11~12행에서 변주·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여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1연이 마지막 연에서 변주·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현실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강조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11~12행에서 어순의 도치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는 어순이 도치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나)는 '수묵'이라는 시어가 흑백의 대비를 연상시키고, 화자가 바라보는 북한산의 모습이 눈으로 덮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회화적 이미지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모란꽃의 색깔이 연상될 뿐, 흑백의 색채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흑백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가)는 모란이 핀 것을 본 경험을, (나)는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 북한산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로, 둘 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정·오 지름길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 모란이 피는 상황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라는 점에서 가상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의 '까지'는 어떤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화자가 모란이 피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지, 가상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한편 (나)는 '~려면'과 같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⑤와 같이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진술한 선지에서는 각각의 표현 방법이 (가)와 (나)에 모두 쓰였는지 먼저 확인한 후, 그로 인한 효과도 적절한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해요.

135 답 (1) (가), (나) (2) (가) (3)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 (나))

(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 기다리고 있을 테요.'를 반복하여 모란에 대한 기다림의 태도를 강조하고, (나)는 '기다려야만 한다'는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가 고고함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경어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

(가)의 화자는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 공손함을 더해 주는 어미 '-오-'에 상대를 아주 높이는 종결 어미 '-ㅂ니다'의 방언인 '-ㅂ네다'가 결합된 말 등을 통해 모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경어체로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나)는 '기다려야만 한다'와 같이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낼 뿐, 경어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3) 범위 오류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

(나)의 화자는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 등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13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의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인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뚝뚝 떨어져 버린', '떨어져 누운'과 같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 풍경을 '가볍게 눈을 쓰고', '수묵으로 젖어 있는' 등과 같이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소재로 삼고 있다.

(가)는 모란을 소재로 삼아 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나)는 북한산의 모습에 빗대어 고고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부재 ~~(나)와 달리 (가)는 대화의 형식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나)와 달리 (가)는 명사로 시를 끝맺어 대상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봄을'로, (나)는 '기다려야만 한다.'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둘 다 명사로 시를 끝맺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모란과 북한산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서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찬란한 슬픔의 봄'은 역설적 표현으로, 봄을 모란이 피는 기쁨의 계절이자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순된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13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비중**: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 **요건**: 필요한 조건.

정·정·이

① 헛짚기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가)의 '설움'은 '나의 봄(㉠)'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의 봄'이 끝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오·오·이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모란이 지고 나면, 그 뒤로 남은 나머지 '삼백예순 날'은 화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날들이라는 뜻이다. 이어서 화자가 늘 섭섭해서 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의 봄(㉠)'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찬란한 슬픔'에서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을, '슬픔'은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설움을 뜻한다. 이 둘을 연결하여 역설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나의 봄(㉠)'에 모란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백운대와 인수봉의 '고고한 높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밤사이 눈이 내려 온 산이 수묵화처럼 보이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4, 6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고고한 높이(㉡)'는 온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고,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상태일 때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뚝뚝'에는 모란이 진 후의 상실감이 담겨 있다. (○, ×)

'뚝뚝'은 '큰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잇따라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로, 모란의 꽃잎이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동시에 모란이 진 것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2) 화자 오류 '삼백예순 날'에는 기다림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 ×)

'삼백예순 날'은 모란이 지고 난 뒤 화자가 늘 섭섭해 우는 시간이므로, 모란이 진 것에 대한 슬픔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다림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3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미묘한**: 뚜렷하지 않고 아릇하고 묘한.

정·정·이

④ 상반 '왼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반대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2, 6연에서 북한산의 높은 봉우리만이 가볍게 눈을 쓴 상태가 화자가 기다리는 '고고한 높이', 즉 고고한 정신세계의 경지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왼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이 경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반대되는 상황이며,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옅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옅은 화장'은 눈이 살짝 덮인 북한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화자는 온 산을 뒤덮는 적설이 아닌, 눈이 살짝 쌓인 때야말로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차가운 수묵'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차가운 수묵'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 북한산의 속성이 드러나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신록', '단풍', '안개'는 모두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이 지니는 고고함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가볍게 눈이 덮인 산봉우리의 고고함은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된다. 이를 통해 고고함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존속**: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

정·정·이

③ 헛짚기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나)에서 화자는 대상인 북한산이 고고한 아름다움을 보이려면 높은 봉우리인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적설이 아닌 가벼운 눈을 쓰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대상의 높이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가)에서는 모란이 피는 아름다움을 경험한 화자를 '나'와 같이 표면에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가)의 9~10행에서 화자는 모란이 지고 난 뒤 남은 시간인 '삼백예순 날'을 늘 섭섭해 운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모란은 일 년 중 '삼백예순 날'을 제외한 5일 정도만 피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만 존속하는 모란의 아름다움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나)에서는 2, 3연에서 대상인 북한산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이 제시되고, 4연에서는 그렇지 않은 순간이 제시되면서 서로 대비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가)는 봄,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141 답 (1) 아름다움 (2) 봄 (3) 대상의 묘사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와 (나)는 대상이 지닌 속성에서 화자가 느낀 (아름다움, 슬픔)을 드러낸다.

〈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2) 교체 (가)는 (봄, 가을)에 소멸을 앞둔 모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가)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모란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고 하였다.

(3) 교체 (나)는 (정서의 표현, 대상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나)에서 '옅은 화장을 하듯 / 가볍게 눈을 쓰고', '왼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등의 표현으로 북한산의 고고함을 묘사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나)에서 '장밋빛 햇살'은 화자가 인식한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해당하겠군.

〈보기〉에서 화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영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에서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에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여 사라진다고 하였다. 즉 이른 아침에서 시간이 지나 '장밋빛 햇살'이 비치면 고고한 높이가 변질되므로 '장밋빛 햇살'은 시간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의 '기다리고 있을 테요'에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깔려 있군.

(가)에서 화자가 모란이 지고 난 후 기다리겠다고 한 이유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 모란이 다시 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② (가)에서 '삼백예순 날 하냥' 운다는 화자의 말은 모란의 재생을 기다리는 동안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군.

(가)에서 화자가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는 이유는 모

란이 지고 난 뒤의 나머지 시간은 화자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며 그 시간 동안 모란이 진 것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을 느낄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한 이유는 화자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음을 나타내는 것이군.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은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보여 주는 시간인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 지나갔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오월'과 (나)의 '겨울'은 모두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짧은 시간이자, 대상의 소멸을 겪은 시간이겠군.

(가)의 '오월'은 모란이 피는 봄이면서,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을 포함하고, (나)의 '겨울' 또한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시간이면서, '왼 산을 뒤덮는 적설'처럼 그렇지 못한 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오 지름길

① (가)의 '기다리고 있을 테요'에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깔려 있군.

② (가)에서 '삼백예순 날 하냥' 운다는 화자의 말은 모란의 재생을 기다리는 동안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군.

①과 ②는 화자가 모란의 재생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아요. 문제에서는 답이 하나여야 하므로, 같은 내용을 다룬 ①과 ②는 모두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이럴 때는 두 선지를 빠르게 지우고 다른 선지를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21 가 와사등 나 울타리 밖

작품 분석 본문 80~83쪽

가 와사등

작가 김광균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도시 문명에 대한 절망과 비애, 고독한 현대인의 방황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비유와 시각적·청각적·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냄.
③ 변주된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부각함.
한 줄 의미
❶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느낀 (**공허함**)과 방황
❷ 도시의 삭막함과 (**무질서**)
❸ 군중 속에서 느끼는 (**비애(슬픔)**)와 소외감, 삶의 중압감
❹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느낀 (**공허함**)과 방황

나 울타리 밖

작가 박용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
특징 ①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시의 앞과 뒤를 연결하고 시상을 집약함.
②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림.
③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열거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시의 분위기를 조성함.
한 줄 의미
❶ 고향의 (**소녀**)와 (**소년**), 들길의 모습
❷ (**들길**)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
❸ 꾸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

14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래**: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
- **암시**: ① 넌지시 알림. 또는 그 내용. ② 뜻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법.

정·정·이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2연에서 고층 건물이 늘어선 도시의 풍경을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에 비유하여 공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2연에서 고향의 들길의 풍경을 '아지랑이', 타는 '태양', 나는 '제비', 흐르는 '물' 등에 비유하여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마지막 연이 1연의 시행 순서를 바꾸어 반복한 것이

라는 점에서 수미상관의 방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과 비애는 변하지 않으므로 정서의 변화가 강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에는 수미상관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② 부재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가)의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화자의 방황과 비애감을 나타내는 시구로, 시적 대상인 '와사등'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한다고 볼 수 없다.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헛짚기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밝음과 관련된 시어 '등불', '찬란한 야경'이, 어둠과 관련된 시어 '어둠'이 쓰였으며, (나)에서는 밝음과 관련된 시어 '잔광'이, 어둠과 관련된 시어 '밤'이 쓰였다. 그러나 이 시어들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의 '내'라는 시어에서 알 수 있듯 (가)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14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에는 모두 가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나)에서의 고향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이상적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리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1연의 시구를 마지막 연에서 배열을 바꾸어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화자의 공허함과 방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는 4연에서 '~ 마을이 있다'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②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와 (나)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가)는 현대의 도시 풍경을, (나)는 자연과 조화된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14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에는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이, (나)에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애정 어린 시선이 나타나 있다.

(가)의 2연에서 도시 풍경을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가 고향의 '소녀'와 '소년', '들길'에 대해 사랑스럽다고 언급하고 꾸밈없는 고향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고향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다) 모두~~ 현대인의 고독감이 표출되고 있다.

현대인의 고독감과 방황을 표현한 것은 (가)뿐이다. (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② 화자 오류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면서 좌절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비애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좌절하는 상황과 거리가 멀다.

③ 화자 오류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다.

(가)의 화자는 도시의 군중 속에서 공허감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삶의 깨달음을 얻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④ 화자 오류 (가)에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나)에는 ~~자연과 관계 맺고 있는 타인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현재 도시의 삶을 낯설게 느끼며 방황하고 비애감을 느끼고 있을 뿐, 스스로에게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화자는 꾸밈없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드러낼 뿐, 타인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14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은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피부에 '스미는' 촉각적인 것으로 나타낸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으로, 화자가 느끼는 음습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비인 하늘'은 적막한 느낌을 주는 배경으로 여기에 걸려 있는 '차단—한 등불 하나'는 뒤에 이어지는 '내 호올로'와 함께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한다.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길—게'에 쓰인 문장 부호 '—'는 '길게'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동일한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하여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 다양한 소재들을 나열함으로써 이들이 천연한 속성을 동질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의 시어인 '천연히'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대상의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147 답 (1) ㉤ (2) ㉣ (3)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은 시상을 집약하며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

㉤은 1~2연과 4연을 연결하며 시상을 집약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함축하여 보여 준다.

(2) 범위 오류 ㉣은 열거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

㉣은 들길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을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을 열거하여 나타냄으로써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3) 범위 오류 ㉠, ㉡, ㉢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정서와 시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 ㉢)

㉠의 빈 하늘에 걸려 있는 '등불'과 ㉢의 길게 늘어진 어두운 '그림자'는 화자가 느끼는 공허감과 삶의 중압감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의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은 공감각적 이미지로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음습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14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도시 문명을 향한 의혹을 강조하고 있다.

'눈물겹고나'에서 화자의 비애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도시 문명을 향한 의혹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의 화자는 도시 문명 속에서 방황하며 비애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오·오·이

① ㉮: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홀로'를 의도적으로 '호올로'라고 씀으로써 화자의 외로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② ㉯: 활유법을 활용하여 해가 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무생물인 해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해가 지는 모습을 새가 날개를 접는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④ ㉱: 중의성을 지닌 시어를 앞에 배치하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같이'를 '처럼'의 의미로 보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대상에 '소녀', '소년', '들길'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지만, '함께'의 의미로 본다면 '들길'만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대상이 된다. 이처럼 중의적 시어의 배치는 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 꾸밈없이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제시하고 있다.

'화초'를 울타리 밖에도 심는다는 것은,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화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의 경계인 울타리의 안팎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14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가)의 2연에서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시간의 '순환적' 흐름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도시의 황폐함은 도시 풍경을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에 비유함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나)에서는 '한여름', '밤'에서 계절적·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을 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자연의 지속성은 마을 풍경을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밤이면 더 많은 별이 뜨는'과 같이 묘사함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오·오·이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가)는 하늘에 걸린 '등불', 해 질 녘 도시의 고층 건물과 '야경', '그림자' 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고향 마을의 풍경을 '화초', '잔광', '별' 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회화적 이미지와 부합한다.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가)에서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인식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문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명과의 불화로 인한 상심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초'는 인간의 영역인 '울타리 안'과 자연의 영역인 '울타리 밖'을 이어 주는 것이므로 〈보기〉에 따르면 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나)와 달리 (가)는 '슬픈', '낯설은', '공허한', '비애' 등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마늘쪽', '울타리' 등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150

답 (1) 모더니즘, 현대 문명, 토속적 (2) 지성 (3) 조화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 (나)는 (사실주의, 모더니즘)의 시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으로, (가)는 (현대 문명, 전통)에 대한 태도를, (나)는 (도시적, 토속적) 정취를 보여 준다.

〈보기〉에서 (가)를 쓴 김광균은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하였으며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한편 (나)를 쓴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을 활용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였다고 하였다.

(2) 교체 (가)에는 (감성,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이 나타나 있다.

〈보기〉에서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고 하였다.

(3) 교체 (나)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 조화)에 대한 바람을 회화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 박용래는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하였다.

15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작**: 시를 지음. 또는 그 시.
- **모티프**: 회화, 조각, 소설 따위의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동기가 된 작가의 중심 사상.

정·정·이

① 화자 오류 고향의 '소녀'와 '소년'은 시적 주체가 '들길'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해소해 주고 있군.

시적 주체는 들길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을 보며 천연하다고 느끼고 있을 뿐, 고독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향의 소녀와 소년이 고독감을 해소해 준다고도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천연히'라는 시어에서 '마을'이 도시적 삶과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공간임이 드러나고 있군.

〈보기〉에서 (나)의 후반부에서 '들길'의 추억은 메마른 도시적 삶의 고독과 대비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3연의 '천연히'는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4연에 묘사된 '마을'이 도시적 삶과 대비되는 속성을 지니는 공간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시적 주체에게 '들길'의 추억은 풋사랑의 아련함으로 기억된 사연으로 시작(詩作)의 계기가 되고 있군.

〈보기〉에서 (나)의 도입부는 시적 주체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풋사랑의 아련함이 고향 마을의 정경과 어울리며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이를 '들길'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1연에 묘사된 장면은 시적 주체에게 풋사랑의 아련함으로 기억된 사연으로써 (나)를 창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④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은 '고향-마을'의 모티프를 형상화한 것으로 현재의 시적 주체가 지향하는 모습이군.

〈보기〉에서 (나)의 후반부에서 '들길'의 추억이 '고향-마을'의 모티프로 확산되는데, 여기에서 '화초', '잔광', '별'이 과거를 표상하는 동시에 현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의 후반부에 제시된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 풍경은 '고향-마을'의 모티프가 형상화된 것으로, 현재의 시적 주체가 지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현재 시제로 기억 속의 정경을 표현함으로써 고향 마을을 과거의 공간인 동시에 현재의 세계로 인식되게 하고 있군.

〈보기〉에서 (나)의 도입부는 시적 주체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후반부에서 '화초', '잔광', '별'은 시적 주체의 현재를 둘러싸는 우주와 같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있다'는 고향을 과거의 공간인 동시에 현재의 세계로 인식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15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늘여선~~

'늘어선(ⓑ)'은 건물이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모습을 표현할 뿐,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 슬픈

도시 문명에서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③ ⓒ 낯설은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화자의 반응을 나타낸 말로, 화자의 소외감을 드러낸다.

④ ⓓ 공허한

존재감과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가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⑤ ⓔ 차단-한

차갑고 냉정한 도시 문명에 대해 느낀 화자의 감정을 와사등의 차가운 느낌을 통해 대신 표현한 것이다.

22 가 생명의 서-일 장 나 농무

작품 분석 본문 84~87쪽

가 생명의 서-일 장

작가 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생명의 본질 추구에 대한 의지
특징 ① 삶의 본질을 찾는 화자의 구도 과정이 드러남.
② 모든 생명이 사멸하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생명의 본질을 찾겠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형상화함.
③ 대조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삶에 대한 (**회의**)와 애증의 감정에 부대낌.
❷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극한의 공간인 아라비아 (**사막**)
❸ 본질적 (**자아('나')**)를 찾으려는 비장한 의지

나 농무

작가 신경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과 농민들의 한
특징 ① 농촌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울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함.
② 화자의 심리를 역설적 상황을 통해 드러냄.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한 줄 의미

❶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심.
❷ (**장거리**)에서 느낀 서글픔
❸ 피폐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울분**)
❹ (**농무**)를 통한 울분과 한의 표출

15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탈속성**: 속세를 벗어난 것과 같은 성질.
- **동경**: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함.

정·정·이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나)는 시상이 마무리되는 부분인 '한 다리를 ~ 불꺼나 / 고갯짓을 ~ 흔들꺼나'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여운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대구의 표현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에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쓰이지 않았다.

② 부재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나)에서는 '보름달은 밝아'로 보아,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피폐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고 있을 뿐,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가)는 시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아라비아 사막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나)에는 시각적 심상 외에도 '징이 울린다',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에서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가 가고자 하는 '아라비아 사막'은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하고 알라의 신만 존재하는 탈속적인 공간으로, 이곳에서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나)에는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을 내세워 화자의 동경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15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가)~~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가)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의 '아라비아 사막'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가려고 한 상징적 공간일 뿐, 화자가 이곳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다. 한편 (나)는 화자가 '운동장' → '소줏집' → '장거리' → '쇠전' → '도수장'의 순서로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오·이

① (가), (나) 모두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살면서 느끼게 되는 회의와 애증에서 벗어나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를, (나)의 화자는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울분을 독백적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③ (나)는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답답하고 ~ 원통하다', '산 구석에 ~ 무엇하랴', '비룻값도 ~ 농사 따위야' 등에서 농촌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5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화자가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 가고자 하는 아라비아 사막이 모든 생명이 사멸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는 암울한 농촌 현실의 울분과 한을 신명 나는 농무를 통해 분출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가)는 생명의 본질 추구에 대한 의지를, (나)는 농민으로서의 한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활유법~~을 통해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는 무생물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활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② 부재 (가)는 ~~(나)와 달리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가)와 (나)에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부재 (나)는 ~~(가)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가)와 마찬가지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이지 않았으며,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한자어와 관념어를 사용해 생경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회의', '애증', '영겁', '허적' 등의 한자어와 관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생경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나)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15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가)에서 화자는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올로 서면' 반드시 본질적 자아인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렬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본질적 자아에 도달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나'는 화자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되찾기 위해 추구하는 본질적 자아인데 반해, '병든 나무(㉠)'는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을 표상하므로 서로 대비된다.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영겁의 허적(㉡)'은 아무것도 없이 적막한 '아라비아의 사막'의 극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본질적 자아와 대면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화자는 '나'와 대면하여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회한 없는 백골(㉤)'은 '나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강한 생명 회복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5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은 삶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 ×)

'병든 나무(㉠)'는 현재 삶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2) 헛짚기 ㉡은 화자가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다. (○, ×)

'영겁의 허적(㉡)'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만나리라 기대하고 찾아가려는 공간의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하는 적막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화자가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원인과 관련이 없다.

(3) ㉣은 순수한 인간 본연의 자아를 나타낸다. (○, ×)

'원시의 본연한 자태(㉣)'는 화자가 구하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 즉 순수한 인간 본연의 자아를 의미한다.

15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은 ~~다 함께 즐기는 농무의 흥과 신명~~을 드러낸다.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은 농무를 즐기는 사람이 적어진 텅 빈 농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지, 농무의 흥과 신명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막이 내렸다'는 공연이 모두 끝난 후의 공허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막이 내렸다'는 공연이 끝났다는 의미이므로 그 후의 공허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② '분이 얼룩진 얼굴'은 공연의 분장을 미처 지우지 못한 얼굴 또는 원통한 울분이 드러난 얼굴을 의미한다.

'분'을 공연할 때 하는 분장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분장을 미처 지우지 못한 얼굴로 이해할 수 있고, 울분의 의미로 본다면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이해할 수도 있다.

④ '보름달은 밝아'는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드러낸다.

'보름달은 밝아'는 (나)의 시간적 배경이 보름달이 밝게 보이는 밤임을 드러낸다.

⑤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는 화자가 울분을 느끼는 이유를 직접 제시해 준다.

6행에서 화자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한 뒤 15행에서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울분을 느끼는 이유가 농촌의 구조적 모순 때문임을 직접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③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은 다 함께 즐기는 농무의 흥과 신명을 드러낸다.

'뿐', '도', '만' 등의 보조사는 문장에서 의미를 제한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특히 ③에 제시된 시구에서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이라는 뜻으로 농무에 따라붙어 즐기는 청중이 그 외에 더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여기에서 '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뒤에 이어지는 '다 함께 즐기는 농무'와 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을 재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15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보기〉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는 오히려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명을 느끼는 화자로부터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태도를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농무가 역설적으로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 준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농무를 추는 화자는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A]의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에서 잘 드러난다.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은 부정적 느낌의 시구들로,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④ ⓐ와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농민들의 상황을, ⓐ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농민들이 느끼는 정서를 보여 준다. 〈보기〉에 제시된 1970년 전후의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 ⓑ를 통해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지할 수 있다.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나)에서 화자는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는 부인에게 맡겨 두고 신명 나게 농무를 추고자 한다. 그런데 〈보기〉에서 농무는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농무를 어떻게 출 것인지를 묻는 ⓒ는 비참한 농촌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은 화자가 자조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냉소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160 답 (1) 피폐한 (2) 자조적 (3) 저항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달관**: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에 이름. 또는 그 식견이나 인생관.

정·정·이

(1) 교체 [A]에서 울리는 징소리는 농민들의 (피폐한, 활기찬) 삶의 모습과 관련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보기〉에 따르면 1970년 전후의 농촌은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갔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막이 내렸다는 의미로 울리는 징소리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피폐해진 농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농촌의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B]의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는 화자의 (의지적, 자조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는 발버둥 쳐 봤자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화자의 자조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의 춤은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달관, 저항)의 몸짓이다.

ⓒ에 나타나는 농민들의 춤은 비극적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과 한을 신명 나는 몸짓으로 분출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6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허탈**: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함. 또는 그런 상태.
- **승화**: ①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 ② 자아의 방어 기제의 하나. 정신 분석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충동·욕구를 예술 활동, 종교 활동 따위의 사회적·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치환하여 충족하는 일이다.

정·정·이

③ 헛짚기 ㉰: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전통적인 풍속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는 것은 농민들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울분과 한을 토로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농촌의 전통적인 풍속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산업화 시대에 허탈해진 농민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공간으로, 〈보기〉를 참고할 때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고 허탈해진 농민의 슬픔과 한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 농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를 술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이 얼룩진 얼굴로 /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기〉를 참고할 때, 농촌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와 울분을 술로 해소하고자 하는 농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④ ㉱: 산업화로 인해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는 〈보기〉를 참고할 때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고 급속도로 와해되어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⑤ ㉲: 농민의 울분과 고통을 농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승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점점 신명이 난다'는 것은 농민의 울분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으로, 농무를 추는 것은 그 한과 고통을 흥겨운 농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승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6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 [나] 모두 주어진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의 화자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조적으로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님'과 만나기 힘든 현실을 인식하고 '님'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 줄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의 화자 모두 주어진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는 수동적이고, [나]는 ~~능동적~~이다.

[가]의 화자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대해 자조적으로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도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으므로, 둘 다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범위 오류 [가]는 ~~낙관적~~이고, [나]는 비관적이다.

[가]와 [나]는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를 깨닫고 한탄하거나 걱정하고 있으므로, 둘 다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가]는 ~~객관적~~이고, [나]는 주관적이다.

[가]와 [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둘 다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가], ~~[나] 모두~~ 현실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가 자조적으로 한탄하는 모습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현실을 회의적, 비관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으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3 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나 월훈

작품 분석 본문 88~91쪽

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작가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유랑민의 비애
특징 ① 타향에서 맞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절제되고 담담한 어조로 회고함.
②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비극성을 강조함.
③ 청각적 이미지와 점층법을 통해 비극성을 강조함.
④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유랑민의 곤궁한 삶을 보여 주고 아버지의 죽음을 사회 차원으로 확대함.

한 줄 의미

❶ (**타향**)에서 맞은 아버지의 임종
❷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❸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함.
❹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가족의 (**슬픔**)

나 월훈

작가 박용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산촌의 적막함과 노인의 고독감
특징 ① 경어체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감의 깊이를 더해 줌.
② 향토적 서정을 불러일으키는 토속어와 고유어를 주로 사용함.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을 전개함.
④ 반복법과 연쇄법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⑤ 시상이 집약된 명사로 시를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남김.

한 줄 의미

❶ (**첩첩산중**)의 후미진 마을
❷ 갱 속 같은 마을 (**외딴집**)의 모과빛 창문
❸ 외딴집의 잠 못 이루는 (**노인**)
❹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
❺ 달무리 진 (**밤**)의 정경

16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초점화**: 예술 작품에서, 인물의 행위나 상황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
- **합일**: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대상화**: ① 어떠한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함. ② 자기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밖에 있는 것으로 다룸.

정·정·이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는 아버지의 임종 장면에, (나)는 한겨울 산골 외딴집에서 밤을 보내는 노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 (가)는 풀벌레 소리를 통해 (나)는 모과빛 창문, 짚단이 풀리는 소리, 새들의 날갯짓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등을 통해 초점화한 장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우의적'이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인데,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과거에 경험한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회상하고, (나)의 화자는 산골 노인의 고독한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에서 특정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④ 부재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가), (나) 모두 화자가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삶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가)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임종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반면 (나)는 산촌의 풍경과 노인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산촌의 적막감과 노인의 고독감을 그리고 있다.

정·오 지름길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 (가)와 (나) 모두에서 전혀 쓰이지 않은 표현 방식이 제시된 선지는 뒷부분을 공들여 읽지 않고도 적절하지 않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에 언급된 표현 방식이 (가)에 쓰였다면, 그 효과가 적절한지를 이어서 판단해야 돼요. 이때 표현 방식이 쓰였으나 그 효과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나)에 해당 표현 방식이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다음 선지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간을 아껴 두면 (가)뿐 아니라 (나)의 표현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선지를 분석할 때 여유 있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16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산촌 마을의 정겨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의 2연에서 마을을 '갱 속'에 비유하고, 해가 짧은 겨울의 해 질 녘 풍경을 '노루 꼬리'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산촌의 적막함과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감을 그려 내는 배경일 뿐, 산촌 마을의 정겨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가)는 1연의 4~5행이 마지막 연의 3~4행에서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인다. 이때 반복되는 내용이 침상도 없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비극성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풀벌레 소리, (나)에서는 짚단이 풀리는 소리, 새들의 날갯짓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6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A]에서는 풀벌레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화자와 가족들의 슬픔이, [B]에서는 귀뚜라미를 통해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이 환기되고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A], [B]는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A]에는 아버지를 잃은 가족의 비통하고 슬픈 모습이 드러나 있고, [B]에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이 깊어지는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A]와 [B] 모두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헛짚기 [A], [B]에서는 모두 긍정적 태도로 삶을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A], [B] 모두에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수용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부재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A], [B] 모두에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반어적으로 풍자한다.

[A], [B] 모두 시적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할 뿐,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지 않다.

16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목가적**: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 **연쇄**: 사물이나 현상이 사슬처럼 서로 이어져 통일체를 이룸.

정·정·이

③ 부재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목가적 분위기'란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말하는데, (나)에 묘사되고 있는 산골 마을의 외딴집은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목가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화자는 산골 외딴집에서 밤을 보내는 노인을 관찰하여 독백적 어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대화적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풀려 내리는 짚단에 귀를 기울이는 노인의 모습이나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등에서 산골 마을의 외딴집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노인의 고독을 읽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② 외딴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깊은 산골 외딴집의 정경을 묘사하여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노인의 고독감과 산골의 적막감을 집약하여 '월훈'이라는 명사로 시를 끝맺음으로써, 달무리가 주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1~2연의 '마을', 2연의 '해', '노루 꼬리 해', '콩깍지', '외딴집', 3연의 '짚단', '짚오라기', '새', '새들', 4연의 '울지요', '웁니다' 등에서 시어의 반복과 연쇄를 활용함으로써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16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향토적**: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
- **경어체**: 상대에 대하여 공손한 뜻을 나타내는 문체.
-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심.

정·정·이

(1) 교체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나)는 허방다리를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을 원경에서 바라보다가 마을 안 외딴집에 있는 노인을 근경에서 묘사하고 있으므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2)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

(나)는 '모랫둑', '허방다리', '콩깍지', '짚단', '창호지 문살' 등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 헛짚기 경어체를 사용하여 ~~도인 공경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

(나)의 '않습니다', '켜지요', '듣습니다' 등에서 경어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노인 공경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경어체를 통해 정감의 깊이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16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명**: 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 또는 그런 무렵.

정·정·이

④ 4연: 노인의 힘없는 기침소리가 그치고 난 뒤, 귀뚜라미 떼의 울음소리를 점점 크게 들리게 한다.

4연에서 노인의 잠자리 곁에서 나던 밭은기침 소리도 없을 때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고 하였다. 이때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울지요', '떼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와 같이 점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귀뚜라미 떼의 울음소리를 점점 크게 들리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오·이

① 헛짚기 1연: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산촌 사람의 뒷모습을 화자가 멀찍이 강기슭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담아낸다.~~

1연에서는 '마을'이 있다고 했을 뿐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② 헛짚기 2연: 봉당에 불을 환하게 밝힌 집에 ~~노루가 찾아들고~~, 창문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을 보여 준다.

'노루 꼬리 해'는 산골의 짧은 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외딴집에 실제로 노루가 찾아온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3연: ~~바람이 부는 날에 처마에서 날아오르는 한 무리의 새떼를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다.

'바람도 없는데'라고 했으므로 바람이 부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노인은 새들의 온기를 생각할 뿐 새떼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장면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⑤ 헛짚기 5연: 눈 내리는 적막한 새벽녘에 창호지 문살 사이로 ~~여명이 밝아오는 장면을 묘사한다.~~

'월훈'은 달무리이므로 이를 통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밤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호지 문살 사이로 여명이 밝아오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16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빈한한**: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한.
- **밀수**: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팖.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가)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회한과 반성으로 '우리'가 울음을 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서 '우리'가 '있는 대로의 울음'을 운 것은 아버지의 고생스러운 삶에 대한 회한과 영원한 작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보기〉를 통해 아버지가 국경을 오가며 밀수를 하며 위태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침상조차 없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렇게 고생한 보람도 없이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보기〉의 두 번째 작품의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을 통해, 아버지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아무을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가)의 '아무을 만'과 '니코리스크'는 러시아의 지명으로, 밀수꾼으로 러시아를 오고 갔던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보기〉의 첫 번째 작품의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를 통해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의 '피지 못한 꿈'을 통해 아버지가 가족과 끝내 만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는 가족들을 만나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17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버지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타국에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 준다.

오·오·이

② 헛짚기 '목침을 반듯이 벤 채'는 아버지의 ~~곧은 성격~~을 보여 준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는 아버지의 임종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아버지의 곧은 성격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가)에서 아버지의 성격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성격이 곧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③ 교체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화자(아버지)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아버지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7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이웃 늙은이의 모습을 통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이웃 늙은이'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미명을 덮어 주었을 뿐,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체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군.

〈보기〉에서 시의 시상은 외부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기도 하는데, 이때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다시 뜨시잖는 ~ 정지를 가리켰다'는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비극성을 고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타향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고달픈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군.

1연의 '고향은 더욱 아닌 곳'으로 보아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공간이 타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간적 배경을 활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침상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보기〉에서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과거의 경험에 대한 환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가)에서 '있었다', '없었고', '잊으셨다' 등과 같이 과거 시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가)의 화자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보기〉에서 시·공간적 배경을 활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애상적 정서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24 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나 그 방을 생각하며

작품 분석 본문 92~95쪽

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작가 백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특징 ① 편지 형식을 빌려 자신의 근황을 드러냄.
② 산문적 서술 형태를 취하나 쉼표 등을 통해 내재율을 획득함.
③ 평안도 방언을 구사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타향**)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
❷ 지나온 시절에 대한 회한과 (**슬픔**)
❸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나 그 방을 생각하며

작가 김수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혁명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는 기대와 희망
특징 ① 동일한 시행 및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② 역설적 발상 및 인식의 전환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대조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괴리감을 나타냄.
④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혁명**)의 실패로 인한 공허함.
❷ 과거의 (**열정**)을 잃고 가슴이 메말라 버림.
❸ 혁명의 실패로 인한 (**실망**)을 (**가벼움**)으로 인식하고 재산으로 삼음.
❹ 이상과 괴리된 현실 속에서도 새롭게 (**의지**)와 기대감을 가짐.

17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양면성**: 한 가지 사물에 속하여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

정·정·이

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내 ~ 적이며', (나)에서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싸우라(일하라) ~ 말이'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30~31행의 '눈을 맞을'에서, (나)에서는 '있을 것이다', '왔을 게다' 등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이

고 있지만 이것이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④ 범위 오류 (가)는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추위', '싸락눈', '눈' 등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가족과 헤어져 홀로 외롭게 남의 집 허름한 방에서 지내게 된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부재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모두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며, 말을 건네는 방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173 답 (1) (가), (나) (2) (가)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사**: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씀.
- **내재율**: 자유시나 산문시에서 문장에 잠재적으로 깃들어 있는 운율.

정·정·이

(1) 독백적 어조를 통해 내면 심리를 토로하고 있다. ((가), (나))

(가)와 (나)의 화자 모두 혼잣말하는 듯한 어조로 내면 심리를 토로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외로움과 쓸쓸함, 회한과 슬픔 등을, (나)에서는 좌절감과 상실감, 기대감 등을 표출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가)는 방언을 구사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가))

(가)에서는 '딜옹배기', '북덕불', '나줏손', '섶' 등의 방언을 구사하여 토속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나)에는 방언이 쓰이지 않았다.

(3) 범위 오류 (가)는 산문적 서술 형태를 취하나 쉼표 등을 활용하여 내재율을 획득하고 있다. ((가))

(가)는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산문적 서술 형태를 띠고 있으나, 쉼표를 자주 사용하여 호흡을 끊어 줌으로써 내재율을 획득하고 있다.

17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객관적 상관물**: 시에서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찾아낸 사물, 정황, 사건을 이르는 말.
- **혼용**: 한데 섞어 쓰거나 어울러 씀.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나)는 1~2연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헛소리'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현재 그 말을 공허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가)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극복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가)의 어둠 속에서 눈을 맞고 서 있는 '갈매나무'는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극복 의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② (가)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는 '나줏손', '저녁' 등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나)는 대조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나)의 4연에서는 '달콤한'과 '쓰디쓴'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해 온 이상과 괴리된 현실을 부각하고 그로부터 화자가 느끼는 좌절감 등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④ (나)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혼용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나)에는 '버렸다', '메말랐다' 등의 과거 시제의 서술어와 '안다', '기쁘고', '풍성하다' 등의 현재 시제의 서술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제의 혼용은 혁명의 실패로 공허함과 좌절감을 느끼던 화자가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고, 이 가벼움의 연속이 역사를 이루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의지와 기대감을 느끼게 되는 심리의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17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상**: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기차'로 '여행'을 떠올리는 따위의 현상이다.
- **괴리**: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

정·정·이

② 상반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해소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가)의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자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한탄 등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화자의 마음에 '외로운 생각'만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가)에서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가)의 15행에서 화자가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새김질한다는 것으로 보아, 16~17행에서의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슬픈 감정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에서 '쌀랑쌀랑'은 조금 사늘한 바람이 가볍게 자꾸 부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싸락눈이 문창을 치는 모습을 나타낸다. 화자의 이러한 감각 체험은 뒤에서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갈매나무'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에서 '싸우라', '일하라'와 같은 구호를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화자가 혁명의 실패로 인해 이러한 구호를 '헛소리'와 같은 공허한 말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달콤한 의지의 잔재'와 '쓰디쓴 담뱃진 냄새'는 구조상 앞행의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꾸었지만'과 대응되므로, '달콤한 의지'는 화자의 혁명 의지를, '쓰디쓴 담뱃진 냄새'는 혁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의 대비는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것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17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는 혁명의 실패로 인한 결과들로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하는~~ 대상이다.

혁명이 실패한 후 화자는 방만 바꾸어 버렸고,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으므로 절망감을 심화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모든 노래'는 화자가 지향해 온 혁명 정신을 가리킨다.

화자는 혁명이 실패한 후 방을 바꾸고 '모든 노래'를 그 방에 남기고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싸우라'는 말이 방의 벽에서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때의 '모든 노래'는 '싸우라'에 대응되는 것으로 화자가 지향해 온 혁명 정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③ '쓰디쓴 담뱃진 냄새'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쓰디쓴 담뱃진 냄새'에는 부패한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사회에 대한 화자의 환멸이 드러나 있다.

17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운명론**: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론.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 화자가 '천정'을 쳐다보며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D]에서 화자는 자신을 마음대로 굴려 가는 '더 크고, 높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힘을 인식한 표현이므로, 화자가 운명론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A]: 화자가 가족이나 고향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목수네 집의 '한 방'은 화자가 아내, 부모, 동생들과 떨어져서 추운 겨울에 홀로 세를 살게 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 그리고 고독한 처지를 확인하고 있다.

② [B]: '나 혼자' 누워 있는 단절된 공간으로,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방'에 홀로 누워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새김질하고 있다. 따라서 '방'은 화자가 혼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C]: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만큼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화자는 가슴속에 고인 슬픔과 부끄러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만큼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볼 때 '방'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E]: 화자가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E]에서 화자는 여러 날을 지내면서 차츰 슬픔과 한탄 등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등 마음의 정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로서의 '갈매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방'은 화자가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7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가)의 화자는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자신을 굴려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더 크고, 높은 것'은 화자의 의지보다 큰 힘이므로, 화자가 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나)의 화자는 2연의 3행에서 '그 방의 벽'과 '나의 가슴', '나의 사지'를 동일시하며 방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가)는 '쥔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세를 들어 살게 된 방을 '헌 삿을 깐',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가난하고 누추하며 초라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새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가)에서 화자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가 새김질하듯 되새기며 고뇌하고 있다. 이로 보아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176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모든 노래'를 방에 남기고 온 것은 화자가 꿈꾸던 혁명이 좌절된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가)의 방은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가)의 화자가 방에서 떠올린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현실 극복 의지의 표상이자 희망으로, 화자의 의지적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나)의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7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에서 '방'은 화자가 내적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다. (○, ×)

〈보기〉에서 (가)의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가)의 '방'에서 화자는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상반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과 ~~반대되는~~ 상징하는 공간이다. (○, ×)

〈보기〉에서 (나)의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의식과 반대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 (나)의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 ×)

(가)의 '방'은 화자가 처한 초라한 현실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화자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또한 (나)의 '방'은 혁명에 실패한 화자가 좌절감과 무게감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화자의 상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8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칩거**: 나가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음.

정·정·이

⑤ 화자 오류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좌절감에 빠진 시적 주체가 ~~환상에 취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가)의 후반부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직전, 마음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마지막 행의 '갈매나무'는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적인 삶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점에서, 좌절감에 빠진 시적 주체가 환상에 취해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어느 사이에'는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고 객지에서 헤매게 된 것에 대한 시적 주체의 탄식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군.

〈보기〉에서 (가)의 전반부는 절망과 슬픔에 빠진 시적 주체의 내면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어느 사이에'는 시적 주체가 현재 '아내'도 '집'도 잃고 '부모'와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혼자 객지에서 쓸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탄식이 압축적으로 나타난 시구로, 어쩌다가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②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 한 방'은 시의 제목에 드러난 주소에 해당하는 곳이군.

〈보기〉에서 (가)의 제목이 편지 겉봉에 쓰는 주소 형식을 취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가)의 '어느 목수네 집'이 (가)의 제목에 제시된 주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는 시적 주체가 절망에 빠져 혼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조차 힘겹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가)의 전반부는 절망과 슬픔에 빠진 시적 주체의 내면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가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느낀다는 것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감당하기 힘들어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는 시적 주체가 칩거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가)는 '좌절과 실의－칩거, 회한과 반성－불현듯 찾아오는 각성－새로운 삶에의 결의'라는 도식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화자가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방바닥을 구르기도 하고,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기며 생각하는 모습은 칩거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5 가 황혼 나 바다에서

작품 분석 본문 96~99쪽

가 황혼

작가 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포용 의지와 애정
특징 ① 황혼을 의인화된 청자로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냄.
③ 비유법, 설의법 등을 사용하여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인간의 (**외로운**) 처지에 대한 인식
❷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고자 하는 의지
❸ '나'가 포용하고자 하는 (**소외된**) 존재들
❹ (**미래(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걱정

나 바다에서

작가 김종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난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굳은 의지
특징 ① 예스러운 종결 어미 '-니라', '-노라' 등을 사용하여 장중한 분위기를 형성함.
②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함.
③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적 태도를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거친 (**파도**)에 괴로워함.
❷ 고난 속에서 (**홀로**)라는 인식을 함.
❸ (**감상**)과 번민에 흔들리던 (**과거**)를 청산함.
❹ (**슬픔**)을 이기고 꿈과 이상을 추구함.

18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촉각적 심상인 '부드러운 손', '부드러운 품' 등을 통해 '황혼'의 포용력을 구체화하고, '내 뜨거운 입술' 등을 통해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촉각적 심상인 '차운'을 통해 '물보라'의 냉기를 나타냄으로써 고난과 역경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주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부재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황혼'에게 말을 건네고 있기는 하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나)는 독백적 어조

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범위 오류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저- 푸른 커-튼'에서 골방에 들어오는 황혼을 막는 커튼을 색채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182 답 (1) (가) (2) (가), (나) (3)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의인화된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가))
(가)는 2연과 5연의 '황혼아'에서 황혼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함으로써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는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다.

(2)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가), (나))
(가)는 '~에게도'와 같은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3~4연에서, (나)는 '나는 홀로이니라.'와 같은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3연에서 리듬감을 확인할 수 있다.

(3) 범위 오류 과거 시제를 통해 화자가 옛일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
(나)에서는 1연의 '참았다'와 4연의 '일었다간 ~ 채우던 옛날은'에서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어미 '-았/었-', '-던' 등을 사용하여 화자가 고난과 역경으로 괴로워했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가)는 '보련다', '다오' 등과 같이 현재 시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도 않다.

18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장중한: 장엄하고 무게가 있는.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어미를 활용하여 장중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가)의 1연 '맞아들이노니'에서 예스러운 표현인 '-노니'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근엄하게 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또한 5연의 '하오니'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오-' 역시 예스러운 표현으로 서술이나 의문에 공손함을 더하여 준다. (나)의 3연 '홀로이니라'에 사용된 '-니라'와 6연 '꿈꾸노라'에 사용된 '-노라'도 예스러운 종결 어미로, 각각 진실이나 으레 있는 사실을 알려 줄 때,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할 때 쓴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어미를 사용하여 장중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는 (나)와 달리 추상적 관념을 자연물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가)는 '황혼'을 통해 안식과 평화의 시간을 나타내고, '별들'을 통해 소외된 존재들을 구체화하였다. (나)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차운 물보라', '부서지는 파도'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꿈과 이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통해, 꿈과 이상을 '하늘'을 통해 구체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상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가)의 5연 '오월'에서 계절감이 드러나지만, 계절이 변화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어지는 내용에서 '골방이 아늑도 하'다고 하였으므로, '골방'을 고립되고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던 화자의 인식이 아늑함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계절의 변화도, 시상의 전환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가)는 '모르나 보다'로, (나)는 '꿈꾸노라'로 마지막 연의 시행이 종결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남긴다고 보기 어렵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1연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3연 '얼마나 떨고 있을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기에 화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 반면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18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C]: ~~'의지할 가지 없'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죄인들'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별들', '수녀들', '수인들'은 모두 화자가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다고 여기는 대상들로, 화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내어 위로를 해 주고자 하고 있다.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A]: '바다의 흰 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같이'를 사용하여 인간을 '바다의 흰 갈매기'에 직유하면서 인간의 외로움을 부각하여 나타내고 있다.

② [B]: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화자는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 이어 황혼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고자 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인식이 황혼의 '손'에서 '모-든 것'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D]: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 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황혼에게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달라고 말함으로써 '지구의 반쪽'에 있는 존재들인 '행상대'나 '인디언'에게도 자신의 입술을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그들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E]: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황혼으로 인해 '오월의 골방'이 아늑하다고 느끼면서 내일도 황혼이 '저- 푸른 커-튼'을 걷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내일도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185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C]의 '별들', '수녀들', '수인들'은 화자가 포용하고자 하는 대상들이다. (○, ×)
[C]에서 '별들', '수녀들', '수인들'을 '의지할 가지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그들을 소외된 존재들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술'을 보내게 해 달라며 포용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화자 오류 [E]에서 화자는 황혼으로 인해 '오월의 골방'이 ~~암암히 사라~~ 점을 느낀다. (○, ×)
[E]에서 화자가 '암암히 사라'진다고 말한 대상은 황혼이지, '오월의 골방'이 아니다. 화자는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다고 하였을 뿐, 점차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다.

18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화자가 '내일도' '푸른 커-튼'을 걷겠다는 것은 황혼을 ~~막겠다는~~ 맞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군.
황혼을 막는 존재인 '푸른 커-튼'을 걷겠다는 것은 황혼을 맞아들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별', '수녀', '수인', '행상대', '인디언'은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뜻하는군.
'별', '수녀', '수인', '행상대', '인디언'은 화자가 입술을 보내어 위로하려는 대상으로, 의지할 곳 없는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의미한다.

② '골방'이 폐쇄된 공간에서 우주와 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은 '황혼' 때문이군.
1연에서의 '골방'은 커튼에 의해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다. 그러나 황혼을 맞아들임으로써 화자의 인식은 하늘의 '별들'과 지구의 반쪽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고, 골방은 아늑한 곳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골방'은 '황혼'으로 인해 열린 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③ 화자가 '뜨거운 입술'로 '황혼'의 손에 입 맞추려는 의도는 의지할 곳 없는 존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이군.
화자가 '뜨거운 입술'로 '황혼'의 손에 입 맞추려는 것은 의지할 가지 없는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는 이유는 '황혼'을 이상 실현이 가능한 대상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군.
1연에서 화자는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 이후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겠다며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황혼'을 소외된 존재를 포용하려는 화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와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왼몸을 내어 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을 띄워 보낸다는 말은 어두웠던 과거와 결별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 것으로, 화자가 과거의 자신에게 미련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왼몸을 내어 맡'기는 것은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 즉 이상을 꿈꾸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차가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았다는 것에서, '차운 물보라'가 시련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연에서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2~3연에서 거친 파도로 인해 해로가 걷잡을 수 없이 일렁이는 고난의 상황에서 화자는 '나는 홀로이니라.'라고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4연에서 화자는 덧없는 감정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번민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자 한다. '옛날은 / 이제 아득히 띄워 보내고'라는 표현은 부정적 과거와 결별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슬픔이 '바다'처럼 크더라도 '나의 하늘'을 꿈꾸는 것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나의 하늘'은 꿈과 이상을 뜻하므로 화자가 미래의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1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아득히 띄워 보내고'는 ~~긍정적인 과거의 회복을~~ 의미한다.

(나)의 4연에서 화자가 띄워 보낸다고 한 것은 일어났다가도 금방 스러지는 감상과 번민으로 힘들었던 과거이다. 따라서 '아득히 띄워 보내고'는 긍정적인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부정적인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소년'은 순수하고 나약한 존재를 상징한다.

'소년'은 차가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순수하고 나약한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꿈과 이상의 공간이다.

화자는 덧없는 감상과 번민으로 괴로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나의 하늘'을 꿈꾼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의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꿈과 이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8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우려: 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심과 걱정.

정·정·이

③ (가)의 화자는 내일의 황혼을 기대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가)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황혼이 내일도 커튼을 걷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황혼이 사라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황혼으로 상징되는 안식과 평화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염려하는 화자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의 화자가 황혼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공동체적 삶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소외된 존재들을 위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에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그러한 삶에 대해 화자가 감탄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대상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골방'의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인간의 외로운 처지를 인식하고, 소외된 모든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고자 한다. 더불어 골방을 아늑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황혼이 부재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 연에서 사라지는 황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대상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④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⑤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파도의 움직임으로부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나)에서 묘사되는 물보라와 파도 등은 화자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④).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나타낼 뿐,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으며(④),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지도 않다(⑤).

19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여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부정적 속성을 지닌 바다와 긍정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룬다. 이를 고려하면 (나)의 5~6연은 긍정적인 대상인 '하늘'을 지향하기 위해 화자가 '천인의 깊이'를 가진 바다만 한 슬픔 속에서도 '꽃처럼 황홀한 순간' 즉, 꿈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바다를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바다'로 표상되는 고난과 슬픔에 굴하지 않고 '하늘'로 상징되는 긍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보기〉에서 (가)에는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의 화자가 골방의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아들인다고 하였으므로, 고립된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화자가 이 행위를 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가)의 화자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인디언'과 같은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소외된 대상들에게 황혼에 실은 자신의 입술을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가)의 화자는 황혼에게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달라는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놓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골방 밖 세계의 존재들에게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나)의 화자는 과거에 차가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그러나 힘들었던 과거를 띄워 보내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한 뒤로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자신의 하늘을 꿈꾸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에서 자신의 이상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1 답 (1) 안 (2) 바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가)에서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곳은 골방 (안 밖)이다.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화자는 골방 안에 머무르고 있고, 만물을 포용하는 황혼은 골방 밖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2) 상반 (나)에서 '(바다 하늘)'은/는 부정적 속성을 지닌다.

〈보기〉에서 (나)의 '바다'는 시련과 고난의 공간으로 부정적인 속성을, '하늘'은 꿈과 이상의 공간으로 긍정적 속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26 가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나 달걀 속의 생 2

작품 분석 본문 100~103쪽

가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작가 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우리의 삶을 지켜 주는 경이로운 존재가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시각적 이미지와 시적 허용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② 음성 상징어, 직유법, 대조법 등을 활용함.
③ 청유형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주제 의식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있음을 발견함.
❷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북두성좌**)가 지켜 주고 있음.
❸ 아이에게 북두성좌가 지켜 주고 있는 (**우리 집**)으로 어서 가자고 함.

나 달걀 속의 생 2

작가 김승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절망적 현실에 대한 연민과 초연한 삶의 태도
특징 ① 비판적, 냉소적, 체념적 태도를 드러냄.
②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함.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연상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달걀**)을 쉽게 먹을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듦.
❷ 행상 아줌마가 팔던 노란 (**병아리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봄.
❸ 절망적 처지에 있는 자신과 (**달걀(흰자위와 노른자위)**)을 동일시함.
❹ 달걀에 동질감을 느끼며, 절망에 (**초연한**) 태도를 지님.

19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특정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가)는 '북두성좌'와 '우리 집'을 반복하여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나)는 '달걀(들)'을 반복하여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으로서 달걀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북두성좌가 지켜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에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가자'라는 동사로, (나)는 '같지'라는 형용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④ 부재 ~~주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는 '차가운 냉장 칸', '추운 달걀들' 등과 '따스한 것', '따스한 품속' 등에서 촉각적 심상을 대비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가)에는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193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1연에서 '꿈같이', '폿대처럼'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초생달'과 '북두성좌'가 비치는 신비로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3~4연의 '가난한 형제들처럼', '달걀들처럼' 등에서 직유법을 통해 화자와 형제들을 달걀과 동일시하여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ㄷ.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단어를 되풀이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북두성좌'는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존재를, '우리 집'은 초월적인 희망과 사랑이 지켜 주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나)의 '노란 병아리들'은 생명력 넘치는 존재를, 부화되지 못한 '달걀(들)'은 평가 절하된 채 절망적으로 사는 삶을 상징한다. (가)와 (나) 모두 이러한 시어들을 반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시적 허용을 통해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가)의 '보오얀', '화안히' 등에서 시적 허용을 통해 '초생달'과 '불 밝힌 우리 집'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나)에는 시적 허용이 사용되지 않았다.

ㄹ. 범위 오류 대상을 불러 주의를 끈 뒤 자신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화자가 '아이'를 부르며(돈호법) 북두성좌가 지키고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부분에서, 삶의 시련 속에서도 단란함을 이어 가려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돈호법이나 청유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19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 **세대교체**: 신세대가 구세대와 교대하여 어떤 일의 주역이 됨.

정·정·이

② A: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

B: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

(가)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집'은 화자가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나)에서 화자는 '냉장고' 속 '달걀들'을 보고 자신도 '여권이 분실된' 것과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냉장고'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에 해당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A: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

B: 시련에 맞서게 하는 근거

(가)의 화자는 병이나 구차함과 같은 문제를 겪더라도 '북두성좌'가 지켜 주고 있어 '우리 집'을 '의고한 단란'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냉장고' 속 '달걀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절망적 현실을 인식할 뿐이므로, '냉장고'를 시련에 맞서게 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A: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공간

B: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계기

(가)의 화자는 '우리 집'을 통해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고 있지 않다. (나)의 화자는 '냉장고' 속 '달걀들'을 보고 자신의 현재 처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A: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

B: 현실에 만족감을 표시한 이유

(가)에 세대교체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나)의 화자는 '냉장고'에 있는 '달걀들'을 보며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 현실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⑤ 헛짚기 A: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 하는 공간

B: 바람직한 미래로 발돋움하기 위한 동기

(가)의 화자가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북두성좌가 지켜 주는 '우리 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화자가 '우리 집'에 동화되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냉장고' 속 '달걀들'을 보고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있을 뿐이다.

19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허기**: 몹시 굶어서 배고픈 느낌.

정·정·이

① 교체 ㉠을 보면 '북두성좌'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지켜 주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풋대처럼(㉠)' 지켜 주고 있으므로 '북두성좌'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가 아니라 화자의 가족을 지켜 주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가 밤에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상'은 우리 집을 '밤마다(㉡)' 지켜 주는 북두성좌가 존재하는 공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허기를 느끼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화자가 '그것들(달걀)'을 쉽게 먹을 순 없을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란 것들(병아리)'이 마분지 곽 위로 기어오르는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글보글(㉣)'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을 보면 '너희들'은 금전적으로 평가 절하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너희들(달걀)'이 '싸게(㉤)' 팔려 왔다고 한 것은 달걀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9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병'과 '구차함'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

가족이 '병'으로 눕고 '구차함'에 마음 졸이는 일은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2) 헛짚기 (나)의 '바글바글'과 '보글보글'은 '노란 것들'의 불행한(생명력)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 ×)

'바글바글'과 '보글보글'은 '노란 것들'이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불행한 삶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3) (나)의 '여권이 분실된 사람'으로 볼 때, 화자는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

(나)의 화자는 어미 닭에 안기지 못하고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 온 달걀들과 자신이 같은 처지라고 인식하면서 자신을 '여권이 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행동력과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직면**: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동류의식**: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의식.

정·정·이

① 헛짚기 ⓐ: 시련에 직면한 화자의 암담한 현실과 좌절을 의미한다.

ⓐ는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본 초생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가 시련에 직면하여 좌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② ⓑ: 즐겁고 화목하게 생활하는 가족의 모습이 드러난다.

ⓑ에는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즐겁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 변화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 인식이 담겨 있다.

ⓒ에서 화자는 냉장고 속에 있는 달걀처럼 부화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 절망적 상황에 처한 달걀에 대한 화자의 동류의식이 드러나 있다.

ⓓ에서 화자는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차가운 냉장고 속의 달걀도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며 달걀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⑤ ⓔ: 소망을 이루지 못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에는 어미 닭의 따스한 품속에 안기고 싶지만 그러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달걀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19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범위 오류 (가)에서는 '저녁 한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지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나)에서는 '부화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나)의 3연 1~2행에서 화자는 부화를 기다리는 존재로서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동일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화자는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저녁 한길'에서 '보오얀 초생달'이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는 것을 보았을 뿐, '거리 끝'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이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가)에서는 화자가 '아이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청자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달걀들'을 '너희들'이라고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화자가 '보오얀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을 시각적으로, (나)에서는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 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각적으로 나타내어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가)의 화자는 '보오얀 초생달'이라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초생달'을 밤을 밝혀 주는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는 청각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화자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통해 '학교' 간 아이를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상황을, (나)에서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입원비 걱정을 하'는 '우리'를 통해 '형제들'이 '가난'하다는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가)는 1연의 1~2행에서 화자가 날이 저물도록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3연의 7~8행에서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할 정도로 화자의 '형제들'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인연 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을 통해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한 '나'를 통해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군.

(가)에서 '인간의 수유한 영위'는 인간의 유한함을, '우주의 무궁함'은 우주의 영원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서로 대비되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우주의 무궁함'이 '인연 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천상'에서 '우리 집'을 지켜 주는 맥락이 드러나 있다. (나)에서는 병아리들이 '살아서 즐겁다고 꼬

물거리던 모습'과 화자가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모습이 대비를 이루며,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맥락이 드러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가)에서는 '저녁 한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시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나)에서는 '부화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시적 대상은 보통 시적 화자가 아닌 존재인데,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를 고려하면 (가)는 '아이야'를 통해 청자로 설정된 '아이'가 시적 대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에서 '거리 끝'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인 '초생달'이 비껴 있는 위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종합해 볼 때 '거리 끝'은 시적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음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199 답 (1) 청자로 설정 (2) 대비되는 (3) 대비, 동일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아이', (나)에서 '달걀들'은 (청자로 설정,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다.
(가)에서는 '아이'를 청자로 설정하여 '아이야'라고 부르고 있고, (나)에서는 '달걀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너희들'이라고 칭하고 있다.

(2) 상반 (가)에서는 '수유한 영위'와 '무궁함'과 같이 (유사한,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짧은 시간을 영위하는 인간과 끝없는 우주를 의미하는 시어를 대비하여 제시하고, 이것들이 '인연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을 지켜 주는 경이로운 우주의 질서 혹은 힘이 화자의 주변에 있었다는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 상반 (나)의 화자는 삶에 대한 태도 면에서 '병아리들'과 (대비, 동일시)되고 있고, 생명력을 잃고 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걀들'과 (대비, 동일시)되고 있다.
(나)의 2연에서는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던 화자가 대비되고 있으며, 마지막 연에서는 '어미 닭에 안기지 못하고',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 온' 달걀들과 '여권이 분실된' 듯한 화자가 동일시되고 있다.

20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생무상**: 인생이 덧없음.

정·정·이

① (가)에서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지켜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군.
(가)의 화자는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마중 나갔다가 우리 집 지붕 위에 북두성좌가 횃대처럼 이어져 우리 집을 지켜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오·오·이

② 헛짚기 (가)에서 '인간의 수유한 영위'를 '우주의 무궁함'과 대비함으로써 인생무상의 체념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가)의 화자는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지켜 주고 있음을 발견하고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우주의 무궁함'이 맑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지, 인생무상을 느끼지는 않았다.

③ 헛짚기 (나)에서 '달걀 한 줄이 / 온순히 꽂혀 있'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온순한 성품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나)의 화자는 '달걀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절망적 상황에 처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나)에서 화자가 온순한 성품을 지향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나)에서 '달걀'이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 왔다고 표현한 데서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나)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달걀'이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 왔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 절하된 것을 의미할 뿐,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나)에서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다는 데서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갈 때 오히려 절망이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다고 했으므로, 절망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화자가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27 가 하나씩의 별 나 귀고

작품 분석 본문 104~107쪽

가 하나씩의 별

작가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기대감
특징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주제를 강조함.
②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함.
한 줄 의미
❶ 고국으로 돌아오는 (**화물 열차**)에 탄 유랑민들
❷ 고국으로 향하는 열차 안의 (**유랑민들**)
❸ 나라의 (**기쁜 일(해방)**)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들
❹ 고국에 돌아오는 유랑민들의 (**기대감**)

나 귀고

작가 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향에 돌아와 느끼는 감회
특징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향토적 소재를 통해 고향의 분위기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고향의 선착장에서부터 마을 길을 지나 (**집(우리 집)**)에 도착한 '나'
❷ 고향 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만남.

20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검은 문'에서 고단한 현실에 놓인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를 검은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 '푸르른 바다'에서 유랑민의 서러움을 푸른색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푸른 송백'에서 고향의 환하고 밝은 분위기를 푸른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가)는 '하나씩의 별'이라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인 '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보았소'라는 동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부재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와 (나)는 대체로 독백체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가)는 1연의 3~5행이 마지막 연의 3~5행에서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수미상관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부재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지 않다.

20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도입부의 시행을 종결부에서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01번-③의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는 도입부의 시행을 종결부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대구법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나)에는 대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에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한편 (가)의 '우리'는 타국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조국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나씩의 별'은 삶의 희망과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고향 집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0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는 '우리', '내(나)', (나)는 '나'와 같이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주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고향 집으로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은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로,

시상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나)는 '선창가'→'돌다리와 집들'→'우리 집'의 순서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하늘은 기빨처럼 다정하고'는 하늘을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에 빗대어 하늘이 화자를 반기며 다정하게 손짓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고향에 돌아온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 '헌 책력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은 어머니를 헌 책력에 빗대어 자식에게 애정을 쏟으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늙으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직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③ 교체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01번-③의 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1연과 마지막 연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한 것은 (가)이다.

④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0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투영**: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하여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정·정·이

④ [A]의 '골짝 골짝'에는 떠나는 이의 슬픔이, [B]의 '하늘'에는 돌아온 이의 반가움이 투영되어 있다.

[A]는 유랑민들이 고향을 떠나던 때의 장면을 화자가 떠올린 것이다. '골짝 골짝'은 유랑민들이 이민 열차에서 서럽게 내다보던 풍경이라는 점에서 고향을 떠나는 이의 슬픔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의 '하늘'은 '기빨처럼 다정하고'로 보아 고향에 돌아온 화자의 반가운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A]의 '거리거리'와 [B]의 '신작로'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A]의 '거리거리'는 유랑민들이 이민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던 때를 떠올린 것으로, 여기에 화자의 변화된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B]의 '신작로'는 과거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낯설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② 화자 오류 [A]의 '이민 열차'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B]의 '똑딱선'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하고 있다.

[A]의 '설움 많은 이민 열차'로 보아 이민 열차에는 고향을 떠나는 유랑민의 서러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B]의 '똑딱선'은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탄 것인데, (나)의 화자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헛짚기 [A]의 '흐린 창'과 [B]의 '양지바른 뒷산'은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A]의 '흐린 창'은 과거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유랑민의 서러운 마음을 나타낸다. 현재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들은 '갈 때와 마찬가지로 / 헐벗은 채' 돌아오고 있으므로 '흐린 창'은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B]의 '양지바른 뒷산' 역시 고향의 밝고 환한 모습을 나타내므로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A]의 '사람들'과 ~~[B]의 '사람'~~에는 화자의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

[A]에서 화자는 '헐벗은 채'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힘겨운 처지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람들'에는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에서의 '사람'은 화자의 고향의 선창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지 않다.

205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의 '설움 많은 이민 열차'는 '우리'의 과거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뒷산'과 '하늘'은 화자의 ~~저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

(가)의 '설움 많은 이민 열차'에서는 과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우리'의 서글픈 처지와 정서가 드러난다. 그러나 (나)의 '뒷산'은 양지바르고 '하늘'은 남쪽으로 트였으며 '기빨처럼 다정'하다고 하였으므로, '뒷산'과 '하늘'은 따뜻하고 반가운 고향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가)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 (나)의 '똑딱선을 내리면'으로 보아, (가)의 화자는 열차를 타고 귀국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배를 타고 귀향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화물 열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똑딱선'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가고 있다.

20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암울**: 절망적이고 침울함.

정·정·이

② ⓐ는 '우리'의 희망을 상징하고, ⓑ는 '나'에게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씩의 별(ⓐ)'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랑민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자 소망을 상징한다. 그리고 '고향(ⓑ)'은 현재 화자가 돌아온 곳으로 어린 시절 소리 높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는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고, ⓑ는 '나'가 연민하는 대상이다.

'하나씩의 별(ⓐ)'은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지만, '고향(ⓑ)'은 화자가 그리워 하는 대상이지 연민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헛짚기 ⓐ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 ⓑ는 '나'에게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암시한다.

'하나씩의 별(ⓐ)'은 유랑민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품고 있는 희망과 소망을 드러낸다. 또한 (나)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 반가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암울한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와 ⓑ는 모두 화자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하나씩의 별(ⓐ)'과 '고향(ⓑ)'은 모두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와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와 ⓑ는 모두 화자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소재이다.

'하나씩의 별(ⓐ)'과 '고향(ⓑ)'은 모두 화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는 소재로, 인생의 무상함과 관련이 없다.

2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객지**: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정·정·이

② 화자 오류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는 것은, 변환기의 현실에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이겠군.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에서 화자가 유랑민과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정서를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에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열차를 탄 사람들이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헐벗은 채 돌아'온다는 것은, 객지에서 고단하게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드러낸 것이겠군.

〈보기〉에서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르고 헐벗은 채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한 것은, 열차를 탄 사람들과 함께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가)의 화자와 유랑민들이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1연과 마지막 연에서 '우리 제각기 ~ 하나씩의 별'을 반복한 것은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화자와 유랑민들이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을 거쳐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은, 고향 마을의 풍경이 화자에게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나)의 화자가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있는 고향 마을의 풍경을 통해 자신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나)의 화자가 어른이 된 후 나이 든 어머니의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았'다는 표현은 '신간'이 어렸을 적 어머니 옆에서 보던 그림책처럼 느껴진다는 말로, 화자가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208 답 (1) 유랑민 (2) 향수 (3) 유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화물 열차'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유랑민)들을 태우고 가고 있다.

〈보기〉에서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화물 열차'에 타 있던 사람들이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유랑민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나)의 화자는 귀향의 과정에서 접한 풍경들을 묘사하면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을/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나)는 화자가 귀향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나)의 화자는 똑딱선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접한 풍경들을 묘사하면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나)의 화자가 어머님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고향에 돌아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20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가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본 것은 유년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를 통해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20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질감**: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

정·정·이

③ 헛짚기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 '골짝 골짝'은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설렘~~을 드러낸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 '골짝 골짝'은 과거에 이민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던 당시 사람들이 서러운 마음으로 내다보던 창밖의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설렘이 담겨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 쟈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로 보아 열차에 탄 사람들은 해방 전 고향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유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임을 드러낸다.

〈보기〉에서 (가)는 해방 전 고향을 떠나 간난을 겪은 유랑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쟈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은 해방 전 고향을 떠나 유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겪은 간난한 생활을 드러낸다.

④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이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기〉에서 (가)는 해방 전 고향을 떠나 간난을 겪은 유랑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는 고향을 떠났던 유랑민들이 객지에서 겪었던 간난을(②),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는 화자가 유랑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④).

⑤ '나라에 기쁜 일 많아 /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는 고국에 해방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황폐한 현실이 정서적 괴리를 일으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기〉에서 고향은 돌아가야 할 곳이기는 하지만 해방 정국의 황폐한 현실로 인해 귀속을 실현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나라에 기쁜 일 많아 /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는 나라가 해방된 기쁨 때문에 황폐한 현실로 인한 서글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8 가 맨발 나 구두

작품 분석 본문 108~111쪽

가 맨발

작가 문태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의 고된 현실
특징 ① 직유법을 통해 개조개의 모습을 묘사함.
② 유사한 시구의 반복, 감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개조개를 고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형상화하여 그러한 삶으로부터 느끼는 애상감을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어물전의 (**개조개**)를 관찰함.
❷ (**슬픔**)을 인내하는 삶을 산 개조개
❸ 가장의 고단한 (**삶**)

나 구두

작가 송찬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속박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특징 ① 은유법을 통해 구두를 감옥에 비유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낯설게하기'를 통해 일상적 소재를 새롭게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자신을 속박하는 (**새장(구두)**)을 삼.
❷ 발에 맞지 않는 (**구두**)
❸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모습
❹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
❺ 자신을 (**속박**)하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함.

21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울던 것들이'와 '울음도 멎었으리라'의 대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울던 것들이' 울음을 멎은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힘들게 탁발해 온 양식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시구의 대비가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내밀어 보이고 있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1~2행에서 '내밀어 보이고 있다'를 반복함으로써 어물전에 있는 개조개 한 마리가 속살을 내밀어 보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이 강조되고 있다.

② '조문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속살을 내밀고 있는 개조개의 모습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를 위로하는 부처의 모습에 비유하고 화자 역시 '조문하듯' 개조개의 속살을 건드린다. 이러한 표현과 행위에서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슬픔을 견디었으리라'라는 추측을 통해 대상이 슬픔을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개조개의 속살이 맨발과 같다고 여기면서 사랑을 잃은 '새'가 슬픔을 견디듯 개조개 역시 '슬픔을 견디었으리라'라고 추측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아— 하고 집이 울 때'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와 활유법을 활용하여 '집'이 운다고 표현함으로써 가난한 '움막 같은 집'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1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내밀어 보이고 있다', '궁리인 듯', '-ㄹ 것이다', '-으리라' 등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헛짚기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
'아— 하고 집이 울 때', '아— 하고 울던 것들'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할 뿐 역동적이거나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3)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 ×)
'움막 같은 몸',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궁리인 듯', '밤을 견디듯이'에서 개조개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조문하듯'에서는 개조개를 대하는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자신을 ~~속박하는 세태에 대한 원망~~을 '늙고 고집 센 내 발'이라는 의인화된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늙고 고집 센 내 발'은 '발'에 인격을 부여하여 '늙고 고집

센'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 화자를 속박하는 세태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구두'와 관련한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 '구두'를 '새장', '감옥' 등 다양한 이미지로 제시하면서 속박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현실에 안주하는 새의 모습을 '언덕을 잊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3연에서 화자가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넣어 주어도 새들은 날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새장에 먹이통과 구멍이 있기 때문으로, '언덕을 잊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는 행위는 '새장'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오늘 새 구두'를 산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새 구두'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한다는 의미로 '오늘 새 구두'를 샀다고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다며 자신의 삶이 이중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삶에 '속박'과 '제멋대로'인 모습이 공존했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삶을 이중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1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 **변주**: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소재·형태·방식 따위를 변형하여 표현함.

정·정·이

② 헛짚기 ㉡: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발'의 모습을 통해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 '발'은 '발자취'와 같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발'은, '최초', '오래'라는 시간의 속성과 '궁리'가 연결되어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삶의 문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가난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 신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부르튼 맨발'의 모습을 보여 주어 '펄과 물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고단함을 부각하고 있다.

화자는 '맨발'이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에서 개조개의 속살이 신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텄다고 표현함으로써 힘겹게 살아온 고단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③ ㉢: 삶의 무게를 견뎌 내는 존재로서의 '발'을 통해 양식을 구하러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힘겨운 삶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보기〉에서 '발'은 삶의 무게를 견뎌 내야 하는 고단한 존재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가 있는 모습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선 힘겨운 삶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④ ㉣: '발'을 구속하는 신발을 '작은 감옥'으로 표현하여 현실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신발을 자유롭게 날뛰는 발을 집어넣기 위한 '작은 감옥'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 '발'을 감싸는 신발을 '새의 육체'로 변주하여 일상의 구속을 깨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의 삶을 속박했던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은 화자는 ㉤에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지닌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발을 감싸는 신발을 '새의 육체'로 변주함으로써 일상의 구속을 깨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14 답 (1) 신중하게 (2) 구속 (3) 속박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개조개가 지나온 '시간'과 '길'은 삶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 과감하게)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에서 화자는 개조개가 천천히 발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개조개의 시간과 길도 그와 같은 속도로 흘러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발'은 '발자취'와 같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로 표현된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시간'과 '길'은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접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체 (나)에서 '구두'를 '감옥'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발이 발을 (구속 / 보호)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기〉에서 '신발'은 발을 구속하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나)의 1연에서 '구두'를 '새장' 또는 '감옥'에 비유한 것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반 (나)의 화자가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는 것에는 (속박 / 자유)을/를 벗어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새의 육체'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존재이므로, (나)의 화자가 그 속에 '발'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일상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산물: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정·이

③ ⓐ는 삶의 유지와 관련된 행위이고, ⓑ는 삶의 안주와 관련된 사물이다.

'탁발(ⓐ)'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가 양식을 구하는 행위이고, '먹이통(ⓑ)'은 새장에 갇힌 새에게 먹이를 주어 새장 속의 삶에 안주하게 하는 사물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는 ~~암울한 사회~~의 상징이고, ⓑ는 ~~각박한 현실~~의 산물이다.

'탁발(ⓐ)'은 일시적으로 배를 채울 양식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하는 것으로, 화자의 가난함을 보여 줄 뿐 암울한 사회를 상징하지 않는다. '먹이통(ⓑ)'은 새가 새장 속의 삶에 안주하게 하는 사물일 뿐, 각박한 현실의 산물이 아니다.

② 헛짚기 ⓐ에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④ 헛짚기 ⓐ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가, ⓑ에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⑤ 헛짚기 ⓐ에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에는 ~~자신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나타난다.

'탁발(ⓐ)'에서 '울던 것들'의 배를 채워 주려는 책임감을 엿볼 수는 있지만, 현실에 대한 만족감(②)이나, 양식을 구하고 있는 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④), 타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⑤)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먹이통(ⓑ)' 역시 현실에 안주한 삶을 나타낼 뿐, 미래에 대한 희망(②)이나,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④), 화자 자신에 대한 냉소적 태도(⑤)를 나타내지 않는다.

21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나)의 '먹이통'과 '구멍'이 '새장을 아름답게' 한다는 표현은 현실의 구속에 길들여진 삶을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새장에 있는 '먹이통과 구멍'은 새가 새장 속의 삶에 안주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현실적 안락함과 편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의 화자는 새장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넣어 자유로운 비상을 해 보고자 하므로, 이러한 새장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따라서 '새장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 현실의 구속에 길들여진 삶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에서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오는 행위는 ~~활기찬 삶의 모습~~에 해당한다.

부르튼 맨발로 거리에 나서서 일시적으로나마 '울던 것들'의 배를 채울 양식을 구한 것이므로, '탁발'은 고단하지만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를 활기찬 삶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범위 오류 (가)의 '움막 같은 집'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고, (나)의 '낡은 목욕통'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대상이다.

(가)의 '움막 같은 집'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양식을 기다리며 울던 것들이 배를 채운 뒤 울음이 멎는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자 삶을 유지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하는 삶의 무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낡은 목욕통'은 화자가 버리려는 예전의 구두를 빗댄 표현이므로, 화자가 벗어나려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1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자연물을 소재로 삼아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개조개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개조개가 슬픔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여기고, 이를 양식을 구하기 위해 '부르튼 맨발'로 거리에 나온 모습과 연결하여 가장의 고된 삶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새장에 갇힌 새가 '언덕을 잊고', '날지 않는' 모습을 통해 속박된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의 2연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 새가 날 때 구두를 감

추듯'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삶을 속박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도치법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샀다', '만든 것이다', '컸다', '작아져야 한다', '날지 않는다'와 같이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속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는 '흘러왔을 것이다', '돌아왔을 것이다' 등에서 대상에 대해 추측하고 있으므로, 단정적 어조와는 거리가 있다.

④ 범위 오류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생생하게 형상화하였으나, (나)에는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가)는 '슬피 우는',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울던 것들' 등에서, (나)는 '나는 가끔씩 ~ 위로하는 것이다' 등으로 보아, 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1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구두'를 '낡은 목욕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 내는~~ '낡은 목욕통'과 같이 ~~화자가 오랫동안 지켜온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나)의 4~5연에서 화자는 새로 산 구두가 자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하면서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낡은 목욕통'은 그동안 화자를 속박했던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는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순수함을 지키려는 의지와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신고 다니는 '구두'를 '감옥을 끌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구두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화자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화자는 구두가 너무 커서 '감옥'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구속의 압박감이 컸음을 '낯설게하기'를 통해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새장'에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는 발상은 좁은 '새장'에 하늘의 '구름'을 넣어 새가 자유롭기를 바라듯 화자 역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좁은 '새장' 속에 하늘에 자유롭게 떠 있는 '구름'을 집어넣는 행위는 새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자 역시 현실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낯설게하기'를 통해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새 구두'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고 본 발상은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상식적으로 '새 구두'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위에 올려질 수는 없으므로 '낯설게하기'가 쓰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속박적 현실을 상징했던 구두를 자유를 표상하는 구름 위에 둔다는 낯선 표현을 통해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내 구두'를 '한 척의 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든 출항할 수 있는 '배'와 같이 지상을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연에서 화자가 '내 구두'를 아직 물에 젖지 않은 '배'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때 배는 지상을 벗어나 어디로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현실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19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배', '새의 육체'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 ×)
아직 물에 젖지 않은 '배'는 지상을 벗어나 어디로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존재이고, '새의 육체'는 속박적 현실을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는 화자가 발을 집어넣어 보려는 대상으로, 둘 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2) 화자 오류 화자는 삶을 속박하는 현실을 '새장', '낡은 목욕통'에 비유하며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 ×)
화자는 1~2연에서 구두를 '새장', '작은 감옥'에 비유하면서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5연에서 삶을 속박하는 현실을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에 비유하며 이를 벗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9 가 나비 나 얼음 속의 밀림

작품 분석 본문 112~115쪽

가 나비

작가 정지용
갈래 산문시, 서정시
주제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세계
특징 ① 시각적·청각적 이미지와 음성 상징어 등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함.
②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함.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남.
④ 명사로 시를 종결하여 시상을 집중시키고 여운을 남김.
⑤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냄.

한 줄 의미
• 추운 가을날 산장에서 적막한 (**밤**)을 보내며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봄.

나 얼음 속의 밀림

작가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얼음 속에 내재된 생명력과 역동성
특징 ① 의문문을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하고 사유의 과정을 드러냄.
② 역설적 발상과 시상의 확산이 돋보임.
③ 은유법과 직유법, 도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④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자아냄.

한 줄 의미
❶ 겨울 아침, 유리창에 낀 (**성에**)를 보며 의문을 가짐.
❷ 결빙의 (**힘**) 속에 숨어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해함.
❸ 성에의 무늬로부터 불의 (**흔적**)과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함.
❹ 성에를 보며 지상의 모든 (**얼음**)과 푸른얼음 속에 퍼져 있는 (**원시림**)을 생각함.
❺ 성에로부터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낌.

22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에는 (나)와 달리 '호 호', '후 두 두 두', '징징', '활 활' 같은 음성 상징어가 쓰이고 있다. '호 호'는 입김을 불어 등피를 닦는 모습을, '후 두 두 두'는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상황을, '징징'은 열리지 않는 창을 주먹으로 치는 상황을, '활 활'은 불을 피운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구조적 안정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범위 오류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화자가 6행에서 나비를 보고 가엾다고 한 후, 10행에서 나비가 잔나비처럼 눈을 뜰까 무섭다고 말한 것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비'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연민에서 두려움으로 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공간의 이동 없이 유리창에 낀 성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며, 정서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는 '붉다', '검은 눈', '희부옇게 어정거리는',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등에서 시각적 심상이 쓰이고, '초침 소리 유달리 똑닥거리는', '후 두 두 두 낙수 짓는 소리' 등에서 청각적 심상이 쓰였을 뿐이다. (나) 역시 시각적 심상을 통해 유리창에 반짝이는 성에를 묘사할 뿐이므로, (가), (나) 모두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부재 (가)와 (나)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로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나)의 2연은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성에로 결빙하는 힘에 대한 화자의 의문이 점차 심화·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층법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정·오 지름길

④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가을밤 산장의 풍경을, (나)는 겨울 아침 유리창에 핀 성에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고 있어서 공감각적 심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 심상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헷갈릴 때에는,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의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은 '투명하고'라는 시각적 심상과 '차가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이 연달아 제시되어 있을 뿐, 감각이 전이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221 답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사유**: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정·정·이

ㄴ. (가)는 의성어를 의도적으로 한 음절씩 띄어 써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가)의 '후 두 두 두 낙수 짓는 소리'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흉내 낸 '후두두두'라는 의성어를 일부러 한 글자씩 띄어 씀으로써 낙숫물이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ㄹ. (나)는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사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의 2연에서 의문형 어미 '-ㄹ까'를 반복하여 '성에'에 대해 화자가 사유해 나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ㄱ. 부재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시간의 흐름

220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연민('가엾어라')에서 두려움('무서워라')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ㄷ. 부재 (나)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현재

(나)는 '성에를 본다.', '꽃과 잎과 줄기를 본다.' 등과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유리창에 피어난 성에를 보고 있는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2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은 ㉡과 달리 안과 밖의 두 공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창유리(㉠)'는 화자가 나비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나비도 산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안과 밖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리창(㉡)'은 화자가 성에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 안과 밖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오·오·이

② 헛짚기 ㉡은 ~~㉠과 달리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창유리(㉠)'와 '유리창(㉡)'은 모두 화자가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시적 상황과 관련된 소재일 뿐,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대장~~이다.

(가)의 화자는 '창유리(㉠)'에 붙은 나비가 비를 맞는 모습을 보며 가여워하고, (나)의 화자는 '유리창(㉡)'에 생긴 성에를 보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과 ㉡이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지는 않는다.

④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가)의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 낙엽 벗은 산장 밤', '구름이 다시 ~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등에서 느껴지는 적막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통해 현재 화자가 억압적이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자는 '창유리(㉠)'를 통해 보이는 나비를 연민하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뿐,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유리창(㉡)'에 핀 성에를 바라보며 역동적인 생명력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가)와 (나)에 화자가 부조리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⑤ 헛짚기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가)에서 창밖의 나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연민에서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계기가 '창유리(㉠)'라고는 볼 수 없다. (나)에는 '유리창(㉡)'에 핀 성에를 보면서 역동적인 생명력을 떠올리는 인식의 과정이 드러나 있을 뿐,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22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정·정·이

② 헛짚기 [B]: '결빙의 힘'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여 '결빙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과 저항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1연의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 가두어 놓은 힘'으로 보아, [B]의 '결빙의 힘'은 물방울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결빙의 힘'에 '잎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든다는 것은 물방울들이 얼어붙으면서 고정된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결빙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지, 억압과 저항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A]: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성에'의 모습에서 '하얀 식물'의 모습을 유추해 내고 있다.

[A]에서 화자는 무생물인 성에를 보며 생물인 '하얀 식물'

의 모습을 유추하는 참신한 발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 대상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물의 결빙이 만들어 낸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해 내고 있다.
[C]에서 화자는 성에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봄으로써 '얼음의 결정체마다 살라 놓은 / 투명한 불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 하나의 대상에서 찾아낸 속성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성에'에서 '원시림'으로 연결되는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D]에서 화자는 성에를 보고 '지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리고, 이어서 '푸른얼음' 속에 퍼져 있는 '원시림'을 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대상인 성에에서 찾아낸 속성을 '모든 얼음'과 '원시림'으로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E]: 정적 대상을 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에'에서 찾아낸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3연에서 성에를 자세히 관찰하던 화자는 [E]에서 성에로부터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역동적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유리창에 얼어붙어 있던 정적 대상인 성에를 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에에서 찾아낸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24 답 (1) 하얀 식물 (2) 확장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유리창, 하얀 식물)'은 무생물인 '성에'를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223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무생물인 '성에'를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여 나타낸 표현은 '하얀 식물'임을 알 수 있다.

(2) 상반 화자의 사고는 '성에'에서 출발하여 '지상의 모든 얼음', '원시림'으로 그 범위가 (확장, 축소)되고 있다.
223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의 사고는 '성에' → '지상의 모든 얼음' → '원시림'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희망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는 휩쓸려 내려간 별이 화자가 있는 산장이 아닌 산 아래의 어느 마을 위에 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희망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 화자가 한 일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가)에서 화자는 난로에 물푸레나무의 나뭇가지를 깔아 불을 지피고 등피를 닦아 끼운 뒤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 결과 불꽃이 돋은 것이므로, ⓐ는 화자가 한 일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 직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연봉 산맥 길'을 '다람쥐 등 솔기'에 비유하며 '구브레' 뻗어 나간다고 묘사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 의성어를 통해 나비를 위한 화자의 노력과 한계를 생생하게 나타낸다.
화자는 비를 맞고 있는 나비를 위해 창문을 열고자 하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아 주먹으로 징징 칠 뿐이다. 따라서 ⓒ는 나비를 위한 화자의 노력과 한계를 의성어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시상을 집중시킨다.
'황혼 같은 밤'에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을 집중시키고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

22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온기: 따뜻한 기운.

정·정·이

④ 헛짚기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기며 '부러'워하는 창밖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모습은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성찰적 자세에~~ 해당하겠군.
〈보기〉에서 (가)는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심정, 억압적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기며 '부러'워하고 있는 주체는 나비이고, 화자는 이 나비를 보며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한다고 하였으므로, 산장 안의 온기를 부러워하는 나비의 모습은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화자의 심정을,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 않을까 무서워하는 화자의 모습은 억압적 현실로 인한 화자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찰적 자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초침 소리 유달리 뚝닥거'린다고 느낄 만큼 적막감이 감도는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배경이 화자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군.

화자는 난로를 지펴야 할 정도로 서늘하고, 초침 소리가 유달리 뚝닥거리게 느껴질 정도로 적막감이 도는 산장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낙수 짓는' 창밖에 붙어 있는 나비를 '가엾'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했던 화자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나비에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나비는 시인이 조우하게 된 자신의 내면을 비유하는 대상이고, 시인은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비가 오는 창밖에서 추위에 떨며 산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비에게 시대적 현실로 고통 받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이를 '가엾어라'라고 탄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이나 '자재화 한 폭'과 같은 비유를 통해 창밖 나비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 낸 존재임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나비는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존재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환상'이나 '자재화'는 모두 '나비'를 가리키는 말로, 나비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 낸 가상의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인 별도 '휩쓸려 나려'갔다는 표현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겠군.

〈보기〉에서 (가)에는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이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추운 가을날 어느 산장에서 적막한 밤을 보내는 화자에게 있어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도 '휩쓸려 나려'갔다는 것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응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

정·정·이

(1)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작품의 배경은 성찰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

〈보기〉에서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시인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배경이 화자로 하여금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잔나비'~~ 나비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괴로움이 투영된 대상이다. (○, ×)

'잔나비'는 눈을 뜨는 나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대상으로, 화자의 괴로움이 투영된 대상이 아니다. 〈보기〉에 따르면 (가)는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잘 보여 주는데, 여기서 '나비'가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화자의 괴로움이 투영된 대상은 '나비'임을 알 수 있다.

(3) 헛짚기 '백화 숲 희부옇게 어정거리는 절정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은 화자가 스스로를 응시하는 과정 끝에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 ×)

희부옇고 부유스름한 풍경은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풍경으로 화자가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나타낼 뿐,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22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도**: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끎.
- **정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함.

정·정·이

⑤ 헛짚기 '또 다른 원시림'을 직접 찾아가 관찰한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있군.

'또 다른 원시림'은 화자가 성에를 관찰하면서 상상한 대상으로 실제로 찾아가 관찰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겨울 아침 쉽게 볼 수 있는 '성에'를 시적 소재로 활용한 것에서 사소한 것을 자세히 보는 시인의 작품 세계를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김기택의 시 세계는 사소한 것, 자세히 보기 등의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성에는 겨울 아침에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소재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인의 시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성에'라는 무생물을 '하얀 식물'로 생물화하는 상상력은 '생명의 비밀이 /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명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군.

1연에서는 '성에'를 '하얀 식물'에 비유했는데, 〈보기〉에 따르면 이는 무생물을 생물화한 상상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 2연에서 '생명의 비밀이 /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라는 시구를 통해 이를 생명 의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③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고 있군.

1연에서 '무엇일까'하고 서술어를 먼저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한 뒤 이어서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인 성에의 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성에의 화려한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한 것에서 성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시인은 대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정밀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3연에서 화자가 성에의 무늬가 결정체마다 살라 놓은 '불의 흔적'처럼 느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나 아름다운 관계

본문 116~119쪽

작품 분석

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작가 백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순수하고 환상적인 사랑에 대한 소망
특징 ① 현실의 세계와 상상 속의 세계로 나누어 시상을 전개함.
② 인과 관계를 바꾸고 대등적 연결 어미 '-고'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화함.
③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④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⑤ 흰색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눈) 내리는 밤 나타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함.
❷ 나타샤와 (산골)에 가서 살고 싶어 함.
❸ (세상)을 버리고 (산골)로 가자고 나타샤가 속삭이는 것 같음.
❹ 나타샤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함.

나 아름다운 관계

작가 박남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한 다짐
특징 ① 의인법을 활용하여 바위의 포용으로 소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형상화함.
② 종결 어미 '-어', '-지', 연결 어미 '-고' 등의 반복을 통해 각운을 형성함.
③ 감각적 이미지와 색채어 등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함.
④ 도치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바위)와 (소나무)의 아름다운 관계
❷ 바위와 소나무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반성))함.

22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2연에서 서술어 '뒤돌아본다'를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인 '산다는 일이 ~ 피워 본 적 있었던가'를 뒤에 제시하는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성찰과 반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푹푹'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응앙응앙'은 화자의 상상 속

동물인 흰 당나귀가 화자와 나타샤의 사랑을 축복하며 내는 소리이다. 이를 통해 화자와 나타샤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 혹은 세상과는 대립적인 공간으로, 순수한 세계인 산골에 대한 열망 등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바위와 소나무를 의인화하여 바위가 바람에 날아와 안긴 솔씨 하나를 받아들이고 이를 소나무로 키워 내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하여, (나)는 동일한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의 '푹푹 눈이 나린다', '눈은 푹푹 나리고'에서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인한 운율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시행의 끝에 '-어, -지, -가, -고' 등과 같은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가)에서는 흰색을 드러내는 시어 '눈', '흰 당나귀'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나)에서는 푸른색을 드러내는 시어 '푸른 그늘'을 통해 소나무가 드리우는 그늘에 시원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230 답 (1) (나) (2) (가), (나)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촉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1) 범위 오류 (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

(나)의 마지막 행의 '있었는가', '있었던가'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닌 설의적 표현이다. 이를 통해 다른 존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못한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반성적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2) 자연물이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가), (나))

(가)의 화자는 눈이 내리는 풍경을 보며 사랑하는 '나타샤'를 그리워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싱싱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다른 존재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로 보아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이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범위 오류 (가)는 의성어와 의태어, 토속어 등을 다채롭게 구사하여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

(가)는 의태어 '푹푹', 의성어 '응앙응앙', 토속어 '출출이', '마가리', '고조곤히' 등을 다채롭게 구사하여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3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고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 **몽환적**: 현실이 아닌 꿈이나 환상과 같은.
- **지사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정·이

① ㉠은 화자의 소망과 염원을, ㉡은 화자의 자기 성찰을 함축한다.

(가)의 화자는 가난하고 고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나 나타샤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을 통해 상상함으로써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바위와 소나무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지 인식한 뒤, ㉡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은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을, ㉡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이끌어 낸다.
미래에 대한 상상

(가)의 화자는 ㉠ 이후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과거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맺었던 관계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은 상상에서 현실로의 전환을, ㉡은 외적 고찰에서 내적 응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가)의 화자는 2연에서 현실의 고독과 마주한 다음 ㉠을 통해 나타샤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고 있으므로, ㉠은 현실에서 상상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세계에 있는 바위와 소나무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난 뒤 ㉡을 기점으로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으므로, ㉡이 외적 고찰에서 내적 응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헛짚기 ㉠은 ~~몽환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의 분위기가 몽환적이고 이국적이기는 하지만, ㉠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

는 ㉡ 이후 희생적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는 한편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해학적이거나 풍자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⑤ 헛짚기 ㉠은 ~~부정적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를~~, ㉡은 ~~의연한 태도로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지사적 풍모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 이후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고 상상을 통해 소망하는 세계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부정적 대상을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나)의 화자는 ㉡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삶의 자세를 국가와 연결하여 이해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지사적 풍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23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내밀**: 어떤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함.

정·정·이

⑤ 헛짚기 '나'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상황이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나타샤'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반전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나타샤와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화자는 나타샤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샤가 화자를 사랑하고 흰 당나귀도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화자의 상상 속 일로, '나'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타샤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반전되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산골로 가자', '마가리에 살자'라는 표현에서 '나'의 소망을 느낄 수 있다.

'산골로 가자 ~ 마가리에 살자'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타고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② '눈'과 '흰 당나귀'의 흰색 이미지를 중첩시켜 순결함에 대한 '나'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색채로, 화자는 '눈'과 '흰 당나귀'에 이러한 흰색 이미지를 결합하여 순결함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③ '푹푹' 내리는 '눈'과 '깊은 산골'은 '마가리'의 내밀함과 고립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가 세상을 버리고 나타샤와 함께 간 '깊은 산골'의 '마가리'는 눈이 쌓이면 고립될 수 있는,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화자와 나타샤만의 내밀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푹푹' 내리는 '눈'과 '깊은 산골'이 '마가리'의 내밀함과 고립된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시는 행위에서 '나'의 고독한 처지와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2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는 눈이 푹푹 내리는 밤에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나타샤와 함께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시며 이러한 상상을 하는 '나'의 모습에서 고독한 처지와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23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원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사람.

정·정·이

(1) '눈'은 계절감을 환기하는 동시에 순수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

'눈'은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환기하며,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순수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헛짚기 '나타샤'는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어 있는 ~~화자를 다시 현실로 이끌어 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 ×)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나타샤가 '산골로 가는 ~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나타샤 역시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을 긍정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를 다시 현실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의 입장에서 현실로 이끄는 것은 구원의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3) 상반 '산골'은 세상과 단절된 이상적 공간으로서, '마가리'와 ~~대조적인~~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 ×)

화자가 가려고 하는 '산골'을 '눈이 푹푹 쌓이는 밤'에 가는 '깊은' 곳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세상과 단절된 이상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가리'는 산골 속에 있으므로 이 둘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3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화자 오류 화자는 ⓐ에서 '소나무'가 자라난 과정을 ~~지켜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의 '사람들은 모르지'는 바위에 이끼도 살지 못했던 처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위 위에서 자란 소나무가 싱싱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를 사람들이 몰랐던 일을 자신만 알았다는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② 화자는 ⓑ에서 작은 '솔씨'가 바위에 뿌리를 내린 것에 대한 경이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 '내리다니'에 쓰인 종결 어미 '-다니'는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는 작은 '솔씨'가 바위에 뿌리를 내린 것에 대한 화자의 경이감이 드러난다.

③ 화자는 ⓒ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소나무'를 키워 낸 '바위'의 희생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바위가 소나무에게 줄 빗물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다는 점에서, ⓒ는 소나무를 키워 낸 바위의 희생과 사랑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에서 '바위'의 사랑으로 성장한 '소나무'가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소나무가 드리운 그늘은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위의 사랑으로 성장한 소나무가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에서 '바위'와 '소나무'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바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성장한 소나무를 보며, ⓔ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나)에서 '바위'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삼아, '강물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를 매개로 '소나무'와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나)에서 소나무는 바위가 틈을 내 주고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틀어 주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었다. 바위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으로 큰 소나무가 '푸른 그늘'을 드리우며 '강물 소리'를 흐르게 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려준 것이므로, 바위가 소나무를 매개로 '강물 소리'와 '새'와의 새로운 관계를 확장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나'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는 것은 속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를 통해 화자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세상'을 떠나 '산골'의 '마가리'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과 단절을 택하고 순수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눈' 내리는 상황의 지속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자처한 고립과 '나타샤'에 대한 '나'의 몰입을 심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가)에서 '눈'은 '세상'을 차단하는 동시에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고 심화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눈'이 푹푹 쌓임에 따라 화자가 자처한 고립은 심화되고, 그만큼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몰입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틀어 '소나무'를 키워 낸 것을 통해, 주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바위는 처음에는 이끼들도 살 수 없는 '불모'의 존재였다. 그러나 늙어 감에 따라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어 자신에게 날아와 안긴 '솔씨'를 위해 '굳은 몸을' 틀면서 빗물을 받아 내는 등의 '사랑'으로 소나무를 키워 낸다. 이는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야 비로소 다른 존재를 포용하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⑤ (나)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바위'가 먼저 '솔씨'에게 '틈'을 내어 뿌리를 내리게 했듯이, 내가 먼저 '몸의 한편'을 내어 누군가를 품어 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바위와 소나무의 관계를 통해 '산다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된 화자는 2연에서 풀꽃 한 포기를 위해 자신이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본 적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본다. 이는 바위가 먼저 솔씨에게 틈을 내어 뿌리를 내리게 했듯이 자신도 먼저 '몸의 한편'을 내어 누군가를 품어 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모습을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나)에서 '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틀어 '소나무'를 키워 낸 것을 통해, 주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가)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기〉의 어떤 내용이 (나)와 관련된 특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보기〉의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들을 포용하며 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은 ④에 제시된 바위의 변모('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트는 것)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36 답 (1) 고립 (2) 탈속적 (3) 포용 (4) 늙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이질적**: 성질이 다른.

정·정·이

(1) 교체 (가)의 '푹푹'은 화자의 (고립 / 저항)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여 준다.

(가)에서 화자는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면서 '눈'이 '푹푹' 쌓이는 밤에 산골로 가자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자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과 단절을 자처하였으며, 이때 '푹푹'은 화자가 자처한 고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 상반 (가)의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세계는 (탈속적 / 세속적) 공간이다.

(가)의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흰 당나귀를 타고 가 살고 싶어 하는 '산골'과 '마가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곳이라는 점에서 탈속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 상반 (나)의 '바위'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를 (포용 / 배척)하고 있다.

(나)의 '바위'는 먼저 틈을 벌려 솔씨를 뿌리 내리게 하고, 몸을 틀어 빗물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주며 사랑으로 소나무를 키워 냈다는 점에서,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를 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교체 (나)의 화자는 '소나무'가 '푸른 그늘'을 드리우며 다른 존재를 품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바위'가 (늙은 / 굳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그래 아름다운 ~ 늙어 갈 수 있기 때문이야' 등으로 보아, 바위가 늙어 다른 존재를 포용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란 소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며 강물 소리를 흐르게 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는 '바위'가 늙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3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에서 마침내 ~~현실을 초월한 사랑을 성취한 화자의 기쁨~~을 짐작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3연에서 나타샤가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4연에서 흰 당나귀가 화자와 나타샤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아서 응앙응앙 우는 것은 모두 화자가 상상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현실을 초월한 사랑을 성취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등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다.

나타샤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을 통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국적인 느낌을 풍기는 '나타샤'를 등장시킨 것에서 고향의 풍속을 그리던 세계에서 벗어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가)는 고향의 풍속을 그리던 세계에서 벗어난 백석 후기 시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이름인 '나타샤'의 사용은 고향의 풍속을 그리던 세계에서 벗어난 후기 시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는 데서 사랑을 이루기 힘든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사랑을 이루기 힘든 현실에 고뇌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가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는 장면은, 사랑을 이루기 힘든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고 '산골'로 가고 싶어 하는 것에서 부정적 현실을 떠나 이상적 세계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려는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로 인해 고뇌하며, 여인과 이상적 세계인 '산골'로 함께 가는 상상을 한다고 하였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는 나타샤의 말과,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산골로 가는 상상을 하는 것에서 부정적 현실인 '세상'을 떠나 이상적 세계인 '산골'에서 나타샤와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31 가 수(繡)의 비밀 나 찔레

작품 분석 본문 120~123쪽

가 수(繡)의 비밀

작가 한용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 조국·민족·자유에 대한 지향, 진리의 구도에 대한 염원
특징 ① 수놓는 행위를 통해 추상적 관념을 형상화함.
② 상징적·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옷)을 다 짓고, 주머니에 (수놓는) 것만 남겨 둠.
❷ 주머니 짓기를 멈춘 이유와 수놓기에 담긴 '(나)'의 마음

나 찔레

작가 문정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픈 사랑을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은 소망
특징 ① 시각적 이미지와 역설적 발상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냄.
③ 변주된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강조함.
④ 가정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사랑했던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채 (찔레)로 서 있고 싶은 소망
❷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이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간직하고 싶은 소망
❸ 지난날의 (아픈) 사랑에 대한 (회상)
❹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풍성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은 소망

2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포착**: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정·정·이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와 같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추억을 털며'와 '아픔이 출렁거려'에서 '추억'과 '아픔'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터는 행위와 출렁거리는 모습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 (나) 모두 명암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나)는 (나)는 마지막 연에서 1연의 내용을 변형·반복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재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 않다.

⑤ 부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39 답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ㄷ. 작품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독백적 어조를 통해 내면 심리를 토로하고 있다.
(가)는 1연 1행에서, (나)는 4연의 '내겐 우는 날이'에서 화자가 표면에 제시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당신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나)의 화자는 아픈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은 소망을 혼잣말하는 듯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색채 이미지를 통해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나)의 1연, 3연, 7연에 제시된 색채어 '초록'은 찔레꽃이 피는 계절의 녹음을 나타낸 것으로 계절감을 부각한다.

ㄴ. 범위 오류 경어체를 활용하여 상대를 존중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가)는
(가)에서는 '-습니다', '-ㅂ니다'와 같은 높임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당신'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ㄹ. 범위 오류 반복법을 통해 사랑의 아픔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자세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는 1연에 쓰인 '서 있고 싶다'라는 시구를 3연과 7연의 마지막 행에서도 반복하여, 사랑의 아픔을 겪은 화자가 이를 포용함으로써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가)의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는 역설적 표현으로, 수를 놓는 일이 화자에게는 '당신'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 짓지 않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며,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나)는 6연에서 사랑의 아픔을 '예쁘고 뾰족한 가시'에 비유하고, 이를 '꽃 속에 매달'아 포용하겠다는 것에서 역설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숙한 사랑은 아픔을 견뎌 냄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과 의지를 부각한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감탄사로~~, (나)는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강화하고 있다.~~

(가)와 (나)는 각각 '것입니다', '있고 싶다'로 시상이 종결되고 있으므로, 감탄사와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에 각각 설의적 표현과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삼아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는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삼고 있지 않다. 반면 (나)의 '찔레'는 임에 대한 성숙한 사랑을 간직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가 쓰이지 않았다. 반면 (나)에서는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과 같이 찔레꽃이 피는 시기(5월)를 계절적 배경으로 하여 지난날의 아픈 사랑과 이를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4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변모**: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뀜. 또는 그 모양이나 모습.

정·정·이

⑤ 교체 [C]의 '말을 잃어 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C]의 '아픔이 출렁거려'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C]에서 화자가 '말'을 잃게 된 것은 과거에 상대를 사랑하는 동안 출렁거린 '아픔' 때문에 겪게 된 일로, 사랑의 아픔으로 슬퍼하던 당시의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D]의 '무성한 사랑'은 사랑의 아픔을 인내하고 포용함으로써 얻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뜻하는 말이므로,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화자가 슬퍼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 반복됨으로써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아름답고 성숙된 사랑으로 승화하여 간직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함이 부각되고 있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인 '사랑하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D]의 '꿈결'은 현재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과 정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무성한 사랑'은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승화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한다.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B]에서 사랑하던 사람에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 '꽃'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아쉬움은 [D]에서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 꽃 속에 매달고' '서 있고 싶다'와 같이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으로 변모되어 나타난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B]의 '추억' 속 화자의 모습에 해당한다.

24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꿈결'은 ~~'사랑하던 그 사람'과의 슬픈 추억~~을 가리킨다.

(○, ⊗)

241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꿈결'은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아픈 사랑을 승화하여 성숙한 사랑으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꿈결처럼' 앞에 '슬퍼하지 말고'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지나간 사랑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고자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

금방 사라지는 속성을 지닌 '이슬'에 비유하여 '추억을 털'고 싶다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아픈 사랑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3) 상반 '예쁘고 뾰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꽃'은 '무성한 사랑'과 ~~대조적인~~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 ×)

'예쁘고 뾰족한 가시'는 사랑의 아픔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러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꽃'은 사랑의 아픔을 포용하고 극복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성한 사랑'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의 5연에서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 갔다'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겪은 사랑의 '아픔(㉡)'이 화자를 실의에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화자의 비밀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가)의 2연 '아직 이 세상에는 ~ 보물이 없습니다.'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아픔(㉠)이 임('보물')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 화자의 비밀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과 ㉡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화자가 느끼는 아픔에 이러한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화자 오류 ㉠에서는 ㉡과 ~~달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절망적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이상과 달리 임이 부재하는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고 아파하고(㉠) 있으나, 절망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지나간 사랑의 아픔(㉡)으로 실의에 빠졌던 화자가 이를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도 절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은 ㉠과 ~~달리~~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나)의 4~5연에서 '그대'를 사랑하는 동안 우는 날이 많았으며 아픔에 말을 잃어 갔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아픔(㉡)'은 외부 대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의 '아프고(㉠)' 역시 임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감정이므로 외부 대상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4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부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정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함.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일 뿐, 여기에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손때'는 주머니를 많이 만져서 생긴 것으로, 그만큼 화자가 수를 놓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보기〉에 따르면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임의 부재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는 화자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은 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수를 놓는 과정에서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보기〉에 따르면 화자의 현실 부인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따라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45 답 (1) 부인 (2) 지연 (3) 수를 놓는 (4) 주체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주술적**: 주술(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또는 그 술법)에 관련된.
- **방어 기제**: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

정·정·이

(1) 상반 화자는 임이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 부인)하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가)의 역설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 교체 화자는 수를 놓는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 유발)하고자 한다.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킨다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 교체 화자는 (수를 놓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 임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정화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일상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 2연의 5~7행을 통해 (가)의 화자가 수를 놓는 것이 임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정화하기 위해 하는 일상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4) 교체 화자가 주머니의 완성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임이 없는 현실을 (주술적, 주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의 행위는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머니를 짓다가 놓아두는 일을 반복하며 완성을 미루는 것은 임의 부재로 인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2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나)에서 화자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오늘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어난 것은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 것~~에 해당하는군.

(나)의 '송이송이 흰 찔레꽃'은 지난날의 사랑의 아픔을 승화한 뒤에 얻을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현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과거에 아픔을 겪으며 사랑했던 '그 사람'이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오·이

① (가)는 '당신'이, (나)는 '그대'가 부재하는 상황에 대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군.

〈보기〉에서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는 화자가 '당신'을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를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재하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등으로 보아, 화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의 사랑에 아픔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과거에 사랑했던 '그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사랑의 아픔을 승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과 (나)의 '찔레로 서 있고 싶다.'에는 화자의 지향이 담겨 있군.

(가)의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은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자가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한다. (가)의 화자는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있다면 수를 완성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화자의 지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 '찔레'는 지난날 사랑의 아픔을 승화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찔레로 서 있고 싶다'에는 화자의 지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군.

(가)의 화자가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은 것은 현실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의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현실의 모습에 해당하는군.

(나)의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2 가 전라도 가시내 나 목계 장터

작품 분석 본문 124~127쪽

가 전라도 가시내

작가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
특징 ① '전라도 가시내'의 고달픈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함.
② '전라도 가시내'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함.
③ 토속적인 시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함.
④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전라도 (**가시내**)와 함경도 사내('나')가 (**북간도 술막**)에서 만남.
❷ 가시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내('나')가 (**유대감**)을 느낌.
❸ 고향을 떠나오면서 가시내가 느꼈을 (**슬픔**)과 한
❹ 사내('나')가 가시내에게 공감하며 (**위로**)를 함.
❺ 사내('나')가 암담한 현실에 맞서 극복 (**의지**)를 다짐함.

나 목계 장터

작가 신경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떠돌이 민중의 삶의 애환과 갈등
특징 ① 방랑과 정착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대립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변주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민요조의 4음보 율격과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④ 자연물이 화자에게 권유하는 것처럼 표현하며 주제를 전달함.

한 줄 의미

❶ 방랑과 (**유랑**)의 삶
❷ 정착에 대한 (**소망**)
❸ (**유랑**)과 정착 사이에서의 (**갈등**)

24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가시내야',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울어 울어', '사라질 게다' 등의 반복을 통해, (나)는 '되라 하고'와 '되라 하네(되라네)'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서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② 부재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가)의 6연의 '이윽고'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뜻으로 시적 분위기를 환기할 뿐, 시상을 반전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도 시상이 반전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가)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인 함경도 사내('나')는 청자인 가시내에게 말을 건네며 가시내의 '가난한 이야기'에 동화되어 유대감을 느끼고 위로를 건네려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게 친근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는 화자가 독백적 어조로 내면 심리를 토로할 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가)에서는 '남실남실', '차알삭', '휘 휘', '우줄우줄' 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함경도 사내가 술을 따르는 모습, 가시내의 고향의 풍경, 가시내의 댕기가 날리는 모습, 벌판으로 나서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 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쓰이지 않았다.

24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나)와 달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가)는 '가시내'를 청자로 삼아 '가시내야'라고 반복적으로 부르며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가)는 (나)와 달리 토속적 시어를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
(가)에서는 '알룩 조개', '얼구며', '북간도 술막', '눈포래', '불술기' 등의 시어를, (나)에서는 '방물장수', '민물 새우', '토방', '툇마루'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나)는 (가)와 달리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자연물들을 제시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구름'과 '바람'은 방랑과 유랑의 이미지를 띠는 자연물이고, '들꽃'과 '잔돌'은 정착의 이미지를 띠는 자연물이다. 이처럼 대립적 이미지를 지니는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4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나)는 (가)와 달리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24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는 '남실남실', '우줄우줄', '휘 휘', '차알삭'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가)는 (나)와 달리 서사적인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시의 특성을 띠고 있다.

(가)는 고향을 떠나 온갖 고초를 겪으며 유랑하는 함경도 사내('나')와 전라도 가시내의 사연을 이야기의 뼈대로 하는 서사적 줄거리를 갖고 있다. 반면 (나)는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이야기시의 특성을 띠고 있지 않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부정적인 현실과 당당하게 맞서려는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가)의 마지막 연에서 눈포래가 휘감아 치는 벌판에 나서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비장한 결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려는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떠돌이 민중으로 살아가는 화자의 애환이 드러날 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화자의 독백적 진술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가)는 '나(함경도 사내)'가 청자인 전라도 가시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가시내야', '~고 왔다.', '-더냐', '사라질 게다'가, (나)에서는 '날더러', '되라 하고', '되라 하네(되라네)'가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다.

25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나타낸다.

'싸늘한 웃음(㉣)'은 가시내가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짓는 냉소로 볼 수 있다. 함경도 사내에게 연민을 느껴 짓는 웃음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북간도 술막(㉠)'은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가 함께 있는 공간으로, 화자가 이곳을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 같은, '이웃도 못 미더운'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② ㉡: 가시내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나타낸다.

'가난한 이야기(㉡)'에서 '가난' 때문에 가시내가 고향인 전라도를 떠나 북간도까지 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 ㉢: 가시내가 고국을 떠나야 했던 슬픔을 나타낸다.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에서 울음을 우는 '두루미'는 가시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고국을 떠나 북간도로 가는 가시내의 슬픔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나타낸다.

'너의 나라(㉤)'는 가시내의 고국이자 고향이다. 사내('나')가 가시내에게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주겠다며 가시내에게 분홍 댕기를 휘 휘 날리며 ㉤으로 돌아가라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보아, ㉤은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251 답 (1) 북간도 (2) 슬픔에 공감 (3) 각박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깡

• **각박한** ① 인정이 없고 삭막한. ② 돈 따위를 지나치게 아껴 넉넉하지 않은.

정·정·이

(1) 교체 '(북간도 함경도)'는 현재 화자와 '가시내'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다.

2연에서 유랑민인 화자와 가시내가 현재 북간도 술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에는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가시내의 사연을 들으며 (슬픔에 공감, 시련을 극복)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솔길'은 뒤에 이어지는 '가난한 이야기'로 보아 가시내가 살아온 고된 인생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솔길'을 헤매겠다는 말에는 가시내의 사연을 들으며 슬픔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싸늘한 웃음'은 '가시내'가 (각박한, 모순된) 삶을 향해 짓는 웃음이다.

250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싸늘한 웃음'은 유랑민으로서 각박하게 살아온 가시내가 세상에 대해 보이는 냉소임을 알 수 있다.

25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함경도 사내는 ~~가시내와 함께 ⓐ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의 나라(ⓜ)'는 가시내의 조국이자 고향을 의미한다.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에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실제로 고향에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나마 잠깐이라도 고향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뜻으로 한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함경도 사내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에서 ㉠으로 왔다.

'바람 소리도 호개도 ~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에서 현실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려는 함경도 사내의 강한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함경도 사내가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품고 '함경도(ⓐ)'에서 '북간도(㉠)'로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에서 살았던 가시내는 두만강을 건너 ㉠으로 왔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시내의 고향은 전라도로, (가)에서는 '너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다. 4연에서 가시내가 '석 달 전'에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술막(㉠)'으로 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에서 가시내를 만난 함경도 사내는 가시내에게 연민을 느낀다.

'북간도 술막(㉠)'은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와 만나 대화를 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사내는 가시내의 사연을 들으며 연민을 느끼고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너의 가슴 ~ 헤매이자', '그래두 외로워서 ~ 가렸더냐' 등에서 사내의 이러한 연민의 감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④ 함경도 사내는 '가시내'가 ⓐ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줄게'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는 '가시내'를 위로하기 위해 화자가 한 말이다. 이어서 '손때 수줍은 ~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에는 자신이 해 준 두어 마디 사투리를 들은 '가시내'가 상상으로나마 '너의 나라(ⓜ)' 즉 고향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5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의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와 ~~(다)의 '짐 부리고 앉아 쉬는'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가)의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는 벌판에 나서는 함경도 사내의 비장한 각오와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지만, (나)의 '짐 부리고 앉아 쉬는'은 정착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가)의 '봄을 불러 줄게'에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의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가)에서 함경도 사내는 가시내에게 고향 사투리로 '봄을 불러' 주어 잠깐이라도 고향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가시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가)에서 함경도 사내는 눈포래가 휘감아 치는 것을 알면서도 벌판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결연한 의지적 자세가 드러난다.

③ (나)의 '가을볕도 서러운'에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드러나 있군.

'가을볕'은 곡식이 익어 가는 계절의 뜨거운 볕이지만, 길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방물장수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서럽게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가을볕도 서러운'에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눈포래', '얼음길'과 (나)의 '산 서리', '물여울'은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내는군.

(가)에서 가시내는 북간도에 오기 위해 '눈포래'를 뚫고 왔고, 사내는 '얼음길'이 밝으면 '눈포래'가 치는 벌판에 나설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눈포래'와 '얼음길'은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산 서리'와 '물여울'은 각각 맵차고 모진 속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54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보기〉에서 (가)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은 (가)의 함경도 사내와 가시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북간도 술막'을 수식하는

말로서, 유랑민으로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가)의 화자가 '가시내'와 술을 마시며 '가난한 이야기'에 '잠겨' 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유랑민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

(가)의 화자인 함경도 사내는 같은 유랑민 처지인 가시내와 술을 마시며 그녀가 살아온 '가난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과 관련된다.

(3) 헛짚기 (나)의 '구름'과 '바람'은 각각 '하늘'과 '땅'이 화자에게 요구하는 고난 극복의 의지가 투영된 대상이다. (○, ×)

(나)의 '구름'과 '바람'은 각각 '하늘'과 '땅'이 화자에게 방랑하며 살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빗댄 대상으로 고난 극복의 의지와 관련이 없다.

(4) (나)에서 '석삼년에 한 이레쯤'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모습은 떠돌이 삶의 고단함을 보여 준다. (○, ×)

〈보기〉에서 (나)는 떠돌이 삶의 비애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석삼년(아홉 해) 중 겨우 일곱 날쯤을 '짐 부리고 앉아' 쉰다는 것에서 떠돌이의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다.

25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에는 가시내의 삶이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나'의 확신이 담겨 있다.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는 가시내가 두만강을 건너왔던 때인 석 달 전 고향의 계절적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뒤에 이어진 '외로워서 슬퍼서'로 보아 고향을 떠나온 가시내의 슬픔과 외로움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시내의 삶이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나'의 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알룩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는 가시내가 과거에 바닷가에서 살았음을 '나'가 추측한 것이다.

'자랐나'의 '-나'는 의문형 어미로, 가시내의 고향이 바닷가일 것이라고 추측한 '나'가 가시내에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먹으며 자랐느냐고 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를 통해 현재 '나'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흉참한 기별'은 '흉악하고 참혹한 소식'이라는 뜻으로, 이 시구에서는 그러한 소식이 갑자기 '뛰어들 것만 같'아 가슴 졸이고 있는 '나'의 심리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나'가 현재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는 현재 가시내의 한스러운 심리 상태가 표출된 것이다.

'싸늘한 웃음'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가시내의 자조적·냉소적인 반응이다. 이는 가시내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매우 한스럽게 생각하는 심리 상태에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나는 눈포래 휘감아 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에서 고난에 맞서려는 '나'의 의지와 미래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다.

'눈포래 휘감아 치는 벌판'은 혹독한 상황을 상징한다. 이 벌판으로 우줄우줄 나서겠다는 것은 고난에 맞서겠다는 '나'의 의지와 미래의 행동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5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해사하게**: 표정, 웃음소리 따위가 맑고 깨끗하게.

정·정·이

① 산은 날더러 나무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풀이 되라 하네 / 눈보라 몰아치면 숲속에 몸 낮추고 / 바람 거세거든 강가에 누우라네

'들꽃'과 '잔돌'은 모두 정착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이고, '산 서리 맵차거든'과 '물여울 모질거든'은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한다. ①에서 '나무'와 '풀'은 정착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눈보라'와 '바람'은 모두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오·오·이

② 헛짚기 산은 날더러 별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달이 되라 하네 / 산등성이 넘어서 눈물을 글썽이고 / 강 언덕 지나서 해사하게 웃으라 하네

'별'과 '달'은 늘 하늘에 떠 있는 존재로 정착의 이미지를 지니지만, '들꽃'이나 '잔돌'과 달리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혀 주고, 방향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원시와 차이가 있다. 아울러 원시에서는 시련이 닥쳤을 때 이를 견디라고 하였으나, ②에서는 '눈물을 글썽이고'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③ 헛짚기 산은 날더러 불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물이 되라 하네 / 고난의 때 오거든 어둠 속 불 밝히고 / 소생의 때 오거든 생명의 물 적시라네

'불'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물'은 '생명의 물'로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착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리고 '소생의 때' 역시 시련이나 고

난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④ 헛짚기 산은 날더러 새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갈대가 되라 하네 / 눈보라 시리거든 산 너머로 날아가고 / 비바람 드세거든 강물 속에 잠기라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갈대'는 '바람'이라는 시련이 닥치면 '강물 속에 잠'겨서라도 그것을 견뎌 내는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보기〉의 조건에 맞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새'는 눈보라가 시리면 산 너머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정착의 이미지를 지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헛짚기 산은 날더러 햇살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안개가 되라 하네 / 암흑의 때 오거든 어둠을 살라 먹고 / 새벽녘 피어오르는 강 안개가 되랴데

'햇살'과 '안개'는 정착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햇살'은 어둠을 살라 먹는 강인한 존재로, '안개'는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시련이나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기〉의 조건을 충족시킨 표현이라 하기 어렵다.

정·오 지름길

- 원시의 발상을 활용한다.
-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잘 살린다.

〈보기〉에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A]에 나타난 시적 발상과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각각의 조건에 맞게 표현했는지를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A]에 나타난 발상은 정착의 이미지를 가진 자연물을 통해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때 '들꽃'과 '잔돌'은 시련을 견디는 주체이고, '산 서리'와 '물여울'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임을 파악하여 그 뜻을 바르게 살려서 창의적으로 변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33 가 삼수갑산 나 율포의 기억

작품 분석 본문 128~131쪽

가 삼수갑산

작가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절망감과 안타까움
특징 ① '아하'와 '아하하'의 반복과 3음보율로 인한 리듬감이 나타남.
② '삼수갑산'을 능동적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강조함.
③ '삼수갑산', '내 못 가네', '불귀로다' 등의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고향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과 그로 인한 비애를 심화함.

한 줄 의미

❶ (삼수갑산)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탄식
❷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탄식
❸ 삼수갑산을 벗어나 (임)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

나 율포의 기억

작가 문정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뻘밭을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느끼는 삶의 의미
특징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조성함.
② '관찰(경험) → 사색과 성찰 → 깨달음'의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③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어린 시절 (뻘밭)에서 보았던 것들을 떠올림.
❷ 뻘밭과 거기서 일하는 이들에 대해 (사색(성찰))함.
❸ 뻘밭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서 (경건함)을 느낌.

25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특정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오고가니 기험'하고, '물도 많고 산이 첩첩'한 '삼수갑산'의 특성을 제시하고,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과거에 화자를 데리고 갔었던 '바다'의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나)는 '일찍이 어머니가 ~ 위해서가 아니었다'와 같은 통사 구조가 1~2행과 11~12행에서 반복될 뿐,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재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58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 못가네',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등과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나)에서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 위해서가 아니었다'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ㄷ. 의문문의 형식과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는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와 같은 의문문의 진술과 독백적 어조를 통해 삼수갑산에 갇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좌절감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 역시 8~10행에서 의문형의 어미 '-ㄹ까'를 사용한 의문문의 진술과 독백적 어조를 통해 뻘밭의 생명력과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숭고함과 경건함 등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가 위치한 공간은 '삼수갑산'으로 화자는 이곳에 갇혀 있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화자는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탄식하고 있을 뿐, 삶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 한편 (나)는 화자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바다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에 대해 깨달은 바를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바다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화자는 뻘밭과 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색을 통해 생명의 경건함과 노동의 숭고함 등을 깨닫고 있을 뿐, 화자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

25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와 (나) 모두 같은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뇨, -네', (나)에서는 '-다, -ㄹ까' 등의 어미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가)는 화자가 '임 계신 곳'인 고향에 못 간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에 데려간 행위의 의미를 새기고 있을 뿐,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직유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직유적인 표현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노을이 지는 포구의 모습을 '각혈'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을 '성자'에 빗대고 있다.

④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화자의 경험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나타난다. (나)의 화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바다에 데려간 행위를 회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

⑤ 범위 오류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다.
(가)는 '내 왜 왔노' 등에서, (나)는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등에서 화자인 '나'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26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사리고**: 점차 일어날 일의 기미가 다른 사물 속에 숨어 있고,

정·정·이

④ ㉠은 삶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주지 못하지만, ㉡은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군.
'푸른 물(㉠)'은 소금기 많은 곳이자 '무위한 해조음'이 들리는 곳으로, 화자에게 삶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반면 이 '푸른 물'이 밀려 나간 후에 드러나는 '검은 뻘밭(㉡)'은 화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 주는 곳이다. 화자는 이로부터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왕성한 생명력과 뻘밭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숭고함 등을 깨닫고 있으므로, '푸른 물'과 달리 '검은 뻘밭'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순수한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군.

'푸른 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검은 뻘밭(㉡)'에서 본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모습은 화자에게 공포가 아닌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② 헛짚기 ㉠은 푸른 이미지로 생명과 희망을 환기시키고, ㉡은 검은 이미지로 허무와 어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군.

생명력이 넘치는 '검은 뻘밭(㉡)'과 대비되는 '푸른 물(㉠)'은 생명력이 없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푸른 물'의 푸른 이미지는 생명과 희망을 환기하지 않으며, '검은 뻘밭'의 검은 이미지는 허무와 어둠의 정서가 아니라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헛짚기 ㉠은 힘겨운 삶을 극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환희를 상징하고, ㉡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을 상징하는군.

'푸른 물(㉠)'은 힘겨운 삶을 극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환희와 관련이 없다. 한편 '검은 뻘밭(㉡)'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깊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힘겨운 삶의 터전이지만, 탄식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범위 오류 ㉠은 화자가 미래에 살아갈 모습에 대해 장장하게 해 주고, ㉡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군.

'푸른 물(㉠)'과 '검은 뻘밭(㉡)'은 모두 어머니가 데려간 바다에서 화자가 본 것들로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은 푸른 이미지로 생명과 희망을 환기시키고, ㉡은 검은 이미지로 허무와 어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군.

통상적으로 푸른색과 검은색은 각각 생명과 희망, 허무와 어둠을 환기시키는 이미지로 활용되어 왔어요. 그런데 (나)에서 '푸른 물'은 뿌리 뽑혀 밀려 나가는 대상인 반면, '검은 뻘밭'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퍼덕거리며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나)에서의 푸른색과 검은색의 이미지가 기존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색채 이미지는 작품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용될 수 있으므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261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용**: 쓸모가 없음.

정·정·이

(1) 화자 오류 '해조음'과 같이 무용(無用)한 존재들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고 있다. (○, ⊗)

화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위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은 뻘밭'을 보여 주기 위해 바다에 데려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해조음과 같이 무용한 존재들의 가치를 새로 발견했다고 볼 수 없다.

(2) 화자 오류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

(나)에서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은 생명력이 없는 공간으로,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은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대비되고 있다. 이때 드러나는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는 벌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왕성한 생명력과 뻘밭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숭고함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26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척박한**: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몹시 메마른.

정·정·이

⑤ ㉡은 ㉠과 달리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고개를 숙이며 먹이를 건지는 공간이다.

'푸른 물(㉠)'은 소금기 많은, '무위한 해조음'이 들리는 곳으로 묘사된 반면, '검은 뻘밭(㉡)'은 먹이를 건지기 위해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깊게 허리를 굽히며 노동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과 ㉡은 모두 어머니가 화자에게 보여 주고자 한 대상이다.

화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바다로 데려간 이유를 '푸른 물(㉠)'이 아니라 '검은 뻘밭(㉡)'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교체 ㉠은 ㉡과 달리 생명이 사는 곳으로 화자에게 척박한 인상을 주는 공간이다.

화자는 '검은 뻘밭(㉡)'을 생명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며 사투를 벌이는 곳이자, '쓸쓸한 맨살', 즉 사람들이 먹이를 건지기 위해 무릎을 꺾고 허리를 굽히며 힘겹게 노동하는 척박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때 느낀 뻘밭의

척박함을 '쓸쓸한 맨살'이라는 표현으로 집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생명이 사는 곳으로 화자에게 척박한 인상을 주는 공간은 '푸른 물(㉠)'이 아니라 '검은 뻘밭(㉡)'임을 알 수 있다.

③ 교체 ㉠은 ㉡과 달리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볼 수 있는 공간은 '검은 뻘밭(㉡)'이다.

④ 교체 ㉡은 ㉠과 달리 바다가 밀려 나가기 전에 볼 수 있는 대상이다.
'검은 뻘밭(㉡)'은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즉 '푸른 물(㉠)'이 밀려 나간 후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26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실향민**: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백성.

정·정·이

① 헛짚기 1연: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는 표현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물도 많고 산 첩첩'은 현재 화자가 갇혀 있는 '삼수갑산'의 지형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지, 화자가 떠나온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② 2연: '촉도지난'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촉도지난'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③ 3연: '새가 되면'이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설정을 통해, 귀향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새가 되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화자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4연: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다는 표현을 통해, 실향민이 된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삼수갑산을 화자를 가둔 주체로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실향민이 된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외적인 상황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5연: '못 벗어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못 벗어난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삼수갑산에 갇힌 화자가 느낀 절망감과 좌절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우리 민족의 좌절감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64 답 (1) 외적인 힘 (2) 내 고향 (3) 대비되는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응**: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

정·정·이

(1) 교체 화자는 (스스로의 의지, 외적인 힘)에 의해 삼수갑산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김소월은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절망적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라는 외적인 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상반 2연의 '촉도지난'에서 '촉나라'에 상응하는 대상은 '(삼수갑산, 내 고향)'이다.
'촉도지난'은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따라서 '촉나라'에 상응하는 대상은 '내 고향'이다.

(3) 상반 3연에서 '새'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유사한) 존재로서, 화자는 '새가 되면 떠가리라'를 통해 귀향의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263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새가 되면 떠가리라'는 화자의 귀향이 불가능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와 새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26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 연기
〈보기 2〉에서 (가)에서의 '새'가 화자의 마음을 고향으로 실어 나른다고 하였으므로, 이때 '새'는 고향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기 1〉의 '연기(ⓒ)'는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항구에 든다고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고향에 도달하고 싶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노랑나비

〈보기 1〉의 화자는 수만 호의 집이 불을 밝힌 번화한 고향 풍경을 기대하지만, 이끼만 무성한 무덤뿐이라며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이때 '노랑나비(ⓐ)'는 오지 않는 대상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현실과 대조되는 의미인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헛짚기 ⓑ 파이프

'파이프(ⓑ)'는 〈보기 1〉의 화자가 고향에 돌아와 마주한 풍경을 보고 느낀 슬픔과 적막함을 달래고자 피우는 담배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 바람

〈보기 1〉에서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못 살리라'는 안락한 삶을 허용하지 않는 폭압적인 현실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로 보아 '바람(ⓓ)'은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식민지 현실을 나타내는 말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 이끼

'이끼(ⓔ)'는 무덤 위에 무성히 핀 것으로, 피폐해진 고향의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34 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나 면면함에 대하여

본문 132~135쪽

작품 분석

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작가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과 의지
특징 ① 절망적 어조에서 의지적 어조로의 변화가 나타남.
② 도치법과 영탄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③ '-노라'(선언), '-으랴'(반문), '-라'(명령), '-리라'(의지) 등과 같이 다양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동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꿈(소망))
❷ (집)과 (땅)을 잃고 떠도는 자의 (탄식)
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❹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나 면면함에 대하여

작가 고재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면면함
특징 ① 유추를 통해 느티나무의 삶에서 사람들의 미래를 전망함.
②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친밀감을 줌.
③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④ 시각·청각·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⑤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느티나무의 (울음소리)
❷ (겨울)을 견디는 느티나무의 (울음소리)
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모습
❹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은 느티나무의 (생명력)
❺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26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가)는 1연에서 '나는 꿈꾸었노라'라고 먼저 말한 뒤에 '동무들과 ~ 돌아오는 꿈을'을 제시하고, 2연에서도 '이처럼 떠돌으랴'라고 먼저 말한 뒤에 '아침에 ~ 탄식을 얻으면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1연과 3연에서 '너 들어 보았니'라고 먼저 말한 뒤에 '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어순을 도치하여 의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가)의 3연 '떠올라라', 4연 '이어 가라'에서 명령형 어미의

사용을 통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는 명령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③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가)의 '동이랴, 남북이랴'는 목적지 없이 유랑하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일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는 지난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만 나타날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분위기의 전환은 (가)는 접속 부사 '그러나'를 통해, (나)는 '오늘은'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범위 오류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가)는 (나)는 어순의 도치로 인해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행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뿐, 명사로 시행을 끝맺고 있지 않다. 한편 (나)에서는 1~3연에서 '울음소리', '소리'와 같이 명사로 시행을 끝맺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범위 오류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다.

(나)는 (나)는 청자를 '너'로 명시하고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267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는 (나)와 달리 접속 부사로 인해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266번-③의 해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는 2연과 4연의 접속 부사 '그러나'로 인해 각각 '희망 → 절망', '절망 → 희망'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반면 (나)는 4연의 '오늘은'에서 '겨울 →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ㄴ.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에서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함을 알 수 있고, (나)에서는 '너 들어 보았니', '푸르른 울음소리'와 같은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선언이나 다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나는 꿈꾸었노라'의 '-노라'는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는 의미를, '나는 나아가리라'의 '-리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이러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는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에는 다짐이나 선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26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는 화자를, (나)는 청자를 표면에 제시하며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가)는 '나는', '내가'와 같이 작품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국권과 국토를 잃은 상황에 대해 느끼는 탄식, 절망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청자를 '너'라고 부르며, 느티나무의 모습으로부터 깨달은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나)의 '푸르른 울음소리'는 청각이 시각화된 공감각적 이미지로, 느티나무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낸다. 반면 (가)에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가)와~~ (나)는 유추를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지난겨울의 시련을 이겨 낸 느티나무가 봄을 맞아 초록의 이파리를 틔우는 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의 미래를 유추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가)는 유추를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가)와 달리 '둥둥둥둥'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북소리를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용기와 희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교체 (나)는 (가)와 달리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가)는 '산경을 김매이는'과 같이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반면 (나)는 '북소리는 ~ 울리겠니'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6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터전**: ① 집터(집이 있거나 있었거나, 집을 지을 자리)가 되는 땅. ②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
- **유랑**: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세~~가 나타난다.

'떠돌으랴(㉢)'는 집과 땅을 잃고 유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탄식이 드러나는 시구로, 반성적 자세와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꿈꾸었노라(㉠)'에서의 화자는 동무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가꾸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현실은 보습을 댈 땅도 없으므로,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꿈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집 잃은(㉡)' 상황과 '땅'의 부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낸다.

④ ㉣: 유랑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떠가나니(㉣)'는 '떠돌으랴'와 함께 목적지 없이 유랑하는 삶을 사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낸다.

⑤ ㉤: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나아가리라(㉤)'에는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27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은 화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탄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

(가)의 화자는 삶의 터전인 '집'을 잃은 탓에 길을 떠돌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탄식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 상반 ㉢은 화자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가리킨다. (○, ×)

(가)의 2연에서 화자가 바라던 대로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떠돌겠느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떠돌으랴(㉢)'는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하게 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에는 실낱같은 희망을 바탕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

(가)의 4연에서 화자는 실낱같더라도 '가느란 길'이 이어지는 것에 황송한 심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므로, '나아가리라(㉤)'에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7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광명**: 밝고 환함. 또는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

정·정·이

① 상반 (가)의 '보습 대일 땅'은 '벌 가'나 '마을'과 ~~대조적인~~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가)의 '보습 대일 땅'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가리키므로, '벌 가'나 '마을'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가)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은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구체화한다.

(가)에서 '가느란 길'이나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구체화하여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새벽'은 아직 어둡지만 곧 광명이 찾아올 시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드러낸다.

(가)의 '새벽'은 해가 뜨기 전의 시간으로, '산경을 김매'는 때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때 농사짓기 어려운 산비탈인 '산경'에라도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미래의 희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삭풍'이 되게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했던 것은 느티나무가 겪은 시련을 보여 준다.

지난겨울에 '삭풍'이 되게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했던 것은 추운 바람을 맞으며 희망조차 갖지 못했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느티나무가 겪은 시련을 보여 준다.

⑤ (나)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에는 '허리 펴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는 농촌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농촌에 남아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7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단면**: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현상 가운데 한 부분적인 측면.

정·정·이

② 헛짚기 [C]의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며,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군.

〈보기〉에서 (나)가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C]의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은 그러한 농촌의 모습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 놓았다는 것으로 보아, '나무'의 아픔은 곧 '마을(사람들)'의 아픔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무의 소리에는 비슷한 시련을 겪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정서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무가 시련을 견디는 모습을 나타낸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에는 묵묵히 마을을 지키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해체된 농촌 공동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투영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B], [D]의 상황 대조를 통해 '푸르른 울음소리'의 정체가 시련을 딛고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임을 '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군.

[B]의 나무는 겨울의 삭풍을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으나, [D]의 나무는 '초록의 광휘'를 내뿜고 있다. 이러한 상황 대조를 통해 시련을 딛고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③ [D], [E]를 통해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 낸 '오늘'의 '나무'를 '쳐다보'며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볼 수 있군.

[D], [E]에는 '오늘' 시련을 이겨 낸 나무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면면한 삶의 태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④ [E]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새 희망을 주고 있음을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E]에서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음을 '둥둥둥둥'과 같은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A]~[E]를 통해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삶이 동일시됨으로써,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 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나)는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 놓고 면면히 겨울을 이겨 낸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주제를 제목 '면면함'에 함축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A]~[E]에서는 지난겨울의 추위와 상처를 이겨 내고 봄을 맞아 생명력을 뿜어내는 나무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을 지키며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동일시하여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 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273 답 (1) 느티나무 (2) 상처투성이인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느티나무, 별)'은/는 면면히 겨울을 이겨 낸 존재로, 마을 사람들에게 생(生)의 의미를 일깨운다.

〈보기〉에 따르면 '느티나무'는 면면히 겨울을 이겨 내어 생명을 이어 간 존재로, 이는 생(生)의 의미로 확장되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운다고 하였다. 한편, '별'은 우듬지 끝에 하나 매달지 못한 것으로 희망, 꿈을 의미한다.

(2) 상반 느티나무가 (상처투성이인,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모습은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피폐한 모습과 관련된다.

〈보기〉에서 (나)는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으며,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 놓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겨울동안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느티나무는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면서 피폐해져 가는 농촌 사회의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다. 한편, '초록의 광휘'는 겨울의 시련을 이겨 낸 나무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27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에는 상실한 세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노동의 모습을 통한 자아 성찰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가)에는 '집'과 '땅'을 상실한 화자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보기〉의 화자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으므로 자아 성찰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는 농촌의 현실을 잊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기〉는 농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집'과 '땅'을 잃은 현실에 좌절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할 뿐, 농촌의 현실을 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보기〉의 화자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동받고 있다.

② 부재 (가)에는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이 대비되고 있으며, 〈보기〉에는 현실적 공간과 환상적 공간이 대비되어 있다.

(가)의 화자는 '집'과 '땅'을 잃은 현재의 공간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의 공간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1연에서 화자의 '꿈'이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적 공간과 현재의 공간이 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는 보리타작이 이루어지는 현실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환상적 공간과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교체 (가)에는 자연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의 갈등이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동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으나, '집'과 '땅'을 잃어 유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에서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에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농민은 계절의 흐름에 맞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삶을, 화자는 벼슬길을 헤매었다는 점에서 세속적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건강한 노동의 현장을 '낙원'이라 인식하고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겠느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적 삶과 세속적 삶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가)에는 부정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비애감이 드러나 있고, 〈보기〉에는 부정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집'과 '땅'을 잃고 떠도는 처지에 있으므로 비애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건강한 삶의 모습에 감동받고 있으므로, 농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없다.

35 가 고향 나 장독대

작품 분석 본문 136~139쪽

가 고향

작가 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향 상실의 비애감
특징 ① 변하지 않는 자연물과 변해 버린 인간사가 대비됨.
② 매 연을 2행씩 배치하고 1연과 6연에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구현함.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고향**)에 돌아왔으나 그리던 고향이 아님.
❷ 고향의 (**정경(풍경)**)은 변함이 없음.
❸ 고향이 (**낯설게**) 느껴짐.
❹ 고향의 (**정경(풍경)**)은 변함이 없음.
❺ 고향에서 정겨운 (**추억**)을 찾을 수 없음.
❻ 고향의 (**하늘**)은 변함이 없음.

나 장독대

작가 이재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묘사함.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줌.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강조함.
④ 도치법과 영탄법, 의도적 행갈이 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어머니의 (**기도**)를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❷ (**어둠**)도 범접할 수 없는 장독대 위의 정한수 담긴 흰 대접
❸ 이른 새벽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와 그 정성에 감동한 만물
❹ 어떤 상황에도 (**줄지**) 않은 어머니의 (**정한수**)
❺ 삶의 (**위안**)이자 (**지혜**)이신 어머니

27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가)는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에서 청각적 심상, '산 꿩이 알을 품고', '떠도는 구름', '흰 점 꽃' 등에서 시각적 심상, '쓰디쓰다'에서 미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 역시 '정한수 담긴 흰 대접' 등에서 시각적 심상, '밤새 울음', '서울행 기차 목쉰 기적'에서 청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는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

(가)는 1연과 유사한 구조가 마지막 연에서도 반복된다는 점에서 변주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에는 수미상관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부재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다.

(가)와 (나) 모두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 행의 '어른이시여'에서 '여'가 정중하게 부르는 뜻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가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장독대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는 내내 위안이 되었던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보기는 어렵다.

③ 범위 오류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가)는 '고향에 고향에'처럼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가)는 1연의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에서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27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통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뿐, 산업화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는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는 의도적으로 음보율을 파괴한 5연 1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은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의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나)의 '밤새 울음', '서울행 기차 목쉰 기적'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나)는 (가)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정서가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있다. 반면 (나)는 '있었다', '하였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셨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오·오·이

① (가), (나)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에서는 '흰 점 꽃', (나)에서는 '흰 대접, 흰빛, 홍조' 등에서 색채어를 통해 대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의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와 (나)의 '어둠은 도둑걸음으로 졸졸졸 고여 오다가', '감읍한 뒷산 나무들 ~ 웃어 주었다' 등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의도적으로 음절의 수를 변형한 시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의 '머언'은 의도적으로 음절의 수를 변형한 시어로, 멀리 있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나)에는 의도적으로 음절의 수를 변형한 시어가 쓰이지 않았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졸졸졸', '툭툭', '벌컥벌컥' 등의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반면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27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과 ㉡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내면세계를 나타낸다.

1연에서 화자가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의 고향을 가리키는 ㉠과 마음속 고향인 ㉡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괴리를 경험한 화자가 안식처를 잃고 방황하는 마음을 '구름'을 통해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과 ㉡을 이어 주는 매개물이다.

'구름'은 화자의 방황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현실의 고향인 ㉠과 마음속 고향인 ㉡를 이어 주는 매개물로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현실의 고향인 ㉠이 아니라 마음속 고향인 ㉡이며, '구름'은 마음의 안식처를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줄 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지 않는다.

③ 헛짚기 ~~㉡의 부재를 화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구름'은 마음속 고향인 ㉡의 부재를 인식한 후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지, '구름'을 통해 ㉡의 부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다.

④ 헛짚기 ㉠과 ~~㉡의~~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이다.
현실의 고향인 ㉠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마음속 고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 현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속 고향인 ㉡은 화자가 간직해 온 고향의 모습이므로 부정적 현실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름'은 먼 항구를 떠돌고 있으므로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279 답 (1) 현실의, 마음속 (2) 불일치 (3) 상실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은 (현실의, 마음속) 고향이고, ㉡은 (현실의, 마음속) 고향이다.

(2) 상반 (가)의 화자는 현재 ㉠과 ㉡의 (일치,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현재 현실의 고향인 ㉠에 돌아와 있는 상태이나, 자신이 마음속에 그리던 과거의 고향인 ㉡과 다름을 인식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3) 교체 '구름'은 ㉠을 접한 뒤에 안식처를 잃고 방황하는 (가)의 화자의 (상실감, 분노)을/를 드러낸다.
278번-⑤의 해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구름'은 안식처인 마음속 고향을 잃은 (가)의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가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8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정한수의 성격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정한수'는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그런데 '밤나무'의 가지가 손 뻗어 와도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가 정한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기도의 주체인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나)의 6~8행으로 보아 ⓐ에서의 '기도'의 주체가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이제 만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며 화자는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 어둠도 범접하지 못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정한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한수'는 '흰 대접'에 담겨 '은은한 빛'을 내뿜는, 정결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어둠'이 정한수에서 나오는 빛에 놀라 내빼는 모습은, 어둠도 범접하지 못하는 정한수의 깨끗하고 순수한 속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 의도적 행갈이를 통해 시의 호흡을 조절하고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웃어 주었다'는 바로 위 시행의 '별꽃 서너 송이'에 대한 서술어이지만, 의도적으로 행을 나누어 잠시 쉬어 읽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의 호흡을 조절하고 어머니의 기도에 감동한 자연물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는 어머니와 동일시된 장독대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움 등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① ⓐ: 기도의 주체인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② ⓑ: 어둠도 범접하지 못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정한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④ ⓓ: 정한수의 성격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주제와 밑줄 친 부분의 앞뒤 맥락을 모두 살펴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②는 어둠이 피하는 '흰빛'이 '정한수'를 담는 '흰 대접'의 빛이라는 것을 바로 위의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④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에서 정한수의 속성에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앞뒤 문맥에서 시구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3연에서 이르러서야 등장하는 ①이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작품을 읽어 가다 보면 의외로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28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결함**: 순수하고 깨끗하며 단아함.
- **감응**: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 **이탈**: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

정·정·이

① 화자 오류 [A]: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A]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화자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 표현으로,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화자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낼 뿐,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② [B]: '흰 대접', '은은한 빛', '흰빛'을 통해 '정한수'의 속성을 드러내어 어머니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

280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정한수'의 정결한 속성은 어머니의 '깨끗한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C]: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만물을 감응시킬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한다.

잔가지를 흔드는 '뒷산 나무들'과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주는 '별꽃' 등은 천지 만물도 감동할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지극했음을 의인법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④ [D]: 화자의 방황과 이탈 심리를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마르지 않은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제시한다.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이나 광석면의 들판을 가로지르는 '서울행 기차' 등을 통해 화자의 방황이나 이탈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줄지 않은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다.

⑤ [E]: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장독대'에 인격을 부여한다.

'장독대'를 두고 '사는 동안 내내 위안이고 지혜이신 어른'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가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인격을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과거에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는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 ×)

〈보기〉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실 때면 아무도 어머니를 범접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나)의 4~5행에서 '어둠'도 흰빛에 놀라 내뺐다고 하였으므로, 과거의 화자 역시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어머니가 정한수를 장독대 위에 올리시고 기도를 하셨던 새벽녘의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 ×)

(나)의 6~21행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던 새벽녘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그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화자 오류 현재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올리고 있다.~~ (○, ×)

1행에서 다시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깨끗한 기도'를 만날 수 없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자리엔 '장독대만' 놓여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화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올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8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는 잃어버렸던 ~~유년의 꿈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허망함이 담겨 있을 뿐, 잃어버렸던 유년의 꿈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고향'은 화자가 현실에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찾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보기〉를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고향'이 현실에서의 아픔과 슬픔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화자의 꿈을 담은 정신적 안식처임을 알 수 있다.

②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에는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③ '항구로 떠도는 구름'은 자신이 추구하는 고향을 찾지 못한 화자의 정신적 방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제철에 우는 '뻐꾸기'는 고향에서 만난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다(②). 자연은 그대로인데 '고향'만은 화자가 그리던 모습이 아니기에 정신적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화자가 이를 '항구로 떠도는 구름'에 비유하여(③) 표현한 것이다.

④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심리적 거리로 인한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화자는 '뫼 끝에 홀로' 올라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 씁쓸함을 느낀다. 이는 화자가 마음속에 간직해 온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 사이의 심리적 거리로 인해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이를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6 가 절정 나 생명

작품 분석 본문 140~143쪽

가 절정

작가 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 의지
특징 ① 강렬한 이미지의 시어와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냄.
② 역설적 표현, 은유법 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③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현실의 (**극한**) 상황
❷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
❸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의지**)

나 생명

작가 김남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
특징 ① 명제적 진술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② 구체적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함.
③ 변주된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줌.
④ 비유적 표현, 대구법 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고통을 거치며 탄생하는 (**생명**)
❷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실**)
❸ 고통을 통해 성숙해 가는 (**겨울나무들**)
❹ (**고통**)을 모르고 감쌀 줄도 모르는 이는 친구라 할 수 없음.
❺ 고통 끝에 얻는 (**생명**)의 결실

28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생동감**: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정·정·이

② 추상적 관념을 시각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는 가혹한 현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겨울'로 나타내고, 이를 다시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무지개'로 구체화한 표현이다. 고통의 시간인 겨울을 희망의 이미지인 무지개로 전환하여 극한 상황의 초극 의지라는 주제를 드러낸 것이다. (나)는 '생명'이라는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인 '겨울 보리'나 '겨울나무' 등에 비유하고, '진실'이라는 관념을 불에 타고 피 흘리면서 오는 것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음성 상징어를 제시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나)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라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가)는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마지막 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에서 추측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서는 추측의 표현이 쓰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나)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겨울나무들을 보라',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에서 명령형 어조를 통한 화자의 단정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명령형 어조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285 답 (1) (가), (나) (2) (나)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겨울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 (나))
(가)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고, (나)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나)는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
(나)의 2연에서는 '~지고 ~면서 온다'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진실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연에서는 '~ 줄 모르는 이는 / 친구가 아니다'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고통을 모르고 감쌀 줄도 모르는 이를 친구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범위 오류 (가)는 수평적 한계 상황과 수직적 한계 상황을 설정하여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가))
(가)의 1연에서는 '북방'이라는 수평적 한계 상황을, 2연에서는 '고원'이라는 수직적 한계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을 구체화하면서 화자의 절박함과 초극 의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8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가)는 ~~화자가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에는 의인화된 청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가)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북방',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와 같은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이 점차 심화됨을 부각하고 있다.

③ (나)는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1연을 마지막 연에서 변형하여 반복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매운 계절', '북방', '고원' 등에 비유하여 화자가 처한 가혹한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 의지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충전 부싯돌', '열두 대문', '함박눈 눈송이' 등에 비유하여 각각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줄기, 시련과 고난, 고통 끝에 얻는 생명의 결실 등을 나타냄으로써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가)는 '오다', '서다', '없다', '보다'와 같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극한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나)는 '온다', '다듬는다', '아니다'와 같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명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상황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28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 화자가 ~~고단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한 발 제겨디딜 곳'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는 자세~~를 본받고 싶어졌다.

3연에서 화자는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며 무릎 꿇을 곳을 찾아보지만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라며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였다거나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 작품 속 계절적 상황이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으니 혹독한 추위가 실감나게 느껴졌고,

1연에서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릿발'이라는 시어에서는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1연의 '매운 계절'에 이어 2연에서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릿발'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 이러한 겨울의 이미지들이 '북방'과 '고원'이라는 극한적 공간의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1연의 '북방'과 2연의 '고원'은 화자에게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휩쓸려 오'게 된 극한의 공간으로, '서릿발' 같은 겨울 이미지들과 맞물려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3연에서는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인 '겨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4연에서는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면서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오 지름길

⑤ ⓔ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3연에 나타난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이 4연의 '이러매'를 기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먼저 알아채야 해요. 이때 화자가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라며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파악했다면 ⑤의 정오 판단이 쉬웠을 거예요.

28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는 극한의 상황에 ~~굴복하였음을 보여 준다.~~ (○, ⊗)

'무릎을 꿇'는 행위는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염원의 자세일 뿐, 이 상황에 굴복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2)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에서는 현실 초극의 의지가 드러난다. (○,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는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강철과 희망의 이미지인 무지개를 결합한 역설적 표현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현실 초극의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8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화자는 자신뿐 아니라 '하늘'마저도 지쳐 고원에서 끝이 났다는 것에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났다는 표현은 화자가 '채찍'에 갈겨 휩쓸려 온 '고원'이 그만큼 극한적 공간임을 드러낼 뿐, 화자가 '하늘'에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채찍에 갈겨'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짐작하게 해.

③ 화자가 '북방'에서 '고원'을 지나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까지 서게 된 것으로 보아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것 같아.

(가)에서 화자는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 '고원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까지 서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혹독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①), 이러한 극한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③).

④ '어데'는 화자가 위안을 얻기 위해 찾는 장소이나,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 닿지 못하는 곳이야.

'채찍'에 갈겨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게 된 화자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염원의 마음으로 '어데'로 가 무릎을 꿇고자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그러므로 '어데'는 화자가 위안을 얻기 위해 찾는 장소이나, 상황의 악화로 닿지 못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보겠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있어.

28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는 4연의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이후로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며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감내: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냄.

정·정·이

⑤ 교체 ~~'장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군.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

4연에서 화자는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를 부정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겨울 보리'의 모습에서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1연에서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는 생명의 속성을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자연물인 '겨울 보리'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진실'이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오는 모습에서 삶의 진실도 생명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2연에서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고 하였으므로, 고통을 동반하는 '진실'의 속성도 생명의 속성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 몸'을 '추위의 면도날'로 '다듬'는 '겨울나무'의 모습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떨어져' '불려 가'는 '잎'과 '충전 부싯돌'인 '줄기'의 모습에서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겨울나무'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③). 그리고 이렇게 '겨울나무'가 '제 몸을 다듬'어 '잎'이 떨어진다고 표현한 것에서 소멸을, '줄기'를 불씨를 일으키는 '충전 부싯돌'에 비유한 것에서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④).

291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겨울 보리'와 '겨울나무'는 생명의 속성을 보여 준다. (○, ×)

〈보기〉에서 (나)는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며 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겨울 보리'와 '겨울나무'가 바로 생명의 속성을 보여 주는 자연물로 제시되고 있다.

(2) '진실'이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는 것은 삶의 진실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 ×)

〈보기〉에서 삶의 진실 또한 생명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진실'이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또는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는 것은 고통을 통해 진실을 얻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3)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겨울나무'의 모습은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 ×)

〈보기〉에서 (나)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겨울나무'가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모습은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상반 화자는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와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를 '추운 몸'과 ~~유사하게~~ 대조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

화자가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와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추운 몸'은 또 다른 생성 또는 삶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존재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대조적이다.

29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시인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함박눈'처럼 누워 버리는 존재를 ~~부정적으로~~ 여기겠군.

(나)에서 '함박눈'은 고통 끝에 얻는 생명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존재로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시인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삶에 애착을 갖고 '살아 있는 것'에 애정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생명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는 함박눈을 부정적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언 땅', '추위' 등은 시인이 체험한 극한 상황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겠군.

(나)에서 '언 땅'과 '추위'는 생명이 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시인이 한국 전쟁으로 겪게 된 극한 상황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② 시인은 '금 가고 일그러진'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시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나)에서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금 가고 일그러진'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는 시인이 생각하는 존재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시인은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천착하여 존재의 본질을 노래하였다고 했다.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는 것은 (나)의 주제를 함축하는 구절로 생명의 본질이 고통을 통해 완성됨을 드러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초록의 겨울 보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애착을 갖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군.

(나)에서 '겨울 보리'는 언 땅에서도 추위를 견디고 초록빛의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보기〉에서도 극한 상황에 노출된 인간은 도리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겨울 보리'는 이러한 인간과 비슷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37 가 성에꽃 나 첫사랑

작품 분석 본문 144~147쪽

가 성에꽃

작가 최두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① '성에꽃'을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③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현장감 있게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새벽 시내버스에서 본 (**성에꽃**)
❷ 성에꽃에서 발견한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
❸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
❹ 뜻을 같이했던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나 첫사랑

작가 고재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② 설의적·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사용됨.
③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④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시련
❷ 헌신과 노력 끝에 얻은 아름다운 (**눈꽃**)
❸ (**봄꽃**)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상처

29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막막한 한숨이던가', '정열의 숨결이던가', '친구여'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 및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인내와 헌신으로 눈꽃을 피워 낸 눈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 (나) 모두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나)에서는 '싸그락 싸그락' 등의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눈이 내리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지만,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서 반어적 표현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명령형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나)의 '황홀 보아라'에서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는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94 답 (1) (나) (2) (가), (나) (3) (가),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나)는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나))
(나)의 '저 황홀 보아라'는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많은 도전과 노력 끝에 눈꽃을 피워 낸 눈에 대한 감탄을 부각한 표현이다.

(2) 자연 현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 (나))
(가)는 새벽 시내버스의 창가에 피어난 성에꽃을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 낸 사랑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다.

(3)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가)의 '어느 누구의 ~ 정열의 숨결이던가'는 의문형 어미 '-던가'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애환과 열정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나)의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는 의문형 어미 '-으랴'를 활용하여 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29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나)의 '난분분 난분분'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눈의 고결한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군.
'난분분 난분분'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시어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눈의 고결한 순수함을 표현

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가)의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에서는 '성에꽃'을 '찬란한 치장'과 비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군.

'찬란한 치장'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한숨과 숨결이 얼어붙어 만들어진 성에를 '꽃'과 '찬란한 치장'에 비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막막한 한숨이던가'와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는 시구의 반복·변형을 통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군.

'-던가'를 반복하고 변주함으로써 성에꽃이 상징하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에서는 가지에 피어난 눈꽃을 '황홀'과 비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군.

'황홀'은 나뭇가지에 핀 '눈꽃'을 비유한 표현으로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을 보는 화자의 기쁨이 반영되어 있다.

⑤ (가)의 '차가운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운 상처'에서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시련을 이겨 낸 존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가)의 '차가운 아름다움'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열정이 담긴 입김과 숨결로 만들어진 성에꽃을 묘사한 것이다. 화자는 '엄동 혹한'과 같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시련을 이겨 낸 존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아름다운 상처'는 수백 번의 미끄러짐 끝에 눈꽃을 피워 낸 후, 봄을 맞아 그 자리에 피운 꽃의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말로, 시련을 이겨 낸 후의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29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력감**: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 **심취**: 어떤 일이나 사람에 깊이 빠져 마음을 빼앗김.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성에꽃을 지우는 태도를 통해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시내버스 창에 핀 성에꽃을 보며 서민들의 삶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볼 때, 화자가 입김으로 성에꽃을 정성스레 지우는 행위를 무력감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A]: 계절적 배경과 관련지어 차창에 핀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엄동 혹한일수록 / 선연히 피는 성에꽃'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운 겨울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B]: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이루어진 성에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화자가 차창에 핀 성에꽃을 보며,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와 같은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로부터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C]: 서민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성에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있다.

화자는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들어 낸 '성에꽃'을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과 같다고 느낀다. 그리고 '성에꽃'을 '전람회에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며 '차가운 아름다움'에 심취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E]: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면회마저 금지'되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드러낸 말로, 오랫동안 뜻을 함께한 친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97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엄동 혹한'은 계절적 배경을 보여 주는 동시에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

'엄동 혹한'은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보여 줌과 동시에 추위 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 준다.

(2) 화자 오류 '전람회에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는 화자에게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의적 태도가 드러난다. (○, ×)

'섬세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는 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화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는 것은 성에꽃의 아름다움, 즉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에 심취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에꽃이나 서민들의 삶에 대해 화자가 의심을 품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29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공동체적**: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또는 그런 것.
- **은밀히**: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정·정·이

② '성에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심미적 태도란 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성에꽃'은 새벽 시내버스에 탄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같은 서민들이 피워 낸 것으로, 화자는 이 성에꽃이 서민들이 공동으로 어울려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성에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 화자는 ~~지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화자가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서민들의 숨결과 입김이 만들어 낸 성에꽃이다. 이때 '새벽'이라는 시간과 '시내버스'라는 공간은 서민들이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일 뿐, 화자가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화자 오류 '성에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화자는 성에꽃이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피워 낸 것이기 때문에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한 것이지, 은밀한 방식으로 피어서 아름답다고 한 것은 아니다.

④ 화자 오류 '성에꽃'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 있어.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

화자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성에꽃'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에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화자는 성에꽃의 한 잎을 지운 뒤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의 삶을 떠올려 보던 화자가 뜻을 함께했던 친구를 연달아 떠올린 것일 뿐이다. 또한 화자는 회상 전에 이미 성에꽃에서 '섬세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에 취하였으므로, 회상을 통해 성에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29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헌신적**: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정·정·이

③ 교체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눈)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봄꽃~~(눈꽃)의 기쁨으로 볼 수 있다.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눈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눈꽃'을 가리킨다. 이 눈꽃을 '황홀'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의 기쁨과 눈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다.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표현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이를 인내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는 나뭇가지에 대한 눈의 헌신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눈은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는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한 번 덴 자리'는 눈이 녹은 자리이자 봄꽃이 피는 자리라는 점에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한 번 덴 자리'는 눈꽃이 녹은 자리이면서 봄꽃이 피어나는 자리이다. 수많은 도전과 미끄러짐을 거쳐 눈꽃을 피운 자리에 봄꽃이 핀 것이라는 점에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⑤ '아름다운 상처'는 끝없는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인 봄꽃으로 볼 수 있다.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아름다운 상처'는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은 나뭇가지가 눈꽃이 녹은 자리에 피워 낸 봄꽃이자 사랑의 결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00 답 (1) 눈꽃을 피우기 (2) 순간적인, 인내와 헌신 (3) 눈꽃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싸그락 싸그락'과 '난분분 난분분'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바람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보기〉에서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라도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싸그락 싸그락'과 '난분분 난분분'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은 첫사랑의 (순간적인, 우연적인)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열정, 인내와 헌신)의 존재이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은 바람 한 점에도 눈꽃이 쉽게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로, 첫사랑의 순간적인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화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위하여' 눈이 '마음을 다 퍼부어' 준다고 하였으므로, 눈은 '인내와 헌신'의 존재라 할 수 있다.

(3) 교체 눈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것은 (눈꽃, 봄꽃)이다.

〈보기〉에 따르면 눈은 눈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눈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 피워 낸 것은 '봄꽃'이 아니라 '눈꽃'임을 알 수 있다.

30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보기〉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보기〉는 '우수절', '눈', '얼음' 등의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봄눈이 내리는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눈', '봄' 등의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보기〉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는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부재 〈보기〉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③ 범위 오류 〈보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기〉에는 화자의 공간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나)에서는 내용상 '한겨울 눈이 내림. → 마침내 나뭇가지에 눈꽃이 핌. → 봄이 되어 눈꽃이 사라진 자리에 봄꽃이 핌.'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어 시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보기〉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멈추지 않았으랴'는 설의적 표현으로, 눈꽃을 피워 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 눈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선뜻!', '차라', '향기로워라', '설어라', '싶어라'와 같은 영탄적 표현은 나타나지만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③ 〈보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상 전개에 있어서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직접 움직여서 위치가 바뀌어야 성립해요. 〈보기〉에서 화자는 문을 열어 먼 산에 눈이 쌓인 것을 발견하지만 직접 공간을 이동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처럼 시에 장소나 공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등장할 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오해하기 쉬워서 이를 매력적인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주의하여 화자의 시선만이 아니라 화자가 있는 공간도 함께 바뀌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38 가 추일서정 나 아마존 수족관

작품 분석 본문 148~151쪽

가 추일서정

작가 김광균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황량한 가을날의 도시 풍경 속에서 느낀 상실감과 고독
특징 ①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비유법, 공감각적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가을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③ 소멸·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가을날의 도시 풍경의 황량함을 제시함.
한 줄 의미
❶ 쓸쓸한 (가을)의 풍경
❷ 적막한 풍경 속에서 느끼는 (고독)

나 아마존 수족관

작가 최승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도시 문명 속의 무가치한 삶과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소망
특징 ① 물질문명 속에 사는 현대인을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에 비유하여 현대인의 내면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함.
②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③ 공감각적 이미지, 역설적 표현 등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함.
④ 동일한 시어 및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도시)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함.
❷ (생명력)이 넘치는 (아마존)의 모습을 봄.

30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가)의 '낙엽', '가을 하늘' 등에서 가을이 계절적 배경임을 알 수 있으며, '낙엽'을 '망명 정부의 지폐'에 비유하고, 전쟁의 포화에 무너진 '도룬 시'를 언급함으로써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나)의 '여름밤'에서 여름이 계절적 배경임을 알 수 있고, 자동차들이 질주하느라 길에서는 고무 탄내가 나고, 상품들이 무질서하게 나오며 소음이 부글거리는 도시의 여름밤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정신적 가치를 상실한 황폐하고 삭막한 도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반면 (나)의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물속에 있어서 목이 마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열대어들이 '목마르다'고 모순적으로 표현한 역설적 표현으로, 생명력과 자유로움과 같은 정신적 가치가 결핍된 상황을 강조한다.

② 범위 오류 (나)는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에는 시어의 반복과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는 여름밤'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도시 문명의 황폐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④ 범위 오류 (나)는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한 것을 계기로 삭막하고 황폐한 도시에 생명력과 자유로움이 회복되는 전환이 일어난다. 이로써 시적 상상력으로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나)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에서는 '수족관'과 '아마존강'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생명력과 자유로움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303 답 (1) (가) (2) (가), (나) (3) (가), (나) (4)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는 시적 허용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
(가)의 '호올로'에서는 '홀로'를 의도적으로 늘여 씀으로써 고독한 상황을 보다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2) 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 (나))
(가)는 가을날의 황량한 도시 풍경과 고독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도시 문명에서의 무가치하고 황폐한 삶과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3)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 (나))
(가)의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에서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나)의 '노란 달이 ~ 향기롭게 출렁이고'에서는 시각을 후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4) 범위 오류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나))
(나)의 '아마존 수족관집',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아스팔트', '열난 기계들', '종이꽃', '철근', '간판' 등은 삭막한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지니는 반면, '아마존강', '노란 달', '후리지아꽃'은 생명력이 충만한 원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서로 대립된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 생명력과 자유로움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부각하고 있다.

30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공물**: 인공(사람의 힘으로 자연에 대하여 가공하거나 작용을 하는 일)적으로 만든 물체.

정·정·이

③ (가)는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나)는 인공물을 자연물에 빗대어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는 낙엽, 구름 등의 자연물을 각각 '지폐', '셀로판지' 등의 인공물에 빗대고 있으며, (나)는 상품을 자라나는 식물처럼 묘사하고 철근을 '밀림'과 같은 자연물에 빗대어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다)와 달리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에서는 '~는 여름밤'의 문장 형태를 변주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가)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나)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나)에도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둘 다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가)와 (나)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여 대상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30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원시 자연의 생명력과 자유로움이 결핍된 것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아스팔트'는 도시 문명의 소재이고, '고무 탄내'는 불쾌감을 환기하는 후각적 심상이므로, ㉠은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 도시 건물의 철근과 간판에서 열대 아마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검정 길에서 보이는 '철근'에서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여름밤에 빛을 발산하는 '간판'에서는 아마존의 열대 기후를 연상했다고 볼 수 있다.

④ ㉣: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한 뒤, 화자는 생명력이 넘치는 아마존 풍경을 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시'는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소재로서,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⑤ ㉤: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한 모습은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서 출렁이는 것과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③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비판적인 작품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라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목마르다'라는 시어와 〈보기〉에 제시된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만 보면 ③은 더 그럴싸해 보여요. 이처럼 다른 작품에도 자주 제시되던 내용으로 선지가 구성된 경우일수록, 시간을 투자해서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에서 '목마르다'는 아마존강이 아득히 멀어서 비롯된 결과로, 2연에 따르면 아마존강은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생명력이 결핍된 데에 대한 갈증을 '목마르다'로 표현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조급해할수록 실수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돼요.

30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나는 '연기'와 아스팔트에서 나는 '고무 탄내'는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을 반영한 소재이다. (○, ×)

305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나는 '연기'와 아스팔트에서 나는 '고무 탄내' 모두 불쾌함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반 상품들이 자라나며 피운 '색색이 종이꽃'은 화자가 ~~추구하는 생~~

~~명력 넘치는 세계~~의 모습과 관련된다. (○, ⊗)

상품들이 자라나며 피운 '색색이 종이꽃'은 물질문명의 번성으로 생겨난 생명력 없는 존재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 넘치는 세계의 모습을 상징하는 '후리지아꽃'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3)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계기에 해당한다. (⊙,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정신적 가치가 결핍되어 느끼게 된 갈증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한 뒤 충만한 생명력을 지닌 '후리지아꽃'이 만발하였으므로, 열대어들이 목마른 상황은 '시'를 선물한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물질문명**: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명.
- **회화성**: 회화(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에 형상을 그려 내는 조형 미술)가 가지는 특성. 또는 회화적인 특성.

정·정·이

② 헛짚기 '폴-란드 망명 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보기〉에서 「추일서정」의 작가는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사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는 쓸모없이 나뒹구는 낙엽의 모습을 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망명 정부의 지폐에 비유하여 황폐한 도시 풍경을 나타낸 것일 뿐, 폴란드가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낙엽'과 '포푸라 나무'는 근경, '급행열차'와 '구름'은 원경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구성되는군.

(가)의 전반부에서는 '낙엽'이 떨어지는 근경과 '급행열차가 들을 달'리는 원경을 묘사하면서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부에서는 '포푸라 나무'가 서 있는 근경과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원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와 같은 인상을 준다.

③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과 '돌팔매'가 잠기어 가는 도시 풍경을 통해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공장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은 퇴색한 공장 지붕을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풍경은 화자에게 황량함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돌팔매'는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던진 것으로 '고독한' 반원을 그리며 떨어진다는 점에서 화자의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셀로판지'는 물질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구름을 표현하는 보조 관념으로 쓰여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군.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 물질문명적 이미지를 지닌 '셀로판지'에 비유하여 얇은 구름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까지도 시각화한 표현으로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군.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연기나 안개 따위가 잔뜩 끼어 흐릿하다는 의미의 '자욱한'과 연결하여 시각화한 표현으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308 답 (1) 대상의 이미지 (2) 황량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숭고한**: 뜻이 높고 고상한.

정·정·이

(1) 교체 '포화에 이즈러진 / 도룬 시'와 같은 역사적 소재는 (화자의 역사의식, 대상의 이미지)을/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보기〉를 통해 작가가 대상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포화에 무너진 '도룬 시'는 황폐한 도시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 비유한 역사적 소재일 뿐, 화자의 역사의식을 보여 주지 않는다.

(2) 교체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화자의 (황량한, 숭고한) 정서와 관련된다.

〈보기〉에서 (가)는 회화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철책 한 가닥이 바람에 나부끼는 풍경은 화자의 황량한 정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30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군.

'길'을 '구겨진 넥타이'에 비유한 것은 도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일 뿐,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낙엽'을 무상감이 느껴지는 소재인 '망명 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도시 풍경을 묘사하고 있군.

망명 정부에서 발행한 지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무상감이 느껴지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력을 잃고 바닥을 나뒹구는 낙엽을 이러한 이미지의 소재와 연결하여 황폐한 도시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급행열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원경을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군.

멀리서 연기를 내뿜으며 들을 달리는 '급행열차'가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급행열차'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군.

⑤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고독한 반원'이라고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화자는 주체할 수 없는 황량함을 떨쳐 버리려 '허공'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이로 보아 '허공'은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④). 이렇게 던진 돌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고독한 반원'을 그리며 땅에 떨어지므로 화자의 외로움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⑤).

31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공장의 지붕'과 '포푸라 나무'의 대비를 통해 도시의 쓸쓸한 풍경을 강조하고 있군.

'공장의 지붕'은 퇴색하여 '흰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 '포푸라 나무'는 '근골'과 같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상태라는 점에서 도시의 쓸쓸한 풍경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의 지붕'과 '포푸라 나무'가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망명 정부의 지폐', '넥타이', '셀로판지' 등은 비유에 잘 활용되지 않은 낯선 소재로 볼 수 있군.

〈보기〉에서 「추일서정」에는 기존 작품들에 활용되지 않았던 낯선 소재를 매개물로 삼아 비유한 표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망명 정부의 지폐', '넥타이', '셀로판지' 등은 그러한 소재에 해당하는 낯선 소재로 볼 수 있다.

② 주로 풍경을 묘사한 앞부분에서 화자가 가을날의 도시로부터 기계적·물질적인 인상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군.

⑤ '황량한 생각'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도시 풍경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서 「추일서정」의 앞부분은 주로 풍경을 묘사하고 뒷부분은 화자의 행위와 정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가)의 앞부분인 1~11행에서는 기계적·물질적 이미지를 지니는 시어인 '지폐', '포화', '넥타이', '급행열차' 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가을날의 도시 풍경으로부터 화자가 기계적·물질적 인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②).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라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⑤).

④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는 화자가 황량함을 떨치기 위해 한 돌팔매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군.

〈보기〉에 따르면 작품의 뒷부분인 (가)의 12~16행에는 화자의 행위와 정서가 드러나 있다. 여기서 화자는 혼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이때 황량함을 느끼며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황상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는 황량함을 떨치기 위해 한 돌팔매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9 가 별 헤는 밤 나 귀뚜라미

작품 분석 본문 152~155쪽

가 별 헤는 밤

작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과 자아 성찰을 통한 미래 지향 의지
특징 ① '현재 – 과거 – 현재 – 미래'로 시상을 전개함.
② 감정 이입과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③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을 삽입하여 운율에 변화를 줌.
한 줄 의미

❶ 가을밤 (**별**)을 보며 상념에 잠김.
❷ 별을 보며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움**)을 느낌.
❸ 현재의 (**부끄러운**) 삶에 대한 성찰
❹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생**) 의지

나 귀뚜라미

작가 나희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소외된 존재와의 공감과 소통
특징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아직 (**노래**)가 아닌 '나(귀뚜라미)'의 울음이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
❷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이기를 소망하는 '나(귀뚜라미)'

31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이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9연에서 '벌레'를 통해 화자의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귀뚜라미'를 통해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이기를, 즉 자신의 노래가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가 아니라 (나)가 '~ 울릴 수 있을까', '~ 노래일 수 있을까'처럼 의문형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범위 오류 (나)는 (가)와 ~~달리~~ 모두 대조의 방법으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마지막 연에서 '겨울'과 '봄'의 대조를 통해, (나)는 1연에서 '매미'와 '귀뚜라미'의 대조를 통해 갈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부재 (가)와 (나)는 모두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가)에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만,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나)에도 청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 등이 나타나지만,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진술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정·오 지름길

①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진술**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①과 ⑤는 둘 다 (가)와 (나)에 '의문형 진술'이 쓰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선지로, 결국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선지이므로 ①과 ⑤는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가)에는 의문형 진술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①과 ⑤는 한 번에 빠르게 정답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312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겨울'과 희망을 의미하는 '봄'을 대조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서는 '매미'와 '귀뚜라미',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과 '맑은 가을'을 대조하여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ㄷ.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리하는 자연물을 설정하고 있다.
311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ㄴ. 범위 오류 (가)는 열거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4연과 5연에서 화자가 별을 보며 떠올린 여러 가지 상념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열거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

ㄹ. 범위 오류 (가)는 산문처럼 서술한 연을 삽입하여 운율에 변화를 주고 있다.
(가)에서는 5연에서 산문 형식의 연을 삽입하여 운율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산문처럼 서술한 연을 찾을 수 없다.

31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가을'과 '겨울', '봄', (나)는 '매미(여름)', '가을' 등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수미상관~~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범위 오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나)에는 '귀뚜르르 뚜르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선명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공감각적 심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범위 오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31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A]의 '우는'은 부끄러움을 환기하고, [B]의 '울음'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소망을 의미한다.

[A]의 벌레의 울음은 부끄러운 자아로 인한 슬픔 때문이고, [B]의 귀뚜라미의 울음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기를 바라는 노래로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울음이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A]의 '흙'과~~ [B]의 '매미 떼'는 시련의 의미를 함축한다.

[B]의 '매미 떼'는 귀뚜라미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방해하는 존재이므로 시련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A]에서 '흙'은 화자가 부끄러운 자신의 이름을 덮는 소재이므로 시련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A]의 '언덕'과 [B]의 '계단'은 ~~극복해야 할 고난~~을 상징한다.

[A]에서 화자는 부끄러운 이름을 묻은 '언덕'에도 풀이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화자가 자기 희생을 통해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언덕'이 극복해야 할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다. [B]의 '계단'은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맑은 가을'이 귀뚜라미가 있는 '땅 밑'까지 내려갈 때 타는 것이므로, 극복해야 할 고난과는 거리가 멀다.

③ 범위 오류 [A]의 '봄'과 ~~[B]의 '시절'~~은 바람직한 미래의 시간을 나타낸다.

[A]에서 '봄'은 희망을 지니고 기다리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은 매미 소리에 묻혀 귀뚜라미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 시기로, '나(귀뚜라미)'의 소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재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 오류 [A]의 '이름자'는 ~~운명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B]의 '노래'는 ~~운명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A]에서 '이름자'는 부끄러운 자아를 가리키는 것일 뿐 운명을 거부하는 태도와는 관계없다. 또한 [B]에서 '노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와 관계없다.

3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가)의 '가을'은 화자가 성찰하는 시간이고, (나)의 '가을'은 화자가 기대하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가)의 화자는 '가을'에 별들을 헤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맑은 가을'은 '나(귀뚜라미)'가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밝은 미래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의 '벌레'와 (나)의 '매미'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다.

(가)의 '벌레'는 화자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나)의 '매미'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벌레'와 '매미'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아니다.

② 헛짚기 (가)의 '풀'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고, (나)의 '풀숲'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가)의 '풀'은 희망, 생명, 부활 등을 상징하고, (나)의 '풀숲'은 귀뚜라미처럼 소외된 이들이 지내는 공간을 의미한다.

31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정·정·이

①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관련된다.

(가)의 '별'은 아름답고 순수한 존재로서 화자가 그리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나)의 '울음'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하는 화자가 감동을 주는 도구로 삼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관련된다.

오·오·이

② 헛짚기 화자의 기원을 받아 주는 초월적 존재이다.

(가)의 화자는 '별'을 보며 여러 대상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있지만, '별'에 기원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울음' 역시 기원과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화자와 외부 세계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가)의 '별'과 (나)의 '울음' 모두 화자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나)의 '울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오히려 소통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④ 헛짚기 화자가 지니고 있는 세속적 욕망을 상징한다.

(가)의 '별'과 (나)의 '울음'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과 관련되므로 세속적 욕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화자의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가)의 '별'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일 뿐,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 (나)의 '울음'은 '가을'이라는 밝은 미래에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31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가슴에 새겨지는 별에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담겨 있군.

화자는 '별'을 매개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화자의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즉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등은 애틋한 그리움의 대상이다. 여기에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화자는 별을 보며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어.

화자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본다고 하며,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다.

② 화자는 별을 매개로 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있어.

화자는 별을 보며 상념에 잠기다가,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신의 '이름자를 써 보고 / 흙으로 덮어 버'리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화자가 별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별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가 투영되어 있군.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별'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 즉 희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 투영되어 있다.

⑤ 멀리 있는 대상을 생각하며 별을 헤는 행위에는 애틋함이 묻어나는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에게 그리움의 대상들은 너무 멀리 있다. 따라서 이들을 생각하며 화자가 별을 헤는 행위에는 애틋함이 묻어난다.

318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소명 의식**: 현실적·이념적·윤리적 명령이나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

정·정·이

(1) '별'은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자, 회상의 매개체이다. (○, ×)

(가)의 화자는 '별'을 매개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으며, '별'은 아름다움, 순수, 이상 등 화자의 이상향을 상징하고 있다.

(2) 헛짚기 '이름자를 써 보고 / 흙으로 덮어 버리'는 행위에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

'이름자를 써 보'는 것은 자아 성찰의 행위이며, 이를 '흙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한 반성적 행위이다.

(3) '밤을 새워 우는 벌레'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소명 의식과 관련된다. (○, ×)

〈보기〉에서 (가)의 작가인 윤동주는 시대에 대한 인식과 시인의 소명 의식을 노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가)는 지식인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벌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풀이 무성할 게외다'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 ×)

'풀'은 희망, 부활, 재생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봄이 오면 풀이 무성할 것이라고 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31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풀이 무성'한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드껴지는 암담한 분위기~~를 드러내는군.

'풀'은 희망, 부활, 재생 등을 상징하므로 이름자 묻힌 언덕에 '풀'이 무성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적인 미래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별'은 과거를 떠올리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동시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상징하는군.

화자는 '별'을 바라보며 과거의 추억과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고 있다.

② 화자가 '이름자'를 쓰고 이를 '흙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 후 이를 부끄러워하는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화자가 '이름자'를 쓰는 행위는 자아를 성찰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이름을 흙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③ '밤'과 '겨울'은 화자가 처한 고난과 시련, 어두운 현실을 상징하는군.

'밤'과 '겨울'은 부정적 이미지로 고난과 시련,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한다.

④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은 절망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난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2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은 ~~'매미'의 생명력과 대비되어 화자의 체념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화자는 매미 소리가 걷히고 맑은 가을이 되면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은 화자의 체념적 정서를 강화한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는 화자의 상황과 대조되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닌 '나(귀뚜라미)'의 울음과 대조되어 '나'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② '차가운 바닥'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의 열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차가운 바닥'은 '나(귀뚜라미)'가 있는 곳으로,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③ '귀뚜르르 뚜르르', '타전 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화자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는 '나(귀뚜라미)'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로, '나'는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맑은 가을'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시기로 화자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맑은 가을'은 '나(귀뚜라미)'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는 시기, 즉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시기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때를 의미한다.

40 가 조찬(朝餐) 나 파초

작품 분석 본문 156~159쪽

가 조찬(朝餐)

작가 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비 갠 후의 아침 풍경을 보며 느끼는 서러움
특징 ① 선경후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②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남.
③ 매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이 드러남.
④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 풍경을 묘사함.
⑤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비 갠 후 퍼지는 (**햇살**)과 골짜기를 옮겨 가는 (**구름**) – 원경
❷ 비에 젖은 도라지꽃과 (**차돌부리(차돌)**)의 모습 – (**근경**)
❸ 서러운 심정으로 (**흰 밥알**)을 먹음.

나 파초

작가 이태준
갈래 현대 수필
주제 파초에 대한 애정과 심미적 가치관
특징 ① 인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줌.
② 대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대비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파초**)의 멋을 즐김.
❷ (**앞집 사람**)으로부터 파초를 팔라는 제안을 받음.
❸ '나'가 파초를 팔라는 제안을 (**거절**)함.

32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원경**: 멀리 보이는 경치, 또는 먼 데서 보는 경치. ↔ 근경.

정·정·이

③ 헛짚기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자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2연은 '구름'이라는 명사로 연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여기서 구름은 '골을 옮기'며 움직이고 있으므로 정적인 모습이 강조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연은 비 갠 후 산골의 아침 풍경(선경)을, 5~7연은 서러운 화자의 정서(후정)를 드러내고 있다.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각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감을 주고 있다.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1~2연에서는 멀리 있는 '해ㅅ살'과 '구름'을 보고 있고, 3~4연에서는 화자의 근처에 있는 '길경 꽃봉오리'와 '차돌부리'를 보고 있다. 즉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4연에서 '죽순 돋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에 젖은 차돌부리의 모습을 동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32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 (×))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거나 '시리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비 갠 뒤의 아침 풍경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
'머흘 머흘', '촉 촉'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비가 온 뒤의 맑고 고요한 아침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풍경을 묘사한 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해ㅅ살', '구름'과 같은 원경에서 '길경 꽃봉오리', '차돌부리'와 같은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풍경을 묘사한 뒤,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2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나)는 ~~인물에 따라 대상의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여 대상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파초를 아끼는 '나'의 태도와 파초를 금전적인 대상으로 보는 '앞집 사람'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지만, '나'와 '앞집 사람'이 파초에 대한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는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서러운 새'에서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침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물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와 '시리다'와 같은 촉각적 이미지도 활용하고 있다.

③ (나)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와 '앞집 사람'의 대화를 통해 금전적,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와 같이 영탄법을 사용하여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32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에서 물소리를 듣고 이가 시릴 정도의 차가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서러운'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에서 비에 젖지 않으면서 비를 맞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 경험은 글쓴이로 하여금 비를 기다리게 하고, 나아가 파초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화자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은 '물소리'를 '시리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청각을 촉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상황을 '서늘함', 즉 촉각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킨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② 화자 오류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비
(가)의 화자가 '구름'을 기다린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나)에서 '나'는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은 '폭염'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헛짚기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차이점
㉠은 화자가 물소리를 통해 차가움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한 것일 뿐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나)에서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퉁'긴다고 하였으므로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차이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화자 오류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의 차가운 물소리는 서러운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을 화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의 '나'는 파초를 기르면서 파초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

325 답 (1) 청각, 촉각 (2) 시원함 (3) 서글픈, 애정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에는 (청각, 촉각)을 (청각, 촉각)으로 전이한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은 '물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이가 시리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하고 있다.

(2) 교체 ㉡은 파초가 빗방울을 퉁기는 소리의 (시원함, 우울함)을 표현한 것이다.
㉡은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3) 교체 ㉠은 화자의 (상쾌한, 서글픈) 정서를, ㉡은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 회피)의 정서를 자극한다.
㉠에서 물소리를 듣고 차가움을 느끼는 감각적 경험은 화자의 서글픈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에서 비에 젖지 않으면서 비를 맞는 듯한 감각적 경험은 화자의 파초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진다.

32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강화되는 시간이다.
(가)의 화자는 비 갠 후 햇살이 퍼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아침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두 여름' 동안 파초를 키우면서 파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되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와 ⓑ는 화자와 글쓴이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시간~~이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화자 오류 ⓐ와 ⓑ는 화자와 글쓴이가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 오류 ⓐ와 ⓑ는 화자와 글쓴이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가)의 화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두 여름'은 파초가 성장한 시간으로, (나)에 글쓴이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 오류 ⓐ는 화자가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고, ⓑ는 ~~대상이 글쓴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다.
(가)에서 화자가 아침의 풍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글쓴이가 파초의 성장을 '두 여름' 동안 지켜봤을 뿐, 파초가 글쓴이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볼 수 없다.

32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번뇌**: ①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 ②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妄念).
- **심미적**: 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것.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파초)이군.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 서러워하면서도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실의 무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챙'은 파초를 팔아 얻은 돈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글쓴이가 파초의 비 맞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챙'은 파초의 운치와는 거리가 먼 속물적 대상에 가깝다.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은 '파초'이다.

오·오·이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정지용의 작품에서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화자의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러움은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과 은둔이 좌절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보기〉에서 이태준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고, 이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가)에서 '서러운 새'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으로,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의 '나'는 파초가 죽을 것이라는 충고에도 파초를 팔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며 파초와의 교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 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가)의 1~4연에 묘사된 '해ㅅ살', '구름', '길경 꽃봉오리', '차돌부리' 등의 자연은 〈보기〉에 언급된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에 해당한다. 또한 (나)에 제시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은 '파초만은 은은히 ~ 뿌리고도 남는다.'라고 감각적으로 서술됨으로써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328 답 (1) 이상적 (2) 좌절 (3) 교감 (4) 속물적인 현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아침 풍경 속 '해ㅅ살', '구름', '꽃봉오리', '차돌부리'와 같은 자연은 (이상적 / 속물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가)는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묘사하는 아침 풍경은 이상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상반 (가)의 화자의 서러움은 현실의 번뇌로 인해 지향이 (달성, 좌절)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327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의 화자는 현실의 번

뇌로 인해 지향이 좌절되어 서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나)에서 '파초'는 '나'와 정서적으로 (교감 대립)하는 대상이다.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는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고 하였으므로, '파초'는 '나'와 교감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4) 교체 (나)에서 '파초'는 '나'가 (속물적인 현실 초월적인 자연)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다.
〈보기〉에서 이태준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파초를 팔라는 옆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고 파초를 곁에 두고 즐기려는 '나'의 모습에는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32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서러운 새'는 자연의 세계에 침범한 현실적 번뇌와 억압 때문에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겠군.
'서러운 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침범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화자의 서러운 감정을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시구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골을 옮기는 구름'은 ~~일제 식민지를 겪는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겠군.
'골을 옮기는 구름'은 비 갠 후 골짜기를 옮겨 가고 있는 구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시대 상황을 담고 있지는 않다.

② 헛짚기 '꽃봉오리'가 '흔들려 씻기'운다고 한 것은 ~~현실 속 번뇌와 억압으로 인한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꽃봉오리'가 '흔들려 씻기'우는 모습은 꽃봉오리가 빗물에 씻긴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자연에 대한 화자의 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 속 번뇌와 억압으로 인한 좌절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③ 헛짚기 '차돌부리'가 '죽순 돋듯'하는 모습은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차돌부리 / 촉 촉 죽순 돋듯.'은 빗물이 묻은 차돌부리의 모습, 즉 자연의 순수한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흰 밥알을 쫓'는 것은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미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흰 밥알을 쫓'는 것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낼 수 없는 현실 속 번뇌와 억압을 나타낸 것이다.

41 가 시의 맛 나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작품 분석 본문 160~163쪽

가 시의 맛

작가 김현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시 쓰기를 통해 얻는 행복감
특징 ①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형상화함.
② 유사한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행위와 그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일상적 욕망을 포기하고 (시)를 씀.
❷ 시를 쓰며 (현실)보다 큰 상상의 세계를 그림.
❸ 세속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씀.
❹ 고독감 속에서도 안간힘을 쓰며 (시)의 세계를 창조함.
❺ 시로 쓰임으로써 빛을 얻는 (말들)

나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작가 이성복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문학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고뇌
특징 ① 동물의 행동에 빗대어 작가의 글쓰기 과정에 대해 서술함.
② 직유법, 은유법 등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한 줄 요약

❶ 어미 해달이 물질을 하듯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작가는 끊임없이 연상의 물질을 함.
❷ 해달이 조개껍데기를 벗기듯 작가는 (언어)의 속살을 얻기 위해 (언어)가 지닌 일상의 외피를 벗겨 냄.
❸ 해달이 (해초)에 몸을 감고 잠을 자듯 작가는 문학의 언어를 고민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함.

33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행위를 부각하고 있다.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쓸 때(땐)'라는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시를 쓰는 행위를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주미상관의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가)에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수미상관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말들'을 의인화하고 있을 뿐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331 답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쓸 때(땐) ~', '나는 ~ 아이(어버이)'와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ㄹ.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쓴다', '뜬다' 등에서 현재형 어미 '-ㄴ다'를 사용하여 시를 쓰는 행위의 가치를 긍정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ㄱ. 부재 의인화된 대상을 ~~부르며 화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내 영혼의 벗들인 말들'이 '눈을 뜬다'라고 하였으므로 '말들'을 의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말들'을 부르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ㄷ. 부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33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을 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반복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쓸 때(땐)' 등의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집 잃은 아이', '참된 어버이' 등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를 쓰면서 느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벚꽃'과 같은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를 둘러싼 상황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⑤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태평로 이가 프라스틱 지붕 아래'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세속적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쓰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3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대정신**: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

정·정·이

① 해달이 '조개를 내리쳐' '부드러운 속살'을 얻는 것과 같이, ㉠은 시인이 노력 끝에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나)에서 글쓴이는 해달이 돌 위에 '조개를 내리쳐' 조개의 살을 꺼내 먹듯, '글 쓰는 사람'도 '딱딱한 일상의 외피를' 걷어내야 언어의 '부드러운 속살'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은 시 쓰기 과정을 통해 시인이 얻게 된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이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어미 해달의 모습과 같이, ㉠은 ~~독자를 위해 가져야 할 시인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은 시 쓰기를 통해 얻게 된 예술적 가치이므로, 시인의 희생정신과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욕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과 같이, ㉠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인의 무모함~~을 의미한다.

㉠은 시인이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 쓰기에 매진하여 그 결실로 얻게 된 예술적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시인의 무모함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헛짚기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눕혀 놓'은 어미 해달처럼, ㉠은 ~~시인에게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도덕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눕혀 놓'은 어미 해달의 모습과 도덕성은 관련이 없다. 또한 ㉠은 시 쓰기를 통해 얻게 된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도덕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폭풍이 몰아치던 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어미 해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은 ~~시인이 문학의 언어를 선택할 때 시대정신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어미 해달과 시대정신은 관련이 없다. 또한 문학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는 ㉠을 시대정신과 관련시켜 이해할 근거는 (가)에서 찾을 수 없다.

33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썩은 모게 껍질에다 코라도 부비'는 것은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썩은 모게 껍질에다 코라도 부비'는 것은 시적 감흥을 얻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비유한 표현으로, 시 창작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멋진 날들'은 ~~화자가 시를 쓰면서 느끼는 행복한 순간~~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멋진 날들'은 화자가 놓아 둔 것으로, 화자가 시를 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의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② 헛짚기 '별들'은 ~~화자가 시를 쓰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별들'은 화자가 시를 쓸 때 느낄 수 있는 상상과 동경의 세계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③ 헛짚기 '종아리가 곧은 나의 사람'은 ~~시를 대하는 굳건한 마음을 지닌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종아리가 곧은 나의 사람'은 화자가 약속을 깨뜨리고 기다리게 한 대상으로, 화자가 시를 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세속적인 행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⑤ 헛짚기 '아프리카산 최근의 보석'은 ~~화자가 달자 못한 이상적인 시의 결과물~~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아프리카산 최근의 보석'은 시로 쓰임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된 시어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33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
- **고뇌**: 괴로워하고 번뇌함.

정·정·이

③ 헛짚기 (가)에서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쓰기 위해 방황했던 과거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가)의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쓸 때마다 화자가 느끼는 고독하고 막막한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여기에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 방황했던 과거의 삶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회한의 정서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에서 '벚꽃', '술', '나의 사람'은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 쓰기를 선택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포기한 대상인 '벚꽃', '술', '나의 사람'은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멋진 약속을 깨뜨리고 / 시를 쓴다.'는 것에서 문학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읽어 낼 수 있겠군.

(가)의 화자는 일상의 행복 중 하나인 '멋진 약속'을 깨뜨려 가면서 시를 쓴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시를 쓰는 태도에서, 시 쓰기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④ (나)에서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하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겠군.

(나)의 글쓴이는 해달의 행태에서 글쓰기에 대한 은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질을 하는 해달의 행태에 빗댄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하는 것은 작가가 글쓰기 과정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은 문학의 언어에 대한 작가의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글쓴이는 '작가의 지난한 문학적 글쓰기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은 문학의 언어를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작가의 고뇌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3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가)의 '멋진 날들'과 '멋진 약속'은 ~~화자가 시를 쓰는 원동력~~에 해당한다. (○, ⊗)

〈보기〉에서 (가)는 화자가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선택한 시 쓰기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멋진 날들'

과 '멋진 약속'은 화자가 포기한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나)는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해달의 모습에서 글쓰기 과정에서 언어에 대해 밤새 고민하는 글 쓰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해달의 모습'에서 글쓰기 과정에서 언어에 대해 밤새 고민하는 글 쓰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며 날 밝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3) (가)에서 '시를 쓴다'를 반복하는 것과 (나)의 글 쓰는 사람이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해 대는 것은, 문학 행위에 대한 의지 또는 창작을 위한 끝없는 노력과 관련된다. (○, ×)

(가)의 화자는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쓰는 행위를 반복하다 마침내 '말들'이 '빛나는 눈을 뜬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해달이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질을 하듯,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글 쓰는 사람은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해' 댄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시를 쓴다'를 반복하는 것과 (나)의 글 쓰는 사람이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해 대는 것은 문학 행위에 대한 의지 또는 창작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형상화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33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나)에서 해달이 조개의 껍데기를 벗기는 행위는 작가의 경험이 언어를 통해 미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군.

(나)에서는 해달이 조개껍데기를 벗기는 행위가 글을 쓰는 것과 같다며, 글 쓰는 사람이 자신의 몸 위에서 언어를 가르고 부수어 딱딱한 일상의 외피를 벗기면 비로소 '부드러운 속살'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에서 작가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 미적으로 형상화하여 아름다움을 가진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의 '멋진 날들'은 시를 쓰기 위한 바탕이 되는 작가의 경험 풀이라고 볼 수 있군.

(가)에서 '멋진 날들'은 시를 쓰기 위한 바탕이 되는 작가의 경험이 아니라, 시를 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의 욕망들을 의미한다.

② 헛짚기 (가)에서 '멋진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의 경험에 상상력을 가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군.

(가)에서 '멋진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세속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이를 작가의 경험에 상상력을 가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헛짚기 (가)의 '세계의 집 잃은 아이'와 '세상의 참된 어버이'는 예술적 가치가 담겨 있는 작가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군.

(가)에서 '세계의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쓸 때 화자가 느끼는 고독하고 막막한 심정을 비유한 것이고, '세상의 참된 어버이'는 화자가 시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냄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예술적 가치가 담긴 작가의 경험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헛짚기 (나)에서 해달이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행위는 자신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군.

(나)에서 해달이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행위는 작가가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언어에 대해 고뇌하는 작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작가의 경험은 상상력이 가미되어 언어를 통해 미적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아름다움을 가진 작품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해달이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행위에 빗대어 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III 복합 ❷

42 가 또 다른 고향 나 자화상 2 다 멸치

작품 분석 본문 166~169쪽

가 또 다른 고향

작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아 분열의 극복 의지와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특징 ① 대조적·상징적 의미의 시어·시구를 활용하여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을 형상화함.
② 부정적 자아와 긍정적 자아의 대립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고향)에 돌아온 '나'의 자아 분열
❷ 자아의 갈등과 (슬픔)
❸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는 소리
❹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나 자화상 2

작가 오세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삶에 대한 성찰과 바람직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
특징 ① 대조적 의미의 시어·시구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냄.
② 색채에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③ 의인법, 도치법 등을 활용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까치)와 달리 의연하면서도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
❷ 어려운 상황에서도 까치와는 다른 (까마귀)의 자세
❸ 까마귀처럼 철저하게 (본질)을 유지하며 살겠다는 다짐

다 멸치

작가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생명력 회복에의 소망과 의지
특징 ① 일상적 소재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냄.
②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넘치는 생명력을 지녔던 (멸치)
❷ 생명력을 (상실)한 멸치
❸ 멸치의 (생명력)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
❹ 멸치가 지닌 생명력 회복에 대한 (염원)

33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현실 도피의 공간인 '고향'과 이상 세계인 '또 다른 고향'의 대비를 통해, (나)는 까치가 넘보는 '인가의 앞마당'과 까마귀가 응시하는 '먼 지평선'의 대비를 통해, (다)는 생명력이 없는 '건어물집'과 생명력이 가득한 '바다'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부재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가)는 '우는 것이냐', '가자' 등의 반복을 통해, (나)는 '하얗게'의 반복을 통해, (다)는 '~ 것이다'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가), (나), (다) 모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과거 회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

⑤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339 답 (1) (가), (나), (다) (2) (가) (3) (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 (나), (다))
338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다) 모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범위 오류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자아 성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가))
(가)는 '우는 것이냐'의 반복을 통해 자아 성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다)에서는 의문형 진술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3) 범위 오류 점층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긍정적 가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다는) ((다))
(다)의 마지막 부분인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에서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화자가 긍정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는 점층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3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다)는 (가), (나)와 달리 의문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3연에서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나), (다)에서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는 (나), (다)와 달리 청유형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가자 가자 ~ 또 다른 고향에 가자'에서는 청유형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 (다)에서는 청유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가), (다)와 달리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화자의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검을 테면 /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 남기지 말고……'에서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순수한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가), (다)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가), (다)는 (나)와 달리 추측하는 형식의 진술을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가)의 '어둠을 짖는 개는 / 나를 쫓는 것일 게다.'와 (다)의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에서는 추측하는 형식의 진술을 통해서 화자가 생각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추측하는 형식의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에서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방 안에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과 쫓기는 사람처럼 이상적 자아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까치처럼 /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에서는 인가의 안마당, 즉 세속적 가치를 넘보는 까치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다)의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에서는 멸치가 생명력을 상실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4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가)의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로 볼 때, '방'은 부정적 자아인 백골이 있는 곳이므로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까마귀가 응시하는 '먼 지평선'은 '인가의 안마당'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므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가)의 '백골'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부정적 자아를 상징한다. 화자는 '들여다보며'를 통해 '백골', 즉 부정적 자아를 향하는 내면의 시선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짖'으며 나약한 자아를 꾸짖고 이상 세계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존재이므로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나)에서 '까마귀'는 화자가 따르려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까마귀'의 '형형한 눈'에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나)에서 '까치'는 '까마귀'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의 태도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

342 답 (1) 백골 (2) 또 다른 고향 (3) 먼 지평선, 까마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는 나약한 자아인 '(백골, 개)'을/를 들여다보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약한 자아인 '백골'을 들여다보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개'는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이다.

(2) 상반 (가)의 화자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고향, 또 다른 고향)'에 가고자 한다.

(가)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서 도피해 돌아온 '고향'을 떠

나 '아름다운 혼'이 지향하는 세계인 '또 다른 고향'에 가고자 한다.

(3) 상반 (나)의 '(인가의 안마당,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까치,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나)에서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까마귀'는 본질을 잃지 않는 의연한 존재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다. 반면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3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눈(㉠)'으로 하얗게 분장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꾸미는 것을 의미하므로, '눈'은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눈(㉠)'으로 하얗게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충만한 느낌이나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눈(㉠)'에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④ 헛짚기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눈은 내려'를 하강 이미지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눈(㉠)'이 내리는 것을 역동적 이미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화자는 온 세상에 눈이 내려 하얗게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눈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34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야광명월**: 밤에 밝게 빛나는 달.
- **자**: 길이의 단위. 한 자는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cm에 해당한다.
- **누역**: 도롱이(짚 따위를 엮어 만든 비옷)의 옛말.
- **촉**: 촛불.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돎.

정·정·이

②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노매라 /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 님 향(向)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나)에서 '눈(㉠)'은 본질을 가리는 것,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②에서 '가마귀'는 '눈비'를 맞아 그 본색이 잠시나마 '희는 듯' 숨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눈비'는 '눈(㉠)'과 그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강호에 겨울이 드니 높 깊이 한 자가 넘네 /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옴도 역군은이샷다
강호에 겨울이 찾아와 내려 한 자가 넘게 쌓인 '눈'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③ 헛짚기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 높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 촉(燭) 잡고 사랑할 때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눈'은 추운 겨울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으로서, 눈 속에도 피어난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한다.

34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바람'은 ~~화자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외부의 힘을~~ 의미한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닫힌 세계인 '어둔 방'을 열린 세계인 '우주'와 연결해 준다. 이로 보아 '바람'은 화자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화자를 일깨우고 꾸짖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백골'은 화자의 빈약하면서도 결핍된 삶을 상징한다.
'백골'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도피하여 안주하려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자아라는 점에서 화자의 빈약하고 결핍된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방'은 화자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하는 닫힌 공간으로, 열린 공간인 '우주'와 대비를 이루는 공간이다.

④ '어둠'은 화자가 겪는 고통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어둠'은 암울한 현실, 즉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로서, 화자가 자아 성찰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⑤ '개'는 화자의 영혼을 일깨우는 존재이다.
'개'는 '어둠을 짖'는다는 점에서 화자를 일깨우고 꾸짖는 존재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D]의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은 화자가 반찬이 된 멸치를 보며 상상한 것으로 생명력 회복의 가능성을 나타낼 뿐,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A]에서는 생명이 있던 멸치의 움직임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연결되어 제시되고 있다.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B]에서는 바닷속의 멸치가 그물에 의해 건져지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물'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C]에서는 그물에 의해 건져진 멸치가 말라서 반찬이 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E]에서는 멸치의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파도와 해일을 만들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는 등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4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어.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는 행위에는 멸치 본래의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도'와 '해일'이 생명력 회복을 위해 멸치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오·오·이

① ㉮: 멸치가 과거에 바다에서 생명력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어.

'유유히', '무수한 갈래의 길'에서 멸치가 본래 자유로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② ㉯: 외부적인 힘에 의해 멸치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

'그물'은 물결로부터 멸치를 분리시킨 것으로, 멸치의 생명력이 상실되게 한 외부적 힘이다.

③ ㉰: 멸치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었을 상황을 상상하고 있어.

'모래 더미'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바싹 말라 길거리에 쌓인 멸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멸치가 생명력을 잃고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었을 상황을 상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 눈앞의 멸치를 보며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어.

화자는 식탁에 오른 멸치 볶음을 보며 '지느러미'와 이를 흔드는 '물결', 즉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다.

43 가 새 1 나 어머니의 그릇 다 노래와 이야기

작품 분석 본문 170~173쪽

가 새 1

작가 박남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순수한 가치의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본질 인식의 어려움
특징 ①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도치법, 대구법 등을 통해 자연의 순수성을 형상화함.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관념적인 내용을 선명하게 제시함.
한 줄 의미
❶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
❷ 가식 없는 (**새**)의 순수한 모습
❸ (**인간(포수)**)에 의해 파괴되는 새의 순수함

나 어머니의 그릇

작가 정일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삶과 사랑이 담긴 말로 시를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
특징 ①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시상을 전개함.
② 대조적 의미의 시어, 직유법, 대구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그릇**)'을 '그륵'이라 쓰고 읽으시는 어머니
❷ 어머니의 '그륵'에 담겨 있는 편안함과 (**따뜻함**)
❸ '그릇'과 달리 (**삶**)이 담겨 있는 말인 '그륵'
❹ 삶과 사랑이 담긴 말로 (**시(서정시)**)를 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다 노래와 이야기

작가 최두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특징 ① 처용 설화를 차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② 시어의 의미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시**)에 대한 화자의 생각
❷ (**처용**) 설화를 통해 본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
❸ (**시집**)에 악보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인식
❹ (**뇌수**)와 (**심장**)이 긴밀히 결합된 시를 쓰고 싶은 소망

34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새'와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정함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그륵'과 나의 '그릇'을 대비하며 삶과 사랑이 담긴 말로 시를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심장(감성)'과 '뇌수(이성)'를 대비하여 시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는 모두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다) 모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가)에는 '~ 줄도 모르면서'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 (다)에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다) 모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부재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가)~(다) 모두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고 있을 뿐, 영탄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349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다)는 접속 부사로 시상을 전환하여 시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다)에서는 '하지만', '그러나'와 같은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면서 노래와 이야기가 긴밀히 결합된 시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ㄷ. (가), (나), (다)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48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다) 모두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새의 노래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35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 (나), ~~(다)~~는 모두 촉각적 심상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가)의 '다스한'과 (나)의 '따뜻했다는', '뜨겁게'에서는 촉각적 심상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가)와 (나)는 비유적 표현으로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에서 시적 대상인 '새'를 '순수'에 비유하여 '새'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그릇'에 담긴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며 '그릇'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다)는 부정어를 활용하여 단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가)의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와 (다)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에서는 부정어를 활용하여 단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③ (가)와 (다)는 현재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가진다', '않는다'에서, (다)는 '박힌다', '못한다', '않는다', '넣는다', '바란다' 등에서 현재형 진술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 (나), (다)는 모두 쉼표를 활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가)의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나)의 '그릇, 그릇', (다)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등과 같이, (가)~(다)는 모두 쉼표를 활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35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 국어사전, ㉣ 남은 가사

〈보기〉의 "'천'이라는 글자(㉮)"는 하늘의 푸름을 담지 못하는, 단지 천자문에 적혀 있는 글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은, 객관적이고 삶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말들이 실려 있는 '국어사전(㉢)'과, 노래에서 '목청(감성)'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남은 가사(㉣)'이다.

오·오·이

㉠ 헛짚기 하늘

'하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 상반 어머니의 그릇

'어머니의 그릇(㉡)'은 삶이 담겨 있는 말이므로, 문맥적 의미상 ㉮와 대조된다.

㉤ 상반 새로운 노래

'목청'이 제거된 '이야기'와 결합하는 '새로운 노래(㉤)'는 단순한 글자로서의 '천(天)'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문맥적 의미상 ㉮와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35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 화자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시어를 쓰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하고 있군.

ⓓ에서 화자는 삶에서 우러난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말로 시를 쓰지 못하고 사전에서 쉽게 말을 찾아서 쓰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 사전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화자는 어머니가 '그릇'을 자신만의 언어인 '그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군.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륵'이라고 하며, 어머니가 '그릇'을 자신만의 언어인 '그륵'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 화자는 '그륵'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고 삶이 녹아 있었음을 깨닫고 있군.

화자가 어머니의 '그륵'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따뜻했다고 하는 데서 '그륵'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고 삶이 녹아 있었음을 깨닫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 화자는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운 '그릇'과는 달리, '그륵'을 어머니가 삶 속에서 체득한 살아 있는 단어라고 보고 있군.

'그륵'이 어머니가 인생을 통해 배운 말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그륵'이 어머니가 삶 속에서 체득한 살아 있는 단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 화자는 삶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말로 시를 썼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

화자는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한다며, 언어에 자신의 삶과 사랑 등의 가치를 담아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35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경**: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함.
- **발상**: 어떤 생각을 해 냄. 또는 그 생각.

정·정·이

⑤ 화자 오류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가)는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정함, 본질의 순수성과 그 도달에의 어려움을, (나)는 삶과 사랑이 담긴 말로 시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자연'이나 '대상의 본질'로 이를 환상의 세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나)의 화자 역시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새'가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한 표현, 포수가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상한 새라는 표현을 통해 순수한 새와 대비되는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속성을 지닌 '포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그릇'을 '그륵'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사건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나)는 연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반면 (가)는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나)에는 '나'라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35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는 ~~(다)와 달리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

(가), (나) 모두 후각적 이미지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2) 부재 (나)는 (다)와 달리 ~~문장의 어순을 바꿈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나), (다)에서는 모두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도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3)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삶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가)에서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인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의 자기반성이 드러날 뿐, 인간의 삶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35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D]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D]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데 여기에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상황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3행을 통해 노래는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할 정도로 상대를 감복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D]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가]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 분리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가]는 '노래'에서 '목청(감정)'이 제거되고 '가사'만 남은 상태가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상반 [가]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는 '노래'와 분리된 '가사', 즉 '이야기'만 남은 상황에서의 단점을 보여 준다.

③ 교체 [D]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 '노래'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1행의 '노래는 심장에' 박힌다는 것으로 보아, [D]에서 시인이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가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헛짚기 [가]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D]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가]는 '노래'와 분리된 '가사'가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D]는 '노래'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행위로,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정·오 지름길

이 문제는 선지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이나 '융합'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가]와 [D]에서는 '노래'와 분리된 '가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선지에서는 '이야기'와의 결합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에서 '이야기'와 '가사'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만 파악하고 있었다면 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35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다채로운**: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한데 어울리어 호화스러운.

정·정·이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다)의 내용으로 보아 [D]의 '심장의 박동'은 '감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D]는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A]: '그륵'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그릇'은 '나'가 학교에서 배운 말, 즉 삶이 담겨 있지 않은 학습을 통해 익힌 말이다. 반면 '그륵'은 '어머니'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삶과 사랑이 담긴 말이다. 따라서 '그릇'보다는 '그륵'이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체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륵'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말인 '그릇'은 '발견'한 말이다. 반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다고 하였으므로 '그륵'은 어머니가 삶을 통해 '창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헛짚기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시와 음악이 분리된 것을 비판하는 것과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덧난 상처의 처방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상처의 원인이 '노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357 답 (1) 그륵 (2) 노래 (3) 살아 있는, 뇌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나)의 화자는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말인 '(그륵, 그릇)'이 살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화자는 어머니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말인 '그륵'이 살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2) 교체 (다)의 화자는 시에서 (노래, 이야기)가 분리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시에서 '노래'가 분리되고 '이야기'만 남은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3) 교체 (나)의 화자는 (살아 있는, 국어사전의) 언어로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을, (다)의 화자는 심장과 (목청, 뇌수)이/가 긴밀하게 결합된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나)의 화자는 살아 있는 언어로 시를 쓰고자 하는 소망을, (다)의 화자는 뇌수와 심장이 긴밀하게 결합된 시를 쓰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35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가식적**: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
- **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정·정·이

② 헛짚기 '부리를 /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체온을 나누는 '새'는 ~~서로 연대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부리를 /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체온을 나누는 '새'는 서로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서로 연대하는 민중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하는 '새'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환기하는군.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하는 '새'는 순수한 존재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환기한다.

③ '울어 / 뜻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는 가식적인 태도와는 상반된 면모를 지니고 있군.

'울어 / 뜻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는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함을 지닌 존재로, 가식적인 태도와는 상반된 면모를 지니고 있다.

④ '새'는 '한 덩이 납으로' '순수를 겨냥하'는 '포수'에 의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존재라 하겠군.

'포수'가 '한 덩이 납으로' 쏘려고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는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라고 표현된 점에서 '새'는 화자에게 연민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하겠군.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는 순수한 존재인 '새'가 인간의 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점을 강조한 시구로, 화자의 연민 어린 시선이 드러난다.

44 가 강우 나 성탄제 다 서해

작품 분석 본문 174~177쪽

가 강우

작가 김춘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내와의 사별에서 오는 절망감과 체념
특징 ①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다가, 결국 이를 인정하고 절망하는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냄.
② '비'라는 객관적 상관물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냄.
③ 반복법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받아들이기 힘든 (**아내**)의 죽음
❷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함.
❸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과 (**체념**)

나 성탄제

작가 김종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상징적 시어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주제를 강조함.
②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와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③ 회상적·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 주셨던 사랑에 대한 회상(과거)
❷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그리움(현재)

다 서해

작가 이성복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당신에 대한 배려와 한결같은 그리움
특징 ① 역설적 태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드러냄.
③ 도치법, 설의법, 활유법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④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서해**)에 가지 않은 이유
❷ 여느 (**바다**)와 다르지 않을 서해의 모습
❸ 서해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
❹ 만날 수 없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

35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는 목소리, 어둠 속에 내리는 비 등의 감각적 심상을 통해 아내의 부재라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나의 이마에 ~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는 '내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에서 파도의 움직임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가), (나), (다)는 모두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범위 오류 (다)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다)의 '언제나 바다는 ~ 뒤척이겠지요'에서는 '바다'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 (나)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가), (나)는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다)에서는 1연과 3연에서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범위 오류 (나)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 (다)는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에서만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 그 붉은 산수유 열매—'에서 감탄사를 사용하였다.

360 답 (1) (가), (나), (다) (2) (다) (3)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 (나), (다))
359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 (나), (다) 모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범위 오류 (다)는 경어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
(다)에서는 '않았습니다.', '다를까요', '뒤척이겠지요', '봅니다', '있습니다'에서 경어체를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 (나)에서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3) 범위 오류 (나)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나))
(나)에서는 '어두운 방 안'과 '빠알간 숯불', 하얀 '눈'과 '붉은 산수유 열매'를 대비함으로써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가), (다)에는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36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가)와 달리 (나)에는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이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화자가 '이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는 소재이자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즉 한 치 앞을 못 보게 내리는 '비(빗발)'는 화자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비'에는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 아픈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가 서른 살이 된 자신의 혈액 속에 녹아 흐름을 느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 산수유 열매'에는 시상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이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화자의 마음과 '이 사람'의 부재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독백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나)에서 화자는 '반가운 그 옛날의 것', 즉 '눈'을 맞으며 어린 시절 앓고 있는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 왔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눈'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과거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가)는 '이 사람'이 부재하는 현재의 상황을 먼저 언급한 후 '이 사람'이 앓았던 '옆구리 담괴'를 떠올리는 등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는 아픈 화자를 위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 왔던 과거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가)에는 '이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나)에는 화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36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이 사람(아내)'이 곁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였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의 밥상은 사실 '이 사람'이 차려 놓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 즉 화자의 아내는 지금 세상을 떠나 여기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자의 마음 상태가 평온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 줄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고 한 것이므로,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은 '이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화자가 '이 사람'의 부재를 다시금 확인하고 나서 느낀 실망감과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다.

⑤ 화자 오류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에는 '이 사람'의 부재, 즉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화자는 ㉤을 통해 이제는 아내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63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은 '이 사람'의 흔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 (×))

'이 사람'은 현재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의 '밥상'은 '이 사람'이 차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은 '이 사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없고, 화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다.

(2) ㉡은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 ×)

㉡의 '메아리'는 '이 사람'의 목소리 대신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화자의 목소리이다. 그러므로 ㉡은 '이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 즉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3) ㉢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운 것이 아님을 깨닫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

㉢ 이전까지 화자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어디 가서 잠시 누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이 사람'이 앓았던 '옆구리 담과'를 떠올리며 의아해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결국 ㉢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부재가 '어디 가서 잠시 누'운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 ㉣, ㉤에는 '이 사람'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과 절망감이 나타난다. (○, ×)

'이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은 '혹시나 하고' 밖을 기웃거리던 화자가 체념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퍼붓는 빗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 ㉤에는 '이 사람'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과 절망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조우**: 우연히 서로 만남.

정·정·이

③ 화자에게 대상과의 만남을 체념하게 하는 소재이다.

'혹시나 하고' 밖을 기웃거리던 화자는 '한 치 앞을 못 보게' 퍼붓는 '빗발'로 인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빗발'은 화자로 하여금 '이 사람'과 만나고자 하는 것을 체념하게 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화자와 ~~대상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촉매~~이다.

'이 사람'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와 '이 사람' 간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헛짚기 화자가 ~~대상과 교감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다.

'이 사람'은 현재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화자는 '이 사람'과 교감할 수 없다.

④ 헛짚기 화자가 대상을 향한 애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계기~~이다.

화자가 '이 사람'의 부재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을 통해 볼 때, 화자는 '이 사람'에 대해 애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빗발'이 애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상반 화자로 하여금 대상과의 조우를 ~~소망하게~~ 체념하게 하는 배경이다.

퍼붓는 '빗발'로 인해 '한 치 앞을 못' 보게 된 화자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빗발'이 '이 사람'과의 조우를 소망하게 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없다.

36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 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뭐 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3연의 '계실 자리'와 '가 보지 않은 곳'은 바다, 즉 '서해'를 가리킨다. 그러나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는 '당신'에게 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립지만 그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오·이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서해'는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고, 화자는 '서해'에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해'에 가 보지 않았다. 따라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도,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도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그곳 바다'는 '서해', 즉 화자가 아직 가 보지 않은 바다이다. '여느 바다'는 '서해'가 아닌 바다, 즉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이다. 그런데 2연에서 화자는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라며 두 바다가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2연의 2~3행에서 화자는 자신이 아는 '여느 바다'를 통해 가 본 적 없는 '그곳 바다'의 모습을 추측하여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멀리서'는 '그곳 바다'와 '그곳 바다'에 있을지도 모를 '당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한쪽 바다'는 화자가 가 보지 않은, '당신'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곳이다. 화자는 그곳에 가지는 않지만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곳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고 하였다.

366 답 ㄱ,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정**: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또는 그런 단정.

정·정·이

ㄱ. 제1연에서 화자는 '서해'를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서해'에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가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화자는 '서해'를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ㄹ.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제1연에서 언급한 '서해'이다.

1연에서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4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서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ㄴ. 상반 제2연에서 화자는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 바다'는 '여느 바다'와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2연에서 화자는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라고 하였다. 이는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 바다'가 '여느 바다'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ㄷ. 화자 오류 제3연에서 화자는 '당신이 계실 자리'를 남겨 두는 것으로 '당신'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그리워하고 있다.

3연에서 화자가 '가 보지 않은 곳을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을 염려하며 '당신'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겨 두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당신'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6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 주인공의 감정과 어울리는 경쾌한 배경 음악을 활용한다.

현재 화자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사랑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 도시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경쾌한 배경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앓고 있는 어린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시선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2연의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 산수유 열매의 붉은색이 눈의 흰색과 뚜렷이 대비되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4연에 흰 '눈'과 붉은 '산수유 열매'의 색채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③ ⓑ: 눈을 회상의 매개체로 하여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을 연결한다.

6연에서 7연으로 넘어가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다. 그 두 시간을 이어 주는 것은, 그날 밤도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 '눈'이다.

④ ⓒ: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도시의 거리 모습을 배경으로 설정한다.

8연의 '성탄제 가까운 도시'를 통해 볼 때 적절하다.

36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서느런 옷자락'은 화자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서느런 옷자락'은 화자의 어린 시절, 아픈 화자를 위해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오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은 시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겠군.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는 모습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 시인의 성장 배경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② '눈 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 온 아버지의 사랑은 삭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될 수 있겠군.

'눈 속'을 헤치고 구해 온 '약'에 담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은,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화자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겠군.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눈'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오신 날과 연결되어 화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산수유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가족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산수유 열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므로, 이는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화자에게 할머니와 아버지가 보여 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서느런 옷자락'은 화자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화자는 현대인의 삶이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각박하고 메말랐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차가움의 심상은 각박함의 정서와 조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④를 올바른 진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에서 '서느런 옷자락'은 어린 시절 아픈 화자를 위해 눈 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서 돌아온 아버지의 옷자락을 의미하므로, 화자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해요.

45 가 발열 나 거문고 다 대설 주의보

작품 분석 본문 178~181쪽

가 발열

작가 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열병을 앓는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① 촉각적,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회화성을 강조함.
② 어순의 도치,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애타는 심정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의 정경
❷ 열병을 앓는 (**애(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❸ 아이에게 줄 (**약**)이 없어 애타는 밤

나 거문고

작가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 인식
특징 ① 거문고를 기린에 빗대어 암담한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②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암시함.
한 줄 의미
❶ 울지 못하는 (**기린**)
❷ 잊혀져 (**외로운**) 기린
❸ 어두운 상실의 땅에 있는 (**기린**)
❹ (**맘(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기린

다 대설 주의보

작가 최승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함.
② 대조적인 소재와 비유법 등을 활용하여 폭압적 시대 상황과 연약한 민중의 모습을 드러냄.
③ 반복을 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함.
한 줄 의미
❶ 굵은 눈발 속으로 날아가는 (**굴뚝새**)
❷ 계엄령처럼 무섭게 몰려오는 (**눈보라**)
❸ 거센 (**눈보라**)에 생명을 위협받는 존재들과, (**계엄령**)처럼 무섭게 몰려오는 눈보라

36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가)는 열이 나고 아픈 아이의 안타까운 상황을, (나)는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벽에 기대 선 기린의 절망적

인 상황을, (다)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쳐 꼼짝하지 못하는 굴뚝새의 암담한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가)는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에서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며 운율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나,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도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다)는 2, 3연에서 '계엄령'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끝맺음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이와 달리 (가)에서 명사로 시행을 끝맺은 것은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뿐이므로, 반복을 통해 여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범위 오류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나)에서는 거문고를 의미하는 '기린'이 의인화되고 있다. 한편 (다)에서도 '눈보라'가 의인화되고 있으나, 이는 부정적 존재이므로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범위 오류 (가),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등에서 어순의 도치를 통해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시적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나), (다)에서는 어순의 도치가 사용되지 않았다.

37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어순의 도치를 반복하여 화자의 심리와 시적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 ×)

369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 부재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나)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3)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

(다)는 '눈', '군단', '계엄령' 등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현실의 암담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7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도 같이',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거문고를 의미하는 '기린'이 의인화되고 있으며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에서는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 (다)는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과 (다)의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에서는 자연적 소재의 속성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② 범위 오류 (나),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나)에서는 '퉁'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다)에서는 '펑펑'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모순을 꼬집고 있다.

(가)~(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모순을 꼬집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다)는 말끝을 흐리는 표현으로 연민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다)의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에서는 말끝을 흐림으로써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37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혼미**: 의식이 흐림. 또는 그런 상태.

정·정·이

⑤ 헛짚기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C]는 아이가 아픈데도 '약'이 없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화자가 밤하늘만 바라보며 애태우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ㅂ),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ㅅ) 하는 것은 화자의 절박함과 애타는 마음을 심화하는 밤의 정경을 보여 주기에 적절한 방법이지, 의식이 혼미해진 아이의 상태를 보여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A]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인 '처마'가 있는 집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인 '밤'이라는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며, '더운 김'이 훈훈히 서리고 있다. 따라서 ㄱ, ㄴ은 이러한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B]에서는 '박나비', '주사' 등에서 붉은색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아이가 '가쁜 숨결'을 드내쉬고 있으므로, ㄷ은 적절한 계획이다.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B]에서는 아이가 앓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이를 클로즈업 기법을 통해 강조하면 감상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5행과 10행의 '아아'와 같은 감탄사를 영탄적 어조로 낭송하면(ㅁ), 고열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강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오 지름길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A]에 시선의 이동이나 화면을 뿌옇게 처리할 장면이 없다고 생각하면, ㄱ, ㄴ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자의 시선은 '처마 끝'에서 '땅'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ㄱ)은 적절한 계획이에요. 또 김이 서린다고 하였으므로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하는 것(ㄴ) 역시 적절하지요.

373 답 (1) 밤 (2) 안타까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A]에 드러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낮, 밤)이다.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에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B], [C]에서는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화자의 (안타까움, 분노) 이/가 드러난다.

[B], [C]에는 '몸이 또 달아 오르'는 아이를 지켜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난다.

37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나)의 '노인'은 과거에 '기린'의 가슴을 통 흔들고 간 존재로, 부정적 현실이 오기 전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린'은 '노인'에게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다. 한편 (다)의 '굴뚝새'는 눈보라 속에서 뒷간에 몸을 감추는 고립된 존재, 즉 새로운 권력 집단의 강압 통치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존재일 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다.

오·오·이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에 쓰였으며, (다)는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나)에는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다)에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나), (다)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나)의 '울지를 못한다'는 '기린(거문고)이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는 뜻과 '화자가 울지 못한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의 '내리는'은 '눈보라가 내리다'라는 뜻과 '계엄령을 내리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기린으로 하여금 맘 둘 곳 몸 둘 곳이 없게 한다는 점에서, '솔개'는 '굴뚝새'로 하여

금 황급히 몸을 감추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37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군.

'꺼칠한 굴뚝새'는 눈보라와 솔개를 피해 뒷간에 몸을 숨기는 연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새로운 권력 집단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 모국어로 시를 쓰기가 어려워진 지 오래됐음을 알 수 있군.

'해가 스무 번 바뀌었'다는 것에서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이 어려워진 지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 마음속 깊은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냈던 시의 감동이 환기되고 있군.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에서 〈보기〉에 언급된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의 감동을 떠올릴 수 있다.

③ ㉢: 시 창작의 자유가 억눌린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화자가 바깥을 '이리떼만' 몰려다니는 '거친 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창작의 자유가 억눌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 화자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목격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시대상이 부각되고 있군.

㉤에서는 계엄령처럼 무섭게 몰려오는 눈보라의 모습을 통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시대상이 부각되고 있다.

37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은거**: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
- **고립**: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

정·정·이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D]에는 '문 아주 굳이 닫고'를 통해 기린으로 형상화된 화자가 '이리떼'와 '잔나비떼'들이 있는 바깥과 단절한 채 은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E]에는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등에서 눈보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D]에는 화자의 내면적 공간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화자가 자아 성찰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E]에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라는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적 공간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② 헛짚기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D]의 '기린'은 고립된 상황으로 화자는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E]에서 화자는 눈보라가 내리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산짐승들', '소나무 가지들', '외딴 집' 등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보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D]와 [E] 모두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D]에는 '나'라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E]에서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는 있으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교체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D]에서 화자는 '내 기린'이라고 하며 '기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E]에서 화자는 '산짐승들'과 '소나무 가지들', '외딴 집' 등을 위협하는 '눈보라'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377 답 (1) 잔나비떼 (2) 눈보라 (3) 산짐승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D]에서 화자는 '이리떼', '(잔나비떼)'들이 있는 바깥과 단절한 채 스스로 은거하려 한다.

[D]에서 화자는 '문 아주 굳이 닫고', '이리떼', '잔나비떼'들이 있는 바깥과 단절하여 스스로 은거하려 한다.

(2) 교체 [E]에서 '(눈보라)'은/는 '산과 골짜기'를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E]에서 '산과 골짜기'에 내리는 '눈보라'는 '산과 골짜기'를 고립시키는 요인이 된다.

(3) 교체 [E]에서 '(산짐승들)'와/과 '소나무 가지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E]에서 눈보라로 인해 길을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과 눈 더미의 무게로 부러질 듯한 '소나무 가지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등산객' 역시 눈보라로 위험에 처한 존재이지만, [E]에 제시되지는 않았다.

37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불의**: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 **득세**: 세력을 얻음.

정·정·이

② ㉮와 달리 ㉯는 불의한 존재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간이다.

㉮는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픈 시간일 뿐, 불의한 존재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는 '바깥은 거친 들 ~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불의한 존재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와 달리 ㉯는 ~~새로운 존재들이 잉태되는~~ 시간이다.

㉮, ㉯ 모두 새로운 존재들이 잉태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③ 헛짚기 ㉯와 달리 ㉮는 ~~자아에 대한 성찰이 점차 심화되는~~ 시간이다.

㉮, ㉯ 모두 자아에 대한 성찰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④ 헛짚기 ㉮와 ㉯는 모두 ~~개인적 존재가 사회적 존재로 변모하는~~ 시간이다.

㉮, ㉯ 모두 개인적 존재가 사회적 존재로 변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헛짚기 ㉮와 ㉯는 모두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다.

㉮, ㉯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46 ㉮ 마음의 태양 ㉯ 설일 ㉰ 때

작품 분석 본문 182~185쪽

㉮ 마음의 태양

작가 조지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특징 ① 수미상관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②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표현함.
③ 청유형 문장과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이상 세계를 지향하면서 맑은 (**넋(영혼)**)으로 살고자 함.
❷ 이상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 (**육신**)의 괴로움마저 감수하고자 함.
❸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 냄으로써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음.
❹ 이상 세계를 지향하면서 맑은 (**넋(영혼)**)으로 살고자 함.

㉯ 설일

작가 김남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너그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
특징 ① 자연 현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에 적용함.
② 직유법, 은유법, 설의법, 반복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혼자가 아닌 (**겨울나무**)와 (**바람**)
❷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❸ (**삶**)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
❹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려는 다짐
❺ (**새해**)를 맞는 순수한 마음

㉰ 때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는 삶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열거함.
② '때'로 끝나는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자연의 때)
❷ 노력의 (**결실**)을 거두어들일 시기(인간의 때)

37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세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

정·정·이

③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가)는 '해바라기, 노고지리' 등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겨울나무, 바람' 등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너그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곡식, 빗줄기, 회오리바람, 숲, 대추나무, 여치, 귀뚜라미' 등의 자연물을 통해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지 않다.

② 헛짚기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가)는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감내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고자 하고 있을 뿐,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다)의 화자 역시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가)의 경우 이상 세계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와 (다) 또한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⑤ 부재 ~~자연과 거리를 둠으로써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면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 모두 자연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380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포착**: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정·정·이

(1) (가)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

(가)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 냄으로써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노래하고 있다.

(2) 화자 오류 (나)는 ~~미래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화자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너그럽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 (다)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하여 결실을 준비하는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 ×)

(다)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의 날씨, 곤충 소리 등의 변화를 포착하여 결실을 준비하는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4) (가)~(다)의 화자는 모두 삶에 대한 자세를 다지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나)의 화자는 너그럽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를, (다)의 화자는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38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청유형**: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 '-자꾸나', '-세', '-읍시다' 따위가 붙는 꼴이다.

정·정·이

④ 범위 오류 Ⓑ와 ~~Ⓔ~~는 모두 모순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는 슬픔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에는 모순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화자의 삶의 자세가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는 햇살을 향해 돌아가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통해, Ⓑ는 슬픔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고난을 감내하며 맑은 넋을 지니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자세가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② Ⓐ와 Ⓓ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는 바람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와 Ⓔ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추상적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하늘(이상 세계)을 받드는 마음을 햇살을 향하여 돌아가는 해바라기에 비유하고 있고, Ⓔ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삶을 은총의 돌층계에 비유하고 있다.

⑤ Ⓒ와 Ⓕ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는 '살게 하자'에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도 '살자'에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너그러운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8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다)는 ~~시간의 역전(逆轉)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 역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는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떠오른다', '날아오르는' 등과 같은 상승 이미지를 통해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 연과 끝 연을 '해바라기처럼(노고지리같이) / 높고(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 그 속에 맑은(높은) 넋을 살게 하자.'와 같이 유사하게 구성하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③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머리채 긴 바람', '은총의 돌층계', '섭리의 자갈밭',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 등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의 다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에서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383 답 (1) (가), (나), (다) (2) (나) (3) (가), (나), (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청유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다))

(가)는 '그 속에 맑은(높은) 넋을 살게 하자.'에서, (나)는 '너 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한 세상을 누리자.'에서, (다)는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에서 청유형 어조를 통해 화자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2) 범위 오류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나))

(나)는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와 (다)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시구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 (나), (다))

(가)에서는 1연과 4연에서 '그 속에 맑은(높은) 넋을 살게 하자.' 등을, (나)는 '혼자는 아니다.', '어디쯤이다.'를, (다)는 '때'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긴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다)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긴장감 있게 드러낸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활유법을 구사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82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③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와 같이 서술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④ '~ 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 말자'와 같은 종결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각지 말자', '고집하지 말자'와 같이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8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시적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가)의 '원광'은 괴로움과 슬픔, 고난 등을 달게 받아들인 뒤 마침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빛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의 '무엇'은 여름이 지나 가을로 접어든 때에 거두어들여야 하는 결실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

오·오·이

① 헛짚기 지향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매개물이다.

(가)와 (나) 모두 시상의 극적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헛짚기 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원광'과 '무엇' 모두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시어로, 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헛짚기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준다.

'원광'은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을 달게 받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속 희망이나 이상 실현의 조짐을 뜻하므로, 시적 화자와 대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무엇'은 결실을 뜻하므로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준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적 긴장을 높여 준다.

'원광'과 '무엇' 모두 신비로운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적 긴장감 고조와는 관련이 없다.

386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현실 도피**: 생각이나 행동에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기를 회피함.

정·정·이

ㄱ. 화자가 지향하는 바에 해당한다.

385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원광'과 '무엇'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

ㄷ. 고난과 시련을 수용한 끝에 얻게 되는 것이다.

'원광'은 괴로움에 웃고, 고난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므로 고난과 시련을 수용한 끝에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은 뜨거운 태양과 장대 같은 빗줄기, 세찬 회오리바람 등이 지나간 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므로 고난과 시련을 수용한 후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ㄴ. 화자 오류 화자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나타낸다.

'원광'과 '무엇' 모두 현실 도피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38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이 내포되어 있다.

'아직도(㉰)'에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 상황에서 때를 여전히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에는 시간의 경과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어느새(㉮)'에는 광복절도 어느 틈에 벌써 지나가고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② ㉯에는 자연물에 의해 상기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이미(㉯)'에는 더욱 커진 귀뚜라미 울음소리로 인해 화자가 가을이 벌써 곁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이 드러난다.

④ ㉱에는 현재 시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이제는(㉱)'은 '바로 이때'라는 의미로, 지나간 때와의 단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제는'에는 여름은 이미 가고 가을이 왔다는 시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과 ㉱에는 동일한 시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아직도(㉰)'와 '이제는(㉱)'은 모두 시간적으로는 가을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직도'에는 여름이 갔음에도 여전히 여름이라고 우기는 태도가 드러나고, '이제는'에는 여름이 갔음을 인정하고 지나간 때와 단절해야 한다는 태도가 나타난다.

3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 말없이 삭이고

'달게 받으라(ⓐ)'는 육신의 괴로움이나 고난까지도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를 함축하고 있는 시구는 '말없이 삭이고(㉡)'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 외톨이로 서 보는

'외톨이로 서 보는(㉠)'은 아무도 없이 세상에 오직 홀로 남는 것 같은 상황, 즉 고독한 상황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③ 헛짚기 ㉢ 떨구이는

'떨구이는(㉢)'은 승천한 눈물들이 백설이 되어 다시 땅 위에 내리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새해를 새로운 자세로 맞는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달게 받으라(ⓐ)'와는 함축적 의미가 다르다.

④ 헛짚기 ㉣ 뜨겁게 익고

'뜨겁게 익고(㉣)'는 한여름에 곡식이 뜨거운 남녘 들판에서 익어 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⑤ 헛짚기 ㉤ 더욱 커질 때

'더욱 커질 때(㉤)'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시간의 흐름

을 형상화한 것이다.

38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 /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으면 /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뜻한 털옷 되지 않으리

[A]는 괴로움을 수용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면 세찬 바람과 눈보라도 따뜻한 털옷이 된다는 ①이다.

오·오·이

② 헛짚기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이리~~ /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

[A]에 고통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이제 나는 ~~더그럽게 사람과 세상을 받아들이리~~ / 내 마음의 겸손과 원만함이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퍼지게~~ 하리 / ~~겸손하게 빛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얘기하리라~~

[A]에 사람들을 포용하겠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이제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 / 삶은 험난한 길,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가시밭길 / ~~절댜 돌아오는 것이 허망한 것이더라도~~ 삶은 원래 그런 것

④에 삶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인식은 드러나 있으나, [A]와 달리 이상 세계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헛짚기 이제 나는 발끝의 작은 것도 사랑하리라 / 내가 먼 곳만 바라본다면, 나의 발 디딘 곳 아픔을 어떻게 알리 / 이제 ~~담은 내 삶은 이웃의 아픔, 슬픔과 함께하리라~~

[A]에 이웃의 아픔이나 슬픔을 함께하겠다는 자세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오 지름길

• (가)를 읽고 시 창작 활동을 하였다. ~~[A]연의 내용과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작품의 내용 및 정서와 유사한 시를 찾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먼저 시적 대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A]의 시적 대상은 괴로움과 슬픔, 고난이므로, 선지에서도 시적 대상이 이와 유사한지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대응 자세를 비교해 보면 두 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39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가)에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은 화자가 ~~도력해도 닿을 수 없는 세계로 화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대상~~이군.

(가)의 화자는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은 화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가)에서 '한 송이 꽃'은 화자에게 '육신의 괴로움'을 감내한 존재로 인식되는 대상이군.

(가)에서 화자는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을 통해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는 자신도 육신의 괴로움을 달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자는 '한 송이 꽃'을 육신의 괴로움을 감내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노고지리'는 화자에게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군.

(가)에서 '노고지리'는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존재로, 화자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겠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누르스름한 이파리'와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자연물이군.

'누르스름한 이파리'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귀뚜라미'는 가을의 곤충이다. 따라서 '누르스름한 이파리'와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모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여름내 흘린 땀'은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와 관련지어 볼 때 결실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군.

여름을 견디어 내는 과정을 지나야만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름내 흘린 땀'은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47 가 알 수 없어요 나 배를 매며 다 사미인곡

작품 분석 본문 186~189쪽

가 알 수 없어요

작가 한용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절대자를 향한 구도 정신, 임을 향한 희생정신과 기다림
특징 ①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안정성을 부여함.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열정적인 구도 정신을 드러냄.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임의 신비감을 고조하고 경건한 탐구 자세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
❷ 절대자를 위한 (희생)적 자세

나 배를 매며

작가 장석남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함.
② 유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배)를 매어 본 경험
❷ 갑자기 던져진 (밧줄)로 배를 매듯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
❸ (배)를 둘러싼 세계의 발견
❹ 배를 매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본질
❺ (배)를 통해 확인한 사랑의 모습

다 사미인곡

작가 정철
갈래 가사
주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충정(연군지정)
특징 ①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임.
②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③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자 함.
❷ 임을 위해 정성껏 (옷)을 지어 보내고자 함.
❸ 임이 (선정)을 펼치기를 기원함.
❹ 임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

39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극적**: 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

정·정·이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의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시내', '저녁놀'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나)의 '밧줄', '배', 배를 매는 행위는 각각 인연과 사랑, 사랑의 대상, 사랑의 시작을 상징한다. (다)의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은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충정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 (나), (다) 모두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가)에서는 (다)는 '오동잎', '하늘', '시내' 등 자연물에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으며, (나)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다)에서만 '임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에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너'라고 부르며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② 부재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와 (나)에는 대화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의 '임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에서는 매화를 상대로, '누 위에 걸어 두고 ~ 심산궁곡 한낮같이 만드소서.'에서는 임금을 상대로 하는 대화체가 일부 드러나지만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부재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 등에서, (다)에서는 '오색선', '백옥함', '청광', '홍상' 등에서 색채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되어 다채로운 느낌이 조성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색채어가 활용되지 않아, 이로 인해 시의 분위기가 다채롭게 조성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가), (나)는 '언뜻언뜻'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검은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을 보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털썩'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화자에게 갑작스럽게 밧줄이 날아온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다)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39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자연 현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

(가)에서는 '오동잎',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 등 자연

현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누구'의 모습인지 물음으로써 절대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2) (나)는 유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에서는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상적 관념인 사랑의 속성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형상화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부재 (다)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 ×)

(다)에서는 '오색선', '백옥함', '청광', '홍상' 등에서 색채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색채어의 대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39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가)에서는 '~은/는 누구의 ~입니까'라는 형식의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사랑의 시작을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가)의 1~5행은 절대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다루고 있다면 6행은 절대자를 향한 구도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5행이 아닌 6행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는 사랑이 시작되어 커지는 과정을 배를 매는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부재 (가)와 (나) 모두 ~~점층적 방법~~을 통해 시상을 확장하고 있다.

점층법은 (가), (나) 모두에 사용되지 않았다.

⑤ 부재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삶의 모습과 조응하는~~ 자연 현상에서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는 자연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뿐, 자연 현상이 화자의 삶의 모습과 조응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자연과 어우러져 떠 있는 배의 모습에 빗대고 있을 뿐이므로, 자연 현상이 화자의 삶의 모습과 조응한다고 볼 수 없다.

39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번뇌**: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누구의 입김입니까'라는 구절로 볼 때, '알 수 없는 향기(㉢)'는 절대자의 숨결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를 통해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누구의 발자취(㉠)'는 절대자의 발자취로서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이라는 자연 현상 속에 깃든,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드러낸다.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무서운 검은 구름(㉡)'은 절대자의 얼굴인 '푸른 하늘'을 가리는 존재로, '푸른 하늘'과 대조되면서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구도자라는 화자의 처지를 고려할 때 절대자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무서운 검은 구름'은 번뇌로 볼 수 있다.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저녁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저녁놀'은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자연 현상에 해당하므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함께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한용운의 시는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의 시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약한 등불(㉤)'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역설적 표현과 연결되면서,

구도자로서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화자의 자기 정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95 답 ㄱ,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화자는 '누구'로 표현된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통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며, '누구'로 표현된 궁극적 존재에 대한 물음을 반복하며 탐구하고 있다.

ㄴ. '무서운 검은 구름'은 '푸른 하늘'과 대립되는 대상이다.

394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ㄹ.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드러낸다.

(가)에서 화자는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라고 하였다. 여기서 '누구'는 화자가 탐구하고 있는 절대자이므로,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ㄷ. 화자 오류 '알 수 없는 향기'는 화자가 지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환기한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하늘을 스쳐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화자가 '누구의 입김'으로 여기는 자연 현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향기'는 화자가 지닌 불안감을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9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갈구**: 간절히 바라며 구함.
- **비로소**: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

정·정·이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A]에서 화자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라며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랑을 함으로써 대상과 대상 주변의 세계까지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A]는 배를 매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표현한 부분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A]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과 대상을 둘러싼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게 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헛짚기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2연의 '사랑은 ~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이미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A]에서 이러한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사랑의 운명적 면모는 2연의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나타난다. [A]에서는 사랑의 운명적 면모나 자연의 섭리는 찾아볼 수 없다.

397 답 (1) 사랑 (2) 밧줄 (3) 불가항력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오·오·이

(1) 교체 배를 매는 행위와 (사랑 이별)을 연결 지어 표현하고 있다.

2연에서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교체 넋 놓고 앉았다가 (밧줄 빛)을 받는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2연의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은 사랑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3) 교체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은 (불가항력적 필연적)인 사랑의 속성을 나타낸다.

2연의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사랑, 즉 사랑의 불가항력적인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39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부둣가'는 배가 들어오는 곳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속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이다.

'부둣가'는 화자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므로 과거의 공간이 아닌 현재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헛짚기 화자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부둣가'는 배를 매듯 갑작스럽게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일 뿐, 도피의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헛짚기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부둣가'는 갑작스럽게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⑤ 헛짚기 화자와 익명의 타인들이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이다.

'부둣가'는 화자와 사랑의 대상이 인연을 맺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9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화자는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 즉 임금이 계신 곳으로 보내고자 한다. 이로 볼 때,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추위를 겪을 임금을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지, 임금의 은혜를 암시하는 소재가 아니다.

오·오·이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의 여성 화자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인 남성 작가의 분신이므로, 화자가 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보내려는 행위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정성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천상의 '달'과 '별'을 보며 임(임금)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달'과 '별'은 임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지상에 있는데, 이는 임금과 신하라는 상하 관계, 즉 군신 간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화자는 '청광'을 보내고자 하면서 임(임금)이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 한낮같이 만'들기를 기원한다. 이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실제로는 군신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인 '앙금'을 차갑다고 함으로써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바꾸어 표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0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 가뜩 시름 많은데

〈보기〉에서 화자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는 시름과 슬픔으로 '머리털이 이때에 더욱 세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에서 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가뜩 시름 많은데(ⓒ)'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 두세 가지 피었어라

눈 속에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난 상황으로, '매화'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② 헛짚기 ⓑ 베개 맡에 비치니

'달'이 베개 근처에 비치는 상황으로, '달'은 화자로 하여금 임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이다.

④ 헛짚기 ⓓ 금자에 겨누어서

'금자로 재어서'라는 뜻으로, 화자가 임의 옷을 짓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⑤ 헛짚기 ⓔ 임에게 보내려고

임을 위한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보내고 싶다는 의미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보여 준다.

48 가 파초 나 수철리 다 견회요

작품 분석 본문 190~193쪽

가 파초

작가 김동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향수와 현실 극복 의지
특징 ① 대상의 의인화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② 호칭의 변화('파초' → '너' → '우리')를 통해 대상과의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좁혀짐을 드러냄.
③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파초의 가련한 (**꿈**)
❷ 파초의 (**외로운**) 넋
❸ (**파초**)에 대한 지극한 정성
❹ 파초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❺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나 수철리

작가 김광균
갈래 산문시, 서정시
주제 죽은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
특징 ① 화사한 자연의 이미지와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를 대조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 (**누이동생**)의 무덤 주변의 풍경
- 인적 없는 (**무덤**) 주변의 쓸쓸함
-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다 견회요

작가 윤선도
갈래 연시조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대구법과 반복법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❷ 자신의 (**충성심**)과 결백에 대한 호소
❸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❹ (**어버이(부모)**)에 대한 그리움
❺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마음

40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나)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통해 화자가 죽은 누이동생의 무덤에 찾아온 정황이 드러나 있다. 또한 (다)는 제4수의 초장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를 통해 그리움의 대상인 '어버이'를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함으로써 파초와 함께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견뎌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나)의 '한 줌 흙을 헤치고 ~ 눈 뜰 것만 같애'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가), (다) 모두 화자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부재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가)에는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견뎌 내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나)에는 누이동생의 무덤에 찾아와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 즉 화자의 정서가 주로 나타날 뿐이므로, (가)와 (나)에 대립적 가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다)에서는 제2수의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와 제3수의 '임 향한 내 뜻'에서 간신들의 모함과 화자의 충심이라는 대립적 가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가치들이 작품 전면에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가)~(다)에서는 모두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40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나)와 (다)에는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나)는 죽은 누이동생의 묘지에서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다)는 먼 곳으로 온 화자가 임과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모두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다)는 모두 ~~자연 현상을 통해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는 파초라는 자연물을 노래하고 있고, (나)에서는 누이동생의 무덤가에 있는 '밤나무'나 '시내' 등의 자연물을 언급하고 있고, (다)에서는 흐르는 '시내'와 '외기러기'라는 자연

물에 화자가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다) 모두 자연 현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가)와 (나)는 시행의 점층적 변화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시행의 점층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40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A]에서는 파초를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샘물을 길어 파초에게 주는 '나'의 연민을 구체화하고 있다. [B]에서는 '시내'가 주야로 울며 흐른다고 의인화함으로써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문답의 형식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A], [B] 모두 문답의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A],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A], [B] 모두 어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A]의 파초에게 물을 붓는 행위, [B]의 흐르는 시내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정적인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⑤ 부재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A], [B] 모두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40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화적**: 상대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 **독단적**: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
- **낙천적**: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 **비관적**: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

정·정·이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가)에서 화자는 파초에게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함께 견디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나즉 — 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 같은 누이동생이 실제로는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서러운 생각'에 눈물로 '옷소매'를 적시고 있다. 즉 화자는 누이동생의 죽음이라는 현실 상황이 바뀔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파초를 가련하게 여기면서 정성과 헌신을 다하고 있을 뿐, 파초를 용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화적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을 뿐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 오류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파초에 대해 연민, 동질감, 유대감 등을 드러내고 있을 뿐, 단정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이를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는 없다.

③ 화자 오류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파초에 대해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연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을 그리워하고 있으나, 이러한 화자의 그리움이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화자 오류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4연의 '이제 밤이 차다.'와 5연의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에서 '밤'과 '겨울'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한 현실을 의미하므로, (가)에 낙천적인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화자는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은 누이동생과 영원히 단절된 현실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현실 상황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05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의 화자는 대상에 대해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

ㄴ. (가)의 화자는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의 5연의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에서 화자는 파초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파초와 함께 '겨울'이라는 시련의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ㄴ). 이로 보아 화자는 파초에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ㄱ).

ㄷ. (나)의 화자는 대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누이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서러운 생각'에 잠겨 있다.

오·오·이

ㄹ.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현실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이 죽은 현실의 상황을 서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 현실이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감은 보이고 있지 않다.

40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각성**: 깨달아 앎.

정·정·이

③ 의문형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다)의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등에서 의문형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다)는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가 전달하려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다)의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가 전달하려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대구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부재 ~~의도적으로 어순을 뒤바꾸어 화자의 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나), (다) 모두 의도적으로 어순을 뒤바꾸는 도치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의 각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범위 오류 (나)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차단 — 한 비석',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등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는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부재 ~~청유형 어법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다) 모두 어떠한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 어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40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화자가 파초의 발등에 물을 부어 주거나 자신의 머리맡에 있게 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파초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파초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에게 파초는 보살핌을 베푸는 모성적 존재라기보다는 돌보아야 할 대상이자 연민의 대상, 동일시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파초를 '머리맡'에 둔다는 것은 파초를 곁에 두고 돌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러한 화자의 행위가 계속될 것임을 드러낸다.

②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화자는 파초를 위해 즐겨 '종'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화자의 헌신적인 태도를 통해 파초를 아끼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화자는 파초를 위해 물을 길어 붓고, 파초를 머리맡에 있게 하며 파초의 종이 되고자 한다. 이는 화자가 파초에게서 느끼는 연민과 동질감, 일체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집약된다.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밤이 차다', '우리의 겨울'이라는 시구를 통해 파초와 화자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와 파초가 처한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상징한다.

40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 오류 3연의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에서 ~~현실을 초~~

~~월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알 수 있다. (○, ⊗)

'나'가 샘물을 길어 파초에게 부어 주는 것은 파초를 돌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파초에 대한 연민과 동질감에서 비롯된 행위로,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2) 4연의 '이제 밤이 차다.'에서 '나'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40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현재의 상황을 '밤이 차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나'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파초에 대한 호칭이 1연에서 '파초', 2연에서 '너', 5연에서 '우리'로 변화하는 것에서 '나'가 파초에게 점차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파초에 대한 화자의 호칭이 '파초 → 너 → 우리'로 변화하는 것에서, 화자가 파초에 대해 점차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귀의**: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함.

정·정·이

③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에서 곧은 지조를 변함없이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군.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시내가 임을 향한 화자의 뜻을 따라 밤낮으로 흘러 그칠 줄을 모른다는 의미로,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를 드러내는 구절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제1수의 '그 밧긔 여남은 일'은 화자가 ~~추구하는~~ 추구하지 않는 가치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알 수 있군.

'그 밧긔 여남은 일'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신념대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내 몸의 해올 일만 닦'는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 오류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에서 ~~유년 시절의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군.

'이 마음 어리기도'는 화자의 마음이 어리석다는 의미로, 유년 시절의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화자 오류 제4수의 '많고 많고 하고 하고'에서 ~~속세를 떠나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알 수 있군.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어버이 그린 뜻', 즉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에서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다 실패한 화자의 좌절~~을 알 수 있군.

'하늘이 삼겨시니'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 하늘의 뜻임을 밝혀 그 절대성과 당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운명을 거스르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1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비', '눈', '별'은 '물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인적 없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아오는 자연물들로, 무덤의 적막함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이 소재들이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환 — 하고', '아득 — 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환 — 하고', '아득 — 한' 등에 쓰인 '—'는 장음 부호로, 시어를 길게 읽게 함으로써 시어가 가지는 느낌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누이동생의 무덤 옆에 있는 '밤나무'가 바람이 올 때마다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젓는 것에서 무덤 주변의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드러난다.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은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누이동생의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화자는 '묘지'에 있는 누이동생의 무덤에 찾아와 누이동생을 떠올리고 있다.

411 답 (1) 묘지 (2) 흰나비 (3) 가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묘지)'은/는 화자가 '누이동생'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화자는 누이동생이 묻힌 '묘지'에서 누이동생을 떠올리고 있다.

(2) 교체 '(흰나비)'은/는 여윈 누이동생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시어이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은 여윈 누이동생의 모습을 가리키므로,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시어이다.

(3) 교체 '밤나무'의 '여윈 (가지)'은/는 적막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누이동생의 무덤 옆 '밤나무'의 '여윈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고요하고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41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5수의 '불효'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임 위한 탓'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자는 '임이 혜여 보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제5수의 '불효'는 임금을 잊는 것이므로, 임을 위해 행한 '내 일'과 상응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임이 혜여' 보고 판단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내 일'에 대해 '아무가' 이르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수의 '임이 혜여' 보고 판단하기를 바라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뫼'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제3수의 '추성'은 화자가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제4수의 길고 긴 '뫼'와 멀고 먼 '물'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 그리움의 대상인 '어버이'로부터 멀다고 인식되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수의 '뜻'은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을 의미하고, 제5수의 '뜻'은 임금을 향한 마음을 의미한다. 제5수에서 임금을 잊으면 '불효'라고 함으로써 효의 대상을 어버이에서 임금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올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수의 '내 몸의 해올 일'은 아무가 아무리 옳다, 외다 하여도 '임 위한 탓'으로 '나'가 지향하는 충심에 해당한다. 이는 제5수에서 '임금 향한 뜻'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9 가 님의 침묵 나 나뭇잎 하나 다 춘면곡(春眠曲)

작품 분석 본문 194~197쪽

가 님의 침묵

작가 한용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임을 상실한 슬픔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특징 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태도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님(임))과의 이별
❷ 이별 후의 고통과 (슬픔)
❸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함.
❹ 님(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나 나뭇잎 하나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
특징 ① 자연물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제시함.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③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함.
한 줄 의미
❶ 무성한 (신록) 속에서 인식하지 못한 나뭇잎의 존재
❷ 단풍 들고 (낙엽)이 떨어질 때도 인식하지 못한 나뭇잎의 존재
❸ 오직 하나 남은 (나뭇잎)이 지고 나서야 그 존재를 인식함.
❹ 나뭇잎의 존재를 (인식)한 후에 깨달은 인생의 의미

다 춘면곡(春眠曲)

작가 미상
갈래 가사
주제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대구, 과장, 감정 이입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꿈)에서 임을 만남.
❷ 임에 대한 (그리움)
❸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41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임과 함께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과거에 '나뭇잎'을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을 환기하며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

의 화자는 임과 만나 사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나)에는 계절의 변화(여름 → 가을 → 겨울)가 표현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나뭇잎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변화를 화자가 인간의 삶과 연관 지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한편 (다)의 '엊그제 꽃이 ~ 가득 가을 소리라'에서는 계절의 변화(봄 → 가을)를 표현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헛짚기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가)에는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이미지 등이, (나)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다)에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범위 오류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나)에서는 화자가 나뭇잎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 (다)에는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범위 오류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다)는 이별의 정한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나)는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41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의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 ㉡에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과 ~~㉡~~ 모두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에서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역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1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의 '옛 맹서'와 (다)의 '한바탕 꿈'은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가)의 '옛 맹서'는 '님'과 함께했던 사랑의 약속으로 과거의 추억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의 '한바탕 꿈'은 시름과 한을 못다 이른 채 흩어지고 마는 허무한 것이지만, 화자가 그리워하던 '님'과 만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옛 맹서'와 '한바탕 꿈'이 모두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가)의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에서 '아아'는 '님'이 떠난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또한 (다)의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에서 '어화'는 '님'과 이별하고 다시 만날 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은 화자가 눈멀었던 '님'의 모습이고,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꿈에서 만난 '님'의 모습이므로 모두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낸다.

④ (가)의 '사람의 일'과 (다)의 '내 일'은 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

(가)에서 화자는 사랑이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이별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일'은 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의 '내 일'은 '나도 모를 일'로, 앞 구절의 '언제면 다시 볼까'를 고려할 때 '님'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가)의 '눈물'은 '님'과의 이별로 인한 것이고, (다)의 '시름과

한'은 꿈에서 만난 이별한 '님'에게 화자가 털어놓고자 한 것이므로, 모두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볼 수 있다.

41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고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소멸)' 사라지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다. 이때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의 반복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는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연과 2연에서는 '~이(가) 온통 / ~ 때 / 그곳을 ~면서 나는 / ~었다'의 형태의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과거에 대상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1~3연에서 '골짜기' → '길' → '대추나무' → '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골짜기(1연)' → '길(2연)' → '대추나무(3연)' → '나뭇잎 하나(3연)'의 순서로, 화자로부터 거리가 먼 대상에서 가까운 대상으로 시적 대상이 바뀌고 있다.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1, 2연)', '문득(3연)', '마침내(4연)'와 같은 부사의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화자는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소멸)' 사라지는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41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1연과 2연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 이전의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416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2) 상반 1~3연에서는 시적 대상과의 거리를 ~~넓혀~~ 좁혀 가며 삶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416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가 시적 대상과의 거리를 좁혀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4연에서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

4연에서는 '저마다 한 개씩'을 반복하여 하나씩 돋아났다 하나씩 떨어지는 나뭇잎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41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쇄법**: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정·정·이

③ 부재 ㉰에서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는 역설법과 대구법을 사용하여 임이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에서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임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님은 갔습니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임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통해 화자의 좌절감을 그려 내고 있다.

'황금의 꽃'과 '차디찬 티끌'이라는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사용함으로써, 임과 이별한 화자의 좌절감을 그려 내고 있다.

④ ㉱에서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 이후,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다.

⑤ ㉲에서는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구절로, 이를 통해 화자의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이 드러난다.

41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보기〉를 통해 볼 때 한용운 시에서 침묵은 '님'의 부재이며 노래는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님'이 부재하는 침묵의 상황에서도 화자는 '님'의 실재를 느끼며, 노래를 통해 '님'과 깊이 교감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보기〉로 볼 때 화자는 노래를 통해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하려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사랑의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화자가 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③ 헛짚기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보기〉에서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는 것은 멀리 있는 '님'에게 화자의 노래가 들리는 것, 즉 화자가 노래를 통해 '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볼 때 ⓐ의 '사랑의 노래'를 자연 친화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은 침묵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서 침묵과 사랑의 선후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⑤ 교체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화자의 노래이지 '님'의 노래가 아니다.

420 답 (1) 침묵 (2) 노래 (3) 소통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님의 (침묵)'은/는 '님'이 부재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님은 갔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님의 침묵'은 '님'이 부재하는 이별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노래)'은/는 '님'과 교감하기 위해 화자가 취한 방법이다.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고 하였다. 이는 화자가 '노래'를 통해 '님'과 교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결과이다.

화자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노래'가 '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힘을 지녀 '노래'로써 화자가 '님'과 교감함을 드러낸다.

42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약**: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보편적**: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보기〉에서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각달', '잘새'는 헤어진 '님'의 곁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보기〉에서 관습적인 표현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관습적인 표현이 개인적 정서를 보편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A]에서는 '~ 되어 ~하고 싶다'는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과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보기〉에서 관습적 표현에는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오동', '제비', '나비' 등의 자연물을 사용한 표현은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보기〉에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에 담긴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때 (다)의 화자가 겪고 있는 고난은 '님'과 헤어져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42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외기러기'는 임과의 ~~현세의 인연을 후세로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이군.

'외기러기'는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현세의 인연을 후세로 이어 가고자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꿈을 생시 삼고지고'에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군.

'상사하던 우리 님'을 해후했던 '꿈을 생시 삼고지고' 하는 것에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③ '님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인 상황은 화자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여 주는군.

화자는 '님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고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임과 헤어진 화자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약수 삼천 리'에서 임과 화자의 거리감이 구체화되는군.

'약수'는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의 이름으로, 임과 화자의 거리가 약수 삼천 리만큼 멀게 느껴지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⑤ '조각달', '오동'은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가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군.

화자가 '조각달'이 되어 님의 낯에 비추고자 하고, '오동'이 되어 님의 무릎을 베고자 한다는 것에서 '조각달'과 '오동'은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가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50 가 나의 집 나 길 다 제망매가(祭亡妹歌)

작품 분석 본문 198~201쪽

가 나의 집

작가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그대를 기다리는 마음
특징 ①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②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심화함.
한 줄 의미
❶ '나'의 (**집**)을 짓고 '그대'를 기다림.
❷ 길을 다니는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
❸ 문간에 서서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그대**)'를 기다림.

나 길

작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본질적 자아 회복에의 의지
특징 ①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길을 걷는 행위를 통해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함.
③ 고백적 어조, 반복적인 표현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나아가는 (**길**)
❷ 끝없이 연속된 (**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과정
❸ 자아 성찰을 통한 (**부끄러운**) 자아 인식
❹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다 제망매가(祭亡妹歌)

작가 월명사
갈래 향가(10구체)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 극복
특징 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종교적으로 극복함.
② '바람', '잎', '한 가지'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함.
한 줄 의미
❶ 죽은 (**누이**)에 대한 혈육의 정과 슬픔
❷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
❸ (**슬픔**)의 종교적 승화

42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 집을 짓고 큰길을 내어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부정적 상황 속에서 자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맞이하여 미

타찰에서 만날 것을 도 닦아 기다리겠다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에는 모두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의 자연은 '나의 집'을 짓는 공간일 뿐 인간과 대비되지 않는다. (나)의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에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 누이의 죽음을 비유하고 있을 뿐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③ 범위 오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다)에서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는 그대를 기다리는 화자의 의지만 나타날 뿐 그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도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만 드러날 뿐, 잃은 것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가)~(다) 모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지향은 드러나지만,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⑤ 범위 오류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 등에서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와 (다)에 비판적인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424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다)에는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423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다)에는 모두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 화자 오류 (가)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소망의 실현에 대한 믿음이 제시되어 있다. (○, ×)

(가)에서 화자는 집을 지어 두고 그대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나 그대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실현에 대한 믿음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나)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

(나)에서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과 같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다)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이 대응되어 주제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 ×)

(다)에서는 어린 나이에 죽은 누이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응시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4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에서는 날이 저물 때부터 새벽, 아침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이 표현되어 있고, [B]에서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다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A], [B] 모두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A]에서는 '새벽 새가 울며', '고요하게' 등의 청각적 이미지와 '하이얀', '희게'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시간이 연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B]에서는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고 있다.

[B]에서는 '길'이라는 공간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간적으로 통한다고 표현하여 공간과 시간을 결합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A]에 '저물 때', '아침'과 같은 시간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B]의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흐르는 시간은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고뇌의 시간이다.

42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황량함**: 황폐하여 거칠고 쓸쓸함.

정·정·이

① 화자 오류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에서 화자가 짓는 '집'의 위치는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슭'이며, '넓은 바다의 물가 뒤'로, 여기에는 새로운 터에서 '그대'와 함께 지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이 '집' 앞에 큰길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는 점에서 '집'은 속세와 떨어진 공간이라 볼 수 없으며,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을 함축하고 있다.

'주머니'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는다는 것은 화자가 내면세계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는 길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화자의 무거운 심리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풀 한 포기'조차 없는 황량한 길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하고 고달픔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생사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므로, '머뭇거리고'에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427 답 (1) 하늘 (2) 저쪽 (3) 미타찰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에서 '(쇠문,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대상이다.

(나)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대상이다. '쇠문'은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의 성격을 지닌다.

(2) 교체 (나)에서 화자가 찾고자 하는 '잃은 것'은 담 (이쪽, 저쪽)에 있다.

담 이쪽에 있는 화자가 찾고자 하는 '잃은 것'은 담 '저쪽'에 있는 화자의 본질적 자아이다.

(3) 교체 (다)에서 '(미타찰, 이에 저에)'은/는 화자의 종교적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미타찰'은 화자가 누이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곳으로, 화자의 종교적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2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 ⓑ는 '풀 한 포기 없는'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

ⓐ의 '내'는 '담 저쪽에' 남아 있는 본질적 자아를, ⓑ의 '내'는 그러한 본질적 자아를 찾는 현실적 자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풀 한 포기 없는 길'과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이다.

오·오·이

① ⓐ를 찾는 것이 ⓑ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살아가는 이유는, '잃은 것', 즉 담 저쪽에 있는 ⓐ를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와 ⓑ는 굳게 닫힌 '쇠문'과 '돌담'으로 인해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돌담 저쪽에 있는 ⓐ를 찾고자 하지만 '쇠문'과 '돌담'이라는 장애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있다.

④ ⓑ가 '주머니를 더듬어' 찾으려고 한 것은 결국 ⓐ라고 할 수 있다.

ⓑ가 주머니를 더듬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행위이며, ⓑ가 찾으려 한 것은 결국 ⓐ라고 할 수 있다.

⑤ ⓑ는 길을 걷는 동안 '담 저쪽'에 있는 ⓐ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작정 길을 나섰던 ⓑ는 길을 걷는 동안에 담 저쪽에 있는 ⓐ를 인식하게 된다.

42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감 정조(단순한 감각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와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느낌.

정·정·이

⑤ 부재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가)에서 토속적인 방언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토적인 정감도 환기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하이얀 여울턱에 ~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등에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화자의 의지와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하이얀'은 '하얀'의 음절 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고, '그

대인가고'는 '그대인가 하고'의 음절 수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다. 이를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마지막 행에서 '그대인가고'를 반복하여 '그대'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다.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이얀', '희게'와 같은 색채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30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에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29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ㄴ. '희게'와 같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29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하이얀'과 '그대인가고'에서는 음절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하이얀'은 '하얀'의 음절 수를 늘린 것이지만, '그대인가고'는 '그대인가 하고'의 음절 수를 줄인 것에 해당한다.

ㄹ. 화자 오류 '그대인가고'를 반복함으로써 기다림 끝에 '그대'를 만난 화자의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대인가고'를 반복함으로써 '그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아직 '그대'를 만나지 못했다.

43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시각적 이미지로 재회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에서 재회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기에 시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감탄사를 활용하여 감정을 집약하고 있다.
9행에서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감정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의문형 진술을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어찌 갑니까'와 같이 의문형 진술을 통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④ 대상이 못다 한 말을 언급하며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다.
3행의 '나는 간다'는 시적 대상인 누이가 하지 못한 말로, 누이가 간다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 가지에 나고'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과 화자가 동기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② 시각적 이미지로 재회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시의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표현 방식과 그 효과가 모두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해요. 이 작품에는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②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소망을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43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소재이므로 '바람'은 누이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과 관련이 있다. 반면 A의 '바람'은 '도화'를 지게 하는 자연물일 뿐, 화자의 시련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B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A의 화자는 떨어진 '도화'를 그대로 두고 보려 하는데, 이때 '도화'는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잎(㉯)'과 달리, B의 '나무'는 임을 그리워하다 병이 든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의 '바람'에 의해 떨어지게 된 '잎(㉯)'과 A의 '바람'에 의해 진 '도화', B의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는 모두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눈물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나타낸 것이겠군.

5연에서 화자가 '눈물짓'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굳게 닫힌 '쇠문'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군.

3연의 굳게 닫힌 '쇠문'은 화자와 '잃어버린 나'와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는 것은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의미하겠군.

4연에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부끄럽게'를 통해 화자가 하늘을 보며 자기 성찰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5연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자기 성찰로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겠군.

6연의 '담 저쪽'의 '나'는 화자가 '잃어버린 나'이므로,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51 가 어부단가 나 독을 차고 다 가정

작품 분석 본문 202~205쪽

가 어부단가

작가 이현보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흥취와 나라에 대한 걱정
특징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대구법, 설의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함.
③ 자연과 속세를 드러내는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고 있음.
한 줄 의미
❶ (인세(속세))를 잊고 사는 어부의 걱정 없는 삶
❷ 자연에 몰입하여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삶(생활))
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나 독을 차고

작가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삶에 대한 의지
특징 ①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② 대비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독)을 차고 살아가는 '나'
❷ 독을 차서 무엇 하느냐는 (벗)의 충고
❸ 독을 차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
❹ 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나'의 굳은 (의지)

다 가정

작가 박목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가장으로서의 고달픔과 가족에 대한 사랑
특징 ①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② 다양한 비유를 활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현관에 놓인 (아홉) 켤레의 신발
❷ 고달픈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옴.
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낌.
❹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43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가)는 시름 없는 어부의 삶을 그리고 있으나, 제5수에서 '어주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나)는 '허무한듸!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며 화자를

설득하는 벗의 말에 삶의 허무함을 인정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 스스로를 '연민'하며 가장의 책임감을 느끼는 데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 있다.
(가)는 제5수의 '장안을 돌아보니 ~ 잊은 때가 있으랴'에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 (다)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범위 오류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
(나)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독'을 차고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다)의 화자는 고달픈 현실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범위 오류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다)는 화자가 '신발'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나)에는 '내 마음을 노리'고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로 표현된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지만, (가)와 (다)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43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순응**: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

정·정·이

(1) 화자 오류 (가)에는 ~~현실 극복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 ⊗)
(가)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흥취와 나라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 현실 극복에 대한 화자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상반 (나)에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여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
(나)에서 화자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라며 현실과의 대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여 살고자 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3) (다)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
'눈과 얼음의 길',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연민한 삶의 길',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이라는 표현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다.

43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범위 오류 ~~(나)와~~ (다)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다)는 '눈과 얼음의 길', '추운 길'에서 느껴지는 현실의 차가운 이미지와 '아랫목'에서 느껴지는 가정의 따뜻한 이미지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나)와 (다)는 각각 '독'과 '신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독'이라는 시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고, (다)에서는 가족에 대한 가장의 사랑과 책임감을 '신발'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허무한듸!', '아!'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다)는 '연민한 삶의 길이여.'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는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등에서 대화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다)는 '귀염둥아 귀염둥아 / 우리 막내둥아', '내 얼굴을 보아라' 등에서 화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⑤ (다)는 (나)에 비해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의 화자는 막내둥이의 작은 신발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아랫목에 모인, 강아지 같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이에 비해 (나)에서는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43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책무**: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정·정·이

③ 헛짚기 ㉢: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슬픔~~이 나타나고 있다.

'연민한 삶의 길(㉢)'에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스스로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난다. 화자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고 있으므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슬픔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시적 화자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을 의미한다.

'시인의 가정(㉠)'은 '눈과 얼음의 길' 등으로 표상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아홉 명의 자식과 화자가 함께하는 곳으로, 화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 막내둥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화자의 신발은 '십구 문 반(㉡)'으로, 막내둥이의 '육 문 삼'의 작은 신발과 대비되는데, 이는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 어미처럼 보살펴 주어야 할 어리고 귀여운 자식들을 비유한다.

자식들을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화자가 자식들을 보살핌이 필요한 어리고 귀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 반복을 통해 아버지의 등장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책임감을 부각하고 있다.

㉤의 '내가 왔다'와 이어지는 '아버지가 왔다'에서 '왔다'를 반복함으로써 아버지인 화자의 등장이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부각되고 있다.

43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화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으로 표상되는 고달픈 삶의 현실을 견뎌 내고 있다.

화자가 지켜야 할 대상은 '시인의 가정'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화자는 '연민한 삶의 길(㉢)'의 혹독함을 견뎌 내고 있다.

(2) 교체 (㉡)은 막내둥이의 신발과 대비되어 가장의 삶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내 신발은 / 십구 문 반(㉡)'은 '육 문 삼'밖에 되지 않는 막내둥이의 작은 신발과 대비되는데, 이는 가장이 짊어진 책무가 그만큼 무겁고 큼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3) 교체 (㉣)에는 아버지인 화자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 있다.

'강아지 같은 것들아(㉣)'는 화자가 자식들을 부르는 말로,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43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천심', '만첩', '십장'은 '장안'과의 ~~연대감~~ 거리감을 드러낸 표현이군.

'천심'이나 되는 녹수와 '만첩' 청산이 '십장'이나 되는 홍진을 가렸다는 점에서 '천심'과 '만첩'은 '장안'으로 대표되는 속세와의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십장 홍진'은 속세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장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어이지만, '장안'과의 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어부의 생애'는 화자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시름이 없는 '어부의 생애'는 화자의 유유자적한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인세', '홍진'은 화자가 있는 곳과 대비되는 공간이군.

화자가 잊었다고 하는 '인세'와, 녹수와 청산에 가려진 '홍진'은 화자가 있는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를 의미한다.

④ '잊은 때가 있으랴'는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어주'에 누워서도 '북궐'을 잊은 때가 없다는 것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화자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세현'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군.

'제세현이 없으랴'는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현실 정치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드러난다.

4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심**: 시흥(시를 짓고 싶은 마음. 또는 시에 도취되어 일어나는 흥취)이 생기는 마음.

정·정·이

③ 헛짚기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가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향 집을 떠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작가 김영랑은 세속의 명리를 탐하지 않고 고향 집에 머무르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리라'라는 표현을 집을 떠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을 차고 '가리라'라고 한 것은 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오·이

① '내 마음을 노리매'라는 시어에서 작가의 고통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리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리매'라는 구절에서는 작가의 고통과 위기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마음속에 '독'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마음속에 '독'을 차고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보기〉에서 알 수 있듯, 김영랑은 고향 집 뜰에서 시심을 가꾸며 삶을 보냈으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④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다.

삶이 허무하다며 독을 차서 무엇 하느냐는 '벗'과, 독을 차고 살겠다는 화자의 대화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떳떳한 길을 살고자 한 작가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작가가 고향 집에서 시심을 가꾸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보기〉에서 작가는 고향 집에서 곱게 피는 모란을 어루만지면서 시심을 가꾸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독'을 차고 살겠다는 시를 쓴 것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매우 고통스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441 답 (1) 벗 (2) 독 (3) 일제 강점기의 현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벗, 이리 승냥이)'와/과의 대화를 통해 시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독을 차서 무엇 하느냐는 벗과 화자의 대화를 통해 시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리 승냥이'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2) 교체 마음속에 지녔던 '(독, 혼)'이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대항으로 발현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40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마음속에 지녔던 '독'이 시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이나 저항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체 고향 집에서 시심을 가꾸며 살았던 작가이지만, (일제 강점기의 현실, 남도의 인정)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창작의 계기가 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3연에서 독을 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괴로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4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B~~ A: 저는 선생님과 달리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 했지요.

(가)에서는 속세를 의미하는 '인세', '홍진', '장안' 등과 자연을 의미하는 '녹수', '청산' 등이 대조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대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B: 선생님 시에는 저의 시와 마찬가지로 선명한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는군요.

〈보기〉에는 '눈'과 '붉은 꽃'이라는 선명한 색채 이미지가, (가)에는 '녹수', '청산', '홍진', '월백' 등에서 선명한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

② A: 네. 우리의 시에 어부가 등장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가)의 '어부의 생애로다'와 〈보기〉의 '배 붙여라 배 붙여라'를 통해 모두 어부가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A: 선생님은 흥(興)이라는 정서를 끌어냈는데, 저는 아직도 무심(無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흥치며 걸어가서'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후렴구를 통해 흥의 정서를 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는 '더욱 무심하여라.'를 통해 (가)의 작가가 무심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B: 선생님의 시에 나타나는 '없으니', '잊었거니', '무심하여라' 등의 시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군요.

'없으니', '잊었거니', '무심하여라' 등의 시어는 화자가 추구하는 무심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4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내맡긴 신세'는 화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김영랑의 초기 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내 마음'을 노래했으나, 후기 시는 외부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나)는 후기 시에 해당하는 작품이므로 화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다.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의미한다.

오·오·이

① '새로 뽑은 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새로 뽑은 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이리 승냥이'는 화자가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리 승냥이'는 화자의 마음을 노려 화자에게 덤비는 존재로, 화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에서 부정적 외부 세계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는 〈보기〉에 언급된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모습, 즉 부정적 외부 세계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외로운 혼'은 식민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은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독'을 차고 선선히 가려는 이유는 자신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외로운 혼'은 식민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은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52 가 휴전선 나 우포늪 왁새 다 주을 온천행

작품 분석 본문 206~209쪽

가 휴전선

작가 박봉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민족 분단의 비극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
특징 ① 수미상관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줌.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③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남과 (북)이 대립된 현실에 대한 인식
❷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안타까움
❸ (분단)의 현실로 쇠퇴해 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
❹ 다시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분단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
❺ 남과 (북)이 대립된 현실에 대한 한탄

나 우포늪 왁새

작가 배한봉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 우포늪의 생명력과 아름다움
특징 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우포늪의 풍경과 소리꾼의 모습을 형상화함.
② 실제 지명과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함.

한 줄 의미

❶ 한 소리꾼이 (왁새) 울음 되어 우포늪을 찾아옴.
❷ 소리꾼이 평생 찾아 헤맨 소리를 (우포늪)에서 찾음.
❸ 우포늪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무르익게 하는 왁새 (울음)

다 주을 온천행

작가 김기림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오심암의 경관에 대한 예찬과 세속적 삶에 대한 반성
특징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연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② 자연과 세속적인 삶을 대조하여 깨달음을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깨끗하고 겸손한 (오심암)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성찰함.
❷ 오심암을 떠나는 (아쉬움)과 재회에 대한 약속

44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예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 **직시**: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봄.

정·정·이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남북 분단의 현실과 연결 지어 우리 민족이 겪는 비극과 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소리꾼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연결 지어 그의 삶과 우포늪이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에서는 오심암이라는 바위로 대표되는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 공간과 세속적 삶에 물든 글쓴이를 대비하여 세속적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가)~(다)는 모두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런 세계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으며,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라 예견하고 있지도 않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 역시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가)는

(가)에서는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부정적인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 (다)는

(나)의 화자는 우포늪의 생명력을,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의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는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한 자연과 다른, 교만한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445

답 (1) 휴전선 (2) 우포늪 (3) 오심암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는 (휴전선)의 의미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가)는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남북 분단의 현실과 연결 지어 우리 민족이 겪는 비극과 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2) 교체 (나)는 (우포늪)의 왁새 울음소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자연과 치열한 예술혼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절창을 찾아 헤맨 소리꾼의 예술혼과 우포늪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왁새 울음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3) 교체 (다)는 (오심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에서는 오심암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며, 인간과 대비되는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44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가)는 ~~지각의 흐름~~에 따라, (나)는 ~~지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남북 분단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비판과 분단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는 한 소리꾼의 삶을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관련지어 형상화하고 있을 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는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가)는 1연과 마지막 연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분단의 극복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 한 대목 절창'(청각의 시각화),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청각의 촉각화) ~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청각의 시각화)' 등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왁새 울음과 소리꾼의 모습을 감각적이고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는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는 시어인 '꽃'을 통해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평생 진정한 소리를 추구했던 소리꾼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우포늪에서 구현된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이 지닌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가)에서는 '화산', '꽃', '바람'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진정한 소리를 찾고자 했던 소리꾼의 예술혼을 '우포늪 왁새'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44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흠결**: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함이 생김. 또는 그런 부족.
- **엄습**: 감정, 생각, 감각 따위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거나 덮침.

정·정·이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가)에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과 대조되는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티끌을 품은 듯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자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남과 북이 신뢰를 잃은 적대적 상황 속에서 민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므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의 '검은 절경'은 붉게 누렇게 물든 단풍과 조화를 이루는 오심암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것이므로,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과는 거리가 멀다.

③ 헛짚기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 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 즉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의미하므로, 전쟁을 이겨 낸 삶의 의지를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다)의 '찬기'는 글쓴이로 하여금 자신이 '거리' 즉,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을 환기한다. 글쓴이가 '찬기'로 인해 잠시나마 정든 오심암을 떠나고는 있지만, 이때 드러나는 심정은 아쉬움이지 절망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범위 오류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민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므로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미친 바람'은 먼지를 품고 있는 부정적 존재를 상징하므로,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⑤ 범위 오류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가)의 '요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꽃'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바위'는 세속적 삶을 잠시나마 망각하게 하는 존재이므로,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4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천동 같은 화산', '징그러운 바람'은 전쟁의 참혹성을 환기한다. (○, ×)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일어날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징그러운 바람'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휴전 상태인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의 참혹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2) 헛짚기 (다)의 '미친 바람'은 ~~글쓴이가 속세로부터 골짜기로 몰고 온~~ 먼지 바람을 의미한다. (○, ×)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을 글쓴이가 속세로부터 몰고 온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글쓴이는 이 골짜기에는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골짜기의 순결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과 ㉡은 모두 ~~절망적인 심정을 내포하는군~~.

(나)의 '왁새 울음(㉠)'은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는 것으로 화자가 '소리꾼'과 관련짓는 대상이고, (다)의 '오심암의 절경(㉡)'은 글쓴이가 예찬하는 대상이므로 모두 절망적인 심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② ㉠과 ㉡은 모두 예술적 경지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군.

(나)의 화자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던 소리꾼 사내의 예술적 지향을 우포늪의 '왁새 울음(㉠)'에서 발견하고 있고,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의 절경(㉡)'을 본 소감을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에게 ㉠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환기하는군.

(나)의 화자는 우포늪의 '왁새 울음(㉠)'을 들으며 본 우항산 솔밭, 우포늪 둔치 등의 자연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다)의 글쓴이에게 ㉡은 겸손의 가치를 상기시키는군.

'오심암의 절경(㉡)'을 두고 글쓴이는 '겸손한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의 화자는 ㉠을 통해 한 소리꾼 사내의 삶을 떠올리고 있고, (다)의 글쓴이는 ㉡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군.

(나)의 화자는 '왁새 울음(㉠)'을 통해 절창을 찾아 떠돌던 소리꾼 사내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의 절경(㉡)'을 보고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45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결부**: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

정·정·이

⑤ 상반 [E]: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동일시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하고,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E]는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하는 소리꾼의 영혼을 동일시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예술의 경지를 그려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왁새와 소리꾼을 대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A]: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A]가 화자가 상상으로 떠올린 연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고(①), [C]가 늪 뒷산 솔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왁새 소리를 소리꾼이 찾던 절창처럼 느끼는 화자의 놀라움이 담긴 부분임(③)을 알 수 있다.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의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고단하고 외로웠던'으로 보아, [B]는 득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소리꾼의 삶의 비애를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화자가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리꾼을 상상했다는 〈보기〉와 실제 지명이 나오는 [D]로 보아, 화자가 상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했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보기〉를 통해 작품을 한결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④에서 [D]의 '소목 장재 토평 마을'이 현실적 공간이 맞는지 알지 못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나요? 하지만 ④의 핵심은 '화자가 상상한 것을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결부했다는 것'이므로 ④는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이처럼 자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지의 단어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진술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45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적막한 늪'과 '시퍼런 물살'은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

'적막한 늪'은 우포늪의 모습을, '시퍼런 물살'은 '소목 장재 토평 마을 양파들'의 모습으로 모두 우포늪과 주변 마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꿈속'에서도 '절창'을 찾아 떠돌았다는 데서 득음에 대한 소리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꿈속'에서조차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며 진정한 소리를 찾아 헤매는 소리꾼의 모습은 득음에 대한 열망을 보여 준다.

②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는 '왁새 울음'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왁새 울음'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신다는 데서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우포늪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는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뜻한다.
소리꾼이 필생 동안 찾아 헤맸던 소리는, 득음의 경지에 이른 소리, 즉 절창을 의미한다.

⑤ '우포늪 꽃잔치'를 무르익히는 '소리꾼 영혼의 심연'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 준다.
'완창 한 판'을 끝내고 하늘을 선회하는 '소리꾼 영혼의 심연'은 '우포늪 꽃잔치'를 무르익히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 준다.

45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문체**: 문장의 개성적 특색. 시대, 문장의 종류, 글쓴이에 따라 그 특성이 문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 드러난다.
-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정·정·이

④ 헛짚기 ⓓ 학생 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의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순결한 자연에 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먼지, 즉 세속의 때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때 '티끌'은 세속의 더러움을 표현한 것이지 자연이 '티끌'처럼 작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오·이

① ⓐ: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심암 주변의 가을 풍경을 붉고 누렇게 물든 단풍, 검은 바위, 푸른 하늘빛, 흰 구름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② ⓑ 학생 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글쓴이는 오심암의 절경, 즉 자연을 '예술의 극치'라며 예찬하는 반면, 사람의 예술을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③ ⓒ 학생 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글쓴이는 오심암이 인간과 달리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함을 지녔으며, 인간과 달리 먼지 하나 없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통찰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 학생 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오심암을 바라보며 먼지 낀 의복을 입은 자신을 굽어보고,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몸뚱어리'와 '마음'을 지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다.

45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오심암'의 가을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
'짙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에서 '오심암'의 가을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화자 오류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 앞에서 멀리 있는 '벗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속세를 영원히 떠날 수는 없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
글쓴이는 좋은 것, 즉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벗들을 떠올리고 있다. 벗들이 속세에 속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속세를 떠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전달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3 가 꽃덤불 나 사랑 다 보리

작품 분석 본문 210~213쪽

가 꽃덤불

작가 신석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광복 후의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소망
특징 ① 상징적 시어와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③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 (**광복**)에 대한 소망
❷ (**조국**)의 광복에 대한 소망과 광복을 위한 노력
❸ 일제 강점하의 비극적 (**현실**)
❹ (**광복**)을 맞은 조국
❺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기대**)

나 사랑

작가 전봉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특징 ① 수미상관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줌.
②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냄.
③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① – (**정성**)을 다해 사랑의 토대를 만들어야 함.
❷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② – 사랑하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함.

다 보리

작가 한흑구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
특징 ① 시각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② 옛말을 인용하여 보리를 심는 농부의 정성을 강조함.
③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친근하게 지칭함.

한 줄 요약

❶ 늦은 (**가을**)에 농부가 보리를 심음.
❷ 추운 (**겨울**)을 이기며 자라나는 보리의 강인함
❸ (**봄**)이 되어 무성하게 자란 보리의 생명력

45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태양을 등진 곳', '밤', '헐어진 성터' 등의 표현을 통해 광복 이전의 암담한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 등의 표현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 '얼음같이 차디찬 눈' 등의 표현을 통해 보리가 자라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겨울의 추위를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겨울밤 달'이 찬 현실과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을 봄이, (나)에서는 '비바람이 삼킨 어둠'과 '훤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가, (다)에서는 춥고 어두운 겨울과 따뜻한 봄의 대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대조는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의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범위 오류 (다)는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다)에서는 '누렇던', '푸른'과 같은 색채어를 통해 겨울을 이겨 내고 자라난 보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 (나)에서는 색채어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부재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가)~(다) 모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헛짚기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태양', '꽃덤불', (나)는 '과목', (다)는 '보리'와 같은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55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 (나)~~, (다)는 모두 사물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
(다)에서는 보리를 '너'라고 부르며 보리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 (나)에서는 사물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2) (가)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
'태양', '봄', '꽃덤불' 등의 긍정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와 '태양을 등진 곳', '밤', '겨울밤'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3) (나)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
(나)는 '~는 일이다.'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

성하고 있다.

(4)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

(다)는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고 봄에 결실을 맺는 보리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45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단서**: 어떤 일의 시초
- **엄중**: ① 몹시 엄함. ② 엄격하고 정중함.

정·정·이

① ⓐ는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나)는 ⓐ를 통해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노래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는 시상 전개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가 반복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와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는 구체적인 행위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인간의 생애와 대조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가 과목을 심고 돌보는 구체적인 행위에 비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경외감을 자아낸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인격이 부여된 존재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생애와 대조되고 있지 않으며 비장감을 자아낸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는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대상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있고, ⓑ가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 ⓑ 모두 대상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⑤ 헛짚기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는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노래하기 위한 시상의 단서이므로,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다)는 보리가 겨울을 이겨 내고 자라나는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는 존재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45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권태**: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싫증.
- **적대적**: 적으로 대하거나 적과 같이 대하는 것.

정·정·이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항상'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즉 조국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부각하는 시어이다. (가)의 화자에게서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화자 오류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드디어'는 '서른여섯 해'나 되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 지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간절히 기다리던 광복을 맞게 되었음을 부각하는 시어이다.

④ 화자 오류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데, '아무리'는 이러한 적대적인 것들이 화자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화자 오류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혹독한 겨울을 이겨 낸 보리가 온 누리를 뒤덮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로, '이미'에는 보리의 강한 생명력을 예찬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458 답 (1) 서른여섯 해 (2) 보리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는 (서른여섯 해, 꽃덤불)을/를 회상하며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지난 서른여섯 해의 일제 강점기를 회상하며, 광복을 맞은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다.

(2) 교체 (다)의 글쓴이는 (보리, 노고지리)를 예찬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푸르게 자라난 보리를 예찬하고 있다.

45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천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 **해설피**: 해 질 무렵 햇빛이 옅거나 약한 모양.

정·정·이

⑤ 지금 눈 나리고 /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다시 천고의 뒤에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A]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노래하고 있다. ⑤의 화자 역시 눈이 내리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백마 탄 '초인'이 올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별의 상황에서 자신을 떠나는 임을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는 화자의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

② 헛짚기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화자가 '얼룩백이 황소'가 울음을 우는 '그곳',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헛짚기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무정한 '당신'에 대한 화자의 희생과 헌신이 드러난다.

④ 헛짚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화자가 봄의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46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 버린 벗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가)의 '몸'과 '맘'을 팔아 버린 벗들은 사랑하는 대상, 즉 조국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위협적인 것들로부터 조국에 대한 사랑을 지켜 내지 못한 이들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헐어진 성터'는 조국이 상실된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로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오롯한 태양', 즉 조국 광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대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해충'은 과목의 뿌리를 썩게 하는 존재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위협에 맞서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밤'은 '과목'을 위협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은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밤이 가고 나서 봄이 도래한 후에 가능한 일이며, '새 과목'이 솟는 것은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고통과 시련을 이겨 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지극한 노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랑의 결실에 해당한다.

461 답 (1) 결실 (2) 관심 (3) 지키지 못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꽃덤불'에 안기고,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모두 사랑의 (결실 노력)을 의미한다.

460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의 '꽃덤불'에 안기고,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2) 교체 (가)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누는 '이야기'와, (나)의 '지켜보는

일'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위협)을 의미한다.

460번-①, 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누는 '이야기'와 (나)의 '지켜보는 일'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3) 상반 (가)의 3연의 '벗'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으려는 것들로부터 그 대상을 (지킨,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나)의 '영영 잃어 버린 벗', '멀리 떠나 버린 벗', 몸과 마음을 '팔아 버린 벗'은 사랑하는 대상, 즉 조국을 빼앗으려는 위협적인 것들로부터 조국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46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정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봄의 춤'은 보리가 푸르게 자라 '온 누리'에 넘실거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보리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겸손함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굳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은 인내심이라는 인격적 속성과 연결할 수 있다.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들국화와 잔디 같은 다른 생명들이 추위에 고개를 숙이고 시들어 갈 때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은 고난을 이겨 내는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보여 준다.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다른 화초들이 모두 잠든 겨울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보리의 모습에서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노고지리들이 보리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라는 것은 보리밭이 노고지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 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리의 모습을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46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장미꽃 향내'와 '태양'은 ~~흙덩이들을 호미와 곡괭이로 낱낱이 부수며 고난을 견딘 농부들에게 찾아올 환희~~를 의미한다.

'장미꽃 향내'와 '태양'은 보리가 겨울을 견디면서 꿈꾸는 것들이다. 농부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성하게 자란 보리이므로 '장미꽃 향내'와 '태양'은 농부들에게 찾아올 환희라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보리가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는 것에서 보리의 끈기와 생명력을 느낄 수 있군.

추운 겨울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는 것에서 긴 겨울의 추위와 어둠을 이겨 내는 보리의 끈기와 생명력이 드러난다.

② 보리를 '정성껏 땅속에 묻'고 '희망의 봄'을 간직하는 농부들의 모습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본성을 보여 준다.

보리를 묻고, 봄이 되어 이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는 농부의 모습은 참을성 있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농부들의 본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은 보리가 이겨 내야 할 긴 겨울의 추위를 형상화한 것이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은 겨울에 불어오는 것으로, 보리가 이겨 내야 할 긴 겨울의 추위를 형상화한 것이다.

⑤ 봄이 되어 보리가 푸르게 '온 누리를 뒤덮'은 것은 결실의 보람으로 볼 수 있다.

봄이 되어 보리가 푸르게 자라나 '온 누리를 뒤덮'은 것은, 고난을 참고 견디면 따라오는 결실의 보람이라 할 수 있다.

54 가 초가 나 거산호 2 다 담초(談艸)

작품 분석 본문 214~217쪽

가 초가

작가 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해진 현실 상황
특징 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비유적 표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고립된 산기슭에서 (**고향**)을 떠올림.
❷ (**봄날**)의 고향의 모습
❸ 홍수가 난 여름의 고향과 (**젊은이들**)이 떠난 삭막한 가을의 고향
❹ 수확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말싸움**)만 일어나는 고향
❺ (**강물**)조차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의 고향

나 거산호 2

작가 김관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산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에의 동화
특징 ①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② 가변적인 인간사와 불변하는 자연을 대비함.
③ 역설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늘 변함없는 (**산**)의 모습
❷ 덕성을 지니고 삶의 (**모범**)이 되는 산
❸ 삶과 (**죽음**)을 산과 함께함.
❹ 산을 끝없이 (**그리워**)하며 삶.

다 담초(談艸)

작가 이옥
갈래 고전 수필
주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특징 ① 의인법, 문답법, 설의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꽃**)을 베는 것을 보고 탄식함.
❷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어 (**차별**)하는 인간에 대해 성찰하며, 차별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풀**)의 덕성을 예찬함.

4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쇠락**: 쇠약하여 말라서 떨어짐.
- **무상감**: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정·정·이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고 하며,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며 인간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는 피폐해진 농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으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사람은 맨날 변해 쌓'는다며 세속적 삶을 의미하는 장거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의 덕을 배우며 산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재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피폐해진 고향의 모습이 드러날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이나 인생에 대한 무상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다) 역시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꽃과 하찮게 여기는 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이나 인생에 대한 무상감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산과 교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에 나타난 장소는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이며, 화자는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다)의 1문단에서 글쓴이는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465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다)는 모두~~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

(가)는 봄에서 겨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고향의 자연의 모습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 (다)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헛짚기 (가)~(다)에서는 모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연 속에서 찾고~~ 있다. (○, ⊗)

(가)의 자연은 고향의 모습을 보여 줄 뿐, 인간의 문제 해결과는 관계가 없다. (나)의 화자는 '산'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있을 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연 속에서 찾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자연 속에서 찾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6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가)의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이미지의 '박쥐 나래'는 좀이 쳐진 낡고 어두운 이미지의 '고향을 그린 묵화'와 연결되면서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아서,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겠다고 하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나)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가)에서 '묵화'는 ~~'풍년'이 상징하는 희망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가)에서 '묵화'는 어두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풍년'은 고향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고향 마을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묵화'가 '풍년'이 상징하는 희망적 상황에 대응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의 '저승의 밤'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절망적인 상황과는 관계가 없고, 화자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 '북창'과 대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범위 오류 (가)에서 '묵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지점~~을 드러낸다.

(가)에서 고향을 그린 '묵화'에 '좀'이 쳤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좀이 쳐'는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에서 알 수 있듯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이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범위 오류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야 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닿을 수 없는 세계의 고립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가)에서 '묵화'를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오랜 세월에 낡고 닳아서 부분적으로 떠오르는 조각, 즉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화자의 생각 속에서 띄엄띄엄 떠오르는 분절된 고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산을 배우고 산의 정기를 그리며 살고자 하므로, 닿을 수 없는 세계의 고립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가)의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는 '가시내'의 부끄러움의 정서가 담겨 있다. 그러나 (나)에서 '보옥'은 '산'의 겸허함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안타까움의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46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화자는 '산'이 '태고로부터 푸르러' 왔으며, '고요하고 너그럽고,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함을 지녔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산'이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를 통해, 화자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산'은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을 통해 화자는 '산'이 삶과 죽음을 이어 준다고 보며,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를 통해 '산'을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네 품이 내 고향'이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운 산아', '산을 그리며',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 등에서 화자가 '산'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화자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며,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운다고 하였다. 또한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 꿈 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화자는 '산'을 평생 함께하는 존재이자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시적 대상인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관점을 묻는 문제예요. (나)에서 '산'은 불변하고,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러한 특성들은 인간의 덕성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②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화자가 '산'을 보고 느낀 점이지, '산'이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②는 답이 될 수 없어요.

46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대응하여 ~~이승에서와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467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는 죽은 뒤에도 '산'과 함께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산을 배우네'라며 산에게서 깨우침을 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변함없고,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겸허한 '산'에게서 깨우침을 얻고 있다.

② '사람'과 '산'의 속성을 대비하여 '북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맨날 변하는 '사람'과 달리 태고로부터 푸르러 변하지 않는 '산'의 속성을 대비하여 '북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46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한 것에서,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이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는 모란과 해당화를 들어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라며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화자 오류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어떤 자리에서 자라다 번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귀함'과 '천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화초가 자라나 번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③ 교체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하늘~~인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나'는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를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상반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없다 본다.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47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경**: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와 경치.

정·정·이

③ 헛짚기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조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C]에서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은 홍수가 나서 앞내강에 씨레나무가 떠밀려 왔다는 의미로, 홍수로 인해 풍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는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오·이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 작가가 (가)를 유폐된 지역에서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며 지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은 유폐된 지역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B]에서는 '보리밭에 말매나물', '종달새 소리' 등으로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D]의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에는 애써 지은 농사의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에는 이러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가)는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 '강물조차 얼붙는다'와 같은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7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인**: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둠.
- **냉엄하고**: 일이나 상황이 조금도 빈틈없이 엄격하고.

정·정·이

② 헛짚기 '젊은이'가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다는 표현에는 유폐된 지역에서 시를 쓰던 시인의 ~~조망이 투영되어 있다~~.

〈보기〉를 통해 시인이 고향을 떠올리며 (가)를 유폐된 지역에서 창작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시인이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젊은이'에게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젊은이'가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다는 표현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오·오·이

① '술래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핀 모습은 평온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술래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핀 모습은 두 뺨이 붉게 물든 고향 마을의 가시내들을 묘사한 것으로, 고향의 평온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는 것에서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하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피로 가꾼 이삭'은 수확의 결실을 의미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고 '참새로 날아가' 버린 것에서 일제에 수탈당하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곰처럼 어린 놈'이 꿈꾸는 '북극'은 현실 너머의 이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강물조차 얼붙는' '한겨울 밤'은 냉엄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흐르는 강물조차 얼어붙는 한겨울 밤은, 냉엄하고 고통스러운 고향 마을의 비극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7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

여 주는군.

'호롱불'은 어두울 때 켜는 것이므로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젊은이'가 항구로 갈 때 타고 간 '뗏목'은 물결이 거세지면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것으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젊은이의 불안정한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물건을 사고파는 '장거리'는 이해타산에 따라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고, 나비가 다투어 찾는 풀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73 답 (1) 성에 (2) 장거리 (3) 요황과 위자, 범상한 화초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는 겨울에 생기는 '(성에, 입김)'(으)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에서는 겨울에 생기는 '성에'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2) 교체 (나)에서는 '(장거리, 고향)'(이)라는 공간으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나)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이해관계가 얽힌 '장거리'의 속성을 통해 세속적 삶의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3) 상반 (다)에서는 귀하게 대접받는 '(요황과 위자, 범상한 화초)'와 천하게 대접받는 '(요황과 위자, 범상한 화초)'를 대비해 풀의 차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다)에서는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요황과 위자'를 '범상한 화초'와 대비하여 귀하게 대접받는 풀과 천하게 대접받는 풀의 차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55 가 강 건너간 노래 나 묘비명 다 삶의 반영으로서 시

작품 분석 본문 218~221쪽

가 강 건너간 노래

작가 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특징 ① 수미상관식 구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함.
②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냄.
③ 직유법, 대유법, 의인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겨울밤 (강) 건너간 '나'의 노래
❷ (사막)까지 날아간 '나'의 노래
❸ 노래를 보낸 (이유)와 노래가 지닌 한계
❹ 부정적 현실에 눈물짓는 (밤)
❺ (무지개)보다 고운 옛일을 떠올리며 의지를 다지는 밤

나 묘비명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물질적 가치를 좇고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는 세태 비판,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특징 ① 단정적 어조와 요약적 서술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② 반어법을 통해 비판의 효과를 높임.
③ 의문문으로 끝을 맺어 시인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물질적·세속적 가치만 추구한 인물의 (비석)
❷ (문인)도 물질적 가치를 좇는 현실 비판
❸ 역사가와 (시인)의 역할에 대한 성찰

다 삶의 반영으로서 시

갈래 설명문

주제 인간의 일상적 현실과 지향을 반영하는 시

한 줄 요약

❶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시의 특성
❷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시의 특성
❸ 시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시인의 자기 (성찰)적 태도

47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명시적**: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정·정·이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가)는 화자가 부른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것을 쨍쨍 언 강과 사막을 건너가는 의지적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묘비'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것을 불의 뜨거움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남을 의지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가)와 (나)는 둘 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현실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② 범위 오류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내가 부른 노래', '~ 갔소'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지 않는다.

④ 범위 오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는 '달 밝은 밤', 하늘 끝에 닿은 '사막', '눈물 먹은 별'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불의 뜨거움'에서 촉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지만, 이것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범위 오류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 등의 표현은 물질적·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여 살았던 '그'의 비석을 지칭하므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반어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반어적 어조가 활용되지 않았다.

47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

5연의 '또 한 가락 어디멘가'에서 의문형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2) (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 등의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가)와 (나)는 모두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는 '섣달', '밤', '사막', '모래불' 등과, 희망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노래', '무지개' 등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정신적 가치를 의미하는 '시', '소설'과 물질적·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돈', '높은 자리'의 대립을 통해 물질적 가치를 좇고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하고 있다.

47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첫 연과 마지막 연에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연의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라는 시행은 5연에서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로 반복되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나)에서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으며, 청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가)는 해학적 어조를 통해, (나)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가)에는 해학적인 어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나)는 평서형의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노래함으로써 비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부재 (가)는 경어체를 통해, (나)는 대화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갔소', '죽겠죠' 등에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에는 대화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가)와 (다)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에서는 '쨍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47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나)는 '돈'이나 '높은 자리' 같은 물질적 가치로 인해 '시', '소설' 등의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은 '그'가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 것은 반어적 표현이다. '묘비명'은 부정적 인물을 기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이다.

오·오·이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다)의 3문단에서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에서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부르는 '노래'는, 시인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가)의 '노래'는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부른 것이므로, 시가 집조차 없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이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시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나)의 '묘비명'은 '한 줄의 시'도 읽지 않고 '돈'이나 '높은 자리' 같은 세속적 가치만 추구했던 사람을 위해 쓰인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사람의 삶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묘비명'은 시인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화자는 묘비의 기록이 살아남아 후세에 '귀중한 사료'가 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보아 시인은 묘비명을 통해 시인으로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관해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①~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
③~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
선지에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과 같이 진술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시를 표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에서 언급한 시라고 할 때'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선지의 의미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47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조**: 자기를 비웃음.

정·정·이

① (가)의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은 일상적 진실을 시에 비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가)의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는 시구로, (다)에서 언급된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교체 (가)의 '계집애 집조차 없'는 현실은 ~~시인이 지향하는 당위적~~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시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③ 교체 (가)의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은 ~~있어야 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시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계집애 집조차 없'는 현실과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은 모두 암담한 현실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시인이 지향하는 당위적 현실, 즉 있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상반 (나)에서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살아 남'은 묘비는 시인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비판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살아남'은 묘비는 물질적·세속적 가치만 추구한 삶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인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⑤ 헛짚기 (나)에서 '한 줄의 시',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는 '그'에 대한 평가는 ~~시인 자신에 대한 자조~~라 할 수 있군.

화자는 '한 줄의 시',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는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고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현실에 대한 비판이지, 시인 자신에 대한 자조라고 볼 수 없다.

47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극한**: 궁극의 한계. 사물이 진행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을 이른다.

정·정·이

④ 헛짚기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는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라는 관점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서 '반영'이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나타나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과 '있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지향을 담은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라는 표현은 '눈물', '조상(죽음)', '밤'의 이미지를 통해 일상적 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서는 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혹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노래가 건너간 강 저편의 공간적 배경을 '사막'으로 설정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상황이 삭막하고 고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화자가 절망적 현실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밤'에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대응시킴으로써, '있어야 하는 현실', 즉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48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시'는 대상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로, '비석'은 대상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시'는 '그'가 한 줄도 읽지 않은 것으로 화자가 '그'를 비판하게 된 이유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비석'은 갈등 해소의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시'는 정신적인 가치를, '비석'은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② '시'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고, '비석'은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정신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시'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비석'은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다(①, ②).

48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여기'에 있으므로 공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태도 또한 변화하지 않고 있다.

오·오·이

① ⓐ: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갔소'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 표현으로, 화자가 노래가 강을 건너간 날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②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노래가 '제비같이' 날아서 갔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노래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③ ⓒ: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어린 날개'가 지치면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을 것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슬픔, 죽음, 상실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48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력감**: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 **평탄**: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감.

정·정·이

④ 헛짚기 '사막'은 '푸른 하늘'이 덮여 있는 공간으로,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는군.

'사막'은 화자가 부른 노래가 건너간 공간으로, '푸른 하늘'이 덮여 있기는 하지만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슬픈 공간이다. 또한 '사막'은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막'을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섣달'과 '얼어 조이던 밤'은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암시하는 배경이군.

'섣달'과 '얼어 조이던 밤'은 모두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이다. 따라서 이는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어린 날개'는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시인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화자가 부른 '노래'는 강을 건너갔지만 '어린 날개'가 지치면,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약한 '어린 날개'는 식민지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느끼는 시인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떨어져 타서 죽겠죠'는 자신의 삶이 '노래'의 운명처럼 평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떨어져 타서 죽겠죠'는 '노래'가 계집애에게 전해지지 않고 죽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절망적 인식이 드러난다. (가)에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고뇌와 방황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떨어져 타서 죽겠죠'는 자신의 삶이 '노래'의 운명처럼 평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또 한 가락 어디멘가'는 '노래'가 간 곳을 몰라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또 한 가락'은 화자가 '옛일'을 곱게 짜내어 만든 노래로, 강을 건너서 간 노래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노래'가 간 곳을 몰라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6 가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나 고풍 의상 다 결빙의 아버지

작품 분석 본문 222~225쪽

가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갈래 설명문

주제 자연적 시간의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

한 줄 요약

❶ (**자연적**) 시간을 재구성하여 드러내는 문학적 시간
❷ 작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시제**)의 적용
❸ 서정시의 시간의 (**모호성**)

나 고풍 의상

작가 조지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고전적 아름다움

특징 ①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어투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선명히 드러냄.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시적 허용)를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임.

한 줄 의미

❶ (**봄밤**) 기와집의 정경
❷ 저고리와 치마의 (**아름다움**)
❸ 고풍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의 아름다움
❹ 고풍 의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됨.

다 결빙의 아버지

작가 이수익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어머니'를 청자로 한 대화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줌.
③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어린 시절 외풍을 막아 주던 (**아버지**)에 대한 회상
❷ (**자식**)을 돌보며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❸ 한강의 (**얼음**)을 통해 느낀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48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은 '봄밤'이라는 자연적 시간을 '두견이 소리'에 빗대어 문학적으로 재구성하여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은 대상을 곱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에 언급된,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 나게 드러내거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상반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묘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에서는 '건너', '열고'와 같이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표현하여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반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 모호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에서 '이 밤'과 '옛날'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이지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에서는 '흔들어지이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8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깜

- **고즈넉한**: 고요하고 아늑한.
- **직설적**: 바른대로 말하는 것.

정·정·이

(1) ㉠은 '두견이 소리'를 통해 봄밤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 ×)

483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은 '두견이 소리'에 빗대어 봄밤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에서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

㉡에서는 저고리와 치마를 보고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곱아라 고아라', '아름다운지고'와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3) 부재 ㉢에서는 ~~회상적 어조~~로 시적 대상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

시적 대상의 움직임을 '건너', '열고'와 같이 현재형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움직임을 회상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8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깜

- **윤회론**: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三界六道)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돈다는 이론.

정·정·이

④ 헛짚기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얼어붙은 잔등'은 품 안의 여린 물살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혹한을 막고 있는 얼음의 모습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화자를 품에 안고 '외풍'을 막아 주셨다는 것을 통해, 추위로부터 자식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각된다.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회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는 것에서, 삶에 대한 윤회론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얼어붙은 잔등'의 품 안에서 혹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바다로 흘러가는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얼음'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다)에서는 '여린 물살'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투영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48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목조 적산 가옥 이 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1연의 '목조 적산 가옥 이 층 다다미방'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예닐곱 살 적 겨울'이라는 과거에 화자가 위치했던 공간이다.

오·오·이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

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다)는 화자가 '어머님'을 청자로 설정하여 유년 시절 아버지와 겪었던 일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잇고 있다.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2연에서 화자가 '옛날처럼 나는'을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이다.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3연에서 화자는 오늘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어렸을 때 자신을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화자의 과거와 현재가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3연에서 '그 겨울밤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7 답 (1) 현재 (2) 통합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목조 적산 가옥'에서 보낸 '겨울'의 이야기를 (과거, 현재)의 '나'가 전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다)는 어른이 된 현재의 '나'가 '목조 적산 가옥'에서 보낸 '예닐곱 살 적 겨울'의 이야기를 '어머님'께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상반 '오늘'의 '나'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가 (통합, 분리)된다.

'오늘' '나'는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 주시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통합되고 있다.

48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2연의 '마음이 아프고', '눕고 싶습니다.'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을 실감 나게~~ 드러낸다.

'마음이 아프고', '눕고 싶습니다'에서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이는 화자의 현재의 심리를 드러낸 것일 뿐, 과거의 사건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1연에서는 '추웠지요', '했었지요'와 같이 과거형을 통해 사건이 화자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과거의 일임을 드러낸다.

1연의 '추웠지요', '했었지요'는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화자가 과거에 겪었던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1연의 '떨면서', '밀어 넣고', '파고들어'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동작의 변화를 실감 나게 드러낸다.

'떨면서', '밀어 넣고', '파고들어'는 모두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과거의 화자가 추위에 떨며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 안기던 동작의 변화를 실감 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2연은 '품어 주던 그 가슴이', '한 줌 뼛가루로 삭아'와 같이 과거형과 현재형을 함께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화자를 '품어 주던'(과거형) 아버지의 가슴은 이제 '한 줌 뼛가루로 삭아'(현재형) 붉은 흙에 뒤섞여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연의 '부드럽고 여린 물살'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현재형으로 표현된 구절로, 한강의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살을 통해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8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아미를 숙이고……'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는 '아미를 숙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호접'의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정서적 여운을 함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늘이운', '곱아라', '파르란', '기인'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연', '풍경', '처마', '호장저고리', '동정', '운혜 당혜', '대청', '거문곳줄' 등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여인의 움직임을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파르란 구슬빛', '자줏빛', '하얀' 등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여인이 입은 의복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90 답 ㄱ,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정서적 여운을 함축하고 있다.
489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ㄴ. 예스러운 말투를 통해 고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ㄹ.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호장저고리', '열두 폭 기인 치마', '운혜 당혜'를 통해 여인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여인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있는 움직임을 '호접'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ㄷ. 헛짚기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 여인의 의복를 묘사하고 있다.
489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색채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가 아니라 여인의 의복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어머님'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대화체를 통해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얼어붙은' 한강의 '얼음'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② 부재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역설적 상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처음과 끝부분을 대응~~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처음과 끝부분을 대응하는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화자 오류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시적 대상인 '아버지'의 거리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화자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49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꽝 꽝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대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은 화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꽝 꽝 얼어붙은 잔등'은 추위로부터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얼음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따라서 두 표현은 모두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된 표현으로 서로 대비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의 아버지가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것은 자식을 걱정하여 보살피는 아버지로서의 화자의 모습이다. 이는 유년 시절 화자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화자로 이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틋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그런 추억'이란 자식의 추위를 막아 주느라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자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과,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한 줌 뼛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아버지의 죽음을 나타내는 '한 줌 뼛가루'의 이미지와, 화자를 품에 안고 외풍을 막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로 연결되며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화자가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는 것은, 추운 겨울밤에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와 연결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아낸다.

49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나)의 화자의 시선은 '호장저고리', '기인 치마', '운혜 당혜'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있군.
(나)의 화자의 시선은 여인이 입은 '호장저고리', '기인 치마', '운혜 당혜'로 상의에서부터 신발로, 즉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나)의 '눈 감고 거문곳줄 골라 보리니'에서는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눈 감고 거문곳줄 골라 보리니'에서는 아름다움에 도취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자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다)의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과거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군.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어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부정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 오류 (다)에서 화자는 아버지가 '한 줌 뼛가루로 삭아 /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며 ~~죄책감~~을 드러내는군.
'한 줌 뼛가루로 삭아 /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⑤ 화자 오류 (다)에서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는 데서 ~~아버지가 더 이상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는군.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는 것은 화자가 한강 물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음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더 이상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확인할 수 없다.

57 가 동물원의 오후 / 나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다 문학에서의 이미지

작품 분석 본문 226~229쪽

가 동물원의 오후

작가 조지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과 비애
특징 ①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화자와 철책 안 동물들의 위치를 전도시켜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시름을 달래러 (**동물원**)에 감.
❷ (**슬픔**)을 하소연하려 함.
❸ 울고 싶은 심정으로 (**시집**)을 읽음.
❹ 동물들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깨달음.
❺ (**나라**) 없는 시인임을 자각함.
❻ 통곡의 심정으로 (**낙조**)를 바라봄.

나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작가 김현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밤이 지니고 있는 성장과 생명의 힘
특징 ① 과실 '밤'과 시간 '밤'의 이미지를 중첩함.
② 의인법과 낯설게 하기를 통해 시적 상황에 참신함을 부여함.
③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줌.

한 줄 의미

❶ 달도록 고요한 (**밤**)
❷ 고요한 밤 (**어린것**)들의 자는 모습
❸ 밤하늘에 뜬 (**별**)
❹ 이성이 아닌 감성과 (**상상**)의 시간인 밤
❺ 꽃이 지고 (**열매**)를 맺듯 성장의 시간인 (**밤**)

다 문학에서의 이미지

갈래 설명문
주제 문학 속 이미지의 의미와 기능

한 줄 요약

❶ 문학에서 (**이미지**)가 갖는 의미
❷ 이미지의 (**기능**) –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49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가)는 '속삭이는 소리……'에서, (나)는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에서 말줄임표로 시행을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다)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와 (나)에 모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가)에서는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나라 없는 시인' 등의 구절에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49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
(가)는 동물원을 찾은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어조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2) 부재 (가)는 지향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
(가)의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에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부재 (나)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
(나)에서 자연과 인간이 대립되고 있지 않다.

49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는 (나)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난 너를 구경오진 않았다'라고 하며 짐승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다)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어순을 도치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어조가 변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고조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의 시선은 모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와 (나)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대비하여 장면을 인상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가)의 '낙조'에서 붉은 이미지를 통해 장면이 인상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색채어가 대비되고 있지 않다. (나)에도 색채어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49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나)의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과 같이 비유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유한함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은 '꽃'이 떨어진 뒤에 '열매'가 열리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유한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의 '쇠창살', '철책', '창살 틈' 등의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긴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강렬성을 통해 단절과 속박이라는 시적 의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다)에서 이미지의 강렬성은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에서는 '쇠창살', '철책', '창살 틈'이라는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는데, 동물원의 동물을 가두는 이러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갇혀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한다는 점에서 단절과 속박의 의미가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와 같이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전도된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는 화자가 짐승들을 바라본 시각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표현을 통해 짐승

들과 자신의 처지가 전도된 것 같다고 느끼는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고 있다.

③ (가)의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다)에서 환기력이란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정서가 환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저녁에 지는 햇빛을 의미하는 '낙조'는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로, '통곡과도 같'다고 표현된 것에서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고 있다.

④ (나)의 '별들'이 '질서 있게 못을 박는다'와 같이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신선감을 통해 시간적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다)에서 신선감은 낯익은 대상을 낯설게 드러내어 참신함을 느끼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하였다. '별들'이 '질서 있게 못을 박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별'이라는 친숙한 대상이 '질서 있게 못을 박는다'고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별이 뜨는 시간인 밤을 형상화하고 있다.

49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나)의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구체적인 장면을 추상적으로 나타내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한다.

(다)에 따르면 내용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하였다. (나)의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시인들의 감성을 이끌어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밤'이라는 추상적 대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라는 표현은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화자의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라는 표현은 화자가 자신이 짐승들과 위치가 전도된 듯 단절과 속박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가)에서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에 해당한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는 실제로 들려온 소리가 아니라, 화자가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상상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통곡과도 같은 낙조'는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강렬성을 지닌다.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통곡과도 같은 낙조'라는 이미지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점점 깊어지는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며 의미를 집중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작은 벌레와 같이 / 이 고요 속에 파묻히고'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작은 벌레와 같이 / 이 고요 속에 파묻'힌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요하고 포근한 '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49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축**: 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기를 펴지 못함.
- **중첩**: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

정·정·이

② 헛짚기 2연의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를 통해 독자는 '밤'이 '새벽'이 오기 전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는 '밤'이라는 시간이 작고 어린것들을 감싸 성장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밤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이라 하였으므로,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1연의 '과실의 밀도'처럼 '달도록 고요하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라는 것에서 과실과 시간의 중첩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군.

〈보기〉에서 작가는 과실 '밤'과 시간 '밤'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실의 밀도'와 '달도록'을 통해서 과실인 '밤'의 이미지를, '고요하다'를 통해 시간인 '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4연의 '해체나 분석'과 '상상'의 대비를 통해 독자는 '밤'이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겠군.

〈보기〉에서 시간으로서의 '밤'은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된다고 하였는데, '해체나 분석'은 이성적 사유, '상상'은 감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4연의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겠군.

〈보기〉에서 '밤'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이라고 하였으므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밤'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6연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하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시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과실이 지니는 속성과 가치는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와 연결되어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벽을 향하여'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하는 것은, '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00 답 (1) 중첩 (2) 시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에서는 과실 '밤[栗]'과 시간 '밤[夜]'의 이미지가 (대비, 중첩)되어 표현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나)의 작가는 과실인 '밤'과 시간인 '밤'의 이미지를 중첩하여 표현하고 있다.

(2) 교체 (과실, 시간)(으)로서의 '밤'은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창작 능력을 배시키는 것으로 그려진다.

시간으로서의 '밤'은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으로 형상화되어,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50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망국민**: 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백성.

정·정·이

④ 화자 오류 공간Ⅱ에서 화자는 공간Ⅲ의 짐승과 전도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제장과의 단절을 지~~향한다.

공간Ⅰ은 현실, 공간Ⅱ는 동물원, 공간Ⅲ은 동물원의 '철책 안'이다. 화자는 슬픔을 하소연하기 위해 공간Ⅱ를 찾아갔으나 슬픔을 하소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나라를 잃은 처지임을 확인하고, 이는 공간Ⅱ의 화자와 공간Ⅲ의 짐승이 전도되었다는 인식으로 심화된다.

오·오·이

① 공간Ⅰ은 화자에게 소통이 제한된 억압적 상황이다.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Ⅰ(현실)은 시를 쓰는 것도, 읽는 것도 어려운, 즉 소통이 제한된 억압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② 공간Ⅱ는 화자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찾아간 공간이다.

화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하기 위해 공간Ⅱ(동물원)를 찾아갔다.

③ 공간Ⅰ에서 공간Ⅱ로 이동한 화자는 자신이 망국민임을 느낀다.

화자는 공간Ⅱ(동물원)로 이동한 후,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며 '나라 없는 시인'인 자신의 처지를 느끼고 있다.

⑤ 공간Ⅰ~공간Ⅲ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극적 인식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공간Ⅰ(현실)에서 공간Ⅱ(동물원)로 찾아간 화자가 공간Ⅲ(철책 안)의 짐승들을 보면서 자신과 짐승들의 위치가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극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 **인위적**: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정·정·이

② ⓐ는 내면적 상황을, ⓑ는 외적인 상황을 부각한다.

ⓐ의 '속삭이는 소리'는 화자의 나라 잃은 망국민으로서의 인식을 드러내고, ⓑ의 '응헤야 소리'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흥겨운 상황을 부각한다.

오·오·이

① 헛짚기 ⓐ는 ~~대상~~화자의 처지를, ⓑ는 ~~화자~~농민들의 처지를 드러낸다.

ⓐ는 대상이 아니라 망국민으로서의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은 화자가 아니라 농민들의 처지를 드러낸다.

③ 범위 오류 ⓐ는 ~~후회의~~ 정서를, ⓑ는 자족의 정서를 환기한다.

ⓐ에 후회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는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흥겨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족의 정서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는 ~~인위적인 조건~~과, ⓑ는 자연적인 조건과 연계된다.

ⓐ는 화자 내면의 인식을 드러내므로 인위적인 조건과 연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이 다함께 부르는 노래이므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리라 할 수 있다.

⑤ 헛짚기 ⓐ는 ~~실제적인~~ 현상을, ⓑ는 ~~환상적인 현상을 유발~~한다.

ⓐ는 동물원의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짐승들이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화자의 인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현상이 아니다. 한편 ⓑ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이 내는 소리로 실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Memo

Memo

정답과 해설

채움

현대시

Ⅰ. 단독 4

Ⅱ. 복합 ❶ 25

Ⅲ. 복합 ❷ 149

빠른 정답 찾기

Ⅰ 단독

본문 18~37쪽

01	001 ② 002 (1) × (2) × (3) ○ 003 ④ 004 ④ 005 ㄱ, ㄴ, ㄷ 006 ⑤
02	007 ② 008 (1) × (2) × (3) ○ 009 ④ 010 ④ 011 ④
03	012 ④ 013 (1) ○ (2) × (3) ○ 014 ③ 015 ② 016 (1) 청춘기, 성숙 (2) 긍정적 (3) 이별
04	017 ② 018 ㄱ, ㄴ, ㄷ 019 ③ 020 ① 021 (1) ○ (2) × (3) ○
05	022 ④ 023 (1) × (2) ○ (3) ○ 024 ③ 025 ④ 026 (1) 외로움, 그리움 (2) 수용 027 ③
06	028 ③ 029 ③ 030 ③ 031 ④ 032 (1) 너 (2) 산업화 (3) 낯익은 얼굴들
07	033 ② 034 (1) 기 (2) 수미상관 (3) 시각적 035 ⑤ 036 ⑤ 037 ③
08	038 ④ 039 (1) ○ (2) × (3) × 040 ① 041 ③ 042 ②
09	043 ② 044 (1) × (2) × (3) ○ 045 ② 046 ① 047 ③
10	048 ④ 049 (1) ○ (2) × (3) ○ 050 ④ 051 ② 052 ③

Ⅱ 복합 ❶

본문 40~163쪽

11	053 ④ 054 (1) × (2) ○ (3) ○ 055 ② 056 ⑤ 057 (1) 육지, 섬 (2) 플라스틱 물건, 호미 058 ① 059 ② 060 ③ 061 ②
12	062 ⑤ 063 (1) ○ (2) ○ (3) × 064 ③ 065 ② 066 ② 067 ② 068 ④ 069 ㄴ 070 ②
13	071 ⑤ 072 ① 073 ③ 074 ② 075 (1) ○ (2) ○ (3) × 076 ⑤ 077 ① 078 (1) 활자 (2) 붙박힌 말들 (3) 숨죽이고 079 ②
14	080 ④ 081 (1) ○ (2) ○ (3) × 082 ① 083 ② 084 ④ 085 ④ 086 ③ 087 ④
15	088 ② 089 (1) ○ (2) ○ (3) × 090 ⑤ 091 ③ 092 ㄴ 093 ⑤ 094 ④ 095 ① 096 ④
16	097 ① 098 (1) × (2) ○ (3) ○ 099 ① 100 ④ 101 ㄱ, ㄷ 102 ④ 103 ③ 104 (1) 생명감 (2) 색채 (3) 토속적 105 ③
17	106 ① 107 (1) ○ (2) × (3) ○ 108 ② 109 ④ 110 ② 111 ③ 112 ③ 113 (1) 먼 길, 하늘 (2) 너, 우리 (3) 마당 114 ⑤
18	115 ⑤ 116 (1) ○ (2) ○ (3) × 117 ⑤ 118 ③ 119 ㄱ, ㄴ 120 ③ 121 ④ 122 (1) 낳는다 (2) 걷히는 (3) 경이로움 123 ④ 124 ②
19	125 ① 126 (1) ○ (2) × 127 ④ 128 ⑤ 129 ① 130 ② 131 ③ 132 (1) 낯선 (2) 사랑 (3) 잰나비 우는 133 ②
20	134 ② 135 (1) (가), (나) (2) (가) (3) (나) 136 ⑤ 137 ① 138 (1) ○ (2) × 139 ④ 140 ③ 141 (1) 아름다움 (2) 봄 (3) 대상의 묘사 142 ④
21	143 ③ 144 ③ 145 ⑤ 146 ② 147 (1) ㉤ (2) ㉣ (3) ㉠, ㉡, ㉢ 148 ③ 149 ② 150 (1) 모더니즘, 현대 문명, 토속적 (2) 지성 (3) 조화 151 ① 152 ②
22	153 ④ 154 ② 155 ④ 156 ③ 157 (1) ○ (2) × (3) ○ 158 ③ 159 ③ 160 (1) 피폐한 (2) 자조적 (3) 저항 161 ③ 162 ④
23	163 ② 164 ② 165 ① 166 ③ 167 (1) × (2) ○ (3) × 168 ④ 169 ⑤ 170 ① 171 ⑤
24	172 ① 173 (1) (가), (나) (2) (가) (3) (가) 174 ⑤ 175 ② 176 ② 177 ④ 178 ④ 179 (1) ○ (2) × (3) ○ 180 ⑤
25	181 ② 182 (1) (가) (2) (가), (나) (3) (나) 183 ④ 184 ③ 185 (1) ○ (2) × 186 ⑤ 187 ③ 188 ② 189 ③ 190 ④ 191 (1) 안 (2) 바다
26	192 ② 193 ㄴ, ㄷ 194 ② 195 ① 196 (1) ○ (2) × (3) ○ 197 ① 198 ② 199 (1) 청자로 설정 (2) 대비되는 (3) 대비, 동일시 200 ①
27	201 ④ 202 ① 203 ⑤ 204 ④ 205 (1) × (2) ○ 206 ② 207 ② 208 (1) 유랑민 (2) 향수 (3) 유년 209 ③
28	210 ⑤ 211 (1) ○ (2) × (3) ○ 212 ⑤ 213 ② 214 (1) 신중하게 (2) 구속 (3) 속박 215 ③ 216 ② 217 ② 218 ⑤ 219 (1) ○ (2) ×
29	220 ① 221 ㄴ, ㄹ 222 ① 223 ② 224 (1) 하얀 식물 (2) 확장 225 ④ 226 ④ 227 (1) ○ (2) × (3) × 228 ⑤
30	229 ③ 230 (1) (나) (2) (가), (나) (3) (가) 231 ① 232 ⑤ 233 (1) ○ (2) × (3) × 234 ① 235 ③ 236 (1) 고립 (2) 탈속적 (3) 포용 (4) 늙은 237 ⑤
31	238 ④ 239 ㄷ 240 ③ 241 ⑤ 242 (1) × (2) ○ (3) × 243 ② 244 ③ 245 (1) 부인 (2) 지연 (3) 수를 놓는 (4) 주체적 246 ④
32	247 ③ 248 (1) ○ (2) × (3) ○ 249 ③ 250 ④ 251 (1) 북간도 (2) 슬픔에 공감 (3) 각박한 252 ⑤ 253 ⑤ 254 (1) ○ (2) ○ (3) × (4) ○ 255 ③ 256 ①
33	257 ③ 258 ㄱ, ㄷ 259 ② 260 ④ 261 (1) × (2) × 262 ⑤ 263 ① 264 (1) 외적인 힘 (2) 내 고향 (3) 대비되는 265 ③

34	**266** ① **267** ㄱ, ㄴ **268** ⑤ **269** ③ **270** (1) ○ (2) × (3) ○ **271** ① **272** ② **273** (1) 느티나무 (2) 상처 투성이인 **274** ⑤
35	**275** ④ **276** ② **277** ⑤ **278** ⑤ **279** (1) 현실의, 마음속 (2) 불일치 (3) 상실감 **280** ④ **281** ① **282** (1) ○ (2) ○ (3) × **283** ⑤
36	**284** ② **285** (1) (가), (나) (2) (나) (3) (가) **286** ② **287** ④ **288** (1) × (2) ○ **289** ② **290** ⑤ **291** (1) ○ (2) ○ (3) ○ (4) × **292** ④
37	**293** ① **294** (1) (나) (2) (가), (나) (3) (가), (나) **295** ③ **296** ④ **297** (1) ○ (2) × **298** ② **299** ③ **300** (1) 눈꽃을 피우기 (2) 순간적인, 인내와 헌신 (3) 눈꽃 **301** ⑤
38	**302** ③ **303** (1) (가) (2) (가), (나) (3) (가), (나) (4) (나) **304** ③ **305** ③ **306** (1) ○ (2) × (3) ○ **307** ② **308** (1) 대상의 이미지 (2) 황량한 **309** ② **310** ③
39	**311** ③ **312** ㄱ, ㄷ **313** ⑤ **314** ⑤ **315** ③ **316** ① **317** ④ **318** (1) ○ (2) × (3) ○ (4) ○ **319** ⑤ **320** ⑤
40	**321** ③ **322** (1) × (2) ○ (3) ○ **323** ⑤ **324** ③ **325** (1) 청각, 촉각 (2) 시원함 (3) 서글픈, 애정 **326** ⑤ **327** ④ **328** (1) 이상적 (2) 좌절 (3) 교감 (4) 속물적인 현실 **329** ④
41	**330** ② **331** ㄴ, ㄹ **332** ④ **333** ① **334** ④ **335** ③ **336** (1) × (2) ○ (3) ○ **337** ④

Ⅲ 복합 ❷

본문 166~229쪽

42	**338** ③ **339** (1) (가), (나), (다) (2) (가) (3) (다) **340** ③ **341** ⑤ **342** (1) 백골 (2) 또 다른 고향 (3) 먼 지평선, 까마귀 **343** ② **344** ② **345** ③ **346** ④ **347** ⑤
43	**348** ⑤ **349** ㄴ, ㄷ **350** ⑤ **351** ④ **352** ④ **353** ⑤ **354** (1) × (2) × (3) × **355** ④ **356** ④ **357** (1) 그릇 (2) 노래 (3) 살아 있는, 뇌수 **358** ②
44	**359** ④ **360** (1) (가), (나), (다) (2) (다) (3) (나) **361** ③ **362** ③ **363** (1) × (2) ○ (3) ○ (4) ○ **364** ③ **365** ④ **366** ㄱ, ㄹ **367** ⑤ **368** ④
45	**369** ⑤ **370** (1) ○ (2) × (3) ○ **371** ④ **372** ⑤ **373** (1) 밤 (2) 안타까움 **374** ④ **375** ⑤ **376** ⑤ **377** (1) 잔나비떼 (2) 눈보라 (3) 산짐승들 **378** ②
46	**379** ③ **380** (1) ○ (2) × (3) ○ (4) ○ **381** ④ **382** ⑤ **383** (1) (가), (나), (다) (2) (나) (3) (가), (나), (다) **384** ② **385** ③ **386** ㄱ, ㄷ **387** ③ **388** ② **389** ① **390** ①
47	**391** ④ **392** (1) ○ (2) ○ (3) × **393** ① **394** ③ **395** ㄱ, ㄴ, ㄹ **396** ⑤ **397** (1) 사랑 (2) 밧줄 (3) 불가항력적 **398** ③ **399** ④ **400** ③
48	**401** ③ **402** ③ **403** ① **404** ⑤ **405** ㄱ, ㄴ, ㄷ **406** ③ **407** ③ **408** (1) × (2) ○ (3) ○ **409** ③ **410** ⑤ **411** (1) 묘지 (2) 흰나비 (3) 가지 **412** ②
49	**413** ① **414** ② **415** ② **416** ④ **417** (1) ○ (2) × (3) ○ **418** ③ **419** ② **420** (1) 침묵 (2) 노래 (3) 소통 **421** ④ **422** ②
50	**423** ② **424** (1) ○ (2) × (3) ○ (4) ○ **425** ④ **426** ① **427** (1) 하늘 (2) 저쪽 (3) 미타찰 **428** ② **429** ⑤ **430** ㄱ, ㄴ **431** ② **432** ① **433** ③
51	**434** ④ **435** (1) × (2) × (3) ○ **436** ② **437** ③ **438** (1) ㉢ (2) ㉡ (3) ㉣ **439** ③ **440** ③ **441** (1) 벗 (2) 독 (3) 일제 강점기의 현실 **442** ③ **443** ③
52	**444** ① **445** (1) 휴전선 (2) 우포늪 (3) 오심암 **446** ③ **447** ② **448** (1) ○ (2) × **449** ① **450** ⑤ **451** ④ **452** ④ **453** (1) ○ (2) ×
53	**454** ⑤ **455** (1) × (2) ○ (3) ○ (4) ○ **456** ① **457** ③ **458** (1) 서른여섯 해 (2) 보리 **459** ⑤ **460** ② **461** (1) 결실 (2) 관심 (3) 지키지 못한 **462** ④ **463** ④
54	**464** ③ **465** (1) × (2) × **466** ① **467** ② **468** ③ **469** ④ **470** ③ **471** ② **472** ④ **473** (1) 성에 (2) 장거리 (3) 요황과 위자, 범상한 화초
55	**474** ③ **475** (1) × (2) ○ (3) ○ **476** ① **477** ⑤ **478** ① **479** ④ **480** ③ **481** ⑤ **482** ④
56	**483** ① **484** (1) ○ (2) ○ (3) × **485** ④ **486** ② **487** (1) 현재 (2) 통합 **488** ④ **489** ⑤ **490** ㄱ, ㄴ, ㄹ **491** ④ **492** ④ **493** ①
57	**494** ④ **495** (1) ○ (2) × (3) × **496** ② **497** ⑤ **498** ⑤ **499** ② **500** (1) 중첩 (2) 시간 **501** ④ **502** ②

I 단독

01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작품 분석 본문 18~19쪽

작가 황지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
특징 ① 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를 드러냄.
② 시구의 반복과 점층적 전개를 통해 의미를 강조함.
③ 상승적·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자립성과 생명력을 지닌 (**나무**)
❷ 냉혹한 현실 속에 (**서**) 있는 나무
❸ 나무의 저항과 극복 (**의지**)
❹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노력하여, 고난을 극복한 나무가 이루어 낸 결과

00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근경**: 가까이 보이는 경치. 또는 가까운 데서 보는 경치.
- **원경**: 멀리 보이는 경치. 또는 먼 데서 보는 경치.
- **포착**: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 **토속어**: 어떤 지방의 고유의 정취가 느껴지는 말.

정·정·이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나무의 변화하는 모습을 연결 어미 '-면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 터지면서' 등에서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나무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시에는 청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는 토속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부재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00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이 시에는 반어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재 청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적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001번-①의 해설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영상으로', '막 밀고 올라간다' 등에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나무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0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상반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나무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 시에서는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노력하여 고난을 극복한 나무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벌 받는', '이게 아닌데' 등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대상을 주체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무를 겨울을 이겨 내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의인화하고 있다.

③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불타면서', '부르터지면서',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푸

르른 사월 하늘' 등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견디며 봄을 맞아 푸른 잎과 꽃을 피우는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접속 부사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여 부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대상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를 전후로 시상이 전환되면서 영하의 날씨로 고통을 받던 나무가 자기 부정을 한 후 내적 노력과 의지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꽃을 피워 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0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A]에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B]에서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그 싹이 푸른 잎이 되어 하늘을 들이받는 모습은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A]의 '온몸을 뿌리 박고'에서 하강적 이미지가, [B]의 '내밀고', '하늘 들이받으면서'에서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② 헛짚기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A]의 '뿌리 박고'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굳건함을 나타내므로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B]의 '부르터지면서' 역시 영하에서부터 영상 13도까지 지상으로 막 밀고 올라가 싹을 틔우는 나무의 생명력을 보여 주므로 좌절감과 관계없다.

③ 헛짚기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의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정을 드러낸다.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의 혹한을 꿋꿋이 이겨 내는 모습을, [B]의 '들이받으면서'는 하늘 높이 잎을 틔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싹'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A]의 '벌'은 나무가 헐벗은 몸으로 추위를 맞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겨울-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그러나 [B]의 '싹'은 그 시련을 견디고 틔운 결과물이므로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05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면적**: 일정한 범위 전체에 걸치는 것.

정·정·이

ㄱ. [A]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나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A]에서는 영하의 추위에서 헐벗은 채 서서 시련을 겪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ㄴ. [B]는 고난 극복을 위한 나무의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B]에서는 온몸이 으스러지고 부르터지면서도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을 피우는 나무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ㄷ. [A]와 [B]는 현재 시제를 통해 나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A]의 '뿌리 박고', '쳐들고' 등에서, [B]의 '내밀고', '들이받으면서' 등에서 현재 시제를 통해 나무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ㄹ. 화자 오류 [A]에서 [B]로 갈수록 화자는 나무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영하의 날씨에 헐벗은 채 서 있던 '겨울-나무'가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봄-나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고 있을 뿐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00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배치**: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둠.
- **지연**: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 또는 시간이 늦추어짐.
- **비약**: 지위나 수준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됨.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은 나무가 겨울을 이겨 내고 싹을 내밀어 푸른 잎이 되기까지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며, ㉡은 나무가 자신의 온몸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나

온 표현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나무의 외적 변화와 내면을 동시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과 ㉡은 쉼표로 인해 끊어 읽게 됨으로써 시상의 진행이 잠시 속도를 늦추게 된다(①). 그리고 이렇게 호흡이 느려짐으로써 독자는 나무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좀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②).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싹'이 '잎'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천천히', '서서히'는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이 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림을 말해 주는 것이다.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는 '자기의 온몸으로'에서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의 비약적 상승에 대한 화자의 감탄과 감동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 윗글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의 시구에 담긴 의미와 그 기능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문제예요. ㉠과 ㉡의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뒤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또 ㉠과 ㉡에서 쉼표와 유의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해요.

02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작품 분석 본문 20~21쪽

작가 나희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

특징 ① 의인법과 도치법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바를 강조함.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고백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③ 지시어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초점을 모음.
④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구체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나')**)의 편견(선입견)과 이해의 과정

❷ 화자의 (**복숭아나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감

0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와 같이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중심 소재인 '복숭아나무'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시는 높임의 종결 어미 '-습니다', '-ㅂ니다'를 사용하여 고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할 뿐,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헛짚기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2연의 마지막 행에서 서술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어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고,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시상의 마무리는 상황의 긴박성과 관련이 없다.

④ 헛짚기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복숭아나무'를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헛짚기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흰꽃', '분홍꽃' 등에서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정·오 지름길

①~⑤에서 언급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 즉 '경어체를 사용', '지시어를 반복', '도치된 문장', '의인법', '색채어'는 이 시에서 모두 활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표현상의 특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주목해야 해요. 표현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의 경우 표현 방식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적절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00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미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

이 시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을 뿐, 미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부재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이 시에는 상징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환상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도 않다.

(3)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조금은 심심한 얼굴' 등에서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0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어체**: 상대에 대하여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문체.
- **시적 여운**: 시를 읽고 난 후에 마음에 남아 있는 운치(고상하고 우아한 멋).

정·정·이

④ 부재 대상이 지닌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역설적 표현~~을 활용해야겠군.

이 시에서는 복숭아나무가 지닌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수천의 빛깔'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역설적 표현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고백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어체를 사용해야겠군.

② 운율감을 형성하기 위해 유사한 종결 어미와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해야겠군.

이 시에서는 높임의 종결 어미 '-습니다', '-ㅂ니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고백적 분위기를 조성하고(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②).

③ 작품을 읽은 후에도 시적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문장을 도치시켜 표현해야겠군.

'가만히 ~ 오는 소리를'에서는 말의 차례를 바꾸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겠군.

'흰꽃과 분홍꽃', '수천의 빛깔', '복숭아나무 그늘'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1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촉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피우고 싶은 꽃빛'이 많아서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지니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는 화자가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에서 복숭아나무에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1연 3행에 드러난 복숭아나무에 거리를 두는 화자의 마음이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멀리로 멀리로만'은 복숭아나무를 피하는 화자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복숭아나무에 거리를 두던 화자의 인식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보고 바뀌게 된다. 이때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E]는 화자가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은 후의 상황이다. 화자는 그 수천의 빛깔이 '흩어진 꽃잎들'이 되어 먼 데로 날아간 후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가까이에서 본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01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에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타인의 모습을 인식하게 됨.~~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에서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수많은 '꽃빛'을 피우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이기에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에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타인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에서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나타남.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에는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관찰한 화자의 선입견이 나타나 있다.

② '멀리로 멀리로만'에서 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남.

'멀리로 멀리로만'에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생겨난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나 있다.

③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에서 타인의 본모습을 발견함.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에서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본질, 즉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는 이 시구를 통해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알지 못했던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발견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에서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함.

'복숭아나무 그늘'은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만히 들었습니다'를 통해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낙화

작품 분석 본문 22~23쪽

작가 이형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특징 ① 자연 현상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냄.
③ 추상적 대상을 자연물로 구체화하여 표현함.
④ 의인법, 영탄법, 은유법, 직유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낙화)의 아름다움 –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의 아름다움
❷ 꽃이 짐. – (사랑)이 끝남.
❸ 낙화를 순리로 받아들임. – (이별(결별))을 순리로 받아들임.
❹ (열매)를 맺기 위한 낙화 – 성숙을 위한 이별
❺ 아름다운 낙화의 모습 –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
❻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짐.

01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충만**: 한껏 차서 가득함.
- **직면**: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감내**: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냄.
- **번민**: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함.
- **회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정·정·이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봄에 꽃이 짐으로써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화자는 ㉣에서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별의 경험도 내적 충만과 성숙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을~~ 드러내고 있다.

㉠은 화자가 이별해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내적인 방황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화자 오류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격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이란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서 화자는 꽃이 지듯 젊은 때의 사랑이 끝났음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이별을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화자 오류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 '무성한 녹음'은 봄에 꽃이 떨어진 후 여름이 되면 맞이할 모습으로 이별 후 찾아올 모습이기도 하다. 이는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므로 화자가 삶의 목표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은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짐을 '샘터에 물 고이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1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에서 화자는 낙화의 모습을 통해 성숙한 이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다. (○, ×)

㉠에서 화자는 꽃이 떨어지는 자연 현상을 보고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있다.

(2) 부재 ㉢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별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3) ㉣의 '열매'는 '성숙하는 / 내 영혼'과 의미가 연결된다. (○, ×)

㉣의 '열매'는 '성숙하는 / 내 영혼'과 의미가 연결되어,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1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4연의 '무성한 녹음과 ~ 맺는 / 가을'로 보아 가난에서 오는 절망을 극복한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

'무성한 녹음과 ~ 맺는 / 가을'은 낙화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 시에서는 꽃이 떨어져야 무성한 녹음을 이루고 열매가 맺히는 자연 현상에 대응시켜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구를 가난에서 오는 절망을 극복한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2연의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로 보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거기에서 오는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보여.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에서는 '나'의 사랑과 꽃을 동일시하여 꽃이 떨어짐을 통해 사랑이 끝났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별로 인한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3연의 '분분한 낙화'로 보아 꽃이 져야만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와 그것에 순응하는 태도로 읽을 수 있어.

3연에서는 '분분한 낙화', 즉 어수선하게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5연의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로 보아 인생의 청춘기와 성년기의 경계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의 노래로 볼 수 있어.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는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청춘이 끝났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청춘기와 성년기의 경계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7연의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으로 보아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은 이별의 아픔을 통해 '나'의 영혼이 성숙해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미성숙에서 성숙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1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2연의 '봄 한철'과 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 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봄 한철'은 뒤에 이어지는 행을 볼 때 격정의 시간이고, 〈보기〉에 따르면 청춘기의 시간과 청춘기의 열정적인 사랑을 비유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꽃답게 죽는다'는 '낙화', 즉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청춘과 청춘기의 사랑이 끝남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봄 한철'과 '꽃답게 죽는다'라는 표현이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 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오·오·이

① 1연과 3연의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군.

'가야 할 때'는 이별해야 할 때로,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이다. 이 이별은 내적 성숙으로 이어지므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③ 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결별'을 '축복'이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별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④ 6연의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꽃을 의인화하여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세계와의 관계가 변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내 영혼의 슬픈 눈'은 앞 행의 '성숙하는'과 연결되어 이별의 아픔을 통해 성숙해 가는 화자의 자아상을 보여 주고 있다.

016 답 (1) 청춘기, 성숙 (2) 긍정적 (3) 이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봄 한철'은 (청춘기, 노년기)를, '가을'은 (고난, 성숙)의 계절을 의미한다.

'봄 한철'은 젊은 시절, 즉 청춘기를 의미하고, '가을'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 즉 성숙의 계절을 의미한다.

(2) 상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화자가 역설적 인식을 통해 이별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화자는 결별을 축복으로 여기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상반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아름다운 낙화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 이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꽃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의인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4 접동새

작품 분석 본문 24~25쪽

작가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비극적 삶을 초월하려는 애절한 혈육의 정
특징 ① 「접동새 설화」를 차용함.
②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나타남.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접동새)의 울음소리
❷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우는 누나(접동새)
❸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은 누나
❹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
❺ (동생들(오랩동생))을 못 잊어 슬피 우는 누나(접동새)

01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애상적**: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 **완급**: 느림과 빠름.
- **유기적**: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것.

정·정·이

② 부재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명령형 문장을 찾을 수 없다. '누나라고 불러 보랴'에서 '-랴'는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므로 명령형 문장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누이가 죽은 비극적 상황을 애상적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진두강 가람가', '진두강 앞마을' 등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한 연 안에서도 행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행과 짧은 행을 교차하여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2연과 3연에서 각각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이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운다는 내용의 2연과 그 이유가 제시된 3연을 결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018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차용**: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

정·정·이

ㄱ.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계승하여 표현하고 있다.

'진두강∨가람가에∨살던 누나는' 등에서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사용되었다.

ㄴ. 유사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5연의 마지막 시행에서 종결 어미 '-ㅂ니다', '-습니다'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ㄷ. 설화를 차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접동새 설화」를 차용하여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한과 남겨진 아홉 동생을 향한 누나의 애절한 혈육의 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ㄹ.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도 드러나 있지 않다.

01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음성 상징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음성 상징어인 '접동'을 반복·변주하여 한의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이 지닌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부재 ~~전명한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색채 이미지의 대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부재 ~~처음과 끝부분을 구조적으로 대응시켜서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처음과 끝부분을 구조적으로 대응시켜 시적 안정감을 주는 수미상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진두강 가람가', '진두강 앞마을' 등 구체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정서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

02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미련**: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 **자책**: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정·정·이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 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누나'가 죽어서도 동생들을 '차마' 못 잊고 걱정하며 밤마다 슬피 우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남겨 둔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3연의 '시샘'이 4연에서 '시새움'으로 변주된 것은 시의 음악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③ 헛짚기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누나가 '이 산 저 산' 떠도는 것은 의붓어미의 눈을 피해 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④ 헛짚기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누나가 '야삼경'에 우는 것은 '야삼경'이 의붓어미를 포함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이기에 의붓어미의 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헛짚기 '오랍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누나는 의붓어미의 시샘 때문에 죽은 것이므로 누나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책한다는 것은 이 시의 상황과 맞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 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보기〉에서는 김소월의 시에서 한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나'의 한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누나가 '차마' 못 잊는다고 한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02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는 누나의 비극적인 죽음을 드러내고 있다. (○, ×)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는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헛짚기 '차마 못 잊어'에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붓어미에 대한 누나의 원망~~이 담겨 있다. (○, ×)

'차마 못 잊어'는 죽은 누나가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낼 뿐, 의붓어미에 대한 누나의 원망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3) '이 산 저 산'으로 떠도는 접동새는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

접동새가 '이 산 저 산' 옮아가며 슬피 우는 것은, 죽어서도 동생들을 못 잊어 의붓어미의 눈을 피해 다니며 우는 누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05 흰 바람벽이 있어

작품 분석 본문 26~27쪽

작가 백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의지
특징 ① '흰 바람벽'을 매개체로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의 정서를 형상화하여 표현함.
② 화자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흰 바람벽)에 비친 쓸쓸하고 애처로운 삶의 단면
❷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
❸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인식 ① – 운명의 (수용)
❹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인식 ② –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현실 극복 (의지)

02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반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시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오·오·이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흰 바람벽', '가난한 늙은 어머니', '글자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한다.

현재형 어미 '–ㄴ다', '–는다'를 통해 흰 바람벽을 보며 상념에 젖어 있는 화자의 시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③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

화자는 좁다란 방에서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떠올리고, 그에 대해 말하며 쓸쓸하고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독백의 어조를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도치의 구문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초생달과 ~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와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라는 시구가 도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운명을 수용하고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02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나를 위로하는 듯이 ~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등에서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 화자의 내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

화자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고결한 삶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3)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

'희미한 십오 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시각), '달디단 따끈한 감주'(미각, 촉각),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공감각),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촉각) 등에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02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미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는 있으나, ㉢은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나타낸 것일 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에서는 전등을 의인화하여 지쳐 있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고 있다.

② ㉡: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에서는 때에 절고 낡은 무명 셔츠를 통해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④ ㉣: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에서는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인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신과 같이 외롭고 쓸쓸하면서도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인물로 '프랑시스 잠,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를 나열하고 있다.

0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B]에서는 타인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되고, [D]에서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B]에서 화자는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떠올리며 그리움과 애틋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B]와 [D]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B], [D] 모두 화자가 방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B]와 [D]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B]의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에만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 있다.

③ 범위 오류 [B]와 [D] 모두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전환한다.

[D]에서 화자가 자신을 높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B]에는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B]에서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D]에서는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난다.

[B]에서 화자는 어머니의 고달픈 삶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D]에서 화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6 답 (1) 외로움, 그리움 (2) 수용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화자는 [A]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B]와 [C]에서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A]의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에서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B]에서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C]에서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 상반 [D]와 [E]에서 화자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수용, 거부)하고 있다.

[D]와 [E]에서 화자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02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응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
- **침잠**: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함.

정·정·이

③ 화자 오류 [B], [C]에 나타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D]에서 자기 연민으로 전환되고 있다.

화자는 [B]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을, [C]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아닌 곁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D]에서 화자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 자기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에서는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던 화자의 시선이 내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A]에서 화자는 '십오 촉 전등', '무명 셔츠' 등 외부의 사물을 응시하다가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즉 내면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② [B], [C]에서는 [A]의 '흰 바람벽'을 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화자는 [A]에서와 같이 [B], [C]에서도 '흰 바람벽'을 보고 있으며, [B]에서는 어머니를, [C]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

④ [D]에서 지나가는 글자들에 내재된 자기 긍정의 정서가 [E]에서 강화되고 있다.

[D]에서 화자는 비록 자신은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높고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기 긍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E]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을 귀해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D]보다 더 강화된 자기 긍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D]에 나타난 애상적 정서에 침잠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E]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을 귀해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애상적 정서에 침잠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6 상행

작품 분석 본문 28~29쪽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왜곡된 근대화와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함.
② 근대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③ '~ 다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현실에 순응하여 비판 의식 없이 사는 소시민적 모습에 대한 (**비판**)
❷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❸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02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수미상응**: 시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비슷하거나 같게 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 수미상관, 수미쌍관.
- **투영**: 화자의 정서나 생각 등을 다른 대상에 반영하여 나타내는 표현.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정·정·이

③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생각지 말아 다오', '고개를 끄덕여 다오',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얼마나 경쾌하냐',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침묵해 다오' 등에서 시의 내용을 화자의 실제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를 활용하여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회상의 방식을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회상의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수미상응의 구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비슷하거나 같게 하는 수미상응의 구조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화자의 정서를 특정 사물에 투영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를 특정 사물에 투영하고 있지 않으며,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도 않다.

02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은 ~~역설적 표현~~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외형적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 '힘찬 노래'와 '자동차 소리'로 표상된 외형적 경제 발전이 부정적 요소를 가리고 있다는 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어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주간지'로 표상된 부정적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근대화된 사회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은 '풀벌레의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근대화로 인한 환경 파괴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다.

03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C]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다.

[C]에는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와 같이 의식하지 않으면 듣기 힘든 소리와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와 같이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대비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전환되지는 않는다.

오·오·이

① [A]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시상을 시작하고 있다.

[A]에는 '가을',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상행 열차'의 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다.

② [B]에서는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B]에는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 낯익은 얼굴들', '원색의 지붕들',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 등과 같이 당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제시되어 있다.

④ [D]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놀라울 때',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이 어색할 때' 등 상황을 가정하여 연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지 못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너'에서 '너'와 '나'로 대상을 확장하여 시적 상황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자인 '너'에게만 말하다가 [E]에서는 '너'와 '나'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임을 밝힘으로써 시적 상황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03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직면**: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개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 **이면**: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 **외면**: 어떤 사상이나 이론, 현실, 사실, 진리 따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함.

정·정·이

④ 헛짚기 A는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적 화자(A)가 인식 변화를 요청하는 존재는 낯선 얼굴(B)이 아니라 낯익은 얼굴들(C)이다. 시적 화자는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낯익은 얼굴들이 문제의식을 가진 낯선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오·이

① A는 개인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너'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시적 화자(A)는 '너'에게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등과 같이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너'에게 지금과 같은 개인주의적 태도를 버리라고 일깨워 준다고 볼 수 있다.

② B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낯선 얼굴(B)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존재, 급속하게 산업화된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존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C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

을 나타내고 있다.

낯익은 얼굴들(C)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존재, 부정적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에만 관심이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A는 '너'가, C로 대표되는 삶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냉철한 인식을 지니도록 요청하고 있다.

시적 화자(A)는 '그것(낯선 얼굴)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등을 통해 '너'로 하여금 낯익은 얼굴들(C)에서 벗어나 낯선 얼굴(B)이 되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 〈보기〉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서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중심으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낯선 작품이나 어려운 작품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작품에 대해 설명한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을 읽으면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032 답 (1) 너 (2) 산업화 (3) 낯익은 얼굴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이 시의 화자는 '(너, 낯선 얼굴)'에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시적 청자이자 대상인 '너'에게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2) 교체 이 시는 (세대 갈등, 산업화)(으)로 인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3) 상반 현실에 순응하며 비판 의식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낯선 얼굴, 낯익은 얼굴들)'로 표현하고 있다.

'낯익은 얼굴들'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 없이 순응하는 무비판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반면 '낯선 얼굴'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존재를 나타낸다.

07 정념의 기(旗)

작품 분석 본문 30~31쪽

작가 김남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열망과 기원
특징 ① 순수하고 평온한 삶에 대한 기원을 경건한 어조로 표현함.
② 구체적인 사물을 매개로 화자의 내면을 표현함.
③ 은유법, 반복법 등 다양한 수사법과 수미상관의 구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고독)과 번뇌를 느낌.
❷ (눈길)을 보며 혼란과 번민을 가라앉히고 평온과 안정을 찾음.
❸ (뉘우침(후회)) 없는 순수한 삶과 초월적 존재에 대해 기원함.
❹ 번민하고 갈등하면서도 (기도) 드리며 경건한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03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냉소적**: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기어 비웃는.
• **구도적**: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② 구체적 사물에 빗대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 사물인 '기'에 빗대어 번민하는 화자의 내면과, 번민과 갈등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어적 표현과 냉소적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부재 예찬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경건한 어조를 통해 화자의 열망과 기원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 예찬적 어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부재 대화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화체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구도적 자세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기도 드린다' 등에 구도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34 답 (1) 기 (2) 수미상관 (3) 시각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화자의 번민하는 마음을 '(기, 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연의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에서 '기'에 빗대어 번민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 교체 (선경후정,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연의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 보는 이 없는 시공에'와 유사한 시구를 6연과 7연에서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시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체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눈길 위에 /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03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이: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정·정·이

⑤ 시의 앞부분과 끝부분을 비슷하게 하여 시적 안정감과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034번-(2)의 해설을 참고할 때, 이 시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상 전개는 시적 안정감과 완결성을 확보해 준다.

오·오·이

① 부재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눈길 위에 /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을 뿐,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명령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명령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음성 상징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시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다양한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눈 오는 네거리', '눈길' 등의 공간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화자의 다양한 정서 변화도 드러나지 않는다.

03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내적: 정신이나 마음의 작용에 관한.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정·정·이

⑤ 화자 오류 7연: '시공'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드리는 것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내적 성숙을 ~~이루어 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는~~ 행위로 볼 수 있군.
화자가 '시공'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드리는 것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번민하면서도 내면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1연: '보는 이 없는'과 '없는 것 모양'을 관련지어 볼 때, 고독의 시간이 무관심과 외로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화자의 마음이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독의 시간이 무관심과 외로움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연: '혼란과 열기'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바라본 내면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혼란과 열기'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들여다본 화자의 내적 갈등과 번민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3연: '눈길 위'에서 '편안한 그늘'을 맞이하는 것은 번민의 시간이 성숙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눈길 위'에서 '편안한 그늘'을 맞이하는 것은 혼란과 번민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 내적인 성숙에 다가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5연: '무거운 비애'를 넘어선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고독의 시간을 자신의 내적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한 대상으로 볼 수 있군.
'무거운 비애'를 넘어선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내면 속 번민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내적 성숙에 다가가려고 노력한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내면 속 번민을 수용해야 하는 화자의 제념~~이 드러나 있다.
㉢에는 내면 속 번민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그늘'과 같은

평온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번민을 수용해야 하는 화자의 체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고독의 시간이 지속되어 왔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은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있던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과거의 모습이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 고독의 시간을 견디기 힘든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에는 고독의 시간과 내면 속 번민을 견디기 힘들어 '눈 오는 네거리'로 나서게 되는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④ ㉣: 내면의 성숙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에는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내면의 성숙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⑤ ㉤: 내면의 성숙에 다가선 대상과 마주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에는 내면의 성숙에 다가선 대상인 '벗'과 마주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

08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작품 분석 본문 32~33쪽

작가 정희성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특징 ① 미래의 가정적 상황 설정과 변주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② '슬픔'과 '그리움'을 의인화하여 구체화함.
③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를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줌.
④ 구체적 사물을 통해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함.
⑤ 각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
❷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
❸ (기다림) 끝에 당신과 만나기를 소망함.

0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지향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정한 점.
- **연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정·정·이

④ 헛짚기 ㉢에서 표현된 행위가 ㉤에 나타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어.
㉢의 '손을 주고'는 '당신'과 화자가 서로를 위로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의 '외롭고 긴 기다림'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의 행위는 ㉤의 상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오·이

① ㉠은 화자의 긍정적 지향점을,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은 '당신'과 화자의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은 화자가 그리움의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과 ㉤은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의 내용을 보여 주고 있어.
㉡과 ㉤은 모두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한 화자가 견디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③ ㉢과 ㉣은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과 ㉣은 '당신'과 화자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와 '당신'이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표현된 행위는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인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03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날과 씨'는 '당신'과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다. (○, ×)

화자는 '당신'과 자신을 '날과 씨'에 비유하여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 헛짚기 '하나의 꿈'과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화자의 사랑의 ~~슬픔~~ 결실을 의미한다. (○, ×)

'하나의 꿈'과 '한 폭의 비단'은 '당신'과 화자가 만나 함께하는 꿈, 즉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 헛짚기 '어느 겨울'은 화자가 ~~소망하는 미래의 상황~~을 나타낸다. (○, ×)

'어느 겨울'은 화자가 소망하는 미래가 아니라, '당신'과 화자의 사랑을 힘들게 하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04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부재 ⓐ에서는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② ⓐ, ⓔ의 '-다면', ⓒ의 '~ 끝에'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시에서는 '-다면'과 '~ 끝에'를 시행의 끝에서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 ⓔ에서는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1~3행(ⓐ)과 14~15행(ⓔ)이 변주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④ ⓑ, ⓓ에서는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와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기다리리(ⓑ)'를 통해 당신과 만나기 위해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고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 '춥게 하리(ⓓ)'를 통해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들의 사랑'은 견고할 것이라는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⑤ ⓔ에서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에서는 '~ 있다면'과 같이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를 종결함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04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피**: 도망하여 몸을 피함.

정·정·이

③ '그리움'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되기 쉽다.

〈보기〉의 (가)는 개인적 맥락에 따른 해석이고, (나)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른 해석이다. (가)의 맥락에서 보면 이 시는 연인의 사랑에 대해 노래한 작품으로, (나)의 맥락에서 보면 분단된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움'은 (가)의 맥락에서 보면 맺어지지 못하는 연인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의 맥락에서 보면 분단된 남과 북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움'은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꿈'의 경우 (가)와 (나) 모두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발견하기 쉽다.~~

(가)와 (나) 어떤 맥락에서 해석하더라도 '꿈'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찾기는 어렵다.

② 교체 '슬픔'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민족적 한의 정서에 연결되기 쉽다.

'슬픔'을 민족의 한의 정서로 해석하는 것은 (나)의 맥락과 연결될 수 있다.

④ 헛짚기 '겨울'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억압적 현실을 발견하기 쉽다.~~

'겨울'은 연인 혹은 남과 북을 갈라놓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므로 (가)와 (나) 중 어느 쪽의 해석에서 더 억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⑤ 교체 '사랑'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개인적 욕망에 연결되기 쉽다.

'사랑'을 개인적 욕망으로 연결하기 쉬운 것은,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해석한 (나)보다는 개인적 맥락에 따라 해석한 (가)이다.

04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현실이 힘들더라도 임과의 만남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해요.

이 시의 화자는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당신과 만나 하나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당신과 만날 날을 기다리며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보기〉의 화자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②가 적절하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임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아픔을 잊어야 해요.~~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고 당신을 만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①과 같이 말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③ 화자 오류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 당신은 지금보다 성숙해질 수 있어요.~~

이 시의 화자가 이별의 아픔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화자 오류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임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시의 화자는 당신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가 〈보기〉의 화자에게 ④와 같이 말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화자 오류 ~~당신의 슬픔과 임의 슬픔이 함께할 때 당신의 사랑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의 화자가 임과 슬픔을 함께해야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9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품 분석 본문 34~35쪽

작가 김수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기반성
특징 ①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함.
② 일상적 경험의 나열과 일화의 삽입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반복적 표현과 자조적 독백을 통해 반성적 태도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
❷ 중요한 일은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소시민적 모습
❸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나'의 (**옹졸한**) 삶
❹ 힘없고 무기력한 (**'나'(자신)**)의 존재 인식
❺ 정면에서 대결하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함
❻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옹졸함
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자조적인 자기반성

0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정서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의 '이런 일'은 전통이라고 할 만큼 오래된 화자의 옹졸함을 보여 주는 일화(포로수용소에서의 일)를 가리킨다. 이는 화자의 유약함과 옹졸함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것임을 보여 주므로 정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은 붙잡혀 간 소설가나 월남 파병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보다, 갈비에 기름 덩어리만 나온 일과 야경꾼이 돈을 받으러 여러 번 찾아오는 일과 같은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스스로를 비웃는 표현으로 자기반성의 의미를 강조한다.

③ ㉢: 의도적 행갈이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은 시행이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와 같이 '않고'가 앞 행에 붙어서 이어져야 호흡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않고'를 행갈이 하여 시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④ ㉣: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에서 '땅 주인'은 강자를, '이발쟁이'는 약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힘없는 자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옹졸한 모습을 부각한다.

⑤ ㉤: 동일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얼마큼 작으냐'를 반복·변주함으로써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자기반성을 강조한다.

04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설렁탕집'은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의 공간을 상징한다.
'왕궁'
(○, ×)

'설렁탕집'은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일 뿐이다.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권력의 공간을 상징하는 것은 '왕궁'이다.

(2) 상반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의미한다.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 ×)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일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이나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일 등을 가리킨다.

(3) 화자는 '얼마큼 작으냐'를 반복함으로써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

7연에서 화자는 '얼마큼 작으냐'를 반복함으로써 모래, 바람, 먼지, 풀처럼 작고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비속어**: 격이 낮고 속된 말.
- **일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흥미 있는 이야기.
- **삽입**: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음.
- **사회적 맥락**: 작품 창작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적 환경.

정·정·이

② 부재 비속어와 방언을 활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돼지 같은 주인 년' 등에서 비속어를 활용하고는 있으나 방언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대조적인 시어와 시구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붙잡혀 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 등과 같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시구와 기름 덩어리만 나온 '갈비', '야경꾼',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 등과 같이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시구를 대조하여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조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말하고 질문하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자조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일상적 경험의 나열을 통해 화자의 고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름 덩어리만 나온 갈비, 이십 원을 받으러 여러 번 찾아오는 야경꾼에 분개하고, 힘 있는 땅 주인이나 구청(동회) 직원이 아닌 힘없는 이발쟁이나 야경꾼에게 반항하는 일 등과 같은 일상적 경험을 나열하여 소시민적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고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구체적인 일화를 삽입하여 시적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부산 포로수용소의 야전 병원에서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다가 정보원에게 놀림을 받았던 일화를 삽입함으로써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이 전후 한국 사회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04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속물적**: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 **근성**: 뿌리가 깊게 박힌 성질.
- **맹렬한**: 기세가 몹시 사납고 세찬.
- **소시민성**: 한 사회에서 소시민(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 계급에 속하는 소상인, 수공업자, 하급 봉급생활자, 하급 공무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동적이며 중립적인 성질.
- **자각**: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 **처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정·정·이

① 헛짚기 '돼지 같은 주인 년'이라는 표현은 설렁탕집 주인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겠군.
자신

1연에서 화자는 '왕궁'으로 상징되는 독재 권력을 비판하는 대신 설렁탕집 주인을 욕한다. 〈보기〉에서 비속어의 사용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봄으로써 자기비판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돼지 같은 주인 년'은 '왕궁'을 비판하지 못하는 화자가 자신의 속물성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소시민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③ '전통은 유구'하다는 인식은 과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정확한 응시에 근거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김수영 시의 특징이 정직함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화자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응시의 결과로 스스로의 소시민성을 자각했음을 나타낸다(②). 그리고 3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옹졸함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임을 인식한 것 역시 과거 자신의 처신을 정확하게 응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③).

④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라 하겠어.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인,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기〉에서 김수영 시에 담긴 비판 정신은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힘이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의 반성은 자기비판을 넘어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겠군.

옆으로 조금쯤 비켜서 있는 것이 비겁한 것임을 알고 있는 화자는 자기비판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김수영 시에 담긴 비판 정신은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4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접는 것

ⓑ: ~~개 울음소리와 어린 애놈의 투정에 지는 것~~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접는 것은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의 울음소리와 어린 애놈의 투정에 지는 것은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낼 뿐,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 기름 덩어리 갈비에 대한 분개

ⓑ: 왕국의 음탕에 대한 분개

② ⓐ: 야경꾼의 잦은 방문에 대한 증오

ⓑ: 언론의 자유 요구와 월남 파병 반대

기름 덩어리 갈비와 야경꾼의 잦은 방문에 분개하는 것은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분개하는 것이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왕국의 음탕에 대해 분노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며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④ ⓐ: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것

ⓑ: 절정 위에 서 있는 것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것은 불의한 권력과의 대결을 피해 서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절정 위에 서 있는 것은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하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⑤ ⓐ: 이발쟁이에 대한 반항

ⓑ: 땅 주인과 구청 직원에 대한 반항

이발쟁이에게 반항하는 것은 약자에게 반항하는 것이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땅 주인과 구청 직원에게 반항하는 것은 강자에게 반항하는 것이므로 ⓑ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

ⓑ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

046번 〈보기〉의 ⓐ와 ⓑ에서는 대조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시가 대조적인 시구(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대조적인 시구(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는 작품의 경우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시를 읽을 때 같은 성격을 지니는 시구(시어)끼리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 두면 실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10 껍데기는 가라

작품 분석 본문 36~37쪽

작가 신동엽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순수하고 진정한 민족의 삶 추구
특징 ① 대조적 시어와 대유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명령형 어미의 반복적 사용으로 강한 의지를 표현함.
③ 직설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 추구
❷ (동학) 농민 운동의 숭고한 정신 추구
❸ 우리의 민족정신 회복과 (화합)에 대한 소망
❹ 부정한 대상에 대한 (거부)와 순수한 민족정신의 추구

04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에서 공간적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각각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두 산으로 '한반도'라는 공간을 환기할 뿐, 공간적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전환되지 않는다.

오·오·이

① ㉠에는 화자의 단호한 어조가 나타나 있다.
명령형의 종결 표현 '가라(㉠)'에서는 화자의 단호함이 나타난다.

② ㉡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아우성(㉡)'은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담긴 민중의 열정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③ ㉢은 화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라는 의미로 '껍데기는 가라.'를 수식하여 화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은 시적 허용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모오든(㉤)'은 의도적으로 맞춤법을 무시하고 쓴 시적 허용의 표현으로 '쇠붙이는 가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4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껍데기'는 '알맹이'와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 ×)
'껍데기'는 허위, 가식, 불의 등 부정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고, '알맹이'는 본질, 순수, 정의 등 긍정적인 존재들을 의미한다.

(2) 헛짚기 '부끄럼'은 ~~민족의 화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하고 있다. (○, ×)
'부끄럼'은 순수한 정신, 아름다움 등을 상징하므로 민족의 화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라에서 백두까지'에서는 대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
'한라에서 백두까지'에서는 각각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산으로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을 사용하여 분단의 극복과 민족 화합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5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C]: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C]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A]에서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A]: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알맹이'만 남아 있고 '껍데기'는 가라는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B]: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동학년'이라는 시어를 통해 반봉건·반외세 민족 운동이었던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동학 농민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⑤ [D]: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향그러운 흙 가슴'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본질, 정의, 민족정신, 순수하고 깨끗한 민족애 등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05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당면**: 바로 눈앞에 당함.
-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남. 또는 그런 일.
- **외세**: 외국의 세력.
- **추종**: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자신이 동의하는 학설 따위를 별 판단 없이 믿고 따름.

정·정·이

② 헛짚기 '중립의 초례청'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모순과 부조리가 담겨 있는 현실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보기〉에서 시인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고 했고, '중립의 초례청'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아사달 아사녀'가 맞절하는 곳이므로, 이곳은 민족이 화해를 모색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껍데기'는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껍데기'는 순수, 진실, 정의 등을 의미하는 '알맹이'와 대립되는 시어로, 허위, 가식, 불의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 따르면 시인은 외세의 개입과 이념 대립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으므로, '껍데기'가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맞절할지니'는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화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

〈보기〉에서 시인은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고 했으므로 '맞절할지니'에 민족 화합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흙 가슴'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흙 가슴'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보기〉에서 시인은 대지를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로 인식했다고 하였으므로 '흙 가슴'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쇠붙이'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부정적인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

'쇠붙이'는 '껍데기'와 마찬가지로 허위, 가식, 불의 등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이다. 따라서 시인이 외세의 개입과 이념 대립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다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쇠붙이'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부정적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5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아사달 아사녀'는 같은 공간에서 ~~대립하고 있는 ⓐ의 본질을 형상화한 것~~이군.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는 허위와 가식 없이 순수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므로 남북 분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명령형 문장 구조를 통해 ⓐ의 해결을 바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명령형 문장 구조를 통해 남북 분단의 극복과 민족의 화합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알맹이', '아우성'이 ⓐ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군.

화자가 4월의 '알맹이만 남고' 동학년의 '아우성만 살'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외세의 개입과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19 혁명과 동학 혁명의 순수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로 고통받는 공간이자 ⓐ의 해결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군.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므로, 남북 분단으로 고통받는 공간이자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쇠붙이'는 '껍데기'와 같이 ⓐ를 더욱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군.

'쇠붙이'는 '껍데기'와 같이 부정적 존재를 상징하므로 외세의 개입과 남북 분단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Ⅱ

복합 ❶

11 가 연륜 나 대장간의 유혹

작품 분석 본문 40~43쪽

가 연륜

작가 김기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특징 ①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함.
②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함.
③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덧없이 흘러간 지난 30여 년의 (삶)
❷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지난 삶
❸ 이상적 공간인 (섬)에 대한 지향
❹ 이상적 공간인 (섬)의 아름다운 모습
❺ 초라한 지난 삶에서 벗어나 열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다짐))

나 대장간의 유혹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도시적 삶에 대한 성찰과 가치 있고 참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특징 ①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② 대조되는 시어·시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③ 대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의 의미를 드러냄.
④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⑤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감을 구현함.

한 줄 의미

❶ 몰개성적이고 무가치한 존재(삶)에 대한 (거부)
❷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삶)로 살고 싶은 소망
❸ 과거의 (삶(인생))에 대한 반성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

05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1연에서는 '무너지는',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등과 같이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22~23행의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 똥덩이'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고 쓸모없었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나)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 숫돌에 갈아'에서 무쇠 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교체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나려 앉은 섬으로 가자'에서는 '갈매기'에 빗대어 '섬'으로 가고자 하는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교체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비췻빛 하늘', '눈빛 파도' 등에서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1연의 '서른 나문 해야'는 화자가 '서른 나문 해'를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며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05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는 (나)와 ~~달리~~ 모두 시적 공간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 ⊗)
(가)에서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대장간'에서 단련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무쇠 낫'과 '호미'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 (가)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서른 나문 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발 아래 깔리는 무너지는 꽃 이파리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3) (나)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에서는 '홍은동 사거리', '털보네 대장간'과 같이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05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한성**: 수, 양, 공간, 시간 따위에 일정한 한도나 한계가 있는 성질.
- **직시**: ①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봄. ② 사물의 진실을 바로 봄.
- **예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 **도시화**: 도시의 문화 형태가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발전·확대됨. 또는 그렇게 만듦.
- **산업화**: 산업(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의 형태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②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는 '육지'로 상징되는 현실(초라한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섬'으로 가서 열렬히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즉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 공간인 '섬'을 설정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현대 아파트'로 표현되는 현실(도시화·산업화된 공간)과 대비하여, '대장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장간'은 도시화·산업화로 사라진 공간이면서,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공간이자 참된 삶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연과 인간을 대조함으로써 삶의 유한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고 있지 않고, 삶의 유한성을 재인식하고 있지도 않다.

③ 부재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할 뿐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 (가)에서는 화자가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희망적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가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사라진 '대장간'이라는 공간을 통해 전통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는 이와 관련이 없다.

05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질성**: 사람이나 사물의 바탕이 같은 성질이나 특성.
- **표방**: 어떤 명목을 붙여 주의나 주장 또는 처지를 앞에 내세움.
- **고유성**: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그 사물 특유의 속성.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 동질성을 부각한다.

(가)의 화자는 '또한'을 통해 불꽃처럼 열렬히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또한'은 긍정적 존재인 '불꽃'과 화자의 동질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자신이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고 하였으므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인 '플라스틱 물건'과 화자 간의 동질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가)에서 화자는 '열렬히'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나)에서는 '한꺼번에' 생산되고 소비되는 '플라스틱 물건'과 '하나씩' 정성을 다해 만드는 '꼬부랑 호미'를 대조하여 개별적 존재인 '꼬부랑 호미'의 고유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나)에서 화자는 '온통'을 통해 지금까지의 인생 전부를 부끄럽게 여기는 성찰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가)에서 화자는 '날이 갈수록'이라는 의미를 지닌 '날로'를 통해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 '굳어' 가는 부정적 상황이 지

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에서 화자는 '당장'을 통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바로 벗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057 답 (1) 육지, 섬 (2) 플라스틱 물건, 호미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가)의 '(섬, 육지)'은/는 화자의 지나온 삶의 공간을, '(섬, 육지)'은/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을 상징한다.

(가)에서 '육지'는 화자가 지나온 초라한 삶의 공간을 상징하고, '섬'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2) 상반 (나)의 '(플라스틱 물건, 호미)'은/는 무가치한 존재를, '(플라스틱 물건, 호미)'은/는 가치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나)에서 대량 생산되어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은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씩 만드는 '호미'는 가치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05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거듭나고**: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 **순응**: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

정·정·이

① (가)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고 싶다고 한 것을 통해,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초라한 경력'은 '서른 나문 해', 즉 초라한 과거의 삶을 의미하므로, 이를 육지에 막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온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에서 화자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으므로, 이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가)의 '무너지는 꽃 이파리'는 ~~지나간 과거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 심정~~을, (나)는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로 인해 사라진 공간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무너지는 꽃 이파리'는 덧없이 흘러간 화자의 초라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여기에 지나간 과거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진 자리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홍은동 사거리'의 변화를 보고,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 오류 (가)는 '구름같이 피려던 뜻'을 통해, (나)는 '똥덩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화자가 품었던 이상과 꿈 등을 의미하는데, 그 '뜻'이 '날로 굳'어졌다고 했으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나)의 '똥덩이'는 무가치한 존재를 의미하므로 화자가 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가)는 '섬'을 통해, (나)는 '직지사 해우소'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 '섬'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이므로 이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직지사 해우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이처럼 느끼며 자신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가)는 '연륜'을 끊는 행동을 통해, (나)는 '가던 길'을 멈추는 행동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 '연륜'을 끊는 것은 초라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현실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므로 현실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

05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가)에서 '주름 잡히는 연륜'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나이만 먹은 화자의 지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불꽃'과 같은 열렬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인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초라하고 변변치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나)에서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하다고 느낀 화자는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결핍된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나)에서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똥덩이'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대장간 벽에 걸린 '꼬부랑 호미'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가)에서 화자는 '육지'를 자신의 초라한 경력을 막아 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고, (나)에서 화자는 '버스'를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질 때 뛰어내림으로써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육지'와 '버스'는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

06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무가치한 삶에 굴복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나)에서 화자가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한 것은 무가치한 삶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을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의 화자는 자신의 '서른 나문 해'를 무너지는 꽃 이파리에 비유하여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가)의 화자는 '서른 나문 해'를 무너지는 꽃 이파리에 비유하여 자신의 지난 삶이 그만큼 무가치하고 초라하며 보잘것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불꽃'에 비유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가)의 화자는 초라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열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불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06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안주**: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함.
- **소모적**: 소모(써서 없앰.)되는 성질이 많은 것.

정·정·이

② 헛짚기 (가)에서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은 ~~그동안 쌓아 온 경험들로 인해 성숙해진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겠군.~~

〈보기〉를 통해 (가)의 화자가 현실에 안주하며 활력을 잃고 숙련도만 늘어나는 삶을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해하면, '연륜'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은 성숙해진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나이만 먹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무너지는 꽃 이파리'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지나온 삶이 보잘것없었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060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는 현실에 안주하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겠군.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는 이전의 현실에 안주하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불꽃'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플라스틱 물건'은 주체성과 개성을 잃고 소모적이고 무가치하게 살아온 화자의 지난 삶을 상징하는 것이겠군.

(나)의 화자는 자신이 대량 생산되어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플라스틱 물건'은 주체성과 개성이 없고, 소모적이며, 무가치하게 살아온 화자의 지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나를 달구고 / 모루 위에서 벼리고 / 숫돌에 갈아'는 힘들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주체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나)에서 화자는 대장간에 찾아가 자신을 이글거리는 불 속에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과 대조된다. 이를 통해 볼 때 화자는 대장간에서 무쇠 낫을 만드는 과정처럼 힘들고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주체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가)에서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은 그동안 쌓아 온 경험들로 인해 성숙해진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겠군.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해당 시어나 시구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를 살펴보아야 해요. '연륜'은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라는 뜻을 포함하는 말로 본래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하지만 5연의 '초라한 경력'이라든가,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 버리고'라는 표현을 통해, 이 시에서만큼은 '연륜'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시인이 사전적 의미와 별개로 시어에 부여한 새로운 의미나 상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전체를 살펴보면서 단서를 찾아야 해요.

12 가 그리움 / 나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작품 분석 본문 44~47쪽

가 그리움

작가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추운 겨울밤에 느끼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눈'을 매개체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형상화함.
② 수미상관의 구조와 의문형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함.
④ 시구의 반복과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북쪽)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❷ (눈) 내리는 고향의 모습을 떠올림.
❸ 추운 겨울밤에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❹ 북쪽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작가 이시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마음에서 잊히지 않는 유년 시절 고향의 추억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고향과 이웃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함.
② 고향에 대해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회상적·독백적 어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시됨.

한 줄 의미

❶ 잊히지 않는 (고향)
❷ (중학생) 시절의 고향에 대한 추억
❸ 그리운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06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4연에서 화자는 밤에 잠을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 잠을 깨어'라며 자책하는 듯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너를 남기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1연과 5연에서, 1행의 '오는가'는 2행에서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되고 있다. 화자는 눈을 매개로 북쪽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헛짚기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2연에서 '돌아간'은 철길의 휘어진 모양을, '달리는'은 그 철길 위의 화물차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화물차는 느릿느릿 달리고 있으므로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통해 두 대상 간에 긴장감이 조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상반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통적인

2연에서는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이 이동된다. 그러나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휘어진 철길 위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묘사의 초점 이동이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헛짚기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4연에서는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고향을 떠나와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6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1연의 시구를 5연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

1연과 5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 '내리는가'라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내리는가'라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3) 화자 오류 '차마'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

(가)에서 '차마'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차마'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사용되는 부사인데, 이를 부정어가 아닌 형용사 '그립다'와 호응하게 하는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
- **순환적**: 어떤 현상이나 과정이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또는 그런 것.

정·정·이

③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사래', '콩밭', '수수알', '깨꽃', '소고삐', '호미' 등과 같은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농촌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토속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의문의 형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등에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는 과거 상황에 대해 추측하며 회상하고 있을 뿐이다.

② 화자 오류 특정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유년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회한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헛짚기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삶의 보편적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만 제시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삶의 보편적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부각하고 있다.

화자가 회상하는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또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06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년**: 어린 나이나 때. 또는 어린 나이의 아이.
- **결실**: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묾. 또는 그런 열매.

정·정·이

② 화자 오류 ㉡을 활용하여 냇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도굴가 지진

~~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솨르르 솨르르(㉡)'는 유년의 화자가 언덕 아래 냇가에서 들은 어떤 소리와 관련된 표현인데, 화자는 그 소리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물살을 헤짓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을 활용하여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군.

'꽝꽝(㉠)'은 '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를 통해 수수알(곡식)이 여무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군.

'청청히(㉢)'는 '맑고 푸르게'라는 뜻으로 '푸르던'을 수식하고 있다. '아'라는 감탄사와 '푸르던' 사이에 '청청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년의 화자가 감동을 느낀 하늘의 푸른 색채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을 활용하여 무섬증에 언덕을 달려 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군.

'까르르까르르(㉣)'는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자꾸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무섬증을 느껴 냇가에서 언덕으로 올라온 유년의 화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까르르까르르' 들리는 이웃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 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또랑또랑(㉤)'은 '조금도 흐리지 않고 아주 밝고 똑똑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가을 들'이 익어 가는 냄새를 '또랑또랑'을 활용해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을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

06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 ㉣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 ㉢, ㉣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뿐, 청자와의 친밀감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독백하듯이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청자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을 통해 가을의 계절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을 통해서는 수수알이 여무는 가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을 통해서는 들이 익는 가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을 통해 고향 마을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의 부사를 통해 고향 마을의 평화롭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 추억들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06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화물차(ⓑ)'를 고향을 향해 달리는 기차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떠올린 모습 중 하나일 뿐 실제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 (가)에서 화자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낼 뿐,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는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며 '북쪽'과 '작은 마을'로 상징되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눈'은 화자가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는 자연물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복된(ⓒ)'은 '눈'이라는 자연물에 '복되다'라는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④ ⓓ는 유년 시절 화자의 추억 속 고향을 의미한다.

'그곳(ⓓ)'은 뒤에 이어지는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볼 때, 유년 시절 화자의 추억 속 고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는 즐겁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청량한 웃음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즐겁고 평화로운 고향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6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궁벽함**: 매우 후미지고 으슥함.
- **근원적**: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이 되는.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하며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관련하여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무엇'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관련하여, 화자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애정 어린 목소리로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가)는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준다.

(가)에서 고향은 눈 내리는 북쪽의 작은 마을로,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여름날 '햇빛'을 받은 '깨꽃'의 이미지는 〈보기〉에서 언급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에 해당한다.

②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나)는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 준다.

(가)의 고향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철길로 갈 수 있는 곳이며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나)에서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은 〈보기〉에서 언급한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③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나)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작은 마을' 즉 고향에서 기다리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리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고향에서 함께했던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인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다.

⑤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나)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

(가)에서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보기〉에서 언급한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인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069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가)의 고향은 궁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 (나)의 고향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보기〉에서 (가)의 고향은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였고, (나)의 고향은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가), (나)의 창작의 원천이 되는 소재는 '고향'과 '가족'이다.

(가)에서 화자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고향'과 '가족'은 (가)의 창작의 원천이 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마음에서 잊히지 않는 유년 시절의 '고향'을 추억하고 있을 뿐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가족'은 (나)의 창작의 원천이 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ㄷ. 범위 오류 (가)의 화자는 고향을 ~~부정하는~~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나)의 화자는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고향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07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B]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과 '눈'의 이미지 대비를 통해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부각~~하였군.

'화물차의 검은 지붕'(검은색)은 '눈'(흰색)과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지만, 이는 '복된 눈'이 내리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일 뿐,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

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A]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북쪽'을 '함박눈'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눈이 오는 '북쪽' 고향과 포근하고 아늑한 '함박눈'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B]에서 '너'가 있는 '작은 마을'의 '복된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축되어 있군.

'너'가 있는 '작은 마을'에 내리는 '눈'을 복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C]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곳에서 '잠'을 깬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하겠군.

화자는 '잉크병'이 얼어들 만큼 춥고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D]에서 '함박눈'이 '내리는가'를 다시 반복하여 고향과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군.

5연에서 1연의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를 다시 반복함으로써 고향과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애틋한 정서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3 가 사령(死靈)
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작품 분석 본문 48~51쪽

가 사령(死靈)

작가 김수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기 삶에 대한 반성
특징 ① 자조적인 어조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
② 대조를 통해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③ 수미상관의 구조로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활자**)로만 존재하는 자유와 죽어 있는 '나'의 영혼
❷ 침묵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
❸ (**고요한**) 현실에 대한 비판
❹ 자유와 (**정의**)가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
❺ 죽어 있는 '나'의 (**영혼**)에 대한 반성

나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

작가 김혜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① 현실 상황을 강이 얼어 움직이지 못하는 배에 비유하여 형상화함.
② 음성 상징어, 대구법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부정적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여 드러냄.
③ 반복법, 행간 걸침, 도치법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강물 위의 (**배들**)을 보며 비웃음.
❷ 배들을 비웃다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을 떠올림.
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비웃음**)과 변함없이 견고한 현실

07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원근**: 멀고 가까움.
- **지시어**: 문맥 내에서 주로 어떤 말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

정·정·이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1연의 내용을 5연에서 반복하고(수미상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구도 반복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지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부정적인 상황이 과거부터 계속되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② 화자 오류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지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활자를 '벗'에서 '그대'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지만, 화자는 활자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 황혼', '저 돌벽 아래 잡초', '저 고요함', '이 고요함' 등에서 멀고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어인 '이', '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④ 헛짚기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지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물음의 형식으로 시를 종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강조하여 드러낼 뿐,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07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초월적**: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자연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 **교감**: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는 느낌.

정·정·이

① 도치법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3연에서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먼저 말하고 그 대상을 나중에 나열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초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가 현실에 대해 초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③ 화자 오류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대상과 교감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벗이여' 등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화자가 대상과 교감하고 있지는 않다.

07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조적**: 자기를 비웃는 듯한.

정·정·이

③ 부재 [C]에서는 전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C]에서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먼저 말하고 그 대상을 나중에 나열하는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을 뿐, 선경후정의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 자유와 정의에 대해 침묵하는 고요함을 비판하고 있을 뿐, 삶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A]에서는 '활자'와 '나의 영'을 대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A]에서 화자는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 '활자'와 자유와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사령과 같은 '나의 영'을 대조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② [B]에서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통해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표현하고 있다.

[B]의 '마음에 들지 않아라'에서 화자는 감탄형 어미 '-아라'를 활용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탄식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D]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1연을 반복·변주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E]에서는 1연을 반복·변주하고 있으며, 1연에 없던 '우스워라'를 추가하여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③ [C]에서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선경후정'이란 앞부분에서 자연 경관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내면의 정서를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해요. [C]에서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시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선경후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선경후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방식이나 시상 전개 방식은 미리 알아 두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07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인**: ①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 ②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둠.
- **견고하다는**: 사상이나 의지 따위가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다는.

정·정·이

② 상반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외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의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로 보아 배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강물이 언 상황, 즉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 따라서 배의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배가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된다.

(나)는 언 강물에 의해 붙들린 배들을 화자가 구경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의 '붙들린 배'가 시상 전개의 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의 '비웃느라'로 보아 '시시덕거렸다'에 '우리'의 냉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에서 한강물이 '흐르지 못'한 이유는 강이 얼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의 '꽝꽝꽝'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꽝꽝'이 '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임을 고려할 때, '꽝꽝꽝'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07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은 '강물에 붙들린 배들'이다. (○,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은 화자의 관찰 대상으로, 언 강물에 의해 붙들린 배들을 화자가 구경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 '훈련받나 봐'와 '일렬로 늘어선'에는 사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

'훈련받나 봐'와 '일렬로 늘어선'은 획일적인 군사 문화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경직된 사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 화자 오류 '비웃느라', '나뒹굴며'에는 부정적 현실에 ~~긍정적~~ 냉소적, 비판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 ×)

'비웃느라', '나뒹굴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대응 태도가 아니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대응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07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는 화자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대상으로, 화자가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화자는 강물에 붙들린 일렬로 늘어선 '배들(ⓐ)'로부터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연상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된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는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이다.

(나)에서 화자는 울분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는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고~~ 있다.

화자는 관심을 가지고 ⓐ를 관찰하면서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게 되므로 ⓐ는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냉소적 태도로 ⓐ로 비유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헛짚기 ⓑ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소재~~이다.

(나)에서 화자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에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는 ~~화자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화자는 ⓑ를 보며 비웃고 있으므로 ⓑ가 화자의 연민을 불

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07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
- **모색**: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경직**: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됨.

정·정·이

① 화자 오류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가)에서 화자가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의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직된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에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화자의 성찰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보기〉에서 (나)는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라고 하였으므로, 비웃는 모습이나 뒹구는 장면을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보기〉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가)의 '고요함'이 있는 '하늘 아래'와 (나)의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맞붙은 사이'는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보기〉의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를 통해 (가)에서 '자유'에 대한 표현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보기〉의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를 통해 (나)에서 '날아가지 못하는 말'은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 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보기〉의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했다는 내용을 통해,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붙박힌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고 하였으므로 (나)에서 '언 강물'로 인해 배가 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78 답 (1) 활자 (2) 붙박힌 말들 (3) 숨죽이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는 언어가 '(활자 영)'의 상태로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나)에서 '(웃음, 붙박힌 말들)'은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나)의 '붙박힌 말들'은 자유로운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가)의 '고요함'과 (나)의 '(나뒹굴며, 숨죽이고)' 있는 것은 자유가 억압된 경직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

(가)의 '고요함'은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상황을, (나)의 '숨죽이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의 자유가 억압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이들은 자유가 억압된 경직된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7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모습과 연관된다. 즉, (가)의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은 자유와 정의라는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가)의 화자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가)에서는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고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과 연관된다.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가)의 화자는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욕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서강에서의 안정된 생활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 애쓰는 시인의 성찰과 연관된다.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가)의 화자는 자유가 부재하는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침묵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스워라'라고 자조하며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의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도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 비애와 연관된다.

14 가 바람이 불어 나 새

작품 분석 본문 52~55쪽

가 바람이 불어

작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특징 ① 자문의 형식을 통해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냄.
② 대조적·상징적 의미의 시어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③ 시어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바람)이 불어 괴로움을 인식함.
❷ (괴로움)의 이유를 탐색함.
❸ (반석)과 언덕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함.

나 새

작가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문명의 편안함에 안주하여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비판

특징 ① 우의적 기법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현재 시제와 단정적 어조를 통해 새의 모습을 생생히 나타내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줌.
③ 반어적 상황과 반복법, 직유법 등을 통해 새가 사는 모습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새장)에 갇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새
❷ 새장 속의 삶에 익숙해져 (본성)을 잃게 된 새
❸ (자유)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새

08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단정**: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병치**: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한곳에 나란히 두거나 설치함.

정·정·이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등에서 '없다'의 반복을 통해 자신이 괴로운 이유에 대해 생각하며 자아 성찰을 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

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화자 오류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은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헛짚기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은 화자가 자신이 괴로운 이유에 대해 생각하며 떠올린 것으로,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화자 오류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8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바람'은 화자가 괴로움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

화자는 부는 '바람'을 계기로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찾아보게 된다.

(2) 자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에서 화자는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3) 교체 '바람'과 '강물'의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반석', '언덕'

(○, ×)

(가)에서는 움직이는 대상인 '바람(5연)'과 '강물', 정체되어 있는 대상인 '반석'과 '언덕'의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8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상반 '적당한 간격'을 통해, 새가 날지 못하는 원인이 새의 내부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외부

'적당한 간격'은 새장의 창살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가 날지 못하는 이유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몸뚱어리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한 간격'은 새가 날지 못하는 이유가 '새장', 즉 새의 외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슬프다'를 통해, 새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슬프다'를 반복하여 '새'가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③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를 통해, 날개의 기능을 잊어버린 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 것은 날개의 기능을 잊어버리고 걷기만 하는 새의 모습, 즉 본성을 상실한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④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를 통해,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 익숙해진 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새가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는 것은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 익숙해져 더 이상 자유를 추구하지 않게 된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⑤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고 음미하는 데에만 그치는 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은 새가 공기를 음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모습으로, 자유를 추구하지 않고 음미하는 데에만 그치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08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서 '바람'은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서 자꾸 부는 '바람'은 화자에게 영향을 주는 힘으로, 화자가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선 '내 발'은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하여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오·오·이

① ㉠: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이 화자에게 영향을 주어 화자의 내면을 흔들고 '괴로움'을 일깨우고 있다.

③ ㉢: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에서는 새장 밖의 자유로운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장에 갇혀 울음만을 '공기'에 실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새'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에서는 새가 '날개'를 사용하여 비상할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에서는 '아직도 벽이 아니고 /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창살 사이의 바람을 쪼는 새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8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에 ~~부정적 현실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나는군.

〈보기〉를 참고하면, (가)에서 '바람', '강물'은 시대의 흐름과 움직임을 상징하며, '반석', '언덕'은 '바람', '강물'로부터 동떨어져 멈춰 서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반석', '언덕' 위에 선 것은 소명 의식을 갖고 사회 문제에 동참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반석' 위에 선 것을 부정적 현실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는 괴로움의 원인을 개인 차원에서 찾고자 한 것이군.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는 괴로움의 원인을 사랑이라는 개인적 감정, 즉 개인의 차원에서 찾고자 시도하였으나 화자에게 그런 일은 없었으므로, 원인을 찾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② ⓑ는 괴로움의 원인을 공동체 차원에서 찾고자 한 것이군.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는 괴로움의 원인을 시대라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찾고자 시도했으나, 화자는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기에 시대는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괴로움의 원인을 찾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③ ⓒ는 시대의 흐름과 움직임을 비유한 것이군.

'바람'이 자꾸 부는 것과 '강물'이 자꾸 흐르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움직임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군.

〈보기〉에서 화자가 괴로운 이유는 사회 문제에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화자는 멈춰 서 있는 '언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8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본질**: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 **안온**: 조용하고 편안함.
- **양가성**: 동일 대상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성질.
- **잠재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힘.
- **아이러니**: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정·정·이

④ 헛짚기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 일상(새장 안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달리는 새의 행동은 새장 안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 본질을 잃고 자유를 상실하게 된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인다는 것은 그제야 새장 안에 갇혀 있음을 새가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보기〉에서 '새'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새의 인식은 어느 날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보기〉를 통해 (나)가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새장 안은 날지 않아도 바깥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지만, 창살 때문에 갇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적 일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간다고 하였다. 새가 부지런히 걸을수록 날지 않게 되므로, 새장 안에서의 성실한 생활이 비상할 수 있는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나)에서 새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공기를 그저 음미만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8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매몰**: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음.

정·정·이

③ 새가 공기를 '음미하려는' 모습은 현실에 매몰되어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새가 자신의 잠재된 힘과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공기를 그저 음미하는 것은, 현실에 매몰되어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다.

오·오·이

① 헛짚기 '적당한 간격'은 ~~새가 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함~~을 드러낸다.

'적당한 간격'은 하늘과 산이 보이고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새가 새장 밖으로 못 나가는 물리적인 이유이므로 새가 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② 상반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 것은 새의 본질에 ~~가까운~~ 먼 모습이다.

새가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 것은 새의 본성을 상실한 모습이다.

08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범위 오류 ~~(나)와~~ 〈보기〉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새'가 실현하고 있다.

〈보기〉의 '새(흰 새 떼들)'는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 메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자유로운 존재이므로 부정적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실현한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존재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 존재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나)에서는 〈보기〉와 달리 '새'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새'가 자기들끼리 끼룩거리고 낄낄대면서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새'가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나)와 달리 '새'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새'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있을 뿐이므로, '새'와 화자의 처지가 대조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보기〉의 화자는 이 세상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와 달리 날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있으므로, '새'와 화자의 처지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와 〈보기〉 모두 '새'가 나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와 〈보기〉 모두 '새'가 나는 행위에 '자유'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⑤ (나)와 〈보기〉 모두 '새'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새'에 비유하여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외면하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고, 〈보기〉는 '새'의 자유로운 삶과 대조되는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5 가 청명 나 초록 바람의 전언

작품 분석 본문 56~59쪽

가 청명

작가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마음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을 아침의 느낌을 표현함.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③ 대구법, 어미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인상적으로 제시함.
⑤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청명)을 온몸으로 가을 아침의 (청명)을 느낌.
❷ (자연)과의 교감과 유대감 형성
❸ (청명)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마음
❹ (햇발(햇살))이 쏟아지는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
❺ (청명)에 포근히 젖어 듦.

나 초록 바람의 전언

작가 고재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봄을 맞은 자연의 생동감
특징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③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봄날의 생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④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⑤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함.

한 줄 의미

❶ (솔나무)의 속삭임을 전하는 바람
❷ 잎새에 맺혀 있던 빗방울을 쏟아 내는 (미루나무)
❸ 보리밭에서 김매는 (여인)과 봄의 정경
❹ 푸른 봄날 바람결에 들리는 (소쩍새)의 울음

0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정**: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 **사색**: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정·정·이

②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종결 어미 '-다', '-노라'를, (나)에서는 종결 어미 '-자'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취어진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에서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달려갔다 하자', '쏟아 냈다 하자', '보냈다 하자' 등에서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부재 (가)와 (나)는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가)에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서는 의인화된 '초록 바람'이 '뒷동산', '강변', '앞들 보리밭', '마을'로 이동하는 모습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가)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는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나)는 봄바람이 부는 자연의 모습과 보리밭에서 김을 매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봄을 맞이한 자연의 생동감'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를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8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가을 아침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수풀', '벌레', '동백 한 알' 등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가을 아침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
(가)에서는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토록' 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나)에서는 '짤랑짤랑', '끄덕끄덕' 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 부재 (가)와 (나)는 지향의 전개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가)와 (나) 모두 시상의 전개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가)는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마음을, (나)는 봄을 맞은 자연의 생동감을 그려 내고 있다.

09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어순**: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
- **여운**: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운치.

정·정·이

⑤ (나)는 (가)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나)의 '아무려면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싣는 날에.'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나'로 4연의 '오!'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② 헛짚기 (가)는 (나)~~와 달리~~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가을', (나)는 '오월'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③ 범위 오류 (가)는 (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는 '수풀의 정', '벌레의 예지', '청명은 갑자기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등에서 '수풀', '벌레', '청명'을 의인화하여, (나)는 '바람', '솔나무', '미루나무' 등을 의인화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색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9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역동적**: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 **집약적**: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것.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은 청명한 가을날에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낯익음에 비유하여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청명한 가을날의 정취에 젖어 든 마음을 낯익은 고향을 찾은 것에 비유한 것은 맞지만, 지나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호르르'는 '작은 새 따위가 날개를 가볍게 치며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이다. 따라서 ㉠은 산뜻한 가을 아침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은 청명한 날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청명'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봄날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은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청청한 날의 정경에 대해 '아무려면 어떤가'라는 반응을 보이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092 답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나)의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한 초록으로 짙어 가는' 등에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오·오·이

ㄱ. 부재 (가)에는 ~~후각적~~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에서는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 '호르르', '호르르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각적 심상을 두드러지게 활용하고 있을 뿐, 후각적 심상을 두드러지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ㄷ. 부재 (나)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는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자'가 활용되었을 뿐, 명령형 종결 어미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화자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09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노동하는 여인을 통해 ~~자연과 대비되는 고된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여인'이 허리를 펴는 것은 자신에게 전해진 '바람'의 전언을 '정자나무'에게로 보내기 위한 것이므로, 허리를 펴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대비되는 고된 삶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청명을 느끼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자연과 화자가 하나 됨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는 '청명'이라는 형체가 없는 대상이 머릿속과 가슴 속에 젖어 들어 발끝, 손끝으로 새어 나간다는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 화자가 온몸으로 자연과 교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온 살결과 터럭이 감각 기관인 '눈'과 '입'이라는 것은, 온몸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교감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③ ⓒ: 대상의 움직임과 유사한 다른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에서 화자는 '동백 한 알'이 빠지는 모습과의 유사성 때문에 '별살'의 흐름을 떠올리고 있다.

④ ⓓ: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자연과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는 '빗질'이라는 행위에 빗대어 '청솔잎'과 '바람'이 교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9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가)에서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과 (나)에서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군.~~

(가)의 화자가 '동백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린 것은 떨어지는 모습의 유사성 때문이고, (나)의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잎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구슬알'의 유사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화자가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자연을 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간의 교감을, (나)에서 '바람'이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하는 것은 자연과 자연 간의 교감을 드러내는군.

(가)의 화자는 '온 살결 터럭 끝'을 '눈'과 '입'으로 삼아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아는 등 자연과 교감하고 있고, (나)의 '바람'은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하며 서로 교감하고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가 '무어라' 하고 '미루나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가)의 화자가 '수풀의 정',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나)의 '솔나무'와 '미루나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은 모두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나도' 청명함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는군.

(가)의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청명'의 '노래꾼이 된다'고 하는 것과 (나)에서 '솔나무의 속삭임'을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전하고 이를 '여인'도 '정자나무'에게 전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를, (나)에서 '오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가는 생태 공동체를 형상화하는군.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 소리'와 '온 빛깔'이 자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 즉 근원적 존재로서의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나)에서 '오월'에 자연의 공간인 '산'과 인간의 공간인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생태 공동체임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9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가을 아침의 정취에 젖어 든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는 수풀과 벌레의 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쏟아지는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든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순환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계절감은 드러나 있으나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순환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가)의 화자는 (나)의 화자와 달리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청명한 가을 아침에 젖어 들어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봄을 맞은 세상 만물의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9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나)에서 미루나무가 '강물 위'에 '구슬알'을 쏟아 냈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그리는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군.

미루나무가 '강물 위'에 '구슬알'을 쏟아 냈다는 표현은 미루나무가 잎새에 맺혀 있던 빗방울을 강물에 쏟아 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그리는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봄을 맞은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 자연을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화자가 '가장 고웁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가장 고웁지 못한 노래꾼'은 가을 아침의 청명을 느끼는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는 화자가 수풀과 벌레의 소리를 듣고 청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자연을 '온 소리의 앞 소리'이며,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한 것은 자연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군.

(가)에서는 청명을 '온 소리의 앞 소리'이며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연의 소리가 어떤 소리보다 앞서 존재하며, 온 빛깔이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온 소리의 앞 소리'와 '온 빛깔의 비롯'은 자연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은 자연이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군.

(나)에서는 봄날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전하기 위해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자연이 생동감이 넘치는 공간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초록으로 짙어 가는 오월'과 '소쩍새'의 '목청'을 함께 제시한 것은 화자가 바라보는 봄을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그려 낸 것이군.

(나)에서는 '초록으로 짙어 가는 오월'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바람결에 실리는 '소쩍새'의 '목청'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바라보는 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6 가 출생기 / 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작품 분석 본문 60~63쪽

가 출생기

작가 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나'의 출생 내력과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는 시대적 암울함
특징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함.
② 감각적 이미지와 색채 대비, 비유적 표현과 대구법 등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냄.
③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함.

한 줄 의미

❶ (**일제**)의 강점을 앞둔 암울한 시대 상황
❷ 생명력이 충만한 자연과 '(**나**)'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
❸ '나'의 (**욕된**) 출생
❹ '나'의 (**이름**)이 지어진 유래

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작가 김춘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
특징 ① 의미의 전달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내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③ 이질적 소재의 병치와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봄의 생명감을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눈이 내리는 (**샤갈**)의 그림 속 세계
❷ 눈을 맞는 (**사나이**)의 모습에 나타난 봄의 생명감
❸ 샤갈의 마을을 덮는 (**눈**)
❹ 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봄**)의 생명들
❺ (**눈**)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새봄의 아름다움

0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표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이국적**: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특징적인 것.

정·정·이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융희 2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일제의 강점을 앞둔 1908년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에서는 '삼월', '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봄을 맞이하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가)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는 '지니셨고', '읽으셨다', '떨어졌나니', '지었다오' 등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화자의 출생의 내력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온다', '떤다', '덮는다', '지핀다' 등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③ 부재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울어',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 등에서, (나)는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등에서 시적 상황에 대해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하고 있다.

④ 범위 오류 (가)는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괴히 울어',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 '곡성'과 같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인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새로 돋은 정맥', '올리브빛',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과 같은 시어를 사용하여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⑤ 범위 오류 (나)는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나)는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등에서 눈을 살아 있는 대상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09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는 ~~반어법을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반어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 (나)는 이질적 소재를 병치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나)에서는 삼월의 '눈', 사나이의 '정맥', '겨울 열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아낙'과 같이 이질적 느낌의 대상들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 (가)와 (나)는 모두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

(가)의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에서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를 통해 붉게 핀 석류꽃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눈'(흰색)과 '정맥'(파란색), '올리브빛'(초록색), '불'(붉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09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나)와 달리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일제의 강점을 앞둔 암울한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② 헛짚기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저릉저릉', (나)에서는 '바르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와 (나) 모두 이를 통해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는 (다)와 달리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의문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나)는 (가)와 달리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등에서, (나)는 '새로 돋은 정맥',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등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교체 (나)는 (가)와 달리 한자어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암울한 분위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가)는 (나)와 달리 '번문욕례', '태반', '곡성' 등의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암울한 분위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10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욕됨)을 드러내고 있다.

[D]에는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이어서 제시되는 시구에서 화자가 자신을 '욕된 후예'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에 청각(까마귀 울음소리)의 시각화(검정 포대기)가 나타나며, 이는 화자가 출생했던 시대의 암울하고 음산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지붕에 박 넌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 등 다채로운 계절의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암울하고 음산한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생명력 넘치는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 다듬어 지니셨고'와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 글 읽으셨다'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출생과 관련된 '고고'와, 죽음과 관련된 '곡성'이라는 상반된 의미의 시어를 연결하여 화자의 울음소리를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명이 길었으면 하는 할머니의 바람을 담아 화자의 이름을 '돌메'라고 지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101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A], [B], [E]에서는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A]의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B]의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뱉은 듯 피어', [E]의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에서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ㄷ. [D], [E]에서는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D]의 '왕고못댁 제삿날 밤'은 화자가 태어난 날을, [E]의 '고고의 곡성을 지른'은 갓 태어난 화자의 울음소리를 나타낸 말로,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ㄴ. 범위 오류 [A], [D]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A]의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D]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10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은 외부의 풍경을 시적 화자의 내면과 연관 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에서는 눈이 '지붕과 굴뚝을 덮는' 외부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화자의 내면과 연결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은 현재형 어미를 통해 공간이 지닌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는 현재형 어미 '-ㄴ다'를 통해 삼월에 눈이 오는 '샤갈의 마을'의 환상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② ㉡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바르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눈을 맞는 사나이의 모습에 나타난 봄의 생명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은 대상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눈이 날개를 달았다는 표현(활유법)을 통해 눈송이가 휘날리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이 가진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메마른 겨울 열매들이 소생하는 모습을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10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변용**: 용모가 바뀜. 또는 그렇게 바뀐 용모.
- **투사**: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 투영.
-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 **표상한**: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낸.

정·정·이

③ 헛짚기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지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눈이 내리는 '하늘', 눈 덮인 '지붕과 굴뚝'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보기〉의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샤갈의 「나와 마을」에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 같은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가 (나)에서는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되어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샤갈의 「나와 마을」에서 사나이 얼굴의 '올리브빛'을, (나)에서는 봄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든다고 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아낙', '아궁이'와 같은 토속적인 이미지를 통해, 샤갈의 「나와 마을」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시인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키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이 문제의 경우 〈보기〉와 선지에 '상호 텍스트성', '병치', '투사' 등과 같이 낯선 용어가 제시되어서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보기〉를 참고하는 문제의 경우도 결국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보기〉나 선지에 어려운 용어가 있다고 겁먹지 말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차근차근 선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104 답 (1) 생명감 (2) 색채 (3) 토속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감각적 언어로 나열하면서 봄의 (쇠락함, 생명감)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한 작품으로,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감각적인 언어로 나열하면서 소생하는 봄의 아름다움과 봄의 생명감을 표현하고 있다.

(2) 교체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색채, 동적) 이미지들은 '눈', '정맥', '올리브빛', '불'과 같은 시어에 반영되었다.

샤갈의 그림의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은 (나)에서 삼월의 '눈'(흰색), 사나이의 '정맥'(파란색),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 겨울 열매(초록색), 아낙들이 아궁이에 지피는 '불'(붉은색)에 반영되어 있다.

(3) 교체 '아낙', '아궁이'와 같은 (이질적, 토속적) 시어를 통해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아낙', '아궁이'와 같은 토속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샤갈의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시인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킴으로써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10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를 통해 시인이 자신의 ~~가문과 가정~~ 출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군.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는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고 있던 시기에 출생하게 된 자신을 욕되다고 표현한 것일 뿐, 자신의 가문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 글 읽으셨다'를 통해 시인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을 통해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군.

시인은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되고 있던 당대의 암울한 분위기를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라는 시어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② '융희 2년'과 '남쪽 먼 포구'를 통해 시에 제시된 상황이 시인의 출생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군.

일제 강점을 2년 앞둔 '융희 2년(1908년)'은 시인이 태어난 시기를, '남쪽 먼 포구'는 시인이 태어난 곳(경상남도 통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인이 출생할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통해 시인이 출생할 당시에 우리 민족이 슬픈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시인은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통해 자신이 출생할 당시의 상황, 즉 일제의 강점을 앞둔 초승달같이 슬픈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⑤ '명이나 길라 하여'를 통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심정을 알 수 있군.

할머니가 손주의 이름을 '돌메'라고 지은 것은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오래라도 살길 바라서이다. 따라서 '명이나 길라 하여'에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7 가 플라타너스 나 달

작품 분석 본문 64~67쪽

가 플라타너스

작가 김현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독한 인생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특징 ① 자연물을 인격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②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③ 시적 허용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꿈과 이상을 가진 (**플라타너스**)
❷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플라타너스
❸ 고독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준 플라타너스
❹ 플라타너스와 (**영혼**)의 교감을 하고 싶은 소망
❺ (**플라타너스**)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소망

나 달

작가 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달빛에 비친 조화로운 풍경에 대한 감흥
특징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경을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유리창에 밀려오는 (**달빛**)
❷ 달빛에 이끌려 (**마당**)으로 나감.
❸ 달빛이 비치는 (**마당**)의 풍경
❹ 달빛을 받아 더 고운 (**흰 돌**)
❺ 달빛에 비친 (**녹음**)과 고요한 밤
❻ 비둘기가 울고 오동나무 꽃향기가 풍기며 달빛이 비치는 (**마당**)에서의 감흥

10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호명**: 이름을 부름.
- **이중성**: 하나의 사물에 겹쳐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
- **고풍스러운**: 보기에 예스러운 데가 있는.

정·정·이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가)에서는 매 연마다 시적 대상인 '플라타너스'를 반복적으로 호명함으로써 작품의 초점을 '플라타너스'라는 시적 대상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파아란', '검은' 등의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각각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라는 것, 플라타너스가 묻힐 곳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 고풍스러운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④ 헛짚기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젖어 있다', '늘인다' 등에 현재형 진술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의 역동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헛짚기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하늘', '별'은 상승적 이미지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에서는 시적 허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가)의 '파아란', '수고론'에서는 시적 허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부재 (나)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나)에서 '녹음', '오동나무 꽃' 등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나)에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3)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플라타너스'를 의인화하여 꿈을 지닌 존재로 예찬하며 그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흰 돌도 /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에서는 흰 돌을 의인화하여 달빛에 비친 흰 돌을 더욱 곱게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플라타너스'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너'라고 지칭하며 '플라타너스'를 반복하여 부르고 질문하는 등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 변화도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부재 (가)에서는 비판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찬적

(가)에서는 꿈을 지니고 넉넉한 사랑을 베푸는 '플라타너스'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나)에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나)의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에 화자의 감흥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10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적막: 고요하고 쓸쓸함.
- 관조적: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정·정·이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홀로 되어 외로울 제'라고 표현하며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한밤중에 홀로 달빛이 가득한 마당에 나가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고요하고 정감 어린 정취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은 (가)의 화자가 인식한 외로움과 관련된 표현이므로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달밤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범위 오류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한다.

외로움을 느낀 (가)의 화자가 자신과 같이 길을 걸어 준 플라타너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혼자서 달밤의 풍경을 즐기는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현재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 오류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교감하고 그와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등에서 화자가 감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화자 오류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가)의 화자가 느낀 고독감이 회의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부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의 화자가 느낀 감흥이 앞날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이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부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오 지름길

㉠ 홀로 되어
㉡ 홀로 보는

(가)와 (나)의 유사한 시구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과 ㉡이 시구는 유사하지만 (가)와 (나)의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보이는 정서와 태도는 다르므로, ㉠, ㉡의 앞뒤에 제시된 시어와 시구를 바탕으로 ㉠과 ㉡에 담겨 있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추측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 '홀로'라는 시어가 지닌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작품 안에서의 의미에 주목해야 해요.

11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플라타너스가 가진 심리적 상처를 의미한다.

플라타너스가 만들어 주는 시원한 '그늘(㉯)'은 플라타너스가 베푸는 넉넉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오·오·이

① ㉮: 플라타너스가 지닌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

파란 '하늘(㉮)'은 플라타너스가 지향하는 세계로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 방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화자는 '영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으로 인해 마당으로 나가게 되므로 '영창'은 방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1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는 화자가 체험한 것을, ⓑ는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다.

ⓐ는 화자가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의 길이다. 따라서 화자가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는 미래의 어느 날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다.

오·오·이

① 교체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는 현재의 삶을 나타낸다.

ⓐ는 화자의 현재의 삶을,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나타낸다.

② 교체 ⓐ는 화자가 상상한 공간을, ⓑ는 현실의 공간을 나타낸다.

ⓐ는 화자가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이고, ⓑ는 화자가 소망하는 관념 속의 공간이다.

④ 범위 오류 ⓐ와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을 나타낸다.

ⓐ는 화자가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의 길을 나타내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는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공간이다.

⑤ 범위 오류 ~~ⓐ와 ⓑ 모두~~ 화자가 동반자를 만나 함께 정착하는 삶을 나타낸다.

ⓑ는 미래의 어느 날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곳이므로 화자가 동반자를 만나 함께 정착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는 홀로 되어 외로웠던 화자의 고단한 인생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다.

11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가)의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영창'은 방 안과 바깥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오·이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을 통해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준다. (나)의 화자는 달빛에 비친 '흰 돌'을 '이마'가 '유달리' 곱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외로운 '그 길'을 '같이 걸었'으며,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까지 함께하고 싶어 하므로,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은 삶의 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영창으로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접하고 한밤중에 마당으로 나가 달빛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가)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그곳'은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이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나)의 화자는 '마당'에 달빛이 가득한 모습을 '호수'에 비유함으로써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가)의 화자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다며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함으로써 〈보기〉에서 제시한 구도의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오동나무 꽃'을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113 답 (1) 먼 길, 하늘 (2) 너, 우리 (3) 마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먼 길) 검은 흙)'은 화자가 걸어온 인생의 과정을 의미하고, '(하늘) 그늘)'은 화자의 꿈과 이상을 의미한다.

(가)에서 '먼 길'은 화자가 걸어온 고달픈 인생의 과정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은 흙'은 생명이 다하는 날에 묻힐 곳, 즉 영혼의 안식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늘'은 플라타너스와 화자가 지향하는 꿈과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늘'은 플라타너스의 넉넉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체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에 대한 호칭을 '(너, 우리)'에서 '(너, 우리)'로 바꿈으로써, 플라타너스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를 '너'에서 '우리'라고 부름으로써 플라타너스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교체 (나)의 화자는 '(영창, 마당)'에서 달밤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나)의 화자는 영창으로 밀려오는 달빛을 보고 마당으로 나와서 달빛에 비친 고요하고 조화로운 풍경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11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5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5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화자가 플라타너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1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에게 꿈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군.

1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의 머리가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② 2연에서 화자는 타인을 배려하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나타내고 있군.

2연에서 화자는 그늘을 늘이는 플라타너스의 모습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3연에서 화자는 고독할 때 자신에게 위안이 되었던 '플라타너스'를 떠올리고 있군.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플라타너스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외로움을 위로해 주었다고 하였다.

④ 4연에서 화자는 자신과 '플라타너스'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군.

4연의 마지막 행을 통해 화자가 자신과 플라타너스를 유한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가 아침 이미지 1 / 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 분석 본문 68~71쪽

가 아침 이미지 1

작가 박남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생동감 넘치는 아침의 이미지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활유법과 의인법,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③ '어둠'을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물상)의 생성
❷ 아침이 되어 소멸하는 (어둠)
❸ 아침이 되어 만물이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
❹ 눈부신 아침의 (태양(햇살))
❺ 아침이면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

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가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연을 잊고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 문명의 이기에 대한 비판 및 자연과 인간의 공생
특징 ① 텔레비전을 끄기 전과 끈 후의 상황을 대조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의인법을 통해 시적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를 보여 줌.
③ 청각적·시각적·공감각적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함.

한 줄 의미

❶ 방 안에 들려온 (풀벌레) 소리
❷ 풀벌레 소리를 들은 화자의 (성찰(반성))
❸ 화자의 내면을 채워 주는 자연의 (소리)

11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포용력**: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는 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 '어둠'이 새와 돌, 꽃을 '낳는다'는 것에서 생산력을 지녔음을, 아침이면 스스로 '굴복한다'는 것에서 밝음 앞에 어둠이 순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인 동시에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게 하는 배경으로,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가)의 4행을 통해, '어둠'을 온갖 물상을 돌려주는 주체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나)의 4~5행에서 어둠 속에서 들으니 그 소리가 환하고 더 낭랑하게 들린다고 한 것으로부터 어둠이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아침이 밝아 오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만, (나)에서는 텔레비전을 끈 뒤에 찾아온 어둠 속에 화자가 머물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여러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의 변화를, (나)에서는 '어둠'과 함께 들어온 방 안의 벌레 소리들로 인한 분위기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11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어둠'은 만물을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이고 있다. (○, ×)

(가)에서 '어둠'은 '새', '돌', '꽃' 등의 물상을 낳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만물을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내보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2) (나)의 '어둠'은 성찰의 계기가 되는 배경이다. (○, ×)

(나)의 '어둠'은 화자로 하여금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게 하여 그동안 자연을 잊고 살아온 것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따라서 '어둠'은 성찰의 계기가 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3) 교체 (가)와 달리 (나)에는 시간적 배경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 ×)

115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나)와 달리 (가)에서 시간적 배경의 변화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11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가)의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시각의 청각화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아침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는 각각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촉각화를 통해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는 (나)와 달리 의인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어둠은 온갖 물상을 ~ 땅 위에 굴복한다.'와 '물상들은 몸을 ~ 즐기고 있다.'에서 '어둠'과 '물상'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대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에서는 '풀벌레'를 여린 마음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는 등 의인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풀벌레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②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절제된 어조로 '어둠'과 '아침'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고백적 어조를 통해 자연과의 소통을 잊고 살았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나)이다.

③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풀벌레 소리가 '환하다', '낭랑하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으나 상승적 이미지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가)의 '즐거운 지상의 잔치', '즐거운 울림' 등에서 생동감 있는 아침 풍경이 드러나고 있지만 상승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반성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아침이면 ~ 한다.'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아침 이미지를 강조할 뿐,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반성적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한편 (나)는 '생각한다'를 반복하여 그동안 자연을 잊고 살았던 스스로를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1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지각**: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 **간과**: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

정·정·이

③ 화자 오류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C]에서 화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풀벌레 소리와 풀벌레들의 여린 마음을 생각하며, 그동안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화자 때문에 풀벌레들끼리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을 미안해한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들이 들려온다고 하였으므로,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소리를 텔레비전을 끈 후에 지각했다고 볼 수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B]에서 화자는 어둠 속에서 환해진 풀벌레 소리 중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D]에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때문에 풀벌레 소리들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그 소리를 간과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E]에서 화자는 밤공기와 함께 풀벌레 소리가 자신의 허파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119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텔레비전'은 현대 문명을 대표한다.

ㄴ.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때문에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어둠과 함께 풀벌레 소리가 방 안에 가득 들어오자,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눈과 귀를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이 수없이 자신에게 왔다가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ㄴ) 자연에 무심했던 것을 성찰하고 있다. 이로 보아 '텔레비전'은 풀벌레 소리와 대립되는 시어로,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ㄱ).

오·오·이

ㄷ. 화자 오류 화자가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는 것은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화자가 '크게 밤공기를 들이쉬'는 것은 그동안 무심했던 자연을 느끼며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12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는 평소에 '풀벌레 소리'를 ~~애써 무시하려고 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는 '되돌아간 소리'를 생각하던 화자가 풀벌레 소리에 무심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한 말로, 화자가 애써 풀벌레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화자는 '텔레비전'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었군.

'텔레비전'을 끄면서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왔다는 것은 그동안 텔레비전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② '귀뚜라미나 여치'의 울음소리를 들은 화자는 그보다 작은 풀벌레들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군.

118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의 인식 범위가 '귀뚜라미나 여치'의 큰 울음소리에서 그보다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하루살이들'은 화자에게 닿지 못하고 되돌아갔던 소리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화자는 브라운관의 현란한 빛이 자신의 눈과 귀를 채우는 동안 풀벌레의 울음소리들이 수없이 왔다가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루살이들이 전등에 부딪쳤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다.

⑤ '밤공기를 들이쉬'는 모습은 자연을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군.

화자가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이는 마음으로 자연과 소통함으로써 자연을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12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생기**: 싱싱하고 힘찬 기운.

정·정·이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밝아 오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태양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여러 물상들이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생동감 있는 이미지와 어울려 분위기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날이 밝으며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물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② 헛짚기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생기 넘치는 아침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아침이 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온갖 물상들의 모습을 즐거운 잔치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활기차고 밝은 아침의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지,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⑤ 헛짚기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세상은 개벽을 한다'에는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어 활기차게 움직이는 아침 풍경을,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건처럼 느끼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거나 그로 인해 겪는 혼란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122 답 (1) 낳는다 (2) 걷히는 (3) 경이로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낳는다, 굴복한다)'는 '어둠'을 생성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어둠'이 '새', '돌', '꽃' 등의 물상을 낳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낳는다'는 '어둠'을 생산력을 가진 모체의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체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어둠이 (걷히는, 찾아오는) 시간을 의미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아 오는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3) 교체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시상이 집약된 부분으로, 아침 풍경에 대한 (비애감, 경이로움)이 드러난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의미로, 생동감이 넘치는 아침 풍경에 대한 경이로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2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계**: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정·정·이

④ '몸을 움직이'는 '물상'들의 모습은 아침을 맞은 사물들의 생동감을 강조한다.

화자는 아침이면 물상들이 몸을 움직여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고 하며 이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물상'들의 모습은 아침을 맞은 사물들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꽃'은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가)에서 '어둠'은 온갖 물상을 태어나게 하는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때 '꽃'은 '어둠'이 낳는 물상 중 하나일 뿐, 부정적 상황을 이겨 내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② 헛짚기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은 ~~어둠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물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어둠'이 '물상을 돌려주'는 것은 아침이 밝아 옴에 따라 어둠이 물러가면서 만물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어둠은 물상을 태어나게 하는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으므로 물상들이 어둠으로부터 구속되었다가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헛짚기 '땅 위에 굴복'하는 어둠의 모습은 ~~하늘과 땅 사이에 위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땅 위에 굴복'하는 어둠의 모습은 아침이 밝아 오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뿐, 하늘과 땅의 위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⑤ 헛짚기 '금으로 타는 태양'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대가가 필요함을 드러낸다.

'금으로 타는 태양'은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를 밝아오는 햇살의 눈부신 이미지로 나타낸 것일 뿐,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대가가 필요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12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은 온갖 물상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시간이다.

123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아침(㉡)'은 온갖 물상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이들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에게 굴복당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어둠(㉠)'이 '아침(㉡)'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상을 돌려주고 땅 위에 굴복하는 것이므로, 수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은 화자가 ㉡을 맞이하기 위해 갖추고자 하는 대상이다.

'노동(㉢)'은 만물이 움직임을 시작하는 활기찬 아침 풍경을 나타내는 시어일 뿐, 화자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갖추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헛짚기 ㉣은 ㉡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잔치(㉣)'는 아침에 만물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와 '태양의 즐거운 울림'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은 실제로 돌이 생성되는 아침 풍경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나타낸다.

121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의 감탄은 활기찬 아침 풍경을 개벽하는 것같이 인식하면서 느낀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어둠이 돌을 낳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던 온갖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로 돌이 생성된다는 뜻이 아니다.

19 가 낡은 집 나 고향 앞에서

작품 분석 본문 72~75쪽

가 낡은 집

작가 최두석
갈래 산문시, 서정시
주제 가난한 고향 집의 풍경과 가족들의 따뜻한 애정
특징 ① 고향 집에 돌아온 '나'의 정서 변화의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됨.
② 고향 집과 가족의 모습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담담한 어조로 묘사함.
③ 향토적 소재를 감각적으로 사용함.
④ 익살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 가난한 고향 (**집**)의 풍경
- (**가족들**)의 따뜻한 애정

나 고향 앞에서

작가 오장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향수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함.
② 쓸쓸하고 애상적인 어조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얼었던 (**강**)이 풀리는 이른 (**봄**)의 정경
❷ (**나룻가**)를 서성거리며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❸ 주막에서 화자와 함께 회한에 젖은 (**주인집 늙은이**)
❹ 쓸쓸한 (**고향**)의 모습
❺ 평화로웠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12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전락**: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무상**: 모든 것이 덧없음.

정·정·이

① (가)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고 있고, (나)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귀향'이라는 말을 어설퍼하며 자신의 부모와 동생을 각각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라고 지칭하고, 아무도 없는 방바닥에서 냉기를 느끼고 있다. 이처럼 고향 집을 전반적으로 익숙함과는 거리가 멀게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익숙했던 공간인 고향 집에서 낯선 느낌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2연에서 화자가 낯선 행인의 손을 쥐고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친근감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가)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나)의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는 화자의 뿌리이자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고향을 표현한 말일 뿐이다. 따라서 (나)의 고향이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화자가 고향을 벗어나고자 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어전함에 좌절하고 있다.

(가)에서는 세상의 변화나 변하는 인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나)의 화자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인집 늙은이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각박한 인심에 좌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 (나)의 화자는 고향을 잃어버린 신세이다. 그러나 (가), (나)의 화자 모두 삶에 무상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한다.

(가)의 화자는 농부인 아버지가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며 '차비 정도를 버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 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의 6연은 화자의 마음 속 고향의 모습이자 화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고향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화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6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담담한 어조와 익살스러운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나타내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궁핍하게 사는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며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리를 저는 오리의 허둥대는 모습과 박치기하는 메주 등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가난으로 인한 비애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2) 헛짚기 (나)의 화자는 떠도는 장꾼들에게서 자신이 기대했던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된다. (○, ×)

(나)의 5~6연을 통해 화자가 여기저기 떠도는 장꾼들에게서 그리운 고향의 소식을 듣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그들에게서 기대했던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12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나)에는 화자의 소망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애상감이 나타나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근처 나룻가를 서성이다 주막에 들러 주인집 늙은이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고향은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가 나는 평화로운 곳이지만, 현재의 화자가 찾아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나)의 화자는 자신이 그리던 고향에 가고 싶은 소망과 달리 고향에 가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빈곤한 삶에 대한 개탄을 표출하고 있다.

126번-(1)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의 화자는 담담한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으므로 빈곤한 삶에 대한 개탄을 표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가)에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가)는 화자가 고향 집에 도착한 겨울 해어름부터 아버지가 귀가하신 늦은 밤을 배경으로, 가족을 만나기 전에는 귀향한 자신을 어설프게 느끼다가 가족을 만나 후 애정과 따뜻함을 느끼는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난다. 계절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 오류 (나)에는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담겨 있다.

(나)의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할 뿐 지나온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이 지금은 찾아갈 수 없는, 평화로웠던 과거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떠나간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떠나간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12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객관화**: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일.

정·정·이

⑤ 헛짚기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은 장꾼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실상 고향을 잃은 화자의 설움을 나타낸 것으로,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의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은 화자의 부모와 여동생을 의미한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가족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객관화하여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에서 묘사된 아무도 없는 집 안과 선뜩한 냉기가 도는 방바닥에서, 가난한 형편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간접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③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은 봄이 되어 강의 얼음이 녹아 강물에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의 '지난날의 꿈'은 고향에서 지냈던 행복한 추억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 함께 나누며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의문형 어미를 통해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가)에서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하는 것은 ~~고된 삶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다.

(가)에서 집 안에 메주가 매달려 있는 풍경을 '서로 박치기'한다고 표현한 것은 궁핍한 고향 집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그려 웃음을 자아낸 것으로, 힘든 삶에서 오는 비애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좌절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② (나)의 '산짐승의 우는' 소리는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의 '산짐승의 우는'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나)의 '주막'은 화자가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공간이다.

(나)의 '주막'은 화자의 고향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주인집 늙은이와 이야기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장꾼들에게 고향 소식을 듣고자 하므로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3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나)의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지우는 것은 화자의 슬픔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화자와 '주인집 늙은이'의 처지가 비슷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행인', '장꾼들'은 고향 근처에 머물던 화자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로,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으로써 고향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강바람'은 산짐승이 우는 소리를 불러오고 '설레는 바람'은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이는 고향 근처에 있다는 설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쓸쓸함 등을 담아내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④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

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은 '눈물지운다', '잠자고', '보셨나이까'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이를 통해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 행의 '흙이 풀리는 내음새'와 마지막 행의 '누룩이 뜨는 내음새'는 모두 고향에 대한 기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3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울창하고**: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고 푸르고.

정·정·이

③ 헛짚기 (나)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130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화자가 공감한 것이 아니라,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슬픔에 공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도 공감과 조화를 통해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귀향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가)에서 화자는 가난한 농촌 현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화자가 돌아온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가)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고향을 떠난 이가 복귀하려는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가)의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동생이 화자를 반가워하며 아버지가 오리를 잡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의 따뜻함과 가족애를 느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복귀하려는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나)의 6연에서 화자가 고향을 전나무 우거져 있고,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묘사하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나)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보기〉에 따르면 고향은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의 화자는 고향 집에서 궁핍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며 안타까움과 비애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상적 공간으로의 복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에서 화자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의 주막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 귀향 역시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32 답 (1) 낯선 (2) 사랑 (3) 잰나비 우는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가)의 '선뜩한 냉돌'은 화자가 느끼는 (낯선 익숙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25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선뜩한 냉돌'은 고향 집의 썰렁한 분위기와 빈곤한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으로, 고향 집에서 느낀 화자의 낯선 감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상반 (가)에서 아버지가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 것은 화자에 대한 (원망, 사랑)의 마음을 보여 준다.

아버지가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 것은 고향에 돌아온 화자를 반겨 음식을 차려 주기 위한 것으로, 화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준다.

(3) 교체 (나)의 '(잰나비 우는, 누룩을 디디는)' 소리는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나)의 '잰나비 우는'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13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B]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는 이른 봄에 얼음장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A]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음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겨울에서 언 땅이 녹는 봄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C]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D]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처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잰나비 우는'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처량하고 쓸쓸한 고향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청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근원적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의 청각적 심상과 '누룩이 뜨는 내음새'의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그리워하는 풍요롭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0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고고(孤高)

작품 분석 본문 76~79쪽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가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모란(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
특징 ① 순환적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②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③ 수미상관의 구성과 도치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④ 음성 상징어 및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❷ 모란이 진 후의 (**슬픔**)과 절망감
❸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림.

나 고고(孤高)

작가 김종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현실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시구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③ 유사하거나 동일한 구절을 반복·변주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겨울이 되어야 드러나는 (**북한산**)의 높이
❷ 높은 봉우리에 눈이 (**가볍게**) 덮여야 드러나는 고고한 높이
❸ 다른 계절에는 드러나지 않고 (**변질**)되기 쉬운 고고한 높이

13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치**: 문장 안에서 정상적인 어순 따위를 뒤바꿈. 흔히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려는 말을 문장의 앞쪽에 내세우는 것을 이르며, '어머니 보고 싶어요.'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되는 것 따위이다.
- **긴박감**: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

정·정·이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1~2행이 시의 마지막 부분인 11~12행에서 변주·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여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1연이 마지막 연에서 변주·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현실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강조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11~12행에서 어순의 도치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는 어순이 도치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나)는 '수묵'이라는 시어가 흑백의 대비를 연상시키고, 화자가 바라보는 북한산의 모습이 눈으로 덮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회화적 이미지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모란꽃의 색깔이 연상될 뿐, 흑백의 색채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흑백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가)는 모란이 핀 것을 본 경험을, (나)는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 북한산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로, 둘 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정·오 지름길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가)에서 모란이 피는 상황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라는 점에서 가상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의 '까지'는 어떤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화자가 모란이 피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지, 가상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한편 (나)는 '~려면'과 같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⑤와 같이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진술한 선지에서는 각각의 표현 방법이 (가)와 (나)에 모두 쓰였는지 먼저 확인한 후, 그로 인한 효과도 적절한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해요.

135 답 (1) (가), (나) (2) (가) (3)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 (나))

(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 기다리고 있을 테요.'를 반복하여 모란에 대한 기다림의 태도를 강조하고, (나)는 '기다려야만 한다'는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가 고고함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경어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

(가)의 화자는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 공손함을 더해 주는 어미 '-오-'에 상대를 아주 높이는 종결 어미 '-ㅂ니다'의 방언인 '-ㅂ네다'가 결합된 말 등을 통해 모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경어체로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나)는 '기다려야만 한다'와 같이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고고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낼 뿐, 경어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3) 범위 오류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

(나)의 화자는 '북한산', '백운대', '인수봉' 등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13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의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인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뚝뚝 떨어져 버린', '떨어져 누운'과 같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는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 풍경을 '가볍게 눈을 쓰고', '수묵으로 젖어 있는' 등과 같이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달리~~ (나)는 자연물을 소재로 삼고 있다.

(가)는 모란을 소재로 삼아 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나)는 북한산의 모습에 빗대어 고고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부재 ~~(나)와 달리 (가)는 대화의 형식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나)와 달리 (가)는 명사로 시를 끝맺어 대상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봄을'로, (나)는 '기다려야만 한다.'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둘 다 명사로 시를 끝맺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모란과 북한산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서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찬란한 슬픔의 봄'은 역설적 표현으로, 봄을 모란이 피는 기쁨의 계절이자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순된 감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13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비중**: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
- **요건**: 필요한 조건.

정·정·이

① 헛짚기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가)의 '설움'은 '나의 봄(㉠)'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의 봄'이 끝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오·오·이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모란이 지고 나면, 그 뒤로 남은 나머지 '삼백예순 날'은 화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날들이라는 뜻이다. 이어서 화자가 늘 섭섭해서 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의 봄(㉠)'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찬란한 슬픔'에서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을, '슬픔'은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설움을 뜻한다. 이 둘을 연결하여 역설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나의 봄(㉠)'에 모란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백운대와 인수봉의 '고고한 높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밤사이 눈이 내려 온 산이 수묵화처럼 보이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4, 6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 '고고한 높이(㉡)'는 온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고,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상태일 때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3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뚝뚝'에는 모란이 진 후의 상실감이 담겨 있다. (○, ×)

'뚝뚝'은 '큰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잇따라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로, 모란의 꽃잎이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동시에 모란이 진 것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2) 화자 오류 '삼백예순 날'에는 기다림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 ×)

'삼백예순 날'은 모란이 지고 난 뒤 화자가 늘 섭섭해 우는 시간이므로, 모란이 진 것에 대한 슬픔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다림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3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미묘한**: 뚜렷하지 않고 아릇하고 묘한.

정·정·이

④ 상반 '왼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반대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2, 6연에서 북한산의 높은 봉우리만이 가볍게 눈을 쓴 상태가 화자가 기다리는 '고고한 높이', 즉 고고한 정신세계의 경지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왼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이 경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반대되는 상황이며,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옅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옅은 화장'은 눈이 살짝 덮인 북한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화자는 온 산을 뒤덮는 적설이 아닌, 눈이 살짝 쌓인 때야말로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차가운 수묵'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차가운 수묵'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고고한 높이를 회복한 북한산의 속성이 드러나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신록', '단풍', '안개'는 모두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이 지니는 고고함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가볍게 눈이 덮인 산봉우리의 고고함은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된다. 이를 통해 고고함을 잃지 않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존속**: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

정·정·이

③ 헛짚기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나)에서 화자는 대상인 북한산이 고고한 아름다움을 보이려면 높은 봉우리인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적설이 아닌 가벼운 눈을 쓰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대상의 높이는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가)에서는 모란이 피는 아름다움을 경험한 화자를 '나'와 같이 표면에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가)의 9~10행에서 화자는 모란이 지고 난 뒤 남은 시간인 '삼백예순 날'을 늘 섭섭해 운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모란은 일 년 중 '삼백예순 날'을 제외한 5일 정도만 피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만 존속하는 모란의 아름다움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나)에서는 2, 3연에서 대상인 북한산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이 제시되고, 4연에서는 그렇지 않은 순간이 제시되면서 서로 대비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가)는 봄,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141 답 (1) 아름다움 (2) 봄 (3) 대상의 묘사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와 (나)는 대상이 지닌 속성에서 화자가 느낀 (아름다움, 슬픔)을 드러낸다.

〈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2) 교체 (가)는 (봄, 가을)에 소멸을 앞둔 모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가)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모란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고 하였다.

(3) 교체 (나)는 (정서의 표현, 대상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나)에서 '옅은 화장을 하듯 / 가볍게 눈을 쓰고', '왼 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등의 표현으로 북한산의 고고함을 묘사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나)에서 '장밋빛 햇살'은 화자가 인식한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해당하겠군.

〈보기〉에서 화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영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에서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에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여 사라진다고 하였다. 즉 이른 아침에서 시간이 지나 '장밋빛 햇살'이 비치면 고고한 높이가 변질되므로 '장밋빛 햇살'은 시간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의 '기다리고 있을 테요'에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깔려 있군.

(가)에서 화자가 모란이 지고 난 후 기다리겠다고 한 이유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따라 모란이 다시 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② (가)에서 '삼백예순 날 하냥' 운다는 화자의 말은 모란의 재생을 기다리는 동안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군.

(가)에서 화자가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는 이유는 모

란이 지고 난 뒤의 나머지 시간은 화자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며 그 시간 동안 모란이 진 것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을 느낄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한 이유는 화자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음을 나타내는 것이군.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은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보여 주는 시간인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이 지나갔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오월'과 (나)의 '겨울'은 모두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짧은 시간이자, 대상의 소멸을 겪은 시간이겠군.

(가)의 '오월'은 모란이 피는 봄이면서,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을 포함하고, (나)의 '겨울' 또한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시간이면서, '왼 산을 뒤덮는 적설'처럼 그렇지 못한 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오 지름길

① (가)의 '기다리고 있을 테요'에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깔려 있군.

② (가)에서 '삼백예순 날 하냥' 운다는 화자의 말은 모란의 재생을 기다리는 동안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군.

①과 ②는 화자가 모란의 재생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아요. 문제에서는 답이 하나여야 하므로, 같은 내용을 다룬 ①과 ②는 모두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이럴 때는 두 선지를 빠르게 지우고 다른 선지를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21 가 와사등 나 울타리 밖

작품 분석 본문 80~83쪽

가 와사등

작가 김광균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도시 문명에 대한 절망과 비애, 고독한 현대인의 방황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비유와 시각적·청각적·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냄.
③ 변주된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부각함.
한 줄 의미
❶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느낀 (**공허함**)과 방황
❷ 도시의 삭막함과 (**무질서**)
❸ 군중 속에서 느끼는 (**비애(슬픔)**)와 소외감, 삶의 중압감
❹ 현대의 도시 문명 속에서 느낀 (**공허함**)과 방황

나 울타리 밖

작가 박용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
특징 ①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시의 앞과 뒤를 연결하고 시상을 집약함.
②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살림.
③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열거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시의 분위기를 조성함.
한 줄 의미
❶ 고향의 (**소녀**)와 (**소년**), 들길의 모습
❷ (**들길**)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
❸ 꾸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

14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래**: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
- **암시**: ① 넌지시 알림. 또는 그 내용. ② 뜻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법.

정·정·이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2연에서 고층 건물이 늘어선 도시의 풍경을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에 비유하여 공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2연에서 고향의 들길의 풍경을 '아지랑이', 타는 '태양', 나는 '제비', 흐르는 '물' 등에 비유하여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마지막 연이 1연의 시행 순서를 바꾸어 반복한 것이

라는 점에서 수미상관의 방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과 비애는 변하지 않으므로 정서의 변화가 강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에는 수미상관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② 부재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가)의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화자의 방황과 비애감을 나타내는 시구로, 시적 대상인 '와사등'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한다고 볼 수 없다.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헛짚기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밝음과 관련된 시어 '등불', '찬란한 야경'이, 어둠과 관련된 시어 '어둠'이 쓰였으며, (나)에서는 밝음과 관련된 시어 '잔광'이, 어둠과 관련된 시어 '밤'이 쓰였다. 그러나 이 시어들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의 '내'라는 시어에서 알 수 있듯 (가)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14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에는 모두 가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나)에서의 고향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이상적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리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1연의 시구를 마지막 연에서 배열을 바꾸어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화자의 공허함과 방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는 4연에서 '~ 마을이 있다'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②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와 (나)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가)는 현대의 도시 풍경을, (나)는 자연과 조화된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14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에는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이, (나)에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애정 어린 시선이 나타나 있다.

(가)의 2연에서 도시 풍경을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가 고향의 '소녀'와 '소년', '들길'에 대해 사랑스럽다고 언급하고 꾸밈없는 고향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고향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다) 모두~~ 현대인의 고독감이 표출되고 있다.

현대인의 고독감과 방황을 표현한 것은 (가)뿐이다. (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② 화자 오류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면서 좌절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비애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좌절하는 상황과 거리가 멀다.

③ 화자 오류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다.

(가)의 화자는 도시의 군중 속에서 공허감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여 삶의 깨달음을 얻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④ 화자 오류 (가)에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나)에는 ~~자연과 관계 맺고 있는 타인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현재 도시의 삶을 낯설게 느끼며 방황하고 비애감을 느끼고 있을 뿐, 스스로에게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의 화자는 꾸밈없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드러낼 뿐, 타인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14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은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피부에 '스미는' 촉각적인 것으로 나타낸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으로, 화자가 느끼는 음습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비인 하늘'은 적막한 느낌을 주는 배경으로 여기에 걸려 있는 '차단—한 등불 하나'는 뒤에 이어지는 '내 호올로'와 함께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한다.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길—게'에 쓰인 문장 부호 '—'는 '길게'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동일한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하여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 다양한 소재들을 나열함으로써 이들이 천연한 속성을 동질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의 시어인 '천연히'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대상의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147 답 (1) ㉤ (2) ㉣ (3)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은 시상을 집약하며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

㉤은 1~2연과 4연을 연결하며 시상을 집약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함축하여 보여 준다.

(2) 범위 오류 ㉣은 열거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

㉣은 들길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을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을 열거하여 나타냄으로써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3) 범위 오류 ㉠, ㉡, ㉢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정서와 시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 ㉢)

㉠의 빈 하늘에 걸려 있는 '등불'과 ㉢의 길게 늘어진 어두운 '그림자'는 화자가 느끼는 공허감과 삶의 중압감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의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은 공감각적 이미지로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음습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14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도시 문명을 향한 의혹을 강조하고 있다.

'눈물겹고나'에서 화자의 비애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도시 문명을 향한 의혹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의 화자는 도시 문명 속에서 방황하며 비애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오·오·이

① ㉮: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홀로'를 의도적으로 '호올로'라고 씀으로써 화자의 외로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② ㉯: 활유법을 활용하여 해가 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무생물인 해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해가 지는 모습을 새가 날개를 접는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④ ㉱: 중의성을 지닌 시어를 앞에 배치하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같이'를 '처럼'의 의미로 보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대상에 '소녀', '소년', '들길'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지만, '함께'의 의미로 본다면 '들길'만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대상이 된다. 이처럼 중의적 시어의 배치는 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 꾸밈없이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제시하고 있다.

'화초'를 울타리 밖에도 심는다는 것은,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화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의 경계인 울타리의 안팎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14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가)의 2연에서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시간의 '순환적' 흐름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도시의 황폐함은 도시 풍경을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에 비유함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나)에서는 '한여름', '밤'에서 계절적·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을 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자연의 지속성은 마을 풍경을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밤이면 더 많은 별이 뜨는'과 같이 묘사함으로써 강조되고 있다.

오·오·이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가)는 하늘에 걸린 '등불', 해 질 녘 도시의 고층 건물과 '야경', '그림자' 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고향 마을의 풍경을 '화초', '잔광', '별' 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회화적 이미지와 부합한다.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가)에서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인식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문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명과의 불화로 인한 상심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초'는 인간의 영역인 '울타리 안'과 자연의 영역인 '울타리 밖'을 이어 주는 것이므로 〈보기〉에 따르면 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나)와 달리 (가)는 '슬픈', '낯설은', '공허한', '비애' 등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마늘쪽', '울타리' 등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150

답 (1) 모더니즘, 현대 문명, 토속적 (2) 지성 (3) 조화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 (나)는 (사실주의, 모더니즘)의 시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으로, (가)는 (현대 문명, 전통)에 대한 태도를, (나)는 (도시적, 토속적) 정취를 보여 준다.

〈보기〉에서 (가)를 쓴 김광균은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하였으며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한편 (나)를 쓴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을 활용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였다고 하였다.

(2) 교체 (가)에는 (감성,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이 나타나 있다.

〈보기〉에서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고 하였다.

(3) 교체 (나)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 조화)에 대한 바람을 회화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 박용래는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하였다.

15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작**: 시를 지음. 또는 그 시.
- **모티프**: 회화, 조각, 소설 따위의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동기가 된 작가의 중심 사상.

정·정·이

① 화자 오류 고향의 '소녀'와 '소년'은 시적 주체가 '들길'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해소해 주고 있군.

시적 주체는 들길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을 보며 천연하다고 느끼고 있을 뿐, 고독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향의 소녀와 소년이 고독감을 해소해 준다고도 볼 수 없다.

오·오·이

② '천연히'라는 시어에서 '마을'이 도시적 삶과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공간임이 드러나고 있군.

〈보기〉에서 (나)의 후반부에서 '들길'의 추억은 메마른 도시적 삶의 고독과 대비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3연의 '천연히'는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4연에 묘사된 '마을'이 도시적 삶과 대비되는 속성을 지니는 공간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시적 주체에게 '들길'의 추억은 풋사랑의 아련함으로 기억된 사연으로 시작(詩作)의 계기가 되고 있군.

〈보기〉에서 (나)의 도입부는 시적 주체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풋사랑의 아련함이 고향 마을의 정경과 어울리며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이를 '들길'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1연에 묘사된 장면은 시적 주체에게 풋사랑의 아련함으로 기억된 사연으로써 (나)를 창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④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은 '고향-마을'의 모티프를 형상화한 것으로 현재의 시적 주체가 지향하는 모습이군.

〈보기〉에서 (나)의 후반부에서 '들길'의 추억이 '고향-마을'의 모티프로 확산되는데, 여기에서 '화초', '잔광', '별'이 과거를 표상하는 동시에 현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의 후반부에 제시된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 풍경은 '고향-마을'의 모티프가 형상화된 것으로, 현재의 시적 주체가 지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⑤ 현재 시제로 기억 속의 정경을 표현함으로써 고향 마을을 과거의 공간인 동시에 현재의 세계로 인식되게 하고 있군.

〈보기〉에서 (나)의 도입부는 시적 주체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후반부에서 '화초', '잔광', '별'은 시적 주체의 현재를 둘러싸는 우주와 같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있다'는 고향을 과거의 공간인 동시에 현재의 세계로 인식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15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 늘여선~~

'늘어선(ⓑ)'은 건물이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모습을 표현할 뿐,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는 없다.

오·오·이

① ⓐ 슬픈

도시 문명에서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③ ⓒ 낯설은

도시 문명에 적응하지 못한 화자의 반응을 나타낸 말로, 화자의 소외감을 드러낸다.

④ ⓓ 공허한

존재감과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가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말이다.

⑤ ⓔ 차단-한

차갑고 냉정한 도시 문명에 대해 느낀 화자의 감정을 와사등의 차가운 느낌을 통해 대신 표현한 것이다.

22 가 생명의 서-일 장 나 농무

작품 분석 본문 84~87쪽

가 생명의 서-일 장

작가 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생명의 본질 추구에 대한 의지
특징 ① 삶의 본질을 찾는 화자의 구도 과정이 드러남.
② 모든 생명이 사멸하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생명의 본질을 찾겠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형상화함.
③ 대조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삶에 대한 (**회의**)와 애증의 감정에 부대낌.
❷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극한의 공간인 아라비아 (**사막**)
❸ 본질적 (**자아('나')**)를 찾으려는 비장한 의지

나 농무

작가 신경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과 농민들의 한
특징 ① 농촌의 현실에 대한 화자의 울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함.
② 화자의 심리를 역설적 상황을 통해 드러냄.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한 줄 의미

❶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심.
❷ (**장거리**)에서 느낀 서글픔
❸ 피폐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울분**)
❹ (**농무**)를 통한 울분과 한의 표출

15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탈속성**: 속세를 벗어난 것과 같은 성질.
- **동경**: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함.

정·정·이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나)는 시상이 마무리되는 부분인 '한 다리를 ~ 불꺼나 / 고갯짓을 ~ 흔들꺼나'에서 대구를 사용하여 여운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대구의 표현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에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쓰이지 않았다.

② 부재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나)에서는 '보름달은 밝아'로 보아,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피폐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고 있을 뿐,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가)는 시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아라비아 사막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나)에는 시각적 심상 외에도 '징이 울린다',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에서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가 가고자 하는 '아라비아 사막'은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하고 알라의 신만 존재하는 탈속적인 공간으로, 이곳에서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나)에는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을 내세워 화자의 동경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15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가)~~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가)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의 '아라비아 사막'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가려고 한 상징적 공간일 뿐, 화자가 이곳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다. 한편 (나)는 화자가 '운동장' → '소줏집' → '장거리' → '쇠전' → '도수장'의 순서로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오·이

① (가), (나) 모두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살면서 느끼게 되는 회의와 애증에서 벗어나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를, (나)의 화자는 농촌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울분을 독백적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③ (나)는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답답하고 ~ 원통하다', '산 구석에 ~ 무엇하랴', '비룻값도 ~ 농사 따위야' 등에서 농촌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5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화자가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 가고자 하는 아라비아 사막이 모든 생명이 사멸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는 암울한 농촌 현실의 울분과 한을 신명 나는 농무를 통해 분출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가)는 생명의 본질 추구에 대한 의지를, (나)는 농민으로서의 한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활유법~~을 통해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는 무생물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활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② 부재 (가)는 ~~(나)와 달리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가)와 (나)에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부재 (나)는 ~~(가)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가)와 마찬가지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이지 않았으며,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한자어와 관념어를 사용해 생경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회의', '애증', '영겁', '허적' 등의 한자어와 관념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생경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나)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15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상반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가)에서 화자는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올로 서면' 반드시 본질적 자아인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렬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본질적 자아에 도달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나'는 화자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되찾기 위해 추구하는 본질적 자아인데 반해, '병든 나무(㉠)'는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을 표상하므로 서로 대비된다.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영겁의 허적(㉡)'은 아무것도 없이 적막한 '아라비아의 사막'의 극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본질적 자아와 대면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화자는 '나'와 대면하여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회한 없는 백골(㉤)'은 '나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강한 생명 회복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5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은 삶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 ×)

'병든 나무(㉠)'는 현재 삶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2) 헛짚기 ㉡은 화자가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다. (○, ×)

'영겁의 허적(㉡)'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만나리라 기대하고 찾아가려는 공간의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하는 적막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화자가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원인과 관련이 없다.

(3) ㉣은 순수한 인간 본연의 자아를 나타낸다. (○, ×)

'원시의 본연한 자태(㉣)'는 화자가 구하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 즉 순수한 인간 본연의 자아를 의미한다.

15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은 ~~다 함께 즐기는 농무의 흥과 신명~~을 드러낸다.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은 농무를 즐기는 사람이 적어진 텅 빈 농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지, 농무의 흥과 신명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막이 내렸다'는 공연이 모두 끝난 후의 공허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막이 내렸다'는 공연이 끝났다는 의미이므로 그 후의 공허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② '분이 얼룩진 얼굴'은 공연의 분장을 미처 지우지 못한 얼굴 또는 원통한 울분이 드러난 얼굴을 의미한다.

'분'을 공연할 때 하는 분장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분장을 미처 지우지 못한 얼굴로 이해할 수 있고, 울분의 의미로 본다면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이해할 수도 있다.

④ '보름달은 밝아'는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드러낸다.

'보름달은 밝아'는 (나)의 시간적 배경이 보름달이 밝게 보이는 밤임을 드러낸다.

⑤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는 화자가 울분을 느끼는 이유를 직접 제시해 준다.

6행에서 화자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한 뒤 15행에서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울분을 느끼는 이유가 농촌의 구조적 모순 때문임을 직접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③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은 다 함께 즐기는 농무의 흥과 신명을 드러낸다.

'뿐', '도', '만' 등의 보조사는 문장에서 의미를 제한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특히 ③에 제시된 시구에서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이라는 뜻으로 농무에 따라붙어 즐기는 청중이 그 외에 더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여기에서 '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뒤에 이어지는 '다 함께 즐기는 농무'와 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을 재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15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보기〉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는 오히려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명을 느끼는 화자로부터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농민들의 태도를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농무가 역설적으로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 준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농무를 추는 화자는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A]의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에서 잘 드러난다.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은 부정적 느낌의 시구들로,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④ ⓐ와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농민들의 상황을, ⓐ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농민들이 느끼는 정서를 보여 준다. 〈보기〉에 제시된 1970년 전후의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 ⓑ를 통해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지할 수 있다.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나)에서 화자는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는 부인에게 맡겨 두고 신명 나게 농무를 추고자 한다. 그런데 〈보기〉에서 농무는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농무를 어떻게 출 것인지를 묻는 ⓒ는 비참한 농촌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은 화자가 자조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냉소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160 답 (1) 피폐한 (2) 자조적 (3) 저항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달관**: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에 이름. 또는 그 식견이나 인생관.

정·정·이

(1) 교체 [A]에서 울리는 징소리는 농민들의 (피폐한, 활기찬) 삶의 모습과 관련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보기〉에 따르면 1970년 전후의 농촌은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갔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막이 내렸다는 의미로 울리는 징소리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피폐해진 농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농촌의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B]의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는 화자의 (의지적, 자조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는 발버둥 쳐 봤자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화자의 자조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의 춤은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달관, 저항)의 몸짓이다.

ⓒ에 나타나는 농민들의 춤은 비극적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과 한을 신명 나는 몸짓으로 분출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6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허탈**: 몸에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멍함. 또는 그런 상태.
- **승화**: ①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 ② 자아의 방어 기제의 하나. 정신 분석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충동·욕구를 예술 활동, 종교 활동 따위의 사회적·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치환하여 충족하는 일이다.

정·정·이

③ 헛짚기 ㉰: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전통적인 풍속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는 것은 농민들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울분과 한을 토로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농촌의 전통적인 풍속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산업화 시대에 허탈해진 농민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공간으로, 〈보기〉를 참고할 때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고 허탈해진 농민의 슬픔과 한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 농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를 술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이 얼룩진 얼굴로 /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기〉를 참고할 때, 농촌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와 울분을 술로 해소하고자 하는 농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④ ㉱: 산업화로 인해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는 〈보기〉를 참고할 때 산업화로 인해 소외되고 급속도로 와해되어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⑤ ㉲: 농민의 울분과 고통을 농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승화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점점 신명이 난다'는 것은 농민의 울분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으로, 농무를 추는 것은 그 한과 고통을 흥겨운 농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승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6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 [나] 모두 주어진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의 화자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조적으로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님'과 만나기 힘든 현실을 인식하고 '님'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 줄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의 화자 모두 주어진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는 수동적이고, [나]는 ~~능동적~~이다.

[가]의 화자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대해 자조적으로 한탄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도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고 있으므로, 둘 다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범위 오류 [가]는 ~~낙관적~~이고, [나]는 비관적이다.

[가]와 [나]는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를 깨닫고 한탄하거나 걱정하고 있으므로, 둘 다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가]는 ~~객관적~~이고, [나]는 주관적이다.

[가]와 [나]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둘 다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가], ~~[나] 모두~~ 현실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화자가 자조적으로 한탄하는 모습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현실을 회의적, 비관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으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3 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나 월훈

작품 분석 본문 88~91쪽

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작가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과 유랑민의 비애
특징 ① 타향에서 맞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절제되고 담담한 어조로 회고함.
②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비극성을 강조함.
③ 청각적 이미지와 점층법을 통해 비극성을 강조함.
④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유랑민의 곤궁한 삶을 보여 주고 아버지의 죽음을 사회 차원으로 확대함.

한 줄 의미

❶ (**타향**)에서 맞은 아버지의 임종
❷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❸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함.
❹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가족의 (**슬픔**)

나 월훈

작가 박용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산촌의 적막함과 노인의 고독감
특징 ① 경어체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감의 깊이를 더해 줌.
② 향토적 서정을 불러일으키는 토속어와 고유어를 주로 사용함.
③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을 전개함.
④ 반복법과 연쇄법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⑤ 시상이 집약된 명사로 시를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남김.

한 줄 의미

❶ (**첩첩산중**)의 후미진 마을
❷ 갱 속 같은 마을 (**외딴집**)의 모과빛 창문
❸ 외딴집의 잠 못 이루는 (**노인**)
❹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
❺ 달무리 진 (**밤**)의 정경

16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초점화**: 예술 작품에서, 인물의 행위나 상황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
- **합일**: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대상화**: ① 어떠한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함. ② 자기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밖에 있는 것으로 다룸.

정·정·이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는 아버지의 임종 장면에, (나)는 한겨울 산골 외딴집에서 밤을 보내는 노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 (가)는 풀벌레 소리를 통해 (나)는 모과빛 창문, 짚단이 풀리는 소리, 새들의 날갯짓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등을 통해 초점화한 장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우의적'이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인데,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과거에 경험한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회상하고, (나)의 화자는 산골 노인의 고독한 삶의 모습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에서 특정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④ 부재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가), (나) 모두 화자가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삶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가)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임종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반면 (나)는 산촌의 풍경과 노인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산촌의 적막감과 노인의 고독감을 그리고 있다.

정·오 지름길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 (가)와 (나) 모두에서 전혀 쓰이지 않은 표현 방식이 제시된 선지는 뒷부분을 공들여 읽지 않고도 적절하지 않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에 언급된 표현 방식이 (가)에 쓰였다면, 그 효과가 적절한지를 이어서 판단해야 돼요. 이때 표현 방식이 쓰였으나 그 효과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나)에 해당 표현 방식이 쓰였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다음 선지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간을 아껴 두면 (가)뿐 아니라 (나)의 표현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운 선지를 분석할 때 여유 있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16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산촌 마을의 정겨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나)의 2연에서 마을을 '갱 속'에 비유하고, 해가 짧은 겨울의 해 질 녘 풍경을 '노루 꼬리'에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산촌의 적막함과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감을 그려 내는 배경일 뿐, 산촌 마을의 정겨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가)는 1연의 4~5행이 마지막 연의 3~4행에서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인다. 이때 반복되는 내용이 침상도 없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비극성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풀벌레 소리, (나)에서는 짚단이 풀리는 소리, 새들의 날갯짓 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6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A]에서는 풀벌레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화자와 가족들의 슬픔이, [B]에서는 귀뚜라미를 통해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이 환기되고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A], [B]는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A]에는 아버지를 잃은 가족의 비통하고 슬픈 모습이 드러나 있고, [B]에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통해 노인의 고독감이 깊어지는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A]와 [B] 모두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헛짚기 [A], [B]에서는 모두 긍정적 태도로 삶을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A], [B] 모두에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수용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부재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A], [B] 모두에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반어적으로 풍자한다.

[A], [B] 모두 시적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할 뿐,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지 않다.

16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목가적**: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 **연쇄**: 사물이나 현상이 사슬처럼 서로 이어져 통일체를 이룸.

정·정·이

③ 부재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목가적 분위기'란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말하는데, (나)에 묘사되고 있는 산골 마을의 외딴집은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목가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화자는 산골 외딴집에서 밤을 보내는 노인을 관찰하여 독백적 어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대화적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풀려 내리는 짚단에 귀를 기울이는 노인의 모습이나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소리 등에서 산골 마을의 외딴집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노인의 고독을 읽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② 외딴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깊은 산골 외딴집의 정경을 묘사하여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다.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노인의 고독감과 산골의 적막감을 집약하여 '월훈'이라는 명사로 시를 끝맺음으로써, 달무리가 주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1~2연의 '마을', 2연의 '해', '노루 꼬리 해', '콩깍지', '외딴집', 3연의 '짚단', '짚오라기', '새', '새들', 4연의 '울지요', '웁니다' 등에서 시어의 반복과 연쇄를 활용함으로써 리듬감이 형성되고 있다.

16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향토적**: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긴 것.
- **경어체**: 상대에 대하여 공손한 뜻을 나타내는 문체.
-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심.

정·정·이

(1) 교체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나)는 허방다리를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을 원경에서 바라보다가 마을 안 외딴집에 있는 노인을 근경에서 묘사하고 있으므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2)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

(나)는 '모랫둑', '허방다리', '콩깍지', '짚단', '창호지 문살' 등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 헛짚기 경어체를 사용하여 ~~도인 공경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

(나)의 '않습니다', '켜지요', '듣습니다' 등에서 경어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노인 공경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경어체를 통해 정감의 깊이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16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여명**: 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 또는 그런 무렵.

정·정·이

④ 4연: 노인의 힘없는 기침소리가 그치고 난 뒤, 귀뚜라미 떼의 울음소리를 점점 크게 들리게 한다.

4연에서 노인의 잠자리 곁에서 나던 밭은기침 소리도 없을 때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고 하였다. 이때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울지요', '떼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와 같이 점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귀뚜라미 떼의 울음소리를 점점 크게 들리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오·이

① 헛짚기 1연: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산촌 사람의 뒷모습을 화자가 멀찍이 강기슭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담아낸다.~~

1연에서는 '마을'이 있다고 했을 뿐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② 헛짚기 2연: 봉당에 불을 환하게 밝힌 집에 ~~노루가 찾아들고~~, 창문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을 보여 준다.

'노루 꼬리 해'는 산골의 짧은 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외딴집에 실제로 노루가 찾아온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3연: ~~바람이 부는 날에 처마에서 날아오르는 한 무리의 새떼를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다.

'바람도 없는데'라고 했으므로 바람이 부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노인은 새들의 온기를 생각할 뿐 새떼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장면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⑤ 헛짚기 5연: 눈 내리는 적막한 새벽녘에 창호지 문살 사이로 ~~여명이 밝아오는 장면을 묘사한다.~~

'월훈'은 달무리이므로 이를 통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밤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호지 문살 사이로 여명이 밝아오는 장면은 적절하지 않다.

16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빈한한**: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한.
- **밀수**: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팖.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가)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회한과 반성으로 '우리'가 울음을 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서 '우리'가 '있는 대로의 울음'을 운 것은 아버지의 고생스러운 삶에 대한 회한과 영원한 작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보기〉를 통해 아버지가 국경을 오가며 밀수를 하며 위태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침상조차 없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렇게 고생한 보람도 없이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보기〉의 두 번째 작품의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을 통해, 아버지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아무을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가)의 '아무을 만'과 '니코리스크'는 러시아의 지명으로, 밀수꾼으로 러시아를 오고 갔던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보기〉의 첫 번째 작품의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를 통해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의 '피지 못한 꿈'을 통해 아버지가 가족과 끝내 만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는 가족들을 만나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17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버지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타국에서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 준다.

오·오·이

② 헛짚기 '목침을 반듯이 벤 채'는 아버지의 ~~곧은 성격~~을 보여 준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는 아버지의 임종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아버지의 곧은 성격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가)에서 아버지의 성격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성격이 곧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③ 교체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화자(아버지)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는 아버지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7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이웃 늙은이의 모습을 통해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이웃 늙은이'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미명을 덮어 주었을 뿐,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체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군.

〈보기〉에서 시의 시상은 외부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기도 하는데, 이때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다시 뜨시잖는 ~ 정지를 가리켰다'는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비극성을 고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타향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고달픈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군.

1연의 '고향은 더욱 아닌 곳'으로 보아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공간이 타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간적 배경을 활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침상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보기〉에서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과거의 경험에 대한 환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가)에서 '있었다', '없었고', '잊으셨다' 등과 같이 과거 시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가)의 화자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보기〉에서 시·공간적 배경을 활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애상적 정서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24 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나 그 방을 생각하며

작품 분석 본문 92~95쪽

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작가 백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특징 ① 편지 형식을 빌려 자신의 근황을 드러냄.
② 산문적 서술 형태를 취하나 쉼표 등을 통해 내재율을 획득함.
③ 평안도 방언을 구사하여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타향**)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
❷ 지나온 시절에 대한 회한과 (**슬픔**)
❸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나 그 방을 생각하며

작가 김수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혁명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는 기대와 희망
특징 ① 동일한 시행 및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② 역설적 발상 및 인식의 전환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대조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괴리감을 나타냄.
④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혁명**)의 실패로 인한 공허함.
❷ 과거의 (**열정**)을 잃고 가슴이 메말라 버림.
❸ 혁명의 실패로 인한 (**실망**)을 (**가벼움**)으로 인식하고 재산으로 삼음.
❹ 이상과 괴리된 현실 속에서도 새롭게 (**의지**)와 기대감을 가짐.

17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양면성**: 한 가지 사물에 속하여 있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

정·정·이

①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내 ~ 적이며', (나)에서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싸우라(일하라) ~ 말이'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반복하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30~31행의 '눈을 맞을'에서, (나)에서는 '있을 것이다', '왔을 게다' 등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이

고 있지만 이것이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④ 범위 오류 (가)는 계절감이 드러난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추위', '싸락눈', '눈' 등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가족과 헤어져 홀로 외롭게 남의 집 허름한 방에서 지내게 된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부재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모두 청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며, 말을 건네는 방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173 답 (1) (가), (나) (2) (가)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사**: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씀.
- **내재율**: 자유시나 산문시에서 문장에 잠재적으로 깃들어 있는 운율.

정·정·이

(1) 독백적 어조를 통해 내면 심리를 토로하고 있다. ((가), (나))

(가)와 (나)의 화자 모두 혼잣말하는 듯한 어조로 내면 심리를 토로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외로움과 쓸쓸함, 회한과 슬픔 등을, (나)에서는 좌절감과 상실감, 기대감 등을 표출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가)는 방언을 구사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가))

(가)에서는 '딜옹배기', '북덕불', '나줏손', '섶' 등의 방언을 구사하여 토속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나)에는 방언이 쓰이지 않았다.

(3) 범위 오류 (가)는 산문적 서술 형태를 취하나 쉼표 등을 활용하여 내재율을 획득하고 있다. ((가))

(가)는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산문적 서술 형태를 띠고 있으나, 쉼표를 자주 사용하여 호흡을 끊어 줌으로써 내재율을 획득하고 있다.

17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객관적 상관물**: 시에서 정서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찾아낸 사물, 정황, 사건을 이르는 말.
- **혼용**: 한데 섞어 쓰거나 어울러 씀.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나)는 1~2연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를 '헛소리'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현재 그 말을 공허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가)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극복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가)의 어둠 속에서 눈을 맞고 서 있는 '갈매나무'는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극복 의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② (가)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는 '나줏손', '저녁' 등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나)는 대조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나)의 4연에서는 '달콤한'과 '쓰디쓴'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해 온 이상과 괴리된 현실을 부각하고 그로부터 화자가 느끼는 좌절감 등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④ (나)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혼용하여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나)에는 '버렸다', '메말랐다' 등의 과거 시제의 서술어와 '안다', '기쁘고', '풍성하다' 등의 현재 시제의 서술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제의 혼용은 혁명의 실패로 공허함과 좌절감을 느끼던 화자가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고, 이 가벼움의 연속이 역사를 이루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의지와 기대감을 느끼게 되는 심리의 변화를 잘 드러내고 있다.

17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상**: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기차'로 '여행'을 떠올리는 따위의 현상이다.
- **괴리**: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짐.

정·정·이

② 상반 (가)에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해소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가)의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자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한탄 등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 결과 화자의 마음에 '외로운 생각'만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가)에서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가)의 15행에서 화자가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새김질한다는 것으로 보아, 16~17행에서의 '꽉'과 '핑'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슬픈 감정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쌀랑쌀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화자의 감각 체험이 연상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에서 '쌀랑쌀랑'은 조금 사늘한 바람이 가볍게 자꾸 부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싸락눈이 문창을 치는 모습을 나타낸다. 화자의 이러한 감각 체험은 뒤에서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갈매나무'에 대한 연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나)에서 '싸우라'와 '일하라'를 각각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혁명의 외침을 공허하게 느끼게 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나)에서 '싸우라', '일하라'와 같은 구호를 '헛소리'와 연결한 것은, 화자가 혁명의 실패로 인해 이러한 구호를 '헛소리'와 같은 공허한 말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⑤ (나)에서 '쓰디쓴'을 '달콤한'과 대비한 것은 자신이 지향해 온 것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달콤한 의지의 잔재'와 '쓰디쓴 담뱃진 냄새'는 구조상 앞행의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꾸었지만'과 대응되므로, '달콤한 의지'는 화자의 혁명 의지를, '쓰디쓴 담뱃진 냄새'는 혁명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의 대비는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것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17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는 혁명의 실패로 인한 결과들로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하는~~ 대상이다.

혁명이 실패한 후 화자는 방만 바꾸어 버렸고,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으므로 절망감을 심화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모든 노래'는 화자가 지향해 온 혁명 정신을 가리킨다.

화자는 혁명이 실패한 후 방을 바꾸고 '모든 노래'를 그 방에 남기고 왔다고 하였다. 그런데 '싸우라'는 말이 방의 벽에서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때의 '모든 노래'는 '싸우라'에 대응되는 것으로 화자가 지향해 온 혁명 정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③ '쓰디쓴 담뱃진 냄새'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쓰디쓴 담뱃진 냄새'에는 부패한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사회에 대한 화자의 환멸이 드러나 있다.

17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운명론**: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론.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 화자가 '천정'을 쳐다보며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D]에서 화자는 자신을 마음대로 굴려 가는 '더 크고, 높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힘을 인식한 표현이므로, 화자가 운명론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A]: 화자가 가족이나 고향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목수네 집의 '한 방'은 화자가 아내, 부모, 동생들과 떨어져서 추운 겨울에 홀로 세를 살게 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 그리고 고독한 처지를 확인하고 있다.

② [B]: '나 혼자' 누워 있는 단절된 공간으로,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방'에 홀로 누워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새김질하고 있다. 따라서 '방'은 화자가 혼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C]: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만큼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화자는 가슴속에 고인 슬픔과 부끄러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만큼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로 볼 때 '방'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E]: 화자가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E]에서 화자는 여러 날을 지내면서 차츰 슬픔과 한탄 등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 등 마음의 정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로서의 '갈매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방'은 화자가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7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는 화자 자신을 '문창' 너머의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방이 화자의 내면 의식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군.

(가)의 화자는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자신을 굴려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더 크고, 높은 것'은 화자의 의지보다 큰 힘이므로, 화자가 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나)의 화자는 2연의 3행에서 '그 방의 벽'과 '나의 가슴', '나의 사지'를 동일시하며 방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가)는 '쥔을 붙'인 방을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의 초라함을 드러내는군.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세를 들어 살게 된 방을 '헌 삿을 깐',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가난하고 누추하며 초라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새김질'하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방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임을 드러내는군.

(가)에서 화자는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가 새김질하듯 되새기며 고뇌하고 있다. 이로 보아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함으로써 혁명이 좌절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군.

176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혁명 정신을 상징하는 '모든 노래'를 방에 남기고 온 것은 화자가 꿈꾸던 혁명이 좌절된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는 화자가 방에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함으로써, (나)는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가)의 방은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가)의 화자가 방에서 떠올린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현실 극복 의지의 표상이자 희망으로, 화자의 의지적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나)의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방을 바꾸는 화자의 행위 속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그 무게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화자가 방을 바꾼 후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는 것에는,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절감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79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에서 '방'은 화자가 내적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다. (○, ×)

〈보기〉에서 (가)의 방은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되새기는 공간이면서 내적 의지를 떠올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가)의 '방'에서 화자는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고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상반 (나)에서 '방'은 화자의 의식과 ~~반대되는~~ 상징하는 공간이다. (○, ×)

〈보기〉에서 (나)의 방은 화자의 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의식과 반대된다고 볼 수 없다.

(3) (가), (나)의 '방'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 ×)

(가)의 '방'은 화자가 처한 초라한 현실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화자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또한 (나)의 '방'은 혁명에 실패한 화자가 좌절감과 무게감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화자의 상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18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칩거**: 나가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음.

정·정·이

⑤ 화자 오류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좌절감에 빠진 시적 주체가 ~~환상에 취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가)의 후반부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직전, 마음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마지막 행의 '갈매나무'는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적인 삶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점에서, 좌절감에 빠진 시적 주체가 환상에 취해 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어느 사이에'는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고 객지에서 헤매게 된 것에 대한 시적 주체의 탄식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군.

〈보기〉에서 (가)의 전반부는 절망과 슬픔에 빠진 시적 주체의 내면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어느 사이에'는 시적 주체가 현재 '아내'도 '집'도 잃고 '부모'와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혼자 객지에서 쓸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탄식이 압축적으로 나타난 시구로, 어쩌다가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②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 한 방'은 시의 제목에 드러난 주소에 해당하는 곳이군.

〈보기〉에서 (가)의 제목이 편지 겉봉에 쓰는 주소 형식을 취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가)의 '어느 목수네 집'이 (가)의 제목에 제시된 주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는 시적 주체가 절망에 빠져 혼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조차 힘겹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가)의 전반부는 절망과 슬픔에 빠진 시적 주체의 내면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가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느낀다는 것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감당하기 힘들어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는 시적 주체가 칩거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가)는 '좌절과 실의－칩거, 회한과 반성－불현듯 찾아오는 각성－새로운 삶에의 결의'라는 도식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화자가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방바닥을 구르기도 하고, 슬픔과 어리석음을 되새기며 생각하는 모습은 칩거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5 가 황혼 나 바다에서

작품 분석 본문 96~99쪽

가 황혼

작가 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포용 의지와 애정
특징 ① 황혼을 의인화된 청자로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냄.
③ 비유법, 설의법 등을 사용하여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인간의 (**외로운**) 처지에 대한 인식
❷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고자 하는 의지
❸ '나'가 포용하고자 하는 (**소외된**) 존재들
❹ (**미래(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사라지는 황혼에 대한 걱정

나 바다에서

작가 김종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난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굳은 의지
특징 ① 예스러운 종결 어미 '-니라', '-노라' 등을 사용하여 장중한 분위기를 형성함.
②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함.
③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적 태도를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거친 (**파도**)에 괴로워함.
❷ 고난 속에서 (**홀로**)라는 인식을 함.
❸ (**감상**)과 번민에 흔들리던 (**과거**)를 청산함.
❹ (**슬픔**)을 이기고 꿈과 이상을 추구함.

18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촉각적 심상인 '부드러운 손', '부드러운 품' 등을 통해 '황혼'의 포용력을 구체화하고, '내 뜨거운 입술' 등을 통해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촉각적 심상인 '차운'을 통해 '물보라'의 냉기를 나타냄으로써 고난과 역경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주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부재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황혼'에게 말을 건네고 있기는 하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나)는 독백적 어조

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④ 범위 오류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저- 푸른 커-튼'에서 골방에 들어오는 황혼을 막는 커튼을 색채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182 답 (1) (가) (2) (가), (나) (3)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의인화된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가))
(가)는 2연과 5연의 '황혼아'에서 황혼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함으로써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는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다.

(2)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가), (나))
(가)는 '~에게도'와 같은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3~4연에서, (나)는 '나는 홀로이니라.'와 같은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3연에서 리듬감을 확인할 수 있다.

(3) 범위 오류 과거 시제를 통해 화자가 옛일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
(나)에서는 1연의 '참았다'와 4연의 '일었다간 ~ 채우던 옛날은'에서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어미 '-았/었-', '-던' 등을 사용하여 화자가 고난과 역경으로 괴로워했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가)는 '보련다', '다오' 등과 같이 현재 시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도 않다.

18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장중한: 장엄하고 무게가 있는.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어미를 활용하여 장중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가)의 1연 '맞아들이노니'에서 예스러운 표현인 '-노니'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근엄하게 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또한 5연의 '하오니'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오-' 역시 예스러운 표현으로 서술이나 의문에 공손함을 더하여 준다. (나)의 3연 '홀로이니라'에 사용된 '-니라'와 6연 '꿈꾸노라'에 사용된 '-노라'도 예스러운 종결 어미로, 각각 진실이나 으레 있는 사실을 알려 줄 때,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할 때 쓴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어미를 사용하여 장중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는 (나)와 달리 추상적 관념을 자연물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가)는 '황혼'을 통해 안식과 평화의 시간을 나타내고, '별들'을 통해 소외된 존재들을 구체화하였다. (나)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차운 물보라', '부서지는 파도'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꿈과 이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통해, 꿈과 이상을 '하늘'을 통해 구체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계절의 변화를 활용하여~~ 시상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가)의 5연 '오월'에서 계절감이 드러나지만, 계절이 변화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어지는 내용에서 '골방이 아늑도 하'다고 하였으므로, '골방'을 고립되고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던 화자의 인식이 아늑함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에서는 계절의 변화도, 시상의 전환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가)는 '모르나 보다'로, (나)는 '꿈꾸노라'로 마지막 연의 시행이 종결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남긴다고 보기 어렵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1연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3연 '얼마나 떨고 있을까'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기에 화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 반면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18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C]: ~~'의지할 가지 없'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죄인들'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별들', '수녀들', '수인들'은 모두 화자가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다고 여기는 대상들로, 화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내어 위로를 해 주고자 하고 있다.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A]: '바다의 흰 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같이'를 사용하여 인간을 '바다의 흰 갈매기'에 직유하면서 인간의 외로움을 부각하여 나타내고 있다.

② [B]: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화자는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 이어 황혼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고자 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인식이 황혼의 '손'에서 '모-든 것'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D]: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 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황혼에게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달라고 말함으로써 '지구의 반쪽'에 있는 존재들인 '행상대'나 '인디언'에게도 자신의 입술을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그들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E]: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황혼으로 인해 '오월의 골방'이 아늑하다고 느끼면서 내일도 황혼이 '저- 푸른 커-튼'을 걷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내일도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185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C]의 '별들', '수녀들', '수인들'은 화자가 포용하고자 하는 대상들이다. (○, ×)
[C]에서 '별들', '수녀들', '수인들'을 '의지할 가지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그들을 소외된 존재들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술'을 보내게 해 달라며 포용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화자 오류 [E]에서 화자는 황혼으로 인해 '오월의 골방'이 ~~암암히 사라~~ 점을 느낀다. (○, ×)
[E]에서 화자가 '암암히 사라'진다고 말한 대상은 황혼이지, '오월의 골방'이 아니다. 화자는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다고 하였을 뿐, 점차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다.

18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상반 화자가 '내일도' '푸른 커-튼'을 걷겠다는 것은 황혼을 ~~막겠다는~~ 맞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군.
황혼을 막는 존재인 '푸른 커-튼'을 걷겠다는 것은 황혼을 맞아들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별', '수녀', '수인', '행상대', '인디언'은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뜻하는군.
'별', '수녀', '수인', '행상대', '인디언'은 화자가 입술을 보내어 위로하려는 대상으로, 의지할 곳 없는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들을 의미한다.

② '골방'이 폐쇄된 공간에서 우주와 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은 '황혼' 때문이군.
1연에서의 '골방'은 커튼에 의해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다. 그러나 황혼을 맞아들임으로써 화자의 인식은 하늘의 '별들'과 지구의 반쪽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고, 골방은 아늑한 곳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골방'은 '황혼'으로 인해 열린 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③ 화자가 '뜨거운 입술'로 '황혼'의 손에 입 맞추려는 의도는 의지할 곳 없는 존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이군.
화자가 '뜨거운 입술'로 '황혼'의 손에 입 맞추려는 것은 의지할 가지 없는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④ 화자가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는 이유는 '황혼'을 이상 실현이 가능한 대상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군.
1연에서 화자는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인간이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 이후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겠다며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황혼'을 소외된 존재를 포용하려는 화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와 자신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왼몸을 내어 맡'기며 현재의 바다와 맞서고 있군.~~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을 띄워 보낸다는 말은 어두웠던 과거와 결별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 것으로, 화자가 과거의 자신에게 미련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왼몸을 내어 맡'기는 것은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 즉 이상을 꿈꾸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군.

차가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았다는 것에서, '차운 물보라'가 시련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연에서 화자는 '차운 물보라'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군.

2~3연에서 거친 파도로 인해 해로가 걷잡을 수 없이 일렁이는 고난의 상황에서 화자는 '나는 홀로이니라.'라고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는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이라는 부정적 과거가 '아득히' 사라져 현재의 자신과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군.

4연에서 화자는 덧없는 감정들이 제멋대로 날뛰어 번민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자 한다. '옛날은 / 이제 아득히 띄워 보내고'라는 표현은 부정적 과거와 결별하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슬픔이 '바다'처럼 크더라도 '나의 하늘'을 꿈꾸는 것을 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나의 하늘'은 꿈과 이상을 뜻하므로 화자가 미래의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1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아득히 띄워 보내고'는 ~~긍정적인 과거의 회복을~~ 의미한다.

(나)의 4연에서 화자가 띄워 보낸다고 한 것은 일어났다가도 금방 스러지는 감상과 번민으로 힘들었던 과거이다. 따라서 '아득히 띄워 보내고'는 긍정적인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부정적인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소년'은 순수하고 나약한 존재를 상징한다.

'소년'은 차가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는 존재로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순수하고 나약한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꿈과 이상의 공간이다.

화자는 덧없는 감상과 번민으로 괴로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나의 하늘'을 꿈꾼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의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꿈과 이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8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우려: 근심하거나 걱정함. 또는 그 근심과 걱정.

정·정·이

③ (가)의 화자는 내일의 황혼을 기대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을까 봐 우려하고 있다.

(가)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황혼이 내일도 커튼을 걷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황혼이 사라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황혼으로 상징되는 안식과 평화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를 염려하는 화자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의 화자가 황혼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공동체적 삶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소외된 존재들을 위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인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에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그러한 삶에 대해 화자가 감탄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 오류 (가)의 화자는 ~~대상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골방'의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인간의 외로운 처지를 인식하고, 소외된 모든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고자 한다. 더불어 골방을 아늑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황혼이 부재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 연에서 사라지는 황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대상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④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⑤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파도의 움직임으로부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나)에서 묘사되는 물보라와 파도 등은 화자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④).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나타낼 뿐,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으며(④),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지도 않다(⑤).

19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여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 부정적 속성을 지닌 바다와 긍정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룬다. 이를 고려하면 (나)의 5~6연은 긍정적인 대상인 '하늘'을 지향하기 위해 화자가 '천인의 깊이'를 가진 바다만 한 슬픔 속에서도 '꽃처럼 황홀한 순간' 즉, 꿈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바다를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한 것이 아니라, '바다'로 표상되는 고난과 슬픔에 굴하지 않고 '하늘'로 상징되는 긍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보기〉에서 (가)에는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의 화자가 골방의 '커-튼을 걷'고 황혼을 맞아들인다고 하였으므로, 고립된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화자가 이 행위를 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가)의 화자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인디언'과 같은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소외된 대상들에게 황혼에 실은 자신의 입술을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가)의 화자는 황혼에게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달라는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에 놓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골방 밖 세계의 존재들에게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나)의 화자는 과거에 차가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그러나 힘들었던 과거를 띄워 보내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한 뒤로는 슬픔이 바다만 하더라도 뉘우치지 않을 자신의 하늘을 꿈꾸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가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에서 자신의 이상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1 답 (1) 안 (2) 바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가)에서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곳은 골방 (안 밖)이다.

〈보기〉에 따르면 (가)에서 화자는 골방 안에 머무르고 있고, 만물을 포용하는 황혼은 골방 밖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2) 상반 (나)에서 '(바다 하늘)'은/는 부정적 속성을 지닌다.

〈보기〉에서 (나)의 '바다'는 시련과 고난의 공간으로 부정적인 속성을, '하늘'은 꿈과 이상의 공간으로 긍정적 속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26 가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나 달걀 속의 생 2

작품 분석 본문 100~103쪽

가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작가 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우리의 삶을 지켜 주는 경이로운 존재가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시각적 이미지와 시적 허용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② 음성 상징어, 직유법, 대조법 등을 활용함.
③ 청유형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며 주제 의식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있음을 발견함.
❷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북두성좌**)가 지켜 주고 있음.
❸ 아이에게 북두성좌가 지켜 주고 있는 (**우리 집**)으로 어서 가자고 함.

나 달걀 속의 생 2

작가 김승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절망적 현실에 대한 연민과 초연한 삶의 태도
특징 ① 비판적, 냉소적, 체념적 태도를 드러냄.
②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함.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시적 대상에 대한 연상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달걀**)을 쉽게 먹을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듦.
❷ 행상 아줌마가 팔던 노란 (**병아리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봄.
❸ 절망적 처지에 있는 자신과 (**달걀(흰자위와 노른자위)**)을 동일시함.
❹ 달걀에 동질감을 느끼며, 절망에 (**초연한**) 태도를 지님.

19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특정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가)는 '북두성좌'와 '우리 집'을 반복하여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나)는 '달걀(들)'을 반복하여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으로서 달걀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북두성좌가 지켜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에서 청유형 어미를 활용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청유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가자'라는 동사로, (나)는 '같지'라는 형용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④ 부재 ~~주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는 '차가운 냉장 칸', '추운 달걀들' 등과 '따스한 것', '따스한 품속' 등에서 촉각적 심상을 대비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가)에는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193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1연에서 '꿈같이', '폿대처럼'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초생달'과 '북두성좌'가 비치는 신비로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3~4연의 '가난한 형제들처럼', '달걀들처럼' 등에서 직유법을 통해 화자와 형제들을 달걀과 동일시하여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ㄷ. 상징적 의미를 지닌 단어를 되풀이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북두성좌'는 우리 집을 보호해 주는 존재를, '우리 집'은 초월적인 희망과 사랑이 지켜 주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나)의 '노란 병아리들'은 생명력 넘치는 존재를, 부화되지 못한 '달걀(들)'은 평가 절하된 채 절망적으로 사는 삶을 상징한다. (가)와 (나) 모두 이러한 시어들을 반복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시적 허용을 통해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가)의 '보오얀', '화안히' 등에서 시적 허용을 통해 '초생달'과 '불 밝힌 우리 집'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나)에는 시적 허용이 사용되지 않았다.

ㄹ. 범위 오류 대상을 불러 주의를 끈 뒤 자신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화자가 '아이'를 부르며(돈호법) 북두성좌가 지키고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부분에서, 삶의 시련 속에서도 단란함을 이어 가려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돈호법이나 청유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19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 **세대교체**: 신세대가 구세대와 교대하여 어떤 일의 주역이 됨.

정·정·이

② A: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

B: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

(가)에서 화자는 '아이'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집'은 화자가 가족과 함께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나)에서 화자는 '냉장고' 속 '달걀들'을 보고 자신도 '여권이 분실된' 것과 같은 처지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냉장고'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에 해당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A: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

B: 시련에 맞서게 하는 근거

(가)의 화자는 병이나 구차함과 같은 문제를 겪더라도 '북두성좌'가 지켜 주고 있어 '우리 집'을 '의고한 단란'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냉장고' 속 '달걀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절망적 현실을 인식할 뿐이므로, '냉장고'를 시련에 맞서게 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A: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공간

B: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계기

(가)의 화자는 '우리 집'을 통해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고 있지 않다. (나)의 화자는 '냉장고' 속 '달걀들'을 보고 자신의 현재 처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A: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

B: 현실에 만족감을 표시한 이유

(가)에 세대교체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나)의 화자는 '냉장고'에 있는 '달걀들'을 보며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 현실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

⑤ 헛짚기 A: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 하는 공간

B: 바람직한 미래로 발돋움하기 위한 동기

(가)의 화자가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북두성좌가 지켜 주는 '우리 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화자가 '우리 집'에 동화되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냉장고' 속 '달걀들'을 보고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있을 뿐이다.

195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허기**: 몹시 굶어서 배고픈 느낌.

정·정·이

① 교체 ㉠을 보면 '북두성좌'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지켜 주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풋대처럼(㉠)' 지켜 주고 있으므로 '북두성좌'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가 아니라 화자의 가족을 지켜 주는 주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을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가 밤에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상'은 우리 집을 '밤마다(㉡)' 지켜 주는 북두성좌가 존재하는 공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을 보면 '그것들'은 화자가 허기를 느끼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화자가 '그것들(달걀)'을 쉽게 먹을 순 없을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을 보면 '노란 것들'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란 것들(병아리)'이 마분지 곽 위로 기어오르는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글보글(㉣)'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을 보면 '너희들'은 금전적으로 평가 절하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너희들(달걀)'이 '싸게(㉤)' 팔려 왔다고 한 것은 달걀들이 금전적인 면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9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병'과 '구차함'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

가족이 '병'으로 눕고 '구차함'에 마음 졸이는 일은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2) 헛짚기 (나)의 '바글바글'과 '보글보글'은 '노란 것들'의 불행한(생명력)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 ×)

'바글바글'과 '보글보글'은 '노란 것들'이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는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불행한 삶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3) (나)의 '여권이 분실된 사람'으로 볼 때, 화자는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

(나)의 화자는 어미 닭에 안기지 못하고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 온 달걀들과 자신이 같은 처지라고 인식하면서 자신을 '여권이 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행동력과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직면**: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동류의식**: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의식.

정·정·이

① 헛짚기 ⓐ: 시련에 직면한 화자의 암담한 현실과 좌절을 의미한다.

ⓐ는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본 초생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가 시련에 직면하여 좌절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② ⓑ: 즐겁고 화목하게 생활하는 가족의 모습이 드러난다.

ⓑ에는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즐겁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 변화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관적 인식이 담겨 있다.

ⓒ에서 화자는 냉장고 속에 있는 달걀처럼 부화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없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 절망적 상황에 처한 달걀에 대한 화자의 동류의식이 드러나 있다.

ⓓ에서 화자는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차가운 냉장고 속의 달걀도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며 달걀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⑤ ⓔ: 소망을 이루지 못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에는 어미 닭의 따스한 품속에 안기고 싶지만 그러한 소망을 이루지 못한 달걀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19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범위 오류 (가)에서는 '저녁 한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지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나)에서는 '부화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나)의 3연 1~2행에서 화자는 부화를 기다리는 존재로서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동일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화자는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저녁 한길'에서 '보오얀 초생달'이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는 것을 보았을 뿐, '거리 끝'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이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가)에서는 화자가 '아이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청자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는 '달걀들'을 '너희들'이라고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화자가 '보오얀 초생달'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달'을 시각적으로, (나)에서는 화자가 '달걀들의 속삭임 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을 청각적으로 나타내어 시적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가)의 화자는 '보오얀 초생달'이라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초생달'을 밤을 밝혀 주는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는 청각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화자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통해 '학교' 간 아이를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상황을, (나)에서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입원비 걱정을 하'는 '우리'를 통해 '형제들'이 '가난'하다는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가)는 1연의 1~2행에서 화자가 날이 저물도록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3연의 7~8행에서 아버지의 입원비를 걱정할 정도로 화자의 '형제들'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인연 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을 통해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나)에서는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한 '나'를 통해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군.

(가)에서 '인간의 수유한 영위'는 인간의 유한함을, '우주의 무궁함'은 우주의 영원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서로 대비되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우주의 무궁함'이 '인연 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천상'에서 '우리 집'을 지켜 주는 맥락이 드러나 있다. (나)에서는 병아리들이 '살아서 즐겁다고 꼬

물거리던 모습'과 화자가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모습이 대비를 이루며,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맥락이 드러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가)에서는 '저녁 한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시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나)에서는 '부화를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시적 대상은 보통 시적 화자가 아닌 존재인데,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를 고려하면 (가)는 '아이야'를 통해 청자로 설정된 '아이'가 시적 대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에서 '거리 끝'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인 '초생달'이 비껴 있는 위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종합해 볼 때 '거리 끝'은 시적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음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199 답 (1) 청자로 설정 (2) 대비되는 (3) 대비, 동일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아이', (나)에서 '달걀들'은 (청자로 설정,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다.
(가)에서는 '아이'를 청자로 설정하여 '아이야'라고 부르고 있고, (나)에서는 '달걀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너희들'이라고 칭하고 있다.

(2) 상반 (가)에서는 '수유한 영위'와 '무궁함'과 같이 (유사한,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짧은 시간을 영위하는 인간과 끝없는 우주를 의미하는 시어를 대비하여 제시하고, 이것들이 '인연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을 지켜 주는 경이로운 우주의 질서 혹은 힘이 화자의 주변에 있었다는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 상반 (나)의 화자는 삶에 대한 태도 면에서 '병아리들'과 (대비, 동일시)되고 있고, 생명력을 잃고 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걀들'과 (대비, 동일시)되고 있다.
(나)의 2연에서는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던 화자가 대비되고 있으며, 마지막 연에서는 '어미 닭에 안기지 못하고',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 온' 달걀들과 '여권이 분실된' 듯한 화자가 동일시되고 있다.

20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생무상**: 인생이 덧없음.

정·정·이

① (가)에서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지켜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군.
(가)의 화자는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마중 나갔다가 우리 집 지붕 위에 북두성좌가 횃대처럼 이어져 우리 집을 지켜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오·오·이

② 헛짚기 (가)에서 '인간의 수유한 영위'를 '우주의 무궁함'과 대비함으로써 인생무상의 체념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가)의 화자는 북두성좌가 우리 집을 지켜 주고 있음을 발견하고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우주의 무궁함'이 맑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지, 인생무상을 느끼지는 않았다.

③ 헛짚기 (나)에서 '달걀 한 줄이 / 온순히 꽂혀 있'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온순한 성품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나)의 화자는 '달걀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절망적 상황에 처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나)에서 화자가 온순한 성품을 지향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

④ 헛짚기 (나)에서 '달걀'이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 왔다고 표현한 데서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나)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달걀'이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 왔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 절하된 것을 의미할 뿐,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나)에서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다는 데서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군.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갈 때 오히려 절망이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다고 했으므로, 절망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화자가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27 가 하나씩의 별 나 귀고

작품 분석 본문 104~107쪽

가 하나씩의 별

작가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기대감
특징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주제를 강조함.
②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함.
한 줄 의미
❶ 고국으로 돌아오는 (**화물 열차**)에 탄 유랑민들
❷ 고국으로 향하는 열차 안의 (**유랑민들**)
❸ 나라의 (**기쁜 일(해방)**)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들
❹ 고국에 돌아오는 유랑민들의 (**기대감**)

나 귀고

작가 유치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향에 돌아와 느끼는 감회
특징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향토적 소재를 통해 고향의 분위기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고향의 선착장에서부터 마을 길을 지나 (**집(우리 집)**)에 도착한 '나'
❷ 고향 집에 돌아와 (**부모님**)을 만남.

20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검은 문'에서 고단한 현실에 놓인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를 검은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 '푸르른 바다'에서 유랑민의 서러움을 푸른색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푸른 송백'에서 고향의 환하고 밝은 분위기를 푸른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가)는 '하나씩의 별'이라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인 '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보았소'라는 동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부재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와 (나)는 대체로 독백체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가)는 1연의 3~5행이 마지막 연의 3~5행에서 반복되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수미상관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부재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지 않다.

20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도입부의 시행을 종결부에서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01번-③의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는 도입부의 시행을 종결부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대구법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나)에는 대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에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한편 (가)의 '우리'는 타국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조국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나씩의 별'은 삶의 희망과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고향 집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0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는 '우리', '내(나)', (나)는 '나'와 같이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주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고향 집으로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은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로,

시상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반면에 (나)는 '선창가'→'돌다리와 집들'→'우리 집'의 순서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하늘은 기빨처럼 다정하고'는 하늘을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에 빗대어 하늘이 화자를 반기며 다정하게 손짓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고향에 돌아온 반가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 '헌 책력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은 어머니를 헌 책력에 빗대어 자식에게 애정을 쏟으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늙으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직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③ 교체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배치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01번-③의 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1연과 마지막 연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한 것은 (가)이다.

④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0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투영**: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하여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정·정·이

④ [A]의 '골짝 골짝'에는 떠나는 이의 슬픔이, [B]의 '하늘'에는 돌아온 이의 반가움이 투영되어 있다.

[A]는 유랑민들이 고향을 떠나던 때의 장면을 화자가 떠올린 것이다. '골짝 골짝'은 유랑민들이 이민 열차에서 서럽게 내다보던 풍경이라는 점에서 고향을 떠나는 이의 슬픔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의 '하늘'은 '기빨처럼 다정하고'로 보아 고향에 돌아온 화자의 반가운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A]의 '거리거리'와 [B]의 '신작로'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A]의 '거리거리'는 유랑민들이 이민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던 때를 떠올린 것으로, 여기에 화자의 변화된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B]의 '신작로'는 과거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낯설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② 화자 오류 [A]의 '이민 열차'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B]의 '똑딱선'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하고 있다.

[A]의 '설움 많은 이민 열차'로 보아 이민 열차에는 고향을 떠나는 유랑민의 서러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B]의 '똑딱선'은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탄 것인데, (나)의 화자가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헛짚기 [A]의 '흐린 창'과 [B]의 '양지바른 뒷산'은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A]의 '흐린 창'은 과거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유랑민의 서러운 마음을 나타낸다. 현재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들은 '갈 때와 마찬가지로 / 헐벗은 채' 돌아오고 있으므로 '흐린 창'은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B]의 '양지바른 뒷산' 역시 고향의 밝고 환한 모습을 나타내므로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A]의 '사람들'과 ~~[B]의 '사람'~~에는 화자의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

[A]에서 화자는 '헐벗은 채'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힘겨운 처지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람들'에는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에서의 '사람'은 화자의 고향의 선창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화자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지 않다.

205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의 '설움 많은 이민 열차'는 '우리'의 과거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뒷산'과 '하늘'은 화자의 ~~저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

(가)의 '설움 많은 이민 열차'에서는 과거 고향을 떠나야 했던 '우리'의 서글픈 처지와 정서가 드러난다. 그러나 (나)의 '뒷산'은 양지바르고 '하늘'은 남쪽으로 트였으며 '기빨처럼 다정'하다고 하였으므로, '뒷산'과 '하늘'은 따뜻하고 반가운 고향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가)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 (나)의 '똑딱선을 내리면'으로 보아, (가)의 화자는 열차를 타고 귀국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배를 타고 귀향하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화물 열차'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똑딱선'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가고 있다.

20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암울**: 절망적이고 침울함.

정·정·이

② ⓐ는 '우리'의 희망을 상징하고, ⓑ는 '나'에게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씩의 별(ⓐ)'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랑민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자 소망을 상징한다. 그리고 '고향(ⓑ)'은 현재 화자가 돌아온 곳으로 어린 시절 소리 높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는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고, ⓑ는 '나'가 연민하는 대상이다.

'하나씩의 별(ⓐ)'은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지만, '고향(ⓑ)'은 화자가 그리워 하는 대상이지 연민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헛짚기 ⓐ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고, ⓑ는 '나'에게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암시한다.

'하나씩의 별(ⓐ)'은 유랑민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품고 있는 희망과 소망을 드러낸다. 또한 (나)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 반가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암울한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와 ⓑ는 모두 화자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하나씩의 별(ⓐ)'과 '고향(ⓑ)'은 모두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와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와 ⓑ는 모두 화자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소재이다.

'하나씩의 별(ⓐ)'과 '고향(ⓑ)'은 모두 화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는 소재로, 인생의 무상함과 관련이 없다.

2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객지**: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정·정·이

② 화자 오류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는 것은, 변환기의 현실에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이겠군.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에서 화자가 유랑민과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정서를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에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열차를 탄 사람들이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헐벗은 채 돌아'온다는 것은, 객지에서 고단하게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드러낸 것이겠군.

〈보기〉에서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르고 헐벗은 채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한 것은, 열차를 탄 사람들과 함께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가)의 화자와 유랑민들이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1연과 마지막 연에서 '우리 제각기 ~ 하나씩의 별'을 반복한 것은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화자와 유랑민들이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을 거쳐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은, 고향 마을의 풍경이 화자에게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것이겠군.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나)의 화자가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있는 고향 마을의 풍경을 통해 자신의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나)의 화자가 어른이 된 후 나이 든 어머니의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았'다는 표현은 '신간'이 어렸을 적 어머니 옆에서 보던 그림책처럼 느껴진다는 말로, 화자가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208 답 (1) 유랑민 (2) 향수 (3) 유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화물 열차'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유랑민)들을 태우고 가고 있다.

〈보기〉에서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화물 열차'에 타 있던 사람들이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던 유랑민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나)의 화자는 귀향의 과정에서 접한 풍경들을 묘사하면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을/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나)는 화자가 귀향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나)의 화자는 똑딱선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접한 풍경들을 묘사하면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나)의 화자가 어머님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고향에 돌아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20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가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본 것은 유년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를 통해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20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질감**: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

정·정·이

③ 헛짚기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 '골짝 골짝'은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설렘~~을 드러낸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 '골짝 골짝'은 과거에 이민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던 당시 사람들이 서러운 마음으로 내다보던 창밖의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설렘이 담겨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 쟈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로 보아 열차에 탄 사람들은 해방 전 고향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유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임을 드러낸다.

〈보기〉에서 (가)는 해방 전 고향을 떠나 간난을 겪은 유랑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 '쟈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은 해방 전 고향을 떠나 유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겪은 간난한 생활을 드러낸다.

④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이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기〉에서 (가)는 해방 전 고향을 떠나 간난을 겪은 유랑민들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는 고향을 떠났던 유랑민들이 객지에서 겪었던 간난을(②),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는 화자가 유랑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④).

⑤ '나라에 기쁜 일 많아 /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는 고국에 해방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황폐한 현실이 정서적 괴리를 일으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기〉에서 고향은 돌아가야 할 곳이기는 하지만 해방 정국의 황폐한 현실로 인해 귀속을 실현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나라에 기쁜 일 많아 /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는 나라가 해방된 기쁨 때문에 황폐한 현실로 인한 서글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8 가 맨발 나 구두

작품 분석 본문 108~111쪽

가 맨발

작가 문태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의 고된 현실
특징 ① 직유법을 통해 개조개의 모습을 묘사함.
② 유사한 시구의 반복, 감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개조개를 고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형상화하여 그러한 삶으로부터 느끼는 애상감을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어물전의 (**개조개**)를 관찰함.
❷ (**슬픔**)을 인내하는 삶을 산 개조개
❸ 가장의 고단한 (**삶**)

나 구두

작가 송찬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속박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특징 ① 은유법을 통해 구두를 감옥에 비유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낯설게하기'를 통해 일상적 소재를 새롭게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자신을 속박하는 (**새장(구두)**)을 삼.
❷ 발에 맞지 않는 (**구두**)
❸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모습
❹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
❺ 자신을 (**속박**)하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함.

21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울던 것들이'와 '울음도 멎었으리라'의 대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울던 것들이' 울음을 멎은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힘들게 탁발해 온 양식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시구의 대비가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내밀어 보이고 있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1~2행에서 '내밀어 보이고 있다'를 반복함으로써 어물전에 있는 개조개 한 마리가 속살을 내밀어 보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이 강조되고 있다.

② '조문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속살을 내밀고 있는 개조개의 모습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를 위로하는 부처의 모습에 비유하고 화자 역시 '조문하듯' 개조개의 속살을 건드린다. 이러한 표현과 행위에서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슬픔을 견디었으리라'라는 추측을 통해 대상이 슬픔을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개조개의 속살이 맨발과 같다고 여기면서 사랑을 잃은 '새'가 슬픔을 견디듯 개조개 역시 '슬픔을 견디었으리라'라고 추측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아— 하고 집이 울 때'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와 활유법을 활용하여 '집'이 운다고 표현함으로써 가난한 '움막 같은 집'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11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내밀어 보이고 있다', '궁리인 듯', '-ㄹ 것이다', '-으리라' 등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헛짚기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
'아— 하고 집이 울 때', '아— 하고 울던 것들'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할 뿐 역동적이거나 활기찬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3)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 ×)
'움막 같은 몸',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궁리인 듯', '밤을 견디듯이'에서 개조개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조문하듯'에서는 개조개를 대하는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자신을 ~~속박하는 세태에 대한 원망~~을 '늙고 고집 센 내 발'이라는 의인화된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늙고 고집 센 내 발'은 '발'에 인격을 부여하여 '늙고 고집

센'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 화자를 속박하는 세태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구두'와 관련한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유로운 연상을 통해 '구두'를 '새장', '감옥' 등 다양한 이미지로 제시하면서 속박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현실에 안주하는 새의 모습을 '언덕을 잊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3연에서 화자가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넣어 주어도 새들은 날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새장에 먹이통과 구멍이 있기 때문으로, '언덕을 잊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는 행위는 '새장'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오늘 새 구두'를 산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새 구두'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한다는 의미로 '오늘 새 구두'를 샀다고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다며 자신의 삶이 이중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삶에 '속박'과 '제멋대로'인 모습이 공존했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삶을 이중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1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 **변주**: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소재·형태·방식 따위를 변형하여 표현함.

정·정·이

② 헛짚기 ㉡: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발'의 모습을 통해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 '발'은 '발자취'와 같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발'은, '최초', '오래'라는 시간의 속성과 '궁리'가 연결되어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삶의 문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가난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 신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부르튼 맨발'의 모습을 보여 주어 '펄과 물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고단함을 부각하고 있다.

화자는 '맨발'이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에서 개조개의 속살이 신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텄다고 표현함으로써 힘겹게 살아온 고단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③ ㉢: 삶의 무게를 견뎌 내는 존재로서의 '발'을 통해 양식을 구하러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힘겨운 삶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보기〉에서 '발'은 삶의 무게를 견뎌 내야 하는 고단한 존재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가 있는 모습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선 힘겨운 삶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④ ㉣: '발'을 구속하는 신발을 '작은 감옥'으로 표현하여 현실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화자는 신발을 자유롭게 날뛰는 발을 집어넣기 위한 '작은 감옥'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 '발'을 감싸는 신발을 '새의 육체'로 변주하여 일상의 구속을 깨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의 삶을 속박했던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은 화자는 ㉤에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지닌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발을 감싸는 신발을 '새의 육체'로 변주함으로써 일상의 구속을 깨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14 답 (1) 신중하게 (2) 구속 (3) 속박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 개조개가 지나온 '시간'과 '길'은 삶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 과감하게)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에서 화자는 개조개가 천천히 발을 거두는 모습을 보며 개조개의 시간과 길도 그와 같은 속도로 흘러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발'은 '발자취'와 같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로 표현된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여기서의 '시간'과 '길'은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접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체 (나)에서 '구두'를 '감옥'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발이 발을 (구속 / 보호)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기〉에서 '신발'은 발을 구속하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나)의 1연에서 '구두'를 '새장' 또는 '감옥'에 비유한 것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반 (나)의 화자가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는 것에는 (속박 / 자유)을/를 벗어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새의 육체'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존재이므로, (나)의 화자가 그 속에 '발'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일상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산물: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정·이

③ ⓐ는 삶의 유지와 관련된 행위이고, ⓑ는 삶의 안주와 관련된 사물이다.

'탁발(ⓐ)'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가 양식을 구하는 행위이고, '먹이통(ⓑ)'은 새장에 갇힌 새에게 먹이를 주어 새장 속의 삶에 안주하게 하는 사물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는 ~~암울한 사회~~의 상징이고, ⓑ는 ~~각박한 현실~~의 산물이다.

'탁발(ⓐ)'은 일시적으로 배를 채울 양식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하는 것으로, 화자의 가난함을 보여 줄 뿐 암울한 사회를 상징하지 않는다. '먹이통(ⓑ)'은 새가 새장 속의 삶에 안주하게 하는 사물일 뿐, 각박한 현실의 산물이 아니다.

② 헛짚기 ⓐ에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④ 헛짚기 ⓐ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가, ⓑ에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⑤ 헛짚기 ⓐ에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에는 ~~자신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나타난다.

'탁발(ⓐ)'에서 '울던 것들'의 배를 채워 주려는 책임감을 엿볼 수는 있지만, 현실에 대한 만족감(②)이나, 양식을 구하고 있는 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④), 타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⑤)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먹이통(ⓑ)' 역시 현실에 안주한 삶을 나타낼 뿐, 미래에 대한 희망(②)이나,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④), 화자 자신에 대한 냉소적 태도(⑤)를 나타내지 않는다.

21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나)의 '먹이통'과 '구멍'이 '새장을 아름답게' 한다는 표현은 현실의 구속에 길들여진 삶을 반어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새장에 있는 '먹이통과 구멍'은 새가 새장 속의 삶에 안주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현실적 안락함과 편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의 화자는 새장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넣어 자유로운 비상을 해 보고자 하므로, 이러한 새장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따라서 '새장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 현실의 구속에 길들여진 삶에 대한 비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에서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오는 행위는 ~~활기찬 삶의 모습~~에 해당한다.

부르튼 맨발로 거리에 나서서 일시적으로나마 '울던 것들'의 배를 채울 양식을 구한 것이므로, '탁발'은 고단하지만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를 활기찬 삶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범위 오류 (가)의 '움막 같은 집'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고, (나)의 '낡은 목욕통'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대상이다.

(가)의 '움막 같은 집'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양식을 기다리며 울던 것들이 배를 채운 뒤 울음이 멎는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자 삶을 유지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하는 삶의 무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낡은 목욕통'은 화자가 버리려는 예전의 구두를 빗댄 표현이므로, 화자가 벗어나려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1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자연물을 소재로 삼아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개조개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개조개가 슬픔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 여기고, 이를 양식을 구하기 위해 '부르튼 맨발'로 거리에 나온 모습과 연결하여 가장의 고된 삶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새장에 갇힌 새가 '언덕을 잊고', '날지 않는' 모습을 통해 속박된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의 2연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 새가 날 때 구두를 감

추듯'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삶을 속박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도치법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샀다', '만든 것이다', '컸다', '작아져야 한다', '날지 않는다'와 같이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속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는 '흘러왔을 것이다', '돌아왔을 것이다' 등에서 대상에 대해 추측하고 있으므로, 단정적 어조와는 거리가 있다.

④ 범위 오류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에서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생생하게 형상화하였으나, (나)에는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부재 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가)는 '슬피 우는',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울던 것들' 등에서, (나)는 '나는 가끔씩 ~ 위로하는 것이다' 등으로 보아, 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1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구두'를 '낡은 목욕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 내는~~ '낡은 목욕통'과 같이 ~~화자가 오랫동안 지켜온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나)의 4~5연에서 화자는 새로 산 구두가 자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하면서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낡은 목욕통'은 그동안 화자를 속박했던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는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순수함을 지키려는 의지와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신고 다니는 '구두'를 '감옥을 끌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구두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화자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화자는 구두가 너무 커서 '감옥'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구속의 압박감이 컸음을 '낯설게하기'를 통해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새장'에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는 발상은 좁은 '새장'에 하늘의 '구름'을 넣어 새가 자유롭기를 바라듯 화자 역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좁은 '새장' 속에 하늘에 자유롭게 떠 있는 '구름'을 집어넣는 행위는 새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자 역시 현실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낯설게하기'를 통해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새 구두'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고 본 발상은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상식적으로 '새 구두'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위에 올려질 수는 없으므로 '낯설게하기'가 쓰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속박적 현실을 상징했던 구두를 자유를 표상하는 구름 위에 둔다는 낯선 표현을 통해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내 구두'를 '한 척의 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든 출항할 수 있는 '배'와 같이 지상을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연에서 화자가 '내 구두'를 아직 물에 젖지 않은 '배'와 연결하고 있는데, 이때 배는 지상을 벗어나 어디로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현실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19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배', '새의 육체'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 ×)
아직 물에 젖지 않은 '배'는 지상을 벗어나 어디로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존재이고, '새의 육체'는 속박적 현실을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는 화자가 발을 집어넣어 보려는 대상으로, 둘 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2) 화자 오류 화자는 삶을 속박하는 현실을 '새장', '낡은 목욕통'에 비유하며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 ×)
화자는 1~2연에서 구두를 '새장', '작은 감옥'에 비유하면서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5연에서 삶을 속박하는 현실을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에 비유하며 이를 벗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9 가 나비 나 얼음 속의 밀림

작품 분석 본문 112~115쪽

가 나비

작가 정지용
갈래 산문시, 서정시
주제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세계
특징 ① 시각적·청각적 이미지와 음성 상징어 등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함.
②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하며 시상을 전개함.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남.
④ 명사로 시를 종결하여 시상을 집중시키고 여운을 남김.
⑤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냄.

한 줄 의미
• 추운 가을날 산장에서 적막한 (**밤**)을 보내며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봄.

나 얼음 속의 밀림

작가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얼음 속에 내재된 생명력과 역동성
특징 ① 의문문을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하고 사유의 과정을 드러냄.
② 역설적 발상과 시상의 확산이 돋보임.
③ 은유법과 직유법, 도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④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자아냄.

한 줄 의미
❶ 겨울 아침, 유리창에 낀 (**성에**)를 보며 의문을 가짐.
❷ 결빙의 (**힘**) 속에 숨어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해함.
❸ 성에의 무늬로부터 불의 (**흔적**)과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함.
❹ 성에를 보며 지상의 모든 (**얼음**)과 푸른얼음 속에 퍼져 있는 (**원시림**)을 생각함.
❺ 성에로부터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낌.

22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에는 (나)와 달리 '호 호', '후 두 두 두', '징징', '활 활' 같은 음성 상징어가 쓰이고 있다. '호 호'는 입김을 불어 등피를 닦는 모습을, '후 두 두 두'는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상황을, '징징'은 열리지 않는 창을 주먹으로 치는 상황을, '활 활'은 불을 피운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구조적 안정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범위 오류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화자가 6행에서 나비를 보고 가엾다고 한 후, 10행에서 나비가 잔나비처럼 눈을 뜰까 무섭다고 말한 것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비'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연민에서 두려움으로 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나)의 화자는 공간의 이동 없이 유리창에 낀 성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며, 정서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는 '붉다', '검은 눈', '희부옇게 어정거리는',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등에서 시각적 심상이 쓰이고, '초침 소리 유달리 똑닥거리는', '후 두 두 두 낙수 짓는 소리' 등에서 청각적 심상이 쓰였을 뿐이다. (나) 역시 시각적 심상을 통해 유리창에 반짝이는 성에를 묘사할 뿐이므로, (가), (나) 모두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찾아볼 수 없다.

⑤ 부재 (가)와 (나) 모두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로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점층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나)의 2연은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성에로 결빙하는 힘에 대한 화자의 의문이 점차 심화·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층법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정·오 지름길

④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의 제시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가을밤 산장의 풍경을, (나)는 겨울 아침 유리창에 핀 성에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고 있어서 공감각적 심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 심상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헷갈릴 때에는,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의 '투명하고 차가운 밀림'은 '투명하고'라는 시각적 심상과 '차가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이 연달아 제시되어 있을 뿐, 감각이 전이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221 답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사유**: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정·정·이

ㄴ. (가)는 의성어를 의도적으로 한 음절씩 띄어 써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가)의 '후 두 두 두 낙수 짓는 소리'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흉내 낸 '후두두두'라는 의성어를 일부러 한 글자씩 띄어 씀으로써 낙숫물이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ㄹ. (나)는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사유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의 2연에서 의문형 어미 '-ㄹ까'를 반복하여 '성에'에 대해 화자가 사유해 나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ㄱ. 부재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시간의 흐름

220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연민('가엾어라')에서 두려움('무서워라')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 있을 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ㄷ. 부재 (나)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현재

(나)는 '성에를 본다.', '꽃과 잎과 줄기를 본다.' 등과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유리창에 피어난 성에를 보고 있는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2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은 ㉡과 달리 안과 밖의 두 공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창유리(㉠)'는 화자가 나비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나비도 산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므로, 안과 밖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리창(㉡)'은 화자가 성에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 안과 밖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오·오·이

② 헛짚기 ㉡은 ~~㉠과 달리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창유리(㉠)'와 '유리창(㉡)'은 모두 화자가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시적 상황과 관련된 소재일 뿐,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대장~~이다.

(가)의 화자는 '창유리(㉠)'에 붙은 나비가 비를 맞는 모습을 보며 가여워하고, (나)의 화자는 '유리창(㉡)'에 생긴 성에를 보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과 ㉡이 화자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지는 않는다.

④ 헛짚기 ㉠과 ㉡은 모두 화자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

(가)의 '아슬한 가을 하늘이여 ~ 낙엽 벗은 산장 밤', '구름이 다시 ~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 등에서 느껴지는 적막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통해 현재 화자가 억압적이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화자는 '창유리(㉠)'를 통해 보이는 나비를 연민하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뿐,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유리창(㉡)'에 핀 성에를 바라보며 역동적인 생명력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가)와 (나)에 화자가 부조리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다.

⑤ 헛짚기 ㉠과 ㉡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가)에서 창밖의 나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연민에서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계기가 '창유리(㉠)'라고는 볼 수 없다. (나)에는 '유리창(㉡)'에 핀 성에를 보면서 역동적인 생명력을 떠올리는 인식의 과정이 드러나 있을 뿐,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22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정·정·이

② 헛짚기 [B]: '결빙의 힘'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여 '결빙의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과 저항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1연의 '막힘없는 물방울들을 ~ 가두어 놓은 힘'으로 보아, [B]의 '결빙의 힘'은 물방울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결빙의 힘'에 '잎을 피우고 꽃을 터뜨리는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모순적 속성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흐트러짐과 자유로움을 / 정교하고 엄격한 계율로 만'든다는 것은 물방울들이 얼어붙으면서 고정된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결빙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지, 억압과 저항의 이중적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A]: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로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성에'의 모습에서 '하얀 식물'의 모습을 유추해 내고 있다.

[A]에서 화자는 무생물인 성에를 보며 생물인 '하얀 식물'

의 모습을 유추하는 참신한 발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 대상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밀한 관찰을 통해 물의 결빙이 만들어 낸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해 내고 있다.
[C]에서 화자는 성에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봄으로써 '얼음의 결정체마다 살라 놓은 / 투명한 불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 하나의 대상에서 찾아낸 속성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성에'에서 '원시림'으로 연결되는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D]에서 화자는 성에를 보고 '지상의 모든 얼음'을 떠올리고, 이어서 '푸른얼음' 속에 퍼져 있는 '원시림'을 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대상인 성에에서 찾아낸 속성을 '모든 얼음'과 '원시림'으로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함으로써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E]: 정적 대상을 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에'에서 찾아낸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3연에서 성에를 자세히 관찰하던 화자는 [E]에서 성에로부터 '뛰고 날고 헤엄치며 노는' 역동적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유리창에 얼어붙어 있던 정적 대상인 성에를 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에에서 찾아낸 역동적 생명력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24 답 (1) 하얀 식물 (2) 확장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유리창, 하얀 식물)'은 무생물인 '성에'를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223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무생물인 '성에'를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여 나타낸 표현은 '하얀 식물'임을 알 수 있다.

(2) 상반 화자의 사고는 '성에'에서 출발하여 '지상의 모든 얼음', '원시림'으로 그 범위가 (확장, 축소)되고 있다.
223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의 사고는 '성에' → '지상의 모든 얼음' → '원시림'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희망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는 휩쓸려 내려간 별이 화자가 있는 산장이 아닌 산 아래의 어느 마을 위에 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표현한 것으로, 희망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 화자가 한 일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가)에서 화자는 난로에 물푸레나무의 나뭇가지를 깔아 불을 지피고 등피를 닦아 끼운 뒤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 결과 불꽃이 돋은 것이므로, ⓐ는 화자가 한 일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 직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연봉 산맥 길'을 '다람쥐 등 솔기'에 비유하며 '구브레' 뻗어 나간다고 묘사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 의성어를 통해 나비를 위한 화자의 노력과 한계를 생생하게 나타낸다.
화자는 비를 맞고 있는 나비를 위해 창문을 열고자 하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아 주먹으로 징징 칠 뿐이다. 따라서 ⓒ는 나비를 위한 화자의 노력과 한계를 의성어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시상을 집중시킨다.
'황혼 같은 밤'에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을 집중시키고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

22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온기: 따뜻한 기운.

정·정·이

④ 헛짚기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기며 '부러'워하는 창밖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는 모습은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성찰적 자세에~~ 해당하겠군.
〈보기〉에서 (가)는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며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심정, 억압적 현실로 인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산장 안의 온기를 '이상스런 계절'로 여기며 '부러'워하고 있는 주체는 나비이고, 화자는 이 나비를 보며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나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나비는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서 기능한다고 하였으므로, 산장 안의 온기를 부러워하는 나비의 모습은 시대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화자의 심정을, 나비가 검은 눈을 잔나비처럼 뜨지 않을까 무서워하는 화자의 모습은 억압적 현실로 인한 화자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성찰적 자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초침 소리 유달리 뚝닥거'린다고 느낄 만큼 적막감이 감도는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배경이 화자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군.

화자는 난로를 지펴야 할 정도로 서늘하고, 초침 소리가 유달리 뚝닥거리게 느껴질 정도로 적막감이 도는 산장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낙수 짓는' 창밖에 붙어 있는 나비를 '가엾'다고 여기는 것은 시대적 아픔으로 힘겨워했던 화자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나비에 투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나비는 시인이 조우하게 된 자신의 내면을 비유하는 대상이고, 시인은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를 바라보는 나비의 시선을 교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비가 오는 창밖에서 추위에 떨며 산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비에게 시대적 현실로 고통 받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이를 '가엾어라'라고 탄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해발 오천 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이나 '자재화 한 폭'과 같은 비유를 통해 창밖 나비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 낸 존재임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나비는 화자의 상상이 만들어 낸 가상의 존재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환상'이나 '자재화'는 모두 '나비'를 가리키는 말로, 나비가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상상해 낸 가상의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인 별도 '휩쓸려 나려'갔다는 표현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겠군.

〈보기〉에서 (가)에는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이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추운 가을날 어느 산장에서 적막한 밤을 보내는 화자에게 있어 비를 내리는 구름이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도 '휩쓸려 나려'갔다는 것은 화자가 처한 암울한 시대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한 내면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응시**: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봄.

정·정·이

(1)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작품의 배경은 성찰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

〈보기〉에서 추운 가을날 산장을 찾은 시인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적막한 밤을 보내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낙엽 벗은 산장 밤'이라는 배경이 화자로 하여금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잔나비'~~ 나비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괴로움이 투영된 대상이다. (○, ×)

'잔나비'는 눈을 뜨는 나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대상으로, 화자의 괴로움이 투영된 대상이 아니다. 〈보기〉에 따르면 (가)는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시인의 우울한 내면을 잘 보여 주는데, 여기서 '나비'가 화자의 또 다른 자아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화자의 괴로움이 투영된 대상은 '나비'임을 알 수 있다.

(3) 헛짚기 '백화 숲 희부옇게 어정거리는 절정 부유스름하기 황혼 같은 밤'은 화자가 스스로를 응시하는 과정 끝에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 ×)

희부옇고 부유스름한 풍경은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풍경으로 화자가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나타낼 뿐,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22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도**: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끎.
- **정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함.

정·정·이

⑤ 헛짚기 '또 다른 원시림'을 직접 찾아가 관찰한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있군.

'또 다른 원시림'은 화자가 성에를 관찰하면서 상상한 대상으로 실제로 찾아가 관찰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겨울 아침 쉽게 볼 수 있는 '성에'를 시적 소재로 활용한 것에서 사소한 것을 자세히 보는 시인의 작품 세계를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김기택의 시 세계는 사소한 것, 자세히 보기 등의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성에는 겨울 아침에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소재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인의 시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성에'라는 무생물을 '하얀 식물'로 생물화하는 상상력은 '생명의 비밀이 /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명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군.

1연에서는 '성에'를 '하얀 식물'에 비유했는데, 〈보기〉에 따르면 이는 무생물을 생물화한 상상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 2연에서 '생명의 비밀이 / 얼음 속에도 있었던 것일까'라는 시구를 통해 이를 생명 의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③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고 있군.

1연에서 '무엇일까'하고 서술어를 먼저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한 뒤 이어서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인 성에의 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성에의 화려한 무늬에서 '불의 흔적'을 발견한 것에서 성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시인은 대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정밀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3연에서 화자가 성에의 무늬가 결정체마다 살라 놓은 '불의 흔적'처럼 느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나 아름다운 관계

본문 116~119쪽

작품 분석

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작가 백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순수하고 환상적인 사랑에 대한 소망
특징 ① 현실의 세계와 상상 속의 세계로 나누어 시상을 전개함.
② 인과 관계를 바꾸고 대등적 연결 어미 '-고'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화함.
③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④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⑤ 흰색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눈) 내리는 밤 나타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함.
❷ 나타샤와 (산골)에 가서 살고 싶어 함.
❸ (세상)을 버리고 (산골)로 가자고 나타샤가 속삭이는 것 같음.
❹ 나타샤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함.

나 아름다운 관계

작가 박남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서로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한 다짐
특징 ① 의인법을 활용하여 바위의 포용으로 소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형상화함.
② 종결 어미 '-어', '-지', 연결 어미 '-고' 등의 반복을 통해 각운을 형성함.
③ 감각적 이미지와 색채어 등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함.
④ 도치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바위)와 (소나무)의 아름다운 관계
❷ 바위와 소나무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반성))함.

22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는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2연에서 서술어 '뒤돌아본다'를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인 '산다는 일이 ~ 피워 본 적 있었던가'를 뒤에 제시하는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성찰과 반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푹푹'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응앙응앙'은 화자의 상상 속

동물인 흰 당나귀가 화자와 나타샤의 사랑을 축복하며 내는 소리이다. 이를 통해 화자와 나타샤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 혹은 세상과는 대립적인 공간으로, 순수한 세계인 산골에 대한 열망 등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바위와 소나무를 의인화하여 바위가 바람에 날아와 안긴 솔씨 하나를 받아들이고 이를 소나무로 키워 내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하여, (나)는 동일한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의 '푹푹 눈이 나린다', '눈은 푹푹 나리고'에서 유사한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인한 운율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시행의 끝에 '-어, -지, -가, -고' 등과 같은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가)에서는 흰색을 드러내는 시어 '눈', '흰 당나귀'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나)에서는 푸른색을 드러내는 시어 '푸른 그늘'을 통해 소나무가 드리우는 그늘에 시원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230 답 (1) (나) (2) (가), (나)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촉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정·정·이

(1) 범위 오류 (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

(나)의 마지막 행의 '있었는가', '있었던가'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닌 설의적 표현이다. 이를 통해 다른 존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못한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반성적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2) 자연물이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가), (나))

(가)의 화자는 눈이 내리는 풍경을 보며 사랑하는 '나타샤'를 그리워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싱싱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다른 존재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로 보아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이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범위 오류 (가)는 의성어와 의태어, 토속어 등을 다채롭게 구사하여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

(가)는 의태어 '푹푹', 의성어 '응앙응앙', 토속어 '출출이', '마가리', '고조곤히' 등을 다채롭게 구사하여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3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고찰**: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 **몽환적**: 현실이 아닌 꿈이나 환상과 같은.
- **지사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정·이

① ㉠은 화자의 소망과 염원을, ㉡은 화자의 자기 성찰을 함축한다.

(가)의 화자는 가난하고 고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나 나타샤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을 통해 상상함으로써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바위와 소나무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지 인식한 뒤, ㉡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은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을, ㉡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이끌어 낸다.
미래에 대한 상상

(가)의 화자는 ㉠ 이후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과거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맺었던 관계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은 지난 삶에 대한 후회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범위 오류 ㉠은 상상에서 현실로의 전환을, ㉡은 외적 고찰에서 내적 응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가)의 화자는 2연에서 현실의 고독과 마주한 다음 ㉠을 통해 나타샤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고 있으므로, ㉠은 현실에서 상상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세계에 있는 바위와 소나무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난 뒤 ㉡을 기점으로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있으므로, ㉡이 외적 고찰에서 내적 응시로의 전환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헛짚기 ㉠은 ~~몽환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의 분위기가 몽환적이고 이국적이기는 하지만, ㉠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

는 ㉡ 이후 희생적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는 한편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해학적이거나 풍자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⑤ 헛짚기 ㉠은 ~~부정적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를~~, ㉡은 ~~의연한 태도로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지사적 풍모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 이후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고 상상을 통해 소망하는 세계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부정적 대상을 받아들이는 체념적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나)의 화자는 ㉡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삶의 자세를 국가와 연결하여 이해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지사적 풍모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23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내밀**: 어떤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함.

정·정·이

⑤ 헛짚기 '나'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상황이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나타샤'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반전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나타샤와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화자는 나타샤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샤가 화자를 사랑하고 흰 당나귀도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화자의 상상 속 일로, '나'가 나타샤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샤가 '나'를 사랑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타샤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반전되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산골로 가자', '마가리에 살자'라는 표현에서 '나'의 소망을 느낄 수 있다.

'산골로 가자 ~ 마가리에 살자'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타고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② '눈'과 '흰 당나귀'의 흰색 이미지를 중첩시켜 순결함에 대한 '나'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색채로, 화자는 '눈'과 '흰 당나귀'에 이러한 흰색 이미지를 결합하여 순결함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③ '푹푹' 내리는 '눈'과 '깊은 산골'은 '마가리'의 내밀함과 고립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가 세상을 버리고 나타샤와 함께 간 '깊은 산골'의 '마가리'는 눈이 쌓이면 고립될 수 있는,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화자와 나타샤만의 내밀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푹푹' 내리는 '눈'과 '깊은 산골'이 '마가리'의 내밀함과 고립된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시는 행위에서 '나'의 고독한 처지와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2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는 눈이 푹푹 내리는 밤에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사랑하는 나타샤와 함께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시며 이러한 상상을 하는 '나'의 모습에서 고독한 처지와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233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구원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사람.

정·정·이

(1) '눈'은 계절감을 환기하는 동시에 순수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

'눈'은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환기하며,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순수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헛짚기 '나타샤'는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어 있는 ~~화자를 다시 현실로 이끌어 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 ×)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나타샤가 '산골로 가는 ~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나타샤 역시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을 긍정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를 다시 현실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의 입장에서 현실로 이끄는 것은 구원의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3) 상반 '산골'은 세상과 단절된 이상적 공간으로서, '마가리'와 ~~대조적인~~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 ×)

화자가 가려고 하는 '산골'을 '눈이 푹푹 쌓이는 밤'에 가는 '깊은' 곳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세상과 단절된 이상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가리'는 산골 속에 있으므로 이 둘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3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화자 오류 화자는 ⓐ에서 '소나무'가 자라난 과정을 ~~지켜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의 '사람들은 모르지'는 바위에 이끼도 살지 못했던 처음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위 위에서 자란 소나무가 싱싱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를 사람들이 몰랐던 일을 자신만 알았다는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② 화자는 ⓑ에서 작은 '솔씨'가 바위에 뿌리를 내린 것에 대한 경이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 '내리다니'에 쓰인 종결 어미 '-다니'는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는 작은 '솔씨'가 바위에 뿌리를 내린 것에 대한 화자의 경이감이 드러난다.

③ 화자는 ⓒ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소나무'를 키워 낸 '바위'의 희생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바위가 소나무에게 줄 빗물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다는 점에서, ⓒ는 소나무를 키워 낸 바위의 희생과 사랑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에서 '바위'의 사랑으로 성장한 '소나무'가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소나무가 드리운 그늘은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위의 사랑으로 성장한 소나무가 다른 존재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에서 '바위'와 '소나무'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바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성장한 소나무를 보며, ⓔ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나)에서 '바위'는 '작은 풀씨'의 생명력을 원천으로 삼아, '강물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를 매개로 '소나무'와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나)에서 소나무는 바위가 틈을 내 주고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틀어 주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었다. 바위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으로 큰 소나무가 '푸른 그늘'을 드리우며 '강물 소리'를 흐르게 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려준 것이므로, 바위가 소나무를 매개로 '강물 소리'와 '새'와의 새로운 관계를 확장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나'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는 것은 속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를 통해 화자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세상'을 떠나 '산골'의 '마가리'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과 단절을 택하고 순수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눈' 내리는 상황의 지속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자처한 고립과 '나타샤'에 대한 '나'의 몰입을 심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가)에서 '눈'은 '세상'을 차단하는 동시에 나타샤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고 심화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눈'이 푹푹 쌓임에 따라 화자가 자처한 고립은 심화되고, 그만큼 나타샤에 대한 화자의 몰입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틀어 '소나무'를 키워 낸 것을 통해, 주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바위는 처음에는 이끼들도 살 수 없는 '불모'의 존재였다. 그러나 늙어 감에 따라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어 자신에게 날아와 안긴 '솔씨'를 위해 '굳은 몸을' 틀면서 빗물을 받아 내는 등의 '사랑'으로 소나무를 키워 낸다. 이는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야 비로소 다른 존재를 포용하며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⑤ (나)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바위'가 먼저 '솔씨'에게 '틈'을 내어 뿌리를 내리게 했듯이, 내가 먼저 '몸의 한편'을 내어 누군가를 품어 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바위와 소나무의 관계를 통해 '산다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된 화자는 2연에서 풀꽃 한 포기를 위해 자신이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본 적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본다. 이는 바위가 먼저 솔씨에게 틈을 내어 뿌리를 내리게 했듯이 자신도 먼저 '몸의 한편'을 내어 누군가를 품어 주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모습을 화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나)에서 '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틀어 '소나무'를 키워 낸 것을 통해, 주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변화할 때에 다른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가)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보기〉의 어떤 내용이 (나)와 관련된 특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보기〉의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들을 포용하며 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은 ④에 제시된 바위의 변모('불모'의 바위가 '품 안이 너른' 바위가 되고, '몸'을 트는 것)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36 답 (1) 고립 (2) 탈속적 (3) 포용 (4) 늙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이질적**: 성질이 다른.

정·정·이

(1) 교체 (가)의 '푹푹'은 화자의 (고립 / 저항)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여 준다.

(가)에서 화자는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면서 '눈'이 '푹푹' 쌓이는 밤에 산골로 가자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자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과 단절을 자처하였으며, 이때 '푹푹'은 화자가 자처한 고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 상반 (가)의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살고 싶은 세계는 (탈속적 / 세속적) 공간이다.

(가)의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흰 당나귀를 타고 가 살고 싶어 하는 '산골'과 '마가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곳이라는 점에서 탈속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 상반 (나)의 '바위'는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를 (포용 / 배척)하고 있다.

(나)의 '바위'는 먼저 틈을 벌려 솔씨를 뿌리 내리게 하고, 몸을 틀어 빗물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주며 사랑으로 소나무를 키워 냈다는 점에서,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이질적인 존재를 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교체 (나)의 화자는 '소나무'가 '푸른 그늘'을 드리우며 다른 존재를 품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바위'가 (늙은 / 굳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그래 아름다운 ~ 늙어 갈 수 있기 때문이야' 등으로 보아, 바위가 늙어 다른 존재를 포용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소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란 소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며 강물 소리를 흐르게 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는 '바위'가 늙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3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에서 마침내 ~~현실을 초월한 사랑을 성취한 화자의 기쁨~~을 짐작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3연에서 나타샤가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4연에서 흰 당나귀가 화자와 나타샤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좋아서 응앙응앙 우는 것은 모두 화자가 상상한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현실을 초월한 사랑을 성취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등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다.

나타샤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을 통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국적인 느낌을 풍기는 '나타샤'를 등장시킨 것에서 고향의 풍속을 그리던 세계에서 벗어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가)는 고향의 풍속을 그리던 세계에서 벗어난 백석 후기 시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이름인 '나타샤'의 사용은 고향의 풍속을 그리던 세계에서 벗어난 후기 시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는 데서 사랑을 이루기 힘든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사랑을 이루기 힘든 현실에 고뇌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화자가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는 장면은, 사랑을 이루기 힘든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고 '산골'로 가고 싶어 하는 것에서 부정적 현실을 떠나 이상적 세계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려는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로 인해 고뇌하며, 여인과 이상적 세계인 '산골'로 함께 가는 상상을 한다고 하였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는 나타샤의 말과, 화자가 나타샤와 함께 산골로 가는 상상을 하는 것에서 부정적 현실인 '세상'을 떠나 이상적 세계인 '산골'에서 나타샤와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31 가 수(繡)의 비밀 나 찔레

작품 분석 본문 120~123쪽

가 수(繡)의 비밀

작가 한용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당신에 대한 영원한 사랑, 조국·민족·자유에 대한 지향, 진리의 구도에 대한 염원
특징 ① 수놓는 행위를 통해 추상적 관념을 형상화함.
② 상징적·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옷)을 다 짓고, 주머니에 (수놓는) 것만 남겨 둠.
❷ 주머니 짓기를 멈춘 이유와 수놓기에 담긴 '(나)'의 마음

나 찔레

작가 문정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픈 사랑을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은 소망
특징 ① 시각적 이미지와 역설적 발상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냄.
③ 변주된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주제를 강조함.
④ 가정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사랑했던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채 (찔레)로 서 있고 싶은 소망
❷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이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간직하고 싶은 소망
❸ 지난날의 (아픈) 사랑에 대한 (회상)
❹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풍성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은 소망

23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포착**: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정·정·이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와 같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추억을 털며'와 '아픔이 출렁거려'에서 '추억'과 '아픔'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터는 행위와 출렁거리는 모습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 (나) 모두 명암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나)는 (나)는 마지막 연에서 1연의 내용을 변형·반복하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반면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재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 않다.

⑤ 부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가), (나) 모두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39 답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ㄷ. 작품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독백적 어조를 통해 내면 심리를 토로하고 있다.
(가)는 1연 1행에서, (나)는 4연의 '내겐 우는 날이'에서 화자가 표면에 제시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당신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나)의 화자는 아픈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은 소망을 혼잣말하는 듯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색채 이미지를 통해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나)의 1연, 3연, 7연에 제시된 색채어 '초록'은 찔레꽃이 피는 계절의 녹음을 나타낸 것으로 계절감을 부각한다.

ㄴ. 범위 오류 경어체를 활용하여 상대를 존중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가)는
(가)에서는 '-습니다', '-ㅂ니다'와 같은 높임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당신'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ㄹ. 범위 오류 반복법을 통해 사랑의 아픔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자세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는 1연에 쓰인 '서 있고 싶다'라는 시구를 3연과 7연의 마지막 행에서도 반복하여, 사랑의 아픔을 겪은 화자가 이를 포용함으로써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2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가)와 (나)는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가)의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는 역설적 표현으로, 수를 놓는 일이 화자에게는 '당신'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 짓지 않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며,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한다. (나)는 6연에서 사랑의 아픔을 '예쁘고 뾰족한 가시'에 비유하고, 이를 '꽃 속에 매달'아 포용하겠다는 것에서 역설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숙한 사랑은 아픔을 견뎌 냄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과 의지를 부각한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감탄사로~~, (나)는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강화하고 있다.~~

(가)와 (나)는 각각 '것입니다', '있고 싶다'로 시상이 종결되고 있으므로, 감탄사와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부재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에 각각 설의적 표현과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삼아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는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삼고 있지 않다. 반면 (나)의 '찔레'는 임에 대한 성숙한 사랑을 간직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가 쓰이지 않았다. 반면 (나)에서는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과 같이 찔레꽃이 피는 시기(5월)를 계절적 배경으로 하여 지난날의 아픈 사랑과 이를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4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변모**: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뀜. 또는 그 모양이나 모습.

정·정·이

⑤ 교체 [C]의 '말을 잃어 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C]의 '아픔이 출렁거려'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C]에서 화자가 '말'을 잃게 된 것은 과거에 상대를 사랑하는 동안 출렁거린 '아픔' 때문에 겪게 된 일로, 사랑의 아픔으로 슬퍼하던 당시의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D]의 '무성한 사랑'은 사랑의 아픔을 인내하고 포용함으로써 얻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뜻하는 말이므로,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화자가 슬퍼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 반복됨으로써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아름답고 성숙된 사랑으로 승화하여 간직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함이 부각되고 있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인 '사랑하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D]의 '꿈결'은 현재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과 정서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무성한 사랑'은 지난날의 아픈 사랑을 승화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한다.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B]에서 사랑하던 사람에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 '꽃'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아쉬움은 [D]에서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 꽃 속에 매달고' '서 있고 싶다'와 같이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으로 변모되어 나타난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B]의 '추억' 속 화자의 모습에 해당한다.

24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꿈결'은 ~~'사랑하던 그 사람'과의 슬픈 추억~~을 가리킨다.

(○, ⊗)

241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꿈결'은 지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아픈 사랑을 승화하여 성숙한 사랑으로 간직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꿈결처럼' 앞에 '슬퍼하지 말고'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지나간 사랑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고자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

금방 사라지는 속성을 지닌 '이슬'에 비유하여 '추억을 털'고 싶다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아픈 사랑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3) 상반 '예쁘고 뾰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꽃'은 '무성한 사랑'과 ~~대조적인~~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 ×)

'예쁘고 뾰족한 가시'는 사랑의 아픔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러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꽃'은 사랑의 아픔을 포용하고 극복한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성한 사랑'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의 5연에서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잃어 갔다'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겪은 사랑의 '아픔(㉡)'이 화자를 실의에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화자의 비밀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가)의 2연 '아직 이 세상에는 ~ 보물이 없습니다.'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아픔(㉠)이 임('보물')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 화자의 비밀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 화자 오류 ㉠과 ㉡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화자가 느끼는 아픔에 이러한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화자 오류 ㉠에서는 ㉡과 ~~달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절망적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이상과 달리 임이 부재하는 현실에 괴리감을 느끼고 아파하고(㉠) 있으나, 절망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지나간 사랑의 아픔(㉡)으로 실의에 빠졌던 화자가 이를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도 절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은 ㉠과 ~~달리~~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나)의 4~5연에서 '그대'를 사랑하는 동안 우는 날이 많았으며 아픔에 말을 잃어 갔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아픔(㉡)'은 외부 대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의 '아프고(㉠)' 역시 임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감정이므로 외부 대상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4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부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정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함.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일 뿐, 여기에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손때'는 주머니를 많이 만져서 생긴 것으로, 그만큼 화자가 수를 놓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보기〉에 따르면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임의 부재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는 화자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은 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수를 놓는 과정에서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보기〉에 따르면 화자의 현실 부인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따라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45 답 (1) 부인 (2) 지연 (3) 수를 놓는 (4) 주체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주술적**: 주술(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또는 그 술법)에 관련된.
- **방어 기제**: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 불만에 직면하였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취하는 적응 행위.

정·정·이

(1) 상반 화자는 임이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 부인)하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가)의 역설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 교체 화자는 수를 놓는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 유발)하고자 한다.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킨다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 교체 화자는 (수를 놓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 임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정화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일상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 2연의 5~7행을 통해 (가)의 화자가 수를 놓는 것이 임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정화하기 위해 하는 일상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4) 교체 화자가 주머니의 완성을 미루고 있는 것은 임이 없는 현실을 (주술적, 주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임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화자의 행위는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머니를 짓다가 놓아두는 일을 반복하며 완성을 미루는 것은 임의 부재로 인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2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나)에서 화자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오늘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어난 것은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 것~~에 해당하는군.

(나)의 '송이송이 흰 찔레꽃'은 지난날의 사랑의 아픔을 승화한 뒤에 얻을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현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과거에 아픔을 겪으며 사랑했던 '그 사람'이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오·이

① (가)는 '당신'이, (나)는 '그대'가 부재하는 상황에 대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군.

〈보기〉에서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는 화자가 '당신'을 기다리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를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재하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우는 날이 많았었다', '아픔이 출렁거려' 등으로 보아, 화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의 사랑에 아픔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과거에 사랑했던 '그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사랑의 아픔을 승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과 (나)의 '찔레로 서 있고 싶다.'에는 화자의 지향이 담겨 있군.

(가)의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은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자가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한다. (가)의 화자는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있다면 수를 완성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화자의 지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 '찔레'는 지난날 사랑의 아픔을 승화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찔레로 서 있고 싶다'에는 화자의 지향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군.

(가)의 화자가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은 것은 현실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의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현실의 모습에 해당하는군.

(나)의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2 가 전라도 가시내 나 목계 장터

작품 분석 본문 124~127쪽

가 전라도 가시내

작가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
특징 ① '전라도 가시내'의 고달픈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함.
② '전라도 가시내'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함.
③ 토속적인 시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함.
④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전라도 (**가시내**)와 함경도 사내('나')가 (**북간도 술막**)에서 만남.
❷ 가시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내('나')가 (**유대감**)을 느낌.
❸ 고향을 떠나오면서 가시내가 느꼈을 (**슬픔**)과 한
❹ 사내('나')가 가시내에게 공감하며 (**위로**)를 함.
❺ 사내('나')가 암담한 현실에 맞서 극복 (**의지**)를 다짐함.

나 목계 장터

작가 신경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떠돌이 민중의 삶의 애환과 갈등
특징 ① 방랑과 정착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대립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변주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민요조의 4음보 율격과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④ 자연물이 화자에게 권유하는 것처럼 표현하며 주제를 전달함.

한 줄 의미

❶ 방랑과 (**유랑**)의 삶
❷ 정착에 대한 (**소망**)
❸ (**유랑**)과 정착 사이에서의 (**갈등**)

24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가시내야',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울어 울어', '사라질 게다' 등의 반복을 통해, (나)는 '되라 하고'와 '되라 하네(되라네)'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서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② 부재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가)의 6연의 '이윽고'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뜻으로 시적 분위기를 환기할 뿐, 시상을 반전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도 시상이 반전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④ 범위 오류 (가)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인 함경도 사내('나')는 청자인 가시내에게 말을 건네며 가시내의 '가난한 이야기'에 동화되어 유대감을 느끼고 위로를 건네려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게 친근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는 화자가 독백적 어조로 내면 심리를 토로할 뿐,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가)에서는 '남실남실', '차알삭', '휘 휘', '우줄우줄' 등의 음성 상징어를 통해 함경도 사내가 술을 따르는 모습, 가시내의 고향의 풍경, 가시내의 댕기가 날리는 모습, 벌판으로 나서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 등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쓰이지 않았다.

24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나)와 달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가)는 '가시내'를 청자로 삼아 '가시내야'라고 반복적으로 부르며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가)는 (나)와 달리 토속적 시어를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
(가)에서는 '알룩 조개', '얼구며', '북간도 술막', '눈포래', '불술기' 등의 시어를, (나)에서는 '방물장수', '민물 새우', '토방', '툇마루'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나)는 (가)와 달리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자연물들을 제시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구름'과 '바람'은 방랑과 유랑의 이미지를 띠는 자연물이고, '들꽃'과 '잔돌'은 정착의 이미지를 띠는 자연물이다. 이처럼 대립적 이미지를 지니는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가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4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나)는 (가)와 달리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24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는 '남실남실', '우줄우줄', '휘 휘', '차알삭'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가)는 (나)와 달리 서사적인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시의 특성을 띠고 있다.

(가)는 고향을 떠나 온갖 고초를 겪으며 유랑하는 함경도 사내('나')와 전라도 가시내의 사연을 이야기의 뼈대로 하는 서사적 줄거리를 갖고 있다. 반면 (나)는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이야기시의 특성을 띠고 있지 않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부정적인 현실과 당당하게 맞서려는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

(가)의 마지막 연에서 눈포래가 휘감아 치는 벌판에 나서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비장한 결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려는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떠돌이 민중으로 살아가는 화자의 애환이 드러날 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화자의 독백적 진술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가)는 '나(함경도 사내)'가 청자인 전라도 가시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가시내야', '~고 왔다.', '-더냐', '사라질 게다'가, (나)에서는 '날더러', '되라 하고', '되라 하네(되라네)'가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다.

25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나타낸다.

'싸늘한 웃음(㉣)'은 가시내가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짓는 냉소로 볼 수 있다. 함경도 사내에게 연민을 느껴 짓는 웃음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북간도 술막(㉠)'은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가 함께 있는 공간으로, 화자가 이곳을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 같은, '이웃도 못 미더운' 공간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② ㉡: 가시내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나타낸다.

'가난한 이야기(㉡)'에서 '가난' 때문에 가시내가 고향인 전라도를 떠나 북간도까지 왔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③ ㉢: 가시내가 고국을 떠나야 했던 슬픔을 나타낸다.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에서 울음을 우는 '두루미'는 가시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고국을 떠나 북간도로 가는 가시내의 슬픔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나타낸다.

'너의 나라(㉤)'는 가시내의 고국이자 고향이다. 사내('나')가 가시내에게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주겠다며 가시내에게 분홍 댕기를 휘 휘 날리며 ㉤으로 돌아가라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보아, ㉤은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251 답 (1) 북간도 (2) 슬픔에 공감 (3) 각박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깡

• **각박한** ① 인정이 없고 삭막한. ② 돈 따위를 지나치게 아껴 넉넉하지 않은.

정·정·이

(1) 교체 '(북간도 함경도)'는 현재 화자와 '가시내'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다.

2연에서 유랑민인 화자와 가시내가 현재 북간도 술막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에는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가시내의 사연을 들으며 (슬픔에 공감, 시련을 극복)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솔길'은 뒤에 이어지는 '가난한 이야기'로 보아 가시내가 살아온 고된 인생길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솔길'을 헤매겠다는 말에는 가시내의 사연을 들으며 슬픔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싸늘한 웃음'은 '가시내'가 (각박한, 모순된) 삶을 향해 짓는 웃음이다.

250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싸늘한 웃음'은 유랑민으로서 각박하게 살아온 가시내가 세상에 대해 보이는 냉소임을 알 수 있다.

25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함경도 사내는 ~~가시내와 함께 ⓐ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의 나라(ⓜ)'는 가시내의 조국이자 고향을 의미한다.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에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실제로 고향에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나마 잠깐이라도 고향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뜻으로 한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함경도 사내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에서 ㉠으로 왔다.

'바람 소리도 호개도 ~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에서 현실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려는 함경도 사내의 강한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함경도 사내가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품고 '함경도(ⓐ)'에서 '북간도(㉠)'로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에서 살았던 가시내는 두만강을 건너 ㉠으로 왔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시내의 고향은 전라도로, (가)에서는 '너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다. 4연에서 가시내가 '석 달 전'에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 술막(㉠)'으로 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에서 가시내를 만난 함경도 사내는 가시내에게 연민을 느낀다.

'북간도 술막(㉠)'은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와 만나 대화를 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사내는 가시내의 사연을 들으며 연민을 느끼고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너의 가슴 ~ 헤매이자', '그래두 외로워서 ~ 가렸더냐' 등에서 사내의 이러한 연민의 감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④ 함경도 사내는 '가시내'가 ⓐ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줄게'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한스러워하는 '가시내'를 위로하기 위해 화자가 한 말이다. 이어서 '손때 수줍은 ~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에는 자신이 해 준 두어 마디 사투리를 들은 '가시내'가 상상으로나마 '너의 나라(ⓜ)' 즉 고향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5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의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와 ~~(다)의 '짐 부리고 앉아 쉬는'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가)의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는 벌판에 나서는 함경도 사내의 비장한 각오와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지만, (나)의 '짐 부리고 앉아 쉬는'은 정착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가)의 '봄을 불러 줄게'에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의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가)에서 함경도 사내는 가시내에게 고향 사투리로 '봄을 불러' 주어 잠깐이라도 고향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가시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가)에서 함경도 사내는 눈포래가 휘감아 치는 것을 알면서도 벌판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결연한 의지적 자세가 드러난다.

③ (나)의 '가을볕도 서러운'에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드러나 있군.

'가을볕'은 곡식이 익어 가는 계절의 뜨거운 볕이지만, 길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방물장수에게는 자신의 처지를 서럽게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가을볕도 서러운'에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눈포래', '얼음길'과 (나)의 '산 서리', '물여울'은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내는군.

(가)에서 가시내는 북간도에 오기 위해 '눈포래'를 뚫고 왔고, 사내는 '얼음길'이 밝으면 '눈포래'가 치는 벌판에 나설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눈포래'와 '얼음길'은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산 서리'와 '물여울'은 각각 맵차고 모진 속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54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

〈보기〉에서 (가)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은 (가)의 함경도 사내와 가시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북간도 술막'을 수식하는

말로서, 유랑민으로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가)의 화자가 '가시내'와 술을 마시며 '가난한 이야기'에 '잠겨' 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유랑민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

(가)의 화자인 함경도 사내는 같은 유랑민 처지인 가시내와 술을 마시며 그녀가 살아온 '가난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과 관련된다.

(3) 헛짚기 (나)의 '구름'과 '바람'은 각각 '하늘'과 '땅'이 화자에게 요구하는 고난 극복의 의지가 투영된 대상이다. (○, ×)

(나)의 '구름'과 '바람'은 각각 '하늘'과 '땅'이 화자에게 방랑하며 살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빗댄 대상으로 고난 극복의 의지와 관련이 없다.

(4) (나)에서 '석삼년에 한 이레쯤'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모습은 떠돌이 삶의 고단함을 보여 준다. (○, ×)

〈보기〉에서 (나)는 떠돌이 삶의 비애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석삼년(아홉 해) 중 겨우 일곱 날쯤을 '짐 부리고 앉아' 쉰다는 것에서 떠돌이의 고단한 삶을 짐작할 수 있다.

25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에는 가시내의 삶이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나'의 확신이 담겨 있다.

'단풍이 물들어 천 리 천 리 또 천 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는 가시내가 두만강을 건너왔던 때인 석 달 전 고향의 계절적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뒤에 이어진 '외로워서 슬퍼서'로 보아 고향을 떠나온 가시내의 슬픔과 외로움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시내의 삶이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나'의 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알룩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나'는 가시내가 과거에 바닷가에서 살았음을 '나'가 추측한 것이다.

'자랐나'의 '-나'는 의문형 어미로, 가시내의 고향이 바닷가일 것이라고 추측한 '나'가 가시내에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먹으며 자랐느냐고 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를 통해 현재 '나'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흉참한 기별'은 '흉악하고 참혹한 소식'이라는 뜻으로, 이 시구에서는 그러한 소식이 갑자기 '뛰어들 것만 같'아 가슴 졸이고 있는 '나'의 심리가 드러난다. 이를 통해 '나'가 현재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는 현재 가시내의 한스러운 심리 상태가 표출된 것이다.

'싸늘한 웃음'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가시내의 자조적·냉소적인 반응이다. 이는 가시내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매우 한스럽게 생각하는 심리 상태에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나는 눈포래 휘감아 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에서 고난에 맞서려는 '나'의 의지와 미래의 행동을 짐작할 수 있다.

'눈포래 휘감아 치는 벌판'은 혹독한 상황을 상징한다. 이 벌판으로 우줄우줄 나서겠다는 것은 고난에 맞서겠다는 '나'의 의지와 미래의 행동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5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해사하게**: 표정, 웃음소리 따위가 맑고 깨끗하게.

정·정·이

① 산은 날더러 나무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풀이 되라 하네 / 눈보라 몰아치면 숲속에 몸 낮추고 / 바람 거세거든 강가에 누우라네

'들꽃'과 '잔돌'은 모두 정착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이고, '산 서리 맵차거든'과 '물여울 모질거든'은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한다. ①에서 '나무'와 '풀'은 정착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눈보라'와 '바람'은 모두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오·오·이

② 헛짚기 산은 날더러 별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달이 되라 하네 / 산등성이 넘어서 눈물을 글썽이고 / 강 언덕 지나서 해사하게 웃으라 하네

'별'과 '달'은 늘 하늘에 떠 있는 존재로 정착의 이미지를 지니지만, '들꽃'이나 '잔돌'과 달리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혀 주고, 방향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원시와 차이가 있다. 아울러 원시에서는 시련이 닥쳤을 때 이를 견디라고 하였으나, ②에서는 '눈물을 글썽이고'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③ 헛짚기 산은 날더러 불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물이 되라 하네 / 고난의 때 오거든 어둠 속 불 밝히고 / 소생의 때 오거든 생명의 물 적시라네

'불'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물'은 '생명의 물'로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착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리고 '소생의 때' 역시 시련이나 고

난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④ 헛짚기 산은 날더러 새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갈대가 되라 하네 / 눈보라 시리거든 산 너머로 날아가고 / 비바람 드세거든 강물 속에 잠기라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갈대'는 '바람'이라는 시련이 닥치면 '강물 속에 잠'겨서라도 그것을 견뎌 내는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보기〉의 조건에 맞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새'는 눈보라가 시리면 산 너머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정착의 이미지를 지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헛짚기 산은 날더러 햇살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안개가 되라 하네 / 암흑의 때 오거든 어둠을 살라 먹고 / 새벽녘 피어오르는 강 안개가 되랴데

'햇살'과 '안개'는 정착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햇살'은 어둠을 살라 먹는 강인한 존재로, '안개'는 새벽녘에 피어오르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시련이나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기〉의 조건을 충족시킨 표현이라 하기 어렵다.

정·오 지름길

- 원시의 발상을 활용한다.
-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잘 살린다.

〈보기〉에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A]에 나타난 시적 발상과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각각의 조건에 맞게 표현했는지를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A]에 나타난 발상은 정착의 이미지를 가진 자연물을 통해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때 '들꽃'과 '잔돌'은 시련을 견디는 주체이고, '산 서리'와 '물여울'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임을 파악하여 그 뜻을 바르게 살려서 창의적으로 변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33 가 삼수갑산 나 율포의 기억

작품 분석 본문 128~131쪽

가 삼수갑산

작가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절망감과 안타까움
특징 ① '아하'와 '아하하'의 반복과 3음보율로 인한 리듬감이 나타남.
② '삼수갑산'을 능동적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강조함.
③ '삼수갑산', '내 못 가네', '불귀로다' 등의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고향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과 그로 인한 비애를 심화함.

한 줄 의미

❶ (삼수갑산)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대한 탄식
❷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탄식
❸ 삼수갑산을 벗어나 (임)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

나 율포의 기억

작가 문정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뻘밭을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느끼는 삶의 의미
특징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조성함.
② '관찰(경험) → 사색과 성찰 → 깨달음'의 과정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③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어린 시절 (뻘밭)에서 보았던 것들을 떠올림.
❷ 뻘밭과 거기서 일하는 이들에 대해 (사색(성찰))함.
❸ 뻘밭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서 (경건함)을 느낌.

25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특정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오고가니 기험'하고, '물도 많고 산이 첩첩'한 '삼수갑산'의 특성을 제시하고,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과거에 화자를 데리고 갔었던 '바다'의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나)는 '일찍이 어머니가 ~ 위해서가 아니었다'와 같은 통사 구조가 1~2행과 11~12행에서 반복될 뿐,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재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58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 못가네',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등과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나)에서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 위해서가 아니었다'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ㄷ. 의문문의 형식과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는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와 같은 의문문의 진술과 독백적 어조를 통해 삼수갑산에 갇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좌절감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 역시 8~10행에서 의문형의 어미 '-ㄹ까'를 사용한 의문문의 진술과 독백적 어조를 통해 뻘밭의 생명력과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숭고함과 경건함 등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ㄴ.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화자가 위치한 공간은 '삼수갑산'으로 화자는 이곳에 갇혀 있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화자는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탄식하고 있을 뿐, 삶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 한편 (나)는 화자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바다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에 대해 깨달은 바를 노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바다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화자는 뻘밭과 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색을 통해 생명의 경건함과 노동의 숭고함 등을 깨닫고 있을 뿐, 화자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

25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와 (나) 모두 같은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뇨, -네', (나)에서는 '-다, -ㄹ까' 등의 어미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
(가)는 화자가 '임 계신 곳'인 고향에 못 간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에 데려간 행위의 의미를 새기고 있을 뿐,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직유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직유적인 표현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노을이 지는 포구의 모습을 '각혈'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을 '성자'에 빗대고 있다.

④ 교체 (가)는 (나)와 달리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화자의 경험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나타난다. (나)의 화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바다에 데려간 행위를 회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

⑤ 범위 오류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다.
(가)는 '내 왜 왔노' 등에서, (나)는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등에서 화자인 '나'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26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사리고**: 점차 일어날 일의 기미가 다른 사물 속에 숨어 있고,

정·정·이

④ ㉠은 삶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주지 못하지만, ㉡은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군.
'푸른 물(㉠)'은 소금기 많은 곳이자 '무위한 해조음'이 들리는 곳으로, 화자에게 삶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반면 이 '푸른 물'이 밀려 나간 후에 드러나는 '검은 뻘밭(㉡)'은 화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 주는 곳이다. 화자는 이로부터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왕성한 생명력과 뻘밭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숭고함 등을 깨닫고 있으므로, '푸른 물'과 달리 '검은 뻘밭'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은 순수한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군.

'푸른 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검은 뻘밭(㉡)'에서 본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모습은 화자에게 공포가 아닌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② 헛짚기 ㉠은 푸른 이미지로 생명과 희망을 환기시키고, ㉡은 검은 이미지로 허무와 어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군.

생명력이 넘치는 '검은 뻘밭(㉡)'과 대비되는 '푸른 물(㉠)'은 생명력이 없는 곳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푸른 물'의 푸른 이미지는 생명과 희망을 환기하지 않으며, '검은 뻘밭'의 검은 이미지는 허무와 어둠의 정서가 아니라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헛짚기 ㉠은 힘겨운 삶을 극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환희를 상징하고, ㉡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을 상징하는군.

'푸른 물(㉠)'은 힘겨운 삶을 극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환희와 관련이 없다. 한편 '검은 뻘밭(㉡)'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깊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힘겨운 삶의 터전이지만, 탄식을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범위 오류 ㉠은 화자가 미래에 살아갈 모습에 대해 장장하게 해 주고, ㉡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군.

'푸른 물(㉠)'과 '검은 뻘밭(㉡)'은 모두 어머니가 데려간 바다에서 화자가 본 것들로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은 푸른 이미지로 생명과 희망을 환기시키고, ㉡은 검은 이미지로 허무와 어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군.

통상적으로 푸른색과 검은색은 각각 생명과 희망, 허무와 어둠을 환기시키는 이미지로 활용되어 왔어요. 그런데 (나)에서 '푸른 물'은 뿌리 뽑혀 밀려 나가는 대상인 반면, '검은 뻘밭'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퍼덕거리며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나)에서의 푸른색과 검은색의 이미지가 기존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색채 이미지는 작품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용될 수 있으므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261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용**: 쓸모가 없음.

정·정·이

(1) 화자 오류 '해조음'과 같이 무용(無用)한 존재들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고 있다. (○, ⊗)

화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위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은 뻘밭'을 보여 주기 위해 바다에 데려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해조음과 같이 무용한 존재들의 가치를 새로 발견했다고 볼 수 없다.

(2) 화자 오류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

(나)에서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은 생명력이 없는 공간으로,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은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대비되고 있다. 이때 드러나는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는 벌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왕성한 생명력과 뻘밭에서 노동하는 이들의 숭고함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26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척박한**: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몹시 메마른.

정·정·이

⑤ ㉡은 ㉠과 달리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고개를 숙이며 먹이를 건지는 공간이다.

'푸른 물(㉠)'은 소금기 많은, '무위한 해조음'이 들리는 곳으로 묘사된 반면, '검은 뻘밭(㉡)'은 먹이를 건지기 위해 사람들이 무릎을 꺾고 깊게 허리를 굽히며 노동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과 ㉡은 모두 어머니가 화자에게 보여 주고자 한 대상이다.

화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바다로 데려간 이유를 '푸른 물(㉠)'이 아니라 '검은 뻘밭(㉡)'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교체 ㉠은 ㉡과 달리 생명이 사는 곳으로 화자에게 척박한 인상을 주는 공간이다.

화자는 '검은 뻘밭(㉡)'을 생명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며 사투를 벌이는 곳이자, '쓸쓸한 맨살', 즉 사람들이 먹이를 건지기 위해 무릎을 꺾고 허리를 굽히며 힘겹게 노동하는 척박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때 느낀 뻘밭의

척박함을 '쓸쓸한 맨살'이라는 표현으로 집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생명이 사는 곳으로 화자에게 척박한 인상을 주는 공간은 '푸른 물(㉠)'이 아니라 '검은 뻘밭(㉡)'임을 알 수 있다.

③ 교체 ㉠은 ㉡과 달리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볼 수 있는 공간은 '검은 뻘밭(㉡)'이다.

④ 교체 ㉡은 ㉠과 달리 바다가 밀려 나가기 전에 볼 수 있는 대상이다.
'검은 뻘밭(㉡)'은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즉 '푸른 물(㉠)'이 밀려 나간 후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26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실향민**: 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백성.

정·정·이

① 헛짚기 1연: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는 표현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물도 많고 산 첩첩'은 현재 화자가 갇혀 있는 '삼수갑산'의 지형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지, 화자가 떠나온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② 2연: '촉도지난'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촉도지난'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③ 3연: '새가 되면'이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설정을 통해, 귀향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새가 되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화자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4연: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다는 표현을 통해, 실향민이 된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삼수갑산을 화자를 가둔 주체로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실향민이 된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외적인 상황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⑤ 5연: '못 벗어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못 벗어난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삼수갑산에 갇힌 화자가 느낀 절망감과 좌절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우리 민족의 좌절감으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264 답 (1) 외적인 힘 (2) 내 고향 (3) 대비되는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응**: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

정·정·이

(1) 교체 화자는 (스스로의 의지, 외적인 힘)에 의해 삼수갑산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김소월은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절망적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가)의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라는 외적인 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상반 2연의 '촉도지난'에서 '촉나라'에 상응하는 대상은 '(삼수갑산, 내 고향)'이다.
'촉도지난'은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따라서 '촉나라'에 상응하는 대상은 '내 고향'이다.

(3) 상반 3연에서 '새'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유사한) 존재로서, 화자는 '새가 되면 떠가리라'를 통해 귀향의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263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새가 되면 떠가리라'는 화자의 귀향이 불가능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와 새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26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 연기
〈보기 2〉에서 (가)에서의 '새'가 화자의 마음을 고향으로 실어 나른다고 하였으므로, 이때 '새'는 고향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기 1〉의 '연기(ⓒ)'는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항구에 든다고 묘사되는 것으로 보아 고향에 도달하고 싶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 노랑나비

〈보기 1〉의 화자는 수만 호의 집이 불을 밝힌 번화한 고향 풍경을 기대하지만, 이끼만 무성한 무덤뿐이라며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이때 '노랑나비(ⓐ)'는 오지 않는 대상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현실과 대조되는 의미인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헛짚기 ⓑ 파이프

'파이프(ⓑ)'는 〈보기 1〉의 화자가 고향에 돌아와 마주한 풍경을 보고 느낀 슬픔과 적막함을 달래고자 피우는 담배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짚기 ⓓ 바람

〈보기 1〉에서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못 살리라'는 안락한 삶을 허용하지 않는 폭압적인 현실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로 보아 '바람(ⓓ)'은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식민지 현실을 나타내는 말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 이끼

'이끼(ⓔ)'는 무덤 위에 무성히 핀 것으로, 피폐해진 고향의 상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가)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34 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나 면면함에 대하여

본문 132~135쪽

작품 분석

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작가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과 의지
특징 ① 절망적 어조에서 의지적 어조로의 변화가 나타남.
② 도치법과 영탄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③ '-노라'(선언), '-으랴'(반문), '-라'(명령), '-리라'(의지) 등과 같이 다양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한 줄 의미

❶ (동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꿈(소망))
❷ (집)과 (땅)을 잃고 떠도는 자의 (탄식)
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❹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나 면면함에 대하여

작가 고재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면면함
특징 ① 유추를 통해 느티나무의 삶에서 사람들의 미래를 전망함.
②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친밀감을 줌.
③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④ 시각·청각·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⑤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느티나무의 (울음소리)
❷ (겨울)을 견디는 느티나무의 (울음소리)
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모습
❹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은 느티나무의 (생명력)
❺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26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가)는 1연에서 '나는 꿈꾸었노라'라고 먼저 말한 뒤에 '동무들과 ~ 돌아오는 꿈을'을 제시하고, 2연에서도 '이처럼 떠돌으랴'라고 먼저 말한 뒤에 '아침에 ~ 탄식을 얻으면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1연과 3연에서 '너 들어 보았니'라고 먼저 말한 뒤에 '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어순을 도치하여 의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가)의 3연 '떠올라라', 4연 '이어 가라'에서 명령형 어미의

사용을 통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나)에는 명령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③ 부재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가)의 '동이랴, 남북이랴'는 목적지 없이 유랑하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 것일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는 지난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만 나타날 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분위기의 전환은 (가)는 접속 부사 '그러나'를 통해, (나)는 '오늘은'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범위 오류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가)는 (나)는 어순의 도치로 인해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행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뿐, 명사로 시행을 끝맺고 있지 않다. 한편 (나)에서는 1~3연에서 '울음소리', '소리'와 같이 명사로 시행을 끝맺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범위 오류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다.

(나)는 (나)는 청자를 '너'로 명시하고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267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는 (나)와 달리 접속 부사로 인해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266번-③의 해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는 2연과 4연의 접속 부사 '그러나'로 인해 각각 '희망 → 절망', '절망 → 희망'으로 시상이 전환되는 반면 (나)는 4연의 '오늘은'에서 '겨울 →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ㄴ.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에서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함을 알 수 있고, (나)에서는 '너 들어 보았니', '푸르른 울음소리'와 같은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가)와 ~~(나) 모두~~ 선언이나 다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나는 꿈꾸었노라'의 '-노라'는 자기의 동작을 장중하게 선언하는 의미를, '나는 나아가리라'의 '-리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이러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는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에는 다짐이나 선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26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는 화자를, (나)는 청자를 표면에 제시하며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가)는 '나는', '내가'와 같이 작품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국권과 국토를 잃은 상황에 대해 느끼는 탄식, 절망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청자를 '너'라고 부르며, 느티나무의 모습으로부터 깨달은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와~~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나)의 '푸르른 울음소리'는 청각이 시각화된 공감각적 이미지로, 느티나무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낸다. 반면 (가)에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가)와~~ (나)는 유추를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지난겨울의 시련을 이겨 낸 느티나무가 봄을 맞아 초록의 이파리를 틔우는 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의 미래를 유추하여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가)는 유추를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가)와 달리 '둥둥둥둥'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북소리를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용기와 희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교체 (나)는 (가)와 달리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가)는 '산경을 김매이는'과 같이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반면 (나)는 '북소리는 ~ 울리겠니'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6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터전**: ① 집터(집이 있거나 있었거나, 집을 지을 자리)가 되는 땅. ② 살림의 근거지가 되는 곳.
- **유랑**: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세~~가 나타난다.

'떠돌으랴(㉢)'는 집과 땅을 잃고 유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탄식이 드러나는 시구로, 반성적 자세와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꿈꾸었노라(㉠)'에서의 화자는 동무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가꾸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현실은 보습을 댈 땅도 없으므로,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꿈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집 잃은(㉡)' 상황과 '땅'의 부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함께 드러낸다.

④ ㉣: 유랑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떠가나니(㉣)'는 '떠돌으랴'와 함께 목적지 없이 유랑하는 삶을 사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낸다.

⑤ ㉤: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나아가리라(㉤)'에는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27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은 화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탄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

(가)의 화자는 삶의 터전인 '집'을 잃은 탓에 길을 떠돌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탄식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 상반 ㉢은 화자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가리킨다. (○, ×)

(가)의 2연에서 화자가 바라던 대로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떠돌겠느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떠돌으랴(㉢)'는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하게 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에는 실낱같은 희망을 바탕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

(가)의 4연에서 화자는 실낱같더라도 '가느란 길'이 이어지는 것에 황송한 심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므로, '나아가리라(㉤)'에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7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광명**: 밝고 환함. 또는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

정·정·이

① 상반 (가)의 '보습 대일 땅'은 '벌 가'나 '마을'과 ~~대조적인~~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가)의 '보습 대일 땅'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가리키므로, '벌 가'나 '마을'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가)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은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구체화한다.

(가)에서 '가느란 길'이나마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구체화하여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새벽'은 아직 어둡지만 곧 광명이 찾아올 시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드러낸다.

(가)의 '새벽'은 해가 뜨기 전의 시간으로, '산경을 김매'는 때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때 농사짓기 어려운 산비탈인 '산경'에라도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미래의 희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삭풍'이 되게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했던 것은 느티나무가 겪은 시련을 보여 준다.

지난겨울에 '삭풍'이 되게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했던 것은 추운 바람을 맞으며 희망조차 갖지 못했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느티나무가 겪은 시련을 보여 준다.

⑤ (나)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에는 '허리 펴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는 농촌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농촌에 남아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7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단면**: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현상 가운데 한 부분적인 측면.

정·정·이

② 헛짚기 [C]의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며,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군.

〈보기〉에서 (나)가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C]의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은 그러한 농촌의 모습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 놓았다는 것으로 보아, '나무'의 아픔은 곧 '마을(사람들)'의 아픔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무의 소리에는 비슷한 시련을 겪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정서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무가 시련을 견디는 모습을 나타낸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에는 묵묵히 마을을 지키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해체된 농촌 공동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투영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B], [D]의 상황 대조를 통해 '푸르른 울음소리'의 정체가 시련을 딛고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임을 '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군.

[B]의 나무는 겨울의 삭풍을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으나, [D]의 나무는 '초록의 광휘'를 내뿜고 있다. 이러한 상황 대조를 통해 시련을 딛고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③ [D], [E]를 통해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 낸 '오늘'의 '나무'를 '쳐다보'며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볼 수 있군.

[D], [E]에는 '오늘' 시련을 이겨 낸 나무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면면한 삶의 태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④ [E]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새 희망을 주고 있음을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E]에서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음을 '둥둥둥둥'과 같은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A]~[E]를 통해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삶이 동일시됨으로써,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 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나)는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 놓고 면면히 겨울을 이겨 낸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주제를 제목 '면면함'에 함축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A]~[E]에서는 지난겨울의 추위와 상처를 이겨 내고 봄을 맞아 생명력을 뿜어내는 나무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을 지키며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동일시하여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 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273 답 (1) 느티나무 (2) 상처투성이인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느티나무, 별)'은/는 면면히 겨울을 이겨 낸 존재로, 마을 사람들에게 생(生)의 의미를 일깨운다.

〈보기〉에 따르면 '느티나무'는 면면히 겨울을 이겨 내어 생명을 이어 간 존재로, 이는 생(生)의 의미로 확장되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운다고 하였다. 한편, '별'은 우듬지 끝에 하나 매달지 못한 것으로 희망, 꿈을 의미한다.

(2) 상반 느티나무가 (상처투성이인,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모습은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피폐한 모습과 관련된다.

〈보기〉에서 (나)는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으며,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 놓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겨울동안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느티나무는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면서 피폐해져 가는 농촌 사회의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다. 한편, '초록의 광휘'는 겨울의 시련을 이겨 낸 나무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27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에는 상실한 세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노동의 모습을 통한 자아 성찰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가)에는 '집'과 '땅'을 상실한 화자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보기〉의 화자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으므로 자아 성찰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는 농촌의 현실을 잊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기〉는 농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집'과 '땅'을 잃은 현실에 좌절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할 뿐, 농촌의 현실을 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보기〉의 화자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동받고 있다.

② 부재 (가)에는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이 대비되고 있으며, 〈보기〉에는 현실적 공간과 환상적 공간이 대비되어 있다.

(가)의 화자는 '집'과 '땅'을 잃은 현재의 공간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의 공간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1연에서 화자의 '꿈'이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상적 공간과 현재의 공간이 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는 보리타작이 이루어지는 현실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환상적 공간과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교체 (가)에는 자연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의 갈등이 나타나 있고, 〈보기〉에는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가)의 화자는 동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으나, '집'과 '땅'을 잃어 유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에서 유랑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기〉에서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농민은 계절의 흐름에 맞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삶을, 화자는 벼슬길을 헤매었다는 점에서 세속적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건강한 노동의 현장을 '낙원'이라 인식하고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겠느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적 삶과 세속적 삶의 갈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가)에는 부정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비애감이 드러나 있고, 〈보기〉에는 부정적인 농촌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집'과 '땅'을 잃고 떠도는 처지에 있으므로 비애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건강한 삶의 모습에 감동받고 있으므로, 농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없다.

35 가 고향 나 장독대

작품 분석 본문 136~139쪽

가 고향

작가 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향 상실의 비애감
특징 ① 변하지 않는 자연물과 변해 버린 인간사가 대비됨.
② 매 연을 2행씩 배치하고 1연과 6연에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구현함.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고향**)에 돌아왔으나 그리던 고향이 아님.
❷ 고향의 (**정경(풍경)**)은 변함이 없음.
❸ 고향이 (**낯설게**) 느껴짐.
❹ 고향의 (**정경(풍경)**)은 변함이 없음.
❺ 고향에서 정겨운 (**추억**)을 찾을 수 없음.
❻ 고향의 (**하늘**)은 변함이 없음.

나 장독대

작가 이재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묘사함.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줌.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강조함.
④ 도치법과 영탄법, 의도적 행갈이 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어머니의 (**기도**)를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❷ (**어둠**)도 범접할 수 없는 장독대 위의 정한수 담긴 흰 대접
❸ 이른 새벽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와 그 정성에 감동한 만물
❹ 어떤 상황에도 (**줄지**) 않은 어머니의 (**정한수**)
❺ 삶의 (**위안**)이자 (**지혜**)이신 어머니

27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가)는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에서 청각적 심상, '산 꿩이 알을 품고', '떠도는 구름', '흰 점 꽃' 등에서 시각적 심상, '쓰디쓰다'에서 미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 역시 '정한수 담긴 흰 대접' 등에서 시각적 심상, '밤새 울음', '서울행 기차 목쉰 기적'에서 청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는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

(가)는 1연과 유사한 구조가 마지막 연에서도 반복된다는 점에서 변주된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에는 수미상관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부재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다.

(가)와 (나) 모두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 행의 '어른이시여'에서 '여'가 정중하게 부르는 뜻을 나타내는 호격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화자가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장독대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는 내내 위안이 되었던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보기는 어렵다.

③ 범위 오류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가)는 '고향에 고향에'처럼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가)는 1연의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에서 설의적 표현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27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산업화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통해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낼 뿐, 산업화에 대한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는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는 의도적으로 음보율을 파괴한 5연 1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은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의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나)의 '밤새 울음', '서울행 기차 목쉰 기적'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나)는 (가)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가)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정서가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있다. 반면 (나)는 '있었다', '하였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셨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오·오·이

① (가), (나)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에서는 '흰 점 꽃', (나)에서는 '흰 대접, 흰빛, 홍조' 등에서 색채어를 통해 대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의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와 (나)의 '어둠은 도둑걸음으로 졸졸졸 고여 오다가', '감읍한 뒷산 나무들 ~ 웃어 주었다' 등에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함으로써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의도적으로 음절의 수를 변형한 시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의 '머언'은 의도적으로 음절의 수를 변형한 시어로, 멀리 있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나)에는 의도적으로 음절의 수를 변형한 시어가 쓰이지 않았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졸졸졸', '툭툭', '벌컥벌컥' 등의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반면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27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과 ㉡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내면세계를 나타낸다.

1연에서 화자가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의 고향을 가리키는 ㉠과 마음속 고향인 ㉡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괴리를 경험한 화자가 안식처를 잃고 방황하는 마음을 '구름'을 통해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과 ㉡을 이어 주는 매개물이다.

'구름'은 화자의 방황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현실의 고향인 ㉠과 마음속 고향인 ㉡를 이어 주는 매개물로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현실의 고향인 ㉠이 아니라 마음속 고향인 ㉡이며, '구름'은 마음의 안식처를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줄 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지 않는다.

③ 헛짚기 ~~㉡의 부재를 화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구름'은 마음속 고향인 ㉡의 부재를 인식한 후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지, '구름'을 통해 ㉡의 부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다.

④ 헛짚기 ㉠과 ~~㉡의~~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이다.
현실의 고향인 ㉠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마음속 고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 현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속 고향인 ㉡은 화자가 간직해 온 고향의 모습이므로 부정적 현실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름'은 먼 항구를 떠돌고 있으므로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279 답 (1) 현실의, 마음속 (2) 불일치 (3) 상실감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은 (현실의, 마음속) 고향이고, ㉡은 (현실의, 마음속) 고향이다.

(2) 상반 (가)의 화자는 현재 ㉠과 ㉡의 (일치,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현재 현실의 고향인 ㉠에 돌아와 있는 상태이나, 자신이 마음속에 그리던 과거의 고향인 ㉡과 다름을 인식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3) 교체 '구름'은 ㉠을 접한 뒤에 안식처를 잃고 방황하는 (가)의 화자의 (상실감, 분노)을/를 드러낸다.
278번-⑤의 해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구름'은 안식처인 마음속 고향을 잃은 (가)의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가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80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 정한수의 성격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정한수'는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그런데 '밤나무'의 가지가 손 뻗어 와도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가 정한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기도의 주체인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나)의 6~8행으로 보아 ⓐ에서의 '기도'의 주체가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이제 만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이며 화자는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 어둠도 범접하지 못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정한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한수'는 '흰 대접'에 담겨 '은은한 빛'을 내뿜는, 정결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에서 '어둠'이 정한수에서 나오는 빛에 놀라 내빼는 모습은, 어둠도 범접하지 못하는 정한수의 깨끗하고 순수한 속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 의도적 행갈이를 통해 시의 호흡을 조절하고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웃어 주었다'는 바로 위 시행의 '별꽃 서너 송이'에 대한 서술어이지만, 의도적으로 행을 나누어 잠시 쉬어 읽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의 호흡을 조절하고 어머니의 기도에 감동한 자연물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는 어머니와 동일시된 장독대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움 등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① ⓐ: 기도의 주체인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② ⓑ: 어둠도 범접하지 못하는 깨끗하고 순수한 정한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④ ⓓ: 정한수의 성격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주제와 밑줄 친 부분의 앞뒤 맥락을 모두 살펴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②는 어둠이 피하는 '흰빛'이 '정한수'를 담는 '흰 대접'의 빛이라는 것을 바로 위의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④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에서 정한수의 속성에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앞뒤 문맥에서 시구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3연에서 이르러서야 등장하는 ①이 그런 경우에 해당돼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작품을 읽어 가다 보면 의외로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281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결함**: 순수하고 깨끗하며 단아함.
- **감응**: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 **이탈**: 어떤 범위나 대열 따위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떨어져 나감.

정·정·이

① 화자 오류 [A]: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A]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화자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 표현으로,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화자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낼 뿐,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② [B]: '흰 대접', '은은한 빛', '흰빛'을 통해 '정한수'의 속성을 드러내어 어머니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

280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정한수'의 정결한 속성은 어머니의 '깨끗한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C]: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만물을 감응시킬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한다.

잔가지를 흔드는 '뒷산 나무들'과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주는 '별꽃' 등은 천지 만물도 감동할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지극했음을 의인법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④ [D]: 화자의 방황과 이탈 심리를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마르지 않은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제시한다.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이나 광석면의 들판을 가로지르는 '서울행 기차' 등을 통해 화자의 방황이나 이탈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줄지 않은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드러내고 있다.

⑤ [E]: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장독대'에 인격을 부여한다.

'장독대'를 두고 '사는 동안 내내 위안이고 지혜이신 어른'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가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인격을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과거에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는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 (○, ×)

〈보기〉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실 때면 아무도 어머니를 범접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나)의 4~5행에서 '어둠'도 흰빛에 놀라 내뺐다고 하였으므로, 과거의 화자 역시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어머니가 정한수를 장독대 위에 올리시고 기도를 하셨던 새벽녘의 풍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 ×)

(나)의 6~21행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던 새벽녘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화자가 그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화자 오류 현재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올리고 있다.~~ (○, ×)

1행에서 다시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깨끗한 기도'를 만날 수 없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자리엔 '장독대만' 놓여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화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올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8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는 잃어버렸던 ~~유년의 꿈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허망함이 담겨 있을 뿐, 잃어버렸던 유년의 꿈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고향'은 화자가 현실에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찾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보기〉를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고향'이 현실에서의 아픔과 슬픔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화자의 꿈을 담은 정신적 안식처임을 알 수 있다.

②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에는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③ '항구로 떠도는 구름'은 자신이 추구하는 고향을 찾지 못한 화자의 정신적 방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제철에 우는 '뻐꾸기'는 고향에서 만난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다(②). 자연은 그대로인데 '고향'만은 화자가 그리던 모습이 아니기에 정신적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화자가 이를 '항구로 떠도는 구름'에 비유하여(③) 표현한 것이다.

④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심리적 거리로 인한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화자는 '뫼 끝에 홀로' 올라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 씁쓸함을 느낀다. 이는 화자가 마음속에 간직해 온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 사이의 심리적 거리로 인해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이를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6 가 절정 나 생명

작품 분석 본문 140~143쪽

가 절정

작가 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 의지
특징 ① 강렬한 이미지의 시어와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냄.
② 역설적 표현, 은유법 등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③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현실의 (**극한**) 상황
❷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
❸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의지**)

나 생명

작가 김남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
특징 ① 명제적 진술을 통해 주제를 드러냄.
② 구체적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함.
③ 변주된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줌.
④ 비유적 표현, 대구법 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고통을 거치며 탄생하는 (**생명**)
❷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실**)
❸ 고통을 통해 성숙해 가는 (**겨울나무들**)
❹ (**고통**)을 모르고 감쌀 줄도 모르는 이는 친구라 할 수 없음.
❺ 고통 끝에 얻는 (**생명**)의 결실

28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생동감**: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정·정·이

② 추상적 관념을 시각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는 가혹한 현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겨울'로 나타내고, 이를 다시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무지개'로 구체화한 표현이다. 고통의 시간인 겨울을 희망의 이미지인 무지개로 전환하여 극한 상황의 초극 의지라는 주제를 드러낸 것이다. (나)는 '생명'이라는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인 '겨울 보리'나 '겨울나무' 등에 비유하고, '진실'이라는 관념을 불에 타고 피 흘리면서 오는 것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음성 상징어를 제시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나)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라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가)는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마지막 행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에서 추측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서는 추측의 표현이 쓰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나)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겨울나무들을 보라',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에서 명령형 어조를 통한 화자의 단정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명령형 어조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285 답 (1) (가), (나) (2) (나) (3) (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겨울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 (나))
(가)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고, (나)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여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다.

(2) 범위 오류 (나)는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
(나)의 2연에서는 '~지고 ~면서 온다'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진실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4연에서는 '~ 줄 모르는 이는 / 친구가 아니다'를 짝 지어 제시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고통을 모르고 감쌀 줄도 모르는 이를 친구라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범위 오류 (가)는 수평적 한계 상황과 수직적 한계 상황을 설정하여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가))
(가)의 1연에서는 '북방'이라는 수평적 한계 상황을, 2연에서는 '고원'이라는 수직적 한계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을 구체화하면서 화자의 절박함과 초극 의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8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가)는 ~~화자가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에는 의인화된 청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가)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북방',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와 같은 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가 처한 극한 상황이 점차 심화됨을 부각하고 있다.

③ (나)는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1연을 마지막 연에서 변형하여 반복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매운 계절', '북방', '고원' 등에 비유하여 화자가 처한 가혹한 상황을 드러냄으로써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 의지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충전 부싯돌', '열두 대문', '함박눈 눈송이' 등에 비유하여 각각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줄기, 시련과 고난, 고통 끝에 얻는 생명의 결실 등을 나타냄으로써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가)는 '오다', '서다', '없다', '보다'와 같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극한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나)는 '온다', '다듬는다', '아니다'와 같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명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상황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28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 화자가 ~~고단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한 발 제겨디딜 곳'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는 자세~~를 본받고 싶어졌다.

3연에서 화자는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며 무릎 꿇을 곳을 찾아보지만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라며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였다거나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려는 자세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 작품 속 계절적 상황이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으니 혹독한 추위가 실감나게 느껴졌고,

1연에서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릿발'이라는 시어에서는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1연의 '매운 계절'에 이어 2연에서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릿발'이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 이러한 겨울의 이미지들이 '북방'과 '고원'이라는 극한적 공간의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1연의 '북방'과 2연의 '고원'은 화자에게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휩쓸려 오'게 된 극한의 공간으로, '서릿발' 같은 겨울 이미지들과 맞물려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3연에서는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인 '겨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4연에서는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면서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오 지름길

⑤ ⓔ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3연에 나타난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이 4연의 '이러매'를 기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먼저 알아채야 해요. 이때 화자가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라며 생각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파악했다면 ⑤의 정오 판단이 쉬웠을 거예요.

28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는 극한의 상황에 ~~굴복하였음을 보여 준다.~~ (○, ⊗)

'무릎을 꿇'는 행위는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염원의 자세일 뿐, 이 상황에 굴복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2)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에서는 현실 초극의 의지가 드러난다. (○,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는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강철과 희망의 이미지인 무지개를 결합한 역설적 표현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현실 초극의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8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화자는 자신뿐 아니라 '하늘'마저도 지쳐 고원에서 끝이 났다는 것에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났다는 표현은 화자가 '채찍'에 갈겨 휩쓸려 온 '고원'이 그만큼 극한적 공간임을 드러낼 뿐, 화자가 '하늘'에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채찍에 갈겨'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짐작하게 해.

③ 화자가 '북방'에서 '고원'을 지나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까지 서게 된 것으로 보아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것 같아.

(가)에서 화자는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 '고원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까지 서게 되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처한 혹독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①), 이러한 극한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③).

④ '어데'는 화자가 위안을 얻기 위해 찾는 장소이나,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 닿지 못하는 곳이야.

'채찍'에 갈겨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게 된 화자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염원의 마음으로 '어데'로 가 무릎을 꿇고자 하나, '한 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 그러므로 '어데'는 화자가 위안을 얻기 위해 찾는 장소이나, 상황의 악화로 닿지 못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보겠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있어.

28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는 4연의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이후로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며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9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감내: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냄.

정·정·이

⑤ 교체 ~~'장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군.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

4연에서 화자는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를 부정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추는 사람을 부정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겨울 보리'의 모습에서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1연에서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는 생명의 속성을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자연물인 '겨울 보리'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진실'이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오는 모습에서 삶의 진실도 생명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2연에서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고 하였으므로, 고통을 동반하는 '진실'의 속성도 생명의 속성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 몸'을 '추위의 면도날'로 '다듬'는 '겨울나무'의 모습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떨어져' '불려 가'는 '잎'과 '충전 부싯돌'인 '줄기'의 모습에서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겨울나무'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③). 그리고 이렇게 '겨울나무'가 '제 몸을 다듬'어 '잎'이 떨어진다고 표현한 것에서 소멸을, '줄기'를 불씨를 일으키는 '충전 부싯돌'에 비유한 것에서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④).

291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겨울 보리'와 '겨울나무'는 생명의 속성을 보여 준다. (○, ×)

〈보기〉에서 (나)는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며 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겨울 보리'와 '겨울나무'가 바로 생명의 속성을 보여 주는 자연물로 제시되고 있다.

(2) '진실'이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는 것은 삶의 진실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 ×)

〈보기〉에서 삶의 진실 또한 생명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진실'이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또는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는 것은 고통을 통해 진실을 얻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3)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겨울나무'의 모습은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 ×)

〈보기〉에서 (나)는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겨울나무'가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모습은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상반 화자는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와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를 '추운 몸'과 ~~유사하게~~ 대조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

화자가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와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추운 몸'은 또 다른 생성 또는 삶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존재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대조적이다.

29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시인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함박눈'처럼 누워 버리는 존재를 ~~부정적으로~~ 여기겠군.

(나)에서 '함박눈'은 고통 끝에 얻는 생명의 결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존재로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시인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삶에 애착을 갖고 '살아 있는 것'에 애정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생명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는 함박눈을 부정적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언 땅', '추위' 등은 시인이 체험한 극한 상황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겠군.

(나)에서 '언 땅'과 '추위'는 생명이 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시인이 한국 전쟁으로 겪게 된 극한 상황과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② 시인은 '금 가고 일그러진'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시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나)에서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금 가고 일그러진'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는 시인이 생각하는 존재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시인은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천착하여 존재의 본질을 노래하였다고 했다.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는 것은 (나)의 주제를 함축하는 구절로 생명의 본질이 고통을 통해 완성됨을 드러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초록의 겨울 보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애착을 갖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군.

(나)에서 '겨울 보리'는 언 땅에서도 추위를 견디고 초록빛의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보기〉에서도 극한 상황에 노출된 인간은 도리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겨울 보리'는 이러한 인간과 비슷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37 가 성에꽃 나 첫사랑

작품 분석 본문 144~147쪽

가 성에꽃

작가 최두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① '성에꽃'을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통해 제시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③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현장감 있게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새벽 시내버스에서 본 (**성에꽃**)
❷ 성에꽃에서 발견한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
❸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
❹ 뜻을 같이했던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나 첫사랑

작가 고재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
특징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② 설의적·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사용됨.
③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④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시련
❷ 헌신과 노력 끝에 얻은 아름다운 (**눈꽃**)
❸ (**봄꽃**)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상처

29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막막한 한숨이던가', '정열의 숨결이던가', '친구여'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 및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등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인내와 헌신으로 눈꽃을 피워 낸 눈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 (나) 모두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나)에서는 '싸그락 싸그락' 등의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눈이 내리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지만,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서 반어적 표현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명령형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나)의 '황홀 보아라'에서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는 화자의 의지가 아니라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94 답 (1) (나) (2) (가), (나) (3) (가),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나)는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나))
(나)의 '저 황홀 보아라'는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많은 도전과 노력 끝에 눈꽃을 피워 낸 눈에 대한 감탄을 부각한 표현이다.

(2) 자연 현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 (나))
(가)는 새벽 시내버스의 창가에 피어난 성에꽃을 통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 낸 사랑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다.

(3)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가)의 '어느 누구의 ~ 정열의 숨결이던가'는 의문형 어미 '-던가'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애환과 열정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나)의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는 의문형 어미 '-으랴'를 활용하여 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29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나)의 '난분분 난분분'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눈의 고결한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군.
'난분분 난분분'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에서 시어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눈의 고결한 순수함을 표현

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가)의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에서는 '성에꽃'을 '찬란한 치장'과 비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군.

'찬란한 치장'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한숨과 숨결이 얼어붙어 만들어진 성에를 '꽃'과 '찬란한 치장'에 비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의 '막막한 한숨이던가'와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는 시구의 반복·변형을 통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군.

'-던가'를 반복하고 변주함으로써 성에꽃이 상징하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에서는 가지에 피어난 눈꽃을 '황홀'과 비유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쁨을 드러내고 있군.

'황홀'은 나뭇가지에 핀 '눈꽃'을 비유한 표현으로서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을 보는 화자의 기쁨이 반영되어 있다.

⑤ (가)의 '차가운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운 상처'에서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시련을 이겨 낸 존재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가)의 '차가운 아름다움'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열정이 담긴 입김과 숨결로 만들어진 성에꽃을 묘사한 것이다. 화자는 '엄동 혹한'과 같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시련을 이겨 낸 존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아름다운 상처'는 수백 번의 미끄러짐 끝에 눈꽃을 피워 낸 후, 봄을 맞아 그 자리에 피운 꽃의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말로, 시련을 이겨 낸 후의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29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력감**: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 **심취**: 어떤 일이나 사람에 깊이 빠져 마음을 빼앗김.

정·정·이

④ 화자 오류 [D]: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성에꽃을 지우는 태도를 통해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시내버스 창에 핀 성에꽃을 보며 서민들의 삶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 볼 때, 화자가 입김으로 성에꽃을 정성스레 지우는 행위를 무력감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A]: 계절적 배경과 관련지어 차창에 핀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엄동 혹한일수록 / 선연히 피는 성에꽃'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운 겨울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B]: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이루어진 성에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화자가 차창에 핀 성에꽃을 보며,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와 같은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로부터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C]: 서민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성에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있다.

화자는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들어 낸 '성에꽃'을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과 같다고 느낀다. 그리고 '성에꽃'을 '전람회에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며 '차가운 아름다움'에 심취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E]: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면회마저 금지'되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드러낸 말로, 오랫동안 뜻을 함께한 친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297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엄동 혹한'은 계절적 배경을 보여 주는 동시에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

'엄동 혹한'은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보여 줌과 동시에 추위 속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 준다.

(2) 화자 오류 '전람회에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는 화자에게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의적 태도가 드러난다. (○, ×)

'섬세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는 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화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는 것은 성에꽃의 아름다움, 즉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에 심취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에꽃이나 서민들의 삶에 대해 화자가 의심을 품는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29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공동체적**: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또는 그런 것.
- **은밀히**: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정·정·이

② '성에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워 낸 것이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심미적 태도란 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성에꽃'은 새벽 시내버스에 탄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같은 서민들이 피워 낸 것으로, 화자는 이 성에꽃이 서민들이 공동으로 어울려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성에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 화자는 ~~지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화자가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서민들의 숨결과 입김이 만들어 낸 성에꽃이다. 이때 '새벽'이라는 시간과 '시내버스'라는 공간은 서민들이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일 뿐, 화자가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다.

③ 화자 오류 '성에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화자는 성에꽃이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피워 낸 것이기 때문에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한 것이지, 은밀한 방식으로 피어서 아름답다고 한 것은 아니다.

④ 화자 오류 '성에꽃'에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 담겨 있어.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해.

화자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⑤ 화자 오류 '성에꽃'의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에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화자는 성에꽃의 한 잎을 지운 뒤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의 삶을 떠올려 보던 화자가 뜻을 함께했던 친구를 연달아 떠올린 것일 뿐이다. 또한 화자는 회상 전에 이미 성에꽃에서 '섬세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에 취하였으므로, 회상을 통해 성에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29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헌신적**: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정·정·이

③ 교체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눈)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봄꽃~~(눈꽃)의 기쁨으로 볼 수 있다.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눈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눈꽃'을 가리킨다. 이 눈꽃을 '황홀'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화자의 기쁨과 눈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다.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표현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련과 이를 인내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는 나뭇가지에 대한 눈의 헌신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눈은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는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한 번 덴 자리'는 눈이 녹은 자리이자 봄꽃이 피는 자리라는 점에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한 번 덴 자리'는 눈꽃이 녹은 자리이면서 봄꽃이 피어나는 자리이다. 수많은 도전과 미끄러짐을 거쳐 눈꽃을 피운 자리에 봄꽃이 핀 것이라는 점에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⑤ '아름다운 상처'는 끝없는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인 봄꽃으로 볼 수 있다.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아름다운 상처'는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은 나뭇가지가 눈꽃이 녹은 자리에 피워 낸 봄꽃이자 사랑의 결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00 답 (1) 눈꽃을 피우기 (2) 순간적인, 인내와 헌신 (3) 눈꽃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싸그락 싸그락'과 '난분분 난분분'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바람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보기〉에서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라도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싸그락 싸그락'과 '난분분 난분분'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은 첫사랑의 (순간적인, 우연적인) 속성을 나타낸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기쁨과 열정, 인내와 헌신)의 존재이다.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은 바람 한 점에도 눈꽃이 쉽게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표현한 말로, 첫사랑의 순간적인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화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위하여' 눈이 '마음을 다 퍼부어' 준다고 하였으므로, 눈은 '인내와 헌신'의 존재라 할 수 있다.

(3) 교체 눈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것은 (눈꽃, 봄꽃)이다.

〈보기〉에 따르면 눈은 눈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눈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 피워 낸 것은 '봄꽃'이 아니라 '눈꽃'임을 알 수 있다.

30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보기〉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보기〉는 '우수절', '눈', '얼음' 등의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봄눈이 내리는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눈', '봄' 등의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보기〉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는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부재 〈보기〉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③ 범위 오류 〈보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기〉에는 화자의 공간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나)에서는 내용상 '한겨울 눈이 내림. → 마침내 나뭇가지에 눈꽃이 핌. → 봄이 되어 눈꽃이 사라진 자리에 봄꽃이 핌.'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어 시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보기〉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멈추지 않았으랴'는 설의적 표현으로, 눈꽃을 피워 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 눈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선뜻!', '차라', '향기로워라', '설어라', '싶어라'와 같은 영탄적 표현은 나타나지만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정·오 지름길

③ 〈보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상 전개에 있어서 '공간의 이동'은 화자가 직접 움직여서 위치가 바뀌어야 성립해요. 〈보기〉에서 화자는 문을 열어 먼 산에 눈이 쌓인 것을 발견하지만 직접 공간을 이동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처럼 시에 장소나 공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등장할 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오해하기 쉬워서 이를 매력적인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주의하여 화자의 시선만이 아니라 화자가 있는 공간도 함께 바뀌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38 가 추일서정 나 아마존 수족관

작품 분석 본문 148~151쪽

가 추일서정

작가 김광균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황량한 가을날의 도시 풍경 속에서 느낀 상실감과 고독
특징 ①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비유법, 공감각적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가을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③ 소멸·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가을날의 도시 풍경의 황량함을 제시함.
한 줄 의미
❶ 쓸쓸한 (가을)의 풍경
❷ 적막한 풍경 속에서 느끼는 (고독)

나 아마존 수족관

작가 최승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도시 문명 속의 무가치한 삶과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소망
특징 ① 물질문명 속에 사는 현대인을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에 비유하여 현대인의 내면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함.
②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③ 공감각적 이미지, 역설적 표현 등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함.
④ 동일한 시어 및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도시)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함.
❷ (생명력)이 넘치는 (아마존)의 모습을 봄.

30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가)의 '낙엽', '가을 하늘' 등에서 가을이 계절적 배경임을 알 수 있으며, '낙엽'을 '망명 정부의 지폐'에 비유하고, 전쟁의 포화에 무너진 '도룬 시'를 언급함으로써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나)의 '여름밤'에서 여름이 계절적 배경임을 알 수 있고, 자동차들이 질주하느라 길에서는 고무 탄내가 나고, 상품들이 무질서하게 나오며 소음이 부글거리는 도시의 여름밤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정신적 가치를 상실한 황폐하고 삭막한 도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반면 (나)의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물속에 있어서 목이 마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열대어들이 '목마르다'고 모순적으로 표현한 역설적 표현으로, 생명력과 자유로움과 같은 정신적 가치가 결핍된 상황을 강조한다.

② 범위 오류 (나)는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에는 시어의 반복과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는 여름밤'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도시 문명의 황폐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④ 범위 오류 (나)는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시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한 것을 계기로 삭막하고 황폐한 도시에 생명력과 자유로움이 회복되는 전환이 일어난다. 이로써 시적 상상력으로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⑤ 범위 오류 (나)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에서는 '수족관'과 '아마존강'이라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생명력과 자유로움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303 답 (1) (가) (2) (가), (나) (3) (가), (나) (4)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는 시적 허용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
(가)의 '호올로'에서는 '홀로'를 의도적으로 늘여 씀으로써 고독한 상황을 보다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2) 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 (나))
(가)는 가을날의 황량한 도시 풍경과 고독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도시 문명에서의 무가치하고 황폐한 삶과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3)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 (나))
(가)의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에서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나)의 '노란 달이 ~ 향기롭게 출렁이고'에서는 시각을 후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4) 범위 오류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부각하고 있다. ((나))
(나)의 '아마존 수족관집',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아스팔트', '열난 기계들', '종이꽃', '철근', '간판' 등은 삭막한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지니는 반면, '아마존강', '노란 달', '후리지아꽃'은 생명력이 충만한 원시적 공간의 이미지를 지닌다는 점에서 서로 대립된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 생명력과 자유로움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부각하고 있다.

30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인공물**: 인공(사람의 힘으로 자연에 대하여 가공하거나 작용을 하는 일)적으로 만든 물체.

정·정·이

③ (가)는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나)는 인공물을 자연물에 빗대어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는 낙엽, 구름 등의 자연물을 각각 '지폐', '셀로판지' 등의 인공물에 빗대고 있으며, (나)는 상품을 자라나는 식물처럼 묘사하고 철근을 '밀림'과 같은 자연물에 빗대어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다)와 달리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여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유사한 문장 형태를 변주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에서는 '~는 여름밤'의 문장 형태를 변주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식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가)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나)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나)에도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둘 다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가)와 (나)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여 대상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30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원시 자연의 생명력과 자유로움이 결핍된 것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아스팔트'는 도시 문명의 소재이고, '고무 탄내'는 불쾌감을 환기하는 후각적 심상이므로, ㉠은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 도시 건물의 철근과 간판에서 열대 아마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검정 길에서 보이는 '철근'에서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여름밤에 빛을 발산하는 '간판'에서는 아마존의 열대 기후를 연상했다고 볼 수 있다.

④ ㉣: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한 뒤, 화자는 생명력이 넘치는 아마존 풍경을 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시'는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소재로서,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⑤ ㉤: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한 모습은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서 출렁이는 것과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③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비판적인 작품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라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목마르다'라는 시어와 〈보기〉에 제시된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만 보면 ③은 더 그럴싸해 보여요. 이처럼 다른 작품에도 자주 제시되던 내용으로 선지가 구성된 경우일수록, 시간을 투자해서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에서 '목마르다'는 아마존강이 아득히 멀어서 비롯된 결과로, 2연에 따르면 아마존강은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생명력이 결핍된 데에 대한 갈증을 '목마르다'로 표현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조급해할수록 실수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돼요.

30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나는 '연기'와 아스팔트에서 나는 '고무 탄내'는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을 반영한 소재이다. (○, ×)

305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나는 '연기'와 아스팔트에서 나는 '고무 탄내' 모두 불쾌함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반 상품들이 자라나며 피운 '색색이 종이꽃'은 화자가 ~~추구하는 생~~

~~명력 넘치는 세계~~의 모습과 관련된다. (○, ⊗)

상품들이 자라나며 피운 '색색이 종이꽃'은 물질문명의 번성으로 생겨난 생명력 없는 존재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 넘치는 세계의 모습을 상징하는 '후리지아꽃'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3)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하는 계기에 해당한다. (⊙,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는 정신적 가치가 결핍되어 느끼게 된 갈증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열대어들에게 '시'를 선물한 뒤 충만한 생명력을 지닌 '후리지아꽃'이 만발하였으므로, 열대어들이 목마른 상황은 '시'를 선물한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0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물질문명**: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명.
- **회화성**: 회화(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에 형상을 그려 내는 조형 미술)가 가지는 특성. 또는 회화적인 특성.

정·정·이

② 헛짚기 '폴-란드 망명 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보기〉에서 「추일서정」의 작가는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사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는 쓸모없이 나뒹구는 낙엽의 모습을 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망명 정부의 지폐에 비유하여 황폐한 도시 풍경을 나타낸 것일 뿐, 폴란드가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낙엽'과 '포푸라 나무'는 근경, '급행열차'와 '구름'은 원경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구성되는군.

(가)의 전반부에서는 '낙엽'이 떨어지는 근경과 '급행열차가 들을 달'리는 원경을 묘사하면서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후반부에서는 '포푸라 나무'가 서 있는 근경과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원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와 같은 인상을 준다.

③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과 '돌팔매'가 잠기어 가는 도시 풍경을 통해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공장 지붕이 흰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은 퇴색한 공장 지붕을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풍경은 화자에게 황량함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돌팔매'는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던진 것으로 '고독한' 반원을 그리며 떨어진다는 점에서 화자의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④ '셀로판지'는 물질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구름을 표현하는 보조 관념으로 쓰여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군.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은 물질문명적 이미지를 지닌 '셀로판지'에 비유하여 얇은 구름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까지도 시각화한 표현으로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군.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연기나 안개 따위가 잔뜩 끼어 흐릿하다는 의미의 '자욱한'과 연결하여 시각화한 표현으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308 답 (1) 대상의 이미지 (2) 황량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숭고한**: 뜻이 높고 고상한.

정·정·이

(1) 교체 '포화에 이즈러진 / 도룬 시'와 같은 역사적 소재는 (화자의 역사의식, 대상의 이미지)을/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보기〉를 통해 작가가 대상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포화에 무너진 '도룬 시'는 황폐한 도시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 비유한 역사적 소재일 뿐, 화자의 역사의식을 보여 주지 않는다.

(2) 교체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화자의 (황량한, 숭고한) 정서와 관련된다.

〈보기〉에서 (가)는 회화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철책 한 가닥이 바람에 나부끼는 풍경은 화자의 황량한 정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30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길'을 '구겨진 넥타이'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군.

'길'을 '구겨진 넥타이'에 비유한 것은 도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일 뿐,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낙엽'을 무상감이 느껴지는 소재인 '망명 정부의 지폐'에 연결하여 도시 풍경을 묘사하고 있군.

망명 정부에서 발행한 지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무상감이 느껴지는 소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력을 잃고 바닥을 나뒹구는 낙엽을 이러한 이미지의 소재와 연결하여 황폐한 도시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급행열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원경을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군.

멀리서 연기를 내뿜으며 들을 달리는 '급행열차'가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고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급행열차'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허공'을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군.

⑤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고독한 반원'이라고 표현하여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화자는 주체할 수 없는 황량함을 떨쳐 버리려 '허공'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이로 보아 '허공'은 '황량한 생각'이 드러나는 공허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④). 이렇게 던진 돌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고독한 반원'을 그리며 땅에 떨어지므로 화자의 외로움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⑤).

31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공장의 지붕'과 '포푸라 나무'의 대비를 통해 도시의 쓸쓸한 풍경을 강조하고 있군.

'공장의 지붕'은 퇴색하여 '흰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 '포푸라 나무'는 '근골'과 같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상태라는 점에서 도시의 쓸쓸한 풍경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의 지붕'과 '포푸라 나무'가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망명 정부의 지폐', '넥타이', '셀로판지' 등은 비유에 잘 활용되지 않은 낯선 소재로 볼 수 있군.

〈보기〉에서 「추일서정」에는 기존 작품들에 활용되지 않았던 낯선 소재를 매개물로 삼아 비유한 표현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망명 정부의 지폐', '넥타이', '셀로판지' 등은 그러한 소재에 해당하는 낯선 소재로 볼 수 있다.

② 주로 풍경을 묘사한 앞부분에서 화자가 가을날의 도시로부터 기계적·물질적인 인상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군.

⑤ '황량한 생각'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도시 풍경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서 「추일서정」의 앞부분은 주로 풍경을 묘사하고 뒷부분은 화자의 행위와 정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가)의 앞부분인 1~11행에서는 기계적·물질적 이미지를 지니는 시어인 '지폐', '포화', '넥타이', '급행열차' 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가을날의 도시 풍경으로부터 화자가 기계적·물질적 인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②).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라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⑤).

④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는 화자가 황량함을 떨치기 위해 한 돌팔매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군.

〈보기〉에 따르면 작품의 뒷부분인 (가)의 12~16행에는 화자의 행위와 정서가 드러나 있다. 여기서 화자는 혼자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이때 황량함을 느끼며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황상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는 황량함을 떨치기 위해 한 돌팔매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9 가 별 헤는 밤 나 귀뚜라미

작품 분석 본문 152~155쪽

가 별 헤는 밤

작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과 자아 성찰을 통한 미래 지향 의지
특징 ① '현재 – 과거 – 현재 – 미래'로 시상을 전개함.
② 감정 이입과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③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을 삽입하여 운율에 변화를 줌.
한 줄 의미

❶ 가을밤 (**별**)을 보며 상념에 잠김.
❷ 별을 보며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움**)을 느낌.
❸ 현재의 (**부끄러운**) 삶에 대한 성찰
❹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생**) 의지

나 귀뚜라미

작가 나희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소외된 존재와의 공감과 소통
특징 ①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아직 (**노래**)가 아닌 '나(귀뚜라미)'의 울음이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
❷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이기를 소망하는 '나(귀뚜라미)'

31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이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9연에서 '벌레'를 통해 화자의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귀뚜라미'를 통해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이기를, 즉 자신의 노래가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교체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가 아니라 (나)가 '~ 울릴 수 있을까', '~ 노래일 수 있을까'처럼 의문형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범위 오류 (나)는 (가)와 ~~달리~~ 모두 대조의 방법으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마지막 연에서 '겨울'과 '봄'의 대조를 통해, (나)는 1연에서 '매미'와 '귀뚜라미'의 대조를 통해 갈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부재 (가)와 (나)는 모두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가)에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만,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나)에도 청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 등이 나타나지만, 감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진술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정·오 지름길

①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진술**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①과 ⑤는 둘 다 (가)와 (나)에 '의문형 진술'이 쓰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선지로, 결국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선지이므로 ①과 ⑤는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가)에는 의문형 진술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①과 ⑤는 한 번에 빠르게 정답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312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겨울'과 희망을 의미하는 '봄'을 대조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에서는 '매미'와 '귀뚜라미',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과 '맑은 가을'을 대조하여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ㄷ. 시적 화자의 감정을 대리하는 자연물을 설정하고 있다.
311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ㄴ. 범위 오류 (가)는 열거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4연과 5연에서 화자가 별을 보며 떠올린 여러 가지 상념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열거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

ㄹ. 범위 오류 (가)는 산문처럼 서술한 연을 삽입하여 운율에 변화를 주고 있다.
(가)에서는 5연에서 산문 형식의 연을 삽입하여 운율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산문처럼 서술한 연을 찾을 수 없다.

31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는 '가을'과 '겨울', '봄', (나)는 '매미(여름)', '가을' 등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수미상관~~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범위 오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나)에는 '귀뚜르르 뚜르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나,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선명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에 공감각적 심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범위 오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31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A]의 '우는'은 부끄러움을 환기하고, [B]의 '울음'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소망을 의미한다.

[A]의 벌레의 울음은 부끄러운 자아로 인한 슬픔 때문이고, [B]의 귀뚜라미의 울음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기를 바라는 노래로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울음이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A]의 '흙'과~~ [B]의 '매미 떼'는 시련의 의미를 함축한다.

[B]의 '매미 떼'는 귀뚜라미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방해하는 존재이므로 시련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A]에서 '흙'은 화자가 부끄러운 자신의 이름을 덮는 소재이므로 시련의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A]의 '언덕'과 [B]의 '계단'은 ~~극복해야 할 고난~~을 상징한다.

[A]에서 화자는 부끄러운 이름을 묻은 '언덕'에도 풀이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화자가 자기 희생을 통해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언덕'이 극복해야 할 고난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다. [B]의 '계단'은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 '맑은 가을'이 귀뚜라미가 있는 '땅 밑'까지 내려갈 때 타는 것이므로, 극복해야 할 고난과는 거리가 멀다.

③ 범위 오류 [A]의 '봄'과 ~~[B]의 '시절'~~은 바람직한 미래의 시간을 나타낸다.

[A]에서 '봄'은 희망을 지니고 기다리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은 매미 소리에 묻혀 귀뚜라미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 시기로, '나(귀뚜라미)'의 소망이 실현되기 어려운 현재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 오류 [A]의 '이름자'는 ~~운명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B]의 '노래'는 ~~운명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A]에서 '이름자'는 부끄러운 자아를 가리키는 것일 뿐 운명을 거부하는 태도와는 관계없다. 또한 [B]에서 '노래'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와 관계없다.

31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가)의 '가을'은 화자가 성찰하는 시간이고, (나)의 '가을'은 화자가 기대하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

(가)의 화자는 '가을'에 별들을 헤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맑은 가을'은 '나(귀뚜라미)'가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밝은 미래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의 '벌레'와 (나)의 '매미'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다.

(가)의 '벌레'는 화자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나)의 '매미'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벌레'와 '매미'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 아니다.

② 헛짚기 (가)의 '풀'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고, (나)의 '풀숲'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가)의 '풀'은 희망, 생명, 부활 등을 상징하고, (나)의 '풀숲'은 귀뚜라미처럼 소외된 이들이 지내는 공간을 의미한다.

31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빎.

정·정·이

①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관련된다.

(가)의 '별'은 아름답고 순수한 존재로서 화자가 그리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나)의 '울음'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하는 화자가 감동을 주는 도구로 삼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관련된다.

오·오·이

② 헛짚기 화자의 기원을 받아 주는 초월적 존재이다.

(가)의 화자는 '별'을 보며 여러 대상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있지만, '별'에 기원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울음' 역시 기원과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화자와 외부 세계를 단절시키는 기능을 한다.

(가)의 '별'과 (나)의 '울음' 모두 화자를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나)의 '울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오히려 소통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④ 헛짚기 화자가 지니고 있는 세속적 욕망을 상징한다.

(가)의 '별'과 (나)의 '울음'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과 관련되므로 세속적 욕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화자의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가)의 '별'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일 뿐,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지 않다. (나)의 '울음'은 '가을'이라는 밝은 미래에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31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가슴에 새겨지는 별에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담겨 있군.

화자는 '별'을 매개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화자의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즉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등은 애틋한 그리움의 대상이다. 여기에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화자는 별을 보며 유년 시절을 추억하고 있어.

화자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본다고 하며,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다.

② 화자는 별을 매개로 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있어.

화자는 별을 보며 상념에 잠기다가,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자신의 '이름자를 써 보고 / 흙으로 덮어 버'리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화자가 별을 매개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별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가 투영되어 있군.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에서 알 수 있듯이, '별'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 즉 희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 투영되어 있다.

⑤ 멀리 있는 대상을 생각하며 별을 헤는 행위에는 애틋함이 묻어나는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 별이 아스라이 멀 듯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에게 그리움의 대상들은 너무 멀리 있다. 따라서 이들을 생각하며 화자가 별을 헤는 행위에는 애틋함이 묻어난다.

318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소명 의식**: 현실적·이념적·윤리적 명령이나 이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의식.

정·정·이

(1) '별'은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자, 회상의 매개체이다. (○, ×)

(가)의 화자는 '별'을 매개로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으며, '별'은 아름다움, 순수, 이상 등 화자의 이상향을 상징하고 있다.

(2) 헛짚기 '이름자를 써 보고 / 흙으로 덮어 버리'는 행위에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

'이름자를 써 보'는 것은 자아 성찰의 행위이며, 이를 '흙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한 반성적 행위이다.

(3) '밤을 새워 우는 벌레'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소명 의식과 관련된다. (○, ×)

〈보기〉에서 (가)의 작가인 윤동주는 시대에 대한 인식과 시인의 소명 의식을 노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가)는 지식인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벌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풀이 무성할 게외다'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 ×)

'풀'은 희망, 부활, 재생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봄이 오면 풀이 무성할 것이라고 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31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풀이 무성'한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드껴지는 암담한 분위기~~를 드러내는군.

'풀'은 희망, 부활, 재생 등을 상징하므로 이름자 묻힌 언덕에 '풀'이 무성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적인 미래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별'은 과거를 떠올리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동시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상징하는군.

화자는 '별'을 바라보며 과거의 추억과 그리운 대상들을 떠올리고 있다.

② 화자가 '이름자'를 쓰고 이를 '흙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 후 이를 부끄러워하는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화자가 '이름자'를 쓰는 행위는 자아를 성찰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이름을 흙으로 덮어 버리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③ '밤'과 '겨울'은 화자가 처한 고난과 시련, 어두운 현실을 상징하는군.

'밤'과 '겨울'은 부정적 이미지로 고난과 시련,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한다.

④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은 절망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난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2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은 ~~'매미'의 생명력과 대비되어 화자의 체념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화자는 매미 소리가 걷히고 맑은 가을이 되면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은 화자의 체념적 정서를 강화한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는 화자의 상황과 대조되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닌 '나(귀뚜라미)'의 울음과 대조되어 '나'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② '차가운 바닥'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의 열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차가운 바닥'은 '나(귀뚜라미)'가 있는 곳으로,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③ '귀뚜르르 뚜르르', '타전 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화자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는 '나(귀뚜라미)'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로, '나'는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맑은 가을'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시기로 화자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맑은 가을'은 '나(귀뚜라미)'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가 될 수 있는 시기, 즉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시기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때를 의미한다.

40 가 조찬(朝餐) 나 파초

작품 분석 본문 156~159쪽

가 조찬(朝餐)

작가 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비 갠 후의 아침 풍경을 보며 느끼는 서러움
특징 ① 선경후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②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남.
③ 매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이 드러남.
④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 풍경을 묘사함.
⑤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비 갠 후 퍼지는 (**햇살**)과 골짜기를 옮겨 가는 (**구름**) – 원경
❷ 비에 젖은 도라지꽃과 (**차돌부리(차돌)**)의 모습 – (**근경**)
❸ 서러운 심정으로 (**흰 밥알**)을 먹음.

나 파초

작가 이태준
갈래 현대 수필
주제 파초에 대한 애정과 심미적 가치관
특징 ① 인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줌.
② 대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대비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파초**)의 멋을 즐김.
❷ (**앞집 사람**)으로부터 파초를 팔라는 제안을 받음.
❸ '나'가 파초를 팔라는 제안을 (**거절**)함.

32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원경**: 멀리 보이는 경치, 또는 먼 데서 보는 경치. ↔ 근경.

정·정·이

③ 헛짚기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자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2연은 '구름'이라는 명사로 연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여기서 구름은 '골을 옮기'며 움직이고 있으므로 정적인 모습이 강조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4연은 비 갠 후 산골의 아침 풍경(선경)을, 5~7연은 서러운 화자의 정서(후정)를 드러내고 있다.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각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감을 주고 있다.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1~2연에서는 멀리 있는 '해ㅅ살'과 '구름'을 보고 있고, 3~4연에서는 화자의 근처에 있는 '길경 꽃봉오리'와 '차돌부리'를 보고 있다. 즉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4연에서 '죽순 돋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에 젖은 차돌부리의 모습을 동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32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 (×))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거나 '시리다'와 같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비 갠 뒤의 아침 풍경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2)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
'머흘 머흘', '촉 촉'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비가 온 뒤의 맑고 고요한 아침 풍경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풍경을 묘사한 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해ㅅ살', '구름'과 같은 원경에서 '길경 꽃봉오리', '차돌부리'와 같은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풍경을 묘사한 뒤,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2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나)는 ~~인물에 따라 대상의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여 대상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파초를 아끼는 '나'의 태도와 파초를 금전적인 대상으로 보는 '앞집 사람'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지만, '나'와 '앞집 사람'이 파초에 대한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는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서러운 새'에서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서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침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물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와 '시리다'와 같은 촉각적 이미지도 활용하고 있다.

③ (나)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와 '앞집 사람'의 대화를 통해 금전적,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와 같이 영탄법을 사용하여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32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에서 물소리를 듣고 이가 시릴 정도의 차가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서러운'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에서 비에 젖지 않으면서 비를 맞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 경험은 글쓴이로 하여금 비를 기다리게 하고, 나아가 파초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화자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은 '물소리'를 '시리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청각을 촉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상황을 '서늘함', 즉 촉각으로 연결하고 있으므로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킨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② 화자 오류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비
(가)의 화자가 '구름'을 기다린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나)에서 '나'는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은 '폭염'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헛짚기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차이점
㉠은 화자가 물소리를 통해 차가움을 느끼는 상황을 표현한 것일 뿐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나)에서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퉁'긴다고 하였으므로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차이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화자 오류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의 차가운 물소리는 서러운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을 화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나)의 '나'는 파초를 기르면서 파초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

325 답 (1) 청각, 촉각 (2) 시원함 (3) 서글픈, 애정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에는 (청각, 촉각)을 (청각, 촉각)으로 전이한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은 '물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이가 시리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하고 있다.

(2) 교체 ㉡은 파초가 빗방울을 퉁기는 소리의 (시원함, 우울함)을 표현한 것이다.
㉡은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3) 교체 ㉠은 화자의 (상쾌한, 서글픈) 정서를, ㉡은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 회피)의 정서를 자극한다.
㉠에서 물소리를 듣고 차가움을 느끼는 감각적 경험은 화자의 서글픈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에서 비에 젖지 않으면서 비를 맞는 듯한 감각적 경험은 화자의 파초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진다.

32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강화되는 시간이다.
(가)의 화자는 비 갠 후 햇살이 퍼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는 아침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두 여름' 동안 파초를 키우면서 파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되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와 ⓑ는 화자와 글쓴이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시간~~이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화자 오류 ⓐ와 ⓑ는 화자와 글쓴이가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가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 오류 ⓐ와 ⓑ는 화자와 글쓴이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가)의 화자가 스스로를 성찰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두 여름'은 파초가 성장한 시간으로, (나)에 글쓴이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 오류 ⓐ는 화자가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고, ⓑ는 ~~대상이 글쓴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다.
(가)에서 화자가 아침의 풍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에서는 글쓴이가 파초의 성장을 '두 여름' 동안 지켜봤을 뿐, 파초가 글쓴이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볼 수 없다.

32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번뇌**: ①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 ②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妄念).
- **심미적**: 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것.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파초)이군.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 서러워하면서도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실의 무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챙'은 파초를 팔아 얻은 돈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글쓴이가 파초의 비 맞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챙'은 파초의 운치와는 거리가 먼 속물적 대상에 가깝다.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은 '파초'이다.

오·오·이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정지용의 작품에서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화자의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러움은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과 은둔이 좌절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보기〉에서 이태준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고, 이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가)에서 '서러운 새'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으로,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의 '나'는 파초가 죽을 것이라는 충고에도 파초를 팔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며 파초와의 교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 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가)의 1~4연에 묘사된 '해ㅅ살', '구름', '길경 꽃봉오리', '차돌부리' 등의 자연은 〈보기〉에 언급된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에 해당한다. 또한 (나)에 제시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은 '파초만은 은은히 ~ 뿌리고도 남는다.'라고 감각적으로 서술됨으로써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328 답 (1) 이상적 (2) 좌절 (3) 교감 (4) 속물적인 현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아침 풍경 속 '해ㅅ살', '구름', '꽃봉오리', '차돌부리'와 같은 자연은 (이상적 / 속물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가)는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에서 묘사하는 아침 풍경은 이상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상반 (가)의 화자의 서러움은 현실의 번뇌로 인해 지향이 (달성, 좌절)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327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의 화자는 현실의 번

뇌로 인해 지향이 좌절되어 서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나)에서 '파초'는 '나'와 정서적으로 (교감 대립)하는 대상이다.
〈보기〉에 따르면 (나)에서는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고 하였으므로, '파초'는 '나'와 교감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4) 교체 (나)에서 '파초'는 '나'가 (속물적인 현실 초월적인 자연)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다.
〈보기〉에서 이태준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 (나)에서 파초를 팔라는 옆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고 파초를 곁에 두고 즐기려는 '나'의 모습에는 이러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32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서러운 새'는 자연의 세계에 침범한 현실적 번뇌와 억압 때문에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겠군.
'서러운 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침범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화자의 서러운 감정을 새에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시구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골을 옮기는 구름'은 ~~일제 식민지를 겪는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겠군.
'골을 옮기는 구름'은 비 갠 후 골짜기를 옮겨 가고 있는 구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시대 상황을 담고 있지는 않다.

② 헛짚기 '꽃봉오리'가 '흔들려 씻기'운다고 한 것은 ~~현실 속 번뇌와 억압으로 인한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꽃봉오리'가 '흔들려 씻기'우는 모습은 꽃봉오리가 빗물에 씻긴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자연에 대한 화자의 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 속 번뇌와 억압으로 인한 좌절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③ 헛짚기 '차돌부리'가 '죽순 돋듯'하는 모습은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차돌부리 / 촉 촉 죽순 돋듯.'은 빗물이 묻은 차돌부리의 모습, 즉 자연의 순수한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흰 밥알을 쫓'는 것은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미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흰 밥알을 쫓'는 것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낼 수 없는 현실 속 번뇌와 억압을 나타낸 것이다.

41 가 시의 맛 나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작품 분석 본문 160~163쪽

가 시의 맛

작가 김현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시 쓰기를 통해 얻는 행복감
특징 ①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형상화함.
② 유사한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행위와 그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일상적 욕망을 포기하고 (시)를 씀.
❷ 시를 쓰며 (현실)보다 큰 상상의 세계를 그림.
❸ 세속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씀.
❹ 고독감 속에서도 안간힘을 쓰며 (시)의 세계를 창조함.
❺ 시로 쓰임으로써 빛을 얻는 (말들)

나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작가 이성복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문학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고뇌
특징 ① 동물의 행동에 빗대어 작가의 글쓰기 과정에 대해 서술함.
② 직유법, 은유법 등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한 줄 요약

❶ 어미 해달이 물질을 하듯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작가는 끊임없이 연상의 물질을 함.
❷ 해달이 조개껍데기를 벗기듯 작가는 (언어)의 속살을 얻기 위해 (언어)가 지닌 일상의 외피를 벗겨 냄.
❸ 해달이 (해초)에 몸을 감고 잠을 자듯 작가는 문학의 언어를 고민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함.

33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행위를 부각하고 있다.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쓸 때(땐)'라는 시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시를 쓰는 행위를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주미상관의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가)에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수미상관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부재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말들'을 의인화하고 있을 뿐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331 답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쓸 때(땐) ~', '나는 ~ 아이(어버이)'와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ㄹ.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쓴다', '뜬다' 등에서 현재형 어미 '-ㄴ다'를 사용하여 시를 쓰는 행위의 가치를 긍정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ㄱ. 부재 의인화된 대상을 ~~부르며 화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내 영혼의 벗들인 말들'이 '눈을 뜬다'라고 하였으므로 '말들'을 의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말들'을 부르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ㄷ. 부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33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을 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반복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쓸 때(땐)' 등의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집 잃은 아이', '참된 어버이' 등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를 쓰면서 느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벚꽃'과 같은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를 둘러싼 상황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⑤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태평로 이가 프라스틱 지붕 아래'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며 세속적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쓰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3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대정신**: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

정·정·이

① 해달이 '조개를 내리쳐' '부드러운 속살'을 얻는 것과 같이, ㉠은 시인이 노력 끝에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나)에서 글쓴이는 해달이 돌 위에 '조개를 내리쳐' 조개의 살을 꺼내 먹듯, '글 쓰는 사람'도 '딱딱한 일상의 외피를' 걷어내야 언어의 '부드러운 속살'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은 시 쓰기 과정을 통해 시인이 얻게 된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이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어미 해달의 모습과 같이, ㉠은 ~~독자를 위해 가져야 할 시인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은 시 쓰기를 통해 얻게 된 예술적 가치이므로, 시인의 희생정신과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욕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과 같이, ㉠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인의 무모함~~을 의미한다.

㉠은 시인이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 쓰기에 매진하여 그 결실로 얻게 된 예술적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시인의 무모함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헛짚기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눕혀 놓'은 어미 해달처럼, ㉠은 ~~시인에게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도덕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눕혀 놓'은 어미 해달의 모습과 도덕성은 관련이 없다. 또한 ㉠은 시 쓰기를 통해 얻게 된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도덕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폭풍이 몰아치던 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어미 해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은 ~~시인이 문학의 언어를 선택할 때 시대정신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어미 해달과 시대정신은 관련이 없다. 또한 문학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는 ㉠을 시대정신과 관련시켜 이해할 근거는 (가)에서 찾을 수 없다.

33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썩은 모게 껍질에다 코라도 부비'는 것은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화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썩은 모게 껍질에다 코라도 부비'는 것은 시적 감흥을 얻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비유한 표현으로, 시 창작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멋진 날들'은 ~~화자가 시를 쓰면서 느끼는 행복한 순간~~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멋진 날들'은 화자가 놓아 둔 것으로, 화자가 시를 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의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② 헛짚기 '별들'은 ~~화자가 시를 쓰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별들'은 화자가 시를 쓸 때 느낄 수 있는 상상과 동경의 세계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③ 헛짚기 '종아리가 곧은 나의 사람'은 ~~시를 대하는 굳건한 마음을 지닌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종아리가 곧은 나의 사람'은 화자가 약속을 깨뜨리고 기다리게 한 대상으로, 화자가 시를 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세속적인 행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⑤ 헛짚기 '아프리카산 최근의 보석'은 ~~화자가 달자 못한 이상적인 시의 결과물~~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아프리카산 최근의 보석'은 시로 쓰임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된 시어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33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
- **고뇌**: 괴로워하고 번뇌함.

정·정·이

③ 헛짚기 (가)에서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쓰기 위해 방황했던 과거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가)의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쓸 때마다 화자가 느끼는 고독하고 막막한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구이다. 여기에 시인이 시를 쓰기 위해 방황했던 과거의 삶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회한의 정서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에서 '벚꽃', '술', '나의 사람'은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 쓰기를 선택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포기한 대상인 '벚꽃', '술', '나의 사람'은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화자가 '멋진 약속을 깨뜨리고 / 시를 쓴다.'는 것에서 문학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읽어 낼 수 있겠군.

(가)의 화자는 일상의 행복 중 하나인 '멋진 약속'을 깨뜨려 가면서 시를 쓴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시를 쓰는 태도에서, 시 쓰기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④ (나)에서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하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겠군.

(나)의 글쓴이는 해달의 행태에서 글쓰기에 대한 은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질을 하는 해달의 행태에 빗댄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하는 것은 작가가 글쓰기 과정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은 문학의 언어에 대한 작가의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글쓴이는 '작가의 지난한 문학적 글쓰기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은 문학의 언어를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작가의 고뇌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36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가)의 '멋진 날들'과 '멋진 약속'은 ~~화자가 시를 쓰는 원동력~~에 해당한다. (○, ⊗)

〈보기〉에서 (가)는 화자가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선택한 시 쓰기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멋진 날들'

과 '멋진 약속'은 화자가 포기한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나)는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해달의 모습에서 글쓰기 과정에서 언어에 대해 밤새 고민하는 글 쓰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해달의 모습'에서 글쓰기 과정에서 언어에 대해 밤새 고민하는 글 쓰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며 날 밝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3) (가)에서 '시를 쓴다'를 반복하는 것과 (나)의 글 쓰는 사람이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해 대는 것은, 문학 행위에 대한 의지 또는 창작을 위한 끝없는 노력과 관련된다. (○, ×)

(가)의 화자는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쓰는 행위를 반복하다 마침내 '말들'이 '빛나는 눈을 뜬다'고 하였다. (나)에서는 해달이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물질을 하듯,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글 쓰는 사람은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해' 댄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시를 쓴다'를 반복하는 것과 (나)의 글 쓰는 사람이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해 대는 것은 문학 행위에 대한 의지 또는 창작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형상화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337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나)에서 해달이 조개의 껍데기를 벗기는 행위는 작가의 경험이 언어를 통해 미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군.

(나)에서는 해달이 조개껍데기를 벗기는 행위가 글을 쓰는 것과 같다며, 글 쓰는 사람이 자신의 몸 위에서 언어를 가르고 부수어 딱딱한 일상의 외피를 벗기면 비로소 '부드러운 속살'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에서 작가의 경험을 언어를 통해 미적으로 형상화하여 아름다움을 가진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의 '멋진 날들'은 시를 쓰기 위한 바탕이 되는 작가의 경험 풀이라고 볼 수 있군.

(가)에서 '멋진 날들'은 시를 쓰기 위한 바탕이 되는 작가의 경험이 아니라, 시를 쓰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의 욕망들을 의미한다.

② 헛짚기 (가)에서 '멋진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의 경험에 상상력을 가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군.

(가)에서 '멋진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세속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시를 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이를 작가의 경험에 상상력을 가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헛짚기 (가)의 '세계의 집 잃은 아이'와 '세상의 참된 어버이'는 예술적 가치가 담겨 있는 작가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군.

(가)에서 '세계의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쓸 때 화자가 느끼는 고독하고 막막한 심정을 비유한 것이고, '세상의 참된 어버이'는 화자가 시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냄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예술적 가치가 담긴 작가의 경험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헛짚기 (나)에서 해달이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행위는 자신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군.

(나)에서 해달이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행위는 작가가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언어에 대해 고뇌하는 작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작가의 경험은 상상력이 가미되어 언어를 통해 미적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아름다움을 가진 작품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해달이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자는 행위에 빗대어 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III 복합 ❷

42 가 또 다른 고향 나 자화상 2 다 멸치

작품 분석 본문 166~169쪽

가 또 다른 고향

작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아 분열의 극복 의지와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특징 ① 대조적·상징적 의미의 시어·시구를 활용하여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을 형상화함.
② 부정적 자아와 긍정적 자아의 대립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③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고향)에 돌아온 '나'의 자아 분열
❷ 자아의 갈등과 (슬픔)
❸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는 소리
❹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나 자화상 2

작가 오세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삶에 대한 성찰과 바람직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
특징 ① 대조적 의미의 시어·시구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냄.
② 색채에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③ 의인법, 도치법 등을 활용해 시적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까치)와 달리 의연하면서도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
❷ 어려운 상황에서도 까치와는 다른 (까마귀)의 자세
❸ 까마귀처럼 철저하게 (본질)을 유지하며 살겠다는 다짐

다 멸치

작가 김기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생명력 회복에의 소망과 의지
특징 ① 일상적 소재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냄.
②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함.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넘치는 생명력을 지녔던 (멸치)
❷ 생명력을 (상실)한 멸치
❸ 멸치의 (생명력)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인식
❹ 멸치가 지닌 생명력 회복에 대한 (염원)

33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현실 도피의 공간인 '고향'과 이상 세계인 '또 다른 고향'의 대비를 통해, (나)는 까치가 넘보는 '인가의 앞마당'과 까마귀가 응시하는 '먼 지평선'의 대비를 통해, (다)는 생명력이 없는 '건어물집'과 생명력이 가득한 '바다'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영탄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부재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가)는 '우는 것이냐', '가자' 등의 반복을 통해, (나)는 '하얗게'의 반복을 통해, (다)는 '~ 것이다'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가), (나), (다) 모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과거 회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

⑤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339 답 (1) (가), (나), (다) (2) (가) (3) (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가), (나), (다))
338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다) 모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범위 오류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자아 성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가))
(가)는 '우는 것이냐'의 반복을 통해 자아 성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다)에서는 의문형 진술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3) 범위 오류 점층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긍정적 가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다는) ((다))
(다)의 마지막 부분인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에서는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화자가 긍정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생명력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는 점층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3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다)는 (가), (나)와 달리 의문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의 3연에서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나), (다)에서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는 (나), (다)와 달리 청유형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의 '가자 가자 ~ 또 다른 고향에 가자'에서는 청유형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 (다)에서는 청유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나)는 (가), (다)와 달리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화자의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검을 테면 /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 남기지 말고……'에서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순수한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가), (다)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가), (다)는 (나)와 달리 추측하는 형식의 진술을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가)의 '어둠을 짖는 개는 / 나를 쫓는 것일 게다.'와 (다)의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에서는 추측하는 형식의 진술을 통해서 화자가 생각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추측하는 형식의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에서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방 안에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과 쫓기는 사람처럼 이상적 자아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까치처럼 /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에서는 인가의 안마당, 즉 세속적 가치를 넘보는 까치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다)의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에서는 멸치가 생명력을 상실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4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가)의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로 볼 때, '방'은 부정적 자아인 백골이 있는 곳이므로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까마귀가 응시하는 '먼 지평선'은 '인가의 안마당'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므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가)의 '백골'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부정적 자아를 상징한다. 화자는 '들여다보며'를 통해 '백골', 즉 부정적 자아를 향하는 내면의 시선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짖'으며 나약한 자아를 꾸짖고 이상 세계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존재이므로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나)에서 '까마귀'는 화자가 따르려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까마귀'의 '형형한 눈'에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나)에서 '까치'는 '까마귀'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의 태도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

342 답 (1) 백골 (2) 또 다른 고향 (3) 먼 지평선, 까마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는 나약한 자아인 '(백골, 개)'을/를 들여다보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약한 자아인 '백골'을 들여다보며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 '개'는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이다.

(2) 상반 (가)의 화자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고향, 또 다른 고향)'에 가고자 한다.

(가)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서 도피해 돌아온 '고향'을 떠

나 '아름다운 혼'이 지향하는 세계인 '또 다른 고향'에 가고자 한다.

(3) 상반 (나)의 '(인가의 안마당,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까치, 까마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나)에서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까마귀'는 본질을 잃지 않는 의연한 존재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다. 반면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34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눈(㉠)'으로 하얗게 분장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꾸미는 것을 의미하므로, '눈'은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눈(㉠)'으로 하얗게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충만한 느낌이나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짚기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눈(㉠)'에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④ 헛짚기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눈은 내려'를 하강 이미지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눈(㉠)'이 내리는 것을 역동적 이미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화자는 온 세상에 눈이 내려 하얗게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눈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34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야광명월**: 밤에 밝게 빛나는 달.
- **자**: 길이의 단위. 한 자는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cm에 해당한다.
- **누역**: 도롱이(짚 따위를 엮어 만든 비옷)의 옛말.
- **촉**: 촛불.
- **암향부동**: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돎.

정·정·이

②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노매라 /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랴 / 님 향(向)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나)에서 '눈(㉠)'은 본질을 가리는 것,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②에서 '가마귀'는 '눈비'를 맞아 그 본색이 잠시나마 '희는 듯' 숨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눈비'는 '눈(㉠)'과 그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강호에 겨울이 드니 높 깊이 한 자가 넘네 /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옴도 역군은이샷다
강호에 겨울이 찾아와 내려 한 자가 넘게 쌓인 '눈'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③ 헛짚기 어리고 성긴 매화(梅花) 너를 믿지 않았더니 / 높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 촉(燭) 잡고 사랑할 때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눈'은 추운 겨울을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으로서, 눈 속에도 피어난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한다.

34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바람'은 ~~화자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외부의 힘을~~ 의미한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닫힌 세계인 '어둔 방'을 열린 세계인 '우주'와 연결해 준다. 이로 보아 '바람'은 화자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화자를 일깨우고 꾸짖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백골'은 화자의 빈약하면서도 결핍된 삶을 상징한다.
'백골'은 부정적인 현실에서 도피하여 안주하려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자아라는 점에서 화자의 빈약하고 결핍된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방'은 화자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하는 닫힌 공간으로, 열린 공간인 '우주'와 대비를 이루는 공간이다.

④ '어둠'은 화자가 겪는 고통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어둠'은 암울한 현실, 즉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로서, 화자가 자아 성찰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⑤ '개'는 화자의 영혼을 일깨우는 존재이다.
'개'는 '어둠을 짖'는다는 점에서 화자를 일깨우고 꾸짖는 존재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4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D]의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은 화자가 반찬이 된 멸치를 보며 상상한 것으로 생명력 회복의 가능성을 나타낼 뿐,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A]에서는 생명이 있던 멸치의 움직임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연결되어 제시되고 있다.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B]에서는 바닷속의 멸치가 그물에 의해 건져지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물'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C]에서는 그물에 의해 건져진 멸치가 말라서 반찬이 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E]에서는 멸치의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파도와 해일을 만들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는 등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4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어.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는 행위에는 멸치 본래의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도'와 '해일'이 생명력 회복을 위해 멸치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오·오·이

① ㉮: 멸치가 과거에 바다에서 생명력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어.

'유유히', '무수한 갈래의 길'에서 멸치가 본래 자유로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② ㉯: 외부적인 힘에 의해 멸치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

'그물'은 물결로부터 멸치를 분리시킨 것으로, 멸치의 생명력이 상실되게 한 외부적 힘이다.

③ ㉰: 멸치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었을 상황을 상상하고 있어.

'모래 더미'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바싹 말라 길거리에 쌓인 멸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멸치가 생명력을 잃고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었을 상황을 상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 눈앞의 멸치를 보며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어.

화자는 식탁에 오른 멸치 볶음을 보며 '지느러미'와 이를 흔드는 '물결', 즉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다.

43 가 새 1 나 어머니의 그릇 다 노래와 이야기

작품 분석 본문 170~173쪽

가 새 1

작가 박남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순수한 가치의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본질 인식의 어려움
특징 ①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도치법, 대구법 등을 통해 자연의 순수성을 형상화함.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관념적인 내용을 선명하게 제시함.
한 줄 의미
❶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
❷ 가식 없는 (**새**)의 순수한 모습
❸ (**인간(포수)**)에 의해 파괴되는 새의 순수함

나 어머니의 그릇

작가 정일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삶과 사랑이 담긴 말로 시를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
특징 ①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시상을 전개함.
② 대조적 의미의 시어, 직유법, 대구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그릇**)'을 '그륵'이라 쓰고 읽으시는 어머니
❷ 어머니의 '그륵'에 담겨 있는 편안함과 (**따뜻함**)
❸ '그릇'과 달리 (**삶**)이 담겨 있는 말인 '그륵'
❹ 삶과 사랑이 담긴 말로 (**시(서정시)**)를 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

다 노래와 이야기

작가 최두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특징 ① 처용 설화를 차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② 시어의 의미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시**)에 대한 화자의 생각
❷ (**처용**) 설화를 통해 본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
❸ (**시집**)에 악보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인식
❹ (**뇌수**)와 (**심장**)이 긴밀히 결합된 시를 쓰고 싶은 소망

34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새'와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정함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그륵'과 나의 '그릇'을 대비하며 삶과 사랑이 담긴 말로 시를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심장(감성)'과 '뇌수(이성)'를 대비하여 시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는 모두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다) 모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가)에는 '~ 줄도 모르면서'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 (다)에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다) 모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부재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가)~(다) 모두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고 있을 뿐, 영탄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349 답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ㄴ. (다)는 접속 부사로 시상을 전환하여 시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다)에서는 '하지만', '그러나'와 같은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면서 노래와 이야기가 긴밀히 결합된 시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ㄷ. (가), (나), (다)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48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다) 모두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ㄱ.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여 새의 노래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도치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35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범위 오류 (가), (나), ~~(다)~~는 모두 촉각적 심상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가)의 '다스한'과 (나)의 '따뜻했다는', '뜨겁게'에서는 촉각적 심상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가)와 (나)는 비유적 표현으로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에서 시적 대상인 '새'를 '순수'에 비유하여 '새'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그릇'에 담긴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며 '그릇'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다)는 부정어를 활용하여 단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가)의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와 (다)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에서는 부정어를 활용하여 단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③ (가)와 (다)는 현재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가진다', '않는다'에서, (다)는 '박힌다', '못한다', '않는다', '넣는다', '바란다' 등에서 현재형 진술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④ (가), (나), (다)는 모두 쉼표를 활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가)의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나)의 '그릇, 그릇', (다)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등과 같이, (가)~(다)는 모두 쉼표를 활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35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 국어사전, ㉣ 남은 가사

〈보기〉의 "'천'이라는 글자(㉮)"는 하늘의 푸름을 담지 못하는, 단지 천자문에 적혀 있는 글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은, 객관적이고 삶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말들이 실려 있는 '국어사전(㉢)'과, 노래에서 '목청(감성)'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남은 가사(㉣)'이다.

오·오·이

㉠ 헛짚기 하늘

'하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 상반 어머니의 그릇

'어머니의 그릇(㉡)'은 삶이 담겨 있는 말이므로, 문맥적 의미상 ㉮와 대조된다.

㉤ 상반 새로운 노래

'목청'이 제거된 '이야기'와 결합하는 '새로운 노래(㉤)'는 단순한 글자로서의 '천(天)' 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문맥적 의미상 ㉮와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35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 화자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시어를 쓰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하고 있군.

ⓓ에서 화자는 삶에서 우러난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말로 시를 쓰지 못하고 사전에서 쉽게 말을 찾아서 쓰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 사전을 찾아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 화자는 어머니가 '그릇'을 자신만의 언어인 '그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군.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륵'이라고 하며, 어머니가 '그릇'을 자신만의 언어인 '그륵'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 화자는 '그륵'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고 삶이 녹아 있었음을 깨닫고 있군.

화자가 어머니의 '그륵'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따뜻했다고 하는 데서 '그륵'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고 삶이 녹아 있었음을 깨닫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 화자는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운 '그릇'과는 달리, '그륵'을 어머니가 삶 속에서 체득한 살아 있는 단어라고 보고 있군.

'그륵'이 어머니가 인생을 통해 배운 말이라는 점에서, 화자는 '그륵'이 어머니가 삶 속에서 체득한 살아 있는 단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 화자는 삶의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말로 시를 썼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군.

화자는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한다며, 언어에 자신의 삶과 사랑 등의 가치를 담아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35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동경**: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함.
- **발상**: 어떤 생각을 해 냄. 또는 그 생각.

정·정·이

⑤ 화자 오류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가)는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정함, 본질의 순수성과 그 도달에의 어려움을, (나)는 삶과 사랑이 담긴 말로 시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자연'이나 '대상의 본질'로 이를 환상의 세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나)의 화자 역시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새'가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한 표현, 포수가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상한 새라는 표현을 통해 순수한 새와 대비되는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속성을 지닌 '포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그릇'을 '그륵'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사건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나)는 연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반면 (가)는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나)에는 '나'라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35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는 ~~(다)와 달리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

(가), (나) 모두 후각적 이미지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2) 부재 (나)는 (다)와 달리 ~~문장의 어순을 바꿈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나), (다)에서는 모두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도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3) 범위 오류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삶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가)에서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인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나)에서는 화자의 자기반성이 드러날 뿐, 인간의 삶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35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D]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D]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데 여기에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상황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3행을 통해 노래는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할 정도로 상대를 감복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D]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가]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 분리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가]는 '노래'에서 '목청(감정)'이 제거되고 '가사'만 남은 상태가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상반 [가]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는 '노래'와 분리된 '가사', 즉 '이야기'만 남은 상황에서의 단점을 보여 준다.

③ 교체 [D]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 '노래'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1행의 '노래는 심장에' 박힌다는 것으로 보아, [D]에서 시인이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가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헛짚기 [가]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D]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가]는 '노래'와 분리된 '가사'가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D]는 '노래'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행위로,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정·오 지름길

이 문제는 선지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이나 '융합'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가]와 [D]에서는 '노래'와 분리된 '가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선지에서는 '이야기'와의 결합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에서 '이야기'와 '가사'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만 파악하고 있었다면 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35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다채로운**: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한데 어울리어 호화스러운.

정·정·이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다)의 내용으로 보아 [D]의 '심장의 박동'은 '감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D]는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교체 [A]: '그륵'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그릇'은 '나'가 학교에서 배운 말, 즉 삶이 담겨 있지 않은 학습을 통해 익힌 말이다. 반면 '그륵'은 '어머니'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삶과 사랑이 담긴 말이다. 따라서 '그릇'보다는 '그륵'이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교체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륵'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고 하였으므로 '나'의 말인 '그릇'은 '발견'한 말이다. 반면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다고 하였으므로 '그륵'은 어머니가 삶을 통해 '창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헛짚기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시와 음악이 분리된 것을 비판하는 것과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⑤ 헛짚기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덧난 상처의 처방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상처의 원인이 '노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357 답 (1) 그륵 (2) 노래 (3) 살아 있는, 뇌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나)의 화자는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말인 '(그륵, 그릇)'이 살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화자는 어머니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말인 '그륵'이 살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2) 교체 (다)의 화자는 시에서 (노래, 이야기)가 분리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시에서 '노래'가 분리되고 '이야기'만 남은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3) 교체 (나)의 화자는 (살아 있는, 국어사전의) 언어로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을, (다)의 화자는 심장과 (목청, 뇌수)이/가 긴밀하게 결합된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다.

(나)의 화자는 살아 있는 언어로 시를 쓰고자 하는 소망을, (다)의 화자는 뇌수와 심장이 긴밀하게 결합된 시를 쓰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35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가식적**: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
- **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정·정·이

② 헛짚기 '부리를 /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체온을 나누는 '새'는 ~~서로 연대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부리를 /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체온을 나누는 '새'는 서로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서로 연대하는 민중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하는 '새'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환기하는군.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노래하는 '새'는 순수한 존재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환기한다.

③ '울어 / 뜻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는 가식적인 태도와는 상반된 면모를 지니고 있군.

'울어 / 뜻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는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함을 지닌 존재로, 가식적인 태도와는 상반된 면모를 지니고 있다.

④ '새'는 '한 덩이 납으로' '순수를 겨냥하'는 '포수'에 의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존재라 하겠군.

'포수'가 '한 덩이 납으로' 쏘려고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는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라고 표현된 점에서 '새'는 화자에게 연민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하겠군.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는 순수한 존재인 '새'가 인간의 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점을 강조한 시구로, 화자의 연민 어린 시선이 드러난다.

44 가 강우 나 성탄제 다 서해

작품 분석 본문 174~177쪽

가 강우

작가 김춘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내와의 사별에서 오는 절망감과 체념
특징 ①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다가, 결국 이를 인정하고 절망하는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냄.
② '비'라는 객관적 상관물과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냄.
③ 반복법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받아들이기 힘든 (**아내**)의 죽음
❷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함.
❸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과 (**체념**)

나 성탄제

작가 김종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상징적 시어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주제를 강조함.
②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와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③ 회상적·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 주셨던 사랑에 대한 회상(과거)
❷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그리움(현재)

다 서해

작가 이성복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당신에 대한 배려와 한결같은 그리움
특징 ① 역설적 태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드러냄.
③ 도치법, 설의법, 활유법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대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④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함.

한 줄 의미

❶ (**서해**)에 가지 않은 이유
❷ 여느 (**바다**)와 다르지 않을 서해의 모습
❸ 서해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
❹ 만날 수 없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

35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오는 목소리, 어둠 속에 내리는 비 등의 감각적 심상을 통해 아내의 부재라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나의 이마에 ~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는 '내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에서 파도의 움직임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가), (나), (다)는 모두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범위 오류 (다)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다)의 '언제나 바다는 ~ 뒤척이겠지요'에서는 '바다'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 (나)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가), (나)는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다)에서는 1연과 3연에서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범위 오류 (나)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 (다)는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에서만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 그 붉은 산수유 열매—'에서 감탄사를 사용하였다.

360 답 (1) (가), (나), (다) (2) (다) (3) (나)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 (나), (다))
359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 (나), (다) 모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범위 오류 (다)는 경어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
(다)에서는 '않았습니다.', '다를까요', '뒤척이겠지요', '봅니다', '있습니다'에서 경어체를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 (나)에서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3) 범위 오류 (나)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나))
(나)에서는 '어두운 방 안'과 '빠알간 숯불', 하얀 '눈'과 '붉은 산수유 열매'를 대비함으로써 선명한 인상을 주고 있다. (가), (다)에는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36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가)와 달리 (나)에는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이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화자가 '이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내리기 시작하는 '비'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는 소재이자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즉 한 치 앞을 못 보게 내리는 '비(빗발)'는 화자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비'에는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 아픈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가 서른 살이 된 자신의 혈액 속에 녹아 흐름을 느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 산수유 열매'에는 시상이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이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화자의 마음과 '이 사람'의 부재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독백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나)에서 화자는 '반가운 그 옛날의 것', 즉 '눈'을 맞으며 어린 시절 앓고 있는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따 왔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눈'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과거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가)는 '이 사람'이 부재하는 현재의 상황을 먼저 언급한 후 '이 사람'이 앓았던 '옆구리 담괴'를 떠올리는 등 과거의 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는 아픈 화자를 위해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 왔던 과거 장면에 대한 구체적 묘사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가)에는 '이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나)에는 화자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36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이 사람(아내)'이 곁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였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의 밥상은 사실 '이 사람'이 차려 놓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 즉 화자의 아내는 지금 세상을 떠나 여기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자의 마음 상태가 평온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② 헛짚기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 줄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고 한 것이므로,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은 '이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화자가 '이 사람'의 부재를 다시금 확인하고 나서 느낀 실망감과 쓸쓸함을 표현한 것이다.

⑤ 화자 오류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에는 '이 사람'의 부재, 즉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화자는 ㉤을 통해 이제는 아내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다며 체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63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짚기 ㉠은 '이 사람'의 흔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 (×))

'이 사람'은 현재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의 '밥상'은 '이 사람'이 차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은 '이 사람'의 흔적이라고 볼 수 없고, 화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지도 않다.

(2) ㉡은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 ×)

㉡의 '메아리'는 '이 사람'의 목소리 대신 공허하게 되돌아오는 화자의 목소리이다. 그러므로 ㉡은 '이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 즉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3) ㉢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운 것이 아님을 깨닫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

㉢ 이전까지 화자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어디 가서 잠시 누웠'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이 사람'이 앓았던 '옆구리 담과'를 떠올리며 의아해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결국 ㉢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부재가 '어디 가서 잠시 누'운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 ㉣, ㉤에는 '이 사람'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과 절망감이 나타난다. (○, ×)

'이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은 '혹시나 하고' 밖을 기웃거리던 화자가 체념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퍼붓는 빗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 ㉤에는 '이 사람'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과 절망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조우**: 우연히 서로 만남.

정·정·이

③ 화자에게 대상과의 만남을 체념하게 하는 소재이다.

'혹시나 하고' 밖을 기웃거리던 화자는 '한 치 앞을 못 보게' 퍼붓는 '빗발'로 인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빗발'은 화자로 하여금 '이 사람'과 만나고자 하는 것을 체념하게 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화자와 ~~대상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촉매~~이다.

'이 사람'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와 '이 사람' 간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헛짚기 화자가 ~~대상과 교감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이다.

'이 사람'은 현재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화자는 '이 사람'과 교감할 수 없다.

④ 헛짚기 화자가 대상을 향한 애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계기~~이다.

화자가 '이 사람'의 부재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을 통해 볼 때, 화자는 '이 사람'에 대해 애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빗발'이 애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상반 화자로 하여금 대상과의 조우를 ~~소망하게~~ 체념하게 하는 배경이다.

퍼붓는 '빗발'로 인해 '한 치 앞을 못' 보게 된 화자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빗발'이 '이 사람'과의 조우를 소망하게 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없다.

36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 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뭐 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3연의 '계실 자리'와 '가 보지 않은 곳'은 바다, 즉 '서해'를 가리킨다. 그러나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는 '당신'에게 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립지만 그곳에는 가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오·이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서해'는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고, 화자는 '서해'에 '당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해'에 가 보지 않았다. 따라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도,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도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그곳 바다'는 '서해', 즉 화자가 아직 가 보지 않은 바다이다. '여느 바다'는 '서해'가 아닌 바다, 즉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이다. 그런데 2연에서 화자는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라며 두 바다가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2연의 2~3행에서 화자는 자신이 아는 '여느 바다'를 통해 가 본 적 없는 '그곳 바다'의 모습을 추측하여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멀리서'는 '그곳 바다'와 '그곳 바다'에 있을지도 모를 '당신'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한쪽 바다'는 화자가 가 보지 않은, '당신'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곳이다. 화자는 그곳에 가지는 않지만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곳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고 하였다.

366 답 ㄱ,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상정**: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또는 그런 단정.

정·정·이

ㄱ. 제1연에서 화자는 '서해'를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서해'에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가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화자는 '서해'를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ㄹ.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제1연에서 언급한 '서해'이다.

1연에서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4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 가 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서해'라고 할 수 있다.

오·오·이

ㄴ. 상반 제2연에서 화자는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 바다'는 '여느 바다'와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2연에서 화자는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라고 하였다. 이는 '당신'이 있을지 모르는 '그곳 바다'가 '여느 바다'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ㄷ. 화자 오류 제3연에서 화자는 '당신이 계실 자리'를 남겨 두는 것으로 '당신'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그리워하고 있다.

3연에서 화자가 '가 보지 않은 곳을 남겨 두어야 할까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을 염려하며 '당신'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겨 두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당신'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6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 주인공의 감정과 어울리는 경쾌한 배경 음악을 활용한다.

현재 화자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사랑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 도시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경쾌한 배경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앓고 있는 어린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시선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2연의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 산수유 열매의 붉은색이 눈의 흰색과 뚜렷이 대비되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4연에 흰 '눈'과 붉은 '산수유 열매'의 색채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③ ⓑ: 눈을 회상의 매개체로 하여 과거 장면과 현재 장면을 연결한다.

6연에서 7연으로 넘어가며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진다. 그 두 시간을 이어 주는 것은, 그날 밤도 내렸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 '눈'이다.

④ ⓒ: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도시의 거리 모습을 배경으로 설정한다.

8연의 '성탄제 가까운 도시'를 통해 볼 때 적절하다.

36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서느런 옷자락'은 화자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서느런 옷자락'은 화자의 어린 시절, 아픈 화자를 위해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오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은 시인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겠군.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는 모습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 시인의 성장 배경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② '눈 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 온 아버지의 사랑은 삭막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될 수 있겠군.

'눈 속'을 헤치고 구해 온 '약'에 담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은,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화자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겠군.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눈'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오신 날과 연결되어 화자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산수유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가족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산수유 열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므로, 이는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화자에게 할머니와 아버지가 보여 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서느런 옷자락'은 화자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화자는 현대인의 삶이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각박하고 메말랐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차가움의 심상은 각박함의 정서와 조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④를 올바른 진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에서 '서느런 옷자락'은 어린 시절 아픈 화자를 위해 눈 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서 돌아온 아버지의 옷자락을 의미하므로, 화자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해요.

45 가 발열 나 거문고 다 대설 주의보

작품 분석 본문 178~181쪽

가 발열

작가 정지용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열병을 앓는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① 촉각적,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회화성을 강조함.
② 어순의 도치,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애타는 심정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의 정경
❷ 열병을 앓는 (**애(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❸ 아이에게 줄 (**약**)이 없어 애타는 밤

나 거문고

작가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암울한 시대 상황에 대한 비극적 인식
특징 ① 거문고를 기린에 빗대어 암담한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②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암시함.
한 줄 의미
❶ 울지 못하는 (**기린**)
❷ 잊혀져 (**외로운**) 기린
❸ 어두운 상실의 땅에 있는 (**기린**)
❹ (**맘(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기린

다 대설 주의보

작가 최승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함.
② 대조적인 소재와 비유법 등을 활용하여 폭압적 시대 상황과 연약한 민중의 모습을 드러냄.
③ 반복을 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함.
한 줄 의미
❶ 굵은 눈발 속으로 날아가는 (**굴뚝새**)
❷ 계엄령처럼 무섭게 몰려오는 (**눈보라**)
❸ 거센 (**눈보라**)에 생명을 위협받는 존재들과, (**계엄령**)처럼 무섭게 몰려오는 눈보라

36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가)는 열이 나고 아픈 아이의 안타까운 상황을, (나)는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벽에 기대 선 기린의 절망적

인 상황을, (다)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쳐 꼼짝하지 못하는 굴뚝새의 암담한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가)는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에서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며 운율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나,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도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범위 오류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다)는 2, 3연에서 '계엄령'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끝맺음으로써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이와 달리 (가)에서 명사로 시행을 끝맺은 것은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뿐이므로, 반복을 통해 여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범위 오류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나)에서는 거문고를 의미하는 '기린'이 의인화되고 있다. 한편 (다)에서도 '눈보라'가 의인화되고 있으나, 이는 부정적 존재이므로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범위 오류 (가),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등에서 어순의 도치를 통해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시적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나), (다)에서는 어순의 도치가 사용되지 않았다.

370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어순의 도치를 반복하여 화자의 심리와 시적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 ×)

369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 부재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

(나)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3)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

(다)는 '눈', '군단', '계엄령' 등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현실의 암담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7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도 같이',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거문고를 의미하는 '기린'이 의인화되고 있으며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에서는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 (다)는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과 (다)의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에서는 자연적 소재의 속성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② 범위 오류 (나),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나)에서는 '퉁'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다)에서는 '펑펑'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모순을 꼬집고 있다.

(가)~(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모순을 꼬집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다)는 말끝을 흐리는 표현으로 연민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다)의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에서는 말끝을 흐림으로써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37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혼미**: 의식이 흐림. 또는 그런 상태.

정·정·이

⑤ 헛짚기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C]는 아이가 아픈데도 '약'이 없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화자가 밤하늘만 바라보며 애태우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ㅂ),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ㅅ) 하는 것은 화자의 절박함과 애타는 마음을 심화하는 밤의 정경을 보여 주기에 적절한 방법이지, 의식이 혼미해진 아이의 상태를 보여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A]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인 '처마'가 있는 집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인 '밤'이라는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며, '더운 김'이 훈훈히 서리고 있다. 따라서 ㄱ, ㄴ은 이러한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B]에서는 '박나비', '주사' 등에서 붉은색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아이가 '가쁜 숨결'을 드내쉬고 있으므로, ㄷ은 적절한 계획이다.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B]에서는 아이가 앓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므로 이를 클로즈업 기법을 통해 강조하면 감상자의 공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5행과 10행의 '아아'와 같은 감탄사를 영탄적 어조로 낭송하면(ㅁ), 고열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강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정·오 지름길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A]에 시선의 이동이나 화면을 뿌옇게 처리할 장면이 없다고 생각하면, ㄱ, ㄴ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자의 시선은 '처마 끝'에서 '땅'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ㄱ)은 적절한 계획이에요. 또 김이 서린다고 하였으므로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하는 것(ㄴ) 역시 적절하지요.

373 답 (1) 밤 (2) 안타까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A]에 드러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낮, 밤)이다.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에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밤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B], [C]에서는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화자의 (안타까움, 분노) 이/가 드러난다.

[B], [C]에는 '몸이 또 달아 오르'는 아이를 지켜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난다.

37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나)의 '노인'은 과거에 '기린'의 가슴을 통 흔들고 간 존재로, 부정적 현실이 오기 전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린'은 '노인'에게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다. 한편 (다)의 '굴뚝새'는 눈보라 속에서 뒷간에 몸을 감추는 고립된 존재, 즉 새로운 권력 집단의 강압 통치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존재일 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다.

오·오·이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에 쓰였으며, (다)는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나)에는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다)에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나), (다)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나)의 '울지를 못한다'는 '기린(거문고)이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는 뜻과 '화자가 울지 못한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의 '내리는'은 '눈보라가 내리다'라는 뜻과 '계엄령을 내리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기린으로 하여금 맘 둘 곳 몸 둘 곳이 없게 한다는 점에서, '솔개'는 '굴뚝새'로 하여

금 황급히 몸을 감추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375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하여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군.

'꺼칠한 굴뚝새'는 눈보라와 솔개를 피해 뒷간에 몸을 숨기는 연약한 존재이다. 따라서 새로운 권력 집단이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① ㉠: 모국어로 시를 쓰기가 어려워진 지 오래됐음을 알 수 있군.

'해가 스무 번 바뀌었'다는 것에서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이 어려워진 지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 마음속 깊은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냈던 시의 감동이 환기되고 있군.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에서 〈보기〉에 언급된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의 감동을 떠올릴 수 있다.

③ ㉢: 시 창작의 자유가 억눌린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화자가 바깥을 '이리떼만' 몰려다니는 '거친 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창작의 자유가 억눌린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④ ㉣: 화자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목격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시대상이 부각되고 있군.

㉤에서는 계엄령처럼 무섭게 몰려오는 눈보라의 모습을 통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시대상이 부각되고 있다.

37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은거**: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
- **고립**: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

정·정·이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D]에는 '문 아주 굳이 닫고'를 통해 기린으로 형상화된 화자가 '이리떼'와 '잔나비떼'들이 있는 바깥과 단절한 채 은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E]에는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등에서 눈보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D]에는 화자의 내면적 공간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화자가 자아 성찰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E]에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라는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적 공간이 드러나 있을 뿐이다.

② 헛짚기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D]의 '기린'은 고립된 상황으로 화자는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E]에서 화자는 눈보라가 내리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산짐승들', '소나무 가지들', '외딴 집' 등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보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D]와 [E] 모두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D]에는 '나'라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E]에서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는 있으나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교체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D]에서 화자는 '내 기린'이라고 하며 '기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E]에서 화자는 '산짐승들'과 '소나무 가지들', '외딴 집' 등을 위협하는 '눈보라'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377 답 (1) 잔나비떼 (2) 눈보라 (3) 산짐승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D]에서 화자는 '이리떼', '(잔나비떼)'들이 있는 바깥과 단절한 채 스스로 은거하려 한다.

[D]에서 화자는 '문 아주 굳이 닫고', '이리떼', '잔나비떼'들이 있는 바깥과 단절하여 스스로 은거하려 한다.

(2) 교체 [E]에서 '(눈보라)'은/는 '산과 골짜기'를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E]에서 '산과 골짜기'에 내리는 '눈보라'는 '산과 골짜기'를 고립시키는 요인이 된다.

(3) 교체 [E]에서 '(산짐승들)'와/과 '소나무 가지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E]에서 눈보라로 인해 길을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과 눈 더미의 무게로 부러질 듯한 '소나무 가지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등산객' 역시 눈보라로 위험에 처한 존재이지만, [E]에 제시되지는 않았다.

37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불의**: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 **득세**: 세력을 얻음.

정·정·이

② ㉮와 달리 ㉯는 불의한 존재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간이다.

㉮는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픈 시간일 뿐, 불의한 존재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는 '바깥은 거친 들 ~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불의한 존재들이 득세하고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와 달리 ㉯는 ~~새로운 존재들이 잉태되는~~ 시간이다.

㉮, ㉯ 모두 새로운 존재들이 잉태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③ 헛짚기 ㉯와 달리 ㉮는 ~~자아에 대한 성찰이 점차 심화되는~~ 시간이다.

㉮, ㉯ 모두 자아에 대한 성찰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④ 헛짚기 ㉮와 ㉯는 모두 ~~개인적 존재가 사회적 존재로 변모하는~~ 시간이다.

㉮, ㉯ 모두 개인적 존재가 사회적 존재로 변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헛짚기 ㉮와 ㉯는 모두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다.

㉮, ㉯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46 ㉮ 마음의 태양 ㉯ 설일 ㉰ 때

작품 분석 본문 182~185쪽

㉮ 마음의 태양

작가 조지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특징 ① 수미상관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②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표현함.
③ 청유형 문장과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이상 세계를 지향하면서 맑은 (**넋(영혼)**)으로 살고자 함.
❷ 이상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 (**육신**)의 괴로움마저 감수하고자 함.
❸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 냄으로써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음.
❹ 이상 세계를 지향하면서 맑은 (**넋(영혼)**)으로 살고자 함.

㉯ 설일

작가 김남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너그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
특징 ① 자연 현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인간의 삶에 적용함.
② 직유법, 은유법, 설의법, 반복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혼자가 아닌 (**겨울나무**)와 (**바람**)
❷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❸ (**삶**)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
❹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려는 다짐
❺ (**새해**)를 맞는 순수한 마음

㉰ 때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는 삶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열거함.
② '때'로 끝나는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자연의 때)
❷ 노력의 (**결실**)을 거두어들일 시기(인간의 때)

37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세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

정·정·이

③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가)는 '해바라기, 노고지리' 등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겨울나무, 바람' 등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너그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곡식, 빗줄기, 회오리바람, 숲, 대추나무, 여치, 귀뚜라미' 등의 자연물을 통해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지 않다.

② 헛짚기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가)는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는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감내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고자 하고 있을 뿐,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다)의 화자 역시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가)의 경우 이상 세계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와 (다) 또한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⑤ 부재 ~~자연과 거리를 둠으로써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가), (나), (다) 모두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면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 모두 자연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380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포착**: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림.

정·정·이

(1) (가)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

(가)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 냄으로써 이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노래하고 있다.

(2) 화자 오류 (나)는 ~~미래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화자는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너그럽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 (다)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하여 결실을 준비하는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 ×)

(다)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의 날씨, 곤충 소리 등의 변화를 포착하여 결실을 준비하는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4) (가)~(다)의 화자는 모두 삶에 대한 자세를 다지고 있다. (○, ×)

(가)의 화자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나)의 화자는 너그럽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를, (다)의 화자는 때를 알고 결실을 준비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38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청유형**: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 '-자꾸나', '-세', '-읍시다' 따위가 붙는 꼴이다.

정·정·이

④ 범위 오류 Ⓑ와 ~~Ⓔ~~는 모두 모순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는 슬픔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에는 모순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화자의 삶의 자세가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는 햇살을 향해 돌아가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통해, Ⓑ는 슬픔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고난을 감내하며 맑은 넋을 지니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자세가 지닌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② Ⓐ와 Ⓓ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는 바람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와 Ⓔ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통해 추상적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하늘(이상 세계)을 받드는 마음을 햇살을 향하여 돌아가는 해바라기에 비유하고 있고, Ⓔ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삶을 은총의 돌층계에 비유하고 있다.

⑤ Ⓒ와 Ⓕ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는 '살게 하자'에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도 '살자'에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너그러운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82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부재 (다)는 ~~시간의 역전(逆轉)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 역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는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떠오른다', '날아오르는' 등과 같은 상승 이미지를 통해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 연과 끝 연을 '해바라기처럼(노고지리같이) / 높고(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 그 속에 맑은(높은) 넋을 살게 하자.'와 같이 유사하게 구성하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③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머리채 긴 바람', '은총의 돌층계', '섭리의 자갈밭',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 등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의 다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에서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383 답 (1) (가), (나), (다) (2) (나) (3) (가), (나), (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청유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 (다))

(가)는 '그 속에 맑은(높은) 넋을 살게 하자.'에서, (나)는 '너 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한 세상을 누리자.'에서, (다)는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에서 청유형 어조를 통해 화자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2) 범위 오류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나))

(나)는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와 (다)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시구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 (나), (다))

(가)에서는 1연과 4연에서 '그 속에 맑은(높은) 넋을 살게 하자.' 등을, (나)는 '혼자는 아니다.', '어디쯤이다.'를, (다)는 '때'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긴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다)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긴장감 있게 드러낸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활유법을 구사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82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③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와 같이 서술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④ '~ 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 말자'와 같은 종결형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각지 말자', '고집하지 말자'와 같이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85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시적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가)의 '원광'은 괴로움과 슬픔, 고난 등을 달게 받아들인 뒤 마침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빛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의 '무엇'은 여름이 지나 가을로 접어든 때에 거두어들여야 하는 결실로,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

오·오·이

① 헛짚기 지향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매개물이다.

(가)와 (나) 모두 시상의 극적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헛짚기 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원광'과 '무엇' 모두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시어로, 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헛짚기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준다.

'원광'은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을 달게 받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음속 희망이나 이상 실현의 조짐을 뜻하므로, 시적 화자와 대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무엇'은 결실을 뜻하므로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준다고 볼 수 없다.

⑤ 헛짚기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적 긴장을 높여 준다.

'원광'과 '무엇' 모두 신비로운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적 긴장감 고조와는 관련이 없다.

386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현실 도피**: 생각이나 행동에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기를 회피함.

정·정·이

ㄱ. 화자가 지향하는 바에 해당한다.

385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원광'과 '무엇'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다.

ㄷ. 고난과 시련을 수용한 끝에 얻게 되는 것이다.

'원광'은 괴로움에 웃고, 고난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므로 고난과 시련을 수용한 끝에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은 뜨거운 태양과 장대 같은 빗줄기, 세찬 회오리바람 등이 지나간 후에 거두어들이는 것이므로 고난과 시련을 수용한 후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ㄴ. 화자 오류 화자의 현실 도피적 태도를 나타낸다.

'원광'과 '무엇' 모두 현실 도피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38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이 내포되어 있다.

'아직도(㉰)'에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 상황에서 때를 여전히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이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에는 시간의 경과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어느새(㉮)'에는 광복절도 어느 틈에 벌써 지나가고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② ㉯에는 자연물에 의해 상기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이미(㉯)'에는 더욱 커진 귀뚜라미 울음소리로 인해 화자가 가을이 벌써 곁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이 드러난다.

④ ㉱에는 현재 시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

'이제는(㉱)'은 '바로 이때'라는 의미로, 지나간 때와의 단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제는'에는 여름은 이미 가고 가을이 왔다는 시간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과 ㉱에는 동일한 시간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아직도(㉰)'와 '이제는(㉱)'은 모두 시간적으로는 가을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직도'에는 여름이 갔음에도 여전히 여름이라고 우기는 태도가 드러나고, '이제는'에는 여름이 갔음을 인정하고 지나간 때와 단절해야 한다는 태도가 나타난다.

38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 말없이 삭이고

'달게 받으라(ⓐ)'는 육신의 괴로움이나 고난까지도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세를 함축하고 있는 시구는 '말없이 삭이고(㉡)'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 외톨이로 서 보는

'외톨이로 서 보는(㉠)'은 아무도 없이 세상에 오직 홀로 남는 것 같은 상황, 즉 고독한 상황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③ 헛짚기 ㉢ 떨구이는

'떨구이는(㉢)'은 승천한 눈물들이 백설이 되어 다시 땅 위에 내리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새해를 새로운 자세로 맞는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달게 받으라(ⓐ)'와는 함축적 의미가 다르다.

④ 헛짚기 ㉣ 뜨겁게 익고

'뜨겁게 익고(㉣)'는 한여름에 곡식이 뜨거운 남녘 들판에서 익어 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⑤ 헛짚기 ㉤ 더욱 커질 때

'더욱 커질 때(㉤)'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시간의 흐름

을 형상화한 것이다.

38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 /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으면 /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뜻한 털옷 되지 않으리

[A]는 괴로움을 수용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면 세찬 바람과 눈보라도 따뜻한 털옷이 된다는 ①이다.

오·오·이

② 헛짚기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이리~~ /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

[A]에 고통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짚기 이제 나는 ~~더그럽게 사람과 세상을 받아들이리~~ / 내 마음의 겸손과 원만함이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퍼지게~~ 하리 / ~~겸손하게 빛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얘기하리라~~

[A]에 사람들을 포용하겠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이제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 / 삶은 험난한 길,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가시밭길 / ~~절댜 돌아오는 것이 허망한 것이더라도~~ 삶은 원래 그런 것

④에 삶의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인식은 드러나 있으나, [A]와 달리 이상 세계에 대한 희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헛짚기 이제 나는 발끝의 작은 것도 사랑하리라 / 내가 먼 곳만 바라본다면, 나의 발 디딘 곳 아픔을 어떻게 알리 / 이제 ~~담은 내 삶은 이웃의 아픔, 슬픔과 함께하리라~~

[A]에 이웃의 아픔이나 슬픔을 함께하겠다는 자세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오 지름길

• (가)를 읽고 시 창작 활동을 하였다. ~~[A]연의 내용과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작품의 내용 및 정서와 유사한 시를 찾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먼저 시적 대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A]의 시적 대상은 괴로움과 슬픔, 고난이므로, 선지에서도 시적 대상이 이와 유사한지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시적 대상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대응 자세를 비교해 보면 두 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390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가)에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은 화자가 ~~도력해도 닿을 수 없는 세계로 화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대상~~이군.

(가)의 화자는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은 화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가)에서 '한 송이 꽃'은 화자에게 '육신의 괴로움'을 감내한 존재로 인식되는 대상이군.

(가)에서 화자는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을 통해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는 자신도 육신의 괴로움을 달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자는 '한 송이 꽃'을 육신의 괴로움을 감내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노고지리'는 화자에게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군.

(가)에서 '노고지리'는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존재로, 화자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겠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누르스름한 이파리'와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자연물이군.

'누르스름한 이파리'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귀뚜라미'는 가을의 곤충이다. 따라서 '누르스름한 이파리'와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모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여름내 흘린 땀'은 '무엇인가 거두어들일 때'와 관련지어 볼 때 결실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군.

여름을 견디어 내는 과정을 지나야만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름내 흘린 땀'은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47 가 알 수 없어요 나 배를 매며 다 사미인곡

작품 분석 본문 186~189쪽

가 알 수 없어요

작가 한용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절대자를 향한 구도 정신, 임을 향한 희생정신과 기다림
특징 ① 동일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형태적 안정성을 부여함.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열정적인 구도 정신을 드러냄.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임의 신비감을 고조하고 경건한 탐구 자세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
❷ 절대자를 위한 (희생)적 자세

나 배를 매며

작가 장석남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사랑의 속성을 표현함.
② 유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한 줄 의미
❶ (배)를 매어 본 경험
❷ 갑자기 던져진 (밧줄)로 배를 매듯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
❸ (배)를 둘러싼 세계의 발견
❹ 배를 매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본질
❺ (배)를 통해 확인한 사랑의 모습

다 사미인곡

작가 정철
갈래 가사
주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충정(연군지정)
특징 ①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임.
②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③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고자 함.
❷ 임을 위해 정성껏 (옷)을 지어 보내고자 함.
❸ 임이 (선정)을 펼치기를 기원함.
❹ 임에 대한 염려와 (외로움)

39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극적**: 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

정·정·이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의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시내', '저녁놀'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나)의 '밧줄', '배', 배를 매는 행위는 각각 인연과 사랑, 사랑의 대상, 사랑의 시작을 상징한다. (다)의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은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충정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 (나), (다) 모두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가)에서는 (다)는 '오동잎', '하늘', '시내' 등 자연물에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으며, (나)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다)에서만 '임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에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너'라고 부르며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② 부재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와 (나)에는 대화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의 '임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에서는 매화를 상대로, '누 위에 걸어 두고 ~ 심산궁곡 한낮같이 만드소서.'에서는 임금을 상대로 하는 대화체가 일부 드러나지만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부재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 등에서, (다)에서는 '오색선', '백옥함', '청광', '홍상' 등에서 색채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되어 다채로운 느낌이 조성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색채어가 활용되지 않아, 이로 인해 시의 분위기가 다채롭게 조성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가), (나)는 '언뜻언뜻'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검은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을 보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털썩'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여 화자에게 갑작스럽게 밧줄이 날아온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다)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392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자연 현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

(가)에서는 '오동잎',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 등 자연

현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누구'의 모습인지 물음으로써 절대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2) (나)는 유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에서는 '배를 매는 일'과 '사랑'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상적 관념인 사랑의 속성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형상화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 부재 (다)는 ~~색채어의 대비~~를 통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 ×)

(다)에서는 '오색선', '백옥함', '청광', '홍상' 등에서 색채와 관련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색채어의 대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39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가)에서는 '~은/는 누구의 ~입니까'라는 형식의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사랑의 시작을 밧줄을 잡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가)의 1~5행은 절대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다루고 있다면 6행은 절대자를 향한 구도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5행이 아닌 6행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는 사랑이 시작되어 커지는 과정을 배를 매는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부재 (가)와 (나) 모두 ~~점층적 방법~~을 통해 시상을 확장하고 있다.

점층법은 (가), (나) 모두에 사용되지 않았다.

⑤ 부재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삶의 모습과 조응하는~~ 자연 현상에서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는 자연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 뿐, 자연 현상이 화자의 삶의 모습과 조응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자연과 어우러져 떠 있는 배의 모습에 빗대고 있을 뿐이므로, 자연 현상이 화자의 삶의 모습과 조응한다고 볼 수 없다.

39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번뇌**: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 또는 그런 괴로움.

정·정·이

③ 화자 오류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누구의 입김입니까'라는 구절로 볼 때, '알 수 없는 향기(㉢)'는 절대자의 숨결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를 통해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누구의 발자취(㉠)'는 절대자의 발자취로서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이라는 자연 현상 속에 깃든,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드러낸다.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무서운 검은 구름(㉡)'은 절대자의 얼굴인 '푸른 하늘'을 가리는 존재로, '푸른 하늘'과 대조되면서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구도자라는 화자의 처지를 고려할 때 절대자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무서운 검은 구름'은 번뇌로 볼 수 있다.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저녁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저녁놀'은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자연 현상에 해당하므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함께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보기〉에서 한용운의 시는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의 시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약한 등불(㉤)'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역설적 표현과 연결되면서,

구도자로서 절대자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 되고자 하는 화자의 자기 정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95 답 ㄱ,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화자는 '누구'로 표현된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통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며, '누구'로 표현된 궁극적 존재에 대한 물음을 반복하며 탐구하고 있다.

ㄴ. '무서운 검은 구름'은 '푸른 하늘'과 대립되는 대상이다.

394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ㄹ.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드러낸다.

(가)에서 화자는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라고 하였다. 여기서 '누구'는 화자가 탐구하고 있는 절대자이므로,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ㄷ. 화자 오류 '알 수 없는 향기'는 화자가 지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환기한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하늘을 스쳐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화자가 '누구의 입김'으로 여기는 자연 현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향기'는 화자가 지닌 불안감을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96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갈구**: 간절히 바라며 구함.
- **비로소**: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

정·정·이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A]에서 화자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라며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랑을 함으로써 대상과 대상 주변의 세계까지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A]는 배를 매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랑의 본질을 표현한 부분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A]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과 대상을 둘러싼 세계까지 함께 받아들이게 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헛짚기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2연의 '사랑은 ~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이미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A]에서 이러한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사랑의 운명적 면모는 2연의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에서 나타난다. [A]에서는 사랑의 운명적 면모나 자연의 섭리는 찾아볼 수 없다.

397 답 (1) 사랑 (2) 밧줄 (3) 불가항력적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오·오·이

(1) 교체 배를 매는 행위와 (사랑 이별)을 연결 지어 표현하고 있다.

2연에서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교체 넋 놓고 앉았다가 (밧줄 빛)을 받는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2연의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은 사랑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3) 교체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은 (불가항력적 필연적)인 사랑의 속성을 나타낸다.

2연의 '어찌할 수 없이 / 배를 매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사랑, 즉 사랑의 불가항력적인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39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다.

'부둣가'는 배가 들어오는 곳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속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이다.

'부둣가'는 화자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므로 과거의 공간이 아닌 현재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헛짚기 화자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부둣가'는 배를 매듯 갑작스럽게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일 뿐, 도피의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헛짚기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부둣가'는 갑작스럽게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⑤ 헛짚기 화자와 익명의 타인들이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이다.

'부둣가'는 화자와 사랑의 대상이 인연을 맺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다.

39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화자는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 즉 임금이 계신 곳으로 보내고자 한다. 이로 볼 때,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추위를 겪을 임금을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지, 임금의 은혜를 암시하는 소재가 아니다.

오·오·이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의 여성 화자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신하인 남성 작가의 분신이므로, 화자가 임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보내려는 행위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정성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천상의 '달'과 '별'을 보며 임(임금)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달'과 '별'은 임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지상에 있는데, 이는 임금과 신하라는 상하 관계, 즉 군신 간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화자는 '청광'을 보내고자 하면서 임(임금)이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 한낮같이 만'들기를 기원한다. 이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실제로는 군신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인 '앙금'을 차갑다고 함으로써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낸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바꾸어 표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0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 가뜩 시름 많은데

〈보기〉에서 화자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는 시름과 슬픔으로 '머리털이 이때에 더욱 세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에서 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가뜩 시름 많은데(ⓒ)'이다.

오·오·이

① 헛짚기 ⓐ 두세 가지 피었어라

눈 속에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난 상황으로, '매화'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② 헛짚기 ⓑ 베개 맡에 비치니

'달'이 베개 근처에 비치는 상황으로, '달'은 화자로 하여금 임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물이다.

④ 헛짚기 ⓓ 금자에 겨누어서

'금자로 재어서'라는 뜻으로, 화자가 임의 옷을 짓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⑤ 헛짚기 ⓔ 임에게 보내려고

임을 위한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보내고 싶다는 의미로,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보여 준다.

48 가 파초 나 수철리 다 견회요

작품 분석 본문 190~193쪽

가 파초

작가 김동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향수와 현실 극복 의지
특징 ① 대상의 의인화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② 호칭의 변화('파초' → '너' → '우리')를 통해 대상과의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좁혀짐을 드러냄.
③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파초의 가련한 (**꿈**)
❷ 파초의 (**외로운**) 넋
❸ (**파초**)에 대한 지극한 정성
❹ 파초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❺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나 수철리

작가 김광균
갈래 산문시, 서정시
주제 죽은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
특징 ① 화사한 자연의 이미지와 차가운 죽음의 이미지를 대조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 (**누이동생**)의 무덤 주변의 풍경
- 인적 없는 (**무덤**) 주변의 쓸쓸함
-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다 견회요

작가 윤선도
갈래 연시조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대구법과 반복법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❷ 자신의 (**충성심**)과 결백에 대한 호소
❸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❹ (**어버이(부모)**)에 대한 그리움
❺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마음

401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나)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통해 화자가 죽은 누이동생의 무덤에 찾아온 정황이 드러나 있다. 또한 (다)는 제4수의 초장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를 통해 그리움의 대상인 '어버이'를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가)의 화자는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함으로써 파초와 함께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견뎌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나)의 '한 줌 흙을 헤치고 ~ 눈 뜰 것만 같애'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가), (다) 모두 화자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부재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가)에는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견뎌 내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나)에는 누이동생의 무덤에 찾아와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 즉 화자의 정서가 주로 나타날 뿐이므로, (가)와 (나)에 대립적 가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다)에서는 제2수의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와 제3수의 '임 향한 내 뜻'에서 간신들의 모함과 화자의 충심이라는 대립적 가치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가치들이 작품 전면에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⑤ 부재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가)~(다)에서는 모두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40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나)와 (다)에는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나)는 죽은 누이동생의 묘지에서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다)는 먼 곳으로 온 화자가 임과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모두 대상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다)는 모두 ~~자연 현상을 통해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가)에서는 파초라는 자연물을 노래하고 있고, (나)에서는 누이동생의 무덤가에 있는 '밤나무'나 '시내' 등의 자연물을 언급하고 있고, (다)에서는 흐르는 '시내'와 '외기러기'라는 자연

물에 화자가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다) 모두 자연 현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가)와 (나)는 시행의 점층적 변화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시행의 점층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40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A]에서는 파초를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샘물을 길어 파초에게 주는 '나'의 연민을 구체화하고 있다. [B]에서는 '시내'가 주야로 울며 흐른다고 의인화함으로써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문답의 형식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A], [B] 모두 문답의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A],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A], [B] 모두 어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A]의 파초에게 물을 붓는 행위, [B]의 흐르는 시내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정적인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⑤ 부재 자연과 인간사의 대비를 통해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A], [B] 모두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40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유화적**: 상대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 **독단적**: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
- **낙천적**: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
- **비관적**: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것.

정·정·이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가)에서 화자는 파초에게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함께 견디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나즉 — 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 같은 누이동생이 실제로는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서러운 생각'에 눈물로 '옷소매'를 적시고 있다. 즉 화자는 누이동생의 죽음이라는 현실 상황이 바뀔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인 파초를 가련하게 여기면서 정성과 헌신을 다하고 있을 뿐, 파초를 용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화적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을 뿐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 오류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화자는 파초에 대해 연민, 동질감, 유대감 등을 드러내고 있을 뿐, 단정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이를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는 없다.

③ 화자 오류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가)의 화자는 파초에 대해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며 연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을 그리워하고 있으나, 이러한 화자의 그리움이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화자 오류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가)의 4연의 '이제 밤이 차다.'와 5연의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에서 '밤'과 '겨울'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한 현실을 의미하므로, (가)에 낙천적인 태도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의 화자는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 뜰 것만 같'은 누이동생과 영원히 단절된 현실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가 현실 상황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405 답 ㄱ, ㄴ,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가)의 화자는 대상에 대해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

ㄴ. (가)의 화자는 현실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의 5연의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에서 화자는 파초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파초와 함께 '겨울'이라는 시련의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ㄴ). 이로 보아 화자는 파초에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ㄱ).

ㄷ. (나)의 화자는 대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누이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서러운 생각'에 잠겨 있다.

오·오·이

ㄹ. 화자 오류 (나)의 화자는 ~~현실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이 죽은 현실의 상황을 서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 현실이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감은 보이고 있지 않다.

40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각성**: 깨달아 앎.

정·정·이

③ 의문형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다)의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등에서 의문형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다)는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가 전달하려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다)의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가 전달하려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대구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부재 ~~의도적으로 어순을 뒤바꾸어 화자의 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나), (다) 모두 의도적으로 어순을 뒤바꾸는 도치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의 각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범위 오류 (나)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차단 — 한 비석',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등에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는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부재 ~~청유형 어법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다) 모두 어떠한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청유형 어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40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화자가 파초의 발등에 물을 부어 주거나 자신의 머리맡에 있게 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파초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파초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에게 파초는 보살핌을 베푸는 모성적 존재라기보다는 돌보아야 할 대상이자 연민의 대상, 동일시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파초를 '머리맡'에 둔다는 것은 파초를 곁에 두고 돌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러한 화자의 행위가 계속될 것임을 드러낸다.

②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화자는 파초를 위해 즐겨 '종'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화자의 헌신적인 태도를 통해 파초를 아끼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화자는 파초를 위해 물을 길어 붓고, 파초를 머리맡에 있게 하며 파초의 종이 되고자 한다. 이는 화자가 파초에게서 느끼는 연민과 동질감, 일체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집약된다.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밤이 차다', '우리의 겨울'이라는 시구를 통해 파초와 화자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와 파초가 처한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상징한다.

40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화자 오류 3연의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에서 ~~현실을 초~~

~~월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알 수 있다. (○, ⊗)

'나'가 샘물을 길어 파초에게 부어 주는 것은 파초를 돌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파초에 대한 연민과 동질감에서 비롯된 행위로,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2) 4연의 '이제 밤이 차다.'에서 '나'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40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현재의 상황을 '밤이 차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나'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파초에 대한 호칭이 1연에서 '파초', 2연에서 '너', 5연에서 '우리'로 변화하는 것에서 '나'가 파초에게 점차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파초에 대한 화자의 호칭이 '파초 → 너 → 우리'로 변화하는 것에서, 화자가 파초에 대해 점차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귀의**: 돌아가거나 돌아와 몸을 의지함.

정·정·이

③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에서 곧은 지조를 변함없이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군.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시내가 임을 향한 화자의 뜻을 따라 밤낮으로 흘러 그칠 줄을 모른다는 의미로,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를 드러내는 구절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상반 제1수의 '그 밧긔 여남은 일'은 화자가 ~~추구하는~~ 추구하지 않는 가치로, 자신의 신념대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알 수 있군.

'그 밧긔 여남은 일'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신념대로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내 몸의 해올 일만 닦'는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 오류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에서 ~~유년 시절의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군.

'이 마음 어리기도'는 화자의 마음이 어리석다는 의미로, 유년 시절의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화자 오류 제4수의 '많고 많고 하고 하고'에서 ~~속세를 떠나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알 수 있군.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어버이 그린 뜻', 즉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 오류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에서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다 실패한 화자의 좌절~~을 알 수 있군.

'하늘이 삼겨시니'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 하늘의 뜻임을 밝혀 그 절대성과 당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운명을 거스르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1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비', '눈', '별'은 '물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인적 없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아오는 자연물들로, 무덤의 적막함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이 소재들이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환 — 하고', '아득 — 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환 — 하고', '아득 — 한' 등에 쓰인 '—'는 장음 부호로, 시어를 길게 읽게 함으로써 시어가 가지는 느낌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누이동생의 무덤 옆에 있는 '밤나무'가 바람이 올 때마다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젓는 것에서 무덤 주변의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드러난다.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은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누이동생의 모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화자는 '묘지'에 있는 누이동생의 무덤에 찾아와 누이동생을 떠올리고 있다.

411 답 (1) 묘지 (2) 흰나비 (3) 가지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묘지)'은/는 화자가 '누이동생'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화자는 누이동생이 묻힌 '묘지'에서 누이동생을 떠올리고 있다.

(2) 교체 '(흰나비)'은/는 여윈 누이동생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시어이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은 여윈 누이동생의 모습을 가리키므로,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시어이다.

(3) 교체 '밤나무'의 '여윈 (가지)'은/는 적막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누이동생의 무덤 옆 '밤나무'의 '여윈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고요하고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41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5수의 '불효'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임 위한 탓'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자는 '임이 혜여 보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제5수의 '불효'는 임금을 잊는 것이므로, 임을 위해 행한 '내 일'과 상응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임이 혜여' 보고 판단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내 일'에 대해 '아무가' 이르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수의 '임이 혜여' 보고 판단하기를 바라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뫼'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제3수의 '추성'은 화자가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제4수의 길고 긴 '뫼'와 멀고 먼 '물'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 그리움의 대상인 '어버이'로부터 멀다고 인식되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수의 '뜻'은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을 의미하고, 제5수의 '뜻'은 임금을 향한 마음을 의미한다. 제5수에서 임금을 잊으면 '불효'라고 함으로써 효의 대상을 어버이에서 임금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올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수의 '내 몸의 해올 일'은 아무가 아무리 옳다, 외다 하여도 '임 위한 탓'으로 '나'가 지향하는 충심에 해당한다. 이는 제5수에서 '임금 향한 뜻'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9 가 님의 침묵 나 나뭇잎 하나 다 춘면곡(春眠曲)

작품 분석 본문 194~197쪽

가 님의 침묵

작가 한용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임을 상실한 슬픔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특징 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임에 대한 태도를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님(임))과의 이별
❷ 이별 후의 고통과 (슬픔)
❸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함.
❹ 님(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나 나뭇잎 하나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
특징 ① 자연물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제시함.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③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함.
한 줄 의미
❶ 무성한 (신록) 속에서 인식하지 못한 나뭇잎의 존재
❷ 단풍 들고 (낙엽)이 떨어질 때도 인식하지 못한 나뭇잎의 존재
❸ 오직 하나 남은 (나뭇잎)이 지고 나서야 그 존재를 인식함.
❹ 나뭇잎의 존재를 (인식)한 후에 깨달은 인생의 의미

다 춘면곡(春眠曲)

작가 미상
갈래 가사
주제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대구, 과장, 감정 이입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꿈)에서 임을 만남.
❷ 임에 대한 (그리움)
❸ (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41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임과 함께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과거에 '나뭇잎'을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을 환기하며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

의 화자는 임과 만나 사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범위 오류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나)에는 계절의 변화(여름 → 가을 → 겨울)가 표현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나뭇잎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변화를 화자가 인간의 삶과 연관 지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한편 (다)의 '엊그제 꽃이 ~ 가득 가을 소리라'에서는 계절의 변화(봄 → 가을)를 표현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헛짚기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가)에는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이미지 등이, (나)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다)에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범위 오류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나)에서는 화자가 나뭇잎의 변화를 통해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 (다)에는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범위 오류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다)는 이별의 정한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나)는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414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의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 ㉡에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과 ~~㉡~~ 모두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다.

③ 헛짚기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에서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역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15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의 '옛 맹서'와 (다)의 '한바탕 꿈'은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가)의 '옛 맹서'는 '님'과 함께했던 사랑의 약속으로 과거의 추억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의 '한바탕 꿈'은 시름과 한을 못다 이른 채 흩어지고 마는 허무한 것이지만, 화자가 그리워하던 '님'과 만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옛 맹서'와 '한바탕 꿈'이 모두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가)의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에서 '아아'는 '님'이 떠난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또한 (다)의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에서 '어화'는 '님'과 이별하고 다시 만날 날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은 화자가 눈멀었던 '님'의 모습이고,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꿈에서 만난 '님'의 모습이므로 모두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낸다.

④ (가)의 '사람의 일'과 (다)의 '내 일'은 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

(가)에서 화자는 사랑이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이별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일'은 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의 '내 일'은 '나도 모를 일'로, 앞 구절의 '언제면 다시 볼까'를 고려할 때 '님'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화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가)의 '눈물'은 '님'과의 이별로 인한 것이고, (다)의 '시름과

한'은 꿈에서 만난 이별한 '님'에게 화자가 털어놓고자 한 것이므로, 모두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볼 수 있다.

416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고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소멸)' 사라지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있다. 이때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의 반복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는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연과 2연에서는 '~이(가) 온통 / ~ 때 / 그곳을 ~면서 나는 / ~었다'의 형태의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과거에 대상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1~3연에서 '골짜기' → '길' → '대추나무' → '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골짜기(1연)' → '길(2연)' → '대추나무(3연)' → '나뭇잎 하나(3연)'의 순서로, 화자로부터 거리가 먼 대상에서 가까운 대상으로 시적 대상이 바뀌고 있다.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1, 2연)', '문득(3연)', '마침내(4연)'와 같은 부사의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화자는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소멸)' 사라지는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417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1연과 2연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 이전의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416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2) 상반 1~3연에서는 시적 대상과의 거리를 ~~넓혀~~ 좁혀 가며 삶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

416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가 시적 대상과의 거리를 좁혀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4연에서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가 얻은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

4연에서는 '저마다 한 개씩'을 반복하여 하나씩 돋아났다 하나씩 떨어지는 나뭇잎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41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연쇄법**: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정·정·이

③ 부재 ㉰에서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는 역설법과 대구법을 사용하여 임이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에서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임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님은 갔습니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임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통해 화자의 좌절감을 그려 내고 있다.

'황금의 꽃'과 '차디찬 티끌'이라는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사용함으로써, 임과 이별한 화자의 좌절감을 그려 내고 있다.

④ ㉱에서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 이후,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다.

⑤ ㉲에서는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구절로, 이를 통해 화자의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이 드러난다.

41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보기〉를 통해 볼 때 한용운 시에서 침묵은 '님'의 부재이며 노래는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님'이 부재하는 침묵의 상황에서도 화자는 '님'의 실재를 느끼며, 노래를 통해 '님'과 깊이 교감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보기〉로 볼 때 화자는 노래를 통해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하려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사랑의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화자가 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③ 헛짚기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보기〉에서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는 것은 멀리 있는 '님'에게 화자의 노래가 들리는 것, 즉 화자가 노래를 통해 '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볼 때 ⓐ의 '사랑의 노래'를 자연 친화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짚기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은 침묵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서 침묵과 사랑의 선후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⑤ 교체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화자의 노래이지 '님'의 노래가 아니다.

420 답 (1) 침묵 (2) 노래 (3) 소통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님의 (침묵)'은/는 '님'이 부재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님은 갔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님의 침묵'은 '님'이 부재하는 이별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교체 '(노래)'은/는 '님'과 교감하기 위해 화자가 취한 방법이다.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고 하였다. 이는 화자가 '노래'를 통해 '님'과 교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교체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결과이다.

화자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노래'가 '님'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힘을 지녀 '노래'로써 화자가 '님'과 교감함을 드러낸다.

42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도약**: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보편적**: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정·정·이

④ 화자 오류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보기〉에서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각달', '잘새'는 헤어진 '님'의 곁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보기〉에서 관습적인 표현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관습적인 표현이 개인적 정서를 보편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A]에서는 '~ 되어 ~하고 싶다'는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과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보기〉에서 관습적 표현에는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오동', '제비', '나비' 등의 자연물을 사용한 표현은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보기〉에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에 담긴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때 (다)의 화자가 겪고 있는 고난은 '님'과 헤어져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42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외기러기'는 임과의 ~~현세의 인연을 후세로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이군.

'외기러기'는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현세의 인연을 후세로 이어 가고자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꿈을 생시 삼고지고'에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는군.

'상사하던 우리 님'을 해후했던 '꿈을 생시 삼고지고' 하는 것에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③ '님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인 상황은 화자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여 주는군.

화자는 '님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고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임과 헤어진 화자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약수 삼천 리'에서 임과 화자의 거리감이 구체화되는군.

'약수'는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의 이름으로, 임과 화자의 거리가 약수 삼천 리만큼 멀게 느껴지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⑤ '조각달', '오동'은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가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군.

화자가 '조각달'이 되어 님의 낯에 비추고자 하고, '오동'이 되어 님의 무릎을 베고자 한다는 것에서 '조각달'과 '오동'은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가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자연물로 볼 수 있다.

50 가 나의 집 나 길 다 제망매가(祭亡妹歌)

작품 분석 본문 198~201쪽

가 나의 집

작가 김소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그대를 기다리는 마음
특징 ①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함.
②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심화함.
한 줄 의미
❶ '나'의 (**집**)을 짓고 '그대'를 기다림.
❷ 길을 다니는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
❸ 문간에 서서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그대**)'를 기다림.

나 길

작가 윤동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본질적 자아 회복에의 의지
특징 ①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길을 걷는 행위를 통해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함.
③ 고백적 어조, 반복적인 표현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나아가는 (**길**)
❷ 끝없이 연속된 (**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과정
❸ 자아 성찰을 통한 (**부끄러운**) 자아 인식
❹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다 제망매가(祭亡妹歌)

작가 월명사
갈래 향가(10구체)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 극복
특징 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종교적으로 극복함.
② '바람', '잎', '한 가지'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함.
한 줄 의미
❶ 죽은 (**누이**)에 대한 혈육의 정과 슬픔
❷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무상감
❸ (**슬픔**)의 종교적 승화

423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 집을 짓고 큰길을 내어 '그대'를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부정적 상황 속에서 자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맞이하여 미

타찰에서 만날 것을 도 닦아 기다리겠다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에는 모두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에서의 자연은 '나의 집'을 짓는 공간일 뿐 인간과 대비되지 않는다. (나)의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에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 누이의 죽음을 비유하고 있을 뿐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③ 범위 오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다)에서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날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는 그대를 기다리는 화자의 의지만 나타날 뿐 그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도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만 드러날 뿐, 잃은 것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가)~(다) 모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지향은 드러나지만, 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⑤ 범위 오류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 등에서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와 (다)에 비판적인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424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다)에는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

423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다)에는 모두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 화자 오류 (가)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소망의 실현에 대한 믿음이 제시되어 있다. (○, ×)

(가)에서 화자는 집을 지어 두고 그대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나 그대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실현에 대한 믿음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나)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

(나)에서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과 같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다)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이 대응되어 주제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 ×)

(다)에서는 어린 나이에 죽은 누이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응시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42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부재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에서는 날이 저물 때부터 새벽, 아침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이 표현되어 있고, [B]에서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다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A], [B] 모두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A]에서는 '새벽 새가 울며', '고요하게' 등의 청각적 이미지와 '하이얀', '희게'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시간이 연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B]에서는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고 있다.

[B]에서는 '길'이라는 공간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간적으로 통한다고 표현하여 공간과 시간을 결합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A]에 '저물 때', '아침'과 같은 시간은 화자가 '그대'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B]의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흐르는 시간은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고뇌의 시간이다.

42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황량함**: 황폐하여 거칠고 쓸쓸함.

정·정·이

① 화자 오류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에서 화자가 짓는 '집'의 위치는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슭'이며, '넓은 바다의 물가 뒤'로, 여기에는 새로운 터에서 '그대'와 함께 지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이 '집' 앞에 큰길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는 점에서 '집'은 속세와 떨어진 공간이라 볼 수 없으며,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을 함축하고 있다.

'주머니'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는다는 것은 화자가 내면세계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는 길은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는 화자의 무거운 심리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풀 한 포기'조차 없는 황량한 길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하고 고달픔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생사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므로, '머뭇거리고'에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427 답 (1) 하늘 (2) 저쪽 (3) 미타찰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에서 '(쇠문,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대상이다.

(나)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이끌어 내는 대상이다. '쇠문'은 화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의 성격을 지닌다.

(2) 교체 (나)에서 화자가 찾고자 하는 '잃은 것'은 담 (이쪽, 저쪽)에 있다.

담 이쪽에 있는 화자가 찾고자 하는 '잃은 것'은 담 '저쪽'에 있는 화자의 본질적 자아이다.

(3) 교체 (다)에서 '(미타찰, 이에 저에)'은/는 화자의 종교적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미타찰'은 화자가 누이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곳으로, 화자의 종교적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428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교체 ~~ⓐ~~ ⓑ는 '풀 한 포기 없는'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걷고 있다.

ⓐ의 '내'는 '담 저쪽에' 남아 있는 본질적 자아를, ⓑ의 '내'는 그러한 본질적 자아를 찾는 현실적 자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잃어버린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 '풀 한 포기 없는 길'과 '긴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이다.

오·오·이

① ⓐ를 찾는 것이 ⓑ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살아가는 이유는, '잃은 것', 즉 담 저쪽에 있는 ⓐ를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와 ⓑ는 굳게 닫힌 '쇠문'과 '돌담'으로 인해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돌담 저쪽에 있는 ⓐ를 찾고자 하지만 '쇠문'과 '돌담'이라는 장애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있다.

④ ⓑ가 '주머니를 더듬어' 찾으려고 한 것은 결국 ⓐ라고 할 수 있다.

ⓑ가 주머니를 더듬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행위이며, ⓑ가 찾으려 한 것은 결국 ⓐ라고 할 수 있다.

⑤ ⓑ는 길을 걷는 동안 '담 저쪽'에 있는 ⓐ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작정 길을 나섰던 ⓑ는 길을 걷는 동안에 담 저쪽에 있는 ⓐ를 인식하게 된다.

42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감 정조(단순한 감각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와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느낌.

정·정·이

⑤ 부재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가)에서 토속적인 방언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토적인 정감도 환기되지 않는다.

오·오·이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하이얀 여울턱에 ~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등에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화자의 의지와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하이얀'은 '하얀'의 음절 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고, '그

대인가고'는 '그대인가 하고'의 음절 수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다. 이를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마지막 행에서 '그대인가고'를 반복하여 '그대'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심화하고 있다.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이얀', '희게'와 같은 색채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30 답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에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29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ㄴ. '희게'와 같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29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ㄷ. 범위 오류 '하이얀'과 '그대인가고'에서는 음절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하이얀'은 '하얀'의 음절 수를 늘린 것이지만, '그대인가고'는 '그대인가 하고'의 음절 수를 줄인 것에 해당한다.

ㄹ. 화자 오류 '그대인가고'를 반복함으로써 기다림 끝에 '그대'를 만난 화자의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대인가고'를 반복함으로써 '그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아직 '그대'를 만나지 못했다.

43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시각적 이미지로 재회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에서 재회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기에 시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오·이

① 감탄사를 활용하여 감정을 집약하고 있다.
9행에서 '아아'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감정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의문형 진술을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어찌 갑니까'와 같이 의문형 진술을 통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④ 대상이 못다 한 말을 언급하며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다.
3행의 '나는 간다'는 시적 대상인 누이가 하지 못한 말로, 누이가 간다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한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다.

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 가지에 나고'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과 화자가 동기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② 시각적 이미지로 재회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시의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표현 방식과 그 효과가 모두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해요. 이 작품에는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②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소망을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432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소재이므로 '바람'은 누이의 죽음을 가져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과 관련이 있다. 반면 A의 '바람'은 '도화'를 지게 하는 자연물일 뿐, 화자의 시련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람(㉮)'은 '잎'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B의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A의 화자는 떨어진 '도화'를 그대로 두고 보려 하는데, 이때 '도화'는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소재이므로 화자의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잎(㉯)'과 달리, B의 '나무'는 임을 그리워하다 병이 든 화자 자신을 비유한다.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의 '바람'에 의해 떨어지게 된 '잎(㉯)'과 A의 '바람'에 의해 진 '도화', B의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는 모두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눈물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나타낸 것이겠군.

5연에서 화자가 '눈물짓'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① 굳게 닫힌 '쇠문'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군.

3연의 굳게 닫힌 '쇠문'은 화자와 '잃어버린 나'와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는 것은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의미하겠군.

4연에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고 하였으므로, 화자의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④ '부끄럽게'를 통해 화자가 하늘을 보며 자기 성찰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5연에서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화자의 자기 성찰로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겠군.

6연의 '담 저쪽'의 '나'는 화자가 '잃어버린 나'이므로,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51 가 어부단가 나 독을 차고 다 가정

작품 분석 본문 202~205쪽

가 어부단가

작가 이현보
갈래 연시조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흥취와 나라에 대한 걱정
특징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대구법, 설의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함.
③ 자연과 속세를 드러내는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고 있음.
한 줄 의미
❶ (인세(속세))를 잊고 사는 어부의 걱정 없는 삶
❷ 자연에 몰입하여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삶(생활))
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나 독을 차고

작가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삶에 대한 의지
특징 ①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② 대비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독)을 차고 살아가는 '나'
❷ 독을 차서 무엇 하느냐는 (벗)의 충고
❸ 독을 차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
❹ 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나'의 굳은 (의지)

다 가정

작가 박목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가장으로서의 고달픔과 가족에 대한 사랑
특징 ① 시어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② 다양한 비유를 활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현관에 놓인 (아홉) 켤레의 신발
❷ 고달픈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옴.
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낌.
❹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43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가)는 시름 없는 어부의 삶을 그리고 있으나, 제5수에서 '어주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나)는 '허무한듸!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며 화자를

설득하는 벗의 말에 삶의 허무함을 인정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는 스스로를 '연민'하며 가장의 책임감을 느끼는 데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 있다.
(가)는 제5수의 '장안을 돌아보니 ~ 잊은 때가 있으랴'에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 (다)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범위 오류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
(나)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독'을 차고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다)의 화자는 고달픈 현실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범위 오류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다)는 화자가 '신발'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나)에는 '내 마음을 노리'고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로 표현된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지만, (가)와 (다)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43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순응**: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

정·정·이

(1) 화자 오류 (가)에는 ~~현실 극복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 ⊗)
(가)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흥취와 나라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 현실 극복에 대한 화자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상반 (나)에는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여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
(나)에서 화자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라며 현실과의 대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여 살고자 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3) (다)에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
'눈과 얼음의 길',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연민한 삶의 길',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이라는 표현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다.

43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범위 오류 ~~(나)와~~ (다)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다)는 '눈과 얼음의 길', '추운 길'에서 느껴지는 현실의 차가운 이미지와 '아랫목'에서 느껴지는 가정의 따뜻한 이미지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나)와 (다)는 각각 '독'과 '신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독'이라는 시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고, (다)에서는 가족에 대한 가장의 사랑과 책임감을 '신발'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는 '허무한듸!', '아!'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다)는 '연민한 삶의 길이여.'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는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등에서 대화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다)는 '귀염둥아 귀염둥아 / 우리 막내둥아', '내 얼굴을 보아라' 등에서 화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⑤ (다)는 (나)에 비해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의 화자는 막내둥이의 작은 신발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아랫목에 모인, 강아지 같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이에 비해 (나)에서는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43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책무**: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정·정·이

③ 헛짚기 ㉢: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슬픔~~이 나타나고 있다.

'연민한 삶의 길(㉢)'에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스스로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난다. 화자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고 있으므로,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슬픔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 시적 화자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을 의미한다.

'시인의 가정(㉠)'은 '눈과 얼음의 길' 등으로 표상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아홉 명의 자식과 화자가 함께하는 곳으로, 화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 막내둥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화자의 신발은 '십구 문 반(㉡)'으로, 막내둥이의 '육 문 삼'의 작은 신발과 대비되는데, 이는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 어미처럼 보살펴 주어야 할 어리고 귀여운 자식들을 비유한다.

자식들을 '강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화자가 자식들을 보살핌이 필요한 어리고 귀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 반복을 통해 아버지의 등장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책임감을 부각하고 있다.

㉤의 '내가 왔다'와 이어지는 '아버지가 왔다'에서 '왔다'를 반복함으로써 아버지인 화자의 등장이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부각되고 있다.

438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화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으로 표상되는 고달픈 삶의 현실을 견뎌 내고 있다.

화자가 지켜야 할 대상은 '시인의 가정'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화자는 '연민한 삶의 길(㉢)'의 혹독함을 견뎌 내고 있다.

(2) 교체 (㉡)은 막내둥이의 신발과 대비되어 가장의 삶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내 신발은 / 십구 문 반(㉡)'은 '육 문 삼'밖에 되지 않는 막내둥이의 작은 신발과 대비되는데, 이는 가장이 짊어진 책무가 그만큼 무겁고 큼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3) 교체 (㉣)에는 아버지인 화자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 있다.

'강아지 같은 것들아(㉣)'는 화자가 자식들을 부르는 말로,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439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헛짚기 '천심', '만첩', '십장'은 '장안'과의 ~~연대감~~ 거리감을 드러낸 표현이군.

'천심'이나 되는 녹수와 '만첩' 청산이 '십장'이나 되는 홍진을 가렸다는 점에서 '천심'과 '만첩'은 '장안'으로 대표되는 속세와의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십장 홍진'은 속세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장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어이지만, '장안'과의 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어부의 생애'는 화자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시름이 없는 '어부의 생애'는 화자의 유유자적한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인세', '홍진'은 화자가 있는 곳과 대비되는 공간이군.

화자가 잊었다고 하는 '인세'와, 녹수와 청산에 가려진 '홍진'은 화자가 있는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를 의미한다.

④ '잊은 때가 있으랴'는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어주'에 누워서도 '북궐'을 잊은 때가 없다는 것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화자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세현'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엿볼 수 있군.

'제세현이 없으랴'는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현실 정치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드러난다.

44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시심**: 시흥(시를 짓고 싶은 마음. 또는 시에 도취되어 일어나는 흥취)이 생기는 마음.

정·정·이

③ 헛짚기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가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향 집을 떠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작가 김영랑은 세속의 명리를 탐하지 않고 고향 집에 머무르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리라'라는 표현을 집을 떠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을 차고 '가리라'라고 한 것은 독을 차고 살아가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오·이

① '내 마음을 노리매'라는 시어에서 작가의 고통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리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리매'라는 구절에서는 작가의 고통과 위기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마음속에 '독'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마음속에 '독'을 차고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보기〉에서 알 수 있듯, 김영랑은 고향 집 뜰에서 시심을 가꾸며 삶을 보냈으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④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다.

삶이 허무하다며 독을 차서 무엇 하느냐는 '벗'과, 독을 차고 살겠다는 화자의 대화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떳떳한 길을 살고자 한 작가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작가가 고향 집에서 시심을 가꾸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보기〉에서 작가는 고향 집에서 곱게 피는 모란을 어루만지면서 시심을 가꾸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독'을 차고 살겠다는 시를 쓴 것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매우 고통스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441 답 (1) 벗 (2) 독 (3) 일제 강점기의 현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벗, 이리 승냥이)'와/과의 대화를 통해 시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독을 차서 무엇 하느냐는 벗과 화자의 대화를 통해 시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리 승냥이'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2) 교체 마음속에 지녔던 '(독, 혼)'이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대항으로 발현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40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마음속에 지녔던 '독'이 시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이나 저항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체 고향 집에서 시심을 가꾸며 살았던 작가이지만, (일제 강점기의 현실, 남도의 인정)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창작의 계기가 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3연에서 독을 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괴로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42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교체 ~~B~~ A: 저는 선생님과 달리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 했지요.

(가)에서는 속세를 의미하는 '인세', '홍진', '장안' 등과 자연을 의미하는 '녹수', '청산' 등이 대조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대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B: 선생님 시에는 저의 시와 마찬가지로 선명한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는군요.

〈보기〉에는 '눈'과 '붉은 꽃'이라는 선명한 색채 이미지가, (가)에는 '녹수', '청산', '홍진', '월백' 등에서 선명한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

② A: 네. 우리의 시에 어부가 등장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가)의 '어부의 생애로다'와 〈보기〉의 '배 붙여라 배 붙여라'를 통해 모두 어부가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A: 선생님은 흥(興)이라는 정서를 끌어냈는데, 저는 아직도 무심(無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는 '흥치며 걸어가서'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후렴구를 통해 흥의 정서를 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는 '더욱 무심하여라.'를 통해 (가)의 작가가 무심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B: 선생님의 시에 나타나는 '없으니', '잊었거니', '무심하여라' 등의 시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군요.

'없으니', '잊었거니', '무심하여라' 등의 시어는 화자가 추구하는 무심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43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내맡긴 신세'는 화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김영랑의 초기 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내 마음'을 노래했으나, 후기 시는 외부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나)는 후기 시에 해당하는 작품이므로 화자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다.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는 화자가 처한 현실을 의미한다.

오·오·이

① '새로 뽑은 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나)의 화자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새로 뽑은 독'은 외부 세계로부터 화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이리 승냥이'는 화자가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리 승냥이'는 화자의 마음을 노려 화자에게 덤비는 존재로, 화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품고 살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에서 부정적 외부 세계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는 〈보기〉에 언급된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모습, 즉 부정적 외부 세계에 맞서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외로운 혼'은 식민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은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독'을 차고 선선히 가려는 이유는 자신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외로운 혼'은 식민지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키고 싶은 시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52 가 휴전선 나 우포늪 왁새 다 주을 온천행

작품 분석 본문 206~209쪽

가 휴전선

작가 박봉우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민족 분단의 비극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
특징 ① 수미상관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줌.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③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냄.

한 줄 의미

❶ 남과 (북)이 대립된 현실에 대한 인식
❷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안타까움
❸ (분단)의 현실로 쇠퇴해 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
❹ 다시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분단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
❺ 남과 (북)이 대립된 현실에 대한 한탄

나 우포늪 왁새

작가 배한봉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 우포늪의 생명력과 아름다움
특징 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우포늪의 풍경과 소리꾼의 모습을 형상화함.
② 실제 지명과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함.

한 줄 의미

❶ 한 소리꾼이 (왁새) 울음 되어 우포늪을 찾아옴.
❷ 소리꾼이 평생 찾아 헤맨 소리를 (우포늪)에서 찾음.
❸ 우포늪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무르익게 하는 왁새 (울음)

다 주을 온천행

작가 김기림
갈래 현대 수필
주제 오심암의 경관에 대한 예찬과 세속적 삶에 대한 반성
특징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연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함.
② 자연과 세속적인 삶을 대조하여 깨달음을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깨끗하고 겸손한 (오심암)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성찰함.
❷ 오심암을 떠나는 (아쉬움)과 재회에 대한 약속

444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예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 **직시**: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똑바로 봄.

정·정·이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남북 분단의 현실과 연결 지어 우리 민족이 겪는 비극과 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진정한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소리꾼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연결 지어 그의 삶과 우포늪이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에서는 오심암이라는 바위로 대표되는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 공간과 세속적 삶에 물든 글쓴이를 대비하여 세속적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가)~(다)는 모두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런 세계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으며,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라 예견하고 있지도 않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 역시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③ 범위 오류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가)는

(가)에서는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부정적인 역사적 상황을 직시하고 있지 않다.

④ 범위 오류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 (다)는

(나)의 화자는 우포늪의 생명력을,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의 겸손하고 순결한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화자는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다)는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한 자연과 다른, 교만한 인간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에는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445

답 (1) 휴전선 (2) 우포늪 (3) 오심암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는 (휴전선)의 의미를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주제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가)는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남북 분단의 현실과 연결 지어 우리 민족이 겪는 비극과 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2) 교체 (나)는 (우포늪)의 왁새 울음소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자연과 치열한 예술혼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절창을 찾아 헤맨 소리꾼의 예술혼과 우포늪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왁새 울음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3) 교체 (다)는 (오심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에서는 오심암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며, 인간과 대비되는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446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부재 (가)는 ~~지각의 흐름~~에 따라, (나)는 ~~지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휴전선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남북 분단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비판과 분단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는 한 소리꾼의 삶을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관련지어 형상화하고 있을 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가)는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가)는 1연과 마지막 연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분단의 극복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 한 대목 절창'(청각의 시각화),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청각의 촉각화) ~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청각의 시각화)' 등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왁새 울음과 소리꾼의 모습을 감각적이고 선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가)는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는 시어인 '꽃'을 통해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평생 진정한 소리를 추구했던 소리꾼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우포늪에서 구현된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이 지닌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가)에서는 '화산', '꽃', '바람'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진정한 소리를 찾고자 했던 소리꾼의 예술혼을 '우포늪 왁새'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44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흠결**: 일정한 수효에서 부족함이 생김. 또는 그런 부족.
- **엄습**: 감정, 생각, 감각 따위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거나 덮침.

정·정·이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가)에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과 대조되는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티끌을 품은 듯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자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범위 오류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남과 북이 신뢰를 잃은 적대적 상황 속에서 민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므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의 '검은 절경'은 붉게 누렇게 물든 단풍과 조화를 이루는 오심암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한 것이므로,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과는 거리가 멀다.

③ 헛짚기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 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 즉 전쟁으로 인해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의미하므로, 전쟁을 이겨 낸 삶의 의지를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다)의 '찬기'는 글쓴이로 하여금 자신이 '거리' 즉, 속세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을 환기한다. 글쓴이가 '찬기'로 인해 잠시나마 정든 오심암을 떠나고는 있지만, 이때 드러나는 심정은 아쉬움이지 절망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범위 오류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민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므로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미친 바람'은 먼지를 품고 있는 부정적 존재를 상징하므로,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⑤ 범위 오류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가)의 '요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꽃'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바위'는 세속적 삶을 잠시나마 망각하게 하는 존재이므로,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의하는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48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의 '천동 같은 화산', '징그러운 바람'은 전쟁의 참혹성을 환기한다. (○, ×)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일어날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징그러운 바람'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휴전 상태인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의 참혹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2) 헛짚기 (다)의 '미친 바람'은 ~~글쓴이가 속세로부터 골짜기로 몰고 온~~ 먼지 바람을 의미한다. (○, ×)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을 글쓴이가 속세로부터 몰고 온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글쓴이는 이 골짜기에는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골짜기의 순결한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49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헛짚기 ㉠과 ㉡은 모두 ~~절망적인 심정을 내포하는군~~.

(나)의 '왁새 울음(㉠)'은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는 것으로 화자가 '소리꾼'과 관련짓는 대상이고, (다)의 '오심암의 절경(㉡)'은 글쓴이가 예찬하는 대상이므로 모두 절망적인 심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오·이

② ㉠과 ㉡은 모두 예술적 경지를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군.

(나)의 화자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던 소리꾼 사내의 예술적 지향을 우포늪의 '왁새 울음(㉠)'에서 발견하고 있고,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의 절경(㉡)'을 본 소감을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에게 ㉠은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환기하는군.

(나)의 화자는 우포늪의 '왁새 울음(㉠)'을 들으며 본 우항산 솔밭, 우포늪 둔치 등의 자연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다)의 글쓴이에게 ㉡은 겸손의 가치를 상기시키는군.

'오심암의 절경(㉡)'을 두고 글쓴이는 '겸손한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의 화자는 ㉠을 통해 한 소리꾼 사내의 삶을 떠올리고 있고, (다)의 글쓴이는 ㉡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군.

(나)의 화자는 '왁새 울음(㉠)'을 통해 절창을 찾아 떠돌던 소리꾼 사내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다)의 글쓴이는 '오심암의 절경(㉡)'을 보고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450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결부**: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킴.

정·정·이

⑤ 상반 [E]: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동일시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하고,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E]는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하는 소리꾼의 영혼을 동일시하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예술의 경지를 그려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왁새와 소리꾼을 대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① [A]: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A]가 화자가 상상으로 떠올린 연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고(①), [C]가 늪 뒷산 솔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왁새 소리를 소리꾼이 찾던 절창처럼 느끼는 화자의 놀라움이 담긴 부분임(③)을 알 수 있다.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의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고단하고 외로웠던'으로 보아, [B]는 득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소리꾼의 삶의 비애를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화자가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리꾼을 상상했다는 〈보기〉와 실제 지명이 나오는 [D]로 보아, 화자가 상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했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보기〉를 통해 작품을 한결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④에서 [D]의 '소목 장재 토평 마을'이 현실적 공간이 맞는지 알지 못해서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나요? 하지만 ④의 핵심은 '화자가 상상한 것을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결부했다는 것'이므로 ④는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이처럼 자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지의 단어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진술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45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적막한 늪'과 '시퍼런 물살'은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

'적막한 늪'은 우포늪의 모습을, '시퍼런 물살'은 '소목 장재 토평 마을 양파들'의 모습으로 모두 우포늪과 주변 마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꿈속'에서도 '절창'을 찾아 떠돌았다는 데서 득음에 대한 소리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꿈속'에서조차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며 진정한 소리를 찾아 헤매는 소리꾼의 모습은 득음에 대한 열망을 보여 준다.

②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는 '왁새 울음'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왁새 울음'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신다는 데서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우포늪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는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뜻한다.
소리꾼이 필생 동안 찾아 헤맸던 소리는, 득음의 경지에 이른 소리, 즉 절창을 의미한다.

⑤ '우포늪 꽃잔치'를 무르익히는 '소리꾼 영혼의 심연'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 준다.
'완창 한 판'을 끝내고 하늘을 선회하는 '소리꾼 영혼의 심연'은 '우포늪 꽃잔치'를 무르익히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 준다.

45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문체**: 문장의 개성적 특색. 시대, 문장의 종류, 글쓴이에 따라 그 특성이 문장의 전체 또는 부분에 드러난다.
- **통찰**: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정·정·이

④ 헛짚기 ⓓ 학생 4: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의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순결한 자연에 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먼지, 즉 세속의 때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때 '티끌'은 세속의 더러움을 표현한 것이지 자연이 '티끌'처럼 작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오·이

① ⓐ: 학생 1: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오심암 주변의 가을 풍경을 붉고 누렇게 물든 단풍, 검은 바위, 푸른 하늘빛, 흰 구름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② ⓑ 학생 2: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글쓴이는 오심암의 절경, 즉 자연을 '예술의 극치'라며 예찬하는 반면, 사람의 예술을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③ ⓒ 학생 3: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글쓴이는 오심암이 인간과 달리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함을 지녔으며, 인간과 달리 먼지 하나 없는 순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통찰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 학생 5: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오심암을 바라보며 먼지 낀 의복을 입은 자신을 굽어보고,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몸뚱어리'와 '마음'을 지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다.

453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오심암'의 가을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
'짙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에서 '오심암'의 가을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화자 오류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 앞에서 멀리 있는 '벗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속세를 영원히 떠날 수는 없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
글쓴이는 좋은 것, 즉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벗들을 떠올리고 있다. 벗들이 속세에 속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속세를 떠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전달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3 가 꽃덤불 나 사랑 다 보리

작품 분석 본문 210~213쪽

가 꽃덤불

작가 신석정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광복 후의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소망
특징 ① 상징적 시어와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③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한 줄 의미

❶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 (**광복**)에 대한 소망
❷ (**조국**)의 광복에 대한 소망과 광복을 위한 노력
❸ 일제 강점하의 비극적 (**현실**)
❹ (**광복**)을 맞은 조국
❺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기대**)

나 사랑

작가 전봉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특징 ① 수미상관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형태적 안정감을 줌.
②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냄.
③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행위에 빗대어 표현함.

한 줄 의미

❶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① – (**정성**)을 다해 사랑의 토대를 만들어야 함.
❷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② – 사랑하는 대상에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함.

다 보리

작가 한흑구
갈래 현대 수필
주제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예찬
특징 ① 시각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② 옛말을 인용하여 보리를 심는 농부의 정성을 강조함.
③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친근하게 지칭함.

한 줄 요약

❶ 늦은 (**가을**)에 농부가 보리를 심음.
❷ 추운 (**겨울**)을 이기며 자라나는 보리의 강인함
❸ (**봄**)이 되어 무성하게 자란 보리의 생명력

454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태양을 등진 곳', '밤', '헐어진 성터' 등의 표현을 통해 광복 이전의 암담한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 등의 표현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 '얼음같이 차디찬 눈' 등의 표현을 통해 보리가 자라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겨울의 추위를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겨울밤 달'이 찬 현실과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을 봄이, (나)에서는 '비바람이 삼킨 어둠'과 '훤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가, (다)에서는 춥고 어두운 겨울과 따뜻한 봄의 대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대조는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의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범위 오류 (다)는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다)에서는 '누렇던', '푸른'과 같은 색채어를 통해 겨울을 이겨 내고 자라난 보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 (나)에서는 색채어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부재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가)~(다) 모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헛짚기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태양', '꽃덤불', (나)는 '과목', (다)는 '보리'와 같은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55 답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 (나)~~, (다)는 모두 사물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
(다)에서는 보리를 '너'라고 부르며 보리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 (나)에서는 사물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2) (가)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
'태양', '봄', '꽃덤불' 등의 긍정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와 '태양을 등진 곳', '밤', '겨울밤'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3) (나)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
(나)는 '~는 일이다.'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

성하고 있다.

(4)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

(다)는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고 봄에 결실을 맺는 보리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45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단서**: 어떤 일의 시초
- **엄중**: ① 몹시 엄함. ② 엄격하고 정중함.

정·정·이

① ⓐ는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나)는 ⓐ를 통해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노래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는 시상 전개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 ⓐ가 반복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와는 관련이 없다.

③ 헛짚기 ⓐ는 구체적인 행위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인간의 생애와 대조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가 과목을 심고 돌보는 구체적인 행위에 비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경외감을 자아낸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인격이 부여된 존재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생애와 대조되고 있지 않으며 비장감을 자아낸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화자 오류 ⓐ는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대상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있고, ⓑ가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 ⓑ 모두 대상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⑤ 헛짚기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는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노래하기 위한 시상의 단서이므로,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다)는 보리가 겨울을 이겨 내고 자라나는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는 존재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457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권태**: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싫증.
- **적대적**: 적으로 대하거나 적과 같이 대하는 것.

정·정·이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직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항상'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 즉 조국 광복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부각하는 시어이다. (가)의 화자에게서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화자 오류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드디어'는 '서른여섯 해'나 되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 지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간절히 기다리던 광복을 맞게 되었음을 부각하는 시어이다.

④ 화자 오류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데, '아무리'는 이러한 적대적인 것들이 화자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화자 오류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혹독한 겨울을 이겨 낸 보리가 온 누리를 뒤덮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로, '이미'에는 보리의 강한 생명력을 예찬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458 답 (1) 서른여섯 해 (2) 보리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화자는 (서른여섯 해, 꽃덤불)을/를 회상하며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지난 서른여섯 해의 일제 강점기를 회상하며, 광복을 맞은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고 있다.

(2) 교체 (다)의 글쓴이는 (보리, 노고지리)를 예찬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푸르게 자라난 보리를 예찬하고 있다.

45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천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 **해설피**: 해 질 무렵 햇빛이 옅거나 약한 모양.

정·정·이

⑤ 지금 눈 나리고 /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다시 천고의 뒤에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A]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노래하고 있다. ⑤의 화자 역시 눈이 내리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백마 탄 '초인'이 올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별의 상황에서 자신을 떠나는 임을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겠다는 화자의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

② 헛짚기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화자가 '얼룩백이 황소'가 울음을 우는 '그곳',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헛짚기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무정한 '당신'에 대한 화자의 희생과 헌신이 드러난다.

④ 헛짚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화자가 봄의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460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 버린 벗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가)의 '몸'과 '맘'을 팔아 버린 벗들은 사랑하는 대상, 즉 조국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하여 위협적인 것들로부터 조국에 대한 사랑을 지켜 내지 못한 이들로 볼 수 있다.

오·오·이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를 헤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헐어진 성터'는 조국이 상실된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로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오롯한 태양', 즉 조국 광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대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늘 마음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해충'은 과목의 뿌리를 썩게 하는 존재로,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위협에 맞서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밤'은 '과목'을 위협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은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밤이 가고 나서 봄이 도래한 후에 가능한 일이며, '새 과목'이 솟는 것은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고통과 시련을 이겨 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가 지극한 노력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랑의 결실에 해당한다.

461 답 (1) 결실 (2) 관심 (3) 지키지 못한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의 '꽃덤불'에 안기고,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모두 사랑의 (결실 노력)을 의미한다.

460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의 '꽃덤불'에 안기고,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2) 교체 (가)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누는 '이야기'와, (나)의 '지켜보는

일'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위협)을 의미한다.

460번-①, 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가)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누는 '이야기'와 (나)의 '지켜보는 일'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3) 상반 (가)의 3연의 '벗'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으려는 것들로부터 그 대상을 (지킨,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나)의 '영영 잃어 버린 벗', '멀리 떠나 버린 벗', 몸과 마음을 '팔아 버린 벗'은 사랑하는 대상, 즉 조국을 빼앗으려는 위협적인 것들로부터 조국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46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정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봄의 춤'은 보리가 푸르게 자라 '온 누리'에 넘실거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보리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를 겸손함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굳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은 인내심이라는 인격적 속성과 연결할 수 있다.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들국화와 잔디 같은 다른 생명들이 추위에 고개를 숙이고 시들어 갈 때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은 고난을 이겨 내는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보여 준다.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다른 화초들이 모두 잠든 겨울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보리의 모습에서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노고지리들이 보리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라는 것은 보리밭이 노고지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 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리의 모습을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463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장미꽃 향내'와 '태양'은 ~~흙덩이들을 호미와 곡괭이로 낱낱이 부수며 고난을 견딘 농부들에게 찾아올 환희~~를 의미한다.

'장미꽃 향내'와 '태양'은 보리가 겨울을 견디면서 꿈꾸는 것들이다. 농부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성하게 자란 보리이므로 '장미꽃 향내'와 '태양'은 농부들에게 찾아올 환희라고 보기 어렵다.

오·오·이

① 보리가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는 것에서 보리의 끈기와 생명력을 느낄 수 있군.

추운 겨울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는 것에서 긴 겨울의 추위와 어둠을 이겨 내는 보리의 끈기와 생명력이 드러난다.

② 보리를 '정성껏 땅속에 묻'고 '희망의 봄'을 간직하는 농부들의 모습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본성을 보여 준다.

보리를 묻고, 봄이 되어 이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는 농부의 모습은 참을성 있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농부들의 본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은 보리가 이겨 내야 할 긴 겨울의 추위를 형상화한 것이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은 겨울에 불어오는 것으로, 보리가 이겨 내야 할 긴 겨울의 추위를 형상화한 것이다.

⑤ 봄이 되어 보리가 푸르게 '온 누리를 뒤덮'은 것은 결실의 보람으로 볼 수 있다.

봄이 되어 보리가 푸르게 자라나 '온 누리를 뒤덮'은 것은, 고난을 참고 견디면 따라오는 결실의 보람이라 할 수 있다.

54 가 초가 나 거산호 2 다 담초(談艸)

작품 분석 본문 214~217쪽

가 초가

작가 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피폐해진 현실 상황
특징 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비유적 표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고립된 산기슭에서 (**고향**)을 떠올림.
❷ (**봄날**)의 고향의 모습
❸ 홍수가 난 여름의 고향과 (**젊은이들**)이 떠난 삭막한 가을의 고향
❹ 수확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말싸움**)만 일어나는 고향
❺ (**강물**)조차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의 고향

나 거산호 2

작가 김관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산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에의 동화
특징 ①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② 가변적인 인간사와 불변하는 자연을 대비함.
③ 역설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늘 변함없는 (**산**)의 모습
❷ 덕성을 지니고 삶의 (**모범**)이 되는 산
❸ 삶과 (**죽음**)을 산과 함께함.
❹ 산을 끝없이 (**그리워**)하며 삶.

다 담초(談艸)

작가 이옥
갈래 고전 수필
주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
특징 ① 의인법, 문답법, 설의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냄.
한 줄 요약

❶ (**꽃**)을 베는 것을 보고 탄식함.
❷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어 (**차별**)하는 인간에 대해 성찰하며, 차별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는 (**풀**)의 덕성을 예찬함.

46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쇠락**: 쇠약하여 말라서 떨어짐.
- **무상감**: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정·정·이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자연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고 하며,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며 인간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헛짚기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는 피폐해진 농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 있으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 오류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사람은 맨날 변해 쌓'는다며 세속적 삶을 의미하는 장거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의 덕을 배우며 산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재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피폐해진 고향의 모습이 드러날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이나 인생에 대한 무상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다) 역시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꽃과 하찮게 여기는 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이나 인생에 대한 무상감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범위 오류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산과 교감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에 나타난 장소는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이며, 화자는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다)의 1문단에서 글쓴이는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드러나 있지 않다.

465 답 (1) × (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다)는 모두~~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

(가)는 봄에서 겨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고향의 자연의 모습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나), (다)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헛짚기 (가)~(다)에서는 모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연 속에서 찾고~~ 있다. (○, ⊗)

(가)의 자연은 고향의 모습을 보여 줄 뿐, 인간의 문제 해결과는 관계가 없다. (나)의 화자는 '산'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있을 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연 속에서 찾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자연 속에서 찾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6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가)의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이미지의 '박쥐 나래'는 좀이 쳐진 낡고 어두운 이미지의 '고향을 그린 묵화'와 연결되면서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향하여 앉'아서,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겠다고 하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나)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가)에서 '묵화'는 ~~'풍년'이 상징하는 희망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가)에서 '묵화'는 어두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풍년'은 고향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고향 마을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묵화'가 '풍년'이 상징하는 희망적 상황에 대응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의 '저승의 밤'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절망적인 상황과는 관계가 없고, 화자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 '북창'과 대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범위 오류 (가)에서 '묵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지점~~을 드러낸다.

(가)에서 고향을 그린 '묵화'에 '좀'이 쳤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좀이 쳐'는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에서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에서 알 수 있듯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이 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범위 오류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야 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닿을 수 없는 세계의 고립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가)에서 '묵화'를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오랜 세월에 낡고 닳아서 부분적으로 떠오르는 조각, 즉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화자의 생각 속에서 띄엄띄엄 떠오르는 분절된 고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산을 배우고 산의 정기를 그리며 살고자 하므로, 닿을 수 없는 세계의 고립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가)의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에는 '가시내'의 부끄러움의 정서가 담겨 있다. 그러나 (나)에서 '보옥'은 '산'의 겸허함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안타까움의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467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화자 오류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화자는 '산'이 '태고로부터 푸르러' 왔으며, '고요하고 너그럽고,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함을 지녔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산'이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를 통해, 화자는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산'은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을 통해 화자는 '산'이 삶과 죽음을 이어 준다고 보며,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를 통해 '산'을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네 품이 내 고향'이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리운 산아', '산을 그리며',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 등에서 화자가 '산'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화자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며,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운다고 하였다. 또한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 꿈 같은 산 정기를 그리며 산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화자는 '산'을 평생 함께하는 존재이자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시적 대상인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관점을 묻는 문제예요. (나)에서 '산'은 불변하고, 고요하고 너그럽고, 겸허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러한 특성들은 인간의 덕성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②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화자가 '산'을 보고 느낀 점이지, '산'이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②는 답이 될 수 없어요.

468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화자 오류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대응하여 ~~이승에서와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467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화자는 죽은 뒤에도 '산'과 함께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산을 배우네'라며 산에게서 깨우침을 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변함없고,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겸허한 '산'에게서 깨우침을 얻고 있다.

② '사람'과 '산'의 속성을 대비하여 '북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맨날 변하는 '사람'과 달리 태고로부터 푸르러 변하지 않는 '산'의 속성을 대비하여 '북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46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다고 한 것에서, '나'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이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① 화자 오류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는 모란과 해당화를 들어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라며 꽃의 '공교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화자 오류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어떤 자리에서 자라다 번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귀함'과 '천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화초가 자라나 번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③ 교체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하늘~~인간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나'는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를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상반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없다 본다.
'나'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47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정경**: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와 경치.

정·정·이

③ 헛짚기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조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C]에서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은 홍수가 나서 앞내강에 씨레나무가 떠밀려 왔다는 의미로, 홍수로 인해 풍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C]는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는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오·이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서 작가가 (가)를 유폐된 지역에서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리며 지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은 유폐된 지역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B]에서는 '보리밭에 말매나물', '종달새 소리' 등으로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D]의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에는 애써 지은 농사의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에는 이러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서 (가)는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 '강물조차 얼붙는다'와 같은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71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기인**: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둠.
- **냉엄하고**: 일이나 상황이 조금도 빈틈없이 엄격하고.

정·정·이

② 헛짚기 '젊은이'가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다는 표현에는 유폐된 지역에서 시를 쓰던 시인의 ~~조망이 투영되어 있다~~.

〈보기〉를 통해 시인이 고향을 떠올리며 (가)를 유폐된 지역에서 창작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으나, 시인이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젊은이'에게 자신의 소망을 투영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젊은이'가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다는 표현은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난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오·오·이

① '술래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핀 모습은 평온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술래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핀 모습은 두 뺨이 붉게 물든 고향 마을의 가시내들을 묘사한 것으로, 고향의 평온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는 것에서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하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피로 가꾼 이삭'은 수확의 결실을 의미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고 '참새로 날아가' 버린 것에서 일제에 수탈당하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곰처럼 어린 놈'이 꿈꾸는 '북극'은 현실 너머의 이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강물조차 얼붙는' '한겨울 밤'은 냉엄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흐르는 강물조차 얼어붙는 한겨울 밤은, 냉엄하고 고통스러운 고향 마을의 비극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7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

여 주는군.

'호롱불'은 어두울 때 켜는 것이므로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젊은이'가 항구로 갈 때 타고 간 '뗏목'은 물결이 거세지면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것으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젊은이의 불안정한 삶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물건을 사고파는 '장거리'는 이해타산에 따라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풀은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고, 나비가 다투어 찾는 풀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73 답 (1) 성에 (2) 장거리 (3) 요황과 위자, 범상한 화초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가)에서는 겨울에 생기는 '(성에, 입김)'(으)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에서는 겨울에 생기는 '성에'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2) 교체 (나)에서는 '(장거리, 고향)'(이)라는 공간으로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나)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이해관계가 얽힌 '장거리'의 속성을 통해 세속적 삶의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3) 상반 (다)에서는 귀하게 대접받는 '(요황과 위자, 범상한 화초)'와 천하게 대접받는 '(요황과 위자, 범상한 화초)'를 대비해 풀의 차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다)에서는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요황과 위자'를 '범상한 화초'와 대비하여 귀하게 대접받는 풀과 천하게 대접받는 풀의 차이를 형상화하고 있다.

55 가 강 건너간 노래 나 묘비명 다 삶의 반영으로서 시

작품 분석 본문 218~221쪽

가 강 건너간 노래

작가 이육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특징 ① 수미상관식 구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함.
②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냄.
③ 직유법, 대유법, 의인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겨울밤 (강) 건너간 '나'의 노래
❷ (사막)까지 날아간 '나'의 노래
❸ 노래를 보낸 (이유)와 노래가 지닌 한계
❹ 부정적 현실에 눈물짓는 (밤)
❺ (무지개)보다 고운 옛일을 떠올리며 의지를 다지는 밤

나 묘비명

작가 김광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물질적 가치를 좇고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는 세태 비판,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특징 ① 단정적 어조와 요약적 서술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② 반어법을 통해 비판의 효과를 높임.
③ 의문문으로 끝을 맺어 시인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물질적·세속적 가치만 추구한 인물의 (비석)
❷ (문인)도 물질적 가치를 좇는 현실 비판
❸ 역사가와 (시인)의 역할에 대한 성찰

다 삶의 반영으로서 시

갈래 설명문

주제 인간의 일상적 현실과 지향을 반영하는 시

한 줄 요약

❶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시의 특성
❷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시의 특성
❸ 시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시인의 자기 (성찰)적 태도

474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명시적**: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정·정·이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가)는 화자가 부른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것을 쨍쨍 언 강과 사막을 건너가는 의지적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묘비'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그것을 불의 뜨거움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남을 의지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가)와 (나)는 둘 다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현실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② 범위 오류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내가 부른 노래', '~ 갔소'와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지 않는다.

④ 범위 오류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는 '달 밝은 밤', 하늘 끝에 닿은 '사막', '눈물 먹은 별'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에서는 '불의 뜨거움'에서 촉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지만, 이것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범위 오류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 등의 표현은 물질적·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여 살았던 '그'의 비석을 지칭하므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반어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반어적 어조가 활용되지 않았다.

47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부재 (가)는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

5연의 '또 한 가락 어디멘가'에서 의문형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2) (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 등의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가)와 (나)는 모두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는 '섣달', '밤', '사막', '모래불' 등과, 희망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노래', '무지개' 등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에서는 정신적 가치를 의미하는 '시', '소설'과 물질적·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돈', '높은 자리'의 대립을 통해 물질적 가치를 좇고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을 형상화하고 있다.

47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가)는 첫 연과 마지막 연에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연의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라는 시행은 5연에서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로 반복되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오·이

② 부재 (나)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나)에서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으며, 청자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③ 범위 오류 (가)는 해학적 어조를 통해, (나)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가)에는 해학적인 어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나)는 평서형의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노래함으로써 비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부재 (가)는 경어체를 통해, (나)는 대화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갔소', '죽겠죠' 등에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에는 대화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가)와 (다)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에서는 '쨍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는 않다. 한편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47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나)는 '돈'이나 '높은 자리' 같은 물질적 가치로 인해 '시', '소설' 등의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한 줄의 시조차 읽지 않은 '그'가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 것은 반어적 표현이다. '묘비명'은 부정적 인물을 기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이다.

오·오·이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다)의 3문단에서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에서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부르는 '노래'는, 시인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겠군.

(가)의 '노래'는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부른 것이므로, 시가 집조차 없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이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시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겠군.

(나)의 '묘비명'은 '한 줄의 시'도 읽지 않고 '돈'이나 '높은 자리' 같은 세속적 가치만 추구했던 사람을 위해 쓰인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사람의 삶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묘비명'은 시인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화자는 묘비의 기록이 살아남아 후세에 '귀중한 사료'가 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보아 시인은 묘비명을 통해 시인으로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관해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①~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
③~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
선지에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과 같이 진술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시를 표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에서 언급한 시라고 할 때'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선지의 의미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478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조**: 자기를 비웃음.

정·정·이

① (가)의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은 일상적 진실을 시에 비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가)의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는 시구로, (다)에서 언급된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② 교체 (가)의 '계집애 집조차 없'는 현실은 ~~시인이 지향하는 당위적~~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시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③ 교체 (가)의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은 ~~있어야 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시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계집애 집조차 없'는 현실과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은 모두 암담한 현실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시인이 지향하는 당위적 현실, 즉 있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상반 (나)에서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살아 남'은 묘비는 시인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비판하는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살아남'은 묘비는 물질적·세속적 가치만 추구한 삶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인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⑤ 헛짚기 (나)에서 '한 줄의 시',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는 '그'에 대한 평가는 ~~시인 자신에 대한 자조~~라 할 수 있군.

화자는 '한 줄의 시',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는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가치를 경시하고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현실에 대한 비판이지, 시인 자신에 대한 자조라고 볼 수 없다.

479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극한**: 궁극의 한계. 사물이 진행하여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나 지점을 이른다.

정·정·이

④ 헛짚기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A]는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라는 관점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서 '반영'이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나타나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과 '있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지향을 담은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라는 표현은 '눈물', '조상(죽음)', '밤'의 이미지를 통해 일상적 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서는 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혹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노래가 건너간 강 저편의 공간적 배경을 '사막'으로 설정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상황이 삭막하고 고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화자가 절망적 현실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밤'에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대응시킴으로써, '있어야 하는 현실', 즉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480 답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범위 오류 '시'는 대상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로, '비석'은 대상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시'는 '그'가 한 줄도 읽지 않은 것으로 화자가 '그'를 비판하게 된 이유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비석'은 갈등 해소의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시'는 정신적인 가치를, '비석'은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② '시'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고, '비석'은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정신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시'는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비석'은 화자가 비판하는 대상이다(①, ②).

481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여기'에 있으므로 공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의 태도 또한 변화하지 않고 있다.

오·오·이

① ⓐ: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갔소'는 과거 시제를 사용한 표현으로, 화자가 노래가 강을 건너간 날을 회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②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노래가 '제비같이' 날아서 갔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노래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③ ⓒ: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어린 날개'가 지치면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을 것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슬픔, 죽음, 상실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48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무력감**: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 **평탄**: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감.

정·정·이

④ 헛짚기 '사막'은 '푸른 하늘'이 덮여 있는 공간으로,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는군.

'사막'은 화자가 부른 노래가 건너간 공간으로, '푸른 하늘'이 덮여 있기는 하지만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슬픈 공간이다. 또한 '사막'은 '노래'가 '모래불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막'을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섣달'과 '얼어 조이던 밤'은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암시하는 배경이군.

'섣달'과 '얼어 조이던 밤'은 모두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이다. 따라서 이는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어린 날개'는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시인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화자가 부른 '노래'는 강을 건너갔지만 '어린 날개'가 지치면,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약한 '어린 날개'는 식민지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느끼는 시인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떨어져 타서 죽겠죠'는 자신의 삶이 '노래'의 운명처럼 평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떨어져 타서 죽겠죠'는 '노래'가 계집애에게 전해지지 않고 죽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절망적 인식이 드러난다. (가)에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고뇌와 방황이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떨어져 타서 죽겠죠'는 자신의 삶이 '노래'의 운명처럼 평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또 한 가락 어디멘가'는 '노래'가 간 곳을 몰라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군.

'또 한 가락'은 화자가 '옛일'을 곱게 짜내어 만든 노래로, 강을 건너서 간 노래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노래'가 간 곳을 몰라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6 가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나 고풍 의상 다 결빙의 아버지

작품 분석 본문 222~225쪽

가 자연적 시간과 문학적 시간

갈래 설명문

주제 자연적 시간의 변형과 재구성을 통해 나타나는 문학적 시간

한 줄 요약

❶ (**자연적**) 시간을 재구성하여 드러내는 문학적 시간
❷ 작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시제**)의 적용
❸ 서정시의 시간의 (**모호성**)

나 고풍 의상

작가 조지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고풍 의상을 입은 여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고전적 아름다움

특징 ①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어투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선명히 드러냄.
③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시적 허용)를 통해 표현의 효과를 높임.

한 줄 의미

❶ (**봄밤**) 기와집의 정경
❷ 저고리와 치마의 (**아름다움**)
❸ 고풍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의 아름다움
❹ 고풍 의상의 (**아름다움**)에 도취됨.

다 결빙의 아버지

작가 이수익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어머니'를 청자로 한 대화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줌.
③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한 줄 의미

❶ 어린 시절 외풍을 막아 주던 (**아버지**)에 대한 회상
❷ (**자식**)을 돌보며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❸ 한강의 (**얼음**)을 통해 느낀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48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은 '봄밤'이라는 자연적 시간을 '두견이 소리'에 빗대어 문학적으로 재구성하여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짚기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은 대상을 곱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에 언급된,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 나게 드러내거나,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상반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묘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에서는 '건너', '열고'와 같이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표현하여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상반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 모호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에서 '이 밤'과 '옛날'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이지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⑤ 헛짚기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에서는 '흔들어지이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84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깜

- **고즈넉한**: 고요하고 아늑한.
- **직설적**: 바른대로 말하는 것.

정·정·이

(1) ㉠은 '두견이 소리'를 통해 봄밤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 ×)

483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은 '두견이 소리'에 빗대어 봄밤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에서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

㉡에서는 저고리와 치마를 보고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곱아라 고아라', '아름다운지고'와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3) 부재 ㉢에서는 ~~회상적 어조~~로 시적 대상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 ×)

시적 대상의 움직임을 '건너', '열고'와 같이 현재형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상의 움직임을 회상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8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깜

- **윤회론**: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三界六道)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돈다는 이론.

정·정·이

④ 헛짚기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얼어붙은 잔등'은 품 안의 여린 물살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혹한을 막고 있는 얼음의 모습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오·오·이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화자를 품에 안고 '외풍'을 막아 주셨다는 것을 통해, 추위로부터 자식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각된다.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회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는 것에서, 삶에 대한 윤회론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얼어붙은 잔등'의 품 안에서 혹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바다로 흘러가는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얼음'은 일반적으로 차가운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다)에서는 '여린 물살'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투영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48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짚기 '목조 적산 가옥 이 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1연의 '목조 적산 가옥 이 층 다다미방'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예닐곱 살 적 겨울'이라는 과거에 화자가 위치했던 공간이다.

오·오·이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

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다)는 화자가 '어머님'을 청자로 설정하여 유년 시절 아버지와 겪었던 일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잇고 있다.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2연에서 화자가 '옛날처럼 나는'을 말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이다.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3연에서 화자는 오늘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어렸을 때 자신을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화자의 과거와 현재가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3연에서 '그 겨울밤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7 답 (1) 현재 (2) 통합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목조 적산 가옥'에서 보낸 '겨울'의 이야기를 (과거, 현재)의 '나'가 전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다)는 어른이 된 현재의 '나'가 '목조 적산 가옥'에서 보낸 '예닐곱 살 적 겨울'의 이야기를 '어머님'께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상반 '오늘'의 '나'가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가 (통합, 분리)된다.

'오늘' '나'는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 주시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통합되고 있다.

488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2연의 '마음이 아프고', '눕고 싶습니다.'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을 실감 나게~~ 드러낸다.

'마음이 아프고', '눕고 싶습니다'에서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이는 화자의 현재의 심리를 드러낸 것일 뿐, 과거의 사건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오·이

① 1연에서는 '추웠지요', '했었지요'와 같이 과거형을 통해 사건이 화자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과거의 일임을 드러낸다.

1연의 '추웠지요', '했었지요'는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화자가 과거에 겪었던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1연의 '떨면서', '밀어 넣고', '파고들어'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동작의 변화를 실감 나게 드러낸다.

'떨면서', '밀어 넣고', '파고들어'는 모두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과거의 화자가 추위에 떨며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 안기던 동작의 변화를 실감 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2연은 '품어 주던 그 가슴이', '한 줌 뼛가루로 삭아'와 같이 과거형과 현재형을 함께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화자를 '품어 주던'(과거형) 아버지의 가슴은 이제 '한 줌 뼛가루로 삭아'(현재형) 붉은 흙에 뒤섞여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연의 '부드럽고 여린 물살'에서는 현재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현재형으로 표현된 구절로, 한강의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살을 통해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89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짚기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아미를 숙이고……'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는 '아미를 숙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호접'의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정서적 여운을 함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오·이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늘이운', '곱아라', '파르란', '기인'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부연', '풍경', '처마', '호장저고리', '동정', '운혜 당혜', '대청', '거문곳줄' 등과 같은 전통적 소재와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여인의 움직임을 '한 마리 호접'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파르란 구슬빛', '자줏빛', '하얀' 등의 색채어를 사용하여 여인이 입은 의복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90 답 ㄱ, ㄴ, ㄹ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정서적 여운을 함축하고 있다.
489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ㄴ. 예스러운 말투를 통해 고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아름다운지고', '밝도소이다', '흔들어지이다'와 같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ㄹ. 전통 의상을 입은 여인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호장저고리', '열두 폭 기인 치마', '운혜 당혜'를 통해 여인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여인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있는 움직임을 '호접'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오·이

ㄷ. 헛짚기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 여인의 의복를 묘사하고 있다.
489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색채어를 통해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가 아니라 여인의 의복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어머님'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대화체를 통해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얼어붙은' 한강의 '얼음'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② 부재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역설적 상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부재 ~~처음과 끝부분을 대응~~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처음과 끝부분을 대응하는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화자 오류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시적 대상인 '아버지'의 거리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화자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492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짚기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꽝 꽝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대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은 화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꽝 꽝 얼어붙은 잔등'은 추위로부터 '부드럽고 여린 물살'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얼음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따라서 두 표현은 모두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된 표현으로 서로 대비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자의 아버지가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오·오·이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것은 자식을 걱정하여 보살피는 아버지로서의 화자의 모습이다. 이는 유년 시절 화자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화자로 이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틋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그런 추억'이란 자식의 추위를 막아 주느라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자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과,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한 줌 뼛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아버지의 죽음을 나타내는 '한 줌 뼛가루'의 이미지와, 화자를 품에 안고 외풍을 막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로 연결되며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화자가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는 것은, 추운 겨울밤에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와 연결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아낸다.

493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나)의 화자의 시선은 '호장저고리', '기인 치마', '운혜 당혜'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있군.
(나)의 화자의 시선은 여인이 입은 '호장저고리', '기인 치마', '운혜 당혜'로 상의에서부터 신발로, 즉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

오·오·이

② 화자 오류 (나)의 '눈 감고 거문곳줄 골라 보리니'에서는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눈 감고 거문곳줄 골라 보리니'에서는 아름다움에 도취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자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 오류 (다)의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과거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군.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어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부정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 오류 (다)에서 화자는 아버지가 '한 줌 뼛가루로 삭아 /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며 ~~죄책감~~을 드러내는군.
'한 줌 뼛가루로 삭아 /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자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⑤ 화자 오류 (다)에서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는 데서 ~~아버지가 더 이상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는군.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다는 것은 화자가 한강 물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음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더 이상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확인할 수 없다.

57 가 동물원의 오후 / 나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 다 문학에서의 이미지

작품 분석 본문 226~229쪽

가 동물원의 오후

작가 조지훈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식민지 지식인의 고독과 비애
특징 ①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함.
② 화자와 철책 안 동물들의 위치를 전도시켜 주제를 강조함.

한 줄 의미

❶ 시름을 달래러 (**동물원**)에 감.
❷ (**슬픔**)을 하소연하려 함.
❸ 울고 싶은 심정으로 (**시집**)을 읽음.
❹ 동물들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깨달음.
❺ (**나라**) 없는 시인임을 자각함.
❻ 통곡의 심정으로 (**낙조**)를 바라봄.

나 밤은 영양이 풍부하다

작가 김현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밤이 지니고 있는 성장과 생명의 힘
특징 ① 과실 '밤'과 시간 '밤'의 이미지를 중첩함.
② 의인법과 낯설게 하기를 통해 시적 상황에 참신함을 부여함.
③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줌.

한 줄 의미

❶ 달도록 고요한 (**밤**)
❷ 고요한 밤 (**어린것**)들의 자는 모습
❸ 밤하늘에 뜬 (**별**)
❹ 이성이 아닌 감성과 (**상상**)의 시간인 밤
❺ 꽃이 지고 (**열매**)를 맺듯 성장의 시간인 (**밤**)

다 문학에서의 이미지

갈래 설명문
주제 문학 속 이미지의 의미와 기능

한 줄 요약

❶ 문학에서 (**이미지**)가 갖는 의미
❷ 이미지의 (**기능**) – 신선감, 강렬성, 환기력

494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화자 오류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로 끝맺는 시행을 사용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가)는 '속삭이는 소리……'에서, (나)는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에서 말줄임표로 시행을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다)와 달리,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② 부재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와 (나)에 모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가)에서는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나라 없는 시인' 등의 구절에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495 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가)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
(가)는 동물원을 찾은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어조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2) 부재 (가)는 지향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
(가)의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에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부재 (나)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
(나)에서 자연과 인간이 대립되고 있지 않다.

496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가)는 (나)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난 너를 구경오진 않았다'라고 하며 짐승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① 부재 (가)는 (다)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어순을 도치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부재 (나)는 (가)와 달리,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와 (나)에서 어조가 변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부재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고조되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의 시선은 모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와 (나)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⑤ 부재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대비하여 장면을 인상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가)의 '낙조'에서 붉은 이미지를 통해 장면이 인상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색채어가 대비되고 있지 않다. (나)에도 색채어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497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화자 오류 (나)의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과 같이 비유를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삶의 유한함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꽃들'이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은 '꽃'이 떨어진 뒤에 '열매'가 열리는 자연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유한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오·이

① (가)의 '쇠창살', '철책', '창살 틈' 등의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어 긴밀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강렬성을 통해 단절과 속박이라는 시적 의미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다)에서 이미지의 강렬성은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에서는 '쇠창살', '철책', '창살 틈'이라는 유사한 이미지가 반복되는데, 동물원의 동물을 가두는 이러한 시어들을 통해 화자가 갇혀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한다는 점에서 단절과 속박의 의미가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와 같이 시각적 체험으로 얻은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미지를 통해 대상과 전도된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본다'는 화자가 짐승들을 바라본 시각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표현을 통해 짐승

들과 자신의 처지가 전도된 것 같다고 느끼는 화자의 상황이 형상화되고 있다.

③ (가)의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다)에서 환기력이란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정서가 환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저녁에 지는 햇빛을 의미하는 '낙조'는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로, '통곡과도 같'다고 표현된 것에서 비통한 화자의 정서가 형상화되고 있다.

④ (나)의 '별들'이 '질서 있게 못을 박는다'와 같이 친숙한 대상을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보아, 이미지의 신선감을 통해 시간적 상황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군.

(다)에서 신선감은 낯익은 대상을 낯설게 드러내어 참신함을 느끼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하였다. '별들'이 '질서 있게 못을 박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별'이라는 친숙한 대상이 '질서 있게 못을 박는다'고 낯설게 드러낸 것으로, 별이 뜨는 시간인 밤을 형상화하고 있다.

498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교체 (나)의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구체적인 장면을 추상적으로 나타내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한다.

(다)에 따르면 내용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하였다. (나)의 '밤은 상상으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시인들의 감성을 이끌어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밤'이라는 추상적 대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적 의미를 선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가)에서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라는 표현은 이미지의 환기력을 통해 화자의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라는 표현은 화자가 자신이 짐승들과 위치가 전도된 듯 단절과 속박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가)에서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에 해당한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는 실제로 들려온 소리가 아니라, 화자가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상상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통곡과도 같은 낙조'는 이미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의미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강렬성을 지닌다.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통곡과도 같은 낙조'라는 이미지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점점 깊어지는 화자의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며 의미를 집중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작은 벌레와 같이 / 이 고요 속에 파묻히고'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밤'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작은 벌레와 같이 / 이 고요 속에 파묻'힌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요하고 포근한 '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499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위축**: 어떤 힘에 눌려 졸아들고 기를 펴지 못함.
- **중첩**: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짐.

정·정·이

② 헛짚기 2연의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를 통해 독자는 '밤'이 '새벽'이 오기 전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어린것들의 숨소리'가 '파묻히고'는 '밤'이라는 시간이 작고 어린것들을 감싸 성장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 밤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이라 하였으므로, 시인의 감성이 위축된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1연의 '과실의 밀도'처럼 '달도록 고요하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라는 것에서 과실과 시간의 중첩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군.

〈보기〉에서 작가는 과실 '밤'과 시간 '밤'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실의 밀도'와 '달도록'을 통해서 과실인 '밤'의 이미지를, '고요하다'를 통해 시간인 '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4연의 '해체나 분석'과 '상상'의 대비를 통해 독자는 '밤'이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겠군.

〈보기〉에서 시간으로서의 '밤'은 이성적 사유의 시간과 대비된다고 하였는데, '해체나 분석'은 이성적 사유, '상상'은 감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4연의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임을 느낄 수 있겠군.

〈보기〉에서 '밤'은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시간이라고 하였으므로, '저들의 나래를 이끌어 준다'는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밤'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6연의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하는 것을 통해 독자는 '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시적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군.

〈보기〉에서 과실이 지니는 속성과 가치는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와 연결되어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벽을 향하여' '껍질'을 '서서히 탈피케' 하는 것은, '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00 답 (1) 중첩 (2) 시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나)에서는 과실 '밤[栗]'과 시간 '밤[夜]'의 이미지가 (대비, 중첩)되어 표현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나)의 작가는 과실인 '밤'과 시간인 '밤'의 이미지를 중첩하여 표현하고 있다.

(2) 교체 (과실, 시간)(으)로서의 '밤'은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창작 능력을 배시키는 것으로 그려진다.

시간으로서의 '밤'은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배경으로 형상화되어, 시인의 창작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501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망국민**: 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백성.

정·정·이

④ 화자 오류 공간Ⅱ에서 화자는 공간Ⅲ의 짐승과 전도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제장과의 단절을 지~~향한다.

공간Ⅰ은 현실, 공간Ⅱ는 동물원, 공간Ⅲ은 동물원의 '철책 안'이다. 화자는 슬픔을 하소연하기 위해 공간Ⅱ를 찾아갔으나 슬픔을 하소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나라를 잃은 처지임을 확인하고, 이는 공간Ⅱ의 화자와 공간Ⅲ의 짐승이 전도되었다는 인식으로 심화된다.

오·오·이

① 공간Ⅰ은 화자에게 소통이 제한된 억압적 상황이다.

'혼자서 숨어 앉아 시를 써도 /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Ⅰ(현실)은 시를 쓰는 것도, 읽는 것도 어려운, 즉 소통이 제한된 억압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② 공간Ⅱ는 화자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찾아간 공간이다.

화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하기 위해 공간Ⅱ(동물원)를 찾아갔다.

③ 공간Ⅰ에서 공간Ⅱ로 이동한 화자는 자신이 망국민임을 느낀다.

화자는 공간Ⅱ(동물원)로 이동한 후,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며 '나라 없는 시인'인 자신의 처지를 느끼고 있다.

⑤ 공간Ⅰ~공간Ⅲ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극적 인식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공간Ⅰ(현실)에서 공간Ⅱ(동물원)로 찾아간 화자가 공간Ⅲ(철책 안)의 짐승들을 보면서 자신과 짐승들의 위치가 전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극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2 답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화자 오류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깡

-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 **인위적**: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정·정·이

② ⓐ는 내면적 상황을, ⓑ는 외적인 상황을 부각한다.

ⓐ의 '속삭이는 소리'는 화자의 나라 잃은 망국민으로서의 인식을 드러내고, ⓑ의 '응헤야 소리'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흥겨운 상황을 부각한다.

오·오·이

① 헛짚기 ⓐ는 ~~대상~~화자의 처지를, ⓑ는 ~~화자~~농민들의 처지를 드러낸다.

ⓐ는 대상이 아니라 망국민으로서의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은 화자가 아니라 농민들의 처지를 드러낸다.

③ 범위 오류 ⓐ는 ~~후회의~~ 정서를, ⓑ는 자족의 정서를 환기한다.

ⓐ에 후회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는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흥겨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족의 정서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위 오류 ⓐ는 ~~인위적인 조건~~과, ⓑ는 자연적인 조건과 연계된다.

ⓐ는 화자 내면의 인식을 드러내므로 인위적인 조건과 연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이 다함께 부르는 노래이므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리라 할 수 있다.

⑤ 헛짚기 ⓐ는 ~~실제적인~~ 현상을, ⓑ는 ~~환상적인 현상을 유발~~한다.

ⓐ는 동물원의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짐승들이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화자의 인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인 현상이 아니다. 한편 ⓑ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이 내는 소리로 실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Memo

Memo